2021 내가 살아 온 이야기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일러두기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년에 이르렀다. 2020년에는 인터뷰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단행본 형태의 책자를 발간하였으나 2021년에는 인터뷰 전문을 가능한 그대로 살리는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결정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단행본 형식의 책자는 내용의 유기적 연관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인터뷰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2020년의 기획이 우연치 않게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에 맞추어져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후 이러한 기획이 적절하게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각 인터뷰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글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은 이미 대화내용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사료화 작업의 원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원래 ‘내가 살아온 길’ 기획은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화 작업을 통하여 가공되지 않은 1차 구술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었고 그것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후의 일이다.

‘2021년 내가 살아온 길’에는 아홉 분 - 강우경, 박종승, 원학운, 유동우, 이성균, 장정옥, 최영희, 한상희, 황선진 (가나다순) - 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분들의 면면은 굉장히 다양하여 따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진과 함께 실린 두어 가지 직책으로 대신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60대 후반과 70대에 걸쳐있는 이분들과의 대화는 주로 7~80년대의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의 현장을 실감나게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인터뷰 진행자의 역량부족으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과거의 개인적 체험을 드러내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아픔과 회한을 동반하는 작업이라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편집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1.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가감 없이 정리하는 수준에서 표기하는 것
1. 편집순서는 인터뷰 일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각 인터뷰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특별히 순서를 의식하고 읽을 필요는 없다.
1. 한글 철자법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것이 우선이라 문법에는 어긋나는 대목들도 눈에 띈다. 읽는 분들의 이해를 바란다.

60년대 이후의 인천지역 민주화 운동과정은 아직 충분히 정리된 수준으로 자료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고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역사에 기여한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자료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구술 기록화 작업도 그 일환이라는 점에 이 작업의 의의를 새삼 느낀다.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오경종 대표, 주안 미디어센터 남두현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구술과정에서 영상작업과 실무를 도와준 인천 민주화운동 센터 이영섭님, 구술 대화를 풀어 기록으로 재창조 하는데 직접 도움을 준 천운비 속기사가 없었다면 이 책도 기록물로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2021 12 31. 구술진행자 이형진

차 례

강우경 7

박종승 45

원학운 83

유동우 107

이성균 151

장정옥 195

최영희 239

한상희 301

황선진 333

강우경

- 인천 EYC회장
- 광야서점 대표
- 디딤돌교회 목사

일　　시 2021. 7. 1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이우재
대 담 자 강우경

이형진: 자, 오늘 2021년 7월 1일입니다. 어, 오늘은 인하대에서 70년대 학생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 하시다가 80년대 이후에는 구로 지역에서 민중교회 운동을 개척해 오신 우리 강우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화 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함께 계신 분으로 우리 이우재 선생님, 그리고 1년 선배이신 박종성 선배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예, 강우경 선생님, 저기, 54년생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우경: 예.

이형진: 인천에서 이제 출생하셨던 것 같은데요.

강우경: 예, 맞습니다.

이형진: 동네 이름하고 그리고 당시가 이제 54년이면 사실 전쟁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인천 사시던 그 동네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함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우경: 아마 제가 태어난 거는 송림동 어느 골짜기 같아요.

이형진: 그때는 골짜기였습니까?

강우경: 어, 그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 한 두세 살 무렵에 송월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 여섯 살? 쯤에 용현동에 이사와 가지고 용현동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용현동에서 초등학교 거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용현초등학교 나오고. 또 상인천중학교, 인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인하대학 나왔죠.

이형진: 집안 형편은 좀 어땠습니까?

강우경: 집안 형편은 뭐, 그때 당시야 잘 사는 집 친구들 몇 명 빼놓고는 다 비슷비슷했죠. 저희도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남의집살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름쯤에 그, 집을 아버지가 이제 집을 하나 조그만 걸 샀는데, 우리 집이 생기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뛰어놀고, 떠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형진: 용현동에서, 새집을. 예. 음, 아버님께서 직업이.

강우경: 아버지는 그, 젊었을 때 직업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그, 아마 그 해방되고 나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황해도에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많아 가지고 선거운동도 해 주러 다니고 그러셨다고 그랬었는데, 그 연이었었는진 모르는데 반민특위의 위원으로 조사부장으로 들어가서, 그 아마 그 이제, 그, 문화예술계, 이쪽에 이제 친일했던 분들 일부를 조사하셨다 그러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형진: 아버님이 그,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뭐 좀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강우경: 많이 안 하셨죠. 지금 이 얘기도 어머니한테 단편적으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형진: 그러면 황해도 출신이셨고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시나요.

강우경: 그렇죠. 서울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전쟁 나면서 제주도 피난 갔다가, 이제 피난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시면서, 고향으로는 못 가시고. 인천에 이제 형제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정착을 하니까, 인천에 정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형진: 선생님, 인하대 진학하신 것은 73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인천고등학교.

강우경: 인천고등학교.

이형진: 예, 인하대로 진학하실 때는 전기과이셨습니까?

강우경: 예, 그때는 이제 과가 아니고 계열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계열에 입학을 했다가 2학년 때 이제 과를 나눴죠. 그래서 전기과로.

이형진: 공학에 원래 뜻이 좀 있으셨습니까?

강우경: 그 뭐, 자라면서 많이 변하잖아요. 그, 자랄 때 이제 과학에 관심도 많았다가 그러다가 또 좀 자라다가는 다른 이제 뭐, 사회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졌다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 과정을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공대를 가게 되더라구요.

이형진: 공대생이었는데 학생운동에도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강우경: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구요. 그냥 그, 저희 고3 때. 그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유신헌법을 개헌을 하죠. 72년도에. 72년도 가을에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그때까지 배웠던, 이과에서는 일반사회라고 그랬어요. 문과에서는 정치경제 과목이라 그랬었는데, 그때까지 배웠던 일반사회 과목이 몽땅 다 흔들려버리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예비고사를 앞뒀던 우리 인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다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일반사회 수업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죠. 이거 헌법이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런 정도의 의식이있었어요. 그러다 대학 들어 가가지고서는 뭐 대학에서는 크게 별다른 이제, 그 저건 없었는데. 1학년... 1학년 때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냥 기독학생회 들어가서 그, 매주 목요일인가 그때 오후에, 강의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정도로다가 쭉 지나갔는데. 2학년 올라가던 이제 74년도에, 74년도에 3월말쯤에 그, 케이에스씨에프, 서울지역모임...

이형진: 대학교의 사회운동연합?

강우경: 아니, 기독학생회총연맹. 기독학생 총연맹의 서울지역모임, 서울 지역이 있었어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원래 1학년, 그 리더십 트레이닝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이제 2학년 막 올라갈 때니까 비슷하다 해 가지고 같이 모임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모임을 1박 2일 모임을,

지금 이제 성공회대학교. 거기에서 1박 2일 모임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며칠 뒤에 민청학련 사건이 터진 거죠.

이형진: 그러면은 그 시점이 정확히 74년...

강우경: 74년. 3월 31일, 4월 1일, 그때 이제 성공회대학교, 옛날에 미가엘 신학원이에요. 거기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서 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다가 다양한 선배들, 친구들 만났죠.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민청학련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름으로다가 뭐, 사진으로 보니까 다 흉악무도한 사진이 돼 있죠. 신문에 나온 사진들이. 저,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 이놈들 진짜 빨갱이구나 할 정도로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며칠 전에 만났던 선배들이고 하니까, 아, 이거 아닌데. 그때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74년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그 선배들, 그 케이에스씨에프에서 구속된 선배들, 그 다음에 간사들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우재: 제가 좀 추가하자면 황인성 선배,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네요.

강우경: 황인성, 나병식, 뭐 케이하고 관련이 됐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모임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한, 5월인가 6월 달 쯤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그게 이제 목요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굳어졌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이 됐어요. 목요기도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숨통이 조금씩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형진: 선배님은 꼬박꼬박 참여하셨습니까?

강우경: 다 참석은 못하고 인천에서 가야 될 땐데, 그때, 74년도 8월 15일 날 전철이 개통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경인선 기차죠. 그게 이제 기차 타고 종로5가까지 가려면 서울역에 내려서, 또 종로5가까지 버스 타고 가고. 굉장히 그게 길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에는 못했고,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부터는 그래도 동인천역에서 한 시간이면 갔었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었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이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형진: 그, 목요기도회에서 혹시 기억나는 과정들이 좀 있었을 텐데...

강우경: 그러니까 목요기도회에 모이는 분들이 전부 이제 대부분이, 뭐 남편이나, 또는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렇게 이제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그런 기도회를 하고 뭐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집단이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 엔씨씨, 아니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서 하면 금방 그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종로5가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그 회관 앞으로 나와서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와서 이제 그 구호도 외치고 이러면 또 지금처럼 전경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사복형사들, 하고 해 가지고 와서 이제 엔씨씨 쪽에 어른들하고 몇 마디 하다가 또 가고 이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마음으로 전달이 되라고 하는 거였겠죠. 그러면서 그때

만 해도 운동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예요. 그럴 때니까 이제 찬송가 가운데서 그런 그, 좀 사람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좀 있었어요.

이형진: 우리 승리하리라 이런 거.

강우경: 아, 그거는 찬송가에는 없었어요. 그건 찬송가에는 없었는데, 뭐 뜻 없이 무릎 꿇는, 그런 노래. 어느 민족 누구게나. 뭐 이런 노래들. 이런 찬송들을 많이 부르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랬었죠.

이형진: 목요기도회를 주관하시던 목사님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강우경: 그거는 이제 엔씨씨 그때 인권위원회가 그때 당시에가 발족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인권위원회에 관계돼서 했고. 그리고 그거를 주관을 할 때마다 그 저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케이에스씨에프에서 맡아서 예배를 주관을 하고, 어떤 때는 뭐, 그 기독교회관 안에 연합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엔씨씨에 뭐 무슨 부서에서, 어떤 때는 기독교 장로회 뭐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형진: 강우경 선생님은 혹시, 그때 혼자 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인하대에서 같이...

강우경: 저랑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 왜 우리 박종성 선배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윤은식이라고, 윤은식이라고 그 이제 인하대 그 72학번이죠. 72학번이고 기독학생회, 그때 당시에는 제 2학년 때, 3학년이니까 그때 이제 회장을 했었죠. 기독학생회 회장. 그래서 같이 가고, 또 그밖에도 이제 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들도 몇몇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박종성: 김영순이도 있을 거 아니야.

강우경: 김영순은 그, 집회에 잘 안 갔어요. 알오티씨였었고 4학년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안 갔죠.

이형진: 그러면 갔다가 이제 오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많이, 힘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셔 가지고 이제 인하대에서 그,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점점 인하대 내에서 이렇게 일을 도모하시게 되는 건가요?

강우경: 인하대에서는요. 인하대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74년도 가을에, 가을에 어, 그 해 그 전점석 선배라고 윤은식 선배가 무슨 기독학생회 내부에서 이제 뭐 몇 명하고 해 갖고 무슨 공부를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해 갖고 그게 그때 당시에 무슨 공부였냐면 일본 그 수상 다나까. 다나까가 한참 망언을, 요즘 망언 이상의 망언을 하던 때죠. 그래서 다나까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모이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저하고 전점석 선배 둘만 모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9월 달이니까. 10월 말쯤인가, 10월 중순쯤인가에 이제 얘기들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몇 개 이제, 요즘으로 하면 동, 동아리. 동아리가, 몇 개 동아리가 모여서 논의를 해 갖고,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한 번 하자.

이형진: 아, 인하대에서요?

강우경: 예,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해 갖고 그, 기독학생회. 그리고 카톨릭 학생회. 그 다음에 샘동인회.

이형진: 샘 동인회?

강우경: 샘 동인회. 그리고 한국경제문제연구회, 외 네 개 동아리가 이제 앞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뒤에는 인하대학신문사, 그, 사람들이 좀 같이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기로 하고 날짜까지 다 잡아갖고 준비를 다 했어요. 유인물도 만들고 순서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인쇄하고 뭐 이러는 거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학교에서 가까웠으니까.

이형진: 아, 선생님은 참 무슨 교회 다니셨습니까?

강우경: 거기,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용현고개에 있던 교회인데. 제칠교회라고.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서 밤에 뭐, 목사님이나 또는 사찰 집사님 몰래 가 갖고 다 등사를 한 거죠. 등사를 해 갖고 이제 내일 가지고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그게 먼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인물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뭐, 잘 알고 있던 인천경찰서 형사들이, 그 후문 있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 있더라구요. 우리는 거기 붙들려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안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선 이제 뭐 딴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기를 야, 너하고 누구하고 뭐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이제 며칠 피해 있는데, 또 내가 나타나야 누가 또 경찰서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뭐 가 봤죠. 그랬더니 한 이틀 조사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해, 그해에는 그러고서는 나왔어요. 그해에는 그러고서는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그런 과정들이, 이제 사람 의식을 깨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형진: 선생님, 지금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이제 74년이고 2학년이었으면 사실 스무살 때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였거든요. 그, 떨리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텐데. 그리고 이게 소수였잖습니까? 사실 카톨릭 학생회, 그리고 이제 기독학생회, 그리고 샘 동인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학청년들인가요?

강우경: 그렇죠. 시 쓰는.

이형진: 그런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그게 배경을 넘어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강우경: 기독학생회가 그때까지는 컸어요. 조직이. 그리고 인하대학 내에 지금은 뭐 기독교 관련된 동아리가 많이 생겼던데, 그때는 기독학생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대학생 선교회 이런 것들도 없을 때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기독학생회에서 이렇게 분화돼 갖고 나뉘어져 나갔죠. 그래서 기독학생회가 사실 전체 모임은 많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이형진: 몇 명 정도 됐습니까? 1, 2, 3학년 합쳐서?

강우경: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 그 이렇게, 저 목요일날 예배드린다 이렇게 모이면 그게 시간들이

다 맞질 않잖아요. 그래도 한 3, 40명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빠진 게 있는데, 인천에서 이제 기독 학생 연합모임이 있었어요.

이형진: 아, 인하대만이 아니고?

강우경: 인하대만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인천에서 기독 학생 연합모임 하면 인천교대. 그 다음에 그때는 지금은 뭐 다른 학교들도 많아졌지만 인천 간전. 인천 간호.

이형진: 간호전문대학교요?

강우경: 그때는 이제 간호전문학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문학교과정이죠. 옛날에 지금은 전문학교들이 전문대학으로 다 바뀠잖아요. 대학들로.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문학교라고 그랬었는데, 인하대, 인천, 아니, 경기간호, 간전, 그 다음에 인천교대. 이렇게 세 학교가 연합으로다 행사도 가끔 하고 그랬었어요.

이형진: 인천대학교는?

강우경: 그때는 없었어요.

이우재: 학교가 아예 없었어. 74년 10월 그때가 서울에서도 막 그, 인천 학년 학생들 석방하라고 막 이렇게...

강우경: 그렇죠.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하고 이러는데, 74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그 해에 그, 동아, 그 언론자의 수호,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론자유수호 그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가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형진: 백지 광고 사태가 이제...

강우경: 그래서 연말에 이제 케이에스씨에프에서 동계대학을 하는데, 그때는 다 이제 저 사람들 다 구속돼 있는 상태고, 나와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재건을 노리는 그런 모임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안양농민 교육원에서 이제, 연말에, 동계대학을 하는데, 둘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서울을 갖다 오는 사람이 갑자기 뭐 소식을 전하는데, 동아일보가 백지광고가 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 연말서부터 백지광고를 하게 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75년도, 그 신입생 그 이제 입학시험 보고 막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인하대에서는 그럼 우린 뭐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아일보 광고를 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를 또 뭐, 가두판매도 하고. 시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입학시험 보는 날은 학부형들한테 김밥 팔아가지고 수익금으로다가 광고 내자 해 가지고, 그 포장마차 하던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김밥을 말아가지고 파는데, 학생처에서 와서 또 뭐, 팔질 못하게 하는 거야. 팔지 못하게 해가지고 남은 거 먹느라고 혼난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75년도 1월 2월 이렇게 지나갔죠.

이형진: 선생님, 저기, 74년에 민청학년 사건 당시에 일부 그니까,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잖습니까?

강우경: 그렇죠.

이형진: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두렵지 않았습니까?

강우경: 뭐, 그때 젊었을 때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 않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야, 민청학년 관련된 선배들 사형. 그 다음에 또 그 인혁당. 사형. 그때까지만, 74년도까지만 해도 사형선고가 내려지고서는 75년도에 인혁당이 그, 사형 집행 됐죠.

이형진: 4월 9일.

강우경: 그 인혁당 사형 집행될 때까지만 해도 크게 뭐,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와 닿는 거는 없었어요. 젊은 시절이니까. 사형선고 받았구나, 뭐 이런 정도, 담담하게. 그런데 이것은 정당한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은 했었죠. 이런, 판결이라 그러는 것이.

이형진: 선생님, 기독학생회하고 이와이씨,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학생운동, 인하대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과정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우경: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형진: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하대 학생회.

강우경: 저는 이제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고, 인하대 기독학생회 활동을 했지만 75년도에 그, 학도호국단이 생기면서 인하대 기독학생회도 와해가 돼요.

이형진: 아, 학도호국단이 생겨서요?

강우경: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는 얘기로다, 하던 얘기로는 기독학생회는 전국조직이에요. 각 대학에 있으니까. 그리고 기독학생회 이제 전국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언더라고 표현을 하면 딱 좋은데, 아, 학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학생사회개발단.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각 지역에서 소위 저 민중선교회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방학 같은 때 현장에 들어가요.

이형진: 농촌활동 같은 거...

강우경: 농촌활동보다도 공장에. 공장이나 빈민 지역에.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 학도호국단을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국 조직이 있는 그, 케이에스씨에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인하대 기독학생회도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렸었어요.

이형진: 학도호국단이 기독학생회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까?

강우경: 적대적인 관계는 아닌데, 전국조직 자체를 없애느라고, 그, 학도호국단을 만들면서 각 대학에 동아리들이, 이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는데, 이거는 기독학생회는 더더군다나 신앙조직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모이면 전국적으로다가 이렇게 연락, 연락, 연락하면은 한 번 쫙 모일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하여간, 뭐 제 얘기가 확실한 얘기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형진: 그러면 인하대 학생운동은...

이우재: 제가 좀 보충하자면, 민청학년 사건이 그렇게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게 그전에는 그냥 각 대학에서 데모를 했는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집중타격을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학생회는 그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형진: 인하대 학생운동은 그 과정에서 그니까, 위축되면서 선생님은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잖습니까? 어, 지위나 역할이 자꾸 이렇게 생겼을 거 같습니다.

강우경: 3학년 때 이제 그 아까 그 긴급조치 7호 그 얘기 나오던 그 무렵에 인하대에서도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이 앞에 나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섯 명이 학사징계를 받죠. 그러면서 학사 징계를 받고, 저랑 몇 명이 이제 무기정학 맞았다가 이듬해 76년도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그, 복학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기가 별, 거의 힘들고. 그냥 옛날에, 그냥 얼굴 안면 정도로다가 친구로다가 만나던 사람들은 만나도. 그랬었는데, 이제 76년도까지 그렇게 지나가요. 학교에서는.

이형진: 그러면 75년, 6년 이럴 때 기도회 말고 학교에서 학내 시위 같은 거는 좀 있었습니까?

강우경: 75년, 6년도에는 없었죠.

이우재: 75년도 긴급조치 나기 전에, 그 이후에는 없었죠.

강우경: 그때 있었다가 그 후에는 없었죠. 그렇죠.

박종성: 75년도에 그때 그 애들이 탈바가지들 쓰고 탈춤 추다가 다 공연하면서 유인물 뿌려서. 그때 이제 학교에 동아리들 다 와해시키죠. 그, 탈을 쓰니까 채증이 안 되니까 누군지 의심만 하지, 그래서 그걸 다 없앴죠.

이형진: 아, 그게 75년도예요?

강우경: 예, 75년도에.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그걸 만드니까, 못 만들게 하는 거야. 75년도 이전 학번이 개입하면 어느 동아리고 못 만들게.

이형진: 아, 동아리 자체를 허가로 운영을 했군요.

박종성: 예, 75년 이전 학번. 그러니까 72학번이 개입되니까 못하니까 나는 뒷전으로 빠지고, 그래서

애들 탈춤 가르치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 77년도에 그때부터 다시, 그런 그 이념서클이 목사님 이제 그때는 각, 회사 계셨나? 학교...

강우경: 70... 아니야, 학교 다닐 때예요. 75년도에는 짤려 가지고 76년도 봄에 복학을 했었으니까.
이우재: 무기정학 받아갔고.

박종성: 내가 군대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복학해서 이제, 그게 그 75년도에 제대로 된 데모를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형진: 박종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탈을 쓰고 하는...

박종성: 민속 극회가.

이형진: 민속 극회.

박종성: 예, 길놀이 하면서 거기 이제 추임에, 다 욕하는 거. 박정희 욕하고 유신 욕하고 그러는. 그것을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유인물을 뿌려놓으니까, 다 구경 왔어. 그때 축제 때, 그 가을에 축제 때.

이우재: 그 유신이 시퍼럴 땐데. 75년도에 시퍼럴 땐데.

강우경: 맞어.

박종성: 그때, 봄인가, 지금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봄이나 가을이에요.

이우재: 아니야, 가을이 아니라 신동수 선배님 탈춤 하나 민속협회에 구속되고 그러는데 가을에,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봄이었을 거야.

박종성: 그러면은 봄이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휴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떠들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구.

강우경: 그때, 그 무렵에, 그 율목동 그 도서관 있는 쪽에, 거기 광명탈춤 인간문화재 한 분 계셨더랬다구. 그래가지고 거기 아까 저기, 병구형 얘기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인하대 이제, 학생들도...

박종성: 아, 그분이 와서?

이우재: 그 다음에 황선진 선배

강우경: 응, 같이들 거기 가가지고 그 탈춤 연습도 하고 배우고.

박종성: 병구가 전수자가 돼 가지고, 77년도에 이제 와서.

강우경: 그러다가 이제 그 이 기독학생회도 거의 그런 상태였었다가, 학교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교회 활동을 주로 했죠. 교회 활동.

이형진: 선생님께서 어떤 76년에 이제 무기정학 후 복학하셔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랄 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강우경: 그렇죠.

박종성: 아, 그때 동아리나 뭐 이런 모임을 못 갖게 다 해체를 시켰으니까.

이형진: 학도호국단이 있고, 학생회도 와해됐던 건가요?

박종성: 학생회를 대체한 게 학도호국단이니까.

강우경: 그렇지. 학도호국단 대신, 학생회를 대신 만들은 게 학도호국단이었으니까.

이우재: 그런데 그게 분위기가 조금, 내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유신 선포 이후에 그 75년도 가을에, 그 탈춤 그쪽 계통으로 연합들 미수사건으로 처리되고, 76년도 12월 달까지 전국에서 대모 한 건이 없었어요. 76년도 12월에 박성훈이 주도한 내부 최초의 데모였어요.

박종성: 그 당시에 모든 모임이 있질 못했으니까.

강우경: 그래서 이제 그 76년도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성경 공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모임을 그냥 쭉 지속해오던 과정에서 성수. 성수란 놈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김성수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이우재: 서울대학교 74학번이에요.

이형진: 예, 김성수 씨?

강우경: 그러면서 이제 그, 얘가 서울에서 아무래도 뭐 케이도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더 자주 만나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관련이 돼가지고서는 인천에서 무슨 조직을 한 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교청. 그러니까 학교하고 교회청년회.

이형진: 아, 교회청년회?

강우경: 응, 그러니까 기독학생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해보자. 이런 이제 발상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로 하면은 뭐 새문안 교회라든지 또는 기장 서울 제일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청년회 대학부들을 통해가지고 학생운동을 활성화 시켜보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인천까지 같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인천까지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각 교회에 교회마다 그래도 신앙이 보수적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앙이 보수적이니까 저는 보수적인 놈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제대로 보

수적인 사람은 그걸 지키려 그러거든. 원칙에서 이게 어긋났다, 내 신앙 본질에서 이거 어긋났다 그러면 이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친구들이 교회마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물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뭐 기장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동창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별로다가 이 조직을 강화를 시켜나가기 시작을 해요. 소모임이지만. 그러면서 그게 연합회조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교단연합회죠. 교단지역 연합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인 전국 연합회 조직도 거기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와이씨. 기독청년협의회. 이것도 이제 전국 조직이 있었는데, 지역에도 지역 이와이씨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역 이와이씨들이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 각 교회에 퍼져 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모임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결국 인천에도 인천 이와이씨가 만들어지게 됐었죠.

이형진: 그러면은 강 선생님께서는 인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칠교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건가요?

강우경: 칠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다가, 그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복잡한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그 뭐, 파벌이라든지, 또는 누굴 누가 밀어내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우리가 참 좋아하고 따르던 목사님을 내쫓으려 그러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를 저버리고 아, 이제 다른 교회로 가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간 데가 이제 제삼교회였어요. 송림동 로타리에 있는 제삼교회 가 갖고, 그 제삼교회 갔을 때부터 말하자면 연합회. 청년연합회, 이와이씨, 이런 거 만드는 일들을 이제 같이 했던 거죠.

이우재: 김성수가 그때 제일교회, 김성수 제일교회였거든.

강우경: 제일교회.

이형진: 그게 그러면 그, 인천에서 이제 기독학생회를 대체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청년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까?

강우경: 음, 거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인하대 이제 기독학생회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76년도가 지나면서 77년도에, 77학번으로다가 그 제삼교회 다니던 이제, 나와 다니는 후배들이 둘이 입학을 해요. 인하대에. 그래 가지고 그 친구들을 통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 제일교회에도 하나가 있고. 창녕교회도 있고. 또 만석감리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예닐곱명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서는 바이블 스터디를 해보자. 제일 접근하기 편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일 접근하기 편한 게 성경공부예요. 그걸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서는 모이다가, 77년도에 이제 그렇게, 그것도 뭐 처음부터 모였던 게 아니고, 한 가을쯤부터 모였죠. 77년도. 걔네도 1학년 들어오자마자 모이긴 힘드니까. 가을쯤부터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기독학생회 부활을 시키려고 그러던 작업을 못해요, 제가. 그러고 제가 졸업해 버렸죠.

이형진: 아, 학교를 졸업.

강우경: 응, 졸업했는데, 그래도 씨앗은 심어놨으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이제 80년도에 기독학생회 부활을 시켜요. 이 친구들이.

이우재: 이름이 누구예요?

강우경: 이제 경섭이, 지용이, 기영이, 영숙이, 뭐 이런 애들.

이형진: 그 동안의 그 과정에서 76년에는 군 입대 하셨다가 의가사 제대...

강우경: 의가사가 아니고 76년도에, 그 75년도에 무기정학 맞고서는 있는데 요즘 같으면 무기정학만 맞으면 그때 한참 살벌할 때 같으면 무기정학만 맞아도 바로 군대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때는 어찌된 일인지, 1년 동안 놔두더라고. 그런데 1년 동안 복학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아이씨, 군대나 가자. 그래 가지고 이제 신검을, 내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병 있는 거는 이제 감추고 받았죠. 그랬더니 1급 갑이 떡 나와요. 그래서 뭐 2월 달에 군대를 오래. 76년도에. 그래서 2월 중순에 군댈 간다고 갔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신체검사 시작한다고 청진기 먼저 갖다 대더니, 지구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서부터 지구병원만 보름 동안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가라 그래갖고 이제 와서, 면제가 된 거죠.

이형진: 그러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강우경: 그러고 나서 좀 있는데, 뭐,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뭐 어쩌고, 불러. 그래서 갔더니 복학 시켜준다고. 3학년 다시 복학을 해 갖고 76년도에 복학하고, 77년도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아까 기독학생회 나중에 만든 그 후배들, 2학기 때부터 그렇게 이제 만났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78년도 같은 경우에는 79년도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형진: 한 2년간 그러면 취직을 하셨습니까? 77년 말부터요?

강우경: 예. 77년 말, 78년, 79년. 80년 1월까지. 직장생활을 할 때 그, 77학번 친구들을 그, 모임을, 매번 장소를 바꿔서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동인천 있는데 여관 여인숙 방 하나 빌려서 하다가. 어떤 때는 우리 집에서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무슨, 장수동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또 이제 케이에 그 황인성 동무. 인성이 형이나 권진관.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78년, 79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형진: 그러면은 강우경 선배님은 당시에는 어, 취직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후배들을 만나서 계속 그, 학생운동에 관여를 하신 거네요?

이우재: 그런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기독교 계통이고, 그 78년에 들어온 용호라든가, 뭐 홍영이 영근이 걔들하고는 77년,

강우경: 걔네들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

이우재: 78년 그때가?

강우경: 응.

박종성: 78년도에 직장 다니실 때.

강우경: 어, 그거 있다 진짜.

박종성: 어, 그때 이제 전점석의 이제 명령으로 주안공단에다가 야학을 차려라.

강우경: 걔네들이 주안 감리교회, 거기에서 야학을 해. 홍영이, 용호,

박종성: 동부교회라고, 거기다가 이제...

이형진: 주안에 있는 동부교회에서요?

강우경: 동부교회였었나, 그게?

이형진: 교회에서 이제 야학을 시작한 거죠.

박종성: 장소 빌릴 데가 없잖아요. 공장에서는 절대 안 빌려주고. 노동법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강목사님이 회사 다니면서 참여를 하셨죠.

강우경: 그, 주안동부교회가 주안역 저쪽 건너편이잖아. 내가 다니던 직장은 육공단이었었거든. 그러니까 가깝잖아.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들리는 거야, 그냥. 한 번씩. 내가 가르치진 못해도.

이우재: 그때 있던 애가 누구야?

강우경: 그게 이제 뭐 용호, 한왕이, 홍영이 얘네 들이야.

박종성: 이제 서울에 금호동에는 저기, 청계피복 아이들을 하는 그 저기 이제 노동야학, 이민교육 비슷한 그런 게 있었고. 하나 더 만들라 그래서 그때 만든 게, 강목사님도 그때 직장 다니면서 참석했고. 또 몇, 그런데 그때 전부 재학생,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지,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형진: 그 직장은, 실례지만 육공단에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우경: 사무실이죠. 저희 학교 졸업하면서, 4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 학교로다가 기업들이 추천 들어오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 대기업들은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통이라고 그때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었는데,

이형진: 아, 배터리 회사 아닙니까?

강우경: 맞아요.

박종성: 신생 기업이었는데...

강우경: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엘리베이터, 그 서통 전기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 모집을 하는데, 니네 갈래? 그래. 지도교수가. 그래서 저랑 이제 한 친구하고 둘한테 그래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거기 이제 주안 육공단에 있는 데였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기설계를 했었어요.

이형진: 그러면 전기기사 자격도 얻으셨습니까?

강우경: 아이, 그거는 그때 우리 졸업하던 해에 전기기사인가 전기설비기사인가 그런 자격증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공사기사.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자격증 따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험 본다 그래도 뭐 그냥 평소 때처럼 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듯이 가서 보면 되겠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별 관심이 없을 때니까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엔 안 봤죠.

이형진: 어쨌건 그러면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육공단에 있었으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그러니까 퇴근해서는 이제 야학활동 하는 후배들을 만나고, 하셨다는 거죠?

강우경: 예. 그때는...

박종성: 그때 설립에 처음 이제 가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야학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강우경: 하여간 뭐,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야학은 야학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응?

박종성: 퇴근하고 선배가 오면 그게 힘이 되는 거지. 그때 난 학교 다닐 때니까. 4학년 복학해서.

강우경: 어떻게 그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지, 지금 같으면 못할 텐데.

이형진: 그 교회 이름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우경: 동부감리교회.

이형진: 동부감리교회. 어, 그런데 거기 이제 야학지도 하던 학생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모았으니까.

박종성: 노동자들은 이제 그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모아서,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강우경: 그렇죠. 거기 이제 야학을 하고, 얘네 들이 학내 시위하고 이러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저 동부감리교회 목사하고 얘네 들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이형진: 79년까지, 80년 초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강우경: 그, 78년, 80년 1월 달에 직장을 그만 뒀거든요?

이형진: 그만 둔 계기는 뭐였습니까?

강우경: 그, 80...

이형진: 10. 26 직후였습니다.

강우경: 그렇죠. 10. 26 직후에, 80년, 그 이제 79년 말서부터 그게 저기가 79년 말에 일어나나? 남민전 사건이?

이우재: 남민전이...

강우경: 78년이지?

이형진: 아니, 79년일 겁니다.

강우경: 아, 79년이야? 그런데 남민전 사건이 나면서 또 그 남민전 사건으로 인해서 케이도 또 타격을 받아요.

이우재: 아니다, 남민전 사건 79년 9월이다. 79년 9월.

강우경: 케이도 타격을 받아요. 케이에스씨에프도.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이제 왔던 성대 다니던 여학생 하나도, 지금 이름 기억 못하는데, 그 친구도 그 연루가 돼 있었다 그러는 얘기도 있었고 막 했었거든. 그런데 남민전 사건 이후에 기독학생 운동 내부에서 그 뭐 신보수 논쟁, 와이케이 논쟁,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형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강우경: 그 와이엠씨에이 하고 케이에스씨에프. 케이에스씨에프라고 그러는 게 그런거였대요. 원래는 케이에스씨엠. 기독학생운동. 하고, 와이엠씨에이. 와이더블유씨에이.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케이에스씨에프를 만들었었대요. 그랬는데 그, 만들면서도 또 내부에 그런 이제 노선 같은 거는 조금씩 틀릴 수 있었겠죠. 옛날에도. 그런데 이제 그 남민전사건 거치면서 신보수기독교운동 내부에서 신보수가 이제 고개를 내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형진: 구체적으로는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이우재: 서경석 맞죠? 그 신보수 주도한 사람 나 알아. 서경석, 인천에 김성수. 이렇게 가잖아.

강우경: 그렇지, 서경석,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신보수 쪽이 와이 쪽으로 가요. 케이하고 와이

하고 나뉘는데, 와이 쪽으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뭐 와이든 케이든 다 기독교 운동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와이 쪽으로 간 선배 하나가 나보고 그, 창원, 창원인가? 마산인가, 마산 와이엠씨에이에 그, 사회개발부를 만든대요. 사회개발부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뭘 할라 그러는 거냐면, 야학을 그전까지는 이제 전투적인 야학들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야학보다는 와이엠씨에이라고 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노동자들 그, 뭐 기술교육 하고, 뭐 이러는 거를 하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적임자가 공대 나온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까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안 갔어요. 저기, 마산엘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이제 직장은 그러면서 이제 그만 뒀죠. 직장은 그만 두는데, 그게 80년 1월달이란 말야. 80년 1월인데, 직장은 그만두고, 뭐 할까. 궁리를 하다가 그때 이제 사회과학 서점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이 서울대 거기 버스, 289 종점이었던데 광장. 광화문에 진흥, 뭐 뭐 뭐 해 가지고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인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사회과학서점을 하나 만들자.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해 4월, 4월 19일날 오픈을 했어요. 4월 19일 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4월 19일 날 문을 열고, 한 달만 에 5. 18이, 그게 난 거죠.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이제, 80년대로 넘어왔네, 벌써.

이형진: 그게 광야서적을 시작하는 과정이었습니까?

강우경: 그렇죠. 광야를 시작을 할 때는 그, 뭐 다른 친구들 한두 명 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같이 준비를 했다는 게, 같이 만나서 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대로 되진 못하고. 어차피 이게 쪼끄매도 사업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형진: 그러면 서점을 이제 직접 경영을 하시게 되는 건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월급 탄 걸로...

강우경: 하하하. 자금, 돈이 없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점포 임대료가 지금서 뭐 기억하는데,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가 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동인천에서 지금 그런 덴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보증금, 아니 월세, 월세 10만원인데도 월세를 어떤 때는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그 5. 18 직후에는. 뭐, 그때는 다 책도 안 보고 술만 먹을 때니까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점이라는 게 학생들이 와야 되는 덴데.

이형진: 광야서적은 동인천역 바로 앞에 있었습니까?

이우재: 카톨릭회관.

강우경: 아니, 그거는 이제 한왕이가 할 때 카톨릭회관이고.

이형진: 처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강우경: 처음에는 대한서림 있잖아. 대한서림이 축현학교 올라가잖아. 그 축현학교 정문 맞은 편 쪽에 있었지.

이우재: 지금 저 대성백화점 있는.

강우경: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이우재: 거길 내가 기억이... 아, 나는 수배 중이었고.

강우경: 거기 있었어요.

이형진: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아주 가까웠네요?

강우경: 그렇죠. 그러니까 방앗간이었다니까?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 동인천역에 내리면 뭐 다른 거 저거 약속 없으면 한 번씩 들려서 가는 거야. 책을 안 사도 왔다 가고.

이형진: 책은 안 사고 술만 먹고 갔습니까?

강우경: 아, 술이야 다른 데 가서 먹었겠죠, 뭐. 하하하.

이형진: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우경: 운영이, 그 뭐 그래도 그냥 물론 그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다 내 돈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빌려서 했던 거니까. 그런데도 또 그 서점 시작을 할 때 책꽂이 그, 만들고 이러는 거를,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가운데 그, 저기 뭐야 그 가구 공장, 그런데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네 회사에서 나무 잘라갖고,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와서 또 이제 조립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쉬웠죠. 그 책만 이제 꽂아놓으면 되는데, 책 꽂아놓는 건 또 뭐, 그때 이제 그 뭐, 사회과학 출판사들. 이런데 또 뭐, 한두 군데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 받고 소개 받고 해 가지고, 한 군데 알고 나니까 또 다른 데 연결이 되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책을 갖다 놓게 되고 인천에 도매상이 있잖아요. 도매상에서 책을 갖고 오는데, 거기는 막 일종의 떨이 식으로 갖다놔 가지고, 막 나중에 반품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이제 서점인데, 제가 한 2년, 징역 사는 기간 빼고 1년 좀 넘게 했을 거예요. 2년 가까이 했나 보다.

이형진: 그러면 80년, 4. 19에 시작을 하셔 가지고.

강우경: 4월. 82년 말까지 했을 거예요.

이형진: 아, 2년 정도 하셨네요. 5. 18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그리고 그 한 해 전에 겨울에 10. 26. 그리고 12. 12 사태. 그러니까 정치적인 격변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회사를 그만 두고, 서점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격변기에 또 학생들 만나고 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땠습니까? 광주 항쟁 이런 부분들 진행을 보시면서요.

강우경: 그, 하여간 서점이, 광주항쟁 나고 난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소식을 인천에서 인천에서는 소식을 그래도 좀 빨리 접할 수 있는 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

동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뭘 하나 툭 던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뉴욕타임즈 복사한 거. 광주 항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툭 던지고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게 돌려돌려 보면서, 인천에서 이제 소리 없는 소문이 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었죠. 5. 18 직후야 뭐 워낙 그런 상황이니까, 드러내놓고 뭘 한다 이러기가 힘들 때였었으니까. 심지어는 뭐 버스정류장에서 집에를 들어가는데, 젊어 보이니까 무조건 세워놓고 검문하고, 두들겨 패고 그럴 때니까. 그때는.

이형진: 인하대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까?

강우경: 서점에요? 인하대 학생들도 많이 왔죠. 인하대 학생들도 이제, 그런데 뭐 그게 저 일반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조그만 서점에 뭐,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겠어요? 그 관련된, 또 입에서 입으로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

이형진: 강 선배님, 그러면은 광야서적에서 그 옆에 삼치 골목으로 자주 왔다갔다 하셨겠습니다.

강우경: 아이, 그럼요. 그 눈 내리는 집. 삼치집. 하하. 그 대나무집.

박종성: 일요일 날 직장 다니다가 저기 가면 책방에 들러서 술 한 잔 먹고, 다시 또 서울 올라가고.

이우재: 그 쌔빠지게 도망 다니고 징역 살고 그럴 때구나.

이형진: 그 학생들이나 이제 또는 졸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 민주화 운동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교감했던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우경: 그렇죠. 거기 인천에서 이제 그, 서로 직접 관련은 없어도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몇 군데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삼치집. 또는 거기 그, 동인천에서 경동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에 계단 올라가면 감자탕집인가? 거기. 뭐 하여간 그런 집들이 몇 군데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몰라도 낯이 익은 얼굴들. 옛날에 뭐 저기 저 뭐...

박종성: 서점에 가면은 어디 누구 가 있다 거기 갔다고 얘기하면 그리 가서 모이고.

강우경: 글 깨나 쓴다 그러는 사람들 명동에 어디 가면 뭐 만난다 그랬던 것처럼, 인천에서 도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죠.

이우재: 그저, 용동 큰 우물에서 골목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던 집, 거기도 무지하게 많이 갔지.

강우경: 그럼.

박종성: 그리고 이제 좀 연로하신,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 다복집이라든가, 저 신포동에 그런 데 갔어.

이형진: 81년 말까지 광야서적을 하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강우경: 82년.

이형진: 82년에.

이우재: 81년에 감옥 갔잖아.

강우경: 81년도에 감옥 갔다가 82년도에 나온 거지. 제일교회 사건이지.

이형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우경: 제일교회 사건? 그거 뭐 제일교회 사건, 민우가 얘기 다 했겠지, 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별 저거는 아니었던 건데, 그니까 81년도잖아요. 80년도 5월 달서부터 이게 꽉 막혀 있던 시간인데, 81년도 봄에 인천, 제일교회에서 제일교회 대학부에서 이제 그, 함석헌, 또 누구더라, 한신대 교수였던 분인데, 그분 해 갖고 이제 한완상, 뭐 해 가지고 이제 초청 강연회 같은 걸 해요. 강연회를 하는데, 모처럼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냥 흩어지나 이게. 그러니까 제일교회에서부터 이 홍예문 넘어가지고 동인천역까지 내려오면서 또 노래 한 마당씩 부르면서 이제 뭐 으샤으샤 하면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인천 경찰서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목에 광야 서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천경찰서 형사들 가운데 뭐 고등학교 선배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이제 뭐 악의적으로 나한테 저걸 하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또 좀 다르잖아. 아이씨, 어떤 놈이 나를, 제일교회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오더니 이, 허리띠 있는 데를 턱 잡아가지고, 거기 잡히면 꼼짝도 못해요. 도망도 못 쳐. 뭐 그러더니 그냥 뭐, 저기 동인천역 파출소로 갔다가 인천 경찰서로 다시 가고. 그러더니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거지.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서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무슨 책이고, 뭐 서울에 뭐가 중앙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지네들이 그릴려고 그리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없잖아. 그 민우 동생 생우, 생우가 그때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

이형진: 이생우 씨요.

강우경: 생우가 괜히 그때 광야서점을 걔가 나 없을 때는 생우가 가게를 보고 있었거든. 그 보고 있었다는 죄 때문에 그냥 달려가 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민우한테는 안 미안한데, 생우한테는 아직도 내가 미안해.

이우재: 그거, 그거 했던 새끼가 내가 80년 8월에 잡혀갔을 때 나 조사하던 새끼거든? 그 당시에 경사였어. 박영규인가? 박영균가 하던 놈인데. 그놈이 80년, 그게 4월인가 3월이지? 저 81년 그 저 제일교회 사건이.

강우경: 81년.

이우재: 그 사건 때 그거 엮은 핵심자거든? 그게 나중에 총경까지 달았어. 총경까지 달았는데, 연구지역 걔 때문에 아주 욕을 한 번 되게 먹었지. 영근이가 국회의원 할 때 그놈이 경기도 도경에 있었어. 도경에 중앙 간부로 있어 갖고 같이 먹는데 그러면 영근이하고 알 거 아냐. 그래가지

고 영근이란 놈이 나한테, 아 저 형 여기 잘 아는 사람 있어.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새끼 아니야. 야, 이 개새끼야 전화 바꿔보라고, 영근 너 이 미친 개새끼 아니냐고, 그런 새끼하고 술 처먹고 웃고 앉았냐고. 걔한테 맞은 놈이 한 둘이 아닌데. 내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그 새끼가 박영모야. 그 사건 걔가 담당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잡아갖고 말똥 하나 올라가 갖고 그때 말똥 하나 다시 달아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총경까지 됐어.

이형진: 강우경 선배님, 81년에 제일교회 사건을 겪으면서 구속이 되셨잖아요. 구속은 몇 개월 됐습니까?

강우경: 그때, 10개월. 징역 10개월. 뭐,

이형진: 그게 그러면 83년에 이제 석방되시는 거네요?

강우경: 82년.

이우재: 그때 그러면 책방은 누가 했어요?

강우경: 그때 이제 내 바로 위에 누님이 책방을 보고 있었는데, 그 누님이 그래도 간신히 이렇게 그 뭐냐, 그 그냥 적자는 면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와 가지고 데려다가 다시 한다 그러니까 학교도 가야지, 책방도 해야지,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 안 되겠다, 하나만 하자. 그래서...

이우재: 학교를 가야 한다는 건, 신학교?

강우경: 어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할까, 그러는데 한왕이가 뭐, 입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니가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는데, 한왕이 한테도 내가 참, 그냥 줬어요. 사실은. 그, 서점 그, 보증금. 그거는 이제 뭐 내가 빌렸던 돈 갚아야 하니까 그거 밖에 안 받고 줬거든. 그랬는데 뭐 나중에 출판사 영업부장들한테서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내가 저한테 뭐 무지무지하게 손해를 입혀 가지고서는 인수해 준 것처럼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출판사들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그, 직거래를 하다 보면 큰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몇 권 팔렸으면 그거 개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데들, 그건 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 도 있고 한 데 없으면 또 안 되고 하는. 그런데 그런 데들은 수금하러 안 왔으니까 못 줬을 수도 있어.

이형진: 예, 강 선생님, 뭐 82년에 석방 후에, 그러니까 서적, 광야 서적을 정리하시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시는 과정에 어떤 심정적인 변화나...

이우재: 그 대목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자.

이형진: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진: 강 선생님,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한 10여년, 10여년은 채 안됩니다만 그러니까 그 인하대학

생을 포함해서, 당시에 청년들. 특히 이렇게 저항하던, 이런 청년들의 정서랄까.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강 선생님은 그, 교인으로서 이렇게 출발하셨다고 하시지만 사실 치열했던 시절에, 쉽지 않은 선택들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강우경: 그 인하대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하대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뭐 학생운동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난 건 없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기독 학생회 안에 학사단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사단 조직이 뭐, 어떤 선배는 인천판유리, 거기 방학 때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던 선배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직접 관계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학생들 분위기, 학생들 분위기는 그 인하대 같은 경우 그냥 일반적인 뭐, 그 유신정권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인 반대,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반 대부분의 학생이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도 좀 관심 갖는 학생들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직화되기에는 힘들었던 그런 시기죠, 그때는.

이형진: 강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우경: 그런데 뭐 다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크게 답답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그런데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일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정도 했었죠.

이형진: 그러면 모색하면서 이제 힘들게 보내셨군요.

박종성: 조금 보완하면, 이 77년도부터 다시 인하대학교에 그런 정서적으로 좀 조직화되고, 반유신, 민주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동아리들을 75학번 이후에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데 주로 77년도, 그때 입학생들 중심으로. 그때 그 당시는 1년여 동안은 서로 교류하면서 조직 강화하면서 내부에서 공부를 조금씩하고, 서적도 좀 보고. 뭐 몇 권 안 되지만은, 보고. 78년도에는 이제 좀 더 강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 이념 서클도 몇 개 생겨서 같이 동아리들끼리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조금 인하대학교에서 다시 한 번 또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형진: 아, 78년도에?

강우경: 그럴 때 이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형진: 박종성 목사님은 그때 안 계셨고. 졸업했을 때고.

강우경: 인천에서 그런 부분에서 인하대 학생들한테도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제 생각에는 동일방직, 똥물 사건. 그 78년도 2월 달인가 그때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끼쳐요. 그런 것들이.

이형진: 혹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하고 직접 교류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박종성: 산업선교회.

강우경: 그때, 그렇지. 인천 산선에 저희가 직접 뭘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는 못 했지만, 학생 때니까.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 실무자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이제 조화순 목사님이나 김동완 목사님. 또 다른 분들도 또 있어요. 이름들이...

박종성: 전점석이하고 그 뒤에 김근태. 선배가 그 저기 선교회에 실무자로 있으면서...

강우경: 점석이 형이 그때 실무자는 아니었어.

박종성: 아니, 그전에 이제 실무자였고, 그 뒤에 근태 형이 오면서 동일방직 사건, 그때 이제 좀 쟁점화를 거기서 많이 시켰죠.

강우경: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 기도 학생, 그러니까 인천기독교 청년 운동하는,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게 있었죠.

이우재: 제가 좀 보충을 하면 그 시기에, 77년도 78년도에 지역 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서울 통학하는 애들이.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학생운동권하고, 그 인하대 학생 운동권 이렇게 교류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강우경: 교회 청년들하고도 교류하고.

박종성: 맞어, 가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우재: 나도 이제 그런 거 배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고 뭐.

이형진: 혹시 서클 이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우재: 지성, 지성이 있었지?

박종성: 지성, 지성은 나중에 한국사회 연구회.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도 이제 그전부터 본격적으로...

강우경: 그래, 한사. 맞아. 영근이가 아카데미 했었을 거예요, 영근이가.

박종성: 민속극회, 백범사상연구회, 대우회,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개가 생기죠. 이제 75년 이전에는 기독학생회, 샘동인회, 한국경제문제연구회.

이형진: 그리고 카톨릭 학생회.

박종성: 그리고 카톨릭 학생회 이 정도가 있었고요. 75년이 되면서 다 해산이 됐다가, 이제 77학번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서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우재: 그게 그 영근이, 한왕이, 뭐 걔들이에요.

이형진: 그,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81년 3월에 구속되셨다가 석방되고, 그리고 이제 서점은 정리를 하시고. 이제 신학,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는 뭐였습니까?

강우경: 81년도에 신학, 그 장신대 신학대를 입학을 해요. 1년도에, 3월 달에. 그런데 그 전에 80년도에 갈려 그러다가 마산 내려가는 거하고 겹치고 하면서 신학교 가는 거를 포기를 했었죠.

이형진: 그리고 서점을 대신하셨고.

강우경: 그랬다가 이제 81년도에 다시 가게 되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다가 아, 학생운동은, 그러니까 사회운동은 계속하고 싶고. 아, 이게 달려가 가지고 얻어터지고 고문당하고 이러는 거는 좀 싫고. 그 목사가 되면 좀 덜 맞지 않을까.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웬걸, 아이,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두 달 만에 구속이 됐네. 그래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달려가니까 이제 터지고 깨지고 뭐, 고문당하고 막 그런 거야, 그때.

이형진: 구속된 사연은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교회, 예.

강우경: 제일교회 그 사건 때 그때,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끌려가가지고서는 작품, 걔네들 작품에 맞춰진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냐 하면은 전두환이가 이제 정권 탈취하고 난 다음에 81년도 5월 달에 국풍81을 해요, 광화문에서. 국풍81 반대 유인물이 광야서점에 누가 왕창 갖다놨어. 그래서 이제 돌리라 그런 거겠지. 그래서 생우도 그래서 달려온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서울에 조직이 있고, 인천에 뭐 지방책이 있고, 뭐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징역 살고 나온 건데, 하여튼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건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또 하나 한다면,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74년도 12월 달에 동계대학을 한다고 갔는데, 우리 학번들, 73학번들이 한 방에 이제 프로그램 낮에 끝나고 저녁 때 이제 한 방에 모여가지고 막걸리들을 한 잔 먹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뭐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감신대 학생이 하나 있고, 한신대 학생이 하나 있었어. 그 신학생들이 말을 기똥차게 하네, 얘네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신대 다니던 친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신학공부를 하게끔 해. 그런 그 매력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지금도 구로동에서 같이 민중교회를 하고 있는 친군데.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신학은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74년도 이후에.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있다가 광야서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81년도에 시작, 학교 들어갔다가 징역 살고 나오니까 복학시켜줘서 다니는데, 장신대에서는 제가 징역 살고 나오니까 그, 그때까지도 뭐 그렇게 징역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들어갈 때 분위기가, 장청운동 하던, 장로교청년연합회, 장청운동 하던 사람들. 이와이씨 하던 사람들. 케이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이가 저보다 많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 나보다 선배니까 나 징역 사는 동안 그래도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 재판 받는데 뭐, 학교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인천 그,

이형진: 학익동에?

강우경: 아니, 석바위에 그때 지청이, 주안에 있었어요. 거기 와 가지고 뭐, 방청하고, 이래 됐거든.

그러고 나오니까 저는 갑자기 유명인이 돼 버린거야, 학교에서. 저는 다 모르는데, 아니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몸은 징역 1년 사는 동안 몸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놈시키 저거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학을 해 가지고는 제가 징역 살 때 이제 신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두 개를 만들어요.

이형진: 징역 살면서요?

강우경: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두 개를 만드는데 이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 갖고 30대 미만. 30대 이상, 이래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그러니까 30대 미만은 현대신학연구회라 그러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30대 이상은 목회연구회. 이렇게 만드는데.

이형진: 강 선배님은 30대 이후로 분리되셨습니까?

강우경: 아니죠, 미만이죠, 그때. 그때는 82년이니까 스물일곱, 여덟인가? 그래가지고 복학을 하니까 이제 거기 모임 같이 합류를 했죠. 하면서...

이형진: 현대신학연구회요?

강우경: 그렇죠. 이름이 이제 현대신학연구회고 그 안에서는 뭐 그, 민중선교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한 거죠. 매주 모였어요, 그게. 매주 이제 그렇게 모이면서 신학생들이 또 이제 매주 모이면 거기서는 어디야 거기, 화양리, 화양리에 나온 화양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모임 끝나고 나오다가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거기서 또 뭐, 소주도 한 잔씩 마시고.

이형진: 화양리 저기...

강우경: 건대 있는 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신학교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아,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졸업하면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굳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우리 그, 통합주간에는 예장 그 통합주간에는 노동 목회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해 갖고, 그 노동선교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길 받아요. 신청을. 그래가지고 받는데, 우리 졸업하기 2년 전 졸업한 사람들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받는데, 훈련이 보통 뭐냐면 학습, 이론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를 들어가요. 위장 취업이지.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더하고 싶은 사람은 더해도 되고. 공장에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 활동을 하면서 어, 앞으로의,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자세보다 노동자로서 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그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과학 공부도 하고, 신학도 다시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 거쳐요. 그런 거를 1년 정도를 다시 해요, 졸업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그, 우리 통합 측에서는 교회들을 개척을 해요. 지역에다가. 그래서 처음에 한 데가 성수동. 대전. 안양, 대구, 네 군데에 교회, 지금으로 하면 민중교회죠. 개척을 해 가지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졸업하는 때에 와 가지고 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훈련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일반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잠깐 가 있다가, 지금 우리 교회, 디딤돌 교회를 85년도 5월 달에 개척을 해요. 그게 이제 85년도 5월 달

에 디딤돌교회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대학생들하고 노동자들, 어린 노동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이형진: 디딤돌은 구로구에서 시작하신 거죠?

강우경: 그렇죠.

이형진: 그, 목사님, 그러면은 84년까지 이제 장로교신학대학교. 그 장신대에 이렇게 그, 신학 공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 신학대학이 그때 상당히 진보적이었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건가요?

강우경: 학생들도 다 그런 거 아니고 일부만.

이형진: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신학연구회.

강우경: 학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에도 또 그런 비슷한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장신대 신학 자체가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 자체가 그때 당시 하던 표현을 중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합 측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막 진보적이더라도 그 사람을 내치질 않고. 보수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또 감싸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아우르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 같은 경우 그, 카톨릭 노동청년회처럼 뭐, 좌경용공 얘기가 나올 때도 교단총회 차원에서는 그걸 다 방어를 해줬었어요. 그런 시절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톡 튀어나와가지고 뭐, 분위기가 진보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었죠.

이형진: 85년에 3월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디딤돌을...

강우경: 목사 안수는 졸업하고서 바로 받진 못해요. 졸업하고 2년, 그 그때만 해도 2년 동안 단독 목회.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로 가지 않고 단독 목회. 아니면 농어촌교회. 이런 데에 단독으로다가 한 2년을 해야 안수를 줘요. 목사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87년도에 안수를 받았어요.

이형진: 그러면은 디딤돌 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구로구에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어, 목사님 연고로 보면 인천도 노동자들이 많고, 노동 도시인데, 굳이 구로구를 선택을 했던 데는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우경: 그게 뭐 특별히 다른 거가 있어서 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영락교회 대학부 출신인데, 대학부를 다녔어요, 교회를.

이형진: 아, 참, 결혼은 그래서 언제하셨습니까?

강우경: 어, 그랬는데 영락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여기서 야학을 하던 거예요. 구로동에서. 야학을 하쟀는데, 그때 이제 하던 야학이 뭐냐면 검정고시 야학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공장이 봉제공장, 전자공장, 이런 여공들이 많은 그런 공장인데, 그 대학생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모여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래 됐는데, 이 교회가 저쪽 뭐 화곡동인가 어딘가로 이사를 간

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공중에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나 봐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우리 그러면 교회 개척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다 그러고 하는 얘기를 여기 멤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사람 잘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5월 달서부터 바로 내가 가진 못하고 수요일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전도, 전도사로 간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85년 9월 말로다가 먼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10월 첫 주부터 디딤돌교회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죠.

이형진: 그러면 디딤돌교회는 이제 그때 개척해서 처음 만들어졌고, 초대목사가 이제 강목사님이 되신 거네요.

강우경: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어, 참...

이형진: 85년이었으면 어, 구로동맹 파업이나 이런 것들 옆에서 지켜보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우경: 구로동맹 파업 직후예요, 제가 갔을 때는.

이형진: 아, 10월이니까요?

강우경: 그거는 직접 경험 못하고 얘기만 들었죠. 얘기만 듣고, 우리가 가서 이제 직접 보고, 또 이제 저거 했던 거는 86년 3월인가 언제 그 박영진 열사, 분신한. 그 사건 때서부터 봤죠. 거기 있었죠.

이형진: 혹시 박영진 열사 그, 투쟁을 하는 과정은 뭐 교회와 직접 좀 연관이 있었습니까?

강우경: 그때는 민중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도 그때, 그때 민중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그럴 때였어요. 우리 교회하고 기장에 이제 한 교회가 있었고, 감리교회 또 하나가 있었고, 경수산선이 있었거든요. 경수산선 쪽에서는 관여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경수산선이 있던 지역이 독산동 그, 박영진 열사 다니던 신흥정밀 거기하고 가까운 데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그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사건 나고 나서 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영안실, 에 가고. 그럴 정도였었죠. 그때 초창기니까.

이형진: 86년, 87년 되면서 이제 그 구로, 일대도 노동자 대투쟁 과정이 있었을 거고, 또 그전에는 6월 항쟁을, 그 교회활동을 하시면서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강우경: 그 86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교회, 작은 교회들이 뭘 한다 그러면은 감시의 눈초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한다 그러면은 그 구로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늘 와가지고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노동자들 모이는 교회들은. 86년도에 이제 그렇게 진학하고, 이제 86년도에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연합모임 조직하는 제일 편한 방법이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일반 보통교회에서도 청년들 뭐 하자 그러면은, 야, 뭐 농구시합 하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공단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 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모이니까 재밌잖아. 우리는 한 교회만 모이면 얼마 안 되는데 세 교회가 모이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이고 난 다음에 한 번 그러면 우리 연합으로다가 야외예배를 가 보자 해 가지고 철산동, 우리 집 오셨드랬잖아요. 그 뒤에 그쪽, 도덕산, 그쪽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예배를 드려요.

이형진: 아, 산에서요?

강우경: 응.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하고 여름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연합으로 수련회도 한 번 가 보자, 그래가지고 저, 청평있는 데 거기 그, 뭐야, 설악. 설악면으로다가 거기 한 번 행사를 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늘어요, 숫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 교회가 일곱 교회가 해 갖고 연합수련회를 가요.

이형진: 몇 명 정도 갔습니까?

강우경: 연합수련회 갔을 때 그때가 한 100한 2~30명?

이형진: 아, 그러면 교회마다 한 30여명 정도씩은 움직인 건가요?

강우경: 20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설악면으로 가서 수련회 할 때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총자본, 총노동. 이런 제목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프로그램들을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 후에 이제 결실을 맺은 게 가을에 와 가지고 구로 지역, 처음에 민중교회 연합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작은 교회 연합. 구로 지역 작은 교회 연합.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86년도 가을에 그렇게 모임을 시작을 하다가, 87년도로 넘어오죠. 87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모임들은 계속 잘 돼요. 어떻게 되냐면 목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교회에 노동자들 프로그램을 하니까 실무자라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또 따로 각 교회마다 따로 모임 한 번씩 하고. 또 노동청년회. 또 모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삼중구조로다가 이렇게 매주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모임을 하면은 그만큼 그, 연결되는 그런 이제 돈독함이 강화되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87년도 그, 이제 87년도까지 쭉 이어지면서 87년도에 6월 항쟁 나잖아요. 그 87년도 6월 항쟁 나기 전에는 뭐 목사들이야 뭐, 종로5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박종철이 그 사건 나기 전에, 그 알기 전에, 벌써 이제 종로5가에서 연초면 해마다 그 신년 하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 서명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한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 나면서 노동자들도 시위에 같이 참여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6월 항쟁 때는 같이들 뭐, 서울, 서울역이니 뭐 광화문이니 같이들 나가는 거죠.

이형진: 그 대목에서요. 그러면 이제 디딤돌 교회는 어, 8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근거는 어, 야학하던 그 노동자들과 그 함께 이제 시작하신 거잖습니까? 그리고 그 일대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더 이렇게 결합해서, 그 행태를 유지하게 된 건가요?

강우경: 그렇게 되는데, 이 디딤돌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학생들도 대부분이.

이형진: 학생, 뭐 주민, 노동자 이런 건가요?

강우경: 주민들은 그때 없었고.

이우재: 검정고시 야학 할 때니까 뭐.

강우경: 학생들이 그냥 신앙적으로 아, 내가 좀 더 가졌으니까 노동자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인 거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검정고시 야학을 했지.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는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오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나마. 그나마 젊은 사람들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 그 경제적인 사정으로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나오다가 이제 86년도... 86년도 그렇게 하다가, 87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노동자들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바꿔요. 조금씩. 그러니까 검정고시 야학은 뭐 유명무실해졌고, 그러면은 그, 노동자 그, 노동 교육 같은 그런 걸 해보자 하면서 노동자 교실.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는 안 하고, 또 기타. 그런데 기타반이 제일 잘됐어요. 기타반이 제일 잘돼가지고, 소문이 나 가지고 씨비에스 그 뭐, 뭐더라 무슨 프로그램에서 와 가지고 취재까지 해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기타반 같은 경우는 한 5~60명까지 모였어요. 공간은 좁은데도, 나눠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모였는데. 이게 이제 다 구로 이제 2공단, 3공단 여기 다니는 노동자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잘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이제 공장 내부에서 노동쟁의들이 일어나잖아요.

이형진: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강우경: 그렇죠. 대부분 여성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87년도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왜, 6월 항쟁 나고, 그다음에 칠팔구 투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교회 목사들이 단식기도회 하다가 전경련 사무실 항의 방문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야. 대선에서 이제 대패하고 그러면서 구로구청 사건 있었고.

이형진: 예, 87년 당시 교회에 오던 노동자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쟁의 같은 걸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셨나요?

강우경: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지원을, 우리 교회 나오던 노동자들이 지네 회사에서 쟁의를 하면은 큰 거를 뭐 요청을 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업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그, 이제 뭐 머리띠 같은 것도 지네들이 만들어, 그런 거. 지네들이 다 만들고, 오히려 이제 밥 해먹어야 되고 이러는 도구들. 그거 가져가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을 교회 애들한테 요청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했었죠.

이형진: 사업장 많이 가 보셨습니까?

강우경: 우리 구로동 가가지고, 그 하여간 처음 가가지고서는 이제 공장이 뭐 여기에는 뭐 1공단에는 무슨 공장이 있고 2공단에는 무슨 공장이 있고, 그거 외우느라고 맨 날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고. 회사 앞에 가서, 어떤 때는 또 애들 불러서 만나고. 그랬었죠.

이형진: 야학은 이제 의미가 좀 없어졌는데, 그 노동자들은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을 보셨겠네요.

강우경: 그렇죠. 그게 이제 87년 지나고 88년 지나고. 그러니까 그 민주노조, 민주노총 만들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교회 없어도 하는 거야.

이형진: 그렇게 되죠.

강우경: 그러니까 교회 없어도 하니까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요.

이형진: 아, 또 이제 교인들이 줄어들었습니까?

강우경: 어, 노동자들은 이제 빠져나가는 데 두 가지 이유더라고. 하나는 그 이유고, 하나는 구로 공단에 있던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 그렇게 되면서 그 다른 지역으로 간 데는 그래도 그거 따라가는데, 외국으로 나가는 공장들을 따라 나가지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구로동에 구로공단에 남는 노동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죠.

이형진: 그러면 교회도 이제 위축이 됐겠습니다.

강우경: 그래서 90년 91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 노동청년회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다 하나씩 둘씩,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지네 회사 따라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없잖아. 야,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나. 민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공부방 같은 경우 사실 빈민 지역에서 시작이 됐죠, 많이. 그런데 구로동에서 공부방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대낮이죠. 낮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애들이 목에 목걸이 하나씩을 달고 있어. 목걸이에 그, 여기 달려 있는 게 보석이 아니고 열쇠예요, 열쇠. 열쇠인데 얘네 들 집 열쇠예요. 집이 그때만 해도 교회에 있던 골목 있는 데가...

이형진: 구로동 닭장집이었죠.

강우경: 닭장집, 그런 셈이죠. 그래가지고 문 열면 부엌, 그 안에 문 열면 방, 이런 집인데.

이우재: 화장실, 공동화장실.

강우경: 그렇죠. 공동 화장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못 여는 거야. 어려갖고. 그래서 엄마 올 때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집엘. 그래도 여름에,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엔 추운데. 그래서 야, 뭐 안 되겠다. 애들 엄마 올 때 까지만 이라도 좀 봐 주는 걸 뭘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그때 공부방이었어요.

이형진: 90년대 초였습니까?

강우경: 92년. 그러니까 91년 말까지 노동자들 그렇게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구로동에서. 그러다가 이제 할 일을 찾은 게 그거였었죠. 그래서 공부방을 시작을 하는데 저학년 애들은 그렇게 봐주면 엄마들이 나중에 그래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또 난리잖아.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갖고 애들 무조건 성적을 올리자. 그래서 과외 해주듯이. 아, 교회에 뭐 인력이, 공부 잘하던 사람들 있는데 뭐 그거 성적 올려주는 거 일이야, 그거? 그래서 성적을 이제 올려주니까 한 한 달쯤, 두 달쯤 지나니까 애 엄마들이 지네 애도 보내겠다고, 우리 애도 보내겠다고, 니네 애도 보내겠다고 막 그러더라구.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공부방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까지 많이 늘었었죠.

이형진: 지역아동센터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인 거죠?

강우경: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 공부방을 92년도에 시작을 하고, 90년대 중반 지나가지고 그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걸로다가 그 법제화하면서 그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 뭐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명칭이 이제 됐는데, 그전까지는 공부방이죠. 공부방 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 그때는 내가 뭘 해도, 누가 건드리지를 않았으니까. 지금은 돈 몇 푼 준다고 이제 간섭이 많거든.

이우재: 아, 구청, 관청에서?

강우경: 그렇죠.

이형진: 목사님, 그 87년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목회자로서 민중교회에 이제 또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진로 모색들을 계속하셨을 것 같거든요.

강우경: 어, 87년 그때 이제 대선 지나, 끝나고, 그 직후인가 그때 이제 각 지역의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모이자 그래가지고서는 거기가 어딥니까? 그, 양화대교 있는데, 천주교 수녀원인가 수도원인가 뭐 있어요. 거기에서 일박 모임을 해요. 거기서 일박 모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패배를 했지만 전열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지로다가 모인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뭐 각 지역별로다가 모이던 게 전국 모임이 된 거예요. 전국모임이었나? 거기까지는 이 수도권인가 봐.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해, 그 모임을 통해서 한국 민중교회 운동연합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서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 해 여름에, 88년도에 여름에 그 어디서 모였나? 영등포 산선인가 보다. 영등포 선산에서 모여가지고 한국 민중교회 운동연합을 창립을 해요.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창립을 해서 88년도 잘 지나가고, 89년도도 잘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데 뭐야, 그 89년, 90년 무렵에 러시아, 소련 그 이제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민중교회 운동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대오를 잘 맞춰 가지고 잘 갔는데, 그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민중교회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뭐 무슨,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나오고.

이우재: 노선 갈등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강우경: 어,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그만 두는 거야. 그만 두는 이유가 이제 그런 노선 문제에 있어서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어가

지고 이제 그만 두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우리도 이제 그 공부방 시작하는 그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중교회 운동이 약화가 돼요. 지역 모임 같은 경우도, 구로민교가 굉장히 열심히 모이던 그런 조직인데.

이형진: 구로 민중교회 연합?

강우경: 그렇죠. 열심히 모이댔어요. 매주 모이던 거니까. 그런데 누가 뭐 한 번은 아이,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입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김 휙 빠지는 거거든. 그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모이는 횟수가 줄면서 모이는 사람도 뭐, 까먹기도 하고 일부러 빠지기도 하고 이러게 되는 거죠. 조직의 결속력이 이제 느슨해지고 하면서 어느새 구로민교가 안 모이더라고.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예요.

이우재: 92년 넘어가면서 우리 운동 전반이 다 그랬죠, 뭘. 거기만 그랬나요. 전반이 다 그랬죠.

강우경: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민중 선교라고 하는 끈은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교단별로다가 기장은 생명 선교연대, 예장은 예수, 뭔데 하여간.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제 모여요. 교단별로다가. 그런데 그게 옛날처럼 초계파적으로 같이 모이기, 모이지는 못해.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는 있는데, 옛날처럼 이제 그 또 조직적으로다가 뭘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는데, 민중교회도 이제 고령화 돼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안 생기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 있는 거지. 누구 말마따나 젊은 피 수혈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형진: 목사님, 저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80년대 초에 이렇게 결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강우경: 아, 80년대 초에...

이형진: 그, 신학 공부 시작하실 무렵이었습니까? 구로에서...

강우경: 그렇죠. 신학공부 시작을 하고, 신학교 2학년 땐가, 그때 그 이제 장청, 장청 모임에서 무슨 뭐, 그 교육 모임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게 된 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지.

이형진: 장청 모임은 장로, 장로교 청년연합회.

강우경: 장로교 청년연합회.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돼 갖고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가을에 결혼을 했죠.

이형진: 그게 그러면 84년이었습니까?

강우경: 그렇죠.

이우재: 그런데 그때 왜 나 안 불렀어?

강우경: 너 안 불렀어?

이우재: 나 간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강우경: 아이, 씨, 어떤 놈이 와 가지고 내 발바닥 때리고 막 이랬는데.

이형진: 84년이면 그러니까 디딤돌교회를 만들 때?

강우경: 아니, 그 후죠. 디딤돌교회는.

이형진: 예,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야학하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까? 그러면?

강우경: 음, 아니구요. 그 장청 모임을 하는데 그때, 그때까지도 거기 연장선이었을 거예요. 교청, 교회 청년연합회하고, 학생운동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영락교회 대학부에도 일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거기에 포함돼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왔어. 그래서 거기서 나는 발제를 했는데, 거기서 만나게 돼 가지고서는 뭐 하다가 뭐 직접 연결돼 있던 거는 아니니까. 다른 후배가 관계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면서 결혼하게 됐던 거죠.

이형진: 그러면은 이제 디딤돌교회 시작하실 무렵에는 교회 일을 같이 이제 하시게 된 거네요.

강우경: 그렇죠. 그땐 결혼한 후니까.

이형진: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렇게 뭐 아주 큰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거의 모든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꾸려가셨다고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우재: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강우경: 우리 집사람이 돈을 벌었지.

이우재: 그 교회에서 형 먹고 살 길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강우경: 안 나오지.

이형진: 예, 그 교회 하시면서 뭐 여성 노동자들이나 구로 지역의 노동자들도 많이 만났을 텐데 그게 나중에 이제 87년을 지나면서는 그 구로 공단이 쇠퇴하면서 흩어졌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기억에 남는 노동자들 혹시, 지금도 뭐 교류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우경: 노동자들 같은 경우 교회 나왔던 노동자들이 지금 뭐 하나 정도가 이제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친구가 있는데, 직접은 연락 안 하고 남편 통해가지고 연락을 해요. 남편도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니까. 그런데 그 회사 이제, 직장 공장 다닐 때 노동조합 일들 다 하고 했던.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연락이 되는 게, 글쎄, 저는 우리 이제 관점이 신학의 관점에서 봐서 그럴지 몰라도 그 신앙심도 깊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도 크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섬긴다 그러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남죠. 그런 친구 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그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왔다가 빨리 공장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또 교회에 자주 보이질 않아요. 그 구로공단 민중교회 그 저거가 그 스타일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형진: 교회를 잠깐 거쳐가는 거였나요?

강우경: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이제 교육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해.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같으면 또 다른데, 그런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박종성: 노동, 노동야학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 저기 기대하기가, 몇몇 사람만 그냥 남지.

이형진: 목사님 그, 85년, 그러니까 디딤돌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끌고 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아동 지원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주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민중교회로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의 어려움들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는 과정의 힘은 뭐였을까요?

강우경: 글쎄, 그게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정리가 됐었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뭐, 민중신학 공부도 하고, 또 뭐 성경의 가난한 사람들이니 뭐니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때는 정리가 잘됐던 것 같은데. 그게 한 30년, 3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저도 그렇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잖아요. 연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처럼 그렇게 얘기는 못 해도 그래도 이제 중심은 그렇게 싣고 가요. 싣고 가는데, 야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내가 그만 두고 나면은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큰 교회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 모집한다 그러면 이력서가 막 쌓인다거든. 우리 교회 같은 데 누구 올래 광고 내면 누가 오겠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사실은 걱정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뭐, 중간 중간에 다른 친구들은, 야, 그러지 말고 후배들한테 좀 넘기고, 그러고 다른 일 찾아보지? 뭐, 서로들 그런 얘기들을 해댔는데. 목사가 딴 일 찾아봐야 뭐, 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교회 가는 거 아니면 없을 텐데. 이제는 뭐 다른 교회 가는 그럴 나이도 아니고. 은퇴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온 거는, 뭐, 그래도 신앙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그, 뭐, 어쨌든 간에 어머니 손잡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던 그 어린 시절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기억이 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은 몇 달씩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배를 못 드렸다가 한 번 가서 드리면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 징역 살고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학교 가서. 열심히 예배가 이런 거구나. 또 7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퇴원 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신앙에서 오는 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제가 몸이 시원찮으니까 아이고, 이 몸 가지고 아직까지 살려 주셨는데,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뭐, 거창한 건 없어요.

이형진: 아니, 괜찮습니다. 박종성 선배님도 뭐 목사님하고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또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확인해 볼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하시죠.

박종성: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 디딤돌교회 했을 때 그때 가 봤는데, 아유,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도 그때 그 아이들. 10세 앞에 선배님들. 그 아이들만 바글바글. 신자라고는 없었고, 학생들이 이제 봉사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건 교회, 진짜 교회의 목적이 무슨 와서 신앙심을 키우고 이런 곳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현지 동네 그 빈민촌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게 이게 교회구나. 강목사가 제대로 저기 하시는 구나, 후배지만. 친구죠 뭐, 1년인데. 그런 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때 가서. 그 뒤에도 뭐 이제 서로 다 다른 일을 하니까 직업이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거지만은 그때 크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뭐, 교회가 모여서 예배 보고 하는 그런 꼭 장소라고는 생각 안 해요. 바로 그, 민중교회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강목사가 실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형진: 목사님, 디딤돌 교회가 그 대림동 있는 데 그쪽에,

강우경: 남구로 역 있는 데.

이형진: 아, 남구로 역. 예, 그런데 현재도 거기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구로공단이 옛날하고 많이 변모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단지로 되고,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돼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굉장히 밀집돼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디지털 단지에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음, 아마 교회에 계시거나 이제 오다가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뜨일 건데, 혹시라도 이후에 목회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해 보시고 싶은 게...

강우경: 지금 구로, 우리 교회 주변에 그 디지털 단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그쪽에 원룸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디지털 단지가 직장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웬만하면 자기 집에서 다니고 하는데, 거기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그, 디지털 단지에 노동자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은 노동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노동은 한다고 생각을 해, 또. 그러면서 시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월급 얘기하고. 그래서 접근하는 게 옛날 조직 노동자들이 접근을 하는 거 하고, 이건 달라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 하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구로 가리봉 대림 독산역에 이 중국 사람 조선족이 많이 와서 사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또 한족하고 조선족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공부방에 와요. 그런 애들이 많진 않아도, 구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거기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 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나라 말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거든.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이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고.

이형진: 한글을 가르치나요, 교회에서는? 센터에서?

강우경: 학교에도 얘네 들이 학교도 가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말을 잘, 그건 우리나라

앤데. 옛날에. 우리 앤데, 엄마가 없었어. 아빠 밑에서 이제 삼 남매가 크던 애들이었었는데, 그 중에 막내인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얘를 붙들어놓고 옛날에,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매일. 그림책을 하나 주고서는 읽혔어요. 걔가 한 3학년, 4학년 됐을 땐데 너 오면 이거 몇 페이지까지 큰소리로 읽어라.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말을 제대로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조선족이나, 말하자면 혼혈이죠. 얘네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또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뭐, 놔둬야지,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원래 노동교회 하려 그러고 이랬던, 그런 저거니까 저는 이제 한 10년 전쯤에 영등포 산선에 그 왜 그 비석, 기념비인가? 그거 세웠다 그랬잖아. 그 무렵에 영등포 실무자들, 총무부에 있던 친구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등포 지금 해야 할 일은, 니네 비정규직 문제다. 옛날에는 공장 노동자들이라 그랬으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너네 핵심 저거가 돼야 된다. 그 후에 이제 비정규직 센터를 만들었어요. 영등포 산선에. 그런데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단지 같은 데, 플랫폼 노동자 비슷한 것들이지.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할라 그러면 내가 그 뭐, 우리 교회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런 거죠.

이형진: 이우재 선생님은 뭐, 하실 말씀이. 목사님 오늘 이제 그 인하대 73년도에 입학하셔서 그러니까 학생운동,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의 사회활동,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서울에서 민중교회 운동. 그렇게 해 오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 뭐, 좀 중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회고해 보시면서 좀 드는 소회랄까?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경: 오래간만에 옛날 얘기들 하니까 참, 엊그제 같아요. 오래간만에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했던 친구들 얼굴 보면 지금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모습들이 떠올라요, 그냥. 그리고 그때 우리 젊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거 해결해 보자 그러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해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해결해나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한참 또 우리가 이제 불렀던 노래가 우리 승리하리라.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승리하리라 였는데, 그 노래 부르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아, 참 요즘 사람들은 이게 모든 걸 다 핑계댈 거리들이 많구나. 응?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늘 긴장하고만 살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때는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옛날에는 뭐, 학생 운동도 하면서 또 딴 짓도 하고 막 그랬거든. 요즘 사람들은 딴 짓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삶의 의미 같은 거 찾는 것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형진: 예. 목사님, 불편하신 몸으로 이렇게 인천까지 오셔서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강우경: 예, 고맙습니다.

박종승

- YMCA 대학생부 갯벌클럽 회장
- 희정의 배움터 강학
- 시민포럼 사무국장

일　　시 2021. 8. 24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이우재
대 담 자 박종승

이형진: 오늘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인하대 학생운동과 이후에 사회운동 관련해서 오늘은 박종승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승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종승: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코로나로 힘드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승 선생님, 1953년에 충남 대덕에서 출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으로 오셔서 이렇게 계속 사시게 됐는데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이사하실 때부터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박종승: 어렸을 때 저희 그 조부, 조부가 그 방앗간을 하셨어요.

이형진: 충남에서요.

박종승: 예, 그 대덕에서 아주, 그 당시에 물레방앗간이 아니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대형 방앗간이었어요. 그러시다가 무슨, 그 딴 생각이 계셨는지. 저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학년... 다니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형진: 조부님하고.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식구들이? 예.

박종승: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거기 두산 인프라코어자리 한국, 옛날에 한국 기계. 거기 그, 구내식당 그, 사업체로 운영을 하셨어요.

이형진: 그러면 그 동네에 사셨습니까?

박종승: 저는 이제 인천 화수동. 송현 국민학교로 이제 전학 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일을 하셨고, 그러시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또 거기서 중간에 그만두십니다. 그러다가 그, 저는 다시 송림 국민학교, 송림동으로 이사를 와요. 5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거기서, 졸업은 이제 송림 국민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 그 조부하고 부친이 이게 했던 일들이라,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이게 할 수 없지만은 좀, 비즈니스들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저기 그, 한국 기계의 그 식당 그만 두시고 나서는, 활명수라고 옛날에는 약국도 많지가 않았어요, 동네가.

이형진: 예, 예. 소화제 말씀이시죠.

박종승: 예, 동아제약. 활명수라는 것이 이렇게 큰 병이었는데 시골에 가면 그걸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배 아프면 이렇게 뚜껑 열어서 이렇게 한 잔씩 줬어요. 외갓집도 가면은. 그 동아제약에서 파는 약을 저희가 대리점으로 해서 그 영업사원들 와서, 쭉 이렇게 영업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그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잘 못 하셨던 것 같애. 그 영업사원이라는 게 해서 다 할부로 주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압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이게 실패로 가는 거야 자꾸. 그리고 나서 이제 송림동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이제 부친이 취업을 하시죠. 다시, 이제. 그 한국 방직협회. 이제 수입하는 면화를 각 방직 회사의 쿼터 배정해서 나눠주는 그 회사에 이제 다니시다가 근무처, 회사는 아니고 이제 협회죠. 거기서 인스팩션 뭐 이렇게. 그런거 하시다 거기서 또 잘 안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이게, 조직 생활이라든가, 그 매니지먼트 관리 그런 게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만두시고. 또 그 뒤에는 뭐 일을 자꾸 하셨는데 대부분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동인천 송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인천 중학교를 진학하죠.

이형진: 1960년대에 지금...

박종승: 예, 1960년대죠. 그때 뭐 직업들이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그 혁명, 516 군사 혁명 이후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는 저희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 진학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형진: 많았을 겁니다.

박종승: 아 그럼요. 그 저기 뭐야 그, 학비,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사친회비이라고. 그 요즘의 운영비지. 그게 냈어야 됐으니까. 그게 의무 교육이 아니었다고, 100프로. 그 교과서 사야 되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헌책을 갖고 다녔던 아이들, 막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그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해서 좀 우리가 얘기하는 좀 평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학교들로 다 진학할 수가 있었죠. 세칭 이제 일류, 중고등학교, 뭐 일류 대학.

이형진: 박 선생님께서는 그때 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예, 그리고 이제 진학을 그러면 제물포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박종승: 아니, 저는 동인천 중학교도 선생님이 가면 넌 떨어진다고 안 써줄려고.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이형진: 중학교도 참 시험이었지.

박종승: 예, 중학교 때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이 학교 가서 얘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한번 써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저희 반에서, 동인천 중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제일 낮았어요. 저희 반에서. 그때 저희 반이 한 100여 명 됐는데 그때는 한 클래스가 90명, 100명 이렇게 됐어요. 교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부제 수업에 뭐 4학년까지는 다 이부제 수업이고. 5학년, 6학년만 이제 종일반. 근데, 어떻게 제 위에 있는 학생들은 다 떨어지고 저 혼자만 붙었어요, 저희 반에선. 그래서 뭐 무사히 공부도 못하는데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동인천 중학교 들어갔고. 동인천중학교에서도 그렇게 뭐 썩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동기 진학이라고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를 이렇게 대부분 가, 아직 못 가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다 학교. 학생들도 시험을 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못 가게 했죠. 자기 학교.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명이 중학교 때 잘했던 그, 이영학이라는 친군데, 그 친구가 경기 고등학교를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하는 애들이 다른 학교 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못 가게 이렇게 많이 막았지. 그 초등학교 때 같이 졸업했던 애들 중에도 경기 중학교 간 애들도 있고, 뭐 딴데나. 그 당시에 서울에 진학하려면 가족 관계가 좀 부유한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많지는 않았는데 서울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조금 공부를 했나 봐요. 하하하.

이형진: 고등학교를 그러면 동인천고등학교. 지금 인천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승: 아닙니다. 그때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고 인천 고등학교가 있고, 동인천 고등학교. 그다음에 남인천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4개의 공립학교, 남자 공립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성적순으로 합격 가는 것은, 제물포 고등학교가 상위 클라스. 고 바로 차상위가 이제 인천고등학교. 고 밑에가 동인천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남인천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4개의 공립학교. 그 네 개의 공립학교가 1차. 나머지는 이제 동산고등학교라든가 송도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이제 2차.

이형진: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도 집안 형편이 별로 펴지 못했습니까.

박종승: 그런데 뭐, 그렇게 부족하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 좀, 사업을 계속 실패했어도 재산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를 갔으니까.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과외도 좀 했어요. 그래서 영어 수학 이렇게 과외를 하니까 성적이 확 올라가더라구요. 그다음에, 또 그때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밑에서 뭐... 그, 서울에 학원을 갔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물리하고 화학 생물 이런 것이 인문계하고 이과하고 갈라져서 이제.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송림동 동산 학교 뒤 저쪽. 거기서 걸어서 제물포역까지 걸어가요. 새벽 첫 차를 타려고. 그때가 5시 좀 넘어서인데. 그걸 타고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일곱시가 채 안 된 시간에 이제 종로에 그땐 학원이 다 종로에 있었어요. 뭐 종로어학원, 이엠아이어학원, 뭐 저기 해서 종로... ymca. 가면 제일 먼저 1등으로 가. 제일 앞자리에 앉게 돼요. 대 강의인데, 이백명 삼백명이 하는 그. 그래서 분석 물리 분석 화학을 거기서 미리 배워 놓으니까, 한 달 동안, 두 달인가 이렇게 압축시켜서. 그 2학년 물리나 화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서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과외를 하면서 좀 성적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인하대, 겨우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그, 10대 때. 청소년기 유소년 그때 그 성장이 그런 식으로...

이형진: 공대 전자학과를 원래 뜻을 두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당시에는 그런데 전자과...

박종승: 그때는 담임이 써줬어요. 너 어느 대학 어디 과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인천시 교육감한 그 나근형이가 담임이었어요. 어느 대학 갈래, 물어보고서 서울대는 뭐 거의 가지 말라고,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걔들은 그 학교에서, 인하대학교에서 좀 보내 달라고 그래서 했는지 술을 한 잔 얻어 먹었는지 그 우수한 학생들을 전부 인하대에 보내. 인하 특별 장학생이라고 이제 처음 저기 해서. 한 71년도부터 실시했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기 이제 한성국 교수라든가 노수영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다, 딴 데 못 가고 인하대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뭐, 무슨 과,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그 학과도 다 정해서 다 써줬어요.

이형진: 박 선생님은 72년에 그래서 인하대학교 이제 공대로 진학을.

박종승: 예, 그때 인하대학교가 처음으로 공대만 있다가 한 600여명, 전체 입학생이 600여명뿐이 안 됐어요. 72년도에 한 700여명이 돼. 그때 이제 이과 대학이라는 수학과하고 화학과가 생겨요. 그 다음에 공대 이과대 그다음에 가정대, 가정학과 여학생들. 그래서 세 개 대학이 생기니까 종합대로 승격이 돼. 그때 한 700여명. 그때 전교생, 인하대학교 전교생이 이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 한 과에서 꼭 뽑는 게 작은 과는 뭐 스무 명, 큰 과는 30명, 뭐 그렇게 뽑았으니까.

연종엽: 그때 경영학과도...

박종승: 아, 경영학, 경영대가 있었죠. 경영학과가 이제 72년도에 생기, 거기도 한 2, 30명 뽑았고.

이형진: 박종승 선생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인하대학교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박종승: 그때 이제 저희 부친이 70년에 서울에서 이제 사업하신다고 올라가요. 할아버지, 조부하고 같이. 그리고 모친이 이제 저희들을 그, 뒷바라지하면서 학교 쪽으로 가니까 저도 같이 그, 동인천고를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이제 가죠. 인천에 집을 팔고.

이형진: 아, 그럼 또 이제 대학 때문에 또 이제 서울에서 통학을 하게...

박종승: 서울서, 또 서울서 다시 거꾸로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별 재미도 없고 그래서 대학에 좀 흥미를 많이 잃죠. 통학도 하고, 통학 시간에 그, 그런데 통학을 하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그, 타 고등학교 출신, 서로 관계, 교우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다양성이.

이형진: 전철은 아니고. 기차로 통학을 하셨습니까?

박종승: 예, 그 당시에는 기차였죠. 디젤기관차. 디젤기관차가 그 역도 몇 개 없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용산 노량진 영등포 부천 부평 주안 제물포 동인천이 인천역이 그렇게 있었고, 중간에 급행이라는 또 하나 있었어요. 서울역, 부평, 동인천. 딱 요 세 개 역만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참 흥미로웠던 것이 기차를 이 통학하기가, 통학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전에는 정기권이라 그러는 것을 끊어서 이제 개찰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나가. 꼭 학생증 비슷한. 이 조그마한 거. 맨날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런데 그게 이제 없는 학생들은 담을 넘어서 기차 타고.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를 뛰어 올라타고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리고. 그리고 표 검사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생활이 다들 힘들었으니까. 저희가 그, 다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는 더하고.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면 옆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싸가지고 오는. 선생님도 이제 나가서 사드시든가 도시락을 선생님들도 직접 싸왔던 시절이니까. 그, 선생님 도시락을 하나 배달하는 학생을 한 명 찍어서, 도시락을, 선생님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도시락을 두 개를 싸서 하나는 학생이 먹고, 하나는 선생님이. 그리고 어려우면 담임선생이 찍어서 너 누구 꺼 하나 더 싸와라, 집에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또 뭐 동네가 또 빈곤하게 사는 지역도 있고 다 섞이잖아요. 저기, 그런데 72년도도 뭐 특별히 나은 건 없었습니다.

이형진: 박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송림동에서 이제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럼 서울은 어디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박종승: 그 후암동, 벽문 쪽 건너편이요.

이형진: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박종승: 아니, 통학을 했죠.

이형진: 아, 통학을 하셨네요. 1학년, 그러니까 신입생 시절 인하대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승: 아, 이거 학교 분위기라는 게 뭐 다 놀자판이었죠, 그 당시에.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형진: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박종승: 공부, 공부야 하죠. 그런데 그 학교 분위기가 뭐 전부 그 저기, 신문을 놓으면 방송국에서 뭐 전석환이가 와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런 데나 가고, 쿠사라는 애들 뭐 댄스나 하고, 아, 좀. 전부 학교가 분위기가 다 미팅하는 분위기에요 이거 어떻게 여학교하고 미팅을 하냐. 그런거는. 관심사가 다 그런 쪽이에요. 의식화라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진학하면서 희망은 희망을 했던 게, 그러더니 과목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읽었어요, 우리가 무조건. 그 교장선생이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입학할 때 책, 자기가 입학하면서 책을 하나 기증하고 졸업할 때까지 너희들 그거 다 읽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씩 기부를 받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독후감을 쓰게 해. 다 제출하게. 그래서 그때 뭔지도 모르는데, 파우스트도 이게 무슨 무슨 얘기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으니까. 플라톤의 대화록도 봤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 참 답답하고.

이형진: 대학교 1학년 교양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걸 좀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박종승: 아, 그래서 그, 야, 이거 좋은 철학 사유를 좀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 교수님은 너무 실망스러워. 책이나 읽고 뭐 이렇게 하고 약간의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 이외에 철학적 사유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험이나 대충 봐. 그래서 실망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친구, 노수영이라는 그 충북대 교수 하는 친구 있어요. 영국서, 영국서 이제 인하대 마치고 영국서 학위 받아오고. 그 친구가 조금 그때, 1학년인데 그때 인하대학교에 인하 대학 신문 말고, 인하 헤럴드라는 게 첫 창간 돼. 거기에 초대 1대 편집국장이 그 친구가 돼. 그 영어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고등학교 친구인데, 기계과, 인하대 기계과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인하대학교 신문사에 들어가니까 전점석이가 그때 편집국장이었어요. 그 옆에 이제 대학 신문사. 바로 옆에 책상, 이제 한 두서너개 이렇게 갖다 주고서 인하, 인하헤럴드 이제 있었어. 따로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이형진: 전점석 선배, 선생님하고는 1년 차이...

박종승: 예, 전점석이가 71학번이고, 저희가 이제 72년도인데, 그때 벌써 전점석이가 편집국장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노수영이를 만나러 가는 시간은 다 거기 있으니까, 노수영이는. 그러니까 나도 비는 시간에 이제 노수영이 만나러 가면, 옆에 전점석이가. 분위기가 조금 뭔가가 무게가 있어. 신문사라 그런지.

이형진: 그게 지금 인하대 학생회관이었죠?

박종승: 아니, 지금의 학생회관이 아니라 본관에 있었어요, 본관에 뭐 어느 한 층.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전점석이가 노수영이 붙잡고 얘기를 하고, 노수영이는 그 얘기가 나한테 조금씩 전달되고, 그러면서 좀 관심이. 그래서 사상계라든가 씨알의 소리, 뭐 창비, 오히려 이런 잡지를 보는 게 철학 교수가 얘기, 저 빼놓고 뺨치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들이 거기 있잖아요. 다는 못 읽지만, 그때도 뭐 정기 구독할 형편은 안 되고 가끔 사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사회를 보는 눈이 이제 거기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 그때 강연도 이렇게 하셨는데, 기독회관인가 태화관인가 어디서. 종로 태화관인가.

이형진: 함석헌 선생님이요.

박종승: 아니, 함석헌 선생. 그 강연하는 것도 이제 듣고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뭐가 와 닿잖아요.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대학을 가니까 좋은 게 술하고 담배 피는 게 이렇게 자유로와서. 술 먹는 데 많이 시간을 보내. 이 친구들 그때 고등학교 친구, 노수영을 비롯해서 같이 졸업했던 여섯 일곱 명이 항상 모여서 술 먹고 뭐 그런 시간을 이제 쭉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형진: 동인천고등학교 졸업했던 동창들끼리 자주 이제 만나면서...

박종승: 예, 뭐 끼리끼리 쉽게 만나니까. 그리고 돈을 추려 모으려 해도 손쉬우니까. 다른 친구보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와이엠씨에이 대학생부 갯벌이라는 써클에 가입을 하게 돼요.

이형진: 서클명이 갯벌이었습니까?

박종승: 갯벌, 인천 상징하는 갯벌.

이형진: 아, 인천에 있는 학생모임이었네요.

박종승: 예, 인천 와이엠씨에이 대학생부. 거기에 들어가니까 인하대하고 인천교대 간호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그때는 대학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고,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모여서 뭐 이렇게 같이도 책 읽고 이렇게 토론하고 아니면 뭐 저긴데 여름에 이제 농활을 하고.

이형진: 농활을 다녀오셨습니까?

박종승: 어, 저기 그 경기도 이천 옆에. 어떻게 자기들 저기 교회 거기 ymca 총무라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연고가 있는 데로 가게 되죠. 경기도 광주 갔었고. 그래서 농활 거기서 가서 이제하고. 겨울에는 우체국 봉사를 해요. 그 당시 우체국, 겨울에 우편량이 두 배 이상이야. 세 배 네 배가 왔던 게, 달력이 이렇게, 그전에 달력이 귀했잖아요. 달력,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갑자기 우편물이, 우편 가방에서 몇 배로 늘어나고, 우체국은 분류를

못 해요.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누구 지원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쓸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때는 다 재정이 열악했으니까. 거기 가서 분류 작업하는 팀.

이형진: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건가요?

박종승: 예, 우체부하고 같이 가방, 두 배 세 배가 늘으니까 그 가방 하나를 꽉 채워서 그전에는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었어요. 예, 시내, 걸어다니거나 시내버스 타야 되는 거였는데. 우체부 가방을 내밀면 시내버스를 공짜, 무임으로 승차,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부 한 명당 한 명씩 또 이제 배속해서 가방을 이렇게 들고. 그, 무지하게 무겁더라고. 그 전에 그 뭐, 특히 그 중요한 달력은 일력이라고 하루에 하나씩 뜯는 거 있어요. 그건 또 얼마나 커요. 365장이... 그걸, 그런 것도 가방에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체부가 하루에 한 4시간 6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꼬박 채워서 점심 먹어가면서 저녁 때까지. 그걸 이제 같이 우체부하고 하고. 하루 갔다오면 이제 또 땅하고, 우체국에서 분류작업하고. 인천 우체국에 저기 신포동 그 앞에 거기 가서. 그래서 72년, 73년. 그렇게, 대학 써클서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대학 초반에.

이형진: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박종승: 그건 이제 제가 복학하고서고, 74년도에 이제 흥미가 없으니까 대학에, 휴학을 해요. 3학년 때.

이형진: 아, 칠십삼 년에요.

박종승: 74년도.

이형진: 74년. 그럼 3학년 올라가서 휴학을 하신 건가요.

박종승: 1학기 다녔고, 2학기 때 이제 휴학을.

이형진: 휴학하기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좀 뭐 젊은 날의 고뇌 같은 게 좀 있었던 건가요?

박종승: 여러 가, 노수영이가 읽고 나면은 나한테 너 이거 읽어라고 해서 다 읽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형진: 기억나시는 책.

박종승: 팔억인과의 대화. 뭐 이런 거지, 이영희 선생님 책도 읽었던 것 같고. 그때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모르고. 그 친구가 추천하는 책들. 여기서 그 책 사러 부산 보수동까지 가요. 김동길 선생. 저기 '길은 우리 앞에 있다'고 그 책이 그때는 그게 아주 대단한 저기. 청계천 헌책방은 싹 뒤져도 없어서 보수동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부산까지 가죠. 그 책 사러.

이형진: 노수영 선생님하고요.

박종승: 예. 그 친구의 영향이 그대로 이제 전점석이가 한 얘기가 노수영이한테 가고 노수영이가 이제 나한테 전달돼. 그렇다고 학교 내 뭐 써클 가입한 것도 없고. 학교 바깥에 있는 와이엠씨에이 활동했고.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그런데 학적 변경이 되면 막 바로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형진: 그럼 3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니까 이제 학적 변경하고. 신체검사를.

박종승: 신체검사를 받았죠. 이제나 저제나 군대 갈 날 기다리는데 통보가 안 와. 그런데 뭐, 시간이 내가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게 대학 친구들 뿐이니까 휴학하고도 대학을 놀러가죠. 그래야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게, 그거야 뭐 대학에서 조금만 일 있으면 다 그냥 다 모여서 가고 이러니까. 71학번 김중호가 그때 학생회장이었는데. 2학기 말인데 성명서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 학생회 중심으로. 그때 10월 유신을 각 대학이 전부 와 갖고 저기, 데모했잖아요. 성명서 발표하고, 학내에서. 바깥으로 나온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내에서 했다고. 전북대. 인하대도 그 대열에 이제. 거기에 이제 김중호,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점석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기독학생회 회장 했던 김용순도 거기에 이제, 그 성명서에다가 뭐, 이름 올릴 거 아니에요. 학생회장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들. 그런데 김용순이는 복학하고 나서 그때, 군대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이형진: 그 성명서 사건은 그러면 73년이었습니까?

박종승: 74년. 저는 1학기 때 이제 휴학했으니까. 2학기 때 학교를 놀러 가고. 주로 학교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놀러 가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려고. 소일거리. 그렇게 해서 이제 74년을 이제 보내요. 그러다가 75년에 이제 그, 아, 74년 이제 또, 다시 또 징병 검사를 다시 받으래, 저기 와서. 수도통합병원 와서. 그때 이제 사건이 언론에도 났는데 병역 비리.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어느 구간을 뚝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터진 모양이에요. 가야 될 놈이 안 가고 안 가야 될 놈이 가고 막. 그래서 전부 재검을 수도통합병원으로. 그게 어디냐, 공항 가기 전에 그, 있는데 그 병원이. 수도통합병원 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받으니까 76년 초에, 2월 달인가?

이형진: 75년.

박종승: 75년. 아, 75년. 저는 방위 소집 징병, 소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수색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이형진: 6주인가요?

박종승: 예. 수색에서 훈련받고 나와서 배속이, 육사에 들었더라고.

이형진: 아, 육군사관학교에서요?

박종승: 예. 그때 육사에 배속된 친구들을 보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친구들이었어요. 다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강사도 있고. 시간강사. 석사 마치고서 그. 뭐 구성원들이 홍익대 총장, 이학영이 아들 이재철이. 그 홍대에서 지 아부지가 총장인데 데모한 놈. 뭐 그런 친구들로 이제. 그런데 저도 어떻게 거기에 꼈어요, 보니까.

이형진: 그 75년 한 해는 방위 생활을 하신 거네요?

박종승: 76년, 여름까지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또 거기서 또 배속받은 게 심리학처라는 곳에배속을 받아서. 학생처, 심리학처, 교무처 여러 개 있는데 심리학처는 심리학과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거기서 입학시험을 입학처는 없었고, 그 당시에. 모든 걸 관장했어요. 서류, 육사생도 지원하면은 1인당 한 관리하는 데는 기록물이 200쪽에서 한 300쪽 정도 되는.

이형진: 1인당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박종승: 그걸 보니까 경찰 보안사 뭐 이런 데서 다 조사한 거야. 학교 기록부터 다 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자기 관련된 가족들까지 다 조사가 되니까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는 군사독재 시기기 때문에 반공. 그리고 너무 험하게 성장한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또 빼야 되고. 반항심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만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런 게 나머지 노동자 계급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건 좀 분류하는 거야. 내가 이제 거기서 지원하는 게 이제 그 많은 것을 입학심사하는 분들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 부분을 빨간 줄 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봐라. 걔들이 이제 요러요런 걸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또 무슨 표시해라. 군인 가족들은 특별히 또 표시를 해야 되고. 그대로 이제 그런 거 하고, 성적 내고. 그래서 이제 병과 나누는 거. 그런 걸 이제 거기서 짧지만은 그 일을 했어요. 저기, 75년도.

이형진: 76년 상반기까지.

박종승: 네. 그러고서 이제 제대, 거기서. 그럼 방위 소집 해제죠. 제대가 아니라.

이형진: 곧바로 복학을 하셨나요?

박종승: 복학은 안 했고. 그때 또 노수영이가 나오네요. 노수영이가 야, 내가 읽은 저기 책이 있는데, 객지라는 거 괜찮더라. 황석영이가 썼는데, 한 번 읽어봐. 그래. 읽어봤는데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또 그냥 복학하기까지 그 쉬는 것도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분 소개로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 계룡건설에서 현장에 있는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논산 읍인지 군인지, 가야곡면 저수지.

이형진: 가야.

박종승: 가야곡. 바로 논산 저수지 옆이예요. 논산 저수지가 그렇게 큰데, 그거보다 더 고지대에 있는 저수지 댐을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수리조합에서 하는 거야. 그때는 수리조합에서 돈을 받아갔어. 농사짓는 분들, 물을 대주는. 지금은 수자원 공사죠. 거기서 수리 조합에서 이제 발주한 댐 공사를 계룡건설이 이제 수주해 가지고 저는 건축이나 토목 기사 자격이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뒷바라지하라고.

이형진: 그때 당시 선생님. 나이가 24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일도 거들고 그런 잡일을 하셨던 거예요?

박종승: 뭐 가서 측량하는데, 삼각법으로 하는, 폴대 잡으라 하면 가서 폴대 잡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를 장비 담당으로 또 거기서 중장비 이제 트렉터, 트럭도 그때 중장비였어.

이형진: 포크레인 같은 거요.

박종승: 포크레인, 뭐 롤러. 그런 게 이제 건설회사가 다 하나도 없어. 다 차입, 임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사까지, 기사를 다 둘 수 없잖아요. 건설회사는. 매니지먼트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일을 이제 관리하라고. 저한테 맡겼는데 이게 건설업이 비자금 조성하는 데는 최고였어요. 정주영이가 대통령 출마할 때도 그 다 비자금으로. 현대가 저렇게 크게 되는 배경이 그 비자금 때문이에요. 현대 그룹이. 삼성은 동방생명 때문에 컸지만은. 자금줄이 다 건설서 나오니까 그 당시 대기업들이 안 하던 건설업을 다 하게 돼요. 옛날, 70년대 후반은, 오면서 초반, 후반으로 오면서 다. 워낙 자금, 부정이 심하니까.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형진: 관급 공사를 받아서 이제 부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박종승: 관급 공사를 받으면 다 이제 서로들, 인원이 열명 투입되면 한 30명 투입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명 임금은 뒤로 빼는 거야. 그러면 잉여 잔업으로, 잉여금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 비자금으로 다, 뒤로 빼돌렸어. 장비운영시간을 다섯 시간 했으면 열 시간 했다고 하고, 트럭이 한 번 트럭킹을 하루 50번 했으면 100번 했다 하고. 그러면 그 돈은 다 낙전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걸 이제 건설 회사에서. 그리고 일부는 뭐 관급 공사 중 발주한 쪽에 상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정이 워낙 심했어. 내가 거기 갔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된대. 해달래. 하청업체들이 장비 공급하는 회사에서. 기사 월급도 그러면 올라가죠, 거기에 유류도 같이 그렇게. 유류도 같이 공급량이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돈이. 그리고 저를 데리고서 자꾸 술집을 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술집이라 하면 논산읍도 있고 약간. 그러면 좋은 안주에 옆에서 젊은 아가씨가 막걸리도 따라주고. 유혹도 심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한 3개월인가 4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나중에 정주영이 대통령 출마할 때 야, 비자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이겠구나. 그 실제, 토사도 어디 가서 사오는 거거든. 그때 이게 쌌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댐을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황토를 적토해서 이렇게 다져서 댐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밑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토사 사오는 돈, 뭐 차량, 중장비, 인원, 이게 다. 그러니까 뭐 한 심하면 뭐 한 50%, 3, 40%는 다 그냥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갔어요. 이상스럽게.

이형진: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76년 겨울 정도 됐겠습니다.

박종승: 여름에 그 뒤에 방위 소집 해제되고 나서 좀 이따가 갔으니까 가을쯤에. 늦은 가을이나 뭐 가을, 9월, 10월 됐겠죠. 그리고.

이형진: 그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박종승: 예. 그리고 뭐 하릴없이 이제 소일하고 있었죠. 내가 전점석이가 그 한신대 대학원 진학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서로 만나서 이렇게 전점석이 하고 대화한 적은 없었는데 항상 관심이

있었죠. 전점석에 대한 이렇게 흠모하는 거라든가. 노수영에 의해서 전점석은 나한 테는 큰 인물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한신대에서 무슨 학생들 문제가 있었어요. 저기, 한신대에서. 그래서 한신대를 못 다니고 선교 교육원을 다시 다니게, 서대문에 있는.

이형진: 선교 교육원?

박종승: 선교 교육원. 기독교 선교 교육원.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대로 대학원 과정을 진행을 하고 한신대에서 그걸 인정을 해, 학위를. 선교 교육원 출신들을. 연말에 야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니다, 그 77년도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형진: 복학을 하셔야지.

박종승: 예, 복학을 했고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잘 지금 기억 없는데, 전점석이 학교가 이게 의식화된 학생들 맥락이 다 끊겼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나보고 뭐 니가 뭐 해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같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학교 분위기라는 게 그때 아주 긴장들이 팽배해졌잖아요. 유신 때문에. 긴급 조치 뭐, 보수가 증가되면서 점점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의식하지 못하고 친구가 아니라. 다 의식을 해도. 아, 표현을 못 했을 뿐이지 전체 학생들이 그러던 시기니까 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택시 타고서 정부 욕하면 파출소로 데려다 주면 개인택시 내주던 시절이니까. 술 먹고도 택시에서 욕도 못 하던. 그래서 복학을, 학교가 가 보니까 뭐 이 맹탕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

이형진: 박 선생님, 77년에 그러면 3학년으로 복학을 하신 건가요?

박종승: 예, 3학년으로 다시. 그런데 그전에 뭐 학업에 충실치 못해서 그 성적이 안 좋은 과목들이 여러 과목 있으니까 2학년 것도 다시 듣고 재수강하고. 뭐, 안 좋은 것들 다시 다 재수강하고 그러면서 3학년 복학을 했는데, 그때 복학한 친구들이 있어요. 71학번에 건축과 윤병권이, 김용순이도 있고, 뭐 이상윤이, 다 전자관데. 그 다음에 72학번에 전기과 황의신이. 강목사 1년 선배.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거 좀 뭐, 선배들이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재학생들도 따라오고. 어쨌든 뭘 하자가 아니라, 좀 만나서 어떤 모티브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때 왜 내가 나서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윤병권이나 김용순 이런 친구들은 이미 전점석이 하고 같이 해서 좀 의식화가 됐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조금 속에서, 어? 이러면 안되는데. 니들 앞장섰던 친구들 아니야. 니들이 안 가면 다음 후배들은 어떻게 돼. 아, 이게 그 전점석이가 이야기했던 맥락이 끊기는 것을 걱정했구나. 좋아, 너희들 빠져. 그러면 내가 한 번 해 보지. 그래서 그때 4학년에 그때 강우경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종강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4학년이라 같이 하자고 뭐 이렇게 해 보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형진: 1년 후배들이었던 거죠.

박종승: 그러니까 교류는 했지만은 뭐 와서 이게 동아리 하고 재건하고 새로 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4학년 때. 뭐, 3학년, 4학년 한 2년은 해야 후배들하고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될 거고. 그런데 그때 대학 신문사 조용호가... 앞으로는 조용호가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조용호가 와서 아, 뭐 형, 뭐 하신다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옆에 좀 있는데 같이 한

번 모일까요? 그래. 그래. 같이 한번 모여야지. 막걸리는 내가 사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곽한왕, 뭐 이래서 몇 친구 있는데 이름이 다 생각 안 나요. 양홍영은 그때 안 만났어요. 오랫동안 김명식이, 또 누구야. (안)영근이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야, 이렇게 맨날 모여서 술이나 먹을 게 아니라 그거 뭐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때 서로 뜻이 통하면 한 두 번 만나도 의기투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책을 좀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고, 서로 뭐 좀 알아야 뭘 길을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어떻게 내 이름을 지어도 지성이라고 지었는지 냄새가 나게. 그냥 뭐 인하 독서동아리 모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색깔을 다 드러내고 지성이라고. 근데 후배들이 이름을 지성이라고 해 줬는데 내가 아니야 할 수는 없잖아요. 겨우 어떻게. 그래서 지성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지도교수를 찾아오라고. 지도교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냄새가 나니까 벌써. 뭐 할 거야, 독서클럽을 했죠.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영어 강사가 지도교수 해서 겨우 등록이 돼요. 학교 써클로.

연종엽 : 지성이 등록이 됐나요? 안 된 걸로 아는데.

박종승: 등록됐죠. 영어 강사를 지도교수로 해서. 그 사람이 해 준다고 해가지고 돼. 되긴 돼. 그런데 나중에 좀 흐지부지했는데 그 뒤에 이제 민속극회 얘기를 들었죠. 75년도 그 탈 쓰고서 학생 시위에, 했는데 민속극회 탈을 쓰고 시위해서 누군지 잡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민속극회를 학교에서 없앴죠. 해체시켰죠. 그 전점석이가 다시 또 민속극회 같은 거 또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거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또 민속극회를 마련, 저기 관심들이, 그런 쪽에는 학생들이 1학년이라도 관심들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 구성원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다 이제.

이형진: 그러면 77년 상반기에 이제 민속극회를 다시 만들어내는 게...

박종승: 거기 어떻게 지도교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은율탈춤 전수자 임명구가 와서 가르치죠. 임명구가 처음 공연은 인하대에서 한 거야, 은율탈춤. 딴 데는 강령탈춤 이런 게 있었는데, 황해도.

이형진: 그 은율탈춤은 인천에서 이렇게 전수...

박종승: 예, 임명구가 전수자였어요.

이형진: 임명구 그분께서요.

박종승: 그게 어디야, 민속극회나 우리 국악이나 가르치고 배웠던 게 수봉공원에 있었나? 저쪽, 어디 있었어. 처음에는 저쪽 율목동에 있었는데 그게 그리 이전했는지 모르겠어. 그 전후가 이제. 율목동에 있었던 때는 내가 이전에 할아버지 쫓아, 할아버지가 시조를 좋아해서 시조를 경연하고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이제 문화제들이 판소리라든가 황해도 무슨 뭐, 뱃노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형진: 그러면 임명구 전수자, 그러니까 전승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배우신 건가요? 민속극회.

박종승: 학교에서 임명구가 직접 학교로 와서 가르쳤죠.

이형진: 학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종승: 지하층이었는데 공대 지하층에 공간이.

연종엽: 인하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인하대 70년대 초 중반 사람들 여러 명도 같이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탈춤도 배우고, 민속극회에 관여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점석 선배님도 잠깐 배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 명들이 이렇게 배웠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박종승: 야학에서도 은율탈춤을, 체육시간이 없으니까 야학에서도 탈춤을 임명구가 와서 가르치고 그랬어.

이형진: 그러니까 75년에 이제 단절됐던 민속 국회의 전통을 다시 이제 77년에 살려낸 셈이네요. 복원을.

박종승: 예, 부활시키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때 지성이라든가 민속극회 동아리에 명부 제출하라고 할 때 75학번 이전 사람들은 새로 기존에 있던 그런 기독학생회나 이런 건 괜찮은데, 샘동인회나. 그 해체된 새로 만드는 동아리는 75학번이 전 학번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등록을 못 하죠. 그런데 저학년 학생들이라. 선배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좀 뒷심이 좀 돼 줘요.

이형진: 그렇겠죠. 전부 후배들이 할 수는 없죠.

박종승: 제가 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전점석의 영향이 이제 가장 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공연을 한다니까 학교에서 좀 걱정스러운지 대본을 다 제출하라고 그래. 검인받고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검인받기 위해서 참 골치 아프더라고. 이거 글재주도 없지, 뭐 누구 1학년 보고. 그런데 마침 신월균이가... 73학번. 전점석 다음 편집국장 했던 여학생이 있어요. 국어교육과. 그때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때. 신월균이를 만나서. 그리고 내가 이거 좀 길놀이부터 이거 대본 좀 다 손봐서 좀 걸쭉하게, 걸리지 않을 만큼 욕 좀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신월균이가 그것을 다... 기본 대본은 다 있으니까, 각색을. 거기다가 이제 조금 첨가하고 이제 비틀어서 쓰고 그래서. 대본이 이제 검열이 무사히 통과돼서 공연을 하게 되죠.

이형진: 언제였습니까? 5월 달이었습니까? 준비도 많이 연습도 많이 하셨겠네요.

박종승: 예, 축제 때. 한 달 동안 강행군해서 한 거예요, 그게. 임명구 와서, 한 달 동안 하면서 젊은 친구들의 코피를 쏟아가면서 했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

이형진: 5월 축제 때 그러면 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연을.

박종승: 예, 그 야외극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에 공대 건물 뒤편에 노천극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푹 파여지고 다 잔디로 되어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와서 빽빽하게 그걸 다, 그 공연을 구경했어요. 별 그 저기가 없었으니까.

이형진: 내용은 뭐 어떤 거였습니까?

박종승: 뭐, 탈춤 똑같죠 뭐. 양반 그 저기, 비틀어서 욕하는 시국에 대해서 비틀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놀이 할 때 막 다 바람잡아서 끌고 와서 해학이죠, 뭐. 그런데 신월균이가 잘 써요, 글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조용호가 이제 서울대 학생들(과) 같이 소개지 같이 만나자고 한 건지 뭐, 지금 길병원 부원장 하는 이정남이 의대. 저기 그, 남명수 웅진 출판사 있었던, 서울대 물리대 언어학관가 다녔던 남명수. 그 다음에 송현 초등학교 동창 김석원이, 서울대. 한국 경제 기자였던 친구. 이민우, 이민우도 이제 조용호가 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저기 영주집이라든가 계단 있는, 아니면 저기 노가리 집 큰 우물 동인천역 앞에 큰 우물 옆에 노가리하고 막걸리 먹던 집. 만나서 좀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죠. 특히 이제 인하대 학생들 조용호, 김영만, 곽한왕, 이런 저기에다 여러 명인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저기 해서 그런 시간이 이제 2학기 때 가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서로들이 갖고 있던 관심사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의식화의 배양이 되는 건지, 의식이.

이형진: 그게 이제 지성 서클하고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종승: 그러니까 그런 멤버들에, 거기 있었던 멤버들이 이제 2학기 때 같이 모여서들, 특별히 뭐 그렇게 해서 77년도가 지나갔죠. 그러다 77년도 말에 전점석이가 이제 뭐 야학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지금 뭐, 하는, 그래서 77년도 가봤더니 다시 이제 나중에 야학 할 때 이야기해야겠죠. 야학 저기, 옥수동 그 산꼭대기에 버스 종점 꼭대기에 천은교회라고 있었어요. 하늘의 은혜. 천은 교회.

이형진: 서울 옥수동.

박종승: 예. 산꼭대기에. 버스로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거기에 이제 시정의 배움터라고. 우물정, 그 거리. 시정의 배움터를 이제 했다고, 거길 가 봤더니.

이형진: 야학 명칭이 시정의 배움터라는 거죠.

박종승: 예. 그거 뭐 야학사에 굉장히 유명한 야학으로 나오니까. 교사라는 사람들이 다 직장인들이야. 학생들 그 지역에 있는 지나가지 못한 어려운 학생과 청계피복노조. 거기, 노조는 아니었지 그 당시는. 청계 피복에서 거기서 하는 시다들. 그 사람들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야학 부분은 따로 더 디테일하게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이형진: 그러면 이제 77년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박종승: 이, 그 소식만 듣죠.

이형진: 인하대 학생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는 계기를 좀 만들어내게 되네요.

박종승: 그러면서 이제 학교생활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우 관계들을 이렇게 갖고 조용호하고. 그 당시에 좀 특이했던 게. 갑자기 경영학과에 고대에서 편입한 학생이 있다고 우리들 그 저기 학생들 모이는 데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누가 소개해서. 하면서 서로 소개하고, 통성명하고 했더니 아이, 나도 관심이 있고 고대에서도 짤려서 여기 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같이 만나 보고 식사도 하고 뭐 술도 먹고 하면서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 틀이 너무 좋아. 호감형이야, 인상이. 고대 이철이, 서울대 이철이는 들어봤지. 민청학년 때문에. 고대 이철이라고 하면서 나타나. 야, 그러냐.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대의 어떤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없어서 그 당시는. 그 친구하고 몇 개월을 이렇게 지냈더니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컨대 의심하는 것은 어디 뭐 정보과나 어디 뭐 보안사 놈이 하나 왔다갔다 그런 추측만 하는 거지. 그때 젊은 애들이 이제 경찰도 되고 그랬으니까. 무술 경관 같은 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뽑아서 정보과에다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이형진: 잠적했다는 얘기죠?

박종승: 그럼. 그리고 굉장히 조금 학교에서들도 새롭게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죠. 학생들 모이면. 그럼 또 다시 만나는 사람이 학교가 인하대학교는 이렇게 좁아서 금방 눈에 띄어요. 그때, 74년도 내가 학교 갔을 때 김중호가 데모할 때도 학교 본관과 공대 사이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강당이 있는데, 그 구름다리 위에 모여서 이렇게 성명서 읽고 끝난거거든. 그 유신반대. 눈에 그냥 다 들어와, 한 눈에. 교직원들도 학생을 누군가 관심두면 걔가 행동이 다 들어오는 식이라, 걔가 뭐 특별히 어떻게 그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나 인하대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도 구성도 뭐 공대 중심이었고. 거기서 몇 사람, 조금 튀어나오면 다 눈에 띄고. 그랬고 뭐 그 뒤에 그런 이야기는 듣죠, 들었죠. 뭐 시위를 하려다가 여관방에서 인쇄물 등사하고, 했는데 등사기 하고 인쇄물 다 해서 시위 전이니까 전날 다 숨겨놨는데 경찰들이 급습해서 탁탁 다 채갔다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그게 저기 돼서 문희탁이만 군대 끌려갔고. 걔는 이제 72학번이라 잘 알고 지냈던 앤데 그 소식 들었어요.

이형진: 문희탁 씨, 예.

박종승: 뭐 문희탁이는 지가 안 했다는데 다들 다 문희탁이가 신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섯 명이서 했는데 빠진 놈이 문희탁인데 빠진 놈이 신고한 거지, 뭐. 그런데 뭐 더 얘기하기에는 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남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7년도가 지나면서 78년도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복학하는 학생회 강석봉이에요. 73학번에. 토목과. 그래도 선배가 있어야 후배들도 그 뒤 배경이 좀 있어야지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올망졸망 모이는 거보다. 그래서 강석봉, 이러이러한 모임들 있고 후배들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합류해서 뭐 좀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느닷없이 이놈이 총학생회 면접 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총학생회를 학생들이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임명을 했어요. 학도호국단이라.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학생처에 가서 학생과 가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맞는 사람을 뽑죠. 아,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는 게 왜 총학생회 회장이 학도 국

단 단장을 하려 그러냐.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친구가 데모를 좀 멋있게 한 번 해 보려고 그런다고. 아니, 학생회장이 돼서 학교 운영이나 학생회를 어떻게 잘 지금보다 뭐가 문제점인가 이런 개선을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하겠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 더군다나 모이는 인원이 다 보니까 냄새도 좀 폴폴 나는데. 그 인하대 신문사 중심으로 문과대 애들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 눈초리가 더 이제 예민해질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언제 터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강석봉이하고 해서 그 모이는 인원이 다 이제 드러나니까, 자주 모이는. 학교에서도 밥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그게 안 보여요? 학생과도 젊은 직원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조용호, 야, 쟨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가려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어쨌든 강석봉이가 대답 같은 건 시원시원하고 선이 좀 굵었어요. 또 인하대 신문사 출신이고, 재밌는 친구였어요. 뭐 술 먹으면 술이 안 취하니까 날 업고 다녔으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술 많이, 그 당시에 또 많이 하는 날은 강석봉이가 업고 다녔어요. 아주 장사야, 힘이. 그래서 그 잘 지내고 있었던, 1학기 때 학도호국단이지, 학도호국단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동상 건립 여론조사.

이형진: 78년입니다, 이제.

박종승: 예, 여론조사를. 그런데 그때 제 절친한 친구, 같은 과 박찬구라고 나중에 모토로라 사장까지 한, 한국 모토로라 사장까지 한 친군데, 그 친구가 총무부장이었어. 여론조사 하길래 안 된다. 지금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공대 학생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여론은 다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나와요.

이형진: 그때 이미 이승만 동상이 설립돼 있지 않았나요?

박종승: 안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박찬구는 같은 과인데 한참 싸웠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알아서 하라 그러자 세우기만 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외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승만이가 학교 설립한 게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는 우리 산업, 공업 발전을 위해 목표 하에 있고, 외대는 그 외교관 양성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외대를 이승만이가 그것도. 전쟁 중에 새로 만든 학교잖아요. 저기 53년도 뭐, 그때. 외대도 아마 그때쯤. 외대에서는 동상 얘기가 없던데 그때 외대 친구들을 만나도. 인하대학교에서만 유독. 그 하와이 교민들도 뭐, 항상 조금씩 있었어, 학교하고 관계가 매년. 그 하와이 교민들은 또 동상 설립하자고 했을 거야. 학교 교명도 인하니까, 인천하고 하와이. 그래서 그랬는지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적극 반대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7월에는 학교 특강이 있었어요, 그때. 여름방학 때 이제 4학년들 영어 특강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취업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특강을 받으러 왔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은데, 그때는 인천역을 가야 인천이라 그랬어.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그, 화수동인지 동인천 방향으로 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그, 버스가 동일방직 정문 지나가는데다 차단을 해. 그 안에 있었던 버스 몇 대는 다 못가죠. 운행을 못하고 승객들은 다 차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동일방직 데모하는, 진압하는 것을 그냥 버스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정문에, 그땐 그 앞에 이렇게 개천이 있어. 그게 다리가 있어서 경비실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정문에 남자 직원들이 전부, 뭐 구사댄지 남자들인지 뭐 전부 거기 있고 그 안에는 여직원들이 그냥.

이형진: 그게 78년이었던 거네요.

박종승: 예. 7월 달이었는데, 확실치, 여름방학 때니까.

이형진: 맞습니다. 그때 아마 나체 시위를 했던 그때 같습니다.

박종승: 아, 근데 심하게 하는데, 그 버스에서 안을 보니까 폭력이 행사된다는 건 알지만.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뭐 확실히. 그런데 그게 기사가 별로 안 났어요. 그리고 그거 못 가게 해서 이제 얘기했죠. 같이들, 여름방학 때도 모여서들 같이 후배들하고. 서영숙이라고 신문사, 노수영이 부인이 돼요. 한남대 교수인데. 국어과 신월균이 후배고. 그 친구도 이제 모여서 얘기했던. 형 그거 제가 나중에 기사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인하대 신문에다 서영숙이가 그걸 쓰죠. 내가 구술한 걸 내용으로 해서. 그게 이제 기사로, 그러면서...

이우재: 그때 학교 당국에서 제지 안 했어요?

박종승: 그때 주간이 잘 저기 받아서 넘긴 거죠. 신문사 주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주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 서울대 출신이고 그랬었는데. 학교 직원이죠. 교직원 주간, 교수는 아니었고.

이우재: 아니, 그러면 안기부, 정보부 그 인하대 총책들이 직무유기한 거네. 그걸 잡았어야지.

박종승: 그런데 그때는 정보부에서 그때 그렇게 안 올 때였어요.

이우재: 아, 거기는 정보부 애들이 파견 안 나왔어요? 정보부에서 파견 나와 있었는데.

박종승: 그래요? 그런데 서울대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야학에 가서 이우재 선생님 건이 나와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긴 했지만은. 그리고 잘, 2학기는 막 취업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저도 이제 취업을 했어요. 시험을 봐서. 어떻게 합격했어요.

이형진: 그래도 졸업해서 취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갖고 계셨네요.

박종승: 아니, 전점석이가 그러더라고. 그때 난 학생운동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야, 학생운동 하면 취업도 못하고 놈팽이 된대. 그러니까 너 꼭 취업해. 전정석이가 그래서 알았어 형. 해보지 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컴퓨터 임대해 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이비엠이라든가 파크홈, 후지컴퓨터. 거기서는 대기업이나 은행.

이형진: 캐비넷형 컴퓨터 말씀이시죠?

박종승: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사둘만한 여력이 없었으니까. 다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이비엠이 한 7, 80% 장악했고, 한국 시장을. 한 2, 30%는 파크홈, 후지컴퓨터가. 그런데 아이비엠도 이제 저하고 같이 있던 동기들도 다섯, 여섯 명이 거기 취업했고. 뭐, 파크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회사가 작으니까. 일본에서. 그런데 뭐, 관심 없으니까 저는 거기다가 해서 어떻게. 그런데 시험이 상식하고 영

어하고 논술이야. 전공을 봤으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하하. 그래서 어떻게 붙었어요. 인하대도 어떻게 붙었듯이 거기도 어떻게 붙어.

이형진: 그, 일본계 이제 컴퓨터 회사 파크홈.

박종승: 예, 파크홈이라고. 후지 컴퓨터를 줄여서 파크홈이라 해서 대우빌딩이 있었어요.

이형진: 아,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이요.

박종승: 예. 거기에 이제 한 층을 이렇게 다 쓰는데. 아이비엠은 따로 이제 저 광화문에 있었고.

이형진: 그러면 79년부터는 이제 취업을, 졸업도 하셨나요?

박종승: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78년도에는 그때 야학의 전점석 하는 야학에 열중했을 때예요. 그런데 야학 부분에 가서 말씀드려야 될라나, 그거 양이 많아서, 여기다 다 섞어서 얘기하기가. 그러던 중에 조용호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시위 사건. 78년도 말.

이우재: 곽한왕이.

박종승: 그렇죠. 안영근, 곽한양이. 그런데 그 당시 2학기 되면 다 취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나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각 과목별로 논문을 제출하라고 그랬어. 과제물, 논문을 하나씩. 레포트 써내라 그러고, 렉처를. 그걸로 이제 논문 시험 가른다. 그 제출하는 기간 그때 데모를 해가지고 그런데 얘들이 이제 잡히고 나는 4학년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그러니까 논문 제출하러 온다는 걸 알고 과 사무실에 이제 형사애들이 이제 다 잡았어, 그런데 저는 못 잡고 그랬는데. 왔었죠. 그런데 계속 과제, 논문이 들어오거든, 과제물이. 그러니까 이놈이 있긴 있나보다 그러고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형진: 그게 78년. 그럼 10월경인가요?

박종승: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형진: 하반기죠.

박종승: 그때 이제 학생처장이 최병하라고 우리 4학년 지도 교수였어요. 그리고 최병하 교수 아들 최재준이라고 지 연구원, 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군데 그 친구가 4학년이었어요. 재학생으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항상, 그때 이제 오지 말라 그러면서 피신했던 곳이 한성국, 71학번 한성국이 하숙집에, 학교 뒤, 멀리 안 가고 학교 뒤에 있었지. 한성국. 원광대 교수야. 뉴펜서 공부로. 그 친구 집에 있으면서 이제 최재준이가 매일 저한테 이제 와요. 오늘도 왔다갔다, 어제 안 왔었는데. 뭐 논문 계속 들어가니까.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안 오는데, 학교 나가도 될 것 같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과학생 대표 중심으로 사은회라는 게, 그래서 사은회 참석하라고. 그래서 은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송사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형진: 졸업생 중에서는 제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겠습니다.

박종승: 그래서 송사를 하는데, 조금, 공대의 특성을 모르고 너무 제가 어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욕을 조금 하고, 대화가 이렇게, 공대에서 무슨 대화가 있어. 대화도 있고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연탄공장 연탄입니까? 다 찍어내듯이 해서 취업이나 시키려 그러고, 잘하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 거기 답사하신 분이 있어. 일본 동경대 나오신 분. 인하대 선밴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나마 자네들이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필요했던 분야가 있었을 거야. 뭐 농사짓는 사람도 훌륭한 거고 회사를 하는 자영업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시민운동 하는 사람도 다 저기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조금, 안 건드려도, 자존심을 안 건드려도 될 부분을 그냥 건드리는 것, 송사를 했던 게 지금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에 회사 출근하라는데 출근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 나가면.

이우재: 78년도에 애들 저 배후로 몰리셨구나?

박종승: 예, 그래가지고 출근을 못하니까 이제 뭐 취업을 못하게 되죠.

이형진: 아, 그게 78년 조용호, 안영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후로 찍혀서 취업은 됐는데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박종승: 그런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학생처장 아들 최재준이가 항상 저한테 그 모든 정보, 지 아버지한테 집에서 매일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니까, 이제 학교 나와도 된다. 뭐 괜찮다 잡으러 왔다.

이우재: 학교 나와도 된다고 했을 때 회사 나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종승: 그런데 그때 이미 회사.

이우재: 아, 그 이전에.

박종승: 그전에는 심지어 6월 달부터 1학기가 끝나기 전부터 취업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이우재: 완전히 졸업하고 나서가 아니라 2학기 때는 아예 그냥.

박종승: 2학기 때는 나오는 학생이 몇 명 안 됐어요.

이형진: 그니까 파크홈 취업이 이제 무산된 거네요. 그 와중에.

박종승: 2학기 때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고 졸업논문으로 다 대체해 버렸으니까.

이우재: 그러면 걔들이 시위하고 그럴 때 사정을 알았어요, 형님이? 걔들하고 상의 안 했어?

박종승: 안 했죠. 나하고 상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지성하고 민속극회 만든 건 학교에서도 다 알잖아. 내가 중심적으로 해서 했다는 게. 그리고 복학생 중에서는 내가 하나 눈

에 띄고 그 다음에 강석봉이라고.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우재: 그 당시 하종강이는 군대 가 있었나?

박종승: 종강이는 대학원생이었지. 78년도는 대학원생. 77년도에는 4학년.

이우재: 가만 있어봐. 하종강이 80년에 대위원회 부의장하지 않았나?

연종엽 :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론 나중에 대의원회를 잠깐 했었거든요? 헷갈려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년도가 자꾸 헷갈려서, 지금.

박종승: 어쨌든 그때 하종강이나 강우경이는 77년도 복학했을 때 4학년들이라 개입을 안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저 혼자 나머지 그때, 3학년 복학한 71학번들, 72학번 그 친구들하고 다들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서 알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그게 저 나름대로 활동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야학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아니, 졸업식장을 왔더니 인경호 옆에 이승만 동상이 떡 있는 거야.

이형진: 아, 79년 2월이네요.

박종승: 예. 박찬구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는 박찬구는 그래도 강력하게 반대해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여론조사 여론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때. 설립자 동상은 하나 있어야지, 뭐. 그러면서. 그거 보고 졸업식 끝나고 졸업식 이후에 이제 후배들하고, 그날은 뭐 할머니 부친 다 졸업식장에 왔으니까 가족끼리 식사했고 그 뒤에 졸업식 이후에 후배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야, 저거 뭐 어떻게 정리해야지. 그냥 놔둘 거냐. 난 이제 졸업해서 이제 졸업생 됐는데 너희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를 한 번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동상이 두 번 쓰러지죠. 한 번 했고, 두 번째도 쓰러졌고.

이형진: 80년에 한 번 처음 쓰러지지 않았나요?

연종엽 : 83년하고 84.

이형진: 아아, 80년이 지나서.

연종엽 : 84년에 쓰러지고 나서는 이제 없어졌죠.

박종승: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인하대학교 중심으로 이제. 뭐 특별히 학생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문제의식을 좀 갖고서, 학교 다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잠깐 쉬었다 가실래요.

30분 휴식후 다시 시작함

이형진: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후배님이신 연

종엽 선생님과 그리고 이우재 선생님 같이 계십니다. 예, 박종승 선생님. 이제 학교 관련한 학생 운동과 그 졸업 과정까지 이렇게 비사를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8년경에는 야학 운동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승: 예, 야학이 이제 전점석이 선교교육원에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취업을, 거길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진학사라는 그 학생 잡지사에.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니까 그 임명구도 거기에 있었고. 탈춤, 77년도 은율탈춤 가르쳤던 임명구가 거기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진학사 출신 근무자 중심으로 교사를 만드니까 어디 전점석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사 구할 수 없었으니까. 야학교사를 이제 진학사 직원과 교회청년회. 그런데 교회에 청년, 아, 거기 천은교회 전도사가 박남수라고 있었습니다. 한신대 출신.

이형진: 그러니까 그게. 옥수동 꼭대기에 있는 천은교회. 시정의 배움터.

박종승: 그 천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근데 한신대 대학원 동기생이에요. 전점석이하고 박남수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교회 목사 이기영 목사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지역 학생들 청계천 가서 시다 생활하는 학생하고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야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이 흔쾌히 동의하셔서 이제 열게 되죠. 그 소식을 79년돈가, 그 해 이제 80년인지 소식을 듣고 전점석을 만나요. 청진동 진학사 앞에서. 나 한 번 방문하겠다고 해서.

이형진: 그럼 그때 박 선생님께서는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실 때였나요?

박종승: 취업이 못했을 때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시간 여러 가지 많이 남았지.

이형진: 아, 한 2년간. 그러면.

박종승: 그래서 전점석이를 만나니까 한 번 놀러오라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가봤더니 뭐 구성원은 그래, 어린 여학생 남학생하고,

이형진: 79년 말이었습니까?

박종승: 79년 말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직장인들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물어보진 않았어. 전점석이한테. 자연히 이제 몇 번 가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니까 참석자로 되죠. 거기 이제 교회에 자주 놀러갔으니까. 그때 뭐 꼭 일요일 날 가는 게 아니라 평일 날 자주 저녁 때 가서 많은 시간을, 전점석이랑 많은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강학 갈 수 있는 교사를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이부터 찾죠. 제 친구. 경복 고등학교 나온 친구인데, 성균관대. 그 친구 집에 가끔 가면 사상계 보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기가 돼, 이렇게 잡지나 책 볼 게 아니라 이런, 참여해서 해라. 그런데 이태권이란 친구는 독립운동 했던 한계 선생님, 증손자인가 그래요. 한계 마을 문화 답방하면 가는 그 집이 문화재 등록돼 있던 그 집 손자야.

이형진: 한계 마을요.

박종승: 그 성주에. 외관 옆에 칠곡하고 성주 사이에 한계라는 마을이 있어. 그 마을 전체가, 한계 선생님 호를 따서 한계 마을이라고 그래. 그 집 이제 자손들이 전부 뭐 각 대학 학장, 건국대 총장, 국민대 총장, 교육을 해서 그런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기에, 끌어들였더니 인천서가 아니라 서울서니까. 그 친구도 쉽게 해서 이제 경복고등학교 학생 중심으로 외대 장건 교수. 그때 이제 외대 다니던.

이형진: 장건 그리고 이태구 선생, 아까 방금 한계 마을에 자손 이태구 선생님.

박종승: 그렇게 하고 또 임명구가 이제 친구, 고대 이세제를, 고대 사회학과 이세제를 소개시켜 줘. 그 친구는 71학번이에요. 그리고 뭐, 저, 다섯 또 몇 명, 서울대에서도 왔다 가고. 뭐 다른 대학도 왔다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80년도 초가 그렇게 구성이 돼서 조금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나아졌죠. 그게 이제 뭐, 검정고시, 생활 야학하고 노동 야학이 이제 합쳐진 형태, 국영수도 가르쳤고, 진학하지 못한 그 지역에 어린 학생하고. 또 청계천서 시다로 근무하는 학생들 위해서는 노동법도 가르쳐야 되고. 뭐 필요한 거 골라서.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신문, 신문에 한 과. 좀, 과목 커리큘럼이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인물. 위인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인물. 그렇게 해서 그런, 과목들을 이제 가지고.

이형진: 신문은 신문 읽기를 했다는 건가요?

박종승: 신문은, 신문 읽기 하고 서로 이제 내용 보면서 생각이 어떠냐 이건 이렇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한자가 자연히. 한자 곁들여서 공부가 돼. 한문이 있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걸 필요로 해서. 그런 이제 과목을 갖고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 지역이 얼마나 굉장히 제일 산꼭대긴데.

이형진: 옥수동.

박종승: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 그 수업엔 관심이 있는데 안 나오면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했던 가정방문이 아니라 그 친구를 알아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해서 가정방문을 했어, 전점석이하고 박남수하고 저기 해서. 그랬더니 진짜 토굴, 위에 천막만 있지 굴 파고 사는 집의 학생이 있더라고. 그 지역이 그렇게 가난했어.

이형진: 옥수동이 동대문구 그쪽이지 않나요?

박종승: 그, 한양대학교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약수동 지나가다 보면 산꼭대기 보이는 게 이제. 거길 간 게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더 부끄러워서, 자격지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그걸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가지 말자, 이제 이런 거하 지 말자, 이렇게 했죠. 그냥 그 옆에 친구보고 나오라 그래,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면 같이 나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하고 끌어들여야지, 방문한다는 것은 자존심하고 완전히 방문이 잘못됐다 해서 안 하죠. 그때는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든 동네였어요 거기가. 교회도 진짜 산꼭대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는데 성동경찰서 애들이 와서, 사찰을 하고, 보고하는, 보고서 쓰는 모양이지, 뭐 갔다 왔다고. 들어오진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항상 있어요. 성동 정보과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박남수가 잡혀가요. 그 전도사 했던, 전점석 이하고 한신대 대학원 같이 다녔던.

이형진: 야학 일로 잡혀갔습니까?

박종승: 한신대 사건 때문에 잡혀갔어. 야학 때문에 잡혀가진 않아. 아직까지는 야학이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박남수가 잡혀가고,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전점석이 열심히 하고 나머지 이제 또 강학들, 교사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 끌어갑니다. 그동안 이제 전점석이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그걸 하고 나니까 저도 조금, 그러면 인천에서 공단도 그러니까. 야학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전점석도 얘기를 했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주안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이 어디 저기 알아본다고 해서 주안역 뒤에 동부교회라는 곳에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그 당시에 주안역 뒤는 좀 시골마을 같았어요. 뒤에 한적한 곳에 있고. 공단만 저쪽에, 공단이 크게 확장되기 전에. 그때 강우경이는 거기 취업해서 다닐 때. 서통 엘리베이터에.

이형진: 예, 서통이었습니다.

박종승: 그래서 내가 이제 인하대 학생들 중심으로 거기에다 이제 야학을 만들죠.

이우재: 가만 있어봐, 여기 이게 지금 시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80년대가 아니고 77년도 78년도 그 무렵 아니에요?

박종승: 78년도예요.

이형진: 예 80년은 아닌 것 같아요.

박종승: 아니, 80년 아니라고. 78년. 내가 그래서.

이형진: 78년,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박종승: 예. 아까 거기서 대학 생활하고 이걸 다 섞어놓으면 엉망진창인데, 따로 떼서 대학생활 하고 야학하고 다 분리시키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형진: 78년에.

이우재: 77년, 78년 그 무렵일 거예요.

박종승: 예, 예. 77년 말에 이제 전점석이 만나고, 78년에 이제, 그리고 78년 초에 이제 또 시정의 배움터, 박남수가 구속되고. 그래서 이제 동부교회 해서 인하대 중심으로. 여기는 뭐 인하대하고 주안하고 다 가까우니까. 만드는 건 제가 했는데, 전점석이가 뜻이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운영해라. 해서 이제 거기는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이 친구들이. 하긴 했는데 나중에 78년도 조용호 데모사건 때문에 목사님, 굉장히 연로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조금 혼났던 것 같아. 겁을 많이 먹었던지.

이우재: 이게, 장정옥 씨 인터뷰했을 때 장정옥 씨가 70년대 말에 야학, 그거하고 같은 맥락 같애.

박종승: 응, 장정옥, 알아요. 저기 그때도 서로 했지만 나중에 자주 안 만나서 그렇지 서로 그때 만나고 그랬었어.

이우재: 그거하고 연결된 거야.

이형진: 그러니까 동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야학을 하셨다는 거죠.

박종승: 이건 제가 인하대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78년 초에. 시정의 배움터도. 그런데 강학할 수 있는 교사를 모집하려면 각 대학 가서, 이게 직렬로 병렬로 되는 일이 아니라 쭉 가서 만나서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서 설득하고, 동의 구하기까지 참여하러 사람 만나지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죠. 뭐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외대도 가고, 몇 군데, 인하대도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시정의 배움터는 많이 구성이 제대로 돼가요. 그러던 차에 전점석이가 오더니 부천에 한 번 가자. 그래. 부천에 갔더니 한일전기, 뭐 모타 펌프, 서수남하고 하청일이가 하는 모터 만드는. 그랬더니. 노조 산하의 야학을 개설해놓았더라고.

이형진: 그러니까 회사 내에. 한일 펌프에서요.

박종승: 그런데 전점석이는 그때 그 노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노조 위원장을 갈 목적으로 야학을 하면서 노조 간부들을 교육시켜서 뒤집어엎을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참여한 교사들이 서울대하고 성신여대 두 학교. 성신여대 여학생들과 서울대 남학생들로 이렇게 구성돼서 했어요. 전점석이가 이제 주도해서. 그 노조위원장이 허락해서 한 거거든. 그 노조 내에. 그 노조위원장이라는 친구가 부천에서 권투 선수 하던. 체육관도 운영하고.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내가 이제 나도 거기에 강의는 안 하지만 가서 자주 만나거든. 노조 간부들하고 서울대생하고 성신여대생. 아, 노조위원장이라는 놈이 다 불러 모으더니 그때도 거기는 서울대는 재학생이야. 군대 갔다온 사람, 오더니 나는 권투선수로서 전국체전에 가서 벤터급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프로필을 얘기해.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하고자 하면 다 이룬다고. 그래서 무슨 얘긴지, 지금 본인의 부인이 중학교 영어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우리한테, 자기는 원하면, 부인도 자기가 원하면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뭐 딴 생각 갖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전점석은 그, 그게 어용 노조거든. 뒤집으려고 조직 부장했던 애가 참 똘망했었는데. 걔하고 해서, 두 세명 해서 따로 모임 갖는 것을 다, 가시권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다. 그래서 협박당하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하긴 했어요. 할 일이 다 있으니까. 그거 하다가 그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배기화란 친구가 참 맹랑한 게 나중에 봤더니 상무가 돼 있더라고.

이형진: 그러니까 위원장. 배기화.

박종승: 예. 걔가 그, 노조원들이 간부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게, 배기화가 딱 회의할 때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밤을 새도 안 끝내는 거야.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니까 배기화의 독재가 다들 무서워. 거기다가 이제 뭐 학생들께 얘기하는 거나 대화하는 것들 보면 좀 문제의식을 다 갖고서 그런 걸 토론하고 대화하는데 걔도 잘 알잖아요. 노조위원장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협박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일전기 모터는 전점석이가 만들어 놓고 서울

대하고 이제하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 뒤에 조금 지나니까 전정석이가 야, 신촌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 신촌에 가니까 신촌 로터리.

이우재: 그러면 또 철수하고?

박종승: 아니, 철수 안 하죠. 그래도 하면서. 다 한 거예요. 동부 야학도 하고, 저기도 하고. 신촌에 갔더니 서강대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성공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성공회에서 또 연대 학생들 중심으로 야학을 또 하더라고. 그 지역도 굉장히 판자집이 많았던 동네야, 그 뒤로. 거기서 이제 또 김영환, 연대경제학과 3학년. 걔 중심으로 나중에 박근혜 때 민정수석 했던 애 있어요. 사법부 고시 붙어가지고.

이형진: 김영환도 그 국회의원 김영환 말씀이시죠?

박종승: 그 김영환 말고. 이 친구는 뭐, 75나 76 정도 됐을 거야. 저기, 유승민이 친구. 그놈이 이제 거기서 하는데, 아, 연대에서 걔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연대에서 무슨 학술 강연회 하면 가가지고 질문을 막, 공부를, 책을 많이 봐서,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질문도 날카롭게 하고, 강사들, 연사들을 좀 당황케하는 그게 있었고. 거기서도 그 친구는 신부, 그 야학 장소를 내준 신부한테 그 예배당 안이 야학 교실이거든. 그 안에서 담배 피고, 뭐 그런. 싫어하지. 그 신자들도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부 멱살 잡고 너 가짜지? 해야 될 일 하는데 담배 하나 폈다고 뭐라 그런다고. 좀 상당히 그, 관리가 잘 안됐던 친구야. 좋은 사람한텐 한없이 좋은데. 그런 야학이 이제 옥수동에 있고, 부천에 있고, 주안에 있고, 부천에 있고, 신촌에 있고.

이형진: 신촌에 있고, 한일 거기도 있고.

박종승: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서로 연계해서.

이형진: 뭘 좀 만들어볼 생각이었습니까?

박종승: 전점석 생각은 그랬어요.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렸죠. 그러다가 전점석도 구속이 돼요. 저기 한신대 사건 때, 박남수하고 똑같이. 형은 다들 살지 않고 형집행 정지로 나중에 나오는데.

이우재 맞아. 저 78년도 봄에 사건 있을 때도 그게 한 번 있었어요.

박종승: 그 참, 그래서 뭐 78년에는 제가 이제 김진원이라고 인하대생. 저기 부안에 카농 하는 친구. 그 친구. 78학번. 그 친구도 끌어들여서 시정의 배움터에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합류하고. 뭐, 그런데 이제 자꾸 그 갈등도 생겨요. 교회에. 그 시정의 배움터는 성공회하고 또 틀리게 한신대 그쪽이니까 기장인가? 그 신도들, 평신도들이 마당에서 탈춤 막 시끄럽고. 담배 핀다고. 본당에서는 안 피지만은 바깥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좀 설득하려고 일요일 날 교사 몇 분이, 일요일 날 교회라도 좀 나와 주세요, 형식적이라도. 아니, 형식적으로 할 거 뭐 하러 나가, 안 나간다고.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이우재: 아유, 20대 초반에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이해하는 게.

박종승: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비가 오니까 교회 본당으로 가서 담배를 폈네.

이형진: 여러 가지 했네.

박종승: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본당에서 담배 피지 말라 그러는데 담배피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랬다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이제 자꾸 깊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잘 끌고 가요. 천은 교회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들 네 군데 야학이 운영되면서 79년도, 저는 그때는 천은 교회 이쪽이 더 애착이 가는 게, 전부 시공인, 시다들이나 이런 학생들이야.

이우재: 옥수동?

박종승: 예. 진짜 토굴에 사는. 그런데 그때 이제 강학, 교사로 참여하는 친구가 이제 성균관대 김갑수. 손혁재,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임한근이. 그리고 경복고등학교인가? 손혁재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있어. 그때 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연대 조동일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79년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79년도 6월에 취업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취업하고 이제 사회 진출한 거 따로 말씀드리고.

이형진: 그러면 이제 한 78년에 졸업을 하셔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야학 운동이나 이런 걸 좀 지원하신?

박종승: 아니,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우재: 79년도 2월 졸업이지.

이형진: 아, 참. 79년도. 박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당시 이제 78년에 동일방직의 우리 여성 노동자들 투쟁을 목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천이 노동자 도시였기 때문에 산업선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교류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박종승: 예, 갔었죠. 특별히 저기 전점석이가 조화순 목사님 밑에 산선에서 실무자로 있어서 거기 가고 그랬죠.

이형진: 그러면 박 선생님도 그러니까 산선 가서 같이...

박종승: 그렇진 않았어요. 야학 이쪽에, 그때 가장 활발히 이렇게 벌려놔 가지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죠. 그 인명진이가 동일방직 사건의 원풍이야. 뭐 와이에이치, 이런 데 인명진이가 많이 개입을.

이형진: 인명진, 목사님 말씀이신가요?

박종승: 목사. 인명진이 그때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인명진이 하는 집회에도 몇 번 가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하고 야학하고 겹치는 부분인가 이제. 기독교 회관 시위한다고 해서 갔다가

기독교 회관 안에서는 여자 노조원들이 데모하고 바리게이트 싸놓고. 여기서는 들어가려고 학생들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바깥에 있는데 못 들어가게 차단했고.

이형진: 동일방직 막판 투쟁 때 그때 연극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승: 그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그랬다가 결국은 뭐 목사님들이 가니까 우리도 뭐 나와야지. 그러니까 헤어져서 가는데 뒤에서 누가 잡더라고. 누군지 모르지 뭐, 잡으면. 그런데 그분이 경찰이었어요. 뒤에서 박형규 목사님, 이해동 목사님도 계셨고. 나하고 같이 온 학생인데 왜 그래? 그래. 그러니까 걔들은 한 건이라도 해서 건수 올릴라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랬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뭐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이제 동일방직 사건 말씀하셔서 그랬고. 그렇게 해서 지나서 이제 취업을 해요.

이우재: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그러니까 77년도부터 78년도 이렇게 되면 야학을 하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서울의 동향 이런 거를 알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인하대 학생 운동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서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후배들한테 좀 전해주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동향 같은 거?

박종승: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야학 한, 그게 학교에서 들은 게 아니라 야학을 하면서 들은 거.

이우재: 야학에서 듣는 거죠.

박종승: 그 여러 대학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보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 시위 사건, 교내. 이우재 중심으로 이제 데모했다고 그랬고 그게 이제 저녁때들 다 모이면 화젯거리였어요.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했던.

이형진: 그게 몇 년도였죠? 78년 6월.

박종승: 아, 그런데 이 이우재가 관악산 뒤에서 탈출을 했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데모를 해. 그러더니 아, 무슨 전설처럼 얘기해.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경찰 체포조들을 뚫고 여학생하고 팔짱 끼고서 정문으로 유유히 탈출했다고.

이우재: 그건 그거. 서문경이야

박종승: 그래서 야 이우재 이거 대단한 친구. 이제 야학 내에서 각 교사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광화문서 모이자고 연락했고. 뭐, 야학에 모인 학생들 전부 다 가야지. 아니, 광화문을 갔더니 우리 눈에는 절반이 경찰처럼 보여, 정보과 애들.

이형진: 그건 79년도였습니까? 78년 6월. 아, 그게 6월. 광화문 집회.

박종승: 아니,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세종문화회관 뒤로 갔다가 뭐 앞으로 왔다가 뭐 술 먹고 그냥 헤어져.

이우재: 그런데 그러면 78년도. 그게 6월 20일에 광화문 시위거든 내가 관리자니까 아는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정보들을 인하대 학생 운동권에서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박종성: 인하대학교면 몰랐고, 난 저기서 알았지.

이우재: 그러면 형이 인하대학교 학생 운동권에 깊이 개입을 안 했던 거네요.

박종승: 그렇지, 그 당시 78년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생활 말씀드릴 때 넘어가야 되는 게, 78년도에 강석봉 들어오고 이승만 동상 건립 사건, 뭐 그렇게 굵직한 거 생각나고 같이 만나서 대화들은 했는데 어떻게 저기 듣는지는 내가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내가 그동안의 서적들, 열전도 그때같이 술집에다 놓고. 이우재 선생님하고 관련돼서 전부 출판기념 뭐, 이런 책들 막판에 술 무리하게 먹어서 모든 걸 다 놓고 와가지고 열전도 찾아볼라 했더니 없더라고.

이형진: 자 그러면.

박종승: 그래서 이제 78년도는 이우재가 그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조용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 우이동에서 모이는데 약수동 시정의 배움터도 참석하라고. 그래서 우이동에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78년도에 이우재를 만나요.

이형진: 우이동 사일구(4.19) 탑 맞습니까?

박종승: 사일구탑 아니고, 우이동 무슨 계곡 비슷한데 넓은 공간에서 같이들. 그때 저기 이우재 아우 우일이야, 우길이?

이우재: 우길이.

이형진: 그때 조우를 하셨군요.

박종승: 같이 있었고 그날도 바깥에서 술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많이들 먹더라고. 그런데 그때 이우재를 탁 봤는데, 서울대 시위 사건을 전설처럼 야학에서 두 번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모이라 그러는 것도 이우재 중심이라해서 야, 대단한 인물, 큰 인물. 아, 요만해. 그런데 눈을 희까닥 떠서 쳐다보는데 대단히 눈초리가 매서워서 야, 눈빛이 저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때 상당한 호감을 느꼈어요.

이형진: 자,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9년 6월에 이제 비로소 취업이 되셨습니다. 이전에 이제 파크홈, 거기는 이제 취업이 취소된 거였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뭐 야학 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좀 소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6월에 취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취업 생활과 이렇게...

박종승: 예, 그런데 80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야학하고 관련돼 있어서. 취업을 하고도 관심이 있으니까 야학에는 계속 갔죠. 야학은 토요일 일요일 날 가도 만날 수 있으니까. 학교보다

는 이제 야학, 시정의 배움터를 가죠. 가니까 그때 박남수는 형집행 정지 돼 가지고 풀려서 있을 때인데, 5. 18 민주화운동 그때 박남수가 그때 광주에 있었어요.

이형진: 그러니까 10. 26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박종승: 예. 아, 그런 거야 뭐, 군사 애들 쿠데타, 12. 12 뭐 이런거 다 이제 5. 18 때 거기서 박남수가 탈출을 해.

이형진: 어디서요. 광주에서?

박종승: 광주에서. 외곽, 그 산을 타고서 탈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난 이제 취업 중이지만은 거기 놀러 가서 이제 후배들하고 술도 한 잔 해야 되겠고 오랜만에. 그런데 박남수도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거기에 대한 광주의 피해 상황 같은 거. 그 광주, 5. 18 민주화 운동 사건을 취업하고서 제가 또 듣게 돼요. 정진동 목사, 청주의 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님께서. 야학하던 부분, 야학을 쭉 정리하고 나서 다시 취업으로 가죠.

이형진: 예, 그렇게 하시죠.

박종승: 그래서 80년은 뭐 그때,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81년, 이제 야학만 빨리 정리할게요. 81년에 이제 천은 교회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악화되면 진짜 나쁜 관계로 헤어지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제 후배들이, 김갑수, 임한근, 그 뒤에 약수동 제일교회 김철기 도움으로.

이형진: 김철기. 제일교회 김철기 목사님이신가요?

박종승: 아니, 김홍기가 목사죠. 그 형. 그러니까 김철기 도움으로 약수동 제일교회로 시정의 배움터가 이전하죠.

이형진: 야학 공간을 그쪽으로 옮기신.

박종승: 근데 김홍기 목사 뒤가 이제 김동환 목사가, 그러면서 이제 약수동 가면은 이제 의식화나 생활 야학에서, 노동 야학으로 성격을 바꿔요. 과목도 이제 많았던 것을 여섯 과목으로 확 축소를 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 호칭 문제 갖고도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다 없애, 선생님 이런 거 없애고, 오빠 언니. 그리고 선생들도 강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형진: 제일교회가 본격적으로 야학이나 이렇게 이제.

박종승: 노동 야학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죠. 그전에는 이게 생활 야학하고 노동 야학이 믹스된 좀, 약간 물렀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옥수동의 특성상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모집될 수 있었어. 진학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검정고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따로 별도로 좀 과외 비슷하게 나머지 공부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천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학도 좀 시켰어요. 그것도 성과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 그, 약수동으로 오면서는 미싱

사 밑에 있는 시다들, 미싱사가 또 사장한테서 받아서 시다들 월급 줬잖아요. 사장 소속이 아니라고. 그래서 노조 막는 게 어려웠다고. 노조도 해체됐었잖아, 노동야학으로 이제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타면은 토요일도, 야학은 했으니까.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장충동 건너편, 장충동 족발집 가서 족발 먹고. 걔들 뭐 매일 그냥 푸성귀하고 막걸리 먹다가 그날 족발 하나 이제 먹는 거죠. 그런 날을 이제 가지면서 약수동은 약수동 나름대로, 굉장히 그때 이제 야학들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뭐 지역을 나눠서 서부, 동부 이렇게 해서 그럴 때. 그때 김갑수하고 임한근이가 이제 구속돼요. 남영동이었거든, 야학 연합사건 때문에.

이형진: 야연 사건은 83년...

박종승: 83년. 그리고 주최자 중심에 있는 인물들 이제. 근데 그 야연을, 그게 야학 노동자로 구성돼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이형진: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만든 거죠. 치안 본부에서.

박종승: 걔들의 가설을 이렇게 해서 폭력 혁명한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풀려나죠.

이형진: 야비 같은 게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학 비판.

박종승: 야비가 그때 나오던, 내가 이제 가끔 가서 친구들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술 먹는 시간이지, 어떻게 수업 끝나고 기다렸다가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 친구들이 인천에도 많이 내려오죠. 뭐, 정수남이 뭐 저기 해서 만재, 만재가 이제 81년인가 2년에 형제교회, 시정의 배움터 올 때 그때 재밌었던 게, 문 똑똑 두드리고, 이제 예의 차린다고 문 슬쩍 열면서 여기가 사랑의 배움터죠? 그래 가지고, 시정의 배움터를 사랑의 배움터라 그래 가지고 폭소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만재 얘기하면 사랑의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이만재가 이제, 그때는 서울대 학생들도 많았고 연대도. 그리고 시정의 배움터 중심으로 청계피복노조 재건 사업하면서 전태일 기념사업회하고. 거기에 있었던 강학들하고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 간부로, 중심인물로 많이 들어가죠.

이형진: 그게 그러니까 제일교회를 토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박종승: 예, 거기에서 그때 뭐 할 때 문익환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 다 와서 있었는데, 저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의 배움터가 굉장히 야학에서 어떤, 중심. 중요한 역할.

이형진: 상징성이 있네요.

박종승: 그, 광주들 보라고 또 구로의 광야인가?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들 뭐 자주 봤어요. 강성 이쪽 야학. 그러면서 이제 시정의 배움터는 1년에서 각 기별로 모집을 6개월로 축소를 해버려요. 수업 기간을. 딱, 필요한 여섯 과목만 해서 근로기준법... 그래서 70, 87년도, 그리고 이제 12기에서 마감이 돼요.

이형진: 87년까지 유지가 됐습니까?

이우재: 형님 그럼 87년도까지. 그냥 주말에는 거의 참여하고 그랬던 거예요?

박종승: 그 뒤, 83년 그 이후는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소식은 듣고 지금 12기까지 그 모임이 아직도 연말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봐요. 전점석을 비롯해.

이형진: 학생들도 같이요.

박종승: 예. 이제 뭐 다들 어쨌든 형 오빠 누나 뭐 이렇게 해서, 호칭도 이제 선생님 같은 거 없어졌고. 처음 시작했던 저기들만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지. 연배 차이도 많이 나고. 그, 지금도 12기까지는 시정의 배움터 소속으로 해서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죠.

이형진: 그러니까 그게 6개월 단위로 했으면 아마 82년부터 87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박종승: 83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바뀐 것 같애.

이우재: 형님은 83년도부터는 이제. 자주 못 가겠네.

박종승: 자주 못 가죠. 어쩌다 한 번씩 후배들 만나서 소식, 이제 끝났다 그러고 연말에 모이고. 뭐 그렇게 해서 야학 생활은 이제 정리가 되고, 현재까지 이제 관계도 유지하고 있죠.

이형진: 자 이제 우리 박 선생님. 그 야학 활동도 이제 학생 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시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박 선생님께서 인하대 공대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79년 6월에 취업을 해서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오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사업까지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종승: 79년도 취업이 이제 불발되면서.

이형진: 1차 취업이 무산되고.

박종승: 예. 78년도 취업이 불발되고, 79년도가 오니까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갑자기 오일 쇼크가 와서. 제가 78년도까지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해서 저희 과 학생들은 두 군데 세 군데씩 합격을 해요. 취업을 하려고 원서만 넣으면 다 그냥 합격통지서를 받았으니까. 저도 방학 때 특강 때 갔는데, 그땐 대우전자 전에 대한전선이라는 곳에서 취업 원서를 갖고 와요.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쓰라 그래요. 받으면 합격, 몇 일 날 출근해, 그래요. 방학 중에. 그런데 저는 그때 뭐, 안 썼어요. 그러던 시기, 그렇게 취업이 잘되다가 우리는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오일 쇼크가 오니까 경기가 다 다운돼. 구인난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구직난으로 변한 거야. 대기업서도 인원을 축소하고, 그 사전에 와서,

선배들이 미리 와서 이렇게, 각 대기업에서 와서 회사 오고 싶은 사람들 와서 연락하라고. 개별적으로 가서 형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알아서 취업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야. 그러다가 한성국이, 나하고 같이 졸업은 했지만 1년 선배. 고등학교 1년 선밴데. 그 원광대 교수로 이제 마쳤는데. 유펜에서 공부, 인하대 마치고 유펜에서. 그 친구 그때 대학원생, 그 친구는 대학원생이죠. 야, 이거 취업 안 되는데 이런 회사 추천서 왔는데 이거 가 봐라. 이름은 없지만 괜찮을 거야. 후배 세 명 하고, 그런데 어떻게 또 왠지 조교를 했으니까 대학원생이라서. 그 전자과에 또 고등학교 후배 또 세 명을 모아서 저하고 같이 묶어서 청주에 있는 영태전자라는 수출 전문 기업체.

이형진: 7명이 간 건가요.

박종승: 4명. 그때 후배 세 명하고 저 해서 합이 4명. 갔더니 그냥 처음으로 대학생들, 취업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 뭐, 지키지도 못할 얘기들만 잔뜩 늘어놓고 나오라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수습을 한 6개월 받아요.

이우재: 청주. 청주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형진: 영태 전자.

이우재: 그러면 주말에 야학 같은 거 들으려면 청주에서 올라와서. 아이고, 그 당시 쉽지 않았을 텐데.

박종승: 그때 올라와서 이제 절친한 이태권이 또 만나야 되고. 청주에는 거기서도 계속 만났는데, 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79년도 그렇게 거기 가서 생산직으로 이제 수습을 6개월을 해요. 생산 과정을 보고, 생산해서 이제 출하되기 직전까지. 그게 제, 나중에 이제 사업하는 데 도움이 엄청 돼요. 바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형진: 현장을 쭉 한번 해봤다는 것이죠.

박종승: 연구 개발하고 생산은 기술이 전혀 틀리거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에 노동자들 진짜, 굉장히 힘들었죠. 시간 맞춰서 딱딱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돼야 되는. 그런 식. 그런 생산 방법을 거기서 이제, 어? 몰랐죠. 배운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이 되는 거지. 거기서 끝나니까 80년에 생산기술과로 가라 그러더라고. 생산기술과라는 것은 개발부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기술부에서 생산 투입 전에 프랍(?)을 다 한 번 잡아요, 다시. 파일럿 몇 대 더 생산해보고 그래야 생산에 차질이 없어. 그게 일본 애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일본 애들이 굉장히 효율이 높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서 하는 거야. 그러고 청주에 갔더니 청주대하고 충북대 후배들이 있어서 내려가서 이렇게 만나요.

이우재: 고등학교 후배들?

박종승: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거기. 근데 그 후배 중에서 한 명이 하숙집이 수녀님을 데리고 있는, 하숙집에. 그런데 수녀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고 나와요. 무슨 사연인지 참. 그 수녀님, 수녀님이 정진동 목사님 연결이 돼요.

이형진: 아, 청주의 정진동 목사님. 산업선교회.

박종승: 산업선교회. 그, 정진동 목사님은 청주의 청소부들, 퇴직금 받게 해 주신 분이에요. 싸워서. 정진동 목사 교회가 청주공단 바로 옆에 있었거든.

이형진: 지방에 있는 산업선교회는 거의 유일했죠. 그때.

박종승: 그분, 그래서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가지 않고. 난 서울로 왔으니까. 알고만 계셨고. 그 와중에 조용호가 청주를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

이우재: 몇 년도?

박종승: 80년도 같애.

이우재: 조용호가 80년 8월에 구속됐는데?

박종승: 그러니까 그 80년 8월 구속? 그전이겠지, 그러면.

이우재: 5. 18하고 10. 26하고 도망 다닐 때? 도망 다니며 그랬다는 거예요?

박종승: 그건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려와 가지고 충북, 그때 와서 오니까 우리 후배들 정보과에, 청주경찰서 정보과에서 회사를 찾아왔어.

이우재: 아니야.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되지 않고 용호가 80년 8월에 구속돼 갖고.

박종승: 몇 월에 나와요?

이우재: 용호가 6월인가 8월인가 받아 갖고 81년 봄에 나갔거든? 나가고 난 다음이겠죠. 수배 중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되겠죠.

박종승: 그러면 80년이 아니고 81년인 모양이야. 80년에는 그렇게 해서 정진동 목사님하고 수녀하고 청주대하고 충북대학생들 해서 이제 근무 끝나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

이형진: 예, 청주에서.

박종승: 그러다가 81년으로 넘어가나? 그래서 이제 생산 기술도 거의 뭐 한 1년하고 그래서. 그랬으면 수습을 이제 많이 거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뀔 줄 알았는데, 그냥 있으라 그래서. 있는데 회사에 그래도 꽤 직원들이 있는 거야. 노조를 만들어요.

이형진: 81년에요?

박종승: 80년인지.

이형진: 영태 전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박종승: 영태 전자가 청주공단에서는 거기 엘지 대기업, 빼놓고 대농, 엘지, 그거 빼놓고는 뭐 랭킹 2, 3위. 뭐 맥슨 전자, 영태 전자 서로 양 벽을 이루던.

이형진: 한 4, 500명 정도 됐나요?

박종승: 인원이 꽤 됐죠.

이형진: 예. 천 명은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승: 예, 천명은 안 돼. 그 수출은 그 당시 거기가 카스테오, 그 기술 집적된 거라 요만한 콤팩트 한 데다 꽉 채우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일본 기술 이전 받아서 한 거니까. 멕슨 전자는 나중에 이제 무선전화로 저기 해서 그랬겠지만.

이형진: 그 카스테레오 생산하는 거였습니까?

박종승: 예, 그 수출 전문.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 수출하면 몇 십만 원 벌 수 있겠습니까.

이형진: 그, 차에 장치하는 스테레오.

박종승: 차, 라디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싸구려 그런 게. 비포 마켓. 그러니까 자동차 산다면 달아 주는데, 애프터 마켓,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취향대로 꼽는 것도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그래서 다 자기 취향이 틀리니까. 그렇게 애프터마켓이, 비포 마켓을 뭐 상대적으로지. 다 그랬어. 그, 카스테레오 그게 안에서 잘못 만든 건 굉장히...

이형진: 네 그러니까 영태전자에서 노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81년에.

박종승: 그때, 정진동 목사님 하고 이제 직원들 소개시켜줬죠.

이형진: 정진동 목사님.

박종승: 사무직은, 생산직이 그렇지 사무직은 거기에 노조를 가입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같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친구들, 정진동, 만나고 나서 방법을 찾아서 노조가 와서 이제 노총 가서 교육받고 이제 노조 설립을 하죠.

이형진: 그러면. 관리자였는데 거기 참여를 하셨어요?

박종승: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만나고. 일도 하고. 그랬더니 그 공장장이랑 상무가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회사도 그땐 잘 돌아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아니, 그 잔업 수당을 제대로 안 줬으니까. 그리고 형태가 잔업 시키면 알아서 하는 얘긴데, 전원 다 잔업하고 바깥에서 열쇠를 잠궈 놓고 제대로 못 나가게. 그건 제가 가

지는 거예요. 앞에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노조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제대로 됐으면 그냥 했어요. 또 거기다가 기숙사까지 쓰니까 노조 분위기가 좋았어.

이우재: 그래서요.

박종승: 여자 노조원들도. 그런데 대충 주로 간부들은 남자야. 공장장. 아, 아니 생산직만 하면 도저히 노조가 안 되는데 웬일이 없더라고. 저를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82년도, 공장에서 조용호가 청주를 와요.

이우재: 그러니까 조용호가 81년이랑 82년, 노조 만들고 난 다음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종승: 그거 뭡니까? 몰라. 지금 저기. 아니, 조용호를 만나야지. 와서 연락이 왔으니까 만나고. 조용호 만나고 와서 정보과 애들이 알았어. 조용호 만나서 제가 늦게까지 술을 먹었죠. 집에 갔더니 나하고 둘이 이제 후배하고 둘이 가서 그랬는데. 다 뒤져놨더라고. 뒤집어놨더라고.

이형진: 아, 하숙집을?

박종승: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책하고, 전봉준 눈초리 매서운 그 사진 걸어놓은 거. 그거 사진 걸어놓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날 회사 갔더니 정보과 애들이 왔어. 그래서 그러더라고. 아, 후배들까지 봤어. 인하대니까. 아, 이놈들은 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해. 조용호가 뭐, 유인물을 뭐 주고 갔냐, 유인물 어디다 숨겨놨냐, 충북대 누구 만나러 갔냐. 조용호가 만나러 갔으면 누구 만나러 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또 다들 가르칠 때거든. 가니까 회사에서 아주 굉장히 예민해졌지. 정보과에서. 그때 노조도 만들었지, 정보과에서도 오지. 회사에. 기술 전문 업첸데. 많이 고민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형진: 그러고 이제 또 인하대 출신 또 그 거물이 또 회사에 은신해 있다고 봤겠는데요.

박종승: 그런 건 알았을 거야. 그 저기 그 수녀 집에서 정진동 목사하고 만나고, 정진동 목사 사찰 가면. 그 정도 하더니 발령을 내더라고. 노조도 있고, 서울개발과로 가라 그러더라고. 원래 개발도 안 하고, 뭘 알아야지. 뭐 프린트나 해오라 그러고, 청사진 떠오라 그러고, 그 힘들 많지.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아이템이 하나가 나왔대요. 그 당시에 화이트 신기술, 애플에 변조, 씨디 이제 씨티즌 밴드라고 해서 아마추어들이 쓸 수 있는 처음으로 40개를 냈었어. 그게 미국이나 대륙에서 필요한 거. 쭉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 대륙 동부에서 서부 가려은 고속도로 뭐 하는데 차량이 20대에서는 30대씩 쫙 줄지어서 가요. 수송하는 데. 그런데 뒷꼬리가 잘라지면 안되니까 서로 무전연락을 해. 그걸 그전에 에이엠으로 했는데 음질이 안 좋아, 에이엠은. 그래서 에프엠으로 해서 깨끗한 음질로 불치한다 그러지. 그것을 저하고 같이 갔던 후배 한 명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을 끌어올리고 에이치 중앙연구소 있었던 친구도 스카웃해 오고 그래서 팀을 네 명을 짜주더라고. 개발하라고.

이형진: 82년 말인가요? 83년. 그때쯤이네요.

박종승: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것도 저긴데, 근성이 먹고 자고 회사에서 개발 실습 안 나가고. 5개월인가 6개월이 될 것이다. 회사 내에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완성했네.

그 집에 가는 것은 속옷만 갈아입어. 이사해서 목욕탕도 회사에서 보니까. 그 4명이서 먹고 자면서 끝내 해내요. 그 경험도 나중에 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의미가 없더라고, 이거 하는 게. 전무한테 가서 사장하고 뭐고, 그만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공장에서 보고가 오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흔쾌히.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선배는 나 따라서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붙잡아. 너 그러면 대리도 과장도 니가 원하는 직책 다 줄 테니까, 워낙 뛰어나니까.

이우재: 그게 몇 년도예요. 83년?

박종승: 82년 말.

이형진: 개발부에서 이제 작업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하시네요.

박종승: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걸로 한국에서 아무도 성공 못 할 때였어. 일본에서나 들어왔지. 한국서 만들어서. 그때 그 한 모델 가격이 70만 불이 수출이 되고 사장이 보너스를 엄청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

이우재: 그러니까 퇴사가 82년 말?

박종승: 예, 그렇게 퇴사를 했고.

이형진: 박 선생님. 81년 말로 이제 첫 사업장 경영을 끝냈고, 그거 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박종승: 노조 관련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고 나서는 후배. 0 0 0 그 친구의 기술력이 있다. 김준국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만 둔다고 그러더라고. 아, 잘 됐다고. 같이 회사 하자. 나도 이제 고민 중이었는데. 그래서 회사를 이제 하는데, 또 이거 엘지의 중앙연구소에 근무했던 김이영, 광운대 나온 친구인데, 광운대 친군데 얼마나 우수하냐면 교과서, 텍스트 뒤에 나오는 연습문제, 예상문제를 다 푸는 친구야. 이론적으로. 그 친구 나온다 그러더라고. 나오면 같이 하자. 이 셋하고 또 한 친구 있어. 넷이 모여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에스엠피에스. 스위치모드 00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원장치. 아날로그로 만드는 트랜스포머가 막 분발해야 돼요. 00 스위칭 모드로 하면 자기가 편해서 쓰기 쉬운 전압을 쉽게 꺼내서, 콤팩트하게 해서. 철심으로 트랜스포머를 만든 거니까. 편하게 그거를 압축시켜서 자상태인 고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선을 만들어서 1차, 2차 이제.

이우재: 중간에 저기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이형진: 그 회사 만들어서 이제 벤처를 하신 거네요.

박종승: 그런데 그걸 해서 미국에 이제. 아니 근데 이걸 다 수입했으니까 이거 대체시키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fcc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뭐가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돈이 이제 비 맞지 않게. 그러던 중에 이제 유명한 주재하고 기타튜닝. 기타 튜너를 조율하는 작업자실이 있어. 그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형진: 튜닝 기계.

박종승: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게 세이코 반도체를 갖고 만드니까 세이코 애들이 자기네 시장 잠식이 되니까 5천억이면 몰랐지. 반도체 공급을 한국 수출 중단을 시켜. 출근 시키는 거 모르면 갑자기. 오늘도 또 빚투성이가. 그래서 그때 삼성 반도체 제 친구하고 교회가 과장하고 대리도 있었어요. 그때 허훈이라는 삼성반도체 사장이 있었을 때. 그래서 가서 좀 만나게 해 달라는데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반도체. 만들어달라고. 허 사장이 나를 만나서 대담하게 아이템은 뭐고, 반도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설득했죠. 그런데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게런티가 돼. 돈을 갖고. 그래서 바이어를 불렀어요. 야, 이걸 반도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 10만 개고 5만 개고 생산이 되는데, 너네가 한 번만 돌아가면, 그런데 너네가 한 달에 5천개 만들잖아. 그래서 바이어가 와서 싸인을 해, 자기가. 반도체를 무조건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생산 됐는데 일본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팔아.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특성만 달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시장을 다 줄인 거지.

이형진: 대박이 된 거네요.

이후 녹음이 불량하여 녹취가 불가능하였음.

원학운

-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일　　시 2021. 4. 24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원학운

이형진: 2020년 4월 24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기 쉽지 않은데 오늘 원학운 선생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원학운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인천의 전교조 운동을 초기부터 해오셨고 선인학원재단 정상화 투쟁에 젊음을 바치셨습니다. 오늘은 80년대 90년대 거쳐서 인천의 교육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원학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원학운: 그럽시다.

이형진: 원학운 선생님, 195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셨는데요. 80년대까지 과정은 학교다니시고 대학 졸업하는 그런 과정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약력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원학운: 그래요. 저는 충북 괴산 증평이라고 있어요. 증평. 괴산군 증평에서 단군전 밑에 쪼그만 초가집에서 태어났죠. 중학교까지 거기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청주서 다녔고.

이형진: 청주고등학교 인가요?

원학운: 네. 학교도 뭐 쪼금 거시기해서 들락날락했어요. 헤헤헤

이형진: 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잘하셨습니까?

원학운: 아니오. 체격이 컸죠. 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만한 체격이 드물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체육선생님께 끌려가서 운동이 시작이 됐죠.

이형진: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운동을 하셨습니까?

원학운: 뭐 다양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유도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포환 선수하라고 해서 그것도 했고. 그 때는 그러자나요. 체육선생이 뭐 여기도 한 번 가보라고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이형진: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 같은데 출전하셔서 입상하시기도 했나요?

원학운: 없습니다. 우리 동네지 동네. 그 정도로 뭐 자질이 뛰어나진 그러진 못했어요.

이형진: 대학은 어떻게 진학하셨습니까?

원학운: 대학은 그렇게 뭐 안 갈려고 하다가. 청소년기에 말하자면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겪었죠. 대학 안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썽 좀 피우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라고 해가지구 나중에 가다보니까 체육과를 갔어요. 유도를 하는 학교, 경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거기도 뭐 한 해 놀고 들어갔죠.

이형진: 경기대 유도학과로?

원학운: 유도학과가 아니라 체육과인데, 거기 유도부하고 배구부가 있었어요. 가면 유도부로 해서 그

냥 해다가 너무 힘들어서 군대 갔습니다.

이형진: 교직이수를 체육과로 하신건가요?

원학운: 교직이수는 그 당시에는 체육과를 나오면 교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무나 다 주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하니까. 지금은 체육과 일반 사범대 아닌 데는 교직이수를 따로 신청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교사 자격증을 졸업할 때 갖고 나왔습니다.

이형진: 그게 78년경이었습니까?

원학운: 그렇죠. 군대 갔다와서 복학해서 78년도에 경기도 용문이라는데에 고등학교에 체육선생으로 있었죠.

이형진: 원래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까?

원학운: 아닙니다. 나는 그 저기 선생님 하기 싫었어요. 집에서 나 뭐 다른 거 하겠다니까 시골에서 너 뭐 겨우 너 뭐 대학 보내놨더니 다른 거 하라고 대학 보냈느냐 이왕할거 선생자리 알아보라고 해서 간 데가

이형진: 용문 체육교사는 오래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원학운: 1년 조금 남짓 하고서 선생하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형진: 그러고 다른 일을 하셨나요?

원학운: 다른 거 뭐 사업한다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가 잘 안됐어요. 더군다나 79년도에는

이형진: 그 때 선생님 나이가 28살 정도 됐을 땐가요?

원학운: 그럴 거에요. 서른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한다고 친구들하고 사업계획도 만들고 하다가 그때 마침 우리 집이 어려운 형편이 돼서 그만두고. 또 그 당시에 10.26이 났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7월에 관뒀거든요. 한 석 달 있다가 10.26 나는 바람에 그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다시 여기 선생자리를 해겠다고 온 게 여기입니다.

이형진: 약간 쑥쓰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원학운 선생님 80년 5월에 결혼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결혼하시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전엔 철이 안 들었었는데.

원학운: 그렇죠. 80년 5월에. 그런데 뭐 사생활이 거시기 해서. 5월에 결혼을 우리 지금 양반하고 했는데. 80년 하필이면 5월 20일 날 한 거 같아요. 초파일날이 며칠 입니까? 그날 했습니다. 제 처갓집이 전라도 목포인데 전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내 결혼식 보고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그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그래 가지구 결혼하고 욕 많이 먹

었습니다. 저놈 저기 저 결혼식에 왔다가 집에도 못가고 서울서 묶여있었으니까 봉쇄되어 고생을 엄청 하셨죠. 우리 처갓집이.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형진: 결혼하시고 나서 80년 그해에 8월경에 아마 운봉고등학교, 인천에 내려오시게 됐는데, 특별히 인천에 연고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원학운: 인천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그 후배가 인하여고, 선인학원 인하여고에 있는데 전화가 돼서 걔도 볼 겸 인천에 왔는데, 그 때가 8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사실 뭐 술 한 잔 하러 후배들하고 술 한 잔 하러 왔죠. 형 뭐하냐고 하길래. 논다 했드니. 놀면 뭐하냐고 결혼도 했는데 밥벌이라도 하라고 여기서 선생님 자리 있는데 내일 한 번 오시면, 이력서 한 장만 들고 와보라고. 여기 둘이나 있었거든. 이 녀석이하고 또 한 사람 후배가 둘이 있었는데. 이력서 들고 쫄래쫄래 왔더니

이형진: 같은 체육과에 계셨던 거에요?

원학운: 그렇죠 다 체육선생들. 운봉공고를 가라고 그럽디다. 올라가봤죠. 가서 교장선생을 봤더니 손일여 교장이란 사람인데, 하필이면 청주사람이야. 또 고향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잘됐다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에요.

이형진: 운봉공고 체육선생님으로 부임하신 게 8월이면 2학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6년간 체육선생으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축구부 만들어서 전국대회 제패도 하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생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주시죠.

원학운: 축구부를 내가 90년 91년 그때쯤 맡았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에요.

이형진: 80년대가 아니고요?

원학운: 아닙니다. 90년쯤 될 거에요. 그 때 한참 뭐 저도 열심히 살 때 아닙니까. 뭐 이래저래 교사협의회도 하고 그럴 때는. 남들이 다른 사람이 했죠. 축구부 만든지 4년쯤 됐을 거야. 축구부라는 게 금전사고 같은 게 터지고 그러자나요. 그래가지고. 맡고 있던 사람이 내놓게 됐어. 그래서 인제. 그나마 외부에서 뭐 감독을 모셔온다고 그러느니.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5년 했을 겁니다.

이형진: 그러면 전교조 활동 하시면서?

원학운: 아 그럼요. 나 무지하게 바쁘게 산 사람이야. 그것도 해가지고 별거 다했어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니까 날 괄시 안 하더라구.

이형진: 그 얘긴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교사로 계시면서 인천의 5.3사태 86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물포고에서 주안역 상황이었는데

원학운: 알죠. 그 때만 해도 제가 뭐 어디 정말 고민만 하던 시절이에요.

이형진: 30대 중반이셨습니다.

원학운: 80년에 왔더니 인제 81년도가 됐단 말입니다. 선인학원이라는 데가 방학이 없는 뎁니다. 학교를 나와야 되요. 휴가를 일주일 줘요. 학생들은 없구요. 늘 나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단이 까만 차로다가 재단 본부를 들이닥쳐요. 그게 인제 백인엽씨 인제 신군부에 잽혀 가는 거예요. 그러구선 인제 학교에 백인엽씨가 없단 말야. 그러니까 상당히 근무환경이 좋아지죠. 물론 관선이사가 오고 관선체제고 학교도 변하고 없던 행정실이 생기고, 옛날엔 서무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85년 6년 되니까 그때가 말하자면 말기 되니까 전두환씨가 백인엽씨 한테 돌려주는 이런 비슷한 이런 게 있었어요. 백인엽씨가 수시로 들락거렸어요. 그러면서 인제

이형진: 복귀 움직임이 있었단 거죠?

원학운: 복귀 움직임이 있었어요. 85년-6년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이기 때문에 5.3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었죠. 그 다음에 또 학생이나 동향이나 우리 선생들이 그저 음성적으로라도 다만 하다못해 술 한잔 하더라도 이거 뭐 이러면 안되지 않냐는 이런 얘기는 다 있었어요. 우린 뭐 할 줄을 몰라 가지구 앉아있었던 분위기였고. 인천의 5.3이 난 그렇게 사고날 줄 몰랐고. 토요일로 아는데 누가 오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말하자면 신민당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현판식이니까 거기라도 가봐야겠다고 해서 학교 끝나고 1시쯤엔가 걸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더라구. 전부 바닥이 하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보기만 했지.

이형진: 같이 가셨던 동료분들 계십니까?

원학운: 아유 동네 사람들 구경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갈 수가 없었죠.

이형진: 선생님 당시에 사회의식이랄까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 운동 이런 걸로 감옥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인천같은 경우엔 노동자들 투쟁도 있고 했을텐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초기에 학교생활하는 과정에 선생님께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선생님 이셨어요.

원학운: 체육선생이니까 뭐 그런정도, 오죽하면 한마디로 80년대 와서 당시에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학교 선생들 뭐 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 일종의 건달 비슷하지 뭐.

이형진: 그때 멋도 꽤 부리셨다고 들었어요.

원학운: 뭐 생각을 깊이 하거나 고민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는 안했어요. 다만 이거는 교육장이 백인엽은 안된다. 이런 거 늘. 저 사람은 교육자가 아니다. 일종의 모리배.

이형진: 85-6년 경에 백인엽 복귀 움직임이 있었는데, 선인재단 전체를 백인엽이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학교 분위기랄까 병영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원학운: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86년인가 87년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도 관선인데 관선 같지 않은 관선. 그러니까 백인엽, 맨 처음엔 다른 분도 다 관선이었다가. 반반 섞인 관선

이란 말입니다. 백인엽씨 측에서 일부 갖다놓은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이 선인학원이 발전을 위해선 백인엽씨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정부에서 백인엽씨가 그러면 가되 전권은 주지 말고 건설본부 무슨 촉탁으로 온 모양이야. 와가지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교장선생들이 제초작업 하러 다니는 거야. 리어카 끌고. 교장이 열 몇 명되고 교감까지 하면 스무 명이 넘겠네요.

이형진: 그럼 수시로 불러서?

원학운: 그렇죠. 늘 신천으로. 내가 신천 갔다 왔다는 소리를 주로 하고. 86년도 5.3 이후에 그 사람이 한 번 쫓겨갔어요. 85년 말에서 고 사이란 말이지. 86년 5.3 그때는 선인학원 선생 땜에 그런게 아니고. 인천대 학생. 인천대 학생들이 5.3때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갔어요. 학생회가 제법, 79년에 생겼으니까. 4학년까지 맥시멈 꽉찬 이런 상태라는 걸 백인엽씨가 간과한 거 같어. 그래가지고 백인엽씨가 무슨 짓을 했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사람들 모아내고. 학생 중에도 프락치 비슷하게 모아내고. 이런 짓을 했죠. 그러다가 86년도에 애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5.3 이후에 학생들이 학자추인가 모이고 그랬던 거 같어. 모이는데 체육과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축구부를 시켜가지고 폭행사건이 났어요. 그 아이들이 내 있는데 인천대학서부터 운봉공고 건물까지 뛰어오는데 한 5명이 도망가고 한 4-50명이 쫓아오더라구. 인제 축구부 애들이 때리고 도망가는 아이들을 일반 학생들이 죽인다고 쫓아가는것이죠. 그 이후로 벌집을 건드린 거에요. 백인엽씨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백인엽씨는 선인학원을 간섭할 자격이 없는데 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관선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겁니다. 그 당시에 인천대학생한테 백인엽씨가 다신 학교 안 온다는 것을 또 써요. 그리고 없어졌어. 그랬다가 그 다음해에 또 왔어. 그런 식이에요.

이형진: 근데 백인엽씨와 관계된 그쪽 이사진들이나 교직원들은 적극적 추종하고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죠?

원학운: 그땐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의리가 없더라고. 나중에 백인엽씨 갈 때 되니까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갔어요.

이형진: 자 그럼 이제 80년대 중반까지 상황... 30대 중반까지 생활하시면서 학교에서 이제 억압적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셨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길 보시면서 점점 나라가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 하셨을 텐데 전교조 인교협 결성 이전에 선생님들하고 교류나 이런 게 활발했나요?

원학운: 글쎄요. 내 자신은 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진: 주로 약주하시면서요?

원학운: 그렇죠. 그전에는 그게 문화니까 그때는 차도 없고 자가용이란게 그렇게 없잖아? 거기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과정에서 끼리끼리 만나서. 나중에 그게 큰일이 되었어요. 나한테. 제가 좀 다양했어요. 다른 학교 선생들부터 어디고 뭐고 사람들 간간히 교류를. 다양하게 교류를. 주로 술을 했지만 그 친구들하고 그걸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선생님 모이면 선생이기 때문에 시국을 많이 논의해요. 김대중, 김영삼 등등. 그때는 뭐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 그런 게

뭐 일반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교류가 있었죠.

이형진: 86년 말에 운봉공고 계시던 선생님 몇 분하고 교사협의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선생님께서 교사운동을 시작하신 계기 같은데요. 80년대 5.3 이후에 가을부터 작업인가요? 그 과정 말씀해주세요.

원학운: 그건 정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사람의 교체 있잖아요? 그런 게 좌우해요. 그전에 나 같은 사람들은 백인엽씨의 면접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이형진: 백인엽씨가 직접 면접을 보셨어요?

원학운: 그럼요. 직접 다이다이 1대1로 면접보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교육 헌장도 외워서 쓰고 시험도 봤습니다.

이형진: 백인엽씨가 마음에 들어하셨나요?

원학운: 그럼. 체격좋지 뭐. 미안한 얘기지만 80년 4월 5월 이때 운봉공고. 내가 들어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산 항도가 학원소요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유리창 같은 게 다 부셔졌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인제 5,18광주와 더불어서 완전 진압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있었던 선생들도 나가고 그러니까 백인엽씨가 학생을 잘 다루려면, 그전엔 체육선생 정원이 여섯이면 3만 썼던 사람이에요. 인건비 아낀다고. 다 채워라, 그렇게 해가지구 들어간 게 접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고. 관선시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관선시절에 상당히 많았어요. 인천대학도 그렇게 해서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선이 들어오니까 인천대학의 교수진 태부족이었거든요. 백인엽씨가 안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6~7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대체로 어떤 사람이 왔냐면 관선이니까 중앙대학의 학장을 한 김민하란 사람인데 인천대 학장으로 오더라고요. 김민하. 점령군이 온거죠. 백인엽씨가 임명 했던 건 해임시키고 학장이 오는데 그 사람 따라온 중앙대학파. 그 다음 영남대학 그쪽에. 그 당시 영남정권 이잖아요. 영남대학 이런데서. 사실 품질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이 일부. 그다음 공채. 근데 공채가 제일 저기죠. 의식이 다릅죠. 빽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때도 빽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선인학원에 진짜 선생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84년인가 5년도엔 사립학교도 공채시험을 봅니다. 인천에 공채를 뽑은. 합격한 사람들 중에 학교별로 필요한 사람을 뽑아가는 거에요. 면접을 봐서. 말하자면 공립학교랑 비슷하게. 그때 들어온 아이들이 5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셋이 내 운명을 바꿨어. 곽노철, 홍정(?), 안윤희, 전성수까지 있는데 그게 얘들이 와가지고 한 게 주안5동 성당에 한길학교라고 야학을 다 나갔거던. 그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선생들은 정말 민주화운동을 학생 때 하던 분들이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교류 맺은 게 87년에 맺었어요. 그래서 87년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문건이나 정책은 니들이 해라. 나는 조직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사협의회를 만들었어. 그게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었어요. 6월 항쟁 보고 인천에 노동자 대투쟁이라 하나요? 정말 가찹잖아요. 공단하고 운봉공고하고. 어디서 북소리가 들려도 들리고 그런 거 거든요.

이형진: 좀 돌아다녀보셨습니까?

원학운: 많이 가봤죠. 제자들도 꽤 거기 가있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마 나한테 용기를 줬을거에요.

이형진: 선생님, 고 대목에서 요건 짚고 넘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에서 학생들하고 체육활동 하셨잖습니까. 소위 도봉산이라고 하는데 공고학생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의식이랑 아이들에 대한 걱정 이런게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학운: 초창기에는 그런 거 못느꼈고. 갔더니 운봉공고가서 첫 대면하다보니까 절반은 서울애고 절반은 인천애고 그래요. 말하자면 정상적인 학생을 떠나서 서울에서 말썽 핀 애들. 그게 반반 섞였어요. 이게 참 고민이 많았죠. 나중에 정상적으로 오면서 안 그 랬습니다만. 옛날에 그 교육관이 제가 87년 전후로 바뀌죠. 그전에는 뭐 옛날의 그 철학도 철학같지 않은 거, 사랑의 매라는 거. 사랑의 매가 어딨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맞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

이형진: 선생님 체벌 많이 하셨어요?

원학운: 난 특별히 말썽부리는 아이 외엔 안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오해해서. 오해고 뭐고 하여튼 아무리 말썽부려도 그건 폭력 아닌가요. 잘못됐죠. 그 이후로 교사협의회 선생들 만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진짜 정신 차리고 이래서 이건 교육 아니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해도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거. 민주노총 선거하는데 걔들이 잘 찍어줘서 민주노총 선거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형진: 공장 생활하는 제자가 많이 있단 말씀이죠? (네) 그 86-7년 지나면서 운봉공고의 교사협의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교사협의회는 사실 전교조 전단계라고 보여 지는데요. 이제 87년 10월경 인천 교사협의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교사운동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원학운: 그때 그 제가 이제 세 사람을. 요건 틀림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형진: 나이차이가 있으셨겠습니다?

원학운: 글쎄요 나보다 여서 일곱 살은 아래 겄지요? 한 일곱 살 아래일 겁니다.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불렀어요. 내가 저 우리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사협의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인천도 곧 생긴다는데 좀 나 좀 가르쳐주라. 거기가 어딘지 간다. 같이 가자. 해서 갔습니다. 가서 주안역 앞에서 만나서 인교협 창립식에 갔더니 이미 뭐 인교협인데도 인교협이나 전교조나 나중에 탄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만 갔어도. 경찰이 에워싸서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주안5동 성당인데. 근데 누가 와서 원미동 성당 가자고 해서 원미동 성당 가자고 했죠. 한 8시쯤이었는데. 갔더니 선생님들 빠져나온 사람은 몇 없고. 가지도 못하고. 대표되는 분은 뭐 어디 끌려갔는지, 그때가 이제 조용명으로 아는데. 아직 막혀있는 상태고. 누가 한 사람이 근데 이준용이라고 옆 학교 선생이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성당 신부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고서 지금 노동자, 학생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그랬는데, 진작 하시지 왜 지금 하시냐고, 혼난 기억이 있어요. 그 신부님 말씀 듣기도 하고. 또 오면서 상의도 했죠. 우리 독자적으로 교사협의회를 하자. 그것이 나중에 선인학원교사협의회까지 나중에도 인교협과 별도로 하는 걸로 했어요. 말 한마

디가 중요하더라구. 그냥 인교협에 가입하자 그럴걸. 나도 이상하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3일 있다가 15명쯤 모은 것 같은데 각과에 있으니깐, 운봉공고. 진짜 셋이서 문건 만들어오고. 문건이 진짜 허접하죠. 창립선언문, 가입서 만들어서 열다섯 명한데 역할분담을 시켰죠. 각 과에. 한 100부쯤 가입원서를 돌린 것 같은데 선생님들 여든 둘인가. 여든 셋.

이형진: 선생님 선인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원학운: 아니, 운봉공고만. 그래서 내일 아침 8시까지 받아오라 했더니 65장 받아왔다고. 일단 교장이랑 소위 말하는 부장이라는 사람 빼고 다 가입했다고.

이형진: 노조 결성 하신 거네요.

원학운: 그렇죠. 바로 그날 했어요. 그날 5시에 시청각실에서 노래 부를 거 없어서 아침이슬을 불렀는데. 저는 이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전기과에 그 사람. 그 사람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분은 6개월 있다가 관뒀어요. 그건 몰라도 되고. 그 사람이 회장, 제가 1회 부회장 출신입니다.

이형진: 운봉공고 교사모임.

원학운: 그렇죠. 그게 공식적으로 이름 등록이 된 처음일거에요.

이형진: 혹시 학생들하고도 뭐 소식이 알려져서 지지를 받았다거나. 알렸습니까?

원학운: 아이들은 다 알죠. 선생들이 다 했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백인엽씨 문제도 있었지만 학교 운영이나 모든 거가 엉망이었거든. 그런 거 개선하는데 많이 했고 우리가 뭐 학생교육자인데 저기했겠어요? 학생회 직선내지는 뭐 학생아이들의 자율 등등. 이런 걸 주장 많이 해줬죠. 학생회 구성의 예산 등등등. 그때 선생들이 좋은걸 많이 주장했어요. 좋은 거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알죠. 아이들이 우리를 지지 많이 했어요.

이형진: 87년이 이제 사회적인 민주화 운동, 7-8월 달에 노동자 투쟁이 있었고, 10월경에 인교협이 만들어지고 선인학원 교사협의회는 88년 봄에 결성이 됩니다.

원학운: 88년 봄에 한다고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되서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대 강당에서 했는데, 하반기에, 내 기억은 봄에는 다른 데를 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된 데가 항도.

이형진: 운봉 항도 운산

원학운: 운산도 된 거 같고. 선인고등학교, 인화여고, 선인중학교. 인화여중은 안됐고. 선화여중은 됐어요. 효열 초등학교. 나머지 안 된 데가 인화여중하고 선화여상인가. 안 되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안 되서 우리끼리 하고 그쪽에는 개별 가입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320명이 가입했죠.

이형진: 선인재단의 초중고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원학운: 320명이 가입했는데 그 때 가입대상자는 600여명 밖에 안됐어요. 과반수는 넘겼죠.

이형진: 이 무렵에 선인재단 교사협의회를 발족하실 무렵에, 선인재단에 대한 사학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나요? 선생님 중에

원학운: 다죠. 사학민주화를 하자는 의미지 뭐 하러 우리끼리 모여요.

이형진: 전교조 활동은 참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이슈였는데요

원학운: 참교육에 대한 공부는 안 된 상태로 무조건 모인거지. 의식만 가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거는 전교조하는 핵심은 참모는 중앙에 브레인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그런거 없어요. 어쩌면 진짜 순진하게 민주화를 요구한 거 에요. 재단을 개혁해야 한다. 선인학원 선교협이라고 해가지고 재단에다가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교섭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가 언제까지 간다 해가지고 갔어요. 가면 재단에 사무직원 책임자는 다 없는거야.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성명서도 내고 그랬다고.

이형진: 교사협의회 체계에 대해 말해주시겠습니까? 원선생님이 그때 대표 하셨습니까?

원학운: 선인학원교사협의회는 공동대표지만, 내가 선인대표지. 대표가 각 학교 하나씩이지. 운봉은 나고 운산, 황진도도 있고 이세영이도 있고 다 있지. 그때 대표가 그놈이 그놈입니다. 재단사무실에 내용증명 보내고, 교섭하러 간다고 가고. 그게 안 되가지고. 물러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재단이사장. 교섭하라는데 갈 적마다 나오시지도 않느냐. 출근도 안하고 인건비만 받아가시면 직무유기니까 그만두시라고. 서명받아서 갖다 줬죠. 그게 마지막이야.

이형진: 황진도 선생님은 그 때 당시에 해고당하신 것으로 압니다. 해직되신 선생님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원학운: 선인학원에 황진도하고 허영철하고.

이형진: 이세영 선생님은요?

원학운: 이세영은 우리 껄로 했지. 나중에. 그 둘이지. 둘입니다.

이형진: 그 과정은?

원학운: 선인학원이 우리가 해서 말하자면 재단하고 교섭한다고 막 다니고 있을 무렵이에요. 전교조를 하자는 거야. 말하자면 노동조합을 하자는. 막 생기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그거 시도하는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은 그때만 해도 사립학교 도성훈이고 다 알때니까. 주로 인천에 사립학교 교사들이 모이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인교협 뭐 떠나서 사립학교 끼리 모이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전교조로 가자는 사람, 시기상조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물어는 보자고 했죠. 전교조 가는 거 물어는 보자해서. 선인학원 교사협의회 총회를 했어요. 320명

한테 총회를 한다고 안내장 보내고 연락은 다했어. 89년 4월이나 5월쯤 일거에요. 5월 말이나 될 거에요. 전교조 생기기 바로 직전인가 그럴 거에요. 5월이나 6월쯤 바로 전후에 선인학원교사협의회 개최를 했어요. 한100여명이 왔을 거에요.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구. 그게 근데 되니까. 100여명인데 위임장을 다 받았죠. 총회를 했어요. 전교조로 가느냐 안 가느냐. 찬반이 분분했죠. 찬성토론 반대토론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인학원교사협의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인학원분회, 320명 전체가 분회가 되는 가는 거를 선언문까지 했어. 근데 다들 학교 갔을거 아니에요. 이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들 끼리 하느냐. 일주일 만에 전부 되더라구. 우리학교까지 오니까. 그래서 나는 선인학원분회니까 전남대학인가. 전남대학에 전교조 대의원대회 1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학교에 오니까 난리가 난거야. 물어 보지도 않고 갔다는 둥. 그래서 또 회의를 소집했죠. 그랬더니 다 왔더라구. 이미 가자고 선언해 놓고 다시 한다고 했더니. 여기서 의견을 또 묻자는 거에요. 반대 측이. 묻자고 해서 찬성토론자 반대토론자 한사람만 하고 한다고 해서. 찬성토론은 내가 일어나 가지구 회장이니까 뭐랬는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그냥 서서 맞아죽자고 했던 거 같애. 무릎꿇지 말고 했던 거 같애. 그랬더니 통과가 됐어요. 우리학교도 통과가 된 거에요. 개별학교도.

이형진: 반대토론은 시기상조다 이런 건가요?

원학운: 그러죠.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했죠. 그런 건 위임을 하는 게 아니다. 2/3 찬성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조직전환을 하는데. 뭐 이런 식인거야.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리수를 둔건 사실이지. 우리는 고집이 있어서 한 번 밀면 밀어서. 그래서 망했어요. 한 놈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망해서 못 가게 된 거죠. 황진도하고 허영철은 원래 인교협 소속이었고, 거기서 못 빠져 나왔고. 허영철은 선교협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형진: 그러면은 황진도 선생님은 전교조에 가입한 걸로 이유가 돼서 공무원법 위반이 되신건가요?

원학운: 그렇죠.

이형진: 선생님도 그러면 그때 대의원 대회 가시고 한 거면 가입 하신 거고

원학운: 글쎄 갔는데 왜 갔느냐고 그러는 바람에. 나를 꽁무니를 붙잡았다니까. 또 했는데 또 안 되고. 사실은 여기 인천이 활성화 되는 길은 선인학원이 넘어가야 활성화 되니까. 300짜리가. 인교협에서 공을 엄청 들였지. 나도 그렇고. 결국에는 전교조를 못가고 실패한 꼴이 됐지.

이형진: 선인학원교사협의회는 선인학원 분회로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무효가 됐다는 것인가요?

원학운: 그렇죠. 항의 많고 각 학교에는 전부 안한다고 했으니까.

이형진: 전부 개별적으로 가입하시고, 교사님들은 해직 당하시고 그런 것인가요?

원학운: 개별가입. 그렇죠

이형진: 본격적으로 사학 반대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교조 투쟁과 무관하게 거리를 두면

서 인천지역에서 선인학원을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진행을 하신건가요? 그게 90년대 초반이죠?

원학운: 그렇죠. 그래도 한 320명이라는 인자는 우리가 확인된 우리 편 아닙니까. 그것이 인제 있다는 거를 교수들이 알았겠죠. 맨 처음에 선인학원 투쟁이나 이거를 처음 시작되는거가 90년에요. 90년. 90년 말쯤 90년 말에서 91년도가 시작일거에요. 그때는 백인엽씨가 그때가 저기 노태우 정부죠. 그 당시에 90년 그때쯤이니까. 우리는 고대로 그때가 전교조 말하자면 그게 나 하고 교사협의회하고 다 일종의 침체기, 교육운동의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고. 그때는 뭐 사실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형편으로 가는. 그때 당시에 인천대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만들어서 인제 거기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구. 내가 들여다보니까. 교수협의회도 친백 반백 그래요.

이형진: 백인엽 반대와 백인엽 파

원학운: 백인엽 반대쪽이 된 사람이 주로 어디 섰냐 하면 아까 중앙대 라인, 영남대 라인, 공채 라인이 됐고. 나머지는 그쪽이고. 그때 그 친구들이 한번 뭐 해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든. 선인학원 교사들도 뭉쳐서 활동은 제법 했어요. 학생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가지구 지원연설도 해주고. 우리는 나름 그 때는 학생들은 전교조하고 아주 저기니까. 나는 전교조하고 우리는 그 사태 난 담에 바로 활동 안했으니까. 같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교수 선생 인천대 교수, 말하자면 쉽게 장학식, 장석우, 또 이세영 등등이 모인 거죠. 처음에 보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양반들하고 안면도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수들이 그렇게 나올지 난 몰랐어요. 같이 요번에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선인학원을 개혁해보자. 백인엽씨는 안 된다. 그것만 맞았죠. 그래가지고 범선추, 범선인학원 학교 정상화 추진위랬나 그것을 만들었죠.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럴 거에요. 91년도가 맞을 거에요.

이형진: 선인학원 소속 선생님들과 지역사회 인사들까지 같이

원학운: 그거는 우습지도 않지. 90년도에 만든 거 같은데. 그 만들기만 하고. 선인학원이 바뀌어야 되는 101가지 사례인가 101가지 이유인가 뭔가 하는 책자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선생들하고 주로 초중고는 학교 시설관리 문제, 그동안에 선인학원이 잘못된 점 그거를 한 번 냈어요. 그거를 저쪽에서는 예의주시 했겠죠. 그거 내고는 별다른 활동을 못했어요. 사실. 말하자면 범선추나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문교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백인엽씨는 선인학원과 무슨 관계냐고 물은 거야. 교육부에서는 법적으로나 뭐로나 백인엽씨는 선인학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고. 관계없는데 왜 학원에 간섭을 하느냐 우리는 그거지. 그래서 백인엽씨 여기 간섭 안 되는 이유와 몇 가지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11월 달에, 90년 12월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석우 교수가 징계위 회부 됐다는 거야. 인천대학을 우리가 갔죠. 갔더니 철야농성을 시작을 하는 거에요. 1층에 장석우 교수하고, 그때까지도 시민모임은 없었어요. 근데 한 열흘쯤 지났나. 열흘쯤 지나니까 이세영하고 장재선이라는 선생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통지서가 날라 왔다는 거 에요. 그건 또 뭐야. 왜 둘만 고르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징계위를 하겠다는 거야. 재단사무실에 갔어요. 그때 각 학교 대표들, 마스크에다 엑스자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에 엑스자를 쓰고서 거기서 징계반대다 하는데, 이렇게 했으니 말을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해서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고 바보였던지 사진을 선화여중에 황재익인가 하는 선생에게 사진을 네가 찍어라 했는데, 찍었어 찍기는 찍었는데 필름도 안 넣

고 찍어가지고 그 자료도 없어요. 웃기는 거죠. 그런 걸 징계위원이 이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지랄하면서 들어가더라구.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했지. 그러고서 십분 쯤 됐을까. 조금 있으니까 인천대생들이 말이야 사 오십 명이 문 팍 열고 들어와서 징계의원들 의자를 걷어내더라고. 징계위를 무산시킨 거지.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교류 뭐 이렇게 되면서

이형진: 학생들이 그때 제대로 했네요.

원학운: 그렇지. 교수 징계는 내비뒀고 선생 징계 위원회 하는데 와가지고 들어냈다고,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야 이거 해 볼만하다. 인제 제대로 가야겠구나 이런 감이 와서. 시작이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징계위원회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파면이야. 장석우도 파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거에요. 학교에. 목요회인데. 목요회 이진, 정희윤, 목요회원이 김병상, 최원식 교수 뭐 옛날에 말하자면 목요회는 시민단체가 아냐 사실은. 왜냐하면 인천의 리더그룹이야. 거의 목사나. 선생들은 목요회 못 들어가요. 변호사나 뭐 전문직 중심으로 된 리더그룹인데. 거기에 이진 하고 정희윤씨가 간사였고.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때 만해도 전교조, 우리하고 우리는 이게 네트워크가 있자나요. 그것이 힘이 됐죠. 그래가지고 인천에 아주 진보인사가 아니고 전문직 보수적인 분도 다 같이 하는 거에요. 그 때 당시에 준비위원장이 최원식, 최원식 교수는 이세영의 학부형입니다. 그 당시에. 딸이 이세영이 담임을 했어요. 그렇게 엮여 있었어요.

이형진: 사학 반대 투쟁이 한 94년 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백인엽 퇴직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원학운: 4년? 아뇨 3년 말까지요. 그게 그 김영삼이가 언제 대통령이 됐...

이형진: 92년부터입니다.

원학운: 92년 12월이여. 선인학원이 언제 시립화된겨 94년 3월인지 94년 3월인지 그래

이형진: 네 그 시점인데요. 이 과정에서 그니까 백인엽 퇴직이 이루어지고 시립화 결정이 나고 그러면서 학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원학운: 바뀌었죠.

이형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원학운: 그것이 이제 그 그거하는 과정을 얘기하면 지금은 어제오늘 뭐 반대편에 서있는 분들까지도 백인엽은 안 된다 해서 된 거 거든요. 백인엽씨는 유아독존예요. 자기 사람을 자주 ... 자기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갈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형진: 폭력적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원학운: 난 봤지 때리는 거. 사람을 잘 때려. 내가 때리는 걸 직접 봤는데.

이형진: 군대식이었어요?

원학운: 때리고 내쫓고. 때리고 뭐 보상도 없고 내쫓는 거 봤는데. 그 정도로 주변에 말로만 그 사람한테 뭐 하고 다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인제 그 선인학원 해봐야 뭘 하겠어요. 해봐야 교장인데 아니면 과장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욕심내가지고 가가지고들 백인엽씨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맞은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아 이제 장군 그거. 얼마 받았냐는 사람도 있고. 때리고 돈 주고 그래요. 하 참. 인격 살인이지 그거. 글쎄 그런 건 전 많이 봤습니다. 세세한건 별일이 다 있었으니까. 백인엽하고 그 사람이 있는 거 하고 내가 있는 거 하고 보면 우리가 한 6개월밖에 안되요. 6개월밖에 안되지만 별걸 다 봤어요. 처음 얘기하는 걸 끝까지 다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형진: 일화를 하나 말씀해주시겠어요?

원학운: 일화? 뭐 보초서고 그런 건 기본이고 암구호도 있는 거 아시는가? 그게 80년도에 재단에 가면 재단이 사령부야. 당직사령부 당직이라 해서 당직사령부. 이 여기는 당직 숙직. 그러면 한 사람이 당직일지 들고 저기 재단으로 가야해. 열 몇 명 갔을 거 아냐. 한 20명 가까이 그럼 거기서 오늘 암구호는 바람 그럼 구름. 오늘 암구어는 바람 그럼 구름이야. 오늘 암구호는 바람 구름 하고 있는거야 그게. 웃기죠? 그런 시대에요 그게. 그다음에 재단을 두 놈이 돌아. 지프차가 20키로 이상가면 불법이야. 백인엽이가 20키로로 가라 그래. 가면서 이제 재단에 출입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하는 거. 철조망 쳐놓고. 그다음에 인제 선생들 근무 태만하면 걸려서 시말서 받고 시말서 쓰면 상여금 50프로 감봉. 지 맘대로 하는 거 에요. 근데 그 그놈이 그날 한바꾸 돌고 한 10시쯤에 항도 식당에서 그놈들끼리 걸어 댕기면서 이렇게 적발을 걸어다니는 놈 있고 차타고 다니는 놈 있는데 그 걸어다니는 놈. 차타고 다니는 놈. 그다음에 백인엽 운전수. 이런 애들끼리 식당에서 차 한 잔 한 거야. 먹을 순 있지 그거 갖고 뭐라 그래? 그게 난 마침 그때 수업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있었어. 검정차가 짝 오더니 백인엽이가 그러더라 야 이새끼 어디갔어 하더라고. 왜냐면 백인엽이가 이제 깜장차를 일부로 찾아 온거야. 이거 순찰 잘도나 이제 뭐 지시하러 왔겠지 사실은. 왔는데 차는 안 있고 애들은 없고 하니까 이 새끼들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지른 거야. 다 튀었지. 다 도망갔어. 근데 백차 운전수는 못 도망가잖아.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을 하는 애가 그냥 나오는데 안경을 썼더라고. 야이씨 쌍노무 새끼야 여기서 뭐하냐 뭐하냐 하면서 이북말 하는거야. 일로 오라우, 일로 오라우 했던가. 사람 귓방맹이를 한 대 때리니까 안경이 날라가구. 몇 대 때리더니 야 이새끼야 타라우 하더라고. 자기 옆에 탁 태우고 갔어. 그날부로 도망간 놈은 못 나타나. 해고야.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백인엽의 일등심복이지 간첩. 선생들 적발해서 가져가서 맨 감봉이나 하고 내쫓고 하는 놈. 운전. 그날부로 끝! 뭐 아주 심해.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 저 86년도에도 와가지고서 한다는 짓이. 그 다시 생겼어. 당직이. 확 생겼다니까. 인천대 교수가 거 당직사령관이야. (웃음)

이형진: (웃음) 당직사령관이에요?

원학운: 다시 생겼어. 또 심지어는 야 체육수업은 뭐 뭐 사람대로 하냐 딴 사람들 체육선생들은 어디 외곽경비 이런 거 사람들 관리하고 그래 무슨 수업을 해. 그러면서 3개 반을 합반을 해서 한 사람씩 가르치면 되지. 그런다고. 진짜 그래. 그러면은 수업이 일주일이 여섯 시간이야. 그럼

그거 너 그만두란 얘기잖아요.

이형진: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외곽 경비하셨어요?

원학운: 미쳤어요? 제가 왜. 그건 그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그 선인학원이 시립화되고 공립화되고 하잖아요? 야... 나는 그냥 백인엽과 싸우다가 다시 교육감하고 시비가 되는거고 왜냐면 이제 원래 저 교육청에서 체육과는 내가 유일하게 나 혼자 하니까 저 빨갱이 새끼라고 했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시립화 반대, 친박, 친백 반백 뭐 이런 얘기 하던 애들 있잖아요? 그 교육청은 걔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던 걸 내가 이제 교장을 이대로 유지할 수 있나.

이형진: 아 그거 때문에요?

원학운: 교감은 내가 이제 내가 교장될 수 있나. 교감 자격증 가진 사람은 나는 교감 나갈 수 있나. 이 운동부터 하던 사람인데 뭐. 대한민국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

이형진: 93년까지 일단 시립화 투쟁과정에 대해 말씀 들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원학운: 예 그럽시다.

이형진: 86년경이면 이제 원학운 선생님께서 30대 중반 아니 40대 중반 되십니다. 그때 이제 인천 같은 전교조 지부장님을 이렇게 취임하셔서 2000년대까지 지부장 역할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사실 90년대 이후에 사학 반대 투쟁 이런거나 이런 과정에서 해직선생님들도 챙기셨고 전교조 투쟁으로 이렇게 해직 되신 분들도 인천에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교직을 하셨고 그러고 이제 체육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과정. 축구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시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는데 학교 관련해서 관계가 그러니까 이 사학반대 투쟁이나 전교조 활동을 하시면 갈등이 반드시 생겼을 텐데 또 한편은 이제 공고에서 축구부 육성이나 이런게 또 하셨던 거 같은데 사실 학교 내에선 중요한 일이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행하면서 학교와의 관계나 아니면 뭐 체육선생님이 모르시게 보람 같은것도 느끼셨을 꺼 같은데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원학운: 뭐 그렇습니까 그게. 저기 내가 이제 그 90년도 91년인가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뭐 선인학원에 뭐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는. 한번 그 말하자면 지금 부장이라 합니다만. 그럼 이게 뭐 서로 교체도 해가면서 학교 정책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진데, 맨 똑같은 사람이 십몇 년을 그냥 주구장창 주임이라 하는 걸 해요. 부장을 해요. 이제 그걸 교사협회 때부터 그건 안 된다. 하더래도 2년씩 한 두 번 정도 연임하고 좀 교체도 좀 하고. 선인학원 사립학교라는 거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젊은 선생한테도 기회를 주면서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것이 그냥 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교사협의회가 한 예순다섯 명이... 다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사협의회해가지고 65명이 상조회를 따로 했어. 저쪽에는 열다섯 명이 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갈등도 좀 있었지만은 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학생주임 체육주임 두 개를 했죠. 근데 그거는 맡고 나니까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축구부를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되었죠. 그게 그래요 맡아서 한다는 내가 뭐 축구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행정적인 뒷받침 예산이 나오고 뭐. 솔직히 말해서 깨끗하게 해보자. 뭐 축구부라는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문제로 좀 저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 학

부모들하고 관계. 학부모하고 내가 술을 사주면 사줬지. 얻어먹진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많이 했죠. 근데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면 옛날에는 그 부평고등학교 운봉공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체고는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좋은 꿈나무는 부평고등학교로 가고 운봉공고는 말하자면 고 아래 급 선수들이 오는 이런 모습이었었어. 근데 이제 제가 맡고서는 그걸 좀 바꿨죠. 부평은 부평 쪽으로 가라. 이쪽에 있는 만수중학교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했어요. 그 친구들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전국대회 우승도 많이 했죠. 4번 하고. 준우승은 뭐 해마다 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관선 이사장님한테 전국대회 갔는데 그러더라고. 나를 보더니 자네는 하는 일도 많구만. 관선 왔을 땐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형진: 축구부 친구들 중에서 대성한 친구들도 있나요?

원학운: 대성은 없었고 그 장대인이라고 있었어. 장대인.

이형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원학운: 그 친구는 아버지가 영국분이고 엄마는 한국분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애인데 공을 잘찼어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대표팀까지 했거든요. 차범근 감독시절에 그 이후로 못 컸어요. 걔가 제일 나았었고. 나 있을 때니까. 그 친구 있을 때 전국대회 4관왕도 하고 그랬어요. 1년에 4관왕 했어요. 아주 그때 운동... 지금도 아마 안 없앴으면 숙소 안 없앴으면 거기 내 사진도 근사하게 붙어 있을텐데.

이형진: 선생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함부로 찍어서 몰아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다?

원학운: 어 뭐 그것도 있고. 그것 보담은 제가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암만 술 먹고 그랬어도 술친구도 많았고 서로 믿었죠. 그거 뭐 내 얼굴 보면 저기 투쟁기금 같은 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형진: 96년에 인교조 지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연임해서 2000년까지 두 번 정도 하셨던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 과정 보면 초대에 신맹순 선생님, 이후에 조용명 선생님, 하인호 선생님 이렇게 계셨는데 원학운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규적 인천 교직원활동 하실 때 교직원 운동의 주요한 이슈랄까 그리고 내부가 인천전교조 활동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길 좀 해주시죠.

원학운: 그때 최대의 우리 염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건 합법화에요. 합법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 선생님들도 복직을 했고 그렇지만 그때도 비합법 시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논의가 된 거가, 그전까진 이제 비합이다 보니까 해직중심으로 해서 지부장을 계속 했는데. 요번에는 현직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형진: 선생님이 처음 현직교사셨습니까?

원학운: 그렇죠. 현직이 나와야된다 하니까 위원장부터 싹 다 현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

서 제가 나가는데 제2의 해고도 각오를 한다. 그래서 나갔죠. 나가는데 뭐 과정에서 찬반이 있었죠. 굳이 왜 안가도 될 걸 또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하느냐. 이런 거였죠. 그렇지만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더니 이제 징계를 주더라고. 주는데 해직은 아니고 정직 2개월인가 그랬어요. 두 달 잘 놀았지 뭐. 그러고 복직했어요.

이형진: 사립학교에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원학운: 아니죠. 그때는 공립이었잖아요? 제가 사립시절에는 사립지회장도 했어요. 비합 시절에. 그 전교조 일종의 해직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해에 제가 사립지회장을 했습니다. 사립지회장을 1년인가 2년 했을 거 에요. 그러고서는 선인학원 투쟁 겸해서 했죠. 해서 공립화 되고 공립화 되니까 공립됐다고 공립지회장을 하래.

이형진: 그러니까 운봉공고가 공립학교가 됐단 건가요? 아니면...

원학운: 그렇죠. 인천대는 시립이고 각 학교는 공립이 된 겁니다. 그게 14년 3월일 거야.

이형진: 그러면 선인재단 전체 학원들은 다 공립으로?

원학운: 그렇죠. 그중에 없어진 거가 진흥유치원만 없어졌구나. 나머지는 다 공립으로 흡수됐어. 효율초등도 없어지고 중,고등학교 다 공립된 거지.

이형진: 큰 변화가 생긴거...

원학운: 아 많은 변화였지. 그것이 그렇게 된 거가 첫째. 내부구성원이 학생, 교수, 선생들이 뭉쳐있다는거? 그 다음에 상당히 노태우정부가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우리한테.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모든 관청이 호의적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백인엽 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았다는 것. 인천시민이 도와줬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모임, 그 다음 범선추, 인천대 학생, 인천 전문대 학생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성원이 백인엽은 안 돼. 이런 거였어요. 그래 가지구 거의 뭐 총장실은 늘 비어있었어요. 우리 퇴근하면 거기서 회의했으니까.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그런 뭐 백인엽씨가 뭔 얘기하면 선생들 입에서 정보가 샜다는 둥 우리끼리 뭐 ...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참 안타깝죠. 법대교수인데 그 사람이 김모 교순데 이름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이제 재임용 걸려가지고 백인엽씨한테 그냥 사죄의 글을 쓴 거가 재단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저도 봤어.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회의 글이라고 썼지만, 정말 교직자로써 양심에 어긋나는 글을 써서 살아남으려고 그랬더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교직을 떠났죠. 어떻게 챙피해서 그걸 쓴 거를 다 잊겠어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형진: 선생님 그 지부장 4년 하시고 그리고 2001년에 교육감 선거를 나가시게 됩니다. 당시에 평교사출신으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것, 그리고 또 전교조 출신 이거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원학운: 내가 나갈 때 어디서 나갔던 거 같은데. 나만 나간 게 아닌 거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형진: 인천에서는?

원학운: 인천에선 첨이죠.

이형진: 그때 무슨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까?

원학운: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제가 지부장이지 뭐 복귀한 다음에

이형진: 2000년에 복귀해서?

원학운: 아니 저 김대중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저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직 2개월 받고서는 그 다음에 됐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imf시절이고.

이형진: 97년입니다. 98년부터

원학운: 그러니까 됐어요. 아마 97년에 징계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양반이 바로 복권시켜주더라고. 징계 취소야. 그 얼마나 운이 좋아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 합법화에 길을 가잖아요. 시말서를 쓰고 했는데. 2001년도는 내 임기를 마쳤어요. 마치고 200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 실험이죠, 실험. 그때가 저깁니다. 학교 운영 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때에요. 아마 그게 첫 번째 일거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마 지역사회도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주세요. 하고 부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제 이것이 바로 학원민주화의 지름길이다 라고 봤어요. 우리는 그때는. 그래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마하게 된 거는, 그거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인천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찍어준 분이 많진 않겠지만 한번 도전은 해보자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결의가 됐죠. 물론 반대도 많이 있었어요. 굳이 뭘 그걸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교육관이 그때 당시 참교육 교육관이, 현재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육정책안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나름대로. 그게 소중한 거지. 이거야말로 소중한 거 거든요. 이것을 누구를 하나를 밀어서 그 사람을 옹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저희들이 판단할 땐 이렇게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가면 3등은 할 수 있다. 나가서 1등은 안될 것이고 2등 하시는 분하고 좀 교섭을 해서 1,2등이 어차피 결선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 후보가 많기 때문에. 2등 하는 분한테 우리가 좀 우리의 정책안을 가지고 같이 그 후보님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내가 너무 잘했나봐. 하필이면 재수 없었던 거죠. 2등을 했어요. 표도 많이 얻었어요. 얻었어. 그러니까 물론 나근영씨가 압도적으로 1등 했지만 저도 꽤 얻었다고요. 근데 그 나머지분들이 저를 도와줍니까? 다른 분들은 저 빼고 다 교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교육감 나간거가 나는 유명해진 건 사실인데 실패작입니다. 3등 했어야 돼요. 제 생각, 제 생각입니다. 좀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결선투표가 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형진: 투표와 얽혀서 그 당시에 선생님 부친께서 뭐 유언처럼 말씀하셨다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원학운: 아니 저 그렇잖아요. 집안에 우리 뭐 돌아가신지 뭐 꽤 됐죠.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제가 참 불효자지요. 왜냐면 전교조 하는 거. 그다음에 백인엽씨 하는 거, 선인학원하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그게 그 옛 어르신들은 아들놈의 새끼 그것도 장남이 말이여. 그 뭐 편안하게 선생

하라 그랬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왜하느냐고 그러지 않겄어요?

이형진; 그 충청도 괴산에 사셨죠?

원학운: 아뇨. 그때는 2000년 때는 저랑 같이 살았죠.

이형진: 인천에 와 계셨어. 직접 옆에서 보셨겠네요.

원학운: 같이는 안살아도 바로 옆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나간다 그랬더니 껄껄 웃더라고 왜?. 지금 후배들이 나가라그러고 근데 저 알고나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이왕 할 거 돼야지 임마. 그러더니 야 그거 집 잽혀야겠다. 너 돈 대야지 이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처음으로 나를 긍정적으로 본 순간입니다 그때가. 그러더니 어떻게 이제 마침 그 검단에 우리 사촌. 나랑 동갑인데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형진: 은행지점장?

원학운: 걔한테 전화해서 야 돈 좀 갖고 와 그러니까 기탁금인가 뭔가 하는 게 3천만 원이야. 그거 빌려서 삼천만 원 그날 갖고 와서 갖고 왔어요. 그날 가서 그날 받았어. 그거 우리 양반 날 신뢰 안했거든. 우리 아버지가 날. 아니 속으로는 노인네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놈으 새끼 저 놈으 새끼 해도 속으론 그런 속정이 있었으나 평소에 말 섞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었어. 그렇게 해줬어. 요즘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한숨)

이형진: 2001년 이후에 선생님께서 전교조 활동을 중지하신건 아니지만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이제 민주노총으로 또 진출을 하십니다. 민주노총 염성태 위원장님 이후에 2003년부터 본부장을 하게 되십니다. 사실 그전에 선생님들하고 사회적 이슈나 그런 거에 이제 참여하시고 했는데 이제 민주노총은 제조업 노동자 조직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교조도 노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현장에 노동현장에 후배들하고 다시 부대끼시는데 이 과정도 연임을 하셔가지고 6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후배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신 거 같은데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해주시겠어요? 첨에 좀 어색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학운: 많이 어색했죠. 많이 어색한 게 아니라

이형진: 선생님하고 제자인데요 하하.

원학운: 교육감 선거 끝나고 있는데 그때가 이청연 지부장 할 때에요.

이형진: 아 후임으로 이청연?

원학운: 예예. 거기 있던 이재연이가 사무처장할 때요. 나한테 뭐 요구가 있으니까 뭐 그라는거겨. 뭐 내가 뭘 압니까. 노동현장 그 제조업을 그 현장을 가본 일도, 어쩌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저기 염성태 본부장할 때 제가 부본부장할 때가 있어요. 부본부장을 했어요.

이형진: 당연직 본부장이죠?

원학운: 이제 그 학교현장 선생인데 노동조합 가가지고 마이크 한번 주면 연설도 한번 하고 연설도 한번 하고 이런 적은 간혹 있었습니다. 저기 그때는 대우자동차가 해고 시절에 쌀 걷어주고 그런데 가서는 본부장 옆에서 염성태 본부장 옆에 서서 사진도 찍고, 그런 역할, 아주 소소한 역할은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오라는 거에요. 꽃길만 가는 줄 알았죠.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우리 저 GM위원장 하는 김성갑, 아 이제 봤더니 나보다 한 열 다섯살 밑이더라고?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와서 혼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 뭐 거기서 나를 저기 저 뭐 연설문도 써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땐 뭐 다 뭐가 많이 있었거든요. 추영호씨, 문상기 그때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끈끈하죠. 이렇게 해갖고 그때 나가게 됐는데 겁나더라고 근데 어떻게 되던 했어요. 했는데 이제 뭐 그 전엔 지금은 모르겠는데 단위 사업장 대표자 회의 뭐 이런 거 하면 한 5~60명씩 오고 그러지 않았죠. 그라면 또 그 양반들 하고 술도 한잔씩 하면 말야, 한잔씩 받아먹다보면 못 일어날 정도로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제가 두 번했는데, 하면서 뭐 보람은 있었어요. 어쨌든 같이 고생을 하는 거고 노동현장 다니면서 노동자 일하는 거 다 봤잖아요. 여기 장갑끼고 장갑에 뭐 끼고 위에 가죽 장갑끼고 양쪽에 들고서 쇠 옮기는 작업하는 거 보면,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사나, 아주 우리는 첨 본거거든요. 그 정말 현장가면. 그런 거 하면서, 난 너무 세상 곱게 살았다고 생각했어. 너무 그다음에 간혹 술 좌석에서 보면 내 앞에서 고개 돌리고 먹고 그런 애들 있어요. 그거 다 제자에요. 나중에. 인제 그 공고선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또 운봉모임이 다 있어요. 현대제철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 반가웠어요. 그런 건 보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는 뭐 지금도 뭐 거의 한가지겠지만 본부장 한다는 게 일년에 한 365일중에 100일은 아스팔트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하면서 미안한 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노무현 대통령 있을 시절에 너무 많이 내가 대들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게 원칙인줄 알아서 그랬거든요. 지나고 보고 이 정권 이정권이 아니라 그 전 정권. 이명박씨 박근혜씨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저기 해갖고 다음 사람이 대통령을 못했나 싶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형진: 선생님께서 2009년까지 본부장 일을 하시고 아마 2010년경에 이제 환갑... 예. 하시고. 그리고 운봉공고는 또 계속 다시 복귀를 하신 거죠? 그럼 그 과정은 그러니까 학교는 휴직을 하셨나요?.

원학운: 그렇죠. 학교 휴직, 그게 인제 그 전교조 관련해서, 휴직이 그때가 합법화가 됐으니까,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서 휴직이 됐으니까. 5년, 5년 이상 휴직됐죠? 휴직하고. 복직을 운산, 지금은 도화기계공고?

이형진: 아 운봉공고가 아니고 운산공고로?

원학운: 그동안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공립되면 돌아다녀야 되잖아. 내가 많이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형진: 그럼 휴직 때 쉬었고, 시립화 이후에 이제 학교를 몇 군데 돌아다니셨단 말씀이죠? 그럼 이제 민주노총 일을 끝내고 복귀했을 때는 운산기계공고...

원학운: 도화기계공고라고. 거기서 한 3년인가 있다 졸업했죠?

이형진: 주로 공업고등학교로만.

원학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공고 체육선생을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쪼끔 있었고, 저쪽에 해양과학고 옛날 수고, 거기에도 한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도화기계공고, 그 저 그전에는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데리고 가요.

이형진: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경험이 없으신거죠?

원학운: 처음에. 처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죠.

이형진: 그 공고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접하면서 직업을 갖기 위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학지도나 그런 부분인데 담임도 직접 하셨죠?

원학운: 담임 두 번했죠. 운봉고서.

이형진: 근데 제자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로 고민이셨겠어요.

원학운: 뭐 내 자랑이 아니라. 다 잘사는데, 걔들 주례도 많이 해줬고, 그 친구들이 공장생활 하는 애도 있고 또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사회 나가면 사회 나가서 공부를 또 해. 이게 그게 아니더라구요. 공부 잘해가지고 하는 거 아냐.

이형진: 나이 들어서 철드는 건가요?

원학운: 철 드는게 아니라 지가 거기서 그 조직에서 뭐 살을라면 지 나름대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심지어는 뭐 운봉공고 토목과 하면 인천서 공부하곤 관계없는, 공부도 못해요. 내가 토목과 담임했는데. 그때 당시 그 아이는 토목과 가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꽤 많은 공사를 했어요. 뭐 걔가 한건 아니고 기사로. 그만하면 됐지 뭐.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 2의 자기를 공부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거기서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걔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안 갔습니다. 근데도 측량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도까지도 완벽하게 해내고, 어디 뭐 옥련터널 공사장에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했다고 나한테. 그런 제자들한테 접대 잘 받습니다.

이형진: 아마 경력으론 이제 이게 마지막이실 꺼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봉공고 정년퇴임 하시고 나서 2016년에 인제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당연직이라고 얘길 하는데요. 민주노총 본부장님 하시면서 인천연합에 공동대표나 그런 지역에 이제 여러 민주화운동 단체들하고 사회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교사로서 학교에서 역할이나 교직원운동 이걸 넘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 사회운동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한 20년 동안 하셨다고 보여 지거든요. 민주노총 활동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출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점점 운동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다고 보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이 과정을 돌이켜보시면서 자기 회고랄까 이런 게 좀 있으실 텐데요. 사실 학생운동 하신 것도 아니고?

원학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른 살. 글쎄.

이형진: 삼십에 인천 오셨어요.

원학운: 서른 살에 와서 서른다섯, 여섯, 그때까지는 정말 잘 못살았다 하면 안 돼 사실은, 나름대로 그냥 뭐 엉망진창은 아니고, 남들이 논다고 그러나 그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이형진: 선생님 약간 한량이셨죠? 흰 양복 입으셨고

원학운: 술 잘 먹고. 뭐 그 바람에 이제 나중에 뭐 공직 선거나 많이 씹혔죠. 저 자식 뭐 백구두 신고 다녔다. 금목걸이 팔찌 하고 다녔다. 백 바지 입었다. 별거 다 그런 흠도 있었고. 그건 뭐 내가 한일인데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뭐 괜찮은 사람들 만나갖고 이렇게 이제 쭉, 거의 뭐 40 다 돼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40 넘어서부터. 나름, 나름 보람 있게 살았구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대신에. 난 게으른 사람, 난 속으론 나 굉장히 게으르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중상은 돼. 내가 안 게으른 사람이야. 어디 가있고 요소요소 때마다 빠지지 있을라고 그랬고 그렇게 살았고. 그담에 인천이 물러요. 아무나 나 같은 생 건달이 와서 하는데도 자리를 내 줬다는 거.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날 도와준 사람도 너무 많고. 지금까지 어디로 튈지, 70에 뭐 어디로 튀겠습니까만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대로 살지 않겠어요? 다시 거꾸로는 안 가겠지. 이젠 틀렸고. 그동안에 뭐 가진 건, 인천에 있는 감투라는 감투는 다 썼어요. 지회장 뭐 이런 거 했지만 지부장도 했었고. 옛날에는 뭐 당연직이지만 인천연합 의장인가 공동의장인가 이런 것도 해봤고 민주노총도 해봤고.

이형진: 선생님 그 약간 이제 벗어난 질문인데요. 종교가 계십니까?

원학운: 없습니다.

이형진: 일요일 날 주님을 많이 모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원학운: 옛날에 그 인천연합 공동대푠가 그거 할 때 같이 공동대표 한 정한식이라고 있어요. 목사. 그게 저 있으면서 죽이 맞아 굉장히 친했거든요.

이형진: 원래 교인은 아니셨군요?

원학운: 아니죠. 근데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엄청 교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옮겼다 하더라고. 가보니까 교인이 없어. 망한 거 같애. 그래서 저 제가 먼저는 안 갔고. 몇 사람한테야 이왕 너 교회 다니는 거 그 교회 좀 다녀라 나는 뭐 교인도 아니었는데 가기는 뭐시기 하니까. 다니라고 했는데 이제 다녔죠. 나는 이제 1월1일인가 그럴 거 에요. 1월 달에 궁금해서 우리 동네 몇 하고 그 교회를 갔어요.

이형진: 예본교회?

원학운: 예본교회. 갔더니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야 다니자 해서 한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녔는데 교회가 망해서 지금은 안다닙니다. 근데 저 기독교인이라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뭐

고 난 기독교인 아녜요. 왜냐하면 주기도문도 못 외워요 지금도. 책보고 읽는다고.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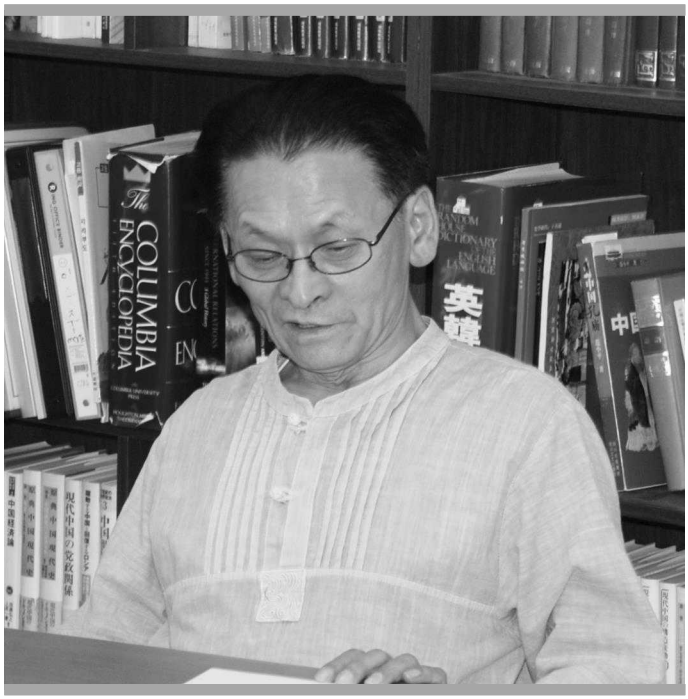
이형진: 선생님 그 충청도 고향엔 가끔 가시나요?

원학운: 거기 이제 아무도 안살구요. 저희 아버님 묘만 거기 있습니다. 일 년에 한번 가죠.

이형진: 오늘 우리 원학운 선생님을 모시고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학 민주화 투쟁 인천 선인학원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사학 민주화투쟁의 원학운 선생님의 역할과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후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학운: 고맙습니다. 예.

유동우



- 섬유노동조합 삼원섬유분회장
- 한국기독노종자총연맹 초대회장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일　　시 2021. 10. 5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유동우

이형진: 자, 오늘은 2021년 10월 5일입니다. 오늘 살아온 이야기는 노동운동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우리 유동우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에 작은 돌맹이의 외침이라는 책으로 이미.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이형진: 예, 어느 돌맹이의 외침. 그거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알리신 분인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파란 많은 세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느 돌맹이의 외침에 나오는 과정 이후에 얘기를 듣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유 선생님은 1949년 경북 영주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돌맹이의 외침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략 74년까지 인천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셨던 삼원섬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리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동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동우: 아,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예. 유동우 선생님, 그 아마도 그때 당시 얘기를 하시면 또 여러가지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삼원섬유 현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과정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유동우: 아, 예. 그 삼원섬유는 부평공단에 그러니까 한국 수출 산업 제4단지죠. 공식적인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일본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삼원섬유라고 거기서 73년 1월 2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2일부터 일했고, 뭐 그 당시에 일반적인 한국의 그런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다 그렇다시피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걸 지키는 곳이 없었고 삼원섬유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해고도 현장 관리자 말 한마디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러면 그냥 해고가 되는. 그뿐만 아니라. 뭐 폭행 구타 이런 것도 뭐 비일비재했죠. 특히 완력이 그나마 있는 남성들보다는 완력이 없는 이런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거, 물리적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여기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좀 대접받으면서 일하기 위해서는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했고요. 내가 1월 2일부터 일을 했는데, 12월 12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때 부평4공단에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었고. 더구나 우리 회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잘 싸워서 결국 노동조합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쟁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원섬유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니까 바로 공단에 그 이듬해 1월 달부터 막 그냥 우후죽순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나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또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73년 12월 달에 우리가 12일 날 만들었는데 74년 1월부터 노동조합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74년 4월에는 그 유명한 반도 상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 꼭 정보기관이나 이런 공안기관에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4년 8월달에 조합원 노동,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 섬유노동조합 연맹. 본조죠. 본조라고 그러죠. 본조 밑에 경기지부가 있는데 경기지부에 속한 우리는 분회였죠. 삼원섬유 분회였는데 거기서 불법으로 제명을 당하고. 그 제명 권한이 없는데도 제명을 하고. 또 결국은 그게 그냥 본조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형진: 한국노총 섬유 노련에서 분회장님을 제명한 초유의 상황이 생긴 거죠. 사실 동일방직이나 이

런 데에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던 거죠.

유동우: 그렇죠. 동일방직은 1천 명 이상이 되니까 그건 이제 지부가 되고 1천 명 이하는 지역 지부에 속하게 돼 있어요. 분회로. 그래서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제가 이건 불법이다 하고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제명시키자마자 2시간 만에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켰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하하는 과정에서 부평경찰서에 구속이 되고. 그래서 꼭 1년 만에 74년 12월 달에 해고 투쟁 과정에서, 부당해고 투쟁 과정에서 이제 구속이 되죠.

이형진: 첫 구속이셨습니까?

유동우: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75년 1월 달에 이제 나와 가지고 계속 이제 법적인 이제 그 투쟁을, 부당해고 그 투쟁을 하는데 그러자니까. 내가 그 분회장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은 계속 부분회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아마 73년 3월 달인가 그때 총회,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형진: 74년이죠.

유동우: 74년, 그렇죠. 어! 74년, 그렇죠. 맞네요. 응? 아니에요. 75년이 되죠. 왜냐하면 74년 12월에 해서 내가 8개월 동안 하다 74년 8월 달에 8월 말에 말일 날 제명을 당하고 해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75년이 되는 거죠. 75년 3월달에 정기총회를 하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노동조합을 지켜야 되겠다고 부분회장을 중심으로 싸우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남자를 후보자로, 분회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그렇게 싸울,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 종업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압력도 넣고 회유도 하고. 남자들한테는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엄청나게 공작을 해요. 그런데 총회 하는 날은 내가 그 당시에는 회사에 못 다니고 바깥에 있었지만 총회 하는 날은 현장에 들어갔었어요. 총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조마조마하죠. 남자한테 넘어가면 노동조합을 회사 측에 뺏기는 거고. 아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참 멋진 게 회사의 그 회유 압박 뭐 이런 걸 물리치고 개표를 하는데 보니까 3분의 2를 이쪽에서 획득을 해요.

이형진: 우리가 추천한 부분회장이 직무대행을...

유동우: 예, 분회의 여성부장이 바로 분회장으로 선출되는 거죠. 그때 진짜 가슴이 뭉클했고. 그때 내가 법적인 싸움을 포기했어요. 복직 투쟁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100% 이길 수도 없거니와 더 이상 내가 여기 이 삼원섬유를 고집하는 것도 이건 의미가 없다. 내가 있건 없건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충분한 역량이 있고 아,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그래 가지고 진짜 속으로 울었어요. 그토록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야 다른 회사 이제 취직도 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뭐 들어가면 신분이 탄로나서 사실상 아마 70년대 블랙리스트 1호일 거예요 내가. 한 달 만에 쫓겨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공장생활도 제대로 정말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재야 노동 운동이죠. 전국에 있는 공장 지대 이런 데 초청 받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연결돼서 가기도 하고 다 돌아다니죠 뭐. 서울, 인천, 인천은 물론이고. 뭐 서울, 성남, 뭐 수원, 저 뭐 대전, 전주, 광주, 부산.

이형진: 사례 발표를 하러 다니신 거죠?

유동우: 어, 사례 발표도 하고 또 그쪽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조합, 노동조합 결성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원주 이런 데까지. 포항 대구, 엄청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또 조직을, 조직 만드는 걸 노동조합 결성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느라고 계속 공안기관이나 이런 데니까 찍힐 수밖에 없었고.

이형진: 이 선생님 책을 집필하신 거는 그 무렵인가요?

유동우: 그게 76년도 말에, 76년도 가을쯤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에, 중간 집단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크리스찬 아카데미 전강 교육에 참여하고 난 뒤에 거기 실무자로 계시던 이제 신인령 선생님,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김세균 선생, 김세균 선생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나중에 또 가시게 되죠. 그 두 분이 집중적으로 나한테 쓰라고, 경험을 좀 쓰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쓴 게, 그렇게 썼고 처음에 원고지 한 3, 400매 분량을 넘겼는데. 그게 「대화」지, 월간 대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하던 출판사가 대화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월간지로, 월간 대화를 그 발간했고. 그때 내가 그러니까 77년 1월호부터 이제 3회, 1월 2월 3월, 3회 연재가 됐죠.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78년도 초에 이제 단행본으로 냈고. 단행본을 내자마자 직접 그 당시에 판매 금지 판금시키는 거는 문공부, 문공부를 통해서 판금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기획하는데, 이거는 뭐 중앙정보부에서 직접. 남산에서 직접 출판사에다가 전해가지고, 발간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으니 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니까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은밀히 했어요, 몇 번. 몇 번. 여러 번 출판을 했는데 낼 때마다 그냥 1판, 초판으로. 초판으로만 계속 몇 번 찍었어요. 그게 바로 79년, 79년 초에 일어난. 그러니까 한 1년간을 계속 찍었어요. 첫판으로. 그냥 가만히 모르게 그냥.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79년 초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5개 파트가, 이제 이를테면 노동 사회 또 농민 사회, 농촌 사회죠. 노동사회 농촌사회 학생 사회 교회 사회 여성 사회 이렇게 5개 분야로, 우리는 이제 교육받게 된 노동 사회 쪽으로 중간 집단 교육을 받고. 그런데 그 실무자들을 다 엮어가지고 공산주의자로.

이형진: 아,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가 되셨...

유동우: 아니요,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무자들을 묶어가지고 바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뭐 학습을 하고, 뭐 했다고 그렇게 엮여서 전부 다 공산주의자로 그냥 몰아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죠. 그때 이제 신인령 선생님, 김세균, 한명숙, 그 총리 하시는 한명숙, 이우재, 또 저 뭐 황한이, 황한식, 장상환 뭐. 그런 여러 실무자들이 다 엮여져 가죠. 그러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 집단 교육이 완전히 와해가 되고 출판사가 그냥 폐간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돌맹이 외침도 출판을 못 하게. 그러니까 가만히 그 초판으로만 계속 발간하던 것조차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책을 못 구하니까 해적판을 그렇게 많이 찍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형진: 복사판 이렇게 돌려보고 그랬겠죠.

유동우: 심지어는 어느 동아리에서는 우리가 300부를 찍었는데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인편을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해적판 인쇄까지 받았어. 어쨌든 그 이후에 돌맹이 외침을 쓰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까 사실상 전국적으로 교회 그 지역사회, 사회 단체들

또 대학교 그 당시에는 대학교가 많지 않았죠. 근데 온갖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딱 그거 가서 강연도 하고, 또 공장 지대에 가서 노동자를 만나서 하고. 그렇게 저야 노동운동을 하면서 쭉 살아왔고요. 그러다가 79년도에, 79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형진: 79년 몇 월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유동우: 3월 달에 결혼을 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동일방직의 대의원 출신인 친구하고 이제 결혼.

이형진: 김옥섭 선생님이시죠?

유동우: 예.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 그때 이제 군포에 안양 밑에 군포. 요즘은 시가 됐지만 그때는 뭐 군포면이었는가 읍이었는가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거기 있으면서 공장 다니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거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안양 카톨릭회관이라고. 안양 참, 안양 근로자 회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카톨릭 기관인데 사복 수녀님들이 그 운영하는. 그러니까 70,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올라, 그 농촌에서 그야말로 그 개나리 보따리 싸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면 우선 공장에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잘 데가 없으니까 대개 그 당시에 공장에서는 기숙사를 지어놓고 기숙사에 수용을 했죠. 기숙사에 수용하니까 장기간, 장시간 일을 시키는 데도 유리하고 또 통제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유리해서 가둬놓고 그냥 일을 시킨 거였죠. 외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원교구에서 아마 안양 근로자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기숙사, 근로자들을 이제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형진: 아, 근로자 회관 같은 걸 만들었군요?

유동우: 네, 회관이에요. 명칭이 안양 근로자 회관이었어. 거기에 내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면서 또 근로기준법, 노동법도 가르치고 지역, 또 노동자 결성도 돕고 간부들도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또 탈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10. 26이 이제 79년 10월 26일 날 10. 26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유신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유신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때 그 유신 체제와 싸워왔던 이런 민주세력들은, 제야 민주세력들은 다 이제는 그 지독한 유신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민주화가 되는 수밖에 없다. 다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랬는데.

이형진: 그러면은 그 대목에서 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76년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자의는 아니지만 재야 노동운동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이나 이렇게 돌면서 노동자들 교육도 하고,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 같은 그런 이제 공식적인 조직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재야 민주화 운동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동운동 활동가들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고 가시죠. 일단 10. 26 이전까지 과정을 좀 한 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우: 70년대, 그야말로 그건 유신 시대 아니에요.

이형진: 시대 말기죠.

유동우: 유신 시대에서. 그러니까 유신 초기에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내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장에 갔다 해고도 되고. 뭐 이런 또 돌맹이 외침도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70년대, 그러니까 삼원섬유 같은 데가 삼원섬유 같은 데가 요즘 평가하기는 이제 민주노조라고 그러죠.

이형진: 예,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이었습니다.

유동우: 다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지만 한국노총의 상층부는 뭐 아주 철저하게 어용화 돼 있었고 반노동자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 단위 사업장에 그 하부의 단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방해하는. 그 극단적인 예가 우리 삼원섬유를 그냥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걸, 분회장을, 노동조합 대표인 분회장을 제명시킴으로 인해서 회사하고 결탁하고, 그렇게 노동조합 파괴하려고 했던 그게 바로 한국노총 본부죠. 또 동일방직. 그 똥물까지 퍼부어가면서 그렇게 민주적인 노조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는 노동, 상층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 조직이 그걸 파괴를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노동자적인 그런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노조를 한 몇 군데, 그 당시에 참 많지도 않았던 이를테면 뭐 삼원섬유, 동일방직, 원풍모방 뭐 청계피복 와이에이치 이런 콘트롤 데이터 여러 군데 그 노조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죠. 그 결정적으로 그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데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 집단 교육이에요. 노동조합을 제대로 하는 데는 다 간부들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 집단 교육을 노동사회 쪽에 교육을 받았고.

이형진: 중간 간부들 교육이라는 거죠?

유동우: 예 예. 그러니까 중간 집단이라고 하는 건 간부들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 노동자. 이 세력이 이 사회가 그야말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기업주 노동자 뭐 이렇게 지식인 노동자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양극단은 때로는 배제하면서도 건전한, 이게 중간적인 힘을 모아가면서 그걸 통합해내는, 그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중간 집단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거기에 소위 명색이 노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데서는 간부들이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할 때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많을 때는 4, 50명도 되고. 거기에서 정말 일주일간 교육, 먹고 자면서 같이 합숙 교육을 하는데 아주 끈끈한 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서도, 그 교육 끝나고 나서도 후속 교육으로 사례 발표회, 사례 연구회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제 가서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상당히 민주노조들 간에는 끈끈한 연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형진: 선생님, 부평 지역을 이제 떠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산업 선교회 활동과 관련해서 광야 교회 같은 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선생님의 자취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동우: 그게 이제 73년도에 노동조합 결성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사장, 우리 임금 체계가 실적주의 임금 제도라고 그래서 일을 하는 만큼만 돈을 받아요.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서 뭐 그냥 온갖 사람들이 찾아오고 노조 해산하라고. 그 당시

에 찾아온 게, 내 돌맹이 외침은 그때 겁이 나서가 아니라 계속 경찰들, 정보기관에서 주시를 받고 있을 때라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 그런 걸 쓰지는 못했지만 노동조합 결성하고 나서 바로 회사는 물론이고. 회사는 완전히 그냥 반대파를 만들어서 파괴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그런데 공단 본부.

이형진: 4공단 본부죠.

유동우: 예, 4공단 본부에서 와가지고 노동조합 해산하자고 그냥. 하여튼 매일 매일 찾아와 가지고 나를 압박하지. 또 부평 경찰 정보과. 그 담당 형사들 또 와서 은연중에 너 그러다 너 다치면 너만 손해다. 협박까지도 해가면서 노동조합을, 다 노동조합을 해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야, 조금 나중에 만들면 되지,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데 결성하고 나서 바로 인하공사 중앙정보부, 그리고 송악사 보안대, 보안사까지도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깎은 놈들이, 두 사람이 와 가지고 다 조사해 가고 또 노동청 이게 뭐. 온 인천 기관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형진: 작업을 하실 수가 없었겠네요. 실적을 그러니까, 실적주의인데 일을 못 하셨겠습니다.

유동우: 그래서요. 그랬는데 내가 그걸 내가. 아유 그, 지켜 진짜.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 이거 이거, 또 경험이 없지만, 경험은 없었지만, 노동조합, 노동운동 경험은 없었지만 이걸 한 번 해산하고 나면 다시 하기는 어렵다. 이 생각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순진, 또 원래 또 순진하고 내가. 순진한 척, 일단 노동조합은 그러면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형진: 아,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유동우: 아유, 그럼요.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간판은 붙여놓자. 간판 붙여놓고 활동하지 않겠다. 있는 듯 없는 듯이. 당시에도 6개월 동안만 노동조합을 해산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는, 역으로, 그렇게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어쨌든 걸어내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어쨌든 그 노동청장한테 신고 필증을 받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일반 국내 기업 같으면은...

이형진: 예, 노조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유동우: 예, 그 행정관청, 구청장한테 설립 신고하면 필증을 받으면 되는데 이건 제주도에서 하건 부산에서 하건 서울서 하건 어디에서 하건 노동청장은, 지금으로는 노동부. 그 당시에는 노동부가 없었으니까 노동청장한테 직접 신고하게 돼 있고 거기서 필증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결성이, 노조 결성이 어려웠던 게 우리보다 한 6개월 내지 그 1년 상간인데 내가 구체적인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로, 그러니까 한국 산업 수출공단, 수출산업공단 안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노동조합 결성에 성공한 거는 삼원섬유가 첫 케이스예요. 근데 그전에 우리보다 한 6개월인가. 한 1년 고 상 간에 앞서서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한 번 됐었어요. 이제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결성되고 나서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외국 본사에서.

이형진: 철수해 버렸죠?

유동우: 예, 우리나라 그 당시엔 상공부 장관이죠. 상공부 장관한테 항의 서한을 보내요. 그 외국 본사에서, 당신네들이 여기 우리가 투자할 때 노동조합이나 이런 거 결성으로부터 다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잖냐. 이런 뉘앙스로, 노골적으로 이런 뉘앙스로 그런데 왜 노동조합 결성됐는데 손 놓고 있냐.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외국 본사에서 한 달에 상공부장관한테 그 헌법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을 막아주겠다고 해놓고 왜 손 놓고 있냐. 그러니까 바로 상공부에서 난리가 났고 바로 곧바로 바로 중앙정보부가 개입해가지고 아주 풍비박산을 시킵니다. 노동조합 분회장은 어디 어떻게 흔적도 없이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고. 간부들 다 해외에서 잘라버리고 저 회유해서 서약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동조합은 그냥 완전 박살난 거죠. 그 실패를 알았어요. 고민이 많았었죠. 이게 정말 결성이. 그런데 그때로써는 노동조합 결성으로밖에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삼원섬유의 조건이 돼 있었어요. 내가 그 해 이제 8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내가 대한 서점에 가서 노동관계법 책을 사가지고 읽고, 그때 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렇게 좋은 법이 있다고 하는 걸 나도 놀라고, 진짜 모르는 거는 또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 산업선교회 실무자들한테 이런 거는 이게 이렇게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퇴직금 우리 회사 같은 데는 원래 안 주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게 맞냐? 이래. 내 자신도 그걸 못 믿을 정도로, 퇴직금 안 주는 건 당연히 그건 우리 회사 같은 데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당신네 회사는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좀. 내가 아, 그래서 이제 확신이 선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동료들을.

이형진: 모임방을 만드셨던 거죠?

유동우: 예, 교육을 시켰는데 바로 이제 동아리, 소그룹을 만들어요. 한 8명에서 12명. 요 상간으로 연령대별로 뭐 또 여성들이 여성들대로, 또 이렇게. 그 한 10여개 만들었어요.

이형진: 아, 삼원섬유 내에서 모임이 한 10여 개 정도 됐다는 거죠.

유동우: 그 어느 돌맹이 외침을 보면 삼원섬유가 뭐 300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360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원래 한 450명 정도 됐어요, 종업원이. 그 생산직만 하더라도. 45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하청도 주고 하면서 인원수를 점점 줄이긴 하는데 적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10명씩으로 보더라도 10여 개를 소그룹으로 묶으니까 100명 정도. 그러니까 3, 4분의 1 정도는 조직화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소그룹, 그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가르치고 한다. 공부를 한다? 회사에 알면 거의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뭐 저 법적 절차나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 유지를 정말 늘 강조하면서 그렇게 10여 개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걸렸어요. 그렇게 많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엔 나, 내 얘기를 안 믿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 하면 하루 8시간 이상 하는 거 연장 근로 수당을 받아야 된다, 매주 6일에 하루씩은 또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씩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권리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들도 내가 근로기준법을 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들 우리 회사는 그거 안 주는 거다, 그건 뭐 어떤 큰 회사는 특별한 회사, 뭐 이런 데 몰라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침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이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그때 고향이 이제 철원인데 철원에 있던 근로자가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리지만 친구처럼 교회도 다니고 했던. 그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이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는 같이 일하는 여성하고 이제 연애를 해 가지고 둘이 약혼까지 하고. 둘이 이제 나중에 결혼 하게, 했겠죠.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내가 아, 이게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군대 가고나서 구만. 그 군대 가고 나서 내가 퇴직금 문제를 내가 얘기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아, 달라 그래 보라고. 내가 달라 그래 보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두 번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다시 가봐라. 법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지 않냐. 법조문을 내가 보여주면서, 외워가지고 그거는 저, 우리 회사는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 또 두 번 다 머쓱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그런 걸 갖다가 며칠 뒤에, 며칠 뒤에 내가 회사 결근을 하고 저기를 갔죠. 그저, 철원 그 집, 집을 찾아갔죠. 그때는.

이형진: 아, 그래서 대신 그걸 이제 진정을 내셨군요.

유동우: 마장동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옛날에는 그 철원을 가자면 진짜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이쪽 출발해가지고 가니까 뭐 저녁 돼요. 그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일단 위임장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위임장을 나한테 그걸 받는 걸 수령하는 걸 위임한다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회사에 제출했죠.

이형진: 그걸 유 선생님이 대신.

유동우: 예. 회사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은 했죠. 그렇지만 특히 그 친구하고 나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내가 하는 걸로. 그래놓고 그 약혼녀가 있었으니까. 약혼녀를 내가 앞세워 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임장이 그렇게 나한테 써주고 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거는 좀 경험은 없지만은 대개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런 문장은 잘 작성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 받고 나서는 내가 이제, 내 얘기가 이거 뭐,

이형진: 바로 소문이 났어요?

유동우: 예, 곧바로 터지니까 이제 퇴직금 받았다는 얘기가, 퍼지니까 신뢰감이 생기죠. 그래서 그룹 활동이 훨씬 더 탄탄하게 되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그렇게 한 4개월, 3개월 정도. 8, 9, 10 11, 4개월 정도. 그렇게 하는데 10여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 , 이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게 비밀 지켜야 된다. 자기네들끼리 다짐하고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런 걸 다 확보해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토록 내가 교육을 시켰어. 그리고나서 12월 달에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임이라고 그러는데 스웨터 한 장을 짜는데 공임이 얼마. 이렇게 공임을 회사에서 싸게 해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이형진: 그 실적주의로 이제 한 거죠?

유동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파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파업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파업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때잖아요. 그 국가보위법에 의해서 파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이런 판국인데 어쨌든 뭐 파업을 내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경찰들이, 전경들이 와 직접 현장에 들어와서 현행범으로 체포, 안 그러면 체포할 테니까 빨리 그 작업에 복귀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버티고, 막 그렇게 하니까 대표자를, 그럼 대표 5명만 나와라. 그래서 다들 안 일어서는데 내가 이제 딱 일어서니까 소그룹 활동했던 이제 그 멤버들 있잖아요. 그중에 또 한 친구는 내가 일어서니까 부스스하면서 일어나. 그 다섯 명이 가서 회사하고 협상을 했고. 물론 그 중간에, 중간 과정에 그 며칠 사이에 노동청에 가서 이렇게 근로기준법 이런 걸 다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도 내고 했는데. 진정을 또 다른 사람을, 고참을 보냈는데 멀쑥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막 오히려 이렇게 호통만 당하고 왔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또 갔는데 역시 나한테도 똑같이 근로 계약 그렇게 하고 들어왔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것이지, 뭐 지금 와서 막 그런 소리냐고, 아유 나무랬는데 진짜. 그러니 강단 없이 준비 안 된 그런 일반 종업원이 가서 그 얘기 들으면 완전히 피의자 심문 받는 것 같지.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파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평 경력 정보과 지휘자, 지휘관 또 노동청 본부 뭐 다 왔어요. 온 데서 회사하고 이제 얘기를, 협상을 한 거죠. 어긴 거 다 얘기하고, 공임 투쟁은 이제 거기서 바로 잡아서 올렸어. 공임은 일단 성공했고. 근데 그런 거 또 취업규칙 현장에 비치해라. 그 취업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런 걸 내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취업 규칙을 현장에 비치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 초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소그룹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노출이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일단 부각이 되고.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몇 사람들, 나를 따라서 움직였던 몇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부각이 되니까 회사에서 계속 이거 정리하겠다는, 해고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호를 받자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법의식이, 이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알고 있는, 그런 거 법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출시켜 내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장 되면. 고민고민하다 하다가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그걸,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을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형진: 선생님. 저기 그게 원래 이제 부평 쪽에서, 그러니까 4공단과 직접 이제 거주하시던, 그러니까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도 이렇게 좀 모임이나 활동들이 유지됐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유동우: 아. 예예. 그거까지. 이거 정리한...

이형진: 노조 결성 얘기를 하시게 됐거든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점. 그 회사를 떠나시고 나서 여전히 마음은 부평에, 거기서 동료들하고 같이 있고 또 이제 지역이나 전국적인 활동을 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광야교회, 소위 도시산업선교회, 이렇게 이제 실현되는 과정은 좀 짚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옛날 얘기 하시다 보니까...

유동우: 예, 거기서 배경을 또 이렇게 설명하자니까 그랬는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12월 초부터 이제 그런 파업을 하면서 싸움이 있었고 바로 12월 12일 날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노동조합을 산곡동 공단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산곡동 감리교회에서 교육관을 빌려가지고 결성했는데 한 백 한 20명 모였어요. 그 백 한 2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거기서 이제 분회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그 이튿날 결성하고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 조합원들은 다 기숙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외출도 통제가 심하고 그래서 늦게, 밤 9시 넘어가서 하든 했는데. 한꺼번에 외출을 막 밤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회사에서도 이게 뭔 일인가 굉장히 좀 의구심을, 의심쩍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노동조합 결성하던 날까지 그 소그룹에 100여 명이 넘게 움직이는 소그룹 활동, 또 노동조합 결성하는 당일 날까지 노동조합 결성한 사실 회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출근해 가지고 내가 공문을, 노동조합이 이렇게 결성됐으니까 단체 협약에,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어쨌든 내가 그때 노동운동을 계속하게 된 것도 삼원섬유 우리 조합원들의 그런, 어떤 대중의 변화 가능성.

이형진: 김지선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결성식 날 자기도 몇십 명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정말로 놀랍고, 감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동우: 사실 비밀 유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도 비밀 유지를,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노동, 결성할 때까지 회사 측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과정을, 그 비밀을 지켜왔다고 그러는 거야. 아 정말. 내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내가 해고당한 이후에 회사 측에서 그 어떤 방해 공작, 회유, 협박 뭐 이런 거, 이런 속에서도 우리 쪽에서 회사 쪽에 물리치고 우리 쪽에 자신들이 원하는 분회장을,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었던 거. 이걸 보면서 내 이, 정말 대중에 대한 신뢰. 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대중을 신뢰하라는, 나는 그건 좀 사람들이 하기 좋아서 대중에 대해서는 대중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얘기하자면 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지, 난 그 100% 신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대중은. 내가 대중을 좀 철저히 신뢰하는데, 뭘 신뢰하느냐. 대중의 변화 가능성을 100프로 신뢰하는 거죠. 모든 사물은 작용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이형진: 때가 되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유동우: 그러니까 교육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그런. 정말 각성된 노동자로. 왜냐하면 민중이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민중도 민중이 아니라고 하면 비 민중처럼 숱한 이기적인 욕심, 증오심. 뭐 온갖 것 다 있어요. 그걸 다 신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난 대중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믿게 됐고. 아, 이거야 말로 이 사람들과 같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운동을 놓지 못했던. 그게 바로 이제 그야말로 이유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초기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서는 내가 일을 못 했어요.

이형진: 예, 실적을 낼 수가 없었죠.

유동우: 매일 사람, 공단 뭐 온갖 중앙정보부까지 찾아와서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불려가기도 하고 뭐 그냥 얘기하면 일을 못하니까. 내가 그때 청천동에 3천 원짜리 월세를, 삭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인천 산선에서 부평 지역에 뭐 근거지를 하나.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부평가 저쪽에, 인천은 그거 뭡니까. 저쪽에 저 석바위 쪽에 고개. 또 이쪽에 철마산 고개. 이게 산이 막혀 있고. 그것처럼 서로 분리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부평 지역에도 뭔가 좀 센터 비슷하게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삼원섬유가 만들어지면서 막 노동조합들이 막 부평 지역에 막 확산되고, 공단 밖에 까지 막 확산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방을 10만 원짜리를 전세로, 방 한 칸을 얻었었어요.

이형진: 그 삭월세를 전세로 바꿨습니까?

유동우: 예, 바꿔놓고. 그러니까 나는 바꿀 거 없으니까 산선에서 그걸 10만 원짜리 얻어놓고 나를 거기 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월세 낼 돈도 못 버니까, 조합원들은 초기에 그 저임금에서 몇 푼씩 모아가지고 내 월급을 정말 보존해 주는.

이형진: 노조에서 상근도 할 수 없었던 형편이죠?

유동우: 그렇죠. 단체협약 되기 전까지,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봤어요. 일요일날.

이형진: 위치가 어디쯤이었습니까? 산곡동... 예전 광야교회 그 정도입니까?

유동우: 지금, 거기가 광야교회에서 조금 저쪽으로, 그러니까 효성동 쪽으로 조금 가면 요즘 무슨 동사무소든가, 주민센터 비슷한 게 있던데. 뭐 하얗게 이렇게 좀. 내가 얼핏 주민센터.

이형진: 산곡2동, 아마 주민센터일 거예요. 그 근처에.

유동우: 어쨌든 바로 거기. 거기가 이 언덕이었어요. 언덕 위의 집인데, 언덕 위의 집인데 거기에 그 언덕 위에 집도 그 외따로 있었고. 그 주변에도 집들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방을 하나 얻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과 뭐 한 1~200m?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광야 교회하고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서 교육 많이 시켰죠. 정말.

이형진: 거기에서 일요일 날 예배도 봤습니까?

유동우: 예, 예배도 가고. 조화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서 실험적인 예배도 보고. 이를테면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 설교하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형식도 뭐 기타 치면서 건전가요들이죠. 노래도 부르고, 찬송가, 그리고 또 설교하고 나면 또 설교 성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어떤 느낌을 또 설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토론도 하고. 그런 재미있게 실험적인 어쨌든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비신자들도 거부감을 안 느끼도록, 뭐 어떻게 그래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다가 아마 75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교회를 짓자. 처음에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목욕탕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산선에서.

이형진: 아, 목욕탕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동우: 거기서 노동자들이 이용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처럼 이제 잘린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취직하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또 그 뭐 때밀이나 뭐,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일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잘린 사람들은 거기 와서 또 생계 타격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목욕탕을 이제 지으려고 일단 그 땅을 샀죠. 땅을 샀는데,

이형진: 그게 광야 교회 자리였던 거죠.

유동우: 예, 그런데 목욕탕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목욕탕이 뭐 얼마 거리...

이형진: 그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유동우: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거 안에는 목욕탕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욕탕을 못 짓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된 게 바로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를 짓고. 그게 아마 76년, 아마 뭐 그렇게 6년, 7년 그렇게 될 거예요.

이형진: 그래서 부평 지역에 이제 노동자들의 그 쉼터가 생긴 거죠.

유동우: 예, 그야말로 노동자 교회가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78년도에 인천 산선에 77년도면, 77년도 한 몇 달 동안 실무자로 잠깐 있었어요. 노동자들 상담도 하고.

이형진: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다는 건가요? 아, 화수동에?

유동우: 아니, 인천 화수동에. 거기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주안에 있는 코리아 하이답프라고 목재 가구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신원이 탄로나 가지고 해고당하고. 그게 78년도예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 또 본막스 상사라고. 거기 또 그러니까 남자 신사복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대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을 생각이 아니었고 안양 지역에, 그래서 군포에 방을 하나 삭월세, 그것도 그때도 3천 원, 월 3천 원짜리를, 아주 그 허술한 집이에요. 막 그냥 무너져가는 집인데. 그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형진: 아, 인천은 이제 너무 알려져 계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셨고요. 그, 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사실은 틈틈이 일을 하시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여기저기 요청이 있는 곳에 가서 또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셨을 텐데요.

유동우: 아, 사는 거는 그 생활은 아니죠. 생활은 없었고.

이형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넘겼나요?

유동우: 오로지 이건 노동 운동, 노동조합 활동 이런 쪽의 노동운동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거기 다 있었고.

이형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79년. 드디어 이제 10.26 사태가 터졌고.

유동우: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10.26 맞고 난 뒤에.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이게 항상 나중에는 뭐 기노련, 뭐 이런 거 이제 하게 되고 할 때는 우리 그 조직의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고 나면. 일단 내가 거주하는 데,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 2명은 항상 담당으로 배치가 되고, 사무실이 있는 데는 사무실이 있는 관할 지역에 정보과 형사 2명은 나

한테 담당으로 배치가 돼요. 그리고 기노련을 하면서부터는 중앙정보부에서 담당이 또 배치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5명이 항상 감시를 받는, 이런 거였으니까 활동이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게 007 작전하듯이 뒤에 항상, 저는 따리, 우리가 시쳇말로 그 당시에 따리붙냐 안 붙냐, 이렇게 얘기를, 감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주 습성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고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든. 뭐 그런 생활이겠죠. 그래서 공장을 여러 군데 다녔었어요. 근데 그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서 뭐 아마 회사 측에 얘기했겠죠. 그럼 또 잘리고, 잘리고. 그 군포 지역에서도, 그런 생활이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정치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노동자 문제가 고용주인 기업주하고 또 피고용자인 노동자, 이 두 사람 간의 문제, 두 양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그 두 양자 간에 어쨌든 협상을 하건 싸움을 하건 뭐 모든 게 임금이든 뭐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서 그건 해결하도록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개입하는 게 경찰들.

이형진: 권력 기관이죠.

유동우: 바로 공안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고. 내가 노동조합 결성할 때는 모든 공안기관이 중앙정보부까지 다 개입해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늘 나는 그래서 공안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게 되고. 아, 이게 노동 문제가 이게 노동자와 사용자 간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70년대에는 노동 문제라는 게 없었어요. 노동 문제는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공안문제만 있었어요. 모든 노사 간의 분쟁을 공안 문제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했던 거예요. 일단 잡혀가면 너 누구한테 교육받았어. 너 공산주의자지. 이것부터 심문하게 되는 거고. 부평경찰서, 삼원섬유, 아무것도 모를 때도 처음에 잡혀가면 그냥 공산주의자. 너 언제부터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됐어. 누가, 배후 누구야. 그것 때문에 매 맞은 조합원들 많아요. 빨간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있다가 윗도리, 그 빨간 티 입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그 친구는 앞에서 앞장서고 그런 친구도 아닌데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네가 선동했지, 이럴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결국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 문제구나. 그야말로, 우리가 80년대에 있었던 정치권력을 노동자들이 획득하지 않으면 암만 바닥에서 민주노조니 뭐니 움직여봐야 그건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논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면에선 맞아요 그거. 물론 거기서 나온 노선을 좀 달리 하긴 했지만은. 그 정치 문제, 어쨌든 노동문제를, 모든 노동 문제를 공안 문제로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확보가 되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회야말로 민주적인 사회잖아요.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도 기본권,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부터 결사, 뭐 그런 자유권과 사회권,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재가 바로, 독재가 다른 게 아니죠. 그런 기본권을 노동자에게서 노동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 거. 또 일반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 독재인데,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재 권력은 절대 권력의 성질이 독재에 인한, 절대 민주적인 권리를,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나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이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거는 그 권력이 민주적인 권력일 때 정말 국민들의 손으로 세운, 민주적인 권력일 때만이 이게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당연히 정치권력을 민주화하는 독재적인 정치권력을 민주화하는 데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한테 지식 학생 출신들한테 일일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도 그건 눈에 보이는 거야. 아, 그런가 보다. 그것도 지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정리를 딱 해주면, 나는 실천적으로 공감해 왔기 때문에 그냥 공감이 되고. 그러다가 10. 26.

이형진: 선생님, 아까 10.26 전에도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교류를 하셨고 주변에서 그 사업장을 전전하면서도 이제 서로 도움도 받고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김병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몇 분 같이 그 우정을 나누고 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유동우: 예, 그건 이제 우리가 70년대 중반. 76년, 5년, 6년 이렇게 거쳐나가면서 결정적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노동운동,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그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수렴이 됐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서로, 그야말로 동지적인 결속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개인 조합 간, 또 개인 그 간부들 간, 조합원 간,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친해진 거예요. 내가, 나는 또 더구나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를테면 포항, 대구 이쪽에 김병구. 그 형만 하더라도...

이형진: 김병구 선생님이시죠?

유동우: 예, 김병구. 근데 그 포항 대구 지역에 조그마한들 그 회사들 묶어가지고 그 조직가예요. 아주 훌륭한 조직가지. 그러면 또 필요하면 나한테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알게 된 그런. 그야말로 70년대 유신 시대의 유신 시대 체제 하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하면서 형성된, 정말 그 길러져 온, 키워져온 지도력들. 노동운동 지도력들이죠, 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 자기들 연고지에 그냥 각개 저마다 그 지역에서 영향을, 이제 교육도 하고, 노동자들 조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지만 고립 분산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79년 10.26 나고 나서 아하, 우리가 다 이제는 그야말로 그 지독한 유신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민주화가 되는 것은 역사적인 대세다. 역사적인 필연이고. 이건 뭐 더 이상, 누구라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이 대세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군부가 출연을 하게 되죠.

이형진: 12.12 사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우: 그때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을 때, 계속 그러면 10.26이 무너지고 유신 체제가 무너졌어. 사실 그러면 자기가 권한대행으로 빨리,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야 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잖아. 그럼 빨리 뭐 어떻게 하든지,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뭐 갑자기 생각이, 왜 그 거국.

이형진: 예,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었죠.

유동우: 이런 거라도. 뭐가 되건.

이형진: 그리고 이제 3김 문제도 있었고요. 김영삼 김대중 씨 김종필

유동우: 그러니까 그런 걸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선거, 그 대통령 선거 날짜 뭐 이런 거 정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그냥 그렇게 새로운 정부를. 그야말로 이제는 유신 때처럼 체육관에서 몇 사람 모여서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정말,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는 그 대통령을 가진 정부를, 그렇게 만드는, 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면서 그 최규하가, 그런데 사실

상은 최규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이미 신군부에 완전히 그냥 이게 허수아비로 있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형식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이쪽에서는 최규하 한테 빨리 그 민주화 일정을 밝혀라. 빨리빨리 밝히고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계엄령 산하의 상황이었으니까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11월 14일인가 YMCA, 결혼식을 빙자해가지고 이유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다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죠.

이형진: 위장 결혼식 사건이었죠.

유동우: 위장 결혼식 사건이죠. 그게 바로 민주화 일정 촉진., 빨리 밝히라고 그걸 촉구하기 위한 모임이었거든. 그런데 그 잡혀가지고, 잡혀간 고문, 그때 고문당한 백기완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이 새끼야, 아주. 뭐 유신이 죽지 않았어, 이 새끼야. 더욱 노골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당하고 나가셨거든.

이형진: 유동우 선생님도 그때...

유동우: 안 잡혀. 나 안 잡혀 갔어요.

이형진: 아, 참여는 하셨습니까?

유동우: 예. 안 잡혀갔는데. 근데 잡혀간 양반들은 그렇게, 사실상 난 늦게 가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만 본 거지. 그, 뭐 근데 그때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아, 이거 유신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이쪽에서.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바로 12.12. 하극상 반란이 일어나면서 신군부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그냥 연행해 오고. 아,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2 나오고 난 뒤에 재야 민주화, 재야 민주세력 일각에서는 어떤 낙관론을 폈냐면 미국이 전두환이 옷을 벗길 거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한미 연합사령부인가? 뭐 있잖아. 그 허락도 받지 않고 군대를 임의로 동원해가지고 하극상 반란을 일으켰고. 하니까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근데 사실상 미국은 그걸 알고도 요새 새롭게, 뭐 이렇게, 문건 뭐야, 그 비밀 서류도 해제된 거 보면 그거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이형진: 방조한 거죠.

유동우: 그럼. 아, 그런데 그 12.12 쿠데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그전에 70년대 이제 서로 연결되고 알았던 이런 사람들 간에 노동 운동 지도력들이, 서로가 이제 친소관계 이렇게 따져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신군부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자기네들 목숨 내걸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게 12.12 하극상 반란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대로 있다가는 유신 체제보다 더 지독한 체제하고도, 체제하고 우리가 부딪힐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친구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신군부 세력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그 권력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걸 그냥 흩트려야 되고, 그리고 저들의 어떤 신군부 세력의 어떤 본질을 폭로해 내고 대중적으로. 폭로해내면서 우리가 싸

워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우선 지도력부터 묶고,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지역적 조직들을, 조직들로 확산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우선 당장의 노동자들이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이 투쟁으로 전면에 나설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 지식인들, 70년대 유신 체제 하에서 투쟁 동력은, 일선에 나서 싸운 투쟁 동력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었죠.

이형진: 큰 집단이죠.

유동우: 동원이 훨씬 용이하고. 그래서 그 세력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학생 세력과 노동자 세력이 연계, 연대하면서 같이 싸워야 된다. 학생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4.19 혁명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역시 그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적으로 보나 또 주요 사업을, 산업을 전국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노동자 세력이,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중요도로 보나 또 현실적 숫자로 보나, 그 힘으로 보나, 또 가족까지 합치면 절대 다수니까. 학생들한테도 이걸 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우선 선도 투쟁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규정을 한 게 학생들은 문제 제기 집단으로. 학생들은, 끊임없이 선두에서 선도 투쟁을 하면서 신군부 세력의 그 본질을 폭로해 내는, 그런 투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노동 쪽은 그걸 문제 해결 집단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온 걸 조직하고, 그래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싸우는.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이 정말, 그 거국적인 투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문제 제기 집단, 노동자들은 문제 해결 집단으로, 그래서 선도 투쟁을 먼저 학생들이 쳐나가면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 더 의식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런 구조였어요.

이형진: 그게. 그래서 79년 말 정도에 이제... (겹쳐서 안 들림)

유동우: 그렇죠. 12.12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개개인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모아진 게, 그게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형진: 전민노련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전민노련으로...

유동우: 예, 전민노련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그 논의를 계속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시키고 하자니 그게 이제 한 몇 달 가죠. 4, 5개월 가요. 4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그러다가 5월 달에, 5월 1일, 2일, 3일, 핵심 지도력들이 합숙. 합숙 훈련을 하죠.

이형진: 어디에서였죠?

유동우: 저 부평에, 부평 효성동에 있던 그 무슨 아파트인데. 주공 아파트인가, 뭐 하여튼. 그 아파트에서.

이형진: 누구 집...?

유동우: 이태복이, 이태복이일 거야.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한 게, 내 이태복이 뭐, 저기 이태복 전 장관이죠. 또 신철영, 영등포 산선의 양승조, 와이치에 박태연. 그리고 저기 저 포항에, 이제 포항 대구의 김병구.

이형진: 광주도 있죠.

유동우: 그리고 광주의, 광주 전남의 윤상원. 아, 그리고 뭐 그날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은 다 원래 이제 거기 참여하기로 했던 게 부산의 하동삼이, 채현호, 뭐 또 대구 이쪽에 전점석이. 뭐 광주에 김상집이. 뭐 하여튼 저 참여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포괄하고 있는 인원이 꽤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는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으는 토론을 하고, 그 이튿날, 5월 2일 날 전민노련을 결성했죠.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이게 결성을 하고 3일 날 이제 헤어졌는데,

이형진: 개별 노동자들. 그러니까 동지들이 이제 모여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조직이 아닌 일단 개별 인사들인 거죠?

유동우: 그렇죠, 그렇죠. 뭐 그저 은연중에 어떤 지역적인 기반을 나름대로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형진: 대략 30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우: 그렇죠, 그때.

이형진: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유동우: 박태연이 같은 경우에는 30이 됐나? 안 됐을 수가 있네. 안 됐네.

이형진: 그러네요.

유동우: 아, 그래서 그걸 또 한쪽에서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연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타 다른, 조금 견해를 달리했던 집단이나 개인들이 그건 완전히 노동... 그, 노동운동을 운동하는. 또 뭐야, 활동가들을 완전 사지로 끌고 들어가는. 사지로 몰고 끌고 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창, 창끝을 뾰족하게 날 쏘는데 거기다 대가리 박는 무모한 거다. 너무 위험한 거다. 이런 것도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형진: 전민노련은 어쨌건 그 현재 시점에서 군부를 상대로 투쟁을 빨리 조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유동우: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학생과 노동력이 힘을 합쳐서 연기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공감을 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아직 완전히 선을 그었죠. 왜냐하면 한쪽이 다치면 한쪽까지 그냥 같이 다치게 되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그래서 대략 누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리라고는 알지만, 그건 모르는 걸로 우리는. 사실상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태복 이선근. 이쪽이 이제 학생과 노동자 쪽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알아도 모르는 걸로 이렇게 했고.

이형진: 그런데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성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5월 광주항쟁이 시작되거든요.

유동우: 그래서 사실은 그 5월, 윤상원이가 5월 2일 날 결성을 하고 나서 우리는 3일까지, 나머지 또 토론도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그렇게 3일까지 있었는데 2일 날 오후에 내려갔어요, 결성만 하고. 내려가면서 광주에서는 신군부 이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어쨌든 광주에서는 뭐 붙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아예 명시적으로 붙는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뉘앙스로 결단을 얘기를 하고 왔고. 광주에서 터져 나오면 서울 이런 데들은 여타의 부산 뭐 대구 이런 대도시에서 같이 좀 붙어줘야 되지 않냐. 응?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내려갔어요. 어쨌든 상원이가 내려가고 난 뒤에 정확히 18일 날이니까, 한 2주 뒤에 그 5.18. 그게 이제 전남대생 들의 시위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저놈들이 총검으로 그냥 진압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이제 5.18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시민들이 죽고 다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쪽도 무기를 잡게 되고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그, 상원이가, 윤상원이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고. 사실상 지도를 하게 되는,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들불야학 교장으로 있으면서, 또 지역사회에서 신뢰도 얻었고, 학생들한테도. 그러다, 그래서 통신 두절이 언제가 되느냐. 23일까지 통신, 23일까지가, 통신 두절되기 전까지 계속 상황 보고 올라왔어요, 서울로.

이형진: 참 괴로우실 텐데요. 유 선배님,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서울에 이제 아마 거주는 군포 쪽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랬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던 분들하고 투쟁들을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노총 점거 투쟁도 그해 봄에 했었거든요. 그때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유동우: 그 한국노총 점거 투쟁이 아마 5월 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80년.

이형진: 예, 5.18 직전이었어요.

유동우: 5.18 직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결성하고 나서, 한국노총, 그때는 우리 집 우리 딸내미가 첫돌을 지났죠. 보자, 79년 12월이니까.

이형진: 첫돌까진 아닙니다.

유동우: 첫돌이 아니라 100일. 79년 1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됐네. 5개월 정도. 그 딸내미를 안고 와서 농성을 했으니까. 한국노총에. 그 딸내미 사진도 있고 한데. 나도 그 참석했죠. 그래서 내가 그 저, 정종택이, 그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이제, 또 정종택이한테 내가 따지고. 이게 뭐냐 말이야 이거. 저 이 노동부가 중심을 잡고 이 노동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야지. 지금까지 이게, 사실상 노동부가, 노동부가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전부 다 공안 문제를 어떻게 공안 기관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심도 없냐, 막 이런 식. 막 얘기, 공격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형진: 그때 이제 칠십 년대 민주노조 운동 과정의 해고자들 복직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법 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우: 응, 그랬죠. 그때 바로 동일방직만 하더라도 부당하게 쫓겨난, 해고당한 거니까 이거 원상복귀 시켜라. 또 다른 여타의 해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 그 연구에, 일단은 그 해고당한 사람들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는 게 1차적인 요구였죠.

이형진: 근데 그 농성이, 그니까 그 외부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하면서 정리를 했죠? 그때 농성을 진행을 하다가 한국노총에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흐지부지.

유동우: 어, 예예. 그런데 마무리까지는 내가 참석 안 했어요. 오히려 5월 14, 15? 이때 서울역.

이형진: 아, 그 서울역 회군 이제.

유동우: 예. 서울역 앞에 데모. 우리가 이제 전민노련 결성하고 나서, 서울역 앞에 그 시위에 거의 참여했죠.

이형진: 학생들이 이제 전부 나왔던 거죠?

유동우: 예, 학생들이 하는데. 아, 그때 이제 5월 15일 날 회군, 회군이라고 그러죠. 그 후퇴한 걸. 회군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쟁도 뭐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정말. 근데 그게 또 학림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전민...

이형진: 전민노련, 전민학련. 초기 학림이죠.

유동우: 전민노련이 이제 만들어지고 학생 쪽에 만들어진 게 전민학련. 그래서 전국민주학생연맹. 학림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민노련하고 전민학련하고 묶어가지고 그걸 학림다방에서 주로 논의했다 그래서 공안기관에서 붙여준 이름이고. 학림이란 말은. 무림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언더그라운드 지도부가, 언더 지도부가, 사실상 지도부를 일컬어서 그걸 이거 뭐 파도 파도 잘 보이지 않는다. 안개 무자 써가지고 무림이라고 그랬고. 그게 다 공안기관에서 붙여준 이름이죠, 그 학림은. 근데 어쨌든 거기서 회군 문제가, 어쨌든 회군하고 나서 17일 날 새벽에 그냥 그걸 계엄령, 계엄 확대 시키면서 이미 그 전에, 그 직전에 DJ를, 김대중 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인물들 다 사전검거 하잖아요. 사전검거를 하고, 그때가...

이형진: 삼청교육대 끌려간 분들도 있었습니까?

유동우: 내가 그때,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게 저기 저, 군포에, 집은 이제 군포니까. 군포에 있으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한 군데, 그건 이제 서울, 경기 남부 쪽에 조직이 있었는데 김승호, 이 친구들이...

이형진: 나중에 경기 남부 노련이 되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우: 그래. 그 전신일 거예요, 아마.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또 관계가 긴밀했으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한 군데.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그 지부장으로 왔던 친구가 계속 보안, 보

안대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맨 날 와가지고, 오늘 보안대 무슨 그 상사를 만났는데 자꾸 막 압력을 넣고 뭐 그런다, 아이 이거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그 무렵이 삼청교육대 막 이런 판국인데, 그래서 내가 그 군포에 있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피해 있었어요. 저기 저 혜화동 있는데, 그 수녀원에. 피해 있으면서 낮에는 나가서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5.18, 5월 15일 집회도, 서울역 앞. 그거도 참여했던 게.

이형진: 근데 사실 선배님께서는 그때 이제 운이 나빴으면 아마 삼청교육대 끌려갈 1순위였던 거죠.

유동우: 아이고, 그럼요. 조마조마했으니까, 하여튼.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또 이런, 그런 거 처음 노동조합 교육 받아가지고 조직한 거니까 우리처럼 그런 상황을 읽을 능력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아이 그냥, 그래. 뭐 그거 반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이게, 자기는 보고한다고 하는 건데. 그 불안해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건 내가 그, 피신해 있으면서 활동을 하던 그 찰나였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계엄 확대가 되면서 다 들어가고 자발로, 완전히 사전검거 다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울 시내, 뭐 경찰들 군인들 쭉 그냥 몇 미터마다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5월 18일 이후에부터 광주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게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5.18로 결단하고 하는데. 상원이는 이제, 태복이가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태복 사무실로 계속 전화, 그 통신 두절 될 때까지 굉장히 다급한 전화도 많이 왔고. 우리는 자기 각오까지 얘기했고. 그런데 무기를 그 사이에, 무기를 이렇게 회수하는 과정도 있었죠. 그 지역의 원로들이 그래서 좀 진정시킨다고 무기 반납하게 하고. 근데 이제 윤상원이 판단은, 안 그래도 계속 폭도들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되면 큰 불상사가 날 테니까 그 뭐야 무기 반납하고 시위 멈추라고. 그 뭐야, 선무공작 막 헬리콥터로 삐라까지 뿌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윤상원이 판단은 여기서 그야말로 무기 반납하고 끝났을 때 우리는 폭도들의, 폭도들로 영원히 규정될 수밖에 없고, 폭도들의 난동으로 자리 매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숱한 시민들이 막 그냥 죽고 다치고 한 거. 이걸 제대로 뭐 밝혀볼 그 위기감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사실상 그걸 반대하고 한 게 그 도청을 장악한 게 그 상원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쪽도 내가 아는 목사님, 뭐 신부들도 많죠. 광주에. 이 양반들이 엄청 욕하고 그랬어요. 윤상원이를. 근데 지금에 와서 평가는 그 당시에 만약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결국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원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서울서도 굉장히 괴로웠던 게 우리는 다 이제 피신은 저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한 친구도 안 한 친구도 있지만, 하면서도, 그리고 연락은 되니까 은밀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터뜨려 볼 수가 없어. 학생들이 5월 15일 끝나고 나서 이대 쪽이나 연대 쪽이나 이쪽으로 가고 청량리에서도 영등포 쪽에서도 그냥 뭐 며칠 동트자마자 그냥 바로 해산되고 이런 판국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윤상원, 상원이는 애원하듯이 서울 쪽에서 좀 일어나 줬으면. 광주에서 이렇게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쪽에라도 힘을 보탠다고 내려가려고도 그랬죠. 근데 전 지역에, 태복이 같은 경우에는 순천 쪽으로 해서 올라가려면 거기서 길이 다 교통이 두절, 막히고. 이쪽에서 뭐 대전만 가도 뭐 이미 막히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원이한테는 늘 부채감을 갖고 있죠. 우리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바로 그 5월에 이제 계엄 확대되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다 휴교령 내렸잖아. 휴교 조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5월 광주 항쟁이 마무리 되고 9월부터 이제 개학을 했죠, 좀 늦게. 9월부터 대학이 개학되면서 그때 바로 이제 그 학림 쪽에서, 전민학련 이쪽의 멤버들이 구체적으로 싸움을. 지금 당장 이건 싸워야 된다. 안 그래도 광주 학살로 인한, 정말 그 분노들이 정말 전부 다 그 뭐 가슴에 꽉 차 있을 때니

까. 무조건 치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즉각 우리가 싸워야 된다. 싸우면서 광주 학살을 비롯해서 저들의 저, 신군부 집단에 그 본질을 폭로해야 된다. 아마 9월 1일날 전두환이가 대통령 취임을 했을 거예요. 9월에 체육관에서. 9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개학을 했으니까. 아마 9월 1일은 넘었는 거 같네.

이형진: 유 선생님, 거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시죠.

(쉬는 시간)

이형진: 우리 그래서 전민노련 끝나고, 전민노련과 결성, 그리고 5월. 그 과정에서 이제 탄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실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되는 얘기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때 이제 윤상원 얘기까지 했고. 거기서부터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다시. 빠진 거는 나중에 또 하고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시작.

유동우: 어쨌거나 9월 달에 이제 개강이 되면서 서울대, 뭐 이제 학교마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그 광주 학살에 대한 분노가 충천에 있고 막 할 때니까 즉각적으로, 이건 그 신군부, 군부 독재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전두환이가 9월 2일 날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고 하는 거는 그 야말로 광주학살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이렇게 묻힐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죠. 한쪽에서는 지금은 그 신군부에, 그 때문에 너무 이거 강하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게 소모전으로 역량만 소모시킬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일정하게 좀 키운 뒤에 대대적인 이제 싸움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일컬어서 준비론이라고 그러죠. 그 입장이 있었던 반면에 학림 쪽에 학생들은 즉각 투쟁론을 주장하죠.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속에서 은밀히 조직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 역량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깨지는 수밖에 없다. 그걸 뭐 각오하고라도 계속 투쟁을 통해서 저들의 어떤 본질을 폭로해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광주 학살 문제라든가 민주화를, 민주화운동을 압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나갈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도 늘어나고 역량이 커간다. 싸울 줄 모르는 투쟁은, 그건 그야말로 전투력이 아니다. 이런,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그러면서 원래 12월 12일 날 서울대에서 대대적인,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정보기관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는 아주 그냥 상주하고 있을 때니까.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청강하고 할 정도였으니까, 참 움직이기 어려울 때죠. 그럴 때 이제 은밀히 그걸 준비를 해 나간 게 이제 학림그룹이었어요. 12월 12일날 디데이를 잡고 그때 대대적으로 한다. 그런데 11월 11일 날 무림 쪽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언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나중에 이제 무림이 되지만. 어쨌든 거기서 11월 11일 날 그 뭡니까. 아크로폴리슨가? 뭐. 그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성명서를 읽어요. 성명서가 굉장히 평소에 준비론을 주장해 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성명서를 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냥 그 뭐 득실거리는 게 정보원들이고, 그런데 바로 진압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걸 기화로 정보기관에서는 서울대 투쟁을 주도해 왔던 그 언더 지도부를 비롯한 투쟁세력들. 완전히 일망타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검거를 하죠.

이형진: 지도부들 이제 다 싹쓸이... 물갈이한.

유동우: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한 거죠. 그래놓고 나서 뭐 일설에는 서울대 언더 지도부를 다 일망타진 했으니까 서울대에서는 5년 이내에는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호언장

담을 했다고 하는 말이 떠돌 정도로 그랬었죠. 그런데 11월 12일날 대모를 준비해 왔던 학림 쪽에서는 12일 날 그 사건이 대대적으로 터지면서 온 뭐 신문에 그냥 대서특필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빨갱이로 다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사실상 무산된 거죠. 그러다가 그 무림 쪽이 그해 말까지 다 이제 검거가 되고, 그 바로 학생들 조기 방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81년 2월 이제 신학기. 신학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학림 쪽에 속한 학생들이 중심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 시내에 뭐 하여튼 연대, 고대, 서강대, 또 뭐 동국대 뭐 할 것 뭐, 한양대 할 것 없이 학생들이 막 치고 나왔고. 그걸 일설에서는 이제 81년 봄 항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투쟁을 사실상 학림이 주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안, 정보기관에서는 완전히 서울대를 다 진압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시위가 이거 어디에서 주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일어나니까 계속 그걸 이제 정보원들이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서울대 언더 지도부하곤 다르게 또 다른, 그러니까.

이형진: 학림, 이제 면모가 드러난...

유동우: 예, 그 핵심들을 쭉 추적하다가 이태복이 뭐 이선근 먼저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포착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아마 한 4월, 5월 이때부터 그 당시에 이태복이 하던 출판사 밑에다가 아예 이놈들 공간을 마련해 놓고 도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형진: 광민사 출판사 말이죠?

유동우: 예, 광민사. 광민사 출판사에. 그럴 정도로 정밀하게 추적을 해 왔고. 그러면서 6월달부터 이제 핵심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8월 중순까지 사실상 전민노련, 전민학년, 핵심 지도부가 다 이제 검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 시내 각 경찰서마다 그걸로 인해서 연행되는 친구들로, 뭐 각자 보통 한 그 당시에 1,200명에서 한 1,400명 정도가 연행된 것으로 보는데. 서울 시내 경찰서마다 다 연행 됐고.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석방시켜, 풀어주면서 핵심들만, 이제 핵심들은 남영동 대공분실로 그리 이제 연행을 하고. 그 시위에 참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 전부 다 관할 경찰서에, 서울 시내 경찰서가 꽉 찼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혀 온 거죠. 그래서 내보내면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내보내면서 그때 바로 이제 그 뭐야 내보내면서 그걸 뭐라고 해, 강집. 강제 징집으로 많이 끌려가요. 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강제 징집으로 끌려가고 학사징계 당하고. 그리고 남영동에서 조사받고 했던, 한 거기도 한 조사받고 내보낸 친구들한테도 한 5, 60 명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명이 기소가 되고, 24명이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전민노련, 전민학년 핵심 지도부들이 다 이제 길게는 한 달 반, 짧게는 보름. 나 같은 경우에는 이빠이 한 달.

이형진: 유동우 선배는 그러면 어디서, 언제 어디서 연행되셨어요?

유동우: 난 그 8월 2일인가. 8월 3일인가. 그 뭐 하여튼 저 8월 초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잡혔어요. 내가 숨어있다가...

이형진: 지금 받으러 갔네요.

유동우: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태복이도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이상하다, 생각돼서

빨리 연락들을 해가지고,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빨리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전민노련 그 뭐 회칙, 하여튼 그런 건 다 문건 없애고 빨리 정리하고 각자 도피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도피했어요.

이형진: 7월 이후에 대충 그렇게 잠적을 한 상태죠?

유동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잠적은 6월 이후부터, 6월 달부터 거의 이제 태복이도 안 보이고 하니까 6월 말부터 거의 잠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던, 활동하던 사람이 갇혀 있으면 참 갑갑하잖아요. 갑갑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답답하니까.

이형진: 아직 연행 사실이나 이런 것도 잘 몰랐을 때죠?

유동우: 아이, 모르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박태연, 신철영, 양승조 이렇게 아는 친구들은 또 그 사이에도 만나가지고 정보 또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두어달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응? 6월 말, 7월 뭐 이렇게 지나도. 7월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내가. 숨어 있다가, 잠적해 있다가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을 통지서가 나왔는데 아, 이거 뭐 예비군 훈련이나 받자.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연행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지.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훈련 받는, 받고 있는데 그 점호 끝나고 재식 훈련에 들어가서 뭐 이제 운동장을 뭐 구보로 돌고 있는데 확성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중대 본부로 좀 올라오라고. 나를 부를 리는 없는데, 나를 부를 리는 없는데 왜, 동명이인이 있는 줄 알고 처음에는 계속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구보를 돌았는데 약간 경사진 데 본부가 있는데, 그 위에 그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 그 사람이 유해우로 동명이인이니까. 근데 올라간 사람 없어. 그런데 계속 그 재식 훈련 받고 있는, 유해우 저 있으면 나오라고. 그거 진짜 생각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게 맞구나. 근데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면서 가만히, 내가 이거 그것도 생각을 했죠. 혹시 이렇게 튀면 예비군 훈련장이 산이니까. 옆으로 그 울타리들이 쳐 있었어요. 근데 그거 뛰어봐야 이건 승산이 없다 하는 생각도 들뿐더러 뭐 별 일이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 종대 앞에 딱 가니까 건장한 친구 두 명이 내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차, 이게 내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는 순간에 딱 와가지고 여기 이름이, 이름표가 붙어 있잖아요. 딱 보고 나서 당신 유해우 맞지. 그럼 뭐 그렇다고 하는 순간 뭐, 그냥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양쪽으로 딱 팔짱을 양쪽에서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기에 어디서 왔소. 그러니까 그건 알 필요 없이. 알 필요 없고. 밖에 잠깐만 나가면 되니까, 잠깐만 얘기하면 되니까 나가자고. 그 예비군 훈련장 이제 밖으로 나와 가지고, 나오자마자 내 오른팔을 끼고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쓴 총과, 권총을 딱 꺼내더니만 옆구리가 탁 대고 나서 너 이 새끼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면 너 그냥 갈겨 버릴 거야, 이 새끼야. 겁이 뭐 완전히 그냥. 안 그래도 내가 왜소한 체격에다 건장한 친구들 둘한테 잡혀 있으니 감히 뭐 도망간다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끌려오니까 안양 경찰서 옆에 안양 경찰서 옆에 바로 담벼락이 있는데 그 파출소가 있는데, 안양 4동 파출소인가.

이형진: 안양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유동우: 예. 안양 예비군 훈련장인데. 거기 딱 가니까 그 자동차 하나 하고 또 두 명이 기다리고 있더

라고요. 그 네 명에 의해서 차에 태워지고, 태워지는 순간 자동차 뒷좌석에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친구는, 한 친구는 조수석에 탔고 또 나를 연행해 온 두 친구는 내 양쪽 옆에 앉아서 나한테 고개 숙이라고. 고개 숙이는데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고 고개를 숙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게 코가 자동차 바닥에 갈 만큼 그냥. 그런 속에서 이 고개를 못 들게 이 친구들이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뒷꼭지를 눌러요. 완전히 사람이 접힌 상태죠. 접힌 상태로 계속 이제 끌려오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끌려가는지 뭐, 한참 달리다가 나한테 야, 고개 들어 그러더라고. 그 긴 머리카락 잡아들고 고개 들어. 그래서 고개 드니까 얼핏 딱 보니까 거기가 그 대방동. 공군 부대 있는데. 그게 보이고, 그 정문이 보이고, 멀리 보니까 대방역이 보이는 거야. 바로 이제 거기 대방동이야. 아, 그래서 그런데 바로 거기서 고개를 들라고 그래서 고개 드니까 검은 천으로 그저 가리고 잡아매가지고 눈을 가린 상태로 또다시 이제 그 사람을 접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대방동까지는 이제 아는데 계속 어디로 끌려가는 게 남산으로 가나, 뭐 어디 서빙고로 가나. 이 생각만 하는. 그때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차가 서면서 나보고, 나는 뭐 때문인지 엘리베이터 타고 끌려온 사람들, 연행 되어온 사람들이 전용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조그만 거. 수사관 두 명하고 연행돼 온 사람 한 사람하고 세 명이 타면 딱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야 인마. 여기 어딘지 알아? 지하 15층이야, 그러더라고. 남영동은 지하층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이제 그것도 겁주는 하나, 한 뭐 매뉴얼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타고 올라와서 눈을 가린 상태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그 철문처럼 이렇게, 철문 여는 소리가 쿵 들리고. 그래서 철문이 열리니까 이제 그리 이제 끌고 방에 끌고 들어가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그 눈가리개를 이제 그때 푸는데 아이, 보니까 내가 그때까지 뭐 경찰서 뭐 이런 데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던 이런 방하고는 전혀 이건 다른 거예요. 색깔이, 그러니까 바닥, 벽 사면 팔방 그 천장,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그냥 빨간 핏빛이에요. 빨간 핏빛 방인데 아,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내가 드디어 이제, 그토록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했던 이게 이제 빨갱이로 몰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아주 아주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이제, 그때 예비군은 훈련복을 입고 있었죠. 여름에 8월 달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속에 속내의, 팬티, 런닝만 입고 위에 예비군복을 입었는데 가린 눈을 뜨고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박처원이가, 그때는 박처원인 줄 몰랐죠. 박처원이가 남영동 대공부실 거기에 이제, 거기서 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경무관이었는데 거기 대장이죠. 박처원이가 그 부하들하고 한 여섯 일곱 명이 쫙 들어오더라고, 집에. 난 그 때 박처원인지 모르지만. 아, 이거 잘 생겼어요 박채원이가. 하하. 내가 못 생겨서 그런지,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친구가 오면서도 계속 무전으로 보고하고 그랬는데 올라가자 박처원이가 부하들 들어와서 몇 가지 보고받고 하는데. 그 뭘 보고 했는지 뭐든지 그게 기억이 없어. 하도 얼떨떨한 김에. 그러면서 이제 그 박처원이가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고. 나간 뒤에 이 봉투에 나한테 옷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군복, 예비군복을 이제 벗어가지고 옆에 바로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조그마한 간이 침대에다 이제 옷을 벗어 놓고. 그러니까 런닝, 팬티 다 벗으라는 거야. 빨가벗긴 상태에서 앞쪽으로 가보고 또 뒤쪽으로 돌아서라고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라고 그러고 엉덩이 까라고. 그러니까 혹시 뭐 자기네들 자해하거나. 뭐 아니면 비밀 문서, 이런 거라도 조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옷 입으라고, 벗겼던 친구가 팬티하고 런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팬티를 입는데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있던, 그러니까 그 나를 끌고 온 친구들 하고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3명이서 내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보고 옷을 벗으라고 그러고. 옷을 입으라고 팬티를 입는데 의자에 앉았던 친구가 그 나이가 좀 들고, 그 사람이 심문관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 한 달 동안을 심문했던. 그 당시에 계급이 경위였는데 거기서는 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러면서 옷을 입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옷 입지 말고. 그러니까 옷을 도로 뺏었어. 이제 그 팬티 입는 걸. 근데 이 친구가 멈춰놓고 나한테 첫 질문이 뭐냐면 너 공산주의자지. 이게 이제 첫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 참,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를 진짜 내가 공산주의자로 생각해서 묻는 건 아니겠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 삼아 그냥 던져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공산주의자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사회주의자구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전 근데 사회주의자도 아닌데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여기 이쪽 섰던 친구가 주먹으로 그냥 이쪽에, 여기는 뺨을 그냥 주먹으로 치면서 그럼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치는데 그 억센 주먹에 맞으니까 그냥 확 해지잖아요. 이쪽에서 반대에 있던 놈이 그냥 이 새끼야. 그러면 또 치지. 그러니까 또 중간에 있던 친구가 이게 이 새끼야, 그럼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옆구린들 그 배하고 옆구리를 들이 차는데 그냥 푹 쓰러졌어요. 아, 쓰러지니까 세 놈이 그냥 뭐 막 걷어차고 밟고 짓이기고 하는데 눈에 막 불이 뛰고 숨을 못 쉬겠어요. 이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뿜고 해야 되는데 들이마시고 토해낼라고 그럴 때 가슴 같은 데에 막 발길질을 팍 들어오면 숨을 토해낼 수가 없는 거야. 확 숨이 막히면서. 그런데 전신에 막 그냥 이 발길질이 쏟아지는데, 눈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그 친구들이 상처 안 나게 때린다, 그거 거짓말이야. 때로는 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무작위, 무차별적인 구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기절한 거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뭐, 하여튼 좀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눈을 이렇게 좀 뜨는데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게 굉장히 그 꿈 같아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옆에서 봤던 모양이지. 야 너 임마, 정신 들어? 그런 소리도 귓가에 그냥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 팔을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머리 뭐, 그 온몸이 그냥 물에 젖어 있는 거야. 몸은 이 물기가 마르고. 뭐 했지만 바닥으로 막 그냥. 그러니까 기절하고 난 뒤에 물을 끼얹어 가지고, 아마 나중에 보조심문관. 그러니까 두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계속 심문하고 나를 감시하고 하는데 그 보조 심문관 이 친구가, 너 인마 그때 우리 자칫하면 그때 죽었어 인마. 자기네들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잘못됐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비몽사몽간인데 어쨌든 일으켜 세우니까 또 일어나서. 그때서야 아, 내가 이렇게 잡혀왔지. 그때 이제 그 침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비넷이 있었어요. 그 침대 난간을, 그러니까 난간이 옆으로는 없고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난간처럼 돼 있는 게, 거기를 이제 손을 잡고, 그건지 내가 캐비넷에 기대고 있었는지. 어쨌든 기대고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다리고 뭐고 막 힘도 하나도 없고 뭐 이상한 상태예요, 몸이. 집단 구타를 그렇게 기절을 할 정도로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렇게 서 있다니까 그 한 놈이 있다가. 야 너 여기 어딘지 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 친구가 이제 깨어난 게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거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근데 난 뭐 그런 건 계산하지 못하고, 초기니까. 대답하기도 싫고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잡은 상태로 뭐 이렇게 모르겠다고 고개만 저었는데. 그래서 침대에 앉으라고 그러고 한참 앉아 있다가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정신이 이제 뭐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취조가 시작되는 거야. 취조가 시작되고 하여튼 뭐 잠을 안 재워. 이제 계속 취조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자술서, 살아온 거 지금까지, 그건 있는 대로 다 쓰라는 거야. 또 그러면서 거기에 니가 언제부터 그런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고 그 누구한테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걸 이제 갖게 됐는지 뭐 하도, 하여튼 그거 쓰는데 자세히 쓸 수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잖아요. 다

핵심은 빠뜨리고. 그런데 계속 다시 쓰이는 거죠. 계속 다시 쓰이는데 이게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난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다.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이 문장이 뭐고 뭐 엉망으로. 이 새끼야. 이런 걸 넣어가지고 써, 이 새끼야. 그러면서 뭐 사상 뭐 이런 거까지. 누가, 너 뒤에 누가 배후, 너를 누가 이렇게 그런 걸 가르쳐줬어.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까지 뭐. 언제, 어디서 뭐. 육하원칙에서 다 쓰라는 거야. 끝내 내가 그거 쓰는 게 진짜 엉뚱,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해도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그 정도니까 그 과정에서 또 두드려 맞는데 거기는 책상이 심문관하고 내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책상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조그만 책상이죠. 그리고 내가 앉는 의자는 붙박이 의자예요. 딱 고정돼가지고 의자는 움직이지 않아. 이것처럼 이제 그 회전식인데. 이 난간이 아주 탄탄한 걸로 이렇게, 어깨 팔걸이가 돼 있고. 뒤쪽에, 뒤쪽은 바로 또 콘크리트 옹벽이. 이정도로 이렇게 한 1m 안 되게 7, 80cm 높이로 옹벽이 돼 있고. 꼭 요것 같으네요. 그게 이제 화장실 분리벽인데 화장실도 이제 다 보이게. 그냥 그 정도 높이로 그냥 경계를,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나보고, 그런데 이게 의자가 앉으면 딱 여기까지 와요. 책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의자를 바로 놓고, 사람이 들어와서 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회전의자를 돌려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돌려놓고 앉은 채로 이렇게 딱 바로 마주보고 앉으면 책상이 이 가슴팍에 달랑 말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는 과정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손이 그냥 닿을 수 있는 거리니까. 아무 데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맞는 거죠. 근데 이 놈들이 쓰면서 그냥 때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또 보조들 이제 불러가지고 한 두어 명 불러가지고 끌어내려놓고 또 짓밟고. 아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오자마자, 그 뭐야, 신원 확인, 신원 조회를 굉장히 상세 조회를 해요. 상세하게 신원 조회를 아마 고향 쪽에다가 보냈고. 그 고향 쪽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지서, 순경하고, 순경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물으니까 먼저 그 동네 이장, 이장한테 먼저 물었고. 그러니까 이장이 이제 우리 집에 관해서 물었겠죠.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냥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데. 그 의장 집이 바로 옆집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만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와 가지고 뭐 묻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건 재산이 하나도 없고, 땅 한 마디 없고. 노인네들만 그냥 시골에 계시고, 나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고. 어릴 때 객지에 나갔고 공장 생활을 했고. 이런 게 다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이 친구가 오죽했으면 심문관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간첩을 200명 넘게 잡았는데 그중에서 니 처럼 불쌍한 놈 생전 처음 본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 왜 그런 사상범들이나 그러면 그래도 지식인이거나 지식인이면 또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집안이 그래도 좀 살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또 동정하는 듯한 이런 말도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이 놈이 나한테 너 처음에 그 얘기를 하더만.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간첩 200명을 넘게 잡은 사람이다. 내 앞에서는 추호라도 거짓말 하는 건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널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묻는 대로 진실하게 대답하면 그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다.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뭐 그 과정이야, 그 묻는 거 자체가 막 고문이고 그러면 그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뭘 나한테 요구하느냐면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자랐고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재산도 없고 배도 많이 골았고. 자연스럽게 가진 사람들에 대한 또 불만을 가질 수, 가져왔고. 그런 사회적 불만을 자연스럽게, 그건 생활환경이 그러니까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써. 그거 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따로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늘 꿈꿔왔다. 그러니까 태생적 공산주의자로 모는 거야.

이형진: 유 선배님은 그러니까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노동자였는데 자생적으로 그런 사상을 갖게 된...

유동우: 그렇죠 그렇죠. 자생적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너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지가 거기서 나라도 네 처지가 됐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내 얘기를 유도심문이죠. 다 그런 게. 죽어도 내가 그걸, 얘들이 거기선 항복이라고 그러죠. 너 항복할래 안 할래. 고문하기 전에, 고문하면서 너 항복할래 안 할래. 항복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 그냥 주문대로, 그거 다 그냥 승복하겠다는 얘기인데 아, 그래도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내가 좀 대처를 했어요. 그러느라고 더 맞았는게 어차피 내가 거기서 버텨봐야 언제 얼마,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그럼 내가 항복할 때까지 고문을 할 거고, 항복할 때까지 고문을 할 거고. 매에는 장사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걸 버틸 건가. 궁극적으로는 기어이 내가 항복하고 말 텐데, 그러면 그 항복을 그냥 차라리 그때 가서 그냥 항복하느니 일찌감치 항복을 해버리면 쟤들이 시키는, 그냥 주문하는 대로. 다 그냥 그렇다고 그냥 항복을 해버리면 고문을 좀 덜 당할 게 아닌가. 사람이 이게 당해 보면 그 생명을 가진 생물은 모든 게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통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그 약화시키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 그 생각 왜 안 들어요. 아유, 언제까지 내가 끝까지 버틸 수는 없는데. 막 정말 당하고 나서 하고 뭐든 일찍 그냥 이 정도 당했을 때 항복하고 나면 그냥 그나마 좀 그게 편할 게 아닌가. 이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하는 거야 그걸. 그런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 이놈들이 내가 아마 물, 욕조에 집어넣고 꼭 종철이, 박종철이 이제 그러다시피 뒤에는 이렇게 꿇고 거기 집어넣을 때는 한 너댓 명이 붙어요.

이형진: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라.

유동우: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까 태생적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한 용어지만. 이놈은 태생적 공산주의자로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노동자니까, 너는 노동자니까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대해서 현 정부를 뒤집었고, 현 정부는 그때 전두환 정권이에요. 현 정부를 뒤집어엎은 뒤에, 무너뜨린 뒤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활동하다가 잡혀 연행되어 왔다.' 고 하는 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종일관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걸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뭐 사회주의까지는 우리가 그때 생각지도 않았고.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는, 거기까지는 내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 독재 정권은 절대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내가 아주 체험적으로 내가 깨달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기본 권리를 확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민주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반독재 투쟁을 했다.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재에 저항해서 투쟁을 한 건 맞다. 그런데 나는 사회주의 그런 걸 생각은 없다. 그게 통하지가 않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계속 고문이에요. 몇 시간이고 똑같이 너 공산주의자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너 사회주의자구나.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냥 똑바로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거 정말 못 견디는 거야. 나중에는 꼭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로봇 같죠. 철로 만든 어떤 마징가 제트처럼 철로 만든 인간이 또 그 로보트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것도 대답 안 한다고 뚜들겨 패고. 그게 되풀이 되니까 사람으로 진짜 안 보이더라고. 꼭 쇠로 만든 어떤 그 로봇들처럼 보여 착각을 일으킬 정도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두는 순간, 어느 순간에 숨을. 그리고 사람이 참, 내 경험인데 사람이 두들겨 맞는다고 하는 거. 맷집이 있다 없다, 거기 잡혀 들어가면요. 다 맷집이 세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더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맷집이 다 있는 게, 난 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어쨌든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재미있는 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맞고 나니까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퉁퉁 부어 있는데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면 그냥 다리가 막 다리통이 이렇게 걸음을 못 걸어요. 걸음을 이렇게 조금씩 어그적 어그적 이렇게 겨우 이렇게 옮길까. 뭐 방이 요만한데. 그 침대가 바로 옆이고, 그런데도 그걸 몇 걸음을 이렇게 아주 조금씩 이렇게 끌어가면서. 막 꼼짝 못할 때도 많고, 뭐 이런데 이거 뭐 퉁퉁 부었는데 온몸이 진짜 꼭 조폭들 문신 새겨놓은 것처럼 그냥 시퍼런 거, 멍이 피멍이, 피멍이 온 몸에 다 든 거야.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그리고 내 머리가, 얼굴이 아주 몇 백 그람은 되는 것 같아. 엄청 무거워. 그런데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요. 부어 있으니까. 밥 먹은 기억이 정말 별로 없는데. 아마 밥 숟가락 겨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을까. 그런 기억은 조금 나는데 밥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퉁퉁 부어 있는데. 그 한 번은 얼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런데 온몸에서 부어 있고 피멍든 그런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이 확 끝나던 그 독기, 열기가 얼굴이고 뭐고 열기가 엄청 풍겨내요. 그게 바로 독을 뿜어내는 거야. 그게 맷독이라 그런 거 있잖아 맷독. 그 재미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부은 상태에서 두들겨 맞으면 아프질 않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데도 막 그냥 세게 치면 머리만 들어서 툭 이렇게. 이런 데 패들도 막 차고 하면 그냥 너무 충격에 의해서 넘어지긴 하되 아픈 걸 몰라. 그리고 골병이 왜 드느냐 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은 당하고 나서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데 이놈들이 번갈아가면서 자기네들도 두 놈이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한 놈씩 교대로, 자기네들은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오고 잠도 자고 오고 교대로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거 지키고 있던 놈도 지도 같이 계속 24시간 이렇게 있기도 지겨우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왔다 갔다 해. 이 방도 가고 저 방도 가고. 그 놈들 보는 사이, 보는 데서는 내가 아프다고 하는, 이런 그게 참 자존심인 거 같아. 아프다는 내색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 내색을 안 내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싶은데. 이 몸은 뭐 이렇게 바지 내리고 보면 아는데, 얼굴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막 확 열기는 뿜어지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얼굴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이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부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팔로 억지로 해가지고 이게 누운 상태니까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막 뜨끈뜨끈 막 뜨끈뜨끈하게 느껴져. 꼭 난로 만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만져도 감각이 없어. 다른 피부를 만져 봐도 그렇고. 근데 조금 더 머리 쪽은, 어떻게 머리도 막 화끈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억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머리에 손끝이 닿는 순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꼭 뭐가 딱 연상이 되느냐면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의 그 산소 봉오리들이 불쑥불쑥 나와 있잖아요. 꼭 그것처럼 이렇게 이쪽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데, 이렇게 손볼 만지는데 이런 탁구공만 한 이런 몽우리들이 막 틈도 없이 막, 머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차고 막 그냥 짓이기고 했으니까 이게 막 그냥 불쑥불쑥 올라와 있는 거야. 아, 근데 그거 딱 맞히는 순간 모골이 막 이렇게 머리끝이 쭈뼛쭈뼛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런 상태구나. 거울이 있어야 뭐 보지 얼굴 상태는.

이형진: 그 빨간 방에서.

유동우: 예, 빨간 방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온 내가 이게 막 이게 이빨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사실상 그때 이 망가진 이빨이 나와서 이게 몇, 어떤 건 1년도 넘어가고 흔들리는 게. 뭐 이렇게 몇 달 있으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그게 완전히 다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충격에 터지니까 입안이, 피가 나오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다 이거 뭐 뱉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중에서도 피가 입에 고이니까 입이 한 가득 되는 거야. 침하고 섞인 그 피가. 근데 이 친구가 쓰다가 뭐 나 이렇게 대답을 이제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어쨌든 그런데 이 새끼

야. 그 뭐야. 그럼 뭐야 이 새끼는. 뭐 하여튼 주먹으로 치는데. 치니까 이 머금고 있던 피가 퍽 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서, 거기에도 끝까지 다 책상, 이쪽이 바로 또 벽인데. 여기 뒤에는 그 옹벽. 그 벌어져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혓바닥 내밀어 봐 이 새끼야. 혀를 깨물잖아.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혀를 깨문 게 아니고. 아, 이 안이 터졌구나 알았죠. 그래도 이놈들은 뭐 하여튼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는, 그건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 잡혀온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아마 들은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매뉴얼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여기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하나 죽는 거는 우리 눈도 안 깜짝거린다. 시쳇말로 이 새끼야, 너 죽으면 휴전선 근처에 갖다 놓고 등허리 총 몇 발 갈겨 버리면 갈겨 버린 뒤에 월북하는 놈 뒤에 쐈다. 그렇게 발표해 버리면 되니까 그 말이 개죽음되는 거야, 이 새끼야. 뭐 아주 할 수 있는 그 위협을 뭐 말로 다 하는 거죠. 그 사람 취급 안 해. 진짜, 진짜 눈도 안 깜짝거릴 정도야. 나는 거기서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종철이가 거기서 죽지만 숱한 사람이 죽어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도 거기에서 거기서 조금 도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숨 못 쉬고 막 그럴 때. 우리가 7, 80년대에 80년대 학생 데모하다가 수배 당했다가, 그런데 수배 당했다가 다른 친구들이 부산 앞바다에서도 발견되고. 뭐 어느 금강 강둑에서도 발견되고, 온갖 데서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의문사. 아니 그거 뭐 돈이 있어 가지고 강도를 당했겠어요? 도망 다니는 친구들이. 수배돼 가지고. 그게 정말 의문사,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까지도 만들어서 밝히려고 그랬지만 워낙에 그걸 한, 가담된 사람들이 자기들 다 연루되고 했으니까 그런지 스스로 양심 고백을, 자백을 안 하고 해서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숱하게 그렇게 죽었잖아. 그거 어디 어디 그런 사람 왜 죽었겠어요. 그런 학생들이고, 노동자들이고. 그건 바로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 다행히 박종철, 종철이 같은 경우에 그게 사건화 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고. 그건 사실상 기적이죠, 기적. 거기서 사건화 된다고, 내가 설령 가 잡혀가서 그 죽으면 누구도 몰라. 내가 그 잡혀온 걸. 본 사람이 없어.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냥 거기는 그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객지에 나온 사람들이 뭐, 관심, 모르죠.

이형진: 그 8월 2일 경에 연행이 되셨는데 그러면 거기 보통 3주 정도, 그러니까 열흘에서 열흘 더 연장해서 3주 정도 거기에서 집중...

유동우: 그렇죠, 그렇죠.

이형진: 그 중간에, 이게 경찰서 보내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유동우: 아니에요. 그, 거기서 계속.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어쨌든 며칠 지났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서, 숨을 못 쉰다고 하니까 말을 또 하기 힘들잖아요. 숨을 쉬려고 그러면 막 아파 죽겠는 거야, 가슴이. 그래서 나한테 절대 아프다는 얘기는 뭐 안 하지. 그냥 죽더라도. 그런데 왜 말하려고 그러면 나 막 통증이 갑자기 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하니까 야 인마, 너 왜 그래. 그래서 글쎄요, 뭐 가슴이, 숨을 좀 못 쉬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마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 수사관 세 명을 불러가지고 나보고 이제 경찰병원에 가서, 그거 갔다 오라 해서 거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했는데. 나한테 얘기는 안 하지, 않아. 이게 부어진 거 절대 얘기하지 않지. 근데 금이 간 거야, 갈비가 세 대. 금이 갔으니까 얼마나 아파 그냥. 그런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 골수염이 되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

러니까 약을 지어 주는데 나보고 너 이 새끼야, 너 옛날에 폐병 앓았지. 그러니까 그걸로, 그걸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 폐병이 내가 앓았지만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아프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아마 소염 진통제 뭐 이런 거 줬을 거예요.

이형진: 병이 더 도지지는 않았습니까?

유동우: 네. 그러니까 거기서 도지지는 못하게,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계속 하여튼 두들겨 맞고, 아유 그건 뭐 정말 정말 정말 끔찍했어.

이형진: 그 무렵에는 이태복 씨나 나머지 사람들도 많이 잡혀 온 상태였으니까.

유동우: 그래서 나보다 미리 잡혀 간 거지.

이형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서로 이렇게 이관됐나요?

유동우: 그렇죠. 우리는 이 친구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몇 번 위의 방침이 바뀌는 것 같아요. 1차 조사를 끝내놓고, 그러니까 진술 조서만 한 네 번, 내 기억상으로 4번. 5번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번 정도. 원래 이제 조사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바로 또 해가지고 또 진술서를 꾸미고 했는데, 이 방침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또 고문하는 이런 강도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그 한,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나.

이형진: 어쨌건 이제 8월 말 정도 됐으니까 수사는 끝났고, 경찰서...

유동우: 그렇게 이제 끝났고. 그러느라고 나는 이제 경찰 병원을 세 번을 갔어요.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른 데도 이제 검사하고 뭐. 근데 아마 갈비뼈 부러진 거, 저만 아는 그것만이 문제 있다 생각했는지. 그런데 난 그때부터 밥을, 교도소 들어가서도,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넘어가서도 밥을 못 먹었는데, 먹으면 그냥 토해내요. 그러니까 물을 욕조에 집어넣고 할 때 물을 정말 얼마나 많은데 똥똥하게 먹고 토해낼 때 나중에 누런 똥물까지 나와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다음부터 밥을 먹으면 밥을, 물 나중에 물을 마셔도 이게 토해내게 되는 거야. 그러나 초기에 구치소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 게 뭐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병사에 가 있었죠, 병사에 있었고.

이형진: 서대문 구치소?

유동우: 예, 서대문 구치소에. 병사에 재판 끝나고 내가 1심에서 내가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우리가 25명 중에서 한 사람은 불구속이 되고, 박태주가 그때 불구속이 됐고. 그 친구는 무죄.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거지. 그 친구만 이제 불구속이 되고 우리는 다 구속 기소가 된 건데, 1심에서 24명이 구속돼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그중에 여성만 해도 세 사람이나 있었고 한데, 유일하게 나만 집행유예로 내보내져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구치소 넘어가서는 밥도 못 먹었을 뿐더러 그 이를테면 재판을 받을 때도 바지에다 오줌을 지릴 정도였으니까 그냥. 그래서 1심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바지에다 오줌을 지리고 그래서 이건 뭐 오줌이 질질 이거만, 그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그 우리 같은 사건은 이제 단독 판사가 아니고 합의부잖아요. 재판장이 내 몸 상태를, 이제 알았죠. 내가 또 진술도 했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도 이제 재판

도중에도 이렇게 갔다 오게, 교도관 딸려 가지고 이제 갔다 오게 하고. 또 어떤 우리 공범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재판장이 보고 유해우 피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앉아 있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 저기 피의자 대기실, 법원 옆에 딸린. 대기실에 가서 좀 누워 있다가 이따 호명하고 부르거든 들어와라, 그러면서 교도관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누워 있다고 오고 그랬어요. 재판부에서도 몸 상태가 더 이상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살벌한 전두환 초기 재판부에서도 나한테 재판장이 그렇게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아주 나빴던 거죠. 그럴 정도로 하여튼 그 엉망이었고. 그런데 그나마 한두 달 이렇게 있으면서 집사람이 요가 책을 들려주더라고. 영치물로. 요가 책을 보면서 요가 좋다는 거 뭐 이렇게 들은 거는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 요가도 그 지도를 받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호흡법에서부터 아사나이 동작하는 거, 그리고 뭐 식이요법 명상이야 제한된 거니까, 공간에서. 어쨌든 호흡을 계속 하고. 아, 근데 요가 진짜 무서운 게, 난 그래서 요가에 대해서는 또 이상한 미신 같은 걸 갖고 있어. 지금도 내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럼 내 요가만 하면 반드시 난 고친다, 살아난다.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어요.

이형진: 몸을 회복시켰어요?

유동우: 예. 가질 정도로, 계속 이게 처음에는 호흡이 안 되던 걸 계속 이래 하니까 아, 이게 정확하게 호흡을 하라고 한 책에 쓰여 있는데 이게 바로 정확하게 호흡하는 거구나. 동작도 이 동작에 맞춰가지고 호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 굉장히 좋아요. 한 두어 달 딱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야. 난 옥사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한.

이형진: 8월 말 경에는 이제 서대문 구치소로 이감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이었죠?

유동우: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리고 구치소에 넘어가서도 두 달 동안, 11월 초까지 가족이고 뭐고 면회 일체 금지. 그러니까 남영동에서 부터 석 달 동안은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구치소 넘어가서도 면회를 안 시켰으니까. 그러다 이제 11월 초에 이제 풀렸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요가 책을 들렸는데 하여튼 그게 나를 굉장히 살려준 거예요. 몇 달 동안 이렇게 딱 호흡을 하고 하니까 아, 이 자신감이 붙는 게 징역 오 년은 살 수 있겠다. 속으로. 아, 느낌이 그렇고. 그리고 밥도 이제 꼭꼭 씹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렇게 1심 재판이 끝나갈 때쯤 되면 상당히 이제 회복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워낙에 초기 재판에서부터 내가 뭐 몸 상태가 막 엉망이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유일하게 나를, 나만 집행유예로. 그래서 딱 6개월 있다 나온 거잖아요.

이형진: 그러면 82년 1월에 이제...

유동우: 예, 82년 1월에. 그런데 나와서도 요가는 계속하면서. 그런데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이게 유명 인사들 같으면 서울대 병원이고 어디 한양대병원이 어디 병원이고 한 번씩 휴식하잖아요. 저 교도소 갔다 오면. 노동자들이 그런 게 없잖아. 갈 엄두도 못 내고. 갈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집에서 그저 몸조리 하는 건데, 요가하면서. 그래도 또 몸이 정말로 회복되니까 어떻게 살아. 또 먹고 살 궁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몇 달 동안 몸조리 한 뒤에 저기 취직을 했어요 또, 공장 일을 한 그 한일 악기라고. 그때 대우그룹에서, 그 대우, 저 피아노 만드는 회사예요.

이형진: 주안에, 5공단에 있는 대우 전자 있던 덴가요?

유동우: 그건 저기, 요즘은 경기도 의왕이지만 그땐 군포.

이형진: 82년, 그럼 6월 경에?

유동우: 81년. 뭐 어쨌든 그쯤 됐을 거예요. 여름, 그쯤 되겠네. 6월 정도. 아마 더울, 조금 그럴 때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달 만에, 한 달이 채 못 됐네. 이십 며칠 만에 신원이 탄로 나가지고. 그러니까 안양 살면 안양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 둘이가 담당으로 배치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그 삼원섬유에서 해고당한 이후부터는 그 공안기관 이런 그 담당자들의 어떤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뭐 하루만 미행하면 어디에 출근하고 하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되니까 해고, 해고되죠. 그 또 싸우다가 이거 뭐 싸워봐야, 그건 그 당시에 복직이라고 또 나같이 찍힌 사람들이 복직이라고 하는 게, 이거 뭐 없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거 이슈도 안 돼요. 그 당시에 산업선교하고도 난 이제 결별하고 사실상 그쪽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박태연이가 아마 그때 내 공장다니던 조금 직전, 4월 달인가, 2심에서 나왔어요. 2심에서. 박태연, 김병구, 뭐 이렇게 신철영. 여기 몇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는 1심에서 혼자 나오고, 2심에서 나오는데 박태연이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집에 왔길래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제안을 한 거지. 야, 태연아. 저 현경이 엄마하고 우리 집사람이, 현경이 엄마. 현경이 엄마랑 그 포장마차 어떠냐. 포장마차를, 이제 그 때는 경수 산업 도로지, 그게. 경수산업도로, 수인선 산업도로가 주안에서부터 이렇게 수원까지고. 서울서부터 이렇게 수원까지, 그게 이제 안양을 통해서 이제 그 의왕, 수원까지 가는 그 경수산업도로. 그 산업도로 옆에 포장마차를 했어요. 포장마차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포장마차를 하면 될 텐데 포장마차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했대요. 근데 워낙에 단속이 심해가지고 그냥 후리가리로 뭐 삼일이 멀다고 그냥 쓸어가 버리고, 단속이 나와 가지고. 산업도로변에 그걸 이제 한다고,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내가 포장마차를 이제 둘이 하라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포장마차를 이제 시장, 안양시장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나는 아침 새벽같이 가서 안주거리 이런 걸 사가지고 장만해 주면 둘이 끌고 나가서. 음, 그때는 겨울에, 가을쯤 시작했구만. 태연이 나오고. 나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이형진: 82년 말이네요.

유동우: 그렇죠, 가을. 가을 정도, 후반. 그러니까 가을 정도 되죠. 시작했는데 둘이서 장사를 곧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기고 나니까 며칠이 안 돼서 금방 여덟 개가 생기는 거야. 포장마차가. 못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포장마차를 겁도 없이 하니까 그래도 며칠 동안 또 장사를 하는 걸 보고 바로 한 집 두 집 생기기 시작하는 게, 그냥 금방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건 내가 그랬어요. 그 담당, 담당들이 하루는 포장마차 할 때, 저 안양경찰서에서 정보과 담당 둘이 왔길래 나 이거 포장마차 한다. 공장에서 다 쫓아내고 그 포장마차 했다니까 이 단속 나오는 거, 그건 저 권형산데, 권형사하고 이형사가 책임져. 이거라도 못하게 하면은 나보고 싸움하라는, 하라고 시킨 거니까. 나는 싸울 수밖에 없고, 여기 저 포장마차 하겠다고. 그랬더니아, 여기 단속이 심한 덴데. 하여튼 뭐 좀 요령껏 뭐 해봅시다. 그런데 여덟 개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속이, 그리 신경 엄청 썼어.

이형진: 나름 좀 챙겨줬네요.

유동우: 그 파출소에다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나한테 미리 귀띔을 해주고, 그날은 나오지 말라든가 뭐 하여튼 그까지. 어쨌든 그렇게, 또 이 친구들이 와서 팔아주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팔아주면 막 한 오만 원씩 막 이렇게 팔아줬거든. 그거 오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집이, 여러 집이 있었는데 우리 집만 장사가 그리 잘 돼. 나는 이제 추운데 바깥에서 털옷 입고 구공탄 피워놓고 안주거리, 고기 구워달라고 그러면은 뭐 구워주고, 구워서 안에 들여놔 주고. 기둥서방 노릇해요, 맨날. 너 둘이 가오마담 하고 난 기둥서방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 게 그 앞에가 바로 유한킴벌리 그 회사예요. 거기에 바로 그 산업도로 바로 밑에, 바로 그 도로변에 유한킴벌리가 있었고 유한킴벌리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 집에 그 단골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 집에 안주나 뭐 이런 거 먹는 거 절반, 또 주인 절반. 이렇게 보잖아. 주인이 좋으면 조금 뭐 그런 거. 근데 이 두 젊은 여자들이, 뭐 얼굴도 반반한.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뭐 술 한 잔 먹으면서 농담도 해보고.

이형진: 말은 또 잘하지.

유동우: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저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되먹은 여자들 같지 않은 거야. 뭐 상당히 교양도 있고 뭐 아는 거 같고, 알기도 알고. 자기는, 아주 깊은 얘기야 못하겠지만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름대로 견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로 기다린다니까, 한 팀이 끝나기를. 이를테면. 그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나중에 포장마차가 점점 늘어나니까, 한 6개월 했어요. 더 이상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우리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이형진: 눈치 보이고?

유동우: 그래서 저 담당 형사들한테 나 포장마차 치울란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73년도가 되는 거죠.

이형진: 83년.

유동우: 아, 83년도가 되는 거죠.

이형진: 선생님, 또 좀 쉬죠.

유동우: 아, 그럽시다.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좀. 붙여서 얘기하죠. 아니, 내가 남영동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잠깐 하나.

이형진: 예, 남영동 얘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우: 내가 그 왜 그렇게 조금 미련스럽게 대처했다고 하는 게, 아까. 거기서 끝에는 다 그걸 자기네들이 저쪽에 요구를 다 인정한 거죠. 그니까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 분위기, 빨간 방에서 그렇게 매타작을 당하면서 아, 여기 분위기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언제까지

버틸 건가, 끝내는 종국에 가서는 끝내 내가 항복하고야 말 텐데. 빨리 일찍 했으면 덜 당하게 할 게 아닌가. 이 계산을 내가 하면서도 그걸 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로는 내가 딱 항복하는 순간 쟤들의 얘기를 주문대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저는 합법적으로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시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사형도, 아유 이 고통을 당하느니 진짜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죽을 수만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훨씬 더 내가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야, 항복을. 아예 나만 죽이고 끝나면 되는, 괜찮은, 하겠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그걸 이제, 그 항복을 하고 나면은, 그때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첫돌 지내, 첫돌 지냈지. 내가 잡혀 갈 때쯤이면 이제 첫돌을 지낸 지 얼마 안 되잖아. 한 일년 반 정도 되네. 얼마나 이뻐. 그 이쁜 딸내미가 내가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 저 애들 아버지는 빨갱이 짓 하다가 사형을 당했다. 평생 그 멍에를 안고, 짊어지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아,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딸내미. 그 이쁜 딸내미 생각이 나서. 또 하나는 우리 그때는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시고, 형제들 다 살아 있고, 그 집 사람. 저 여자 남편은 뭐 그렇게 해서 빨갱이로 죽었다. 저 노인네들은 아들, 빨갱이 아들 둬 아주 고생이다 뭐 오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런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갈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신이 있는 한 나중에 가서, 종국에 가서 내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그야말로 인사불성 상태에서 항복하게 되니까 그건 그때는 하나님도,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이 생각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냥. 그러라고 그냥 계속 저 놈들은 주문이 그건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안에서는. 그래서 못했고. 그 심문 과정에서 나한테 계속 너 공산주의자지. 아닙니다, 그럼 또 사회주의자구나. 아닙니다 그럼 몇 달 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나중엔 하나 앉아서 어쨌든 내가 빠져나가려고 나는, 기본적으로 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랬어. 주의라고 하는 걸, 주의자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싫어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로운 존재인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 속에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로움을 가진 인간을 특정 주의라고 하는, 특정 이즘 속에 인간을 딱 제한시키려고 하는, 한다고 하는 점에서 난 주의 자체를, 이즘 자체를 싫어한다. 그건 어떤 면에서 나는 반인간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게 쟤들이 들으면요. 쟤들이 들으면, 저는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걔들 기껏 해봐야 걔도 방첩대 출신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나왔으면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가 말하는 의미조차도 잘 모를뿐더러 인정, 그걸 인정했다가는 그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고 이 새끼 말장난한다고, 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네들 주문에 벗어나는 말을 하면 그냥 맞는 거야. 말 안 해.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두들겨 맞는 거야. 너 말 안 할 거야? 이 새끼, 안 할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해도 맞고 안 해도 맞는데, 말하는 동안에는 안 맞아요, 그냥. 어, 그러니까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그런데 내 그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야. 그야말로 이 주의라고, 이즘이라고 하는 거. 난 무슨 주의자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특정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 사람 갇혀 있는 걸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나는 좀 아나키스트적인. 영어로 좀 자유롭고 싶었던 이런 성향이 나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 그거 말장난 한다고 그냥 두들겨 맞는데, 이 놈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실컷 두들겨 패놓고 너 주의가 싫다고? 너 주의자 돼야 돼, 이 새끼야. 아예 대놓고 주의자 돼야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또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 동안 그걸로 시달리다가 나중에 굳이 내가 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의자, 주의 이런 거 싫어하지만 주의자가 굳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난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신봉해 왔고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굳이 주의자라, 그걸 주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주의자다. 그러니까 이 놈이 듣기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난 내가 말하는 이상 안 맞으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 주의자? 이 새끼. 그럼, 그러니까 글을 써요. 지금 현재 피해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써놓고 나서. 야, 이 새끼. 니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야? 이래서.

이형진: 세상이 이렇게 평등하고.

유동우: 예. 지가 써놓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책상에서 저러니까 다 쓰는 게 다 보여. 글자, 그런 글씨체까지도 나는 눈에 선해요. 어떤 날은, 그래서 이거 또, 뭐 하면 무조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이 계산해가면서 우리 기독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신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를 말한다. 그야말로 고도의 신학적인. 이 친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 얘기는. 신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다. 그래, 신의 주권이 그게 어떤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정의의 신, 자유의 신, 평등의 신, 평화의 신으로 본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 이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고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피의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럼 니가 말하는 하늘 나라.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어 없어. 아이고. 이제 계속 이놈을 코너로 모는 거니까 어쨌든 맞는 건데.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요령 있게 대답하는 걸까. 머리에는 막 계산기가 막 팡팡팡 돌아가죠.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가 북구 쪽에, 북유럽쪽에... 서유럽 쪽에 덴마크나 노르웨이, 소위 복지 국가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잘 돼 있고, 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또 정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가 잘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최소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기본적인 인간,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가 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 우리가 복지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유럽의 그 나라들이 보면 그런 나라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한다, 그런 나라들. 그런데 반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소위 말하는 제3세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독재와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서 시달리고 경제적인 그 불평등 속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굶어, 굶주려 가면서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서유럽 쪽에 소위 말하는 복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서유럽 쪽에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회도 상대적으로 이 제 3세계 국가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도 잘 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지만, 아직도 그 사회에서는 인간이, 그 국민들,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 질투, 혐오,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 부정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 마약, 뭐 매춘, 하여튼 여러 사회 문제가, 강도 뭐 온갖 그런 사회 문제가 인간의 심성도 그렇게 온갖,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도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말 현상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원적인 그런 욕심들, 욕망들, 이기심 이런 거까지 다 극복되는 나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무수히 많

으니까, 그 사회도.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는 완전한 나라.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 바쳐서 그 날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움직이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런다.

이형진: 썰을 좀 풀었네요.

유동우: 그것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았죠. 이 새끼 사람 놀린다고. 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을 이해를, 이해도 못하는 친구고.

이형진: 유동우 선생님, 원래 신앙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죠?

유동우: 아, 엄청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와 가지고.

이형진: 언제쯤 말씀하셨습니까?

유동우: 82년, 나 나와 가지고 4월 달쯤. 4월이네 4월. 그런데 그 얘기했다고 이놈들이 고문을 그냥 또 다시 막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야, 니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공산주의 맞지? 뭐 당하고 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흥정까지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진술하면 되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썼냐 하면, 또 웃기는 게. 제가 잘못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마르크스의. 이 친구는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그 용어를 그렇게 쓰기를 좋아해요. 일단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어떤 지적 이런, 그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정도의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게 상당히 상대방한테 자기 어떤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생각했던가 봐. 그러니까 걸핏하면 과학적 사회주의를 일으켰어요.

이형진: 확실하게 이제 그 빨갱이로 잡아야 하니까, 그 용어가 자꾸 나왔나 봐요.

유동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꼭 어떤 건 나한테는 과시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거 맞아? 그러니까 네, 네. 그 얘기를 그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나오셔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끝내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를 그 마르크스주의로 그저 자백을 했고. 내가 그런 점에서, 내가 믿는 기독교를 정말 배교한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개신교인으로 컸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김수환 추기경한테 다 해서. 그때 함세웅 신부님, 보좌 신부님이었으니까 다 옆에서 계셨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말 한 마디 없으시면서 아주, 안 그래도 근엄한 얼굴이신데. 얼굴이 딱 굳어지는, 그걸 딱 느끼겠더라고. 며칠 뒤에가 부활절 예배였어요. 나하고 면담하고. 근데 난 부활절 예배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 부활절 강론을 하셨다는 거야. 그 해. 80, 그 82년도에.

이형진: 82년에 이제... 나오셔서.

유동우: 내가 1월 달에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4월 달에, 4월, 부활절을 얼마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렇게 면담을 했고. 근데 그 부활절 강론을 하셨는데 함세웅 신부님 말로는, 그것도 내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세웅 신부님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분이 이규상 목사인데 그거 뭐야, 그 기장에 이규상 목사님, 이규상 목사와 친해요. 이규상 목사님이 부활절 지내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아이, 유선생 그 어제 함세웅 신부 만났는데 함세웅 신부가 유선생이 추기경님한테 얘기, 말씀드린 거 그 얘기 하시면서 추기경님 지금까지 강론하신 중에 제일 강력하게 강론을 하셨다고. 강력한 내용으로. 그 얘기를 이제 나한테 이규상 전사가 이 함세웅 신부님한테 듣고. 아직도 얼마나 센 강도로 얘기를 하셨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형진: 강론을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군부 독재가 사람의 신앙까지...

유동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고문하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내 얘기에, 내가 말씀드린 데에 굉장히 아주 자극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 아주 강력한 강론을 하셨다는 거야. 이규상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또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공감이 가셨던 모양이지.

이형진: 그랬겠죠.

유동우: 아, 저 결국은 정말 그 신앙을 자기가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국가로 뒤집어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거 뭐, 그 분노하신 거지.

이형진: 고문하는 과정이 신앙도 짓밟았고.

유동우: 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왜, 천주교 박해나 뭐 이런 게 심할 때, 배교자들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난 그 욕할 수가 없어. 그거 정말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 욕을 하면 안 돼. 비판을 하면 안 돼. 난 그런 경험이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포장마차 하면서, 80년대 넘어와서 83년도에 초에 포장마차 접고.

이형진: 그 무렵에는 그러면 이제 안양 쪽에 사셨네요.

유동우: 그렇죠. 사실상 결혼하고서도 신혼 방은 안양 쪽에서 차렸으니까.

이형진: 그러니까 두 살 지난 딸과 이제 형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살면서 포장마차 접고 그러면 그다음에 83년이 됐거든요. 또 이제 공장을 들어가셔요?

유동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장에 들어왔다가 쫓겨나고, 쫓겨나고 포장마차를 했고. 포장마차를 끝난 게 이제 83년 초지. 그런데 83년 말쯤 이제 됐을 때 김문수한테 연락이 왔어. 김문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게 바로 노복.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이걸 준비하는 모임인데 아마 나한테 늦게 연락한 거 보면 어쨌든 70년대 민주노조 활동했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제 그 노복을 구성하는데, 이미 그때는 얘기가 윤곽이 다 잡히고, 그게 다 했더라고. 늦게 연락한 거 보면 아마 전민노련 이쪽 내가 관련자니까 조금 정치적 고려를 했던 것 같아. 딴에는. 내가 그쪽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으니까. 어쨌든 뭐. 근데 삼원섬유를 또 거기서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불러가서 대충 이렇게 됐고, 그날 첫날 가니까.

이형진: 어디서 만났습니까?

유동우: 신길동. 신길동 노동자 복지비에 원풍에서 얻어놓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노동자 복지관의 본부지. 그래서 거기서...

이형진: 이때는 이미 이제 원풍모방도 깨지고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잡았던 거죠.

유동우: 그렇죠. 83년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용석, 김문수가 핵심적으로 구상을 냈고. 아마 이제 그날 얘기한 거 보니까 노동자립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워낙에 살얼음판 같으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뭐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가는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 날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냥 그런 조직들은 뭐, 그 어떤 공산주의와 연결된 걸로 그냥 다 몰아가고 이런 판국이니까. 아마 교회라고 하는 걸 바운더리를 삼아서 좀 보조를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이쪽에 이제 지원으로 그걸 이제 후원으로, 후원 세력으로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의 활동 조직을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첫날 오라고 그러는 날 김문수 하고 다른 데 지부장 했던 친구하고, 아마 종로 5가에서, 종로의 기독교회관에 NCC 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온 모양이더라고. 인명진 목사하고도 거기서 만나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 모양이지. 그건 구체적인 건 몰라요. 모르는데, 모임이 하여튼 내용이 결렬됐다고, 개신교 측은 배제를, 배제를 하는 걸로 했다고 그러니까 개신교하고는 관계없이. 천주교 쪽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난 그 얘기를 들었죠, 다. 그래서 아, 기왕이면은, 안 그래도 가끔은 신구교가 연합예배도 같이 보고 뭐 3.1절, 3일 구국 선언이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럴 때마다 같이 하고 했는데, 또 때로는 또 조그만 문제 놓고 시끌시끌할 때도 있고. 노동자가 오히려 좀 거기서 양쪽을 좀 강하게 화해, 같이 해나가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개신교를 배제했을까.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논의 구조에 참여하고 하니까 첫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래서 명칭까지도, 어쨌든 교회 노동자 무슨 조직, 이런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건데. 그날, 첫날 다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해, 84년 1월 달에. 1월 달에, 장소가 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뭐 1월 초예요. 1월 6일인가. 하여튼 그때 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서 거의 뭐 1천 명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최소한 5, 6백 명 정도는 넘게 되는데 저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

이형진: 혹시 성문밖 교회였나요?

유동우: 아니야, 아니야. 성남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성남 민중교회인가. 하여튼 그 모르겠어. 어쨌든 굉장히 큰 강당이었고. 거기에 모여서 이제 결성총회. 나는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인가 두 번 참여하고, 결성식에. 창립총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김문수가 이제 사회를 봤죠. 그래서 내락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건 다 구성이 돼 있었어요. 방용석이 위원장. 그리고 김문수가 부위원장. 그리고 내, 나는 이제 위원 중에 한 사람. 운영위원. 운영위원이 그 논의 구조, 결정 구조이자 집행 구조고. 운영위원회가 이제 다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조직 담당 운영위원회. 조직 담당을 맡기로 하고. 그러니까 한 두어 번은 사전에 참석했네. 그렇게 이제 다 짜서 어떤 누구는 운영, 그래서 운영위원회 한 10여 명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총회 이제 하는데 앞에 이렇게 김문수 사회를 보고, 총회 하는데 이제 시작하면

서 명칭. 이제 정관을 우리 규약, 정관을 이렇게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우선 정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미리 써 붙여 놨어. 한국교회 노동자 복지협의회.

이형진: 아, 원래 교회가 들어갔어요?

유동우: 창립총회. 이렇게. 응, 한국교회 노동자 복지협의회 창립총회. 이렇게 붙여. 한국교회 노동자 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신교, 구교 다 상정하고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데. 어쨌든 카톨릭 쪽하고만 연결되더라도 또 교회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어. 근데 나는 그때 바라보는 상들이 다 좀 달랐겠지만은 나는 이제 전민노련 이걸 하면서 전국적, 또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경험도 있고. 전민노련을 또 전문적인 조직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를 어떻게 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거는 사실상 명칭이 어떻게 되건, 또 구성이 어떻게 되건, 한국노총이 지금 철저히 어용화돼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반 노동자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우리가 결성하는 이게 노동조합, 70년대 그 어려움이 그냥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노조 활동을 하다가 다 쫓겨나고, 감옥 가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형진: 노동조합으로 재건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동우: 일단 정말 노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되찾기 위한 그런 민주노조 운동을 쭉 해왔는데 이런 우리가 모인 이상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한국노총을 대체할. 나는 대체 세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체적인 현장과 이게 연결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해서 우리 세력을 키워 나간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국노총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말 진정한 노동조합 연맹으로 우리가 활동한다. 나는 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상층 구조가 되고 그 밑에 각자 지역 협의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부문별로, 기독교 쪽의 노동자 연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가톨릭 쪽에 노동자 뭐야, 그게 있으니까. 가톨릭 노동 청년회가 있으니까. 지오쎄가 있고. 그럼 불교 노동청년회, 뭐 또 지역 노동자 협의회. 이런 걸 우리가 만들면 실질적으로 한국노총,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통 크게 나가야 된다. 우리가. 전망을 나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나는 가급적이면 이제 기왕이면 교회에 도움을 받을거면 그 개신교도 왜 같이 하면 좋겠지. 왜 그게 안 되지. 난 그 논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본조만큼은, 그러니까 우리 노동복지협의회, 이것만큼은 교회라는 명칭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래서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일반성을 갖는 그런 게 됐을 때 교회 노동조합 밖에 불교 노동 청년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들어오기도 좀 껄끄럽잖아요. 여타 이유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장애가 될 뿐이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내가 명칭 조항에 이제 논의할 때 내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교회라는 걸 빼고,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 교회 노동자 복지협의회를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또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교회를 다녀왔고 어떤 면에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누구보다도 없다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떼자고 하는 거는, 우리는 한국 제2의 정말, 제2가 아니라 한국노총을 대신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출발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노

동자 조직으로서 일관성을 갖는 명칭이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발언을 이제 던져놓고 앉았는데 김문수가 엄청 공격을 했죠. 사회 보는 게 이제 김문수였으니까. 교회,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 빼자고 그런다고. 그 본질은 그거 아닌데, 내 얘기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친구, 아주 내가 전민노련에 그걸 어떤 염두에 두고 있구나. 아직도 나한테 대한, 그걸 자기들 심정적으로 아직 그렇게 불식되지 않는 거야. 전민노련. 어쨌든 내 느낌이 그랬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교회라는 명칭을 빼자고 그런다고. 우리가 이걸 뺐을 때 얼마나 지금 이 조직이, 조직을 존속시킬 수 있겠냐.

이형진: 그렇지. 그런 외피가 필요한데.

유동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막 그런다고 아이고 막 호통을 치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일어서 가지고 그 유신 시대에, 70년대 그 정말 아주 살얼음판 같은 그 포악한 유신 시대에 기독교 운동을 너무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라, 오히려.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목사, 신부들이 앞장섰다. 그렇게 쌓아온, 정말 그런 게 바로 한국의 신구교다. 우리가 그 외피, 또 활용, 우리가 주체적인 역량이 부족할 때 그런 외부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것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 능력이고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 운동을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김문수 동지 얘기 듣고 보니까 기독교 운동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쌓아온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가 신교든 구교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서 안 도와줄 것 도와주고, 또 마땅히 도와줘야 될 거 안 도와주고. 뺀다고 그래서. 그런, 그런 정도의 그런 기독교 운동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건 안 붙이건, 개신교든 구교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 뜻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그런 거 유신 시대에 민주노조 활동을 하면서 또 개신교, 신구 또 구교 이쪽의 그 민주화 반독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교류해 왔고. 그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충분히 힘을 준다고 본다. 그 이름. 그 저 교회라는 명칭 뺀다고, 그 용어 뺀다고 그래서 도와줄 거 안 도와주고. 그 너무 기독교 운동을 그렇게 얕보지 마라. 내 말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아까하고 그래, 내가 하자니까 한 얘기는 적어도 숱한 각 부문에 불교 노동 청년 노동자 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일반성을 갖는 명칭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 뭐 그렇게 반응하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형진: 논쟁이 됐어요, 그날?

유동우: 그게 논쟁이었지. 그런데 난 어차피 원래 내가 싸우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그때 말을 또 안 하면 내가 후회를 해. 그래서 일단 난 내 의견을 던져 놓은 거야. 그리고 내 의견을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발언을 얻어가지고 재설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어떤 결정은 여기서 한 거니까 난 그 얘기만 딱 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1천 명 가까이 되는 수백 명이 있는 속에서 김문수가 그런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내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김문수에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원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회 노동자 복지 협의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난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찰나에, 난 지금도 그 친구가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는데 남자 하나가 젊은 친구인데, 딱 일어서더니만 지금 발언을, 두 분의 발언을 잘 들었는데 유동우 선배님의 제안에 공감이 간다. 그래서 그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나한테 지지를 했는데, 심정적으

로 얼마나 지지를 했을지 몰라. 한 사람이 딱 지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형진: 그걸로 됐어요?

유동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복지협의회 그렇게 운영하는 친구들도 그때 아마 염두에도 없을 거예요, 그거.

이형진: 실제로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오겠네.

유동우: 아, 그럼요. 김문수하고, 그래서 사전 노동자 교회 그게 빠지고 한국교회 노동자 복지협의회에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로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 나는 참 꼭 부딪히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하는 것마다 긴장들을 해요. 난 그 얘기, 발언하는 것마다.

이형진: 이후에 계속 그런 갈등 관계였어요?

유동우: 그렇죠. 갈등이 되면서 끝내 이제 결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미 노동, 우리가 줄여서 한 노복이라고 그러죠. 노복이라기도 하고. 이제 그 노복이, 결성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73년 말, 73년 말부터 무슨 문제가 터져 나오냐면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1위에서 태창메리아스 막 이런 데서 원풍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그것들 일하는데 그게 신분이 탄로나니까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내가 옛날에 노동조합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신분 탄로 나서 이제 쫓아내고. 또 인천서도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태평특수니, 뭐 김옥섭이 저 안순애 김용자 얘들이 막 줄줄이 해고당하잖아요. 해고당하니까, 이 항의를 하니까, 노동청에도 항의하고 하니까 또 구속까지 시키고. 이렇게 또 태창메리아스도 막 그렇게 일어나니까 막 잡아가고 하니까 신부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이 와중이었어요. 우리가 노복이 결성될 때가. 그 와중인데. 그러니까 우선 노복이 이제 그렇게 결성시켜 놓고, 1월 달에 총회는 하고. 그건 은밀히, 내부적으로 한 거고. 공표는 하지 않았죠, 노복이. 그리고 3월 달에, 3월 10일 날인가 그때 이제 저 김승훈 신부가 있던 서대문, 홍제동, 홍제성당 거기에서 3월 10일 날 한국 노동자 복지협의회 출범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공개 집회를 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성남서 그렇게 한 거는 비밀, 은밀히 했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노동조합 복지부가 결성되고 나서부터 그 문제가 1차적으로 노동자 복지에 비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현안 이슈가 된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집사람은 또, 아기는 아기대로 딸내미 그 어린 걸 놔두고 다니다가 태창메리아스, 태평 특수 섬유, 그 캉캉 스타킹 막 짜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잘렸는데. 그 항의한다고 구속까지 됐어. 그리고 뭐 서기화 얘는 뭐 손까지 다 다치고. 뭐 유리창 깨다가, 노동부. 뭐 이렇게 되고 다 야단난 거죠.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또 기독교 쪽에서 그 문익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내 대책위원회 간사를 보면서,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강연을 다니시면서 해고자들, 블랙리스트 철폐하지 않으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때 막 하시는 게 그때예요. 문익환 목사님이. 이거 블랙리스트 없애지 않으면 난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거 포기하겠다. 이런 반대로 역설적이지. 그럴 정도로 강하게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리에 의해서는 뭐 신부님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이런 판국이에요. 그런데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가 노복이 싸움을 해야 되냐 아니냐 이걸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나는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이

걸 싸워야 된다. 몇 가지 이유를 내가 댔어요. 그러니까 방용석, 김문수, 핵심 지도부에서는 우리 역량.

이형진: 그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고요.

유동우: 김문수, 이쪽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금방 신생 조직인데, 그거 싸웠다가 잘리면 이게, 이거 뭐 활동도 못하고 그냥 날아갈 판이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그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조직 보존 논리죠.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싸움을, 뭐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전술적으로도, 전략 전술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이미 몇 가지 내가 논리가 있었어요.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건. 우선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의 조직 구성, 1차적인 조직 구성원 대상자들이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하다가 잘리거나 감옥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1차적인 대상.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다 감옥에 가고 막 쫓겨나고 한 친구들이 누구냐.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직장생활도 못하게 그냥 쫓아낸 거야. 우리는, 그건 이미 그 사람들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싸움이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두 번째,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거는. 헌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노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강제로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또다시 먹고 살려고 취직했는데. 그걸 이유로, 밥 벌어 먹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 건 살인과 마찬가지다. 그건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노동자들이 노동, 일하지 못하면은. 그런 점에서 전두환 정부의 도덕성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그건 치명적이 될 거다. 그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개신교 그거, 문익환 목사님하고 개신교도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저 블랙리스트 철폐하지 않으면 나 공산주의자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지. 신부님들 단식 농성하시지. 당사자인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거는, 그건 아니잖나.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블랙리스트 철폐하고 싸운다고 그래서 이 조직 깨지지 않는다. 적어도 그걸로는 최소한 못 깬다. 그건 이미 신구교의 튼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 그것 때문에 논리도 없이 나를 쫓아낸 거예요. 바로.

이형진: 운영위원이었는데 제명됐습니까?

유동우: 제명이요. 제명당한 거야. 내가.

이형진: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83년.

유동우: 아니, 말에서 이제 내가 그 논쟁이 나를 쫓아낼 때에는 이미 84년. 84년 한 뭐, 한 봄쯤 되죠. 4월 뭐 5, 6월 뭐 그리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도 내가 김문수를 참 개인적인 그런 처신이나, 그 전까지, 김문수를 참 좋아했죠. 김문수도, 나를 그래도 남다르게 좀 생각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딪혀. 그게 바로 이 친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게 내가 전민노련 출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좀 다르다고 하는. 이 친구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온건했거든. 문수가, 그러니까 방용석 지부장이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노복에. 그 나보고 같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 거기에 또 어쨌든 노복의 주인은 뭐 방용석 선배지. 난 그쪽에, 논의가 다 된 뒤에 뭐 들어갔고. 그래서 난 이제 안 나갔죠. 근데 김문수가 한 번은 이제 찾아왔어. 찾아와서, 김문수가 나이가 한두 살 어리니까, 나보다. 나와서 형이라고 그러죠. 동우 형, 둘이 이제 맥주 한 잔 이제 먹으면서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저 동우 형, 저 용석이형한테 잘못했다고 그냥 머리 굽히고 같이 일하지. 그러니까 아, 난 용석이 형한테 내가 그 머리 못 굽힐 이유가 없고, 난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나는 그래서 싸움 하자고 내 의견을 말한 게 아니다.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그건 그렇게 결정이, 내라고 하면 못 하지 않냐. 그런 거지. 그 주장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같이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나갈 수 있냐. 그러니까 용석이형한테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래. 아,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런 점에서 고집 안 펴는 사람이야. 잘했건 못했건. 뭐 또 용석이 형이 고마운 점도 있고. 그래서 둘이 이제 맥주를 호프 한 잔씩 마시고. 그 용석이 형한테 셋이서, 셋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이, 형. 미안합니다. 난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 그때는 당연히 뭐 이건 싸워야 될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얘기한 거고. 그랬을 때 그 싸움을 하지 않았을 때, 밑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웠다. 그 모든 기독교 단체도, 막 천주교, 이게 막 싸우는데, 목사 신부들이 싸우는데 감옥에 갇히고 있는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냐. 가만히 있었을 때. 성명서 한 장이라도 제대로 한번 내는 게 그 싸움에 참여하는 거고, 난 그렇다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뭐 그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해야 된다. 성명서 하나라도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싸워야 되지, 공격해야 했지 않냐 그런 의미였는데. 어쨌든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용석이형이, 또 고집이 대단하죠. 중이 절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문수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지. 최종적인 이제 입장을, 그렇게.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발을 끊은 거예요. 나하고는 이제 결별이 된 거지. 노복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부터 이제 기노련이 이제 들어가는데, 기노련, 10.26, 6.29, 6월 민주항쟁. 그게 이제 피크죠.

이형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균

- 신진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장
- 새한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 한국노총 사무차장

일　　시 2021. 6. 2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이성균

이형진: 오늘 2021년 6월 2일입니다. 지금은 지엠이죠. 대우자동차. 그런데 70년대에는 신진자동차였습니다. 신진자동차에서 노동조합을 한국 최초로 자동차 산업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해 오신 이성균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성균: 예, 감사합니다.

이형진: 선생님, 1943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곱 살 때쯤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억이 약간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절, 어려웠던 시절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과정을 좀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균: 제가 43년도에 화성군에서 태어났는데 화성군 향남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 25가 났을 거예요. 6. 25가. 그리고 그 6. 25 난지 일 년 만에 정전 협정이 됐죠?

이성재: 3년.

이성균: 그런데 그 6. 25 때 학교가 폭격 맞아서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솔나무 밭에서 우리 공부했지요. 솔나무 밭에다가 그 학판, 칠판 걸어 놓고 거기서 공부한.

이형진: 화성 초등학교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성균: 발안 초등학교. 발안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발안 초등학교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요. 인천하고 인연이 있었던 거는 인천에 외삼촌이 살았어요. 외삼촌이 금곡동 완식 교회, 교회 내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도회지로 유학 보낸다고 인천 송도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성재: 이야, 그 당시에는 좋은 중학교네요?

이성균: 예, 인천 송도 중학교에 들어가서 3년을 인천에 살았는데, 어, 외삼촌댁이 어떻게 가난한지, 하루 세 끼를 못 먹었어. 하루 세 끼. 아침에 수제비, 점심은 못 먹고 저녁에 수제비. 뭐 이런 식으로 근 3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방학 때 시골에 가 보면 그 쌀밥이 왜 그렇게 솔솔 녹아들어갔는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때 성장기에 못 먹어서 그런지 내가 6남맨데 우리 동생들은 다 커. 나만 작아요. 그런데 사실 배고파 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고등학교는 못 들어가고, 수원 고등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수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원 고등학교에서는 하숙하면서 3년은 배고픈 거 몰랐고, 이제 수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이제 동국대학교 정외과도 그땐 뭐 쉬웠었나봐. 학교 들어가기가. 거기 합격이 됐고. 그리고 한양공대 기계과 합격이 됐고. 그런데 사실 그, 이, 판단이 안 서더라고 잘. 그 집에서 이제 학교 등록금은 갖고 있는데 동국대 넣어야 될 건지, 한양대학교 넣어야 될 건지 판단이 잘 안 섰던 것 같아요. 마포에서 전차지, 옛날에는. 전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충무로 4가에서 내려버렸어. 그래서 동국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뭐 대학교 4학년을 기억해보면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이형진: 선생님, 그때쯤에 아마 그 61년 내지 2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 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6. 3 시위나 이런 게 서울 시내에서 이제 대학생들 활발하게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 기억은 혹시 좀 나시나요?

이성균: 예, 6. 3 때 뭐 좀 참여하고 그랬지.

이형진: 어땠습니까?

이성균: 맨날 거기 쫓아다니고. 6. 3 때, 그때 참 굉장히 심했어요. 뭐, 그건 학교는 안 가고, 6. 3 사태 데모하는 데 쫓아다니고 그랬죠. 그 당시에 학생 지도자가 김중태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예, 김중태로. 나는 뭐 내 이름은 그렇고 그냥 열심히 쫓아다녔던 이런 기억.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수배가 됐어. 수배가 돼 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낚시터로 이런 데로, 딱 보름 지나니까 못 배기겠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기도 병무청에 권우석 대령이 있었어요. 육사 8기인데. 그래서 그 양반집에 찾아갔지. 찾아갔더니 이 양반이 날 보자마자 따귀를 갈기더라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너 여기서 꼼짝 말래. 그러고 거기서 자래. 그 집에서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이 양반이 자기 지프차에 태워 가지고 병무청에 내려가 인천, 그대로 군대로 보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선 군대 가는 줄을 몰랐어.

이형진: 선생님, 그러면은 당시에 혹시 학생운동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이성균: 그건 뭐 관여했죠.

이형진: 그러면 학생회나 이런 조직에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이형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대 끌려가게 된 거네요?

이성균: 예, 군대 끌려갔죠. 그래서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자마자 소환장이 날라왔더라고. 야,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대접이 쎈지. 군복 새 걸로 갈아주고 군화 새거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이성진: 아, 검찰조사 받으러 올라가는데요?

이성균: 예, 그래서 그때 법원이었어. 법원에 가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더라고. 군법회의로 넘긴다고. 끝나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형진: 군대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훈련소에서 참 대접이 좋았어요.

이형진: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성균: 이제 군생활 훈련소 끝나고 나서 여기 파주에 25사단 38연대인가?

이형진: 선생님, 제대는 언제 하셨습니까?

이성균: 제대가 68년도, 67년도 같은데?

이형진: 그리고 제대하시고 나서 곧바로 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성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대학교 때 돌아가시고, 살림을 내 동생이 했어.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내 여동생이.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제대하면서 아버지가 병이 나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고려대학교 안암 병원인가? 거기 입원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하고 나선 시골 농사를 했지. 그런데 그때 막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 집은 토끼가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토끼 잡아가지고 막걸리 먹고, 친구들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하고 있죠.

이형진: 그러면 한 1년을 집에서 일을 하신 거네요?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성균: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님 퇴원하시고 나선. 바로 이제 취업 되는 게, 그때 취업이 쉽질 않았는데, 어떻게 신진자동차가 막 이제 출범, 신진자동차가 그때 출범, 공장이 출범 막 했을 거예요. 신진자동차에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회사가 잘했다. 대부분이 군 출신들 아니야, 간부들이. 회사 간부들이. 군 출신인데 입사 딱 하면 뭐부터 하냐면, 그 도요타에서 박스가 들어와요. 그게 무슨 박스냐면 그때 코로나 생산할 땝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자동차 코로나하고. 그런데 그 박스 껍데기를 딱 뜯는 거야. 이제 그 작업서부터 하는 거야. 그게 한 3, 4개월 한 것 같애.

이형진: 사무직으로 입사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성균: 아니, 그런데 무조건 그건 시켜야 돼.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배치해. 그런데 나는 그거하고 나서 또 창고로 배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창고에서 막 부품 보급해 주는 거야. 리어카 끌고 가서 부품 주고. 그 절차 밟고 나서 이제 사무직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를 보면서도 현장을 알면서 보게 되는 거지

이성재: 그런데 한 가지, 그 특이점인데, 저는 그거를 옛날 지엠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신진 때부터 아예 모든 직원은 사무 관리직이라도 일단은 현장체험을 하고 나서 4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이제 자기 원래 보직으로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에 다른 회사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성균: 그건 모르겠다, 다른 회사는.

이형진: 아니, 동료들이, 당시에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나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성균: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다른 회사 들어간 애들 그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형진: 지금 우리, 지엠 출신 노조위원장 이성재 씨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성진: 예, 그런데 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런 현장 체험이 그, 자기가 이제 노동조합 하는데 어떤 노동조합으로 결국 발길을 돌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게 되는데, 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이성균: 아유, 도움이 됐죠. 현장을 아니까 우선. 그런데 이제 사무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록계, 자재 기록계 봤거든. 자재 기록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동조합 뛰어들은 건데, 노동조합 뛰어들은 것도 71년도에 김창수가 초대 분회장 아니에요. 그죠.

(사진을 가르키며) 여기 여덟 명, 이제 시작한 건데, 근데 그 산곡동 교회, 천주교회에서 그 계속 교육시키고 그런 것도 몰랐어, 나는. 전혀 몰랐어. 그러다 언제 알았냐 그러면 그, 5월 18일 날 김창수 해고시키고 지부 승격 대회 한다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알은 거죠. 그때 알고 나서 5월 18일 날 지부 승격 대회 하고 거기서 김창수는 17일날 해고시키고 18일 날 지부 승격 대회에서 최영기가 이제 지부장이 됐걸랑요? 딱 지부장 하나 뽑아놨는데 그 당시에 한국 노총에 최용수 위원장이 와 가지고 이 대회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갔어. 그런데도 금성 노동자 김병영하고 뭐 회사하고 그대로 밀어붙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부가 결성된 거예요.

이형진: 그러면 한국 노총 위원장은 노조 결성을 승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성균: 안 했죠, 거기 저 지부 승격 대회가, 안 했죠. 그건 사실 하하, 회사가 주도해서 만들은 거고. 그래갖고 23일, 4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5월, 그때 이제 대의원 대회를 했어.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무슨 선거라 그러면 무조건 입후보 하고 그랬었으니까, 대의원 뽑는다 그러니까 입후보 한 거지. 노동조합 이런 거 잘 모르고 입후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재부 대의원이 된 거 아니야.

이형진: 이 선생님은 68년에 입사해서 71년이면 3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도 익숙해졌을 거고 사무실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을 텐데, 그때 현장에서 있었던 노조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조건이나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이성균: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저, 노동조합 만들고 그러는 것도 몰랐고.

이형진: 그런데 노조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성균: 그렇죠. 만들어진 거 보면서, 대의원 선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저 선거 한다고 그러니까 입후보 한 거지.

이성진: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도 그러면 그, 조합원 가입 범위가 사무직까지 당시에는 열려져 있었나 보죠?

이성균: 그렇죠. 그때 이제 회사가 지부를 승격시키면서 팍 열어 놓은 거야.

이성진: 아, 그 전에는 아니었다가?

이성균: 그전에는 뭐 여덟 명이 그냥 조직해 가지고 투쟁한 거니까.

이성재: 아니, 이게 그 실제로는 부산 공장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시작됐었으니까 여기 이제 부평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경인 지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공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공장이 신진, 부평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한 거, 예? 그때 당시 규약의 근거에 보면, 어? 규약이 아마 동일하게 부산 공장하고 비슷하게 거기서부터 이제 왔기 때문에, 됐을 텐데, 그러니까 다들 요새 이제 그 저희들 세대에서 약간 그 뭐랄까? 그, 호기심이 나는 게, 그때 어떻게 사무직까지 조합원들이 이렇게, 조합원 범위가 됐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그, 회사 내의 생활을 보면 사무직하고 그 사무 관리직하고 현장직하고는 진짜 완전히 그냥, 두부 무 자르듯이 확연히 구분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성균: 음. 어떻게 됐든 뭐, 그때 사무직도 다 조합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뭐...

이형진: 그때 선생님은 자재 담당이었고, 대의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별 반대 없이 돼 버리신 거네요. (이성균: 그렇죠.) 분위기가 그니까, 가능했다는 말씀이네요.

이성균: 예, 그런데 이제 대의원 선거를 끝내고 29일 날 그, 7월 29일 날 이제 부지부장도 뽑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지부장만 뽑아 놨으니까, 5월 18일 날. 그때 또 모여서 보니까 대의원들이 전부 다 그 회사 측이 아니라 이, 회사 반대측이야. 그러니까 지부장의 최영기가 사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며칠 만에, 한 15일 만에 사퇴한 거지, 최영기가. 최영기가 사퇴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지부장, 사무장, 운영위원 뭐 이런 것은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수석 부지부장이 됐어. 수석 부지부장이 되고 이진엽 씨가 이제 사무장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최영기가 지부장 사퇴를 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부장을 새로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새로 뽑기 위해서 이제 8월 6일, 8월 6일로 기억하는데 8월 6일 날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은 거야. 그런데 8월 5일 날 조승혁 목사가 이진엽 선배하고 나하고 불러가지고는 조승혁 목사 얘기가, 회사가 지원하는 이원우를 지부장 시키라는 거야. 응? 니들이 하지 말고. 그거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걸랑요. 대의원들이고 뭐고 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회사하고 이렇게 막 부대껴가지고 안되니까 이 회사가 원하는 사람 지부장 시키고 실질적으로 니네들이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기회를 좀 보자. 그래서 그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승혁 목사 말 듣고 나서 8월 6일날 이제 이원우를 지부장 시키고, 이제 그대로 제가 부지부장 하고 이진엽 씨가 사무장 하고, 이제 그 체제가 간 거죠.

이형진: 세 번 정도 임원진들이 교체가 된 거네요.

이성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가 김창수, 2대가 최영기, 3대가 이제 이원우가 된 거예요. 그, 한 2개월 사이에.

이형진: 이원우 체제는 좀 오래 갔습니까?

이성균: 이원우 체제가 1년도 못 갔죠. 1년도 못 가고 이제 그 다음 2월 달에 그 다음 해에, 2월 달에 대의원 대회에서 이원우가 이제 불신임 했지. 이원우를. 그리고 그때 이제 이진엽이가 지부장 하고 제가 사무장 하고. 그러니까.

이형진: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4대 집행부에 임원으로 이제, 이진엽, 그리고 이성균 체제가 출범한 거네요.

이성균: 그렇죠. 초대 김창수, 2대 최영기, 3대 이원우, 4대지. 이진엽 씨가.

이형진: 그, 노조 설립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조합원들이 회사가 탄압을 하니까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기억나는 점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집회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이성균: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이원우 체제 때 딱 그 며칠 후에 집단 해고가 있었걸랑요. 거기에 이제 8월 16일일 거야, 집단 해고가. 그런데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그 송도에서 조승혁 목사, 그 산업선교회 유흥식이, 이진엽 씨, 저 이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 집단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거냐 이제 이걸 논의했어. 그런데 이제, 그 조승혁 목사가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전략가인데, 이제 그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 조회라는 게 있었어.

이성진: 그렇죠. 아침에 조회하죠.

이성균: 예, 그 전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공장장이 나와서 훈시하고 그러는 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16일 날 조회 때야. 조회 때 이제 그때 얘기된 게 이진엽 사무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파업 선언을 하자. 파업 선언하고, 그 기숙 센터 2층 옥상, 그리 이제 조합원들을 모으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원우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지부장을, 지부장을 배제시키고 그렇게 주도해서 나가자. 그런데 이제 식사는 산업선교회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산업선교회에서 밥 해 가지고 날라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파업했었지.

이형진: 그때 농성을 했습니까?

이성균: 파업한 거지.

이형진: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기술실을 점거했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거기를 점거해 가지고 파업했지. 이원우 지부장은 따로, 따로 모시고, 누구는 뭐, 이 감금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노사에 이런 거 다 빼놓고 그 양반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당신은.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형진: 파업, 그러면 파업 지도부는 이진엽,

이성균: 이진엽, 이진엽 사무장이라고 봐야죠.

이형진: 예. 그리고 이성균 선생님하고 둘이 현장을, 그러니까 주도하신 건가요?

이성균: 그렇죠.

이성재: 그런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임금 교섭이나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해고에 대한 그, 반대, 이걸 내걸고 그냥 사실상 합법적인 이, 파업 투쟁을 선언하시고...

이성균: 불법이지. 그때 뭐, 불법인데, 불법인지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불법인지 알면서도 한 건데, 208명 그때 집단 해고가 있었거든.

이성진: 8월 14일날?

이성균: 8월 16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정보가 샜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들어온 거지. 그걸 가지고 8월 15일 날 송도에서 조승혁 목사랑 같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해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업하니까 이틀째는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모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윤자덕이 이런 사람들 다 왔었다 그러더라고.

이형진: 대학생들이 지원을 온 건가요?
이성균: 지원 온 거죠.

이형진: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이성균: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 바깥에서 밥 만들어주고 지원하고 플랭카드 만들어 주고 구호 만들어 주고 이랬지.

이형진: 그런데 수백 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산업 선교회에서 조승혁 목사가 어...

이성균: 해 가지고 날라줬죠.

이형진: 예, 그때 사진을 보면 어, 회사 내에서 농성을 할 때, 그니까 런닝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복을 다 벗어서 항의를 한 건가요?

이성균: 아니,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벗었지. 그걸 벗어가지고 항의하자 이런 거는 아니었고.

이형진: 그런데 그 농성, 파업이 며칠간...

이성균: 그때 2일 했죠. 완전히. 이틀 동안 해 가지고, 두 번째 되는 저녁에, 저녁 늦게 타결했지. 그 타결했는데, 그 당시로는 파격적이었어요. 파격적인 게, 해고 수당 300%, 또 위로금? 위로금 1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임금이 한 8만 원 정도 됐거든. 그런데 1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김창수 분회장 저, 복지. 그거 약속 받고.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 안 묻는다 라는 그 합의서 쓰고. 그리고 이틀 만에 끝났죠.

이성재: 그러면 해고를, 각 해고수당 300%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위로분과 해고수당 300%를 동의를, 합의를 한 거

예요?

이성균: 그렇죠. 그 합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보낸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직시킨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받더라고. 대부분이 다 받더라고.

이형진: 이 선생님, 당시에 이틀간입니다. 이틀 동안 기술실하고, 또는 앞에 마당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모여서 집회 같은 걸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성균: 옥상에서 했어요.

이형진: 예, 옥상에서 하는데 그러면 집회에서 연설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하셨나요?

이성균: 주로 이진엽 선생이, 이진엽 선배가 많이 했지.

이형진: 연설하고, 그리고 진행은 보통 그러면 구호 외치고 연설하고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가요?

이성균: 그렇죠. 노래도 불렀죠.

이형진: 8월이라서 되게 덥고 힘들 때였거든요.

이성균: 더웠죠. 예, 더웠죠.

이형진: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이성균: 그런데, 모르겠어. 저 출입 못하게 막고 그랬걸랑. 또 작업 간부들이. 또 출입 못하게,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랬는데. 제일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북에서 삐라가 막 날라 오는 거야. 삐라가 날라 오는데 신진노동자들이여 분개해라 어째라 막 이런 삐라가 날라 오는데 그건 좀 겁이 나더라고.

이성재: 그, 싸움 그때, 아니면 그전에?

이형진: 공장 안에 뿌려졌다는 건가요?

이성균: 그때, 싸울 때. 싸울 때 삐라 날라 와. 공장 안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방, 그 이북에서 그 전단지가 많이 나왔어.

이형진: 아, 또 그랬습니까?

이성재: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신속하게...

이성균: 예, 예. 신속하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 언론도 계속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언론은 이제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각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라디오 방송이지. 그런데 계속 났어.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었죠.

이형진: 예, 그렇습니다. 이틀간에 파업이 사실 중공업, 자동차산업 사업장에서 해고와, 집단해고에 반발해서 벌인 싸움이니까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었을 거라 보여 집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진엽 선생님과 그리고 이성균 선생님께서는 확실하게 대중적인 조합간부 지도자로서 부각이 되셨겠네요.

이성균: 그건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후야. 그 다음 2월 달이지? 그 다음 해 2월 달에 정기대의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원우, 이진엽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상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조합비 있잖아요. 조합비를 그냥 이원우 지부장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썼을 때야. 이사무장이 이렇게 정리 안 하고. 그러다가 내가 한 번 혼났죠. 그래서 이제 이원우가 그만두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합비를 한 30, 32만 원인가 그 정도를 못 남기는 거야. 남기질 못해.

이형진: 펑크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이성균: 예. 그런데 이진엽 씨가, 열심히, 이원우 지부장이 여기저기 열심히 다녔거든. 자기가 착복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진엽 사무장하고 이러니 야,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자. 이제 이랬다? 그러고 나서 합의서에 저기, 업무 인수인계서에 그냥 받은 걸로 이렇게 서명을 했어. 그걸 내가 서명을 했어, 이제 사무장이니까.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딱 돌아서 현장에 가가지곤 이성균이가 조합비 횡령했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서 근거가 이거라고. 막 이러는데 환장하겠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막 계속 그러니까 조합원들이나 조합 간부들도 다 의심하더라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또 경찰에 고발을 했어. 조합비 횡령했다고. 그런데 경찰에서 또 소환장이 날라 왔어. 그 어느 날인지 세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원우 지부장, 그리고 이원우 씨를 추종하는 관리부대 의원이 신성철이라고 육군 중령 출신이야. 이제 그 양반하고 두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철창의자에 그 두 양반 앉고 나 이렇게 앉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음, 나 그래도 학부 출신 아니냐. 난 여기 회사를 나가도 어딜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뭘 바라는 거냐, 원하는 게. 내가 사무장 그만 두길 바라냐, 회사를 그만 두길 바라냐. 그러니까 사무장 관둬라,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내가 회사까지 그만 두마.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 사실 있었던 그대로 확인서 하나만 써줘라.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놈들이 2, 30년 후에 나처럼 노동조합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때 우리 역사를 얘네들이 봤을 때 내가 조합비 횡령한 사람으로 되면 안 되잖냐. 그러니까 사실 있었던 그대로 확인서 하나만 써주면 내가 회사 사표를 내마. 그래서 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바꾸자, 이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쓰더라구. 쓰는데 색깔도 좀 이상한 펜이었어. 한참 써내려가. 그러더니 그 내용이 그건 다 들어갔어. 그런데 펜이 딱 멈춰. 그래서 일어나서 밀었지.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거 딱 잡아선 주머니에 넣고 나선 내가 철제의자로 때린 것 같애. 그러니까 신성철이라는 사람, 육군 중령은 그 이원우를 보고 나쁜 자식, 정말 나쁜 놈이구나 하고 쉭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대의원 통해서 현장에 알려졌다? 현장에 알려지니까 현장조합원들이 밥을 안 먹는 거야. 식당 앞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중식 거부가 되는 거야. 그때 중식 거부는 내가 처음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밥 안 먹으니까 중식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 회사가 일 계속 시킬 수가 없잖아

요. 그러니까 두시쯤 다 퇴근했어. 다 퇴근하고 세시에 경찰에 갔어. 경찰에 가니까 이원우가 와 있더라고. 그런데 나 들어가자마자 이원우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그랬더니, 니가 경찰 출신이냐고. 이원우 씨가 경찰 출신이거든. 그래서 막 이원우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있었던 거 사실이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나왔더니 이원우 즉각 구속 시키더라고? 그래서 구속되고 나서 이제 검찰에 가면은 이원우가 죄수복 입고 오는 거야. 그런데 죄수복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무릎이 나와. 그런 죄수복을 입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검사 보러 석방 시켜 줘라.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러더니 한, 이 양반이 20일 살았나? 그래가지고 이 양반 석방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형진: 조합비를 사소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균: 그렇죠. 그래서 난 이 얘기를 후배들에게 해 주는 게, 이게 인수인계나 그 조합비는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괜히 그 은혜 베푸는 것도 선이라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이형진: 얘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이 나왔는데, 노조 활동, 노동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조승혁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또 이진엽 지부장과도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진엽 지부장님의 인품이나 초기에 만났을 때 만남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승혁 목사님도 마찬가지구요. 이진엽 선배님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성균: 이진엽 선배는 같이 대의원을 했으니까, 나 자재부 때, 대의원 하면서 이 양반은 관리부 대의원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같이 대의원 하면서 처음, 처음 만난 게 그거고. 그러고 이제 이진엽 씨를 이제 고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보다도 가톨릭 노동청 연합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톨릭 노동청년회에서 노동자의 길잡이라는 책이 나왔어. 그 책에 보면 이 그림으로 막 설명한 거야. 커다란 고기가 있으면 작은 고기들이 다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못 찾겠어, 지금. 그 노동자의 길잡이가 그 가톨릭 노동청년회 그 쪽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 가지고 그냥 이진엽 씨다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제가 그랬던 것 같애. 그리고 이 양반이 나보다 나이도 뭐 다섯 살이나 많고. 그래서 그 양반을 상당히 마음속으로 따랐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매사 조그만 일도 조승혁 목사하고 의논했어.

이형진: 예. 조성혁 목사님은 산업선교회에 찾아가서 만나시게 된 건가요?

이성균: 산업선교회는 이제 교육 때 갔고.

이형진: 동인천에 있는 그 산업선교회, 일꾼교회를 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이성균: 주로, 예. 초가집. 그렇죠. 초가집에 갔죠.

이형진: 아, 초가집에. 거기서 조화순 목사님도 뵀습니까?

이성균: 그때 뵀죠.

이형진: 아, 직접 교육하시는 것도 참여하셨습니까?

이성균: 그 양반은 내가 강의한 분들은 기억이 나고. 이렇게 저하고 대화나 이런 건 안 했고. 산업선교회에서는 조승혁 목사, 유흥식, 지명식, 그 실무위원들.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밀착해 있었고. 그러고 주로 만나는 게 그땐 어떻게 된 게 대우자동차 여름에는 그 송도해수욕장에 휴양소를 차려놨었다고. 그래 가지고 송도 쪽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애. 송도 쪽에서.

이형진: 조승혁 목사님과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번 상의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까?

이성균: 뭐, 그 양반이 사실 지휘자지, 뭐. 사사건건, 나 그 44시간 김우중 회장, 이사장 들어와서 투쟁할 때도 조승혁 목사가 다 뒷받침해 주고.

이형진: 김우중 회장 체제로 바뀐 것은 70...

이성균: 그건 78년도.

이성재: 예, 78년도. 사명이 바뀐 거는 82년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인수한 거는 78년.

이형진: 그러면은 초기에 그 김우중 회장이 들어오기 전에 단체 교섭 과정에서 44시간제를 정착시킨 거였습니까? 그 점은 좀 기억을 되살려보시겠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그때는 44시간제가 단체계약 체결과정인데. 음, 미국 지엠의 단체협약을 받았어. 미국 지엠에 편지를 내 가지고.

이형진: 아, 편지를 하셨어요?

이성균: 예, 저기 이진엽씨가 영어를 잘해. 그래 갖고 어떻게 됐든 그걸 갖다가 거기서 번역해 가지고 우리 단체협약 초안이 미국 지엠 자동차 단체협약 초안이야. 이제 그거 보고 초안을 만들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44시간 노동제, 그거를 싸워 왔는데, 그, 회사가 교섭해도 영 교섭이 안 돼. 안 되는 게 그때는 3개 지부하고 회사하고 상대라. 3개 지부가 부평, 부산 동래야. 그런데 협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여관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가면 없어졌어. 그러면 회사는 합의서에 싸인을 다 받아놨어. 그래서 세 개 지부 중에서 두 개 지부가 합의를 했으면 니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압박이야. 그래서 그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체 협약 만들을 때는 노동조합과의 김주식 계장이라는 아이가 왔어. 노동조합에 와 가지고 자기가 해결해 줄게 단체협약이야. 조정신청 해라 그러더라고.

이형진: 노동부 직원이었나요?

이성균: 그 사람은 노동조합과, 노동청, 노동조합과 계장이 우리, 예.

이형진: 노정 계장이었네요.

이성균: 우리 조합에 와 가지고 왜 단체협약 관리 안 되냐, 이렇게 회사하고 교섭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조정 신청을 내라. 그러면 자기가 해결해 주마. 그런데 이렇게 돼서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신청을 내니까 첫째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청이 영등포에 있었는데

회사 측 부르고 우리 부르고 그리고 노동조합과 김주식 계장한테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의할 때 보니까 완전히 우리 편이야. 완전히. 어떻게 고마운지. 영만이 돈도 줬어,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2차 회의를 했어. 2차 회의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회사 편인 거야.

이형진: 하하하.

이성균: 완전히 회사 편이야. 그리고 나서 조정신청 우리 보러 취하하라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연춘이가 회장, 과장을 했을 때 구연춘 때 계장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이진엽 씨 보고, 논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나서 신현우가 노동 국장일 때 신현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얘 자르지 않으면 파업한다고. 그러고 쭉 정리 얘기하니까 걔네들도 황당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결국은 걘 지방으로 발령내고,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은 2년 교섭, 교섭한 지 2년 만에 됐어.

이형진: 그러면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이성균: 그게 71년도에 시작해, 72년도에. 자꾸 74년도에 됐을 거야, 아마 합의가. 74년도인가?

이형진: 74년도에 그러면 최초로 예, 주 44시간제를 쟁취한 거네요?

이성균: 그런데 아이러니라는 게, 그게 되고 나서 18년 만에 법제화가 됐거든. 그게 88년도 법제화가 됐는데, 그때 내가 노총 사무처장이었어. 내가 그 법제화 법제정의 실무책임자야. 그러니까 국회 드나들을 때야. 그런데 그때 3당 체제였어.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3당 체젠데, 김영삼이 뭐고 김대중이고 의석수가 비등비등한데, 이 공화당, 김종필계가 몇 안 되는데, 여기 요리 붙이면 여기가 이기고 요리 붙으면 여기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공화당이 그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힘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때 감사가 금속노동자 위원장 하던 김○○ 이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광명에서. 공화당 감사였어. 나를 제명시키고 그랬던 사람이지.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48시간제, 이제 얘기를 하고 지정을 한 거지.

이형진: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신진자동차 시절에 그때 사용자는 한국인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지엠은 그럼 기술과 관련해서 그니까 미국에서 그 기술 지도를 했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 미국과의 관계, 지엠과의 관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땠는지요?

이성균: 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한국 사람들하고 주로 교섭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미국 측에서, 지엠 측에서 안 된다. 이제 이게 핑계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기 이진엽 씨하고 미대사관에 가게 된 게 그런 동기야. 미대사관에 가서 미대사관에 보면 그저 노무담당관이 있더라고. 내가 그 사람 이름도 잊지 않는데 릭 더블라우라는 사람이야. 이제 그 양반한테 찾아가서 이진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형진: 언제쯤이었던 것 같습니까? 74년도?

이성균: 그게 73년도 됐을 거예요.

이형진: 단체협상이 진행되던 과정이었네요.

이성균: 그런 과정이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세계 제일 국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빈민국에 와서 사업하면서 노동자들 탄압하고 있다, 그게 1등 국민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이형진: 이진엽 선배가 영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성균: 아니, 그 사람 한국말 되는데 영어로, 예.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가 알아보겠다. 그런데 그때 11시쯤 됐어. 알아보겠다. 그리고 오후 세 시까지 답을 주겠다. 아주 명확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 나와서 뭐 점심식사 하고 나서 보니까 뭐 본사가 그 저기 충무로에 있었거든. 본사 간부들이 막 내려오면서 지부장 찾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감이 이상해. 그래서 나가세요. 밖에 나가계시라고. 그러니까 지부장 찾아. 지부장 지금 안 계시다고. 그러면 당신이라도 올라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니까 회사 간부들이 쭉 앉았어. 그런데 그때 김창원 씨 사장 아들이 김남식이라는 사람이 공장장이었어. 뚱뚱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들어가자마자 당신들 미대사관에 찾아가고 국위 손상시켰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국위손상 죄로 두 분, 두 사람 고소하겠다. 그 얘기에 성질 확 나 가지고 막 쌍소리를 했어. 소리소리 지르고 지랄하니까 오히려 말리더라고, 나를. 말리니까 나왔지. 나왔는데 뭐,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검은 지프차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타라고. 탔더니 가좌동인가 분실 있죠? 중앙정보부.

이형진: 아, 서울에?

이성균: 예? 아니, 아니, 여기, 인천.

이형진: 아, 가좌동에 있는.

이성균: 그리 데리고 가. 그러고 말을 안 해, 앉혀놓고.

이형진: 아, 중앙정보부 분실에서?

이성균: 예. 그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니 새끼가 뭐 할 얘기 있느냐고. 그러더니 무슨 얘긴지 들어나 보자고. 그래서 그때 그 논리를 핀 거예요. 일등국민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안주면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푼이라도 이 땅에 떨어트리자고 그러는 우리가 매국이냐. 한 푼이라도 더 미국으로 보낼라 그러는 사용주, 한국경영진이 매국이냐. 이제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탁! 틀어지더니 내 손을 탁 잡더라고. 너 그런 마음으로 노동조합 했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친구가 아주 나가라 그러더니 자기랑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부평에 방석집이 있었어. 옛날에 제일 좋은 술집은 방석집이여. 그 들어가 앉으면 색시도 앉아있고 그래. 그 집으로 초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술 먹으면서 많이 얘기했어.

이형진: 혼자 가셨습니까?

이성균: 그때 혼자 갔지, 그때. 이진엽 씨는 안 왔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노동조합에 첫 출근하면 제일 먼저 노동조합에 걸려오는 전화가 뭔지 알아요? 이형진 위원장. 제일 먼저 걸려

오는 전화가 경찰서에서 우리 조합원들 통금 위반했다고, 통금 위반해서 잡혀있는 거예요. 그거 빼 달라는 거야. 하하하. 그러면 이제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하면 나오고, 나오고 그랬어. 아주 우리 끗발이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이성재: 아니, 근데 이제 앞서 조금 그런 이제 관계들이 형성돼서는 좀 더 나아졌을 텐데, 그 노동조합이 막 시작한 그 시점이 72년도 10월에 박정희 10월 유신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는 정말 공포 정치라서 굉장히 뭐, 빨갱이 때려잡는 건, 뭐 민주화 운동 대부분 다 빨갱이 때려잡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겁나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이성균: 별로 그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고. 제일 좀 겁이 났던 게 동아 일보 사태 때 그 백지 광고 사태. 그때 이제 백지 광고를 내면서 뭐라고 또 썼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지 광고, 그거 몇 푼 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딱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한테 갔더니 풀어주더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뭐.

이형진: 그, 음, 이성균 선생님. 어, 이진엽 동지가 조합 활동을 위원장, 지부장. 사무장으로서 같이 하신 거는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이성균: 그러니까 4년 한 거죠.

이형진: 4년 정도. 그래서 그러면 72년부터 76년까지 하신 건가요?

이성균: 그렇죠.

이형진: 신진자동차에서 조합 활동은 그 이후에 이 선생님은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에서 이렇게 지부장으로 되는 과정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진엽 동지와 이성균 위원장님은 두 대를 같이 하신 거죠? 4년이면.

이성균: 4년 한 거죠. 예, 이진엽 지부장하고 저 사무장이 4년 하고, 그때가 아이, 내가 저기, 노동조합에서 제명될 때가 몇 년도냐. 징계처분이.

이형진: 75년에 정권 당하신 거 맞습니까?

이성균: 75년 초대 부회장, 아니야 이거.

이형진: 이진엽 지부장님은 제명당하시고.

이성균: 이진엽 지부장, 고때 이진엽 지부장하고 저하고 제명된 거 아니에요. 금속본부에서.

이형진: 그러니까 금속, 본조에서 무슨 이유로 제명을 한 건가요?

이성균: 그 당시에 본부 조합하고 우리하고 아주 나빴어. 그래서 사실 조직싸움에 들어갔던 거야. 본부조합하고.

이형진: 본부조합이라 하면 금속노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균: 본부조합하고. 금속노동자 김병용 체제하고. 우리 이제 이진엽 씨, 저 대한전선에 한 달수 씨,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형진: 새로운 신진개혁 세력이네요?

이성균: 그렇지. 그걸 이제 민주파라 그랬어, 그 당시에. 그렇다고 조직 싸움을 한 거지. 그런데 조직 싸움 중에 이제 이진엽 씨하고 저하고 제명을 시켰어. 제명 시키니까...

이형진: 대의원대회에서 제명 시켰습니까?

이성균: 중앙집행위원회. 금속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명 결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진엽 씨는 원 소속이 총무부니까 총무부로 들어가고. 나는 원소속이 자재부니까 자재부로 갔어. 자재부로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진엽 씨는 총무부에서 과장을 또 시켜놨네. 총무과장을. 이 상당히 괴로웠지. 그리고 나는 자재부 가 가지고 2개월 있었나? 자재부에서? 2개월 딱 있었는데 느닷없이 인천공장으로 발령을 내더라고? 주물공장, 인천에. 인천에 주물공장 발령을 내더니 나한테 업무 주는 게 용원이라 그래.

이형진: 주물공장은 대우중공업 있는 그 동네였습니까?

이성균: 대우중공업 옆에 있던 게 자동차 우리 소속인데 거기서 그 주물을 찍어내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이 용원 두 명을 나한테 붙이고, 나하고 용원 둘 하고 셋이 구루마로 지역 피티에 들어가서 그 분진 실어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새카매.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때는 아무튼 힘준 게 최영희야. 최영희 지금 내일 신문사 장명국이 부인이 이대 졸업하면서 바로 산업선교회 여기 왔었거든, 인천에. 그래 갖고 최영희가 나한테 면회를 왔어요. 면회 와 가지고 동일방직 뜬 사건이나 반도상사 사건이나 이런 걸 알려 주는 거야. 밖에 소식을. 그런데 처음에는 면회 왔다 그러면 그냥 그 꺼먼 얼굴이 부끄러워 가지고 말이야. 그걸 닦고 뭐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갔었어. 그러다가 영 뭐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김재규 씨네 하고.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 건설교통부 장관 했었는데. 그쪽하고 그 집안하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쪽에 얘기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건설부 김재규 씨 방에서 장관처로 올라오라고 통보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통보받고 가려고 회사 사표 써 놓고 착잡해가 있는데 유동우가 찾아온 거야. 유해우였어, 그때는. 아, 얘가 겨울인데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왔는데 이게 양말을 안 신고 왔어. 거 고생 되게 했네, 그거. 집에 와 가지고 사표를 써 놓은 걸 보고 나서 내가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팔팔 뛰는 거야. 인천에서 노동조합 이제 마지막 저긴데, 여기서 끝낼 거냐고. 막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고. 걔 가고 나서 가만히 저녁에 생각하니까 분해서 안 되겠어. 에라이, 건설부 안 간다. 그리고 나서 공장에 가 가지고 구루마를 끄는데 왜 그렇게 구루마가 가벼워. 그렇게 무거웠던 게 그렇게 날랐어. 그리고 최영희가 면회 오면 그대로 그냥 하이바 쓰고 꺼먼 얼굴로 가서 만나는데, 그때도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도 인천공장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도 뭐 한 근 1년 8개월 정도?

이형진: 귀향을 가신 거네요.

이성균: 그렇죠. 귀향 간 거죠.

이형진: 그런데 마음 수양을 좀하셨습니까?

이성균: 하하하. 이제 귀향을 갔는데 그때 김창수가 지부장 할 때 김창수가 한 3, 4개월 지부장 하다가 그때 어떻게 빵꾸가 난 게 금속 본부에 김맹용 위원장하고 김창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제명시킨 게 펑크가 났어.

이형진: 탄로 났다는 말씀이시죠?

이성균: 탄로가 났어. 그러니까 조합간부들이 김창수 그대로 싫어할 거 아니야. 조합간부들, 조합원들 다 김창수. 아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창수가 베길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창수가 11개월 만에 사표 냈어. 사표, 정말 괜찮은 친군데 그 양반 사표 내고 판매사원으로 가가지고 판매 대리점까지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낙인이 찍혔는데, 참 우리 노동조합 역사상 그 친구 그냥 배신자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되걸랑. 어떻게 됐든. ... 만들었고, 그 투쟁 과정이 ... 그 투쟁과정이야, 심했어요. 참 열성적이었어. 물론 조승혁 목사가 지원이 컸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이형진: 그리고 인천공장으로 복귀하셔서 다시 조합 활동, 예. 아, 부평공장.

이성균: 어, 그런데 이제 이재신 총무과장이 되고 그러니까 장창기 씨, 김창수가 떨려난 거지, 사실. 그리고 나서 사무장 하던 장창기가 지부장을 했어. 그런데 이제 장창기가 뭐를, 지부장 하면서 선언한 게 이성균이 징계에서 해제되는 그 시간까지 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지부장직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2월 달인데 그게 10월 5일 날 지부장 데리고 오고, 9월 달에 이제 해제가 됐지. 내가 해제가 딱 되니까 장창기 씨가 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니가 해결했지 않냐, 이러는 거야.

이성재: 의리 있으시네요.

이성균: 그런데 지부장들은, 아 저 간부들은 와 가지고 김영만이 얘네들 와 가지고는 보시라고. 안 간다. 그러면서 버텼어. 이제 버티게 된 게 아주 분규가 심했거든. 그런데 그, 그렇게 만들었어, 회사가. 반대파들이 있고.

이형진: 그 조합 내부의 반대파들이 심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성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가 가지고 못한다, 일. 무슨 단결이 돼야 하는데 단결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어. 만장일치로 나를 지부장 시킨다 그런다면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가도 일 못한다. 그러니까 한 날은 와서 한두 명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도 못 간다. 거기에 이제 신성철이하고 누구던가 그, 관리부대 위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선 걔네들도 찬성에 그렸다. 그래서 46명인데 정말 투표해 보니까 46명 다 대의원들이 뽑았다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만장일치 지부장 돼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일단 조직이 통

합이 되니까 그때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가 있겠더라고.

이형진: 그게 77년이었습니까?

이성균: 76년도죠. 76년 10월 5일.

이형진: 그리고 지부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신 거죠?

이성균: 예, 지부장으로 복귀한 거죠. 그때 지부장으로. 그게 76년도 9월에 해제되고 76년도 10월 5일 날 지부장으로 복귀한 거죠.

이형진: 그리고 노조통합을 이뤄낸 건가요?

이성균: 이제 그리고 나서 제일 큰 거는 그, 3개 지부 통합이었거든요, 과제가.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될듯하면서 안되고, 될듯하면서 안되고. 그래서 이제 78년도에 결국은 이뤄냈죠. 이뤄내면서 그, 동래 지부장 명환이가 지부장 되고. 이 부산에는 진명일이가 지부장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이 이뤄진 거지. 그래서 3개 지구 통합을 이뤄낸 거예요.

이형진: 노조는 지부장님께서는 그러면 70년대 말까지는 지부장직을 유지하신 건가요?

이성균: 76년도서부터는, 하고 78년도에 통합지부장 하고.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나왔을 거예요. 83년도에.

이형진: 그러면 6년 정도를 지부장님 하시게 되네요.

이성균: 세 번 선거했으니까 세 번. 세 번 선거했지. 결국 83년도에 노총으로 간 거죠.

이성재: 그다음에 김영만 위원장이 그 다음했죠.

이성균: 그렇죠. 김영만이가 지부장 되고.

이성재: 87년도에 송성만 위원장님이 되시고.

이형진: 이 선생님, 그러면은 대우자동차로 바뀌면서 전 김우중 회장과 이제 교섭 이렇게 되면서 44시간제를 포기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균: 난 그, 김우중 씨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상가에 가가지고 상당히 슬픈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랬는데, 그 양반이 오자마자 재밌는 얘기는, 여섯 시에 출근해. 그리고 열한 시에 퇴근해. 그리고 내가 보기엔, 한두 번 봤는데 8시 반 쯤 정문에 나와서 조합원들 들어오잖아요. 인사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제일 저기한 건 취임식하고 바로 노동조합에 왔어. 노동조합에 와서 인사 왔습니다. 이래. 그래서 이제 응접실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안 앉어. 그러고 나서 가끔씩은 노동조합에 쉭 나타나 가지고는 조합 간부들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사장실이라고 그래 여기 반만 한 데 다가 탁자 하나 놓고 그게 사장실이야. 김우중 회장이.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내가 매력을 끌었던 것 같애. 거기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아주 재밌게 했어. 그런데 이 44시간제를 환원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22개 회사를 갖고 있는 데, 대우그룹이, 여기 하나만 자동차 하나만 44시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길 48시간으로 환원해줘라. 아니면 다른 데서도 또 44시간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더라고. 그런데 그 대신 상여금을 베풀어 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비등비등해. 그런데 지금도 느끼는 건데, 그 노동조합에도 강경파들이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회의에서 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강경 소리하고, 강한 사람들은 48시간을 환원해주는 거야. 상여금 100% 받자는 거야. 우리가 형무소 갈 일 있냐? 이런 일. 그리고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들. 회의 때도 말 않고 확 듣고 앉은, 이 사람들이 의외로 강하더라고. 그리고 지부장님 형무소 같이 갑시다. 그 왜 특이한 게 이완재 씨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이완재 씨 아들이 지금 대우자동차 기술센터에 있다 그래. 아주 그 평소에 말이 없고 그랬던 사람은 강하고 평소에 아주 강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약하고. 이제 그런 걸 대우자동차에서 느꼈어. 이제 사실 그거 교섭하면서 주로 김우중 회장이 만나자 그러면 가면은 그 얘기야.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조승혁 목사는 절대 넌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건. 상여금 백프로가 아니라 200%를 준다 그래도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니가 지켜야 다른 데서 쫓아온다는 거라. 이 양반은 그러지. 그게 맞는 얘기도 같지. 아, 그런데 김우중 회장은 야, 100프로 더 줄게. 그리고 너는 조직이 있잖니. 그러고 나는 돈이 있잖어. 그리고 너 꿈은 정치 아니야. 내가 도울게. 정치해라. 정치해자. 해서 돈 필요하다. 국회위원 만들 때 필요하대. 이제 그 얘기에 죽겠더라고.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잖아. 요즘 와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산곡동 살 땐데, 그냥 술 마시면서 일할까 말까 일할까 말까, 조합원들은 문제가 열 가지 있다 그런다면 아홉 가지 잘하면 박수 소리는 짧어. 하나 잘못하면 이거는 원망의 소리가 엄청 크거든. 에이, 시팔놈들. 가, 말어. 야, 이 갈등이,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 같애. 그 어느 날 날을 잡아 만나면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은 교회에 미쳤고, 우리 아이들 꼬마 때 두 놈이 자는 거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놈을 내려다봤어. 요놈들이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년 후엔 나 같은 노동자가 될 수 있어. 노동자가 되면 나 같은 노동운동가가 될 수 있어. 운동을 할 수가 있어. 노동운동을 하면 역사를 공부하게 돼. 그러면 지 애비가 사업주 편에 서 가지고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사장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간부들을 데리고 갔어. 혼자 다니는 거,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어떡해. 간부들 여러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고, 같이 만나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79년도지, 79년도 10월 26일 날이야. 박통 죽는 날. 박통 죽는 날 5시야, 시간이.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전화를 노동조합으로 김우중 회장이, 사장이 직접 했는데 이택주가 받았어. 이택주가. 이택주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사장실에서 교섭하자. 대우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때 5명이 이제 올라갔어.

이형진: 아,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그룹이요?

이성균: 그렇지, 대우그룹. 그 회장 방으로. 그런데 이제 회장이 이렇게 앉고 우리 5명 쭉 앉고. 그러더니 김우중 회장이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야. 그게 13번째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했거든. 내가 지금 사장님하고 싸우는데 내가 집니다. 내가 질 거 압니다. 틀림없이 이 싸움에서 내가 지는데, 그런데 내가 두 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놈들이 20년 후에 나 같은 노동자가 되고 노동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 얘기 듣고 근

로 조건 저하시킨 내 애비라고 그러는 얘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펜을 가지고 요렇게 또, 야,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 아, 그런 얘길 왜 지금 해? 내가 졌어. 니가 이겼어. 그러더니 전화로 노동청장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회사가 이제 조정신청 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끝났는데, 그때 끝나고 나선 일어날라니까 아, 내 방 가서 차 마시고 가야 돼. 차 마시고 나니까 그땐 6시가 좀 넘었지. 밥 먹고 식사하고 가야 돼. 그런데 대우 빌딩 지하에 그 당시에 으리으리했어, 식당가가.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런데 김 사장은, 김우중 사장은 한 모금도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사장직 내놓는다, 자동차. 그러니까 새로운 사장 보낼게, 잘해봐. 그리고 지엠 애들, 지엠 사람들한테 체면이 안 서 가지고 사장 못해, 사장 내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선 회사한테 차 수배 해가지고 딱 차타고 보내는 거까지 길에 가서 마침 딱 보고. 그러고 끝이야. 그리고 이제 김우중 회장하고는 그러고 끝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거는 한국노총인데, 한국노총 김영태 위원장이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48시간 환원해 줘라. 이러는 거야..

이형진: 아, 그 무렵에?

이성균: 응, 그 무렵에. 그래서 강력히 얘기하더라고 노총한테. 난리가 막힐 거 아니야. 금속노동자, 노총에서 막노동자로서 압박 가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무렵에 이 김영태 위원장이 수표를 잃어버렸어. 수표를 도난당했어. 그 저기 남대문 앞에 여관에서 그 사람들 자는데. 그런데 그게 발각된 게 대우 김우중 회장 수표야. 하하. 노총 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이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봐도 김우중 사장은 참 훌륭했다. 참 훌륭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 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위원장 바꿀래? 그래서 네? 너도 위원장하고 이제 얘기 못 하겠어.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바꿀래. 그 사람은 꼭 위원장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위원장은 임명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 조합원들이 뽑는 건데요? 알아, 우리 조합원들이 대의원 뽑으면 대의원들이 모여서 위원장 선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알아, 그런데 바꿀 거야. 해보세요. 어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의원선거 때 정말 하네? 지치라 가지고 그 당시에 노조파, 회사파, 정의파 불의파, 이렇게 싸웠어. 그런데 딱 두 명 지고 다 우리가 이겼지.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김우중 사장이 재밌는 게 야, 안되는데? 지금 사장님은 부당노동행위했어요. 그러니까 왜 부당노동이요, 난 다 한다 그러고 했는데. 니가 하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런 얘기했어. 똥은 똥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 그런 일들이 있었던 데 참 재밌었던 것 같아.

이형진: 그게 8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성균: 그렇죠. 그러면서 김우중 회장은 그걸로 끝으로 10월 26일 날 그렇게 선언하고 두 달 있다가 11월 달인가 그때 정말 사표 내고 김영성 사장이 왔어.

이성재: 그게 80 몇 년도죠?

이성균: 그게 79년도 말일 거야. 80년대 초나.

이성재: 그러면 아직 대우자동차로 바뀌기 전이네요?

이성균: 그렇죠. 대우자동차로 정식으로 바뀌, 새한 자동차지. 그런데 김우중, 김영성 사장이었는데 일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뭐 한 달에 뭐 2, 3일 출근하고 그러니,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조합원들 시골에서 올라온 거 아냐.

이형진: 그게 80년대 말, 70년대 말 상황인 거죠?

이성균: 70년대 말. 80년도, 81년도.

이형진: 그니까 10. 26 이후여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인가요?

이성균: 그렇죠. 네, 어려워졌죠.

이성재: 10. 26이 아니라 석유파동 났을 때예요. 석유파동.

이형진: 아닌데, 79년인데.

이성균: 그게 이제 79년도 10월 26일 날 우리가 44시간제 그냥 지키는 거로 됐고, 단체협약이, 그리고 11월 달이 김우중 사장이 그만두고 김영성이가 왔고, 이제 80년도 들어와서 전두환이가 군부 장악, 12.12로 군부 장악했잖아요. 그 12. 12 군부 장악하고 나선 사방에서 파업 들어가고 그랬잖아. 그냥 파업 안 하고 그러던 데도 막 파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합은 파업을 끝났는데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거야. 그런데 조합원들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데도 하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지용택 씨 있죠. 지용택 씨가 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이었어. 그런데 지용택 씨가 전국에 다 다니면서 지금 파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와서 조합 간부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잖아. 지금 파업하면 더 독한 독재가 나온다 이거야. 전두환이가 정권 잡으려고 지금 놔두는 거다. 파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제시키더라고. 지금도 생생한 데 그게 그 양반 판단이 맞았다 싶고. 그러고 나선 전두환이가 12. 12 그 다음에 5월 16일 날인가? 18일인가 그때 이제 막 정권 탈환했잖아요.

이형진: 그, 회사와 노동조합을 약간 벗어나서 70년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균 선생님, 당시에 부평에 거주하셨잖아요.

이성균: 그렇죠, 산곡동.

이형진: 결혼은 그러면 언제 하셨습니까?

이성균: 결혼은 68년도 회사 입사하고 나서 쭉 만나던 여자가 있으니까.

이형진: 그러면 자녀분은 둘이었습니까?

이성균: 둘 있죠.

이형진: 그러니까 70년대는 애들 키우면서 회사 다니면서 조합 활동도하고 그러셨던 거죠? 당시에 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우리 옛 동지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황영환 선배님이나, 유동우 선배님. 그 추억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상

사 여성조합원들. 예.

이성균: 반도상사에 한순임이가 대표를, 지부장 했었고. 대한 마이크로, 많았어 그때. 부평지역에 그럴, 그땐 인천 북구지. 인천 북구 노우회를 결성을 했는데.

이형진: 북구 노동자회입니까?

이성균: 예, 북구 노동조합.

이형진: 노동조합? 협의회.

이성균: 그걸 노우회라 그랬어. 부평 노우회. 인천시 북구 노우회지.

이형진: 북구 노우회.

이성균: 한 30여 개 노동조합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뭐 가르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한 테 이렇게 따르게 됐던 동기는 소비조합이야.

이형진: 아, 소비조합.

이성균: 소비자 협동조합을 하니까 저 소비자 협동조합에 공장 리어카로 인천 물건 떠오잖아요.

이형진: 신진자동차에서 소비조합을 하신 거예요?

이성균: 예, 그러면 공장에서 딱 우리가 가지고 오면 각 회사가 통근 버스니 이런 거 끌고 와.

이성재: 아니, 이성균 위원장님. 그저, 소비조합이 언제 만들어졌었어요?

이성균: 그, 소비조합이 78년도지?

이형진: 아, 노동조합에서 주도해서 소비조합을 78년에.

이성균: 복지사업문제는 나중에 또 따로 합시다

이성진: 그러니까 이성균 위원장님 집행하실 때 만든 거예요?

이성균: 그렇죠. 북구 노우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 교육사업을 했는데, 그 부평 시장 안에도 요만 한 교육장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각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 데리고 오면 노동조합과 정치 활동 그 강의를 내가 했어. 계속 그거 하면서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 문제, 노동조합이 국회로 이제 보내야 이제 거기서 입법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벌였죠.

이성재: 지금 그 소비조합하고 아까 이제 그걸 계기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첫째는 소비조합을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소비조합을 매개로

해서 그 부평 북구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굉장히 막역해졌다는 그 과정을 좀.

이성균: 그 영향이 컸는데, 소비조합을 만들게 된 게 그 내가 누구 영향을 받았느냐면 인천제철에 장동찬 씨라고 있어.

이형진: 예,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성균: 그땐 인천중공업이었을 거야, 이름이. 이제 그 양반 영향을 받았거든. 그 양반이 나한 테 와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나의 임금을 사회에 덜 뺏기는 운동. 이런 식의 논리였어. 그러니까 임금을 타가지고 생활하려면 생활필수품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사회에 덜 뺏긴다. 이제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신용협동조합이었어. 73년도일 거야. 그건 일찍 했어. 신용협동조합 하게 된 동기는 그 현장에서 조합원들끼리 고리대금이 성행을 했어. 돈 있는 애들이 돈 빌려주고 이자 크게 붙여서 이런 게 성행이 됐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지. 그렇게 신용협동조합 만들고,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엔 신용협동조합 만들고. 그다음에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회사가 트럭 내주고. 사무실 내주고. 인건비 지원하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장도 해서 공장도가로 갔다가 공장도가 깔아주는 거야.

이형진: 그러면 다른 회사에 가서 물건을 싣고 온다든지 아니면 농촌 가서 뭐….

이성균: 아, 이제 그거는 또 다른 거고. 이제 공산품은 그렇게 또 소비조합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경산업에서 비누를 트럭으로 갖고 오는 날은 쫘악 서. 비누 받으려고. 그런데 소비조합, 소비자가격하고 공장도 가격하고 엄청 차이가 났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 조합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웃 노동조합에도 보급한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평에 상인들이 와서 데모했잖아. 소비조합 폐쇄하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는 뭐 공산품 가격이 개판이었으니까. 내가 그때 조사한 거로는 인천하고 부평하고 부천. 세 군데 물가조사를 해보니까 부평이 더 비싸. 인천하고 부천보다 더 비싸. 그런데 여기가 왜 비싸냐.

이형진: 미군 부대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성균: 응, 여긴 그때 군대, 미군 부대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좀 이건 찍히니까 얘기 못 하겠네. 미군 부대에서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성냥 값 하나도 틀렸어. 가격이. 그때 이제 소비조합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이제 소비자협동조합을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한 게 이제 주택조합.

이형진: 아, 주택조합까지 하셨어요?

이성균: 이제 주택조합을 하는 데 주택조합이 힘들었던 게 내가 그때 사람을 잘 만났던 것 같애. 세경건설 사장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이북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저, 위원장. 나 여기서 돈 벌어. 여기서 돈 버는 데 인허가 내는 거, 인허가 내는 거 경비만큼 돈을 번다. 그런데 인허가는 우리가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인허가는. 그런데 우리 이상노랑 주택조합부장을 시키고

거기다 세 명을 붙여가지고 이걸 추진했는데 안 돼. 서류가 이런데, 하나 지적해줘, 시청에 가면. 그러면 그거 뽑아내는데 한 일주일 걸려. 그리고 그 다음 갖고 가면 또 하나 지적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다. 한 6개월을 그랬는데 못 냈어.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이건 포기하고 여태까지 고생한 거 분풀이나 하자. 그랬더니 이성노 얘 네들이가 가지고는 주택조합 가선 막 소리를 지르고 책상 엎고 그랬어. 그러니까 윤영일하고 그때 부시장이 나한테 전화 와서 빨리 그거 말리라고.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랬더니 인천시에서 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나? 그러면서 압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김숙현 씨가 국회의원일 땐데 그 양반이 부평의 중앙교회 그 옆에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야. 그 채동렬이 하고 둘이 새벽에 6시 반에 김숙현 씨 집을 간 거야. 그래 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나한텐 잘했걸랑. 그래서 아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것 좀 해결해 줘요. 그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또 고만이야. 그 전날 이제 네 명이 갔어.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이 양반이 또 안 움직여. 그래서 위원님. 내일은 8명이 올 거고요, 모레는 16명이 올 거고, 고 다음날은 32명이 올 거고. 아이, 그래도 내가 한 5천명 동원능력은 있지 않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위원장이 있지. 동원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세요. 꼭 10시까지는 옵니다. 여기.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인천시청에 싹 돌고 와서 그냥 그대로 프리패스야, 우리가 내는 거는. 그래 가지고 한 우리, 그래 가지고 시작된 게 1차 백오십 세대. 허가 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 성공하니까 이차 백오십 세대 금방 되고, 한 마음 금방 되고. 그냥 우리가 내면 빨리 도와주자 그러는 게 인천 시청 방침이었던 것 같애. 그러니까 세경 건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인제 주택조합. 그리고 이제 이용자 협동조합은 완전히 장동찬 씨가 많이 역할을 했죠. 그 양반이 서울대학교 나와 가지고 인천제철 들어와서 노동조합위원장을 했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 이제 그 양반이 그 노동의 댓가, 사이 덜 뺏기는 운동. 이러면서 계속 저녁이면 이대생 들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데려와 가지고는 토론하는 거야. 이제 그 양반 영향 받아가지고 이용자 협동조합은, 그 양반 고향이 예산인데. 예산 농촌 촌놈들하고, 이 도시 촌놈들하고 서로 협력하자.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공급하고, 여기서는 공산품을 농촌에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제 이렇게 이용자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회사에서는 복지사업은 무조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트럭 내주면 우리가 내려갈 때 소비자 공산품 가지고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올라올 때는 쌀이니 뭐 배추니 이런 거. 그런데 그건 사진에 있어. 공급하고 그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스스로 농촌 촌놈들하고 도시 촌놈들하고 서로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용자 조합이다.

이성재: 아, 공산품을 이렇게 소비조합에 납품돼 있는 걸 가져가셨구나.

이성균: 그렇죠. 공산품을. 그러니까 공산품은 치약 하나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때 이제 큰 도움이 됐지. 그러니까 누구는 나보러 그 왜 어려운 복지사업 그거를 하느냐고 어쩌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런데 나한테 아마 훈장을 주고 그런 게 그거 요인 아니냐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내가 정화될 때. 정화. 80년도. 그 정화될 때 그 당시에 선별.

이형진: 정화조치 대상이었습니까?

이성균: 예. 산별 위원장들 중에서 그 당시에 정화된 게 지용택씨가 자동차노조에서 하나 정화됐걸랑? 다른 데는 안됐어, 정화. 지용택 선배를 나름대로 평가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이제 이 양반이 정화되면서 새얼 문화재단 만든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젊은 사람이 느닷없이 나한테 왔어. 노동조합에. 그랬더니 자기 보안사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이형진: 80년대 초네요.

이성균: 예, 80년대 초지.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 그 노사관계, 미국 사람들하고 관계, 뭐 이제 이 복지사업, 이런 거 문제를 쭉 얘기를 했더니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더니 나보러 딱 얘기해. 내일 한국노총에 천 사무차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차장의 해운 노동자로서 나온 천, 성이 천 씨였어. 그 사람한테 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를요? 가보세요 일단. 그래서 노총에 가서 사무차장을 만났어. 그랬더니, 금속노동자로 떠오른 정화조 명단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내 이름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연락 받았습니다. 여기서 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정화가 안 됐걸랑? 그런데 지금까지도 나 정화를 안 시킨 게 그 대우 중공노조 위원장하고 금속노동조합에 기획 실장 하던 이원구야. 요즘도 만나는데. 뭐, 얼마 전엔 이 친구 만날 때마다 지가 뺐대. 그때 정화를. 하하하.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길 했어. 내 이런 일 있었는데 형님이 얘기하는 거 내 듣고만 있었는데 아, 인제 그만 해요. 거짓말시켜도. 이제 이런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형진: 80년이 되기 전에, 70년대 후반에 동일방직이나 음, 부평은 여성 사업장 중에 대표적으로 반도상사. 예. 그리고 또 한국 베아링 황영환 선배. 그리고 삼원섬유의 유동우, 또 김지선. 이런 분들하고 바깥에서 자주 교류하셨습니까?

이성균: 했었죠. 예, 황영환 선생 하고는 막걸리 많이 먹었고. 애 엄마도 고생했고. 반도상사는 한순임이가 처음에 위원장 했어.

이형진: 한순임 씨는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성균: 그런데 난 그게 내가 조화순 목사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 그냥 그 위원장 시켜놓고 지나면 그냥 매도질 한다 말이야. 응? 그래갖고 사람 병신 만들고. 이러는데, 난 옆에서 본 사람 아니야, 제가. 동일방직의 이영숙이도 아마 그 꼴 당했을 거야. 처음에 주길자 아녜, 동일방직에. 주길자가 남보원이 부인이라고. 그래갖고 주길자가 위원장 하다가 그다음에 이영숙이가 하다가. 그다음에 이총각인지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거야, 아마. 동일방직이.

이형진: 예, 2년하고 그만두게 되죠. 그다음에 이총각으로.

이성균: 그런데 주길자는 남보원이고 결혼해가지고 어느 모임에서 그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내 친구 최홍길이라는 애가 사회를 봤어. 사회를 보면서 한국에서 최초여성 노동자 지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 제일 처음에 여자가 지부장 된 경우라네?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주길자가 막 항의하는 거야. 왜 내가 노동조합 했다는 얘기를 하냐. 그런데 주길자가 잠깐 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데. 그 당시에 주변에 그랬죠. 그러고 삼원섬유, 지금 유혜우 같은 경우는 고생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고, 몰라, 내 느낌엔 이제 산업선교회 출근하고 그랬거든. 도산에. 산업선교회 출근했는데 데, 엊그저께도, 야, 너 그 산업선교회 출근하고 그럴 때 너 어려움, 느꼈는데 나는. 엄청 어려웠고 네가 대접 못 받았다는 걸로 생각이,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형편이 어려웠었죠, 산업선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

이형진: 그 부평에 산업선교회가 광야교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교회에서 그 산업선교회가 부

평지부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또 들었습니다. 거기서 모임을 자주 했나요?

이성균: 광야교회 주로 조화순 목사가 와 가지고 활동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형진: 예, 맞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 말고 바깥에서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평의 노동자들을 만날 때 주로 부평 시장 쪽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했다는 겁니까?

이성균: 예, 그게 이제 부평, 북구 노우회 사무실 겸, 뭐 그렇게 썼죠.

이형진: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흘렀거든요. 조금 쉬었다 하시죠.

(30분 쉬고 다시 시작함)

이성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하고 만들고 한국노총으로 가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한국노동조합 출신인 김동인 위원장이 됐어. 광산노조 김규백이고 둘이 싸우는 데 김동인 위원장이 정견발표를 하는 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기부 오다 좋아하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다 좋아하네가 그냥 민주파들이 그리 다 쏠린 거야. 그래서 김동인 위원장을 밀었어. 그래서 김동인 위원장이 당선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무처장 발령을 내준 거지.

이성재: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알던 관계였어요?

이성균: 알던 관계는 뭐, 어떻게 됐든 김규백 위원장하고 김동인 위원장하고 노총 위원장 싸움할 때 우리가 김동인 위원장을 밀었지.

이성재: 아, 금속 이렇게.

이성균: 금속이 밀은 게 아니라 금속에서도 김맹용 위원장 반대 세력이 있었어. 거기 참 실질적으로 대장은 이진엽이였는데, 이진엽이가 끝나고서는 한달수가 대장 노릇했어.

이성재: 아까 이제 민주파들. 그러니까 금속을 원래 탈환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실패했지만 그 모여 있던 그 그룹들이.

이성균: 그렇지, 그렇지. 그 속엔 김문수도 있고 그랬었어. 한일 도루코. 그 세력들이 김동인이를 밀었고 이제 우리 파가 노총 대의원장이 되니까 내가 사무처장을 갈 수가 있었지.

이형진: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82년인가요?

이성균: 그게 84년도지? 아이, 84년도? 그런 것 같애. 예, 84년도.

이형진: 그때 어, 신진자동차는 그러니까 지부장을 사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부장 임기가 끝났을 땝니까?

이성균: 지부장은 이제, 김영만한테 직무대행 맡기고. 그리고 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만이가 직무대행 꼬리표 떼고 위원장, 두 번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형진: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하셨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김영만이는 뭐, 나하고 관계라는 게 그, 화성에 우리 동네에 지서 있어, 지서. 옛날에 지서라 그러지, 경찰서. 거기서 걔, 소사 노릇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런 애야. 어려웠어, 상당히. 영만이가. 그런데 영만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보다 2년 후배지. 신진자동차 왔는데, 아이, 이 새끼가 거치할 데가 없어. 그런데 나 있는 데 와서 방 하나 내줘서 같이 거치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사무처장 된 게 그때만 해도 내가 제일 믿는 놈 시킨다고 그런 게 김영만이 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영만이한 테 남기고 난 떴지.

이형진: 그게 84년이었습니다.

이성균: 그게 84년.

이형진: 한국노총은 당시에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이성균: 한국노총은 그때 가니까 가니까 그 멤버들은 엄청 좋았어요. 직원들은. 직원들, 뭐 김금수 실장을 비롯해서 조성준 뭐. 그런데 대부분이 고대, 연대, 고대하고 서울대학교 출신들이야. 예를 들어서 노동청에 무슨 노동부에 인사가 있으면 그, 여기, 노총도 패가 갈렸다. 하하. 거기 승진 때 고대가 되느냐, 서울대하고 되느냐 이렇게. 노총에도 그 서울대학교, 고대가 많았고, 동대, 성대도 몇 있었고. 동국대학교는 나 하나였던 것 같아. 아무튼 학부 출신들이 많았어, 안에. 그런데 이게 출근만 하면은 영등포 정보과 애들 출근하지, 보안사 애들 출근하지, 안기부 애들 ... 출근, 치안본부 출근하지. 이 놈들이 와 가지고 노총 현장에 사는 거야.

이형진: 한국노총사무실에 아예 출근을 해서 상주를 했다는 거죠?

이성균: 아이고, 출근이야, 출근. 하,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총 위원장은 완전히 게네들한테 제압이 되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겪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처장님은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이거든. 그리고 사무처장 밑에 각 부, 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 그런데 내 방에도 와서 살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 힘들었지.

이형진: 사무총장은 누구였습니까?

이성균: 사무총장, 이용준이가, 그 양반도 고대 출신인데 관광노조 출신이었어. 그러다가 이 와중에 노동부 차관까지 했지.

이형진: 그러면은 우리 이성균 선생님은 내부에서 개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노동현장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 직접 지원하러 다니고 하신 게 있습니까? 동일

제강?

이성균: 뭐, 동일제강이라든지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그 왜,

이형진: 구로 동맹파업 때 직접지원을 하셨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동일제강에 인준필증을 안 내주는 거야. 구청에서. 그래서 이제 금속산하 아냐? 금속 조직부장 보러오라 해서 가지고 내가 같이 구로구청장실을 들어갔어. 구청.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 어딨느냐고 그러니까 벽에서 나오더라고.

이형진: 구청사무실 벽에서요?

이성균: 그랬더니 그게, 옛날에 박원순이 그저, 사무실 내에 그 저 사무실 만들어놨다는 그거예요. 벽에서 나오면서 응? 어떤 새끼가 내 욕을 하냐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속 그, 이진우 조직국장이 구청장을 갈겼어. 거기서 욕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막, 말싸움하는데, 이 탁자를 내가 뒤집어엎었지. 뒤집어엎고 나서는, 이제 기자들을 불렀어. 기자를. 그러니까 이제 기자 불러, 구청장, 이 새끼가 덮은 거라고. 이제 뒤집어씌운. 이제 그러고 나서 구로의 이제 우리 조직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구로에 그저, 김문수를 비롯해서 쟁쟁했어. 그 심상정이도 그때 거기서 운동했어. 그래서 그쪽에 쫙 파업시키니까 걔네들이 구청으로 모여서 같이 파업하고 그런거걸랑. 농성을 한 거지, 파업이 아니라. 농성하고, 2박3일을 했나? 우리는 구청장실 점거하고. 그런데 이제 김동인 위원장이 철수하라고 그냥, 어떻게 아우성을 치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철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 마이크로 문제가 안 풀리고, 대한 마이크로도 뭐, 그 아주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 이 새끼들이.

이형진: 아, 부평에?

이성균: 예, 부평에. 그런데 그걸 우리 노사 대책 부장 유정설 부장이 우리가 한우리 아파트 만들을 때는 노총 직원들이 그리 많이 왔어. 한우리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구로, 저기 4공단 아이들 많이 지도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노사대책부장 유정설 부장이 지도를 하는데, 이 김금수 방에서 저녁이면 우리가 모여서 토론하는 거야. 내일 어떻게 할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대한 마이크로 이거 안 되겠다. 노총위원장실 점거시키자. 해결이 안 된다.

이형진: 곽순복 분회장님이었습니까? 그때?

이성균: 그때 박순복이 아니라, 곽순복. 박이 아니라 곽.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 열어 주고 새벽에 이제 대한 마이크로 애들이 노총위원장실 점거한 거지. 그런데 뭐 비밀이 있나. 우리가 시킨 거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고게 점거해서 한 일주일도 아실 거예요, 대한 마이크로 애들이. 그 노총위원장 점거 와 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로, 최만립 이름도잊지도 않아.

이성재: 맞다, 최만립. 기억난다.

이성균: 그 사장 불러다 놓고 교섭을 하는데 이게 먹히나. 그런데 우리 대한 마이크로, 우리 조합원들

이 핀 있잖아. 옷핀. 막 옷핀으로 찌르고 그랬어, 최만립을. 그렇고 나서 거기서 이제 겨우 합의했어. 그런데 사실 대한 마이크로는 금속 노동조합 출신 아니, 산하 아니야. 그러니까 금속이 이제 민정식이라는 사람이 금성사 출신인데 이게 엉터리걸랑, 위원장이.

이형진: 아, 금성사는 옛날부터 그랬군요.

이성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합의서에 민정식이 데려다가 도장 찍게 하고, 대한 마이크로사장 최만립도 도장 찍게 하고. 그러면서 내보냈네. 내보내니까 이 새끼들이 뭐 오자마자 뭐 부평경찰서로 가서 애들 잡아들이고 그랬어, 탄압하고. 어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우리가 시킨 건지 다 펑크가 난 거지. 그리고 그때 대한 마이크로 끝나고 이제 구로구 동맹파업.

이형진: 구로 동맹파업 85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이성균: 예. 85년도입니까?

이형진: 예, 가리봉 오거리.

이성균: 예, 85년도. 그게 이제 동맹파업이 이...

이형진: 대우 어패럴에 김준용 위원장.

이성균: 어패럴. 대우어패럴 하고 삼은섬유인가 몇 섬유회사 3개 회사가 동맹파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5월 달에 노총 여성국에서, 여성부에서 여성부장이 김근아라고 숙대 출신인데, 김근아가 주도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그 여성들이 문화놀이인가?

이형진: 여성노동자들?

이성균: 이제 그걸 해서 의식화시켰어, 막. 그런데 그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애. 내 기억으로는. 어디 자료에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타고 쭉 연결이 되는 거걸랑. 그거 하면서 이제 서울에 삼성제약, 삼성제약 투쟁사가 또 그래. 삼성제약 투쟁하면서 이제 구로로 가서 구로 어패럴하고 3개사가 이제 연대 파업하고 이러면서 벌어진 거거든.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대우어패럴에 김준용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경찰들한테 맞아가지고 구로 그 성모병원인가 거기 입원을 했었어. 그런데 한날은 이제 입원복 입고 그대로 나한테 온 거야. 병원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돈을 줬어. 나 주머니에 그때 7만 원이 꽤 됐었는데, 내 기억나네. 얼마 전에도 만나서, 7만 원을 줬어. 이 새끼가 와서 그냥 갖고 쓰면 되는 건데 가서 또 떠벌린 거야. 그래가지고 귀환했다가 또 찍혀가지고, 그놈 돈 줬다고. 그래 갖고 또 휘말리고. 그래서 노총에 가서 한 1년 반 근무했나? 그리고 나서 해고된 거지.

이형진: 85년 하반기였습니까? 노총 내의 개혁파들이 집단적으로 해고되는 과정.

이성균: 그게 8... 85년도인가? 80년도, 84년도일 거예요.

이형진: 구로 동맹파업 이후였습니까? 이전이었습니까?

이성균: 그 구로 동맹파업이 7월 달 중반에 있었는데, 대한 마이크로하고 연결된 거죠. 그런데 31일 날, 7월 그해 31일 날, 노총에서 집단해고된 거지. 노총에서 집단해고가 다섯 명을 시켰어.

이형진: 김동인 위원장 체제에서?

이성균: 김동인 위원장 체제지. 김금수, 그 당시에 김근아, 노사부장 유정설이, 마포구청장 하던 박홍섭이. 그리고 또 누구냐. 그렇게 5명을 해고 시키니까.

이형진: 김유선, 천영세, 이런 분들도 같이 해고되셨습니까?

이성균: 이제 그러니까 천영세, 얘네들 김유선이 이런 애들이 이제 뒤에 또 쫓아 나왔지. 그냥. 사표 내고. 동조 사표. 그래서 12명인가 한꺼번에 나왔어. 그러면 노총이 마비될 줄 알았어. 그런데 또 그런대로 가더라고? 참. 하하하. 그리고 해고돼 가지고.

이형진: 노총에서 조합 간부가 해고된 거네요.

이성균: 그렇지. 그러니까 각 신문에 막 보도된 거지. 한국노총에서.

이성재: 이 선출직, 아니 그러니까 임명직인데 다른 사람은 스텝이고, 여기 노동자 출신인데 유일하게 해고되신...

이형진: 예, 그런 거죠.

이성균: 그렇지. 제가 이제 노동조합 출신이라서 그런데.

이성재: 채용 간부고, 실제로는 파견 간부. 간부 중엔 유일하게.

이성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생은 좀 덜했지. 아무래도 봉급은 받았으니까. 난 대우자동차 고마운 게 계속 봉급 줬어.

이성재: 아, 해고되실 때도요?

이성균: 어, 해고했을 때도. 그거 뭐, 뭐라고 탓 안 하고. 봉급은 딱딱 집으로 왔어. 그래서, 그런데 아침에 아버지를 옆집에 데리고, 산곡동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이놈이 해고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침에 내가 옷 입고 농장으로 갔어. 그 전형석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형진: 어디, 청천농장에를 가셨나요?

이성균: 예, 소비조합장 하던 아이가 지금 계산구에서, 지금도 농장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하고, 또 퇴근 시간이면 오고.

이형진: 그러니까 청천농장 있는데, 그쪽엘 가셨나요?

이성균: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버텼어. 버티고 나서 이제 해고자들이 그 법원에 구제신청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형진: 예, 노총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죠.

이성균: 예. 그래서 구제신청 해서 구제되면서 이제 노총하고 합의를 했어. 일단 복직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사표 낸다. 그리고 그동안 임금 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사표 내고 나와서 노동사회연구소 그때 만들은 거야.

이성재: 예예. 교육협회 만들었죠.

이성균: 예, 교육협회. 그때 교육협회 만들고. 몰라, 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게 민주노조 뿌리라고 보는 거거든.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민주 노동조합이 생긴 거 아닌가. 민주노총이.

이형진: 이 선생님은 그때 복귀를 하셨나요?

이성균: 애, 복직했죠.

이형진: 예, 복직해서 한국노총에서 다시 일을 하시죠?

이성균: 예, 이제 복직하면서 박종근 위원장이 들어왔걸랑? 박종근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제 복직했죠. 복직했는데, 그 박종근 위원장이 대농 위원장인데, 그런데 이원보라고 알아요? 이원보가 섬유노조에 있었어. 그런데 이원보가 집이 안양이야. 그런데 박종근이도 안양이야. 그러니까 저녁이면 이원보, 김금수, 천영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방향은 어떻게 정할 거냐, 이제 거기서 토론이 돼. 토론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박종근이 출근 때 이원보가 박종근 차를 탔어. 같은 안양이니까. 차 안에서 박종근이를 완전히 세뇌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와 가지고 이제 해 이르면 박종근이 자기가 막 떠들어. 우리 얘기를. 하이고, 위원장님 맞다고. 이제 이러면서 개혁해 나간 거죠. 제일 처음에 개혁이, 김동인 위원장 때 노총엔 못 들어오게 철망 쳤어. 철조망 치고. 젊은 애들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수위가 벨로 누르고, 위원장 방하고 총장 방은 지금 안에서 잠그는 자물쇠 있잖아요. 사람 못 들어오게.

이성재: 점거 농성할까 봐.

이성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종근 위원장 되면서 그거 다 부셔 버리고. 누구든 들어와라. 그래 가지고 나도 뭐 이부자리 완전히 갖다 놓고.

이성재: 다시 그러면은 사무차장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이성균: 사무차장으로 복귀하면서 그때 또 엄청 노총에 들어와서 파업들, 농성들 많이 했지.

이형진: 그게 86년, 87년까지 가는 과정인 거죠.

이성균: 그치. 그렇게 갔어. 그게 이제 박종근 위원장 때 한 거고.

이형진: 87년, 때도 사무차장으로.

이성균: 쭉 사무차장 하다가 88년 저기 복지사업본부장 명령을 냈어, 나를. 그런데 그때 나한테 준 게 뭐냐면 노동은행을 만든, 노동은행 만들라는 거야.

이형진: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87년, 정국의 노동자 대투쟁 과정일 때 한국 노총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때 현대그룹에서 파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대우조선사업장에서 이석규 사망사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성균: 그때 이제 노총에서 처음 한 게 보라매공원 전국 집회 하고 그랬지.

이형진: 예, 87년.

이성재: 그 시기가, 그 시기가 87년 말부터요. 본격적으로 내부적으로 제 2 노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성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노총에서 집회는 그게 아마 처음일 거야. 보라매공원 집회가. 이제 그, 보라매 집회하고. 그러면서 박종근 위원장 때 뭐 이거 교육원도 만들고 이것저것 꽤 했어. 그리고 나서 고 다음에 박인상 위원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한국노동조합에서 아마 야당 지지한 건 그때가 처음이야. 백날 여당 편이었거든.

이성재: 그렇죠. 그게 또 권영길 위원장하고 합이 잘 맞았죠.

이성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인상 위원장하고 권영길 위원장하고 잘 맞았어, 민주노총하고. 친했어. 그게 죽이 잘 맞았지. 그래 가지고 그때가 그래도 괜찮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85년도, 난 근로복지공단으로 갔거든.

이형진: 아니, 88년.

이성균: 아니, 95년도.

이형진: 예, 95년도. 조금 더, 아니 이성균 선생님. 그러면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사무처장으로서 전국사업장이나 투쟁현장들을 좀 돌아다니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까?

이성균: 나갈 틈이 없었어요. 나도 나갈 틈이 없었고, 노총 안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 뭐 밥사 주고 뭐 걔네들 관리하는데, 나는 집에 못 들어갔어. 이부자리 갖다 놓고 걔네들하고 함께 자고.

이성재: 안살림 하시니까.

이성균: 그리고 저기 농성 와서, 노총에 들어와서 농성에 안 온 사람들을 같이 굴러 주지 않으면 그대로 불신해버려. 그래서 같이 잠자가면서 같이. 그런데 뭐 한두 군데여. 나중에 따져 보니까, 암튼 노총에 엄청나게 들어왔어.

이형진: 그때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는 한국노총을 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노동조합이 일단은 한국노총을 상대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때거든요?

이성균: 뭐 노동조합 만들고 탄압하고 그러면은 노총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이성재: 왜냐하면 그랬을 거예요. 직접은 신고할 때 상급단체 설립 인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산별이 동의 되지 않을 때 한국노총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금속 같은 경우도 내면, 금속에서 안 내주니까 상급 가서 하소연하고.

이성균: 이 금속 노동자 몇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 이게 완전히. 그런 놈들도 있었고.

이성재: 그렇게 해서 한국노총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증 내달라고 해주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성균: 삼성중공업 애들도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노총에 와 있었거든. 야,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됐든 한 번 해 볼라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삼성 조선이 이제 현장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삼성 애들은 나와 있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뭐. 삼성 애들이. 그런데 삼성 애들이 이상하게 노총에서 몇 명이 앉아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아, 이 새끼들이. 내부에 무슨 고발자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고 그랬걸랑요.

이형진: 포항제철도 88년, 89년 정도에 노조를 만들었다가 깨지거든요?

이성균: 그렇지. 포항제철도 그때지. 포항제철 애들도 왔었어. 노총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성건물이 노총 맞은편에 있었어. 그래서 삼성에서 누가 하나 왔다고 거기서 해고돼서 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와 가지고는,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녹음이 된대 거기서.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는 창문을 가리고 얘기를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노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듣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삼성중공업 결국 그때 실패했지. 못했어.

이형진: 이 선생님, 89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발령이 났다고.

이성균: 그건 95년도에 갔어요.

이형진: 그러면 노총 사무처장, 차장은.

이성균: 사무차장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사무차장이지. 그거 하다가 이제 복지사업본부장 발령을 받으면서.

이형진: 그게 88년 일입니까?

이성균: 노동은행을 만들라는 거야. 노동은행.

이형진: 이제 노동은행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성균: 그게 이제 평화 은행이거든. 아이, 그거 내 일대 최대 실수한 게 그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재무부장관이 나한테 그랬걸랑. 작은 은행도 회피하는데 지금 추세가, 왜 만들라 그럽니까? 다른 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그게 노태우 정권 때 아니야. 노태우가 또 노총에 오는 거야. 노총에 방문할 때 노동은행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노동은행이 된 거라. 그런데 그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고 결국은 실패하고 항운 노조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손해 봤지, 거기 출자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복지사업본부장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게 하나 딱 있다. 뭐냐면 결혼상담사를 했어. 그리고 마흔 일곱 쌍까지 성공했어. 그런데 여의도에 알트만 시스템이라고 결혼상담소가 있었어요. 거길 찾아갔어.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오냐 그랬더니 고급 인력이 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 뭐 판검사들. 이런 고급 인력들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고급 인력들만 하냐. 우리 노동자들 하냐. 노동자들 이렇게 맺어 주는 게, 그게 좋은 일 아니냐. 노동자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해. 공장에 꽉 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얘 네들 위해서 해보자. 그런데 그때는 상담비가 30만 원이야. 그래서 3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15만 원에 하자, 우리한테. 그런데 15만원 하되 3개월 할부다. 한 달에 5만 원씩. 그랬더니 그, 받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노동조합 사업장하고 남성 노동조합 사업장하고 이렇게 맺어주는 거야. 그런데 마흔 일곱 쌍까지 했어. 그런데 나는 그게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때 판단했거든? 그런데 이제 복지사업본부장 하다가 다시 또 사무차장으로 발령을 내네? 93년도에. 그러니까 세 번째 사무차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복지 본부장 오는 새끼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뭉개버린 거야. 그래 갖고 결혼상담소가 그냥 뭉개졌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워. 계속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때는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으면 이 여자들이 모자란다 그러면 여성사업장에 얘기하고 그러거든. 일으켜주고. 그래서 노총 사무차장으로 93년도에 와 가지고,

이형진: 그러면 사무차장을 이제, 93년도에 세 번째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 박인상 위원장 때였습니까?

이성균: 그때도 박종근 위원장이었어요. 박종근 위원장 했는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게 된 동기는, 홍성진이라고 고대 경제과 나온 애인데, 얘가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우그룹 입사 시험을 봤어. 거기서 일 등으로 합격했어.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광산 태백에, 광산에 들어가서 광산 깽, 깽 안에 들어간 거야 이놈이. 거기서 광부를 한 거야. 이제 그러다가 노동조합에 애들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노동조합에 와서 사무를 봤어. 광산노동조합에서. 그런데 걔를 노총에서 이제, 노총으로 끌어들였지. 홍성진이를. 그런데 이 경제통이여. 그래서 얘를 정책실에 놔뒀는데, 얘가 나한테 와 가지고 저 근로복지공단 갈래요. 배가 고파서 못 베기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놈이 양쪽 부모를 다 모시는 거야. 장모, 장인, 지 아버지, 지 엄마. 그런데 노총 봉급이라는 게 작았거든. 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배고파서 갈랍니다. 그건 뭐 하는 덴데, 그러니까 공공복지전담기관이고, 뭐 쭉 설명을 해. 아, 거기는 내가 갈 자리 아니야, 니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자주복지는 안 되는 거야. 해 봤지만 한계가 있어.

이형진: 자주복지는 힘들다? 노동자들 스스로 복지는 쉽지 않다?

이성균: 응. 자주복지 그거는 한계가 있다. 공공복지가 돼야 된다. 그거는 공공복지 전담기관이라면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막 공사해서 공단 만들면서 사람을 모집할 때야.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응시를 했지. 응시했는데.

이성재: 초기에 그때, DJ 때.

이형진: 아닌데, 95년.

이성균: 95년도 얘기야. 95년 5월 1일자로 내가 근로복지공단.

이형진: 예, 김영삼 정부 시절이네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그러면 둘이 입사를 하신 건가요?

이성균: 그런데 김영삼 시절인데, 그 YS하고 우리 노총에서 같이 해고된 박홍석 마포구청장 하던 사람, 그 사람이 YS가 정권 잡으니까 근로복지공사 사장을 시켰어. 박홍석이를.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을 만들면서 공사가 근로복지공단이 된 거야. 그리고 산자 업무가 노동부 애들이 한 거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을 시켰네. 그래 가지고 사람을 모집한 거지. 그리고 이제 박홍석이가 거기 사장이니까. 거기 응시해 가지고. 날 복지 진흥국장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복지, 복지진흥국장 시키면서 지금도 연결되는 애들이, 그 산업재해자 자녀들.

이형진: 산재 당사자들의 자녀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이성균: 자녀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줘.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너 장학금은 어디서 받냐? 그러니까 몰라, 어서 왔는지. 장학금을 받는데 어서 받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건 아니지 않냐. 주는 놈은 보람을 느껴야 되고, 받는 놈은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주는 놈은 있는데, 받는 놈은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 얘네들 장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겨울인데 마침, 그 스키캠프를 시키자, 얘네들. 스키캠프. 그러니까 일일이 또 거기 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일 할라면 노동부승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노동부에서 승인을 해주나. 이 새끼들이. 내 자식도 못 보내는데 어딜 장학생들 스키캠프 보내느냐고. 걔네들 연필이나 사 주고 노트나 사 주면 됐지. 이런 식이야, 노동부 관료들 생각이. 그런데 이제 박홍석 이사장은 노총에서 같이 해고됐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 그래 가지고 겨울이면 스키캠프 시키고, 얘네들. 여름이면 저기,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여름 캠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 미국여행 시키고. 이제 그렇게 운동을 했지.

이형진: 그 장학사업은 산재 당사자들의 자재들인데, 그러면 그 산재 당한 사람들이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서 바로 잡아 주자라는 취지였던 거죠?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성균: 아이, 그럼. 효과 있었죠. 그래서 그 애들, 그런데 그 애들한테 지금도 나한테 연락 와. 만나고 그래. 이제 요즘은 나 만나면 자기네들이 밥값 내고 그래, 이 놈들이 다 성인이 돼 가지고. 벌써 47 됐어. 차덕훈이, 이런 애들이 지금도 연락 오는데. 이제 걔네들 데리고 미국, 처

음에 이제 미국에 한 30명 데리고 갔어. 사진 이런 거 다 있는 데. 거기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캠프 하고. 그런데 그걸 와이엠씨에이 애들하고 같이 했어. 와이엠씨 애들이 그쪽하고 다 통하잖아. 또 그쪽 조직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제 1차, 2차국, 3차 내가 그만 두고 나서는 그게 중단됐어.

이형진: 아, 또 중단했어요? 후임자가?

이성균: 그런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못하게 해. 막을라고 애쓰고 그랬어.

이형진: 왜 그랬을까요?

이성균: 아이, 걔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생각이. 걔네들한테 무슨 어디를 외국까지 데려가 가지고 캠프를 하고, 무슨 스키캠프를 하고 그러냐. 그때는 완전 스키가 고급 스포츠 아니야.

이형진: 그리고 돈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균: 예, 그래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상, 누구 장관 있을 땐데. 강원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관 할 때 캠프를 중단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장관한테 찾아가서 한 번 살린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노동부 장관 명의로 정식 문서가 왔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데 갑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런데 우리 이사가 노동부 출신 송명영 노동조합 과장 하던, 송명영이가 이산데. 복지이사. 그 이후에 박홍석이가 이사장이고. 난 국장이고. 그래서 이제 송명영 이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렇게 많이 왔었어. 송명영이가 나보러 이사장실에 같이 가재. 그래서 이사장 방에 가서 문서 딱 내놓는 거야. 노동부에서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송명영 이사가. 그랬더니 노동부 장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문서를 이렇게 갔다가 이사장 결재란에 자기가 결재를 하더라고. 이사장님,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박홍석이가 어떻게 뭐, 예, 알았습니다. 합시다. 이제 이래가지고 연속됐었는데, 결국 노동부의 방용석이가 장관 할 때까지 했어.

이형진: 아, 예. 방용석 장관 때까지는.

이성균: 그때 그거 뭐, 나는 나와 있었고. 그러고 방용석 장관 끝나고 나서는 없어졌어. 결국. 그래서 노동,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일 행복했던 건 걔네들. 아이들. 이제 그거였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김대중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는 노총 위원장, 박인상 위원장 끗발이 엄청 셌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등공신은 김종필이요, 이등공신은 노총이라 그랬거든.

이형진: 아, 한국노총이라 그랬습니까?

이성균: 응, 그러니까 이게 박인상 위원장은 어디 가서 식사하면 어떻게 아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그냥 권력이라는 게 나는 그때. 그때 박인상 위원장 있을 때 산하 기관장으로 많이 노동조합 출신들이. 그때 막 나갔고. 그때는 박인상 위원장이 청와대 드나들을 때니까. 그때, 고런 시절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서울본부장, 경인본부장 끝으로 정년퇴직하고.

이형진: 이 선생님, 그, 한국노총에서 간부로 계실 때 해고된 직후였을 겁니다. 아마. 한국노총에서는 전두환의 그니까 호헌 선언에 대해서 호응하거든요.

이성균: 그게, 김동인 위원장 있을 때야. 호헌지지 결의를 선별위원장 놈들이 모여가지고 했어. 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형진: 이 선생님께서는 한국노총에 개혁이 당시에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이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 제일 큰 장벽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이성균: 제일 큰 장벽은, 기관들이 제일 문제였지 뭐. 뭐 움직이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걔네들이. 심지어는 그 노총보가 있잖아요. 신문. 그런데 어느 한 회는 그 산재 산업 재해자들에 대한 신문을 앞뒤 다 깔았어. 노총보를. 그런데 뭐, 정보부가 허가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어. 박홍석이가 그때 홍보부장이었었는데, 걔가 하루 종일 보일러실에 가서 신문 태운. 태우면서 여의도 바닥이 전부 다 태우는 연기로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리고 무슨 노래, 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테이프에 만들면 걔네들이 폐기해, 그러면 폐기했어. 그러니까 사실상 노총위원장은 기관원이었지. 노총위원장이 이기질 못했어.

이형진: 박인상 위원장 때 나름 이제 그, 노총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성균: 그렇지. 그 양반 들어와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만들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길이 좀 폈던 거지.

이형진: 박인상 위원장은 부산에서 그, 조선, 그러니까.

이성균: 부산에서 그 양반이 60년대에 조선공사파업에 주모로 걸려서 이제 형무서 갔다오지 않았어. 그게 그, 남재희 장관 딸이 쓴 책이 있어. 뭐 배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 박인상 위원장 얘기가 나와. 그때 형무서 갔다와가지고 얘가 이제 부산, 이 양반이 부산지역협의회. 노총 부산지역협의회 사무국장을 했어. 노동조합 떠나질 않고 사무국장 하면서, 우리가 금속노동조합위원장으로 우리 조직에서 추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못하겠다고 건강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건강이고. 그래서 그때 여기 송도호텔에 우리 패들이, 민주파들이지. 다 모여가지고 박인상 위원장 추대했지. 그리고 그 양반은 안 올라 그러는 거 억지로 그냥 시켰어. 그 사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인상 위원장이 금속 잡으면서 질서 잡아나간 거지. 그러면서 그때 뭐, 노진기, 뭐 얼마 전에 그 누구야, 검찰청장만, 노동계에서 만났다 그랬던 친구 있잖아? 정 누구야 걔가. 윤석열 총장이 노동계 만났다고. 그 대학교수 만났다고. 걔가 금속 노동조합 했었어. 금속 노동조합에 학부 출신들을 박인상 위원장이 많이 채용을 했어. 피정선이, 내가 아는 것도 그 친구 성가대에 계속 윤석열이 만났다는 친구. 그리고 노진기, 또 윤창열이. 이렇게 해서 대학 출신들이 그때 박인상 위원장이 채용을 했지. 그래가지고 금속노동조합도 그때서부터 이제 질서 잡혀나간 거야.

이형진: 노동조합운동에서 시작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년까지 쭉 활동을 하셨습니다. 30년 정도 과정에서 현장의 노동자들과, 특히 대우자동차 후배들, 또는 인천지역

에서 활동했던 노동자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교류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이형진: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이참에 언급을 해 주시죠.

이성균: 그런데 요즘은 이제 ... 퇴직자연합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여의도 사무실 가 가지고 사업은 하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 우리가 60대에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70대면 80대잖아.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쭉 쫓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전에 시니어 노동조합도 만들었지. 시니어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는데, 노동조합 출신들보다도 노동조합 출신 아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어. 시니어노동조합엔. 그리고 이, 저 안양 지역에서, 제가 거기 안양 지역 시니어노동조합 위원장이거든요? 안양, 군포, 성남 이렇게 해서 쭉? 그런데 거기서도 조합원들은 정말 노동운동 한 사람들은 몇 안 돼.

이형진: 노동자들의 관심이나, 이 정치 의식은 아직도 낮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근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15%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이성균: 지금 10%는 넘습니까?

이형진: 예, 10%는 넘습니다.

이성균: 한 때는 근 20%가 찼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이형진: 예, 87년 직후에. 그런데 쭉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제 비슷하게 백만 씩 해서 약 2백 만 정도 노동자들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배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균: 뭐 내가 지금 제일 바라는 건, 퇴직 후에 살날이 한 20년도 더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 후를 대비해 가지고 현역들이 지금 움직여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우 지금, 지엠 노동조합, 현역 노동조합에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퇴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지금 신경써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걸랑. 퇴직하고 20년을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 사후보장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신경 써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현역들도 신경써야 되지만 퇴직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게 지금 아주 절실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형진: 노동자들의 노후복지, 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선생님, 이진엽 선생님하고는, 이진엽 지부장님과 노조를 같이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진엽 선배는 80년대에 이렇게 인천에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엽 선생에 대해서 좀, 그 과정들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남겨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성균: 이진엽 선배는 뭐, 난 친형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냥 그 양반 생각하면 아주 좀 애린데. 그 양반이 참 열심히 하고 존경받을 분인데. 그냥 안타깝게 그 노동조합 이제 중간에 그만 뒀잖아요. 위원장. 이제 그만 두고 나선 회사로 들어가고 나서도 이 양반 한이 서

리는 거야. 노동조합에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조승혁 목사 주선으로 어디, 뭐 저기, 기독교 저기에 가서.

이형진: 기독교 사회연구소.

이성균: 사무장인가 사무차장으로 근무를 했었어.

이형진: 그게 80년대 초였습니다.

이성균: 80년대 중반 됐을 걸? 이제 그런데 그냥 이 양반이 노동조합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사무차장 때 노동상담소를 전국에 설치하자. 이거를 계획을 세웠어, 세워가지고 노동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부평에 세운 거야. 부평에 세우면서 인천 상담소에 소장 이진엽 이렇게 해서.

이형진: 부평역 앞에 있었던 건가요?

이성균: 그렇죠. 부평역 앞에.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여기 상담소 소장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어. 노동자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걸.

이형진: 그게 87년인가요?

이성균: 그게 그럴 거야, 아마. 이 양반이 92년도, 93년도에 돌아가셨나 그랬지. 92년도인가. 그래서 87년도 될 거야. 박종근 위원장 있을 때걸랑? 그래서 이제 현판 찍혀놓은 사진이 나한테 있어. 박종근하고 나하고 진엽이 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운명하기 직전에 그 형수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집에서 운명했어. 집에 들어가니까 의식이 없었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장례식장도 아니고 집에서 치뤘어. 그리고 동아아파트니까 아파트 지하실에다가 차려놓고 손님 받고 그랬지. 그때 뭐 사실상 상주 노릇 한 거지. 그런데 이제 조합 간부들한테 고마운 게 그 장례식에, 장례식에 가 가지고 이, 묻고 나서 달복이라 그래 뭐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깨동무해서 그 돌면서 늙은 노동자의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그거 불러 주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후배들한테 제일 고마운 거는 그 기록을 보니까 매년 시작할 때 연초에, 시무식 때 진엽이 형 산소에 갔다와서 시작했더라고 몇 번.

이형진: 백석공원인가요?

이성균: 백석공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 후배들에게. 그런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모란공원으로 가고 이런다 그러더라고.

이형진: 예, 요새는 모란공원도 갑니다.

이성균: 그런데 그것도 뭐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진엽 선배에 대해서. 그것도 고맙고. 그리고 그 식구들은 딸 둘에 아들 하나였었는데, 걔들이 딸, 아들은 인균이, 인균인데 걔가 포항공대 나왔는데 지금 아마 잘돼 있을 거야. 그런데 이놈을 찾을 수가 있나. 방배동에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었는데 딱 끊어지는 거야, 연락이. 그 형수하고도. 그래가지고 지금 가족들을

못 만나고 있는데. 그립긴 항상 그립지. 생각만 하면 그 양반 생각나고. 하하. 그리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 70년대에그 김종달이가 사장을 왔어. 투스타 출신.

이형진: 아, 신진자동차 시절에요? 그때는 낙하산이었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이 사장 와서 지휘봉을 들고 다녀. 소장 출신인데. 그런데 운전수가 딱 차에 타면 뽕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수를 지휘봉으로 머리를 때린대. 현장에서 들던 지휘봉을 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분했어. 엄청 분하더라고. 자기 운전수 때린 게 그렇게 분하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본사에를 갔어. 우리 간부를 데리고. 이제 그땐 노동조합에 차가 있었으니까. 자동차로 이제 갔다. 가가지고 지하주차장에 가서 너 내리라고, 사장 차가 어떤 거냐. 저거래.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그, 툭 받았지. 선생 차를. 그러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장실에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개. 나한테 뭐라곤 못 그러고, ... 나랑 술 먹읍시다. 좋죠. 그랬더니 그 간부들 중에서 술 잘 먹는 사람 하나 데리고 나와요. 난 우리 간부 데리고 갈게. 아이, 좋죠. 어디로요. 그러니까 송도휴양지로요. 그때 이제 송도해수욕장에 여름에 휴양지로.

이형진: 그때 회사에서 보내는 휴양지였어요.

이성균: 예. 그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김종달 사장하고 회사 간부하고 나하고 채동률이야, 우리 간부하고. 이렇게 마주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술 마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덩치가 좋아,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람이 먼저 쓰러지더라고. 이 양반이.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이제 차 태워서 보내고 나서 내가 쓰러진 거야. 쓰러져 갖고 3일을 못 나왔어. 그런데 이제 그 양반하고 그렇게 해 줬는데 재밌는 게.

이형진: 그래서 그 버릇은 없앴습니까? 머리 치는.

이성균: 모르겠어. 그 이후엔. 그런데 이제 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와서 서울본부장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 본부장이 역삼동이야. 그런데 조그만 빌딩에 1층서부터 6층까지 써. 한 층이 넓은 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 옮기자. 그래가지고 우리 관리부장 보러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다와서, 삼성동에 대전빌딩이라고 좋은 사무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왔는데, 그쪽이 김종달이야, 이름이. 딱 듣던 이름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 그전에 신진자동차 사장했었대요. 그래? 그 김종달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전빌딩 주인이야. 투스타 출신이니까 뭐. 그래서 날 만나더니, 야, 위원장이 자길 살려줬다고. 그때 IMF시절이거든. 그래갖고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실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뭐, 근로복지기관이 들어가 주니, 1층, 2층, 3층을 썼는데 우리가, 2층, 3층, 4층을. 그러니까 자기, 위원장이 자기를 살려줄 줄 몰랐다고. 또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

이형진: 이성균 선생님, 그 참,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이성균: 아이, 내가 날짜 이런 게 지금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형진: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60년대 말에 신진자동차에 입사하셔 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노동과 관계된 일들을 쭉 해 오시면서 그

러니까 한국에 노동자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요새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또 선진국들도 많이 가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균: 그렇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조직률을 높여야 되고, 조직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있는데, 그게 사실 목적은 하나 아니야.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노총 위원장 만났더니 아유, 선배님, 우리가 민주노총한테 조직률이 뒤졌었는데요. 요래 높여가지고 지금 앞섰어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직률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형진: 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균: 제 생각은 통합이 안 되더라도 연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동사회 연구소 있잖아요. 그, 문성연이가 지금 위원장, 위원장이라고 그러지? 위원장 하고 있단 말야.

이형진: 노동경제사회위원회.

이성균: 노동경제사회위원회인가? 예. 문성연이 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노총이 안 들어온다구. 한국노총은 들어오고. 그래서 내 생각은 민노총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 되는 요인이 뭐냐. 그런데 그, 민노총 위원장이 오래 하지를 않아. 그냥 위원장 되면 몇 년 하다가 날려가고.

이형진: 예, 3년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성균: 임기 채우는 사람이 몰라, 내가 듣기로는 여태까지 민노총 생기고 나서 한 명이라는 걸랑.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선, 3선 하고, 그리고 한국노총 손잡고. 노사 그런 거 최대한 활용하고. 이러면 우리 노동자들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쉽죠. 그 후배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단결의 힘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힘이고, 그게 근로 조건 향상이나 노동자들 생활에 도움 주는 길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약간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거, 제일, 요즘 그냥 고민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나 같은 경우, 65세, 여기서 정년,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임하고, 그리고 바로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갔단 말야. 그러니까 거기서 4년을 했으니까 65세까지는 거기서 채운 거야.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 시장이 노동조합 출신이야. 김윤주라는 사람인데, 경상북도 예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막노동 하던 친구거든. 옛날에 저기, 벽돌 짓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보면 … 에 가서 노동조합 하다가 이 경기중부지역 지부의 장을 했어. 그런데 그, 시장선거 때, 선거 때 얘가 군포시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나이가 그때 49살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복지진흥국장 할 때인데 내 방에 왔어. 그래서 시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공천. DJ 때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인상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 이런 일이 있다. 해보죠. 그런데 박인상 위원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후배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긍정적으로 대답해

요. 그리고 움직여.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야. 그 양반 스타일이. 해보자, 그래서 성남의 조성준 의원 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형님이 생각이 그러시면 한 번 해 보죠. 그러더니 조성준 의원하고 박인상 위원장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DJ한테 얘기해가지고 DJ 메모장을 받아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군포시장 공천을 받았어. 그래서 민주당 공천 받으니까. 그러니까 군포에서 기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뭐고 난리 났지. 그러니까 박인상 위원장이 당선은 내가 시키마.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뭐야, 국회의원, 한테. 당신이 참견 안 해도 된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시킨다. 당선.

이형진: 그때 국회의원이 김부겸이었나요?

이성균: 아니, 김부겸이 전이에요. 아유, 전라도 사람인데. 내가 얼굴이고 뭐고. 그렇게. 아유. 그래갖고 그 양반한테 그러고 나선 노총에 회의는 전국 회의는 군포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군포에 회의하러 올 때 봉투 가지고 오는 거래. 그냥 못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존 민주당 당원들은 안 움직이고. 그게 그 당사 옆에다가 노동조합에서 움직이는 방을 또 따로 뒀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산이 있으니까 그때서 당원들은 끼어드는 거야, 당직자들은. 그리고 당직자들은 돈 달라는 거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당선된 거지 그때. 당선되고 나서 초등학교 출신이, 시장 된 거야. 그런데 내리 두 번이 됐어. 두 번이 되고, 세 번째 낙선을 했어. 낙선한 게 그때도 쭉 앞서 가다가, 박근혜가 칼을 맞았어. 군포에 왔다가 신촌 쪽에 가서. 여기 칼 맞았잖아. 그리고 나니까 여론이 팍 바뀌네. 그래가지고 졌어. 그래 갖고 이제 낙선돼 가지고 그, 3년 있다가,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되고. 그러니까 그때 낙선되는 바람에 네 번을 했어, 시장.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만 뒀는데, 봤을 때 나이가 일흔다섯 되는구나. 그게 김윤주라고. 그때 초등학교 출신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배움이 있어, 뭐 있어. 그런데 정직, 하나. 아주 자기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란, 정직. 이제 그거 하나 …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음, 굉장히 잘했고 한 일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잘한 거는 책나라 군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그렇게 사고, 그 뭐 책 읽어갖고 소감 발표하고 그러는 거 갖고 또 신설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들 상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책 홍보해 주고. 어, 이렇게 책 나라 군포를 하는데 이게 마포의 박홍석이가 여기 와서 내려와 보고 나서는 자기도 한다고 그러고 마포하고 송파하고 막 번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모토였었는데, 그런데 김윤주 시장이 딱 바뀌고 나서,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 책나라 군포 다 없어져 버리고. 도서관에 책을 갖다가 트럭으로 내놓고 파네? 시지로 팔아, 시지로. 그래서 한세대학교 신태식 교수하고 그 책 나오는 날 가서 봤더니, 그 신교수 얘기는 정말 값진 책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세 박스를 가져온 적도 있는데, 그 시장 바뀌니까 또 그렇대?

이형진: 네, 요새도 여전히 그 군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균: 이제 군포 지역에서 하는 건 시니어노동조합 그거 하면서 뭐 이런 거고. 이제 제일 보람된 거는 중소상인들, 중소상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매출 지원해주는 거. 이제 그거가 아주 활발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월요일 날 아침 일곱 시는 모여. 모여 가지고 이제…

이형진: 그러니까 조찬모임을 하시는 거죠?

이성균: 조찬모임이지. 조찬모임인데, 모여서 하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누구 도움으로 얼마 매상 올렸다.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도움 줬다. 이거 발표하는 거걸랑. 이제 그거 발표하고 한 명씩 집중적으로 저기서 사업 홍보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 사업 홍보를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홍보요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보람된 일인데 이놈의 코로나가 그걸 막아버렸네. 코로나가 그걸 막아가지고 월요일 날 거기 임원들 모이자. 그래가지고 무슨 임원들 만나서 그걸 재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일 보람됐고.

이형진: 이 선생님, 평소에 취미활동은 뭘 하시나요?

이성균: 뭐 취미 별로..

이형진: 등산 같은 거는 여전히 하시나요?

이성균: 그냥 뭐, 요즘은 걷는 운동 이런 거고. 등산도 그, 수리산 이런 데 했는데. 나는 이게 이런, 나이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산에 올라가는 건 좀 힘겨워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걷는 운동. 이런 거 하고.

이형진: 선생님, 내년되면 이제 80 되실 거 같습니다.

이성균: 그렇죠. 지금 우리 나이로 정확하게, 난 내 나이를 잘 몰랐어.

이형진: 43년생이니까 내년에..

이성균: 에, 내 나이를 몰라 가지고 그저께 우리 손녀아이 보러, 야, 내가 니 말띠 되는 건 아는데, 내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러더니 이놈이 이걸로 막 뒤지더라고. 그러더니 일흔아홉이래.

이형진: 선생님, 그, 계속 건강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외의 기회에 7, 80년대 노조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성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

-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부의장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공동대표
- 우리신학연구소 편집장

일　　시 2021. 4. 29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이우재
대 담 자 장정옥

이형진: 자, 오늘은 2021년 4월 29일입니다. 강화에서 오셨거든요. 장정옥 선생님이십니다. 70년대의 인천에서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죠. 그, 인권운동. 그리고 천주교의 사회운동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장정옥 선생님을 모시고 어린 시절부터 인천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선생님, 반갑습니다.

장정옥: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정말 20년 만에 강화로 외출하신 것 같습니다.

장정옥: 네.

이형진: 이우재 선생님도 옆에 같이 계십니다. 예. 선생님, 1953년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천 도화동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장정옥: 도원동.

이형진: 아, 도원동.

장정옥: 도화동도 있고, 도원동도 있습니다.

이형진: 당시가 한국전쟁이 막 마무리되던 시점이었거든요. 아마 그때 아주 어릴 때는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전후의 인천에서 태어나시면서 보신 거,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신 게 아마 1961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정옥: 제가 그, 부모님은 황해도 연백에서 월남하셨고, 그니까 아버님께서.

이형진: 아, 전쟁통에 월남하셨어요?

장정옥: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말하자면 도시 빈민이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형진: 무슨 일 하셨습니까?

장정옥: 그래서 제 기억에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는 조선일보 지국 신문보급소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지금의 조선일보가 아니고 그나마 민족 뭐, 이렇게 정통, 이제 나라에서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이형진: 예,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죠.

장정옥: 나중에 우리가 그, 동아투위, 또 조선투위도 같이 할 정도로 언론이었으니까 그나마. 보급소 하시면서 상당히 그, 박정희에 대한 반감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제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일하시면서도 주변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가끔 그렇게 나라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반골적인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나가서 막걸리

하시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오히려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박문국민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사립학교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있는 집 자녀들이 갔는데 그때도 비슷하긴 했지만 가톨릭 학교니까 신부님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그, 지금 용어로 치면 사회적 배려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입학생이 60명이었는데, 이제 고아원에서 오는 친구들 한 일곱명 있었고. 저 같은 케이스도 한 서너명 있었던 것 같아요. 빈민아이들을 받아준거죠.

이형진: 한 학년이 그러니까 한 60명이었던 거죠. 한 반.

장정옥: 한 반이었는데, 이제 남자 여자 합쳐서 처음으로 남학생 받았죠. 그때 제가 이제 61년이었던 것 같은데 5. 16혁명이 그때 납니다. 그래서 반공은 국시에 제 일로 삼고, 이거 외우고 다녔어요, 그때. 1학년 때부터. 혁명 공약.

이형진: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장정옥: 어, 그게 기억이 나고. 이제 만석동 쪽에 부두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생선을 받아다가 이렇게 행상하면서 팔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걸어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어머님도 걸어 다니고 저도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인천에 특별히 뭐, 이렇게 중심이었던 곳은 동인천 신포동, 내동 요쪽이 명동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상권과 이제 이런 관권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다 빈민, 도시 빈민 그 주변 변두리 지역이죠.

이형진: 피난민들이 많았던 거죠?

장정옥: 그렇죠. 그러면서 선생님 아까 얘기하시던 부평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예 인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외곽이었으니. 그나마 주안 쪽이 변두리였어요. 이제 장화 신고 다니고. 용현동만 해도 장화를 신어야 다닐 수 있는, 땅이 질고 차편이 없으니.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것도 생각 못하고 걸어다니는데, 웬만하면 걸어다니는데 저는 그나마 그 중구, 그 주변에서 학교나 나중에 직장도 어떻게 다니게 돼서 덕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요런 공간이 고쪽에 여러군데 자리잡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들, 외국 매리놀 신부님들이 계셨거든요.

이형진: 혹시 장 선생님, 모태 신앙이셨나요?

장정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형진: 아, 그러면 천주교를 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장정옥: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과정은 옆에 저의 이모님이 사셨는데 이모님은 이제 당신 아이하고 같이 이제 저를 집어넣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게 아마 천주교, 그러니까 일선의 자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얘기를 해서 받아주라고 청을 넣었던 것 같은데 시험을 봤어. 입학시험.

이형진: 아, 초등학교 입학시험을?

장정옥: 예, 제 기억은 그림을 이렇게 맞춰내는 거야. 주전자에 꼭지를 그려 넣는다든지. 병아리 그림에 이렇게 다리를 그려 넣는다든지.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특이한 것.

이형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러면 성당도 다니신 건가요?

장정옥: 아니, 안 다녔어요.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호인수 신부님을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이형진: 상당히 후네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네,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카톨릭 주보 편집을 한 거예요.

이우재: 아니, 그러면 홍보국에 계실 때 신자 아니었어? 아이구야.

장정옥: 아니었어요, 예. 이건 호인수와 김병상의 파격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

이우재: 누이, 누이 그때 신자인 줄 알았는데.

장정옥: 신자인 줄 아는 건 초등학교를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박문국민에 그 6년 동안 성당에 가서 그, 전례를 계속하는 거예요, 같이. 그거는 이제 몸에 배어 있었죠. 신앙적인 분위기는.

이형진: 아,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장정옥: 그렇죠. 신부님 수녀님들과 생활하는 것은 익숙하였으나 세례를 받은 게 이제 이후가 되는 거죠. 훨씬 이후.

이우재: 어우, 야. 그 이야기는 처음 듣네.

이형진: 초등학교, 그 중고등학교까지 쭉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장정옥: 이제 초등학교는 제 기억에서 수녀님, 메리놀 수녀님, 메리놀 신부님 외국인들이었어. 한국인 신부가 인천 교구에 한 명도 없을 때야, 그때는. 60년 그때. 63년에 한국인 신부가 처음 인천 교구 신부로 사제 서품을 받고 답동 성당에 와서 보좌신부를 하면서 박문국민 교장 선생님을 합니다. 그게 강의선 신부님이라고. 강의선 실라리오. 연세 많으셨죠.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오셔서 이제 한국 사람도 있구나, 그걸 알았고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 신부님이셨는데, 멋있었어요. 하하하. 신부님들 멋있고 수녀님들은 이 베일이 너무 이제, 특이했어. 그 당시는 또 얼마나 옛날이야. 이게 큰 영화에 나오는 아그네스 같은 데서 쓰는, 큰 베일 쓰시고. 굉장히 넓은 수도복을 입으시고 그 치마폭 안에 들어가서 놀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술래잡기하고.

이형진: 아, 정말로?

장정옥: 네, 수녀님 치마폭에 숨고, 그런 게 감성적으로 따뜻하고 이제, 포근했던. 그 학교가 정말 그 마을, 동네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런 저도 혜택을 받았고 이제 뭐, 점심시간에 우유죽을 끓여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고아원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러나 이제 강제로 뭐 영세에 세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형진: 장 선생님은 혹시 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뭐 주눅 들거나 그런 분위기는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장정옥: 주눅 들지 않았던 것은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이뻐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고아원 친구들도 제가 또 잘 다독여서, 내가 이제 작고 이렇게 좀 왜소해 보이지만 어, 하여튼 애들이 나를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거 같이 많이 도와주고, 걔네들은 나한테 선물을 많이 줬어요. 연필 지우개, 이런 거. 미제, 미제 물건 왜, 그 신부님들한테 다 받아온 것들을 학교에 친구들 나눠 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조그만 학교에 조그만한 공동체지만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들도 다 아, 학교가 이런데구나, 굉장히 행복했고, 지금은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죠. 뭐 초등학교, 지금 사립 학교는 뭐 돈으로 해결하는 곳이고, 또 옛날 그 당시에 공립 학교는 막 2부제, 3부제 수업도 했거든요. 아이들이 많아서. 창녕 국민학교,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3부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특별하게 그런 혜택을 받았죠.

이형진: 학교 안에 고아원이 따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장정옥: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재단, 또 이제 고아원,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건물 안에. 그래서 성당, 이제 전례를 금요일마다 십자가 얘기를 하고 부활절 이런 행사를 하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자이든 아니든, 이제 뭐 교리를 외우고 배우고 이런. 내가 신자가 특별히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는 뭐 그냥 영성체를 안 하는 거 정도지, 같이 이렇게 차별 없이 그렇게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인천여중 인일여고를 갔는데.

이우재: 공부 잘하셨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장정옥: 그때 시험이었어요. 중학교도 시험이고, 고등학교도 시험이었어요.

이형진: 그렇죠.

장정옥: 그렇게 시험을 보고 갔으나, 그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 만난 인사 중에 김미순, 이제 지금 그 예명으로는 김하경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으로 옵니다. 그 서울사대를 나오고 바로 왔는데 이 선생님이 인천 여상 출신이에요. 그, 당신이 인천 여상에서 서울대를 갔을 때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제 학교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또 남동생이 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선생님이 자극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고3 때 인하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됩니다. 저희 때.

이형진: 예. 그 72년 정도 되는 해.

장정옥: 그, 인하대를 가면 4년제 전 학년 장학금을 주겠다, 거길 가라고. 이제 종합 대학이 되니까, 국문과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갈등을, 전 아직도 정보도 없고 집안에서 그런 걸 이렇게 판단해 줄 어른이 안 계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김미순 선생님이 서울대를 가라고, 그래야 나중에 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성적이 간당간당했어요. 서울대 갈 성적이.

이우재: 그 한 자리 숫자 성적이어야 할 텐데?

장정옥: 인일여고에서 여덟명, 다섯명, 이렇게 갈 때였거든요.

이우재: 그러니까 석차가 한 자리 숫자여야 되는데?

장정옥: 그렇죠. 그래서 인하대를 가면 그냥 걱정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서울대를 가라고 막 그, 마지막 순간에 원서를, 서울대 원서를 썼어요. 그때 제일 낮은 학과, 간호학과를 썼어요. 그런데 낙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회한이, 그게 후회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날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시험을 잘 못 치뤄 가지고. 이제 간호학과는 붙을 거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면 해결이 된다, 이제 뭐 고학을 해서 동생들 학비도 너가 대줄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되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이제 물거품이 됐죠. 그런데 이제 사립대학 2차 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 장학금을 받고 할까 시험이나 봐 보자 하고 시험을 봤으나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석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 성신여대를 제가 봤었는데, 대학은 이제 포기하고 좌절했죠.

이형진: 7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정옥: 72년.

이우재: 72년이지.

이형진: 72년, 예.

장정옥: 이제 학교는 갈 수 없게 됐고 집안은 어렵고, 취직을 할까? 그런데 학교에서 몇 군데 추천을 해 줬는데 좀 자유로운 곳이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인천시 교육회, 지금 말하면 교총 같은 단체죠. 교사들 전교조 생기기 전에. 거기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 편으로는 이제 좀 부러움도 있고, 다른 뭔가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이, 이렇게 월급 받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내 인생이 시작이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문예반 활동을 했거든요. 그 김미순 선생님이 노동문화제 하시는, 그 마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김하경.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인일여고에 있다가 서울로 전근을 가면서 신림여중에 갔는데 여교사 일기라는 칼럼을 계속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그 선생님 계속 만났어요, 저하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과, 자꾸 저한테 뭔가 의식을 주입을 하면서 책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 선생님이 고맙지만 좀, 아, 그 선생님은 날 인하대를 보내주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데 인하

대에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하대에 대한 정보는 제가 많이 있었어요. 전점석부터 제가 쭉 알아요. 전점석, 인하대 학보사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후배가 제가, 고등학교 후배인 친구가 또 그 선배하고 절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학교 일을 알고, 거기서 같이 일하던,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양홍영이니, 뭐 하종강 이런 친구들. 그 인하대 얘기는 이쪽으로 듣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이제 황선진을 만납니다.

이우재: 황선진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장정옥: 그게 이제 인재근이랑, 인재근이 저희 고등학교 같은 동기거든요. 재근이가 이대를 갔고 그 다음에 선진이 형 같은 동네예요. 그 동네 송월동. 거기 또 저의 친구 중에 송명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선진 형을 아니까 무슨 의미에서인지 나를 한 번 보자고 하더니 진다방에서 황선진을 소개를 해 줬어요. 진다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다방이 있습니다. 신포동에. 기억 안 나요? 진미, 그냥 사람 이름인데 그 신포동, 거기 유지에 다방에서 클래식을 주로 듣는 그런 다방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아지트처럼 학생들, 뭐 이렇게 예술 좀 한다는 그런 친구들, 뭐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는 그런 이제 아지트 같은 다방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황선진을 소개하면서 여기 이렇게 음악감상회 같은 것을 할 텐데 그냥 그 선배 한 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는 그때 72학번이, 1년 재수했어요, 그 선배가.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죠. 52년생이었을 거예요.

이형진: 예, 맞아요.

장정옥: 그 만나서 아리랑이나 듣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우재: 그런데 그게 75년 이전일 거 아니야.

장정옥: 그쵸. 72년이에요, 그게.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선배도, 탈춤반을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니까 뭐, 아직 다 순수할 때잖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나 학교 분위기는 이제 그때 이미 유신이 선포가 됐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변두리부터. 아리랑. 하하하.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이건 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여서, 이제 그러면 뭘 하면 되나 했더니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그때 이제 모였어요. 황선진, 해서 뭐 이렇게,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은 헤어진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황선진이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동인 활동을 했어요. 글쓰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분들은 만나는데, 매향 문학회, 표류, 이런 시동인이 있었어요. 시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그냥 문예반을 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누가 추천을 해서, 그때 막 고등학교 문예반 선생님이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동인 모임은 따로 하고, 또 음악 감상 모임은 또 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직장은, 직장이 그 동네였어요. 그 신포동에 지금 인천 중구청, 그 근처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진다방도 있고, 교육회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동인천역으로 출퇴근하는 또는 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또 거기로 다니니까. 전철에서 내리면 신포동에서 술 한 잔 하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저녁이면 늘 만나는 분위기.

이우재: 그 문예반 그렇게 만나고 그랬으면, 백영서.

장정옥: 백영서를 만났죠.

백영서도 그러면 그 무렵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장정옥: 엠네스티할 때 만났죠.

이형진: 아, 그 엠네스티할 때.

장정옥: 그렇게 제물포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우리 동기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얼굴은 알면서 그냥 아주 낭만적인 그런 뭐, 연애 비슷한 그런 감정도 서로 갖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나는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 집안 다 어렵고 동생들 고생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음악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면 황선진이 불쑥 한 마디씩 해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 가면 안 된다, 라든지. 자기가 뭐 책을 한 번 봤는데 뭐 한 번 같이 보라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겉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게, 유약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말투도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거칠게 하고. 그래서 그냥 관심은 좀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리고 각자 자기 분야의 일들을 할 때 제가 그 교육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할 만할 때 그 황선진을 잡으러 막 사람들이 다녀요. 수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오둘둘이었어요.

이우재: 75년도면 오둘둘이죠.

장정옥: 이제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준 문집이 그 집에 있다는 거야.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게 동인지에서 나오는 그, 작은 문집들을 정규적으로 냈거든요. 그거를 들고 와서 저한테 황선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러나 주변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니까 저한테 분명 왔을 거라는 거고, 뭐 제가 도와준 일이 없냐는 둥 이런 걸 물어보길래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였나? 역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동생을 한 번 만나고, 동생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뭘 도와줘야 되나, 뭐 그냥 책이라도 사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특별히 연관은 없었으나 심정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 황선진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형진: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장정옥: 그렇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상진 열사가 활복하고 그런 것도 저는 사실 몰랐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직접 내가 그 형사들한테 당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이형진: 혹시 끌려가서 이렇게 취조를 받았나요?

장정옥: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러나 이제 우회적으로 제가 압력을 받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형진: 아, 교육회를?

이우재: 교육회에서?

장정옥: 응. 그래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제가 동암, 부개동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비정규직 사서, 보조로 들어가요. 그래서 도서관 일을 하면서 도서관에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를 이제 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 가지고. 써서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칠판에 써 놓기도 하고. 주로 이제 책에서 나오는 이제 문장, 시 하나 이런 거를 이제 써 주면 보든 안 보든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저항이죠. 그래도 그날의 시 이런 것도 써 놓고. 처음엔 그 부서 사서 선생님이 무심히 지나다가 강도가 조금씩 세어지니까 그것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저를 추천해주는, 갈 곳을 마련해 주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형진: 모범, 모범생이었던 거죠?

장정옥: 제가 이제 아까운 거야. 서울대 갈 만한데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미안해하고. 그 학교에 다니면서 동암중학원이라는 검정고시 야학. 동암역 옆에 있었어요.

이형진: 동암중학원?

장정옥: 동암중학원.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는 곳인데 그곳에 저를 누가 또 소개를 해줬어요. 제 아는 후배가 이대 다니는 후배였는데 언니가 가서 해도 될 것 같다고 교사가 필요한데, 이제.

이형진: 아, 교사로 추천을 하셨군요?

이우재: 야학, 야학교사지.

장정옥: 제가 이제 어차피 부개동으로 출퇴근을 할 때니까 도서관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거기 야학에 가서 아이들 하고 생활을 해요. 그거는 검정고시 야학이라 경찰서에서 보호를 해 줘요. 그거 경찰서에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이들 집에 갈 때 에스코트도 해 주고 그러면서 검정고시 열심히 잘 보게. 그래서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봉사를 하였으나 그때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문집을 냅니다, 또. 그걸 모아 가지고.

이형진: 학생들이 많았나요? 한 반에?

장정옥: 한 거기는 2~30명 정도.

이형진: 지도하던 학생이 그니까 그 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이시고, 2~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도 하고.

장정옥: 그 아이들하고 뭐 운영하는 거는 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나중에 하는 야학, 노동 야학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이형진: 그런데 본인은 이제 선생 역할을 하신 거죠?

장정옥: 그렇죠. 제가 교사로 가서 국어 선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하다 못해 신동엽 시인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막 이랬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또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우재: 거기서 신동엽시를 가르치고. 하하하.

이형진: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장정옥: 그 나중에 문집이 문제가 돼서 증거가 남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리방을 긁어서 용지에다가 인쇄해서 이제 호치캐스를 써 가지고 돌이라는, 책 제목이 돌이에요. 동암이 돌이라는 뜻이니까. 돌이라는 졸업 문집을 내서 아이들 시, 아이들이 쓴 일기, 뭐 제도사가 쓰는 조언. 조금씩 노동 상식 이런 것도 넣고.

이형진: 뭐가 문제가 됐나요?

장정옥: 그런 거죠. 노동 상식, 시사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할 때 엄청난 역사는 아니지만 오늘의, 예를 들면 이제 지나간 오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우재: 아니, 근데 내가 좀 중간에.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신문에도 그런 얘기 일절 안 나오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런 거 공부는 어디서 한 거예요? 하여간 뭐 선진 형이 그렇게 돼 갖고 그러면서 관심 갖고 그랬다 하더래도 그거, 막 학교 같은 거 써클에서 지도한다 그러지만 누이는…

장정옥: 그게 또 제가 이제 김유정 선생님은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남편은 동아일보에 있었고 선생님은 학교에 있었으나 회의가 많았어요, 교사에 대한. 그래 가지고 교사들 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서울에서.

이형진: 70년대에.

장정옥: 그게 이제 전교조보다 훨씬 이전에 교사협의회라는 게 생기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이전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 이전 모임이 상황, 극단상황이라는 교사들이 만든 극단이 있었어요. 거기 이재우 선생님 거기 있었어요. 이재우 선생이 교사였어요.

이우재: 알아요, 알아. 교사인 줄 알아요.

장정옥: 그 옛날에. 그 멋진 교사였거든요. 지금 이재우가 아니야. 하하하. 그, 그런 모임에 제가 따라 다녔어요. 김미순 선생님을 통해서.

이우재: 아, 그러니까. 그럼 이해가 가네.

장정옥: 공연도 보러 가고. 몰래 하는 공연이 있고, 몰래 하는 세미나가 있고.

이우재: 이재우가 연출도 하고 그랬죠.

장정옥: 그렇죠. 그래서 그, 갔다 오면 제가 그걸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또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야학을 통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혼자였어요, 혼자.

애들한테, 어, 그 학생들한테 바로 바로 전달을 했네.

장정옥: 그렇죠. 그런데 그냥 수업할 때는 몰랐으나 이제 나중에 그 문집을 내고 졸업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그, 한 2년 넘게 제가 이제 그, 학원을 다니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 교사들도 저한테 이제 좀 눈치를 좀, 왜냐하면 이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이형진: 예, 경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장정옥: 그, 저한테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아, 내가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저도 이제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고 음,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다 하느님 뜻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만나지게 되는데. 그, 엠네스티 모임이 인천에 없었을 때, 그 저를 처음에 소개해 줬던 후배가, 이대 다니는 후배가, 신부님을 한 번 만나 봐야 되겠다고, 또 저한테.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는 거야. 이복희라는 친군데.

이형진: 그게 그러면 77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정옥: 그쵸. 어, 그 데리고 간 데가.

이우재: 77년? 76년이 아니라 77년, 그렇게 되는가? 76년일 것 같은데.

장정옥: 동아투위가 먼저죠.

이우재: 동아투위는 75년이죠?

장정옥: 75년인가 말, 응.

이형진: 그러니까 오둘둘 지나고 나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장정옥: 광고, 백지 광고가 막 나갈 때.

이우재: 아, 그건 74년이에요.

장정옥: 아, 그게 그러면 고 때 제가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신문사에서 잘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막 들어가서 조사받고 이럴 때 제가 그, 광고를 제 월급…

이우재: 그 남편 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장정옥: 응?

이형진: 김민선.

장정옥: 양한수. 지금은 그 동아투위에 남아 있지 않아요. 양한수.

이우재: 아, 이름 들어 봤던 것 같은데?

장정옥: 대우, 대우로 갔어요, 나중에는.

이형진: 그러니까 김미순 선생님의 남편.

장정옥: 문화일보로 갔다가 대우로 가서 이제 두 분이 또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그때 제가 백지 광고에 같이 간다고 월급을 타 가지고 봉투째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월급이 몇만 원 안 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동인 모임은 계속했어요. 이쪽에 시 쓰는 모임은. 그런데 이제 창비나 이런 걸 저는 계속 보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쪽은 또 (이형진: 또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어,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실천 문학 창비 나올 때 문학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순수하지가 않다, 이러면서 막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이쪽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그쪽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막, 또 불편해져요, 거기도. 그래서 내가 이제 갈 곳이 없는 것 같앴어요. 그 무렵에, 이제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게 최분도 신부님. 송현동 성당에.

이우재: 아, 그 유명한 최분도 신부님?

이형진: 그게 이제 시작이네요.

장정옥: 수문통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형진: 수문통 시장에?

장정옥: 이름이 수문통 시장이에요.

이우재: 아, 알죠, 수문통.

장정옥: 송현동 성당 바로 앞에 그.

이우재: 앞에 송현동 성당 있지, 그러니까.

장정옥: 그렇죠. 송현동 성당에.

이우재: 그 남민전 도와주고 했던 그 최분도 신부님.

장정옥: 그렇죠. 최분도 신부님. 최분도 신부님이 이제 처음, 이제 또 만났는데 그분도 메리놀 신부님이셨어요. 메리놀 신부님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신부님을 외국 신부님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고, 또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이형진: 아, 외국인인데 이제 성함이 한국식이셨네.

장정옥: 그렇죠. 이제 외국인인데 본명이 있었을 텐데, 한국말로 분도가 베네딕토. 베네딕토라는 세례명을 한국말로 분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호인수도 분도예요. 호인수도. 그러니까 최분도 신부님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이우재: 제대로 코스 밟았네. 하하.

장정옥: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렇게 한국의 상황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외국을 통해서 제3자가 품앗이하듯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또 천주교 쪽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그, 사람과 이, 그 운영을 엔씨씨 쪽에서 했어요. 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기독교 회환에 있는. 종로. 종로5가.

이형진: 예, 기사련.

이우재: 그땐 기사련 아니야.

이형진: 그래요?

이우재: 엔씨씨 및 정신, 그건 아니고.

장정옥: 기독교 사회 운동 협의회일 거야, 아마.

이우재: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엔씨씨는 사회운동협의회를 한참 80년대에 들어왔고.

장정옥: 나중이고? 아.

이우재: 엔씨씨 한국기독교, 그건 나중에 찾아 보면 되고.

장정옥: 그래, 아무튼. 케이엔씨씨. 종로5가.

이우재: 예, 케이엔씨씨. 종로5가에서 목요일마다 기도회하고.

장정옥: 맞아요, 거기. 목요기도회를 계속했어요. 거기에 윤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형진: 윤현?

장정옥: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분은 여자 사무국장 선생님이 이정우? 이정운가, 하여튼 그, 이우정인가? 이우정 교수님인가.

이형진: 아, 이우정.

장정옥: 이우정 교수님이 그때 아마 실무자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을 가서 뵌 적이 있고요. 거기에 그, 활동을 같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야학을 그만둘까,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 혼자는 어떻게 하겠냐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 사람 정도는 당신이 아는 분이 있대요. 그게 아마 백영서였던 것 같아요.

이우재: 백영서예요, 한상희예요?

장정옥: 한상희였나?

이우재: 한상희였겠지. 엔씨씨, 엠네스티 할 때는 한상희였겠지.

장정옥: 아, 한상희가 먼저죠. 그러면 한상희씨였나봐. 한상희 씨도 저랑 같은 동기예요. 나이가.

이우재: 그렇죠, 나이가 같죠.

장정옥: 한상희 씨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상희 씨가 자기 후배들이 쫙 있잖아. 그게 이제 줄줄이 이우재를 비롯해서. 또...

이우재: 저거, 저거 내 3년 선배야. 그리고 그 오둘둘 때 들어가서 고생하셨고.

장정옥: 아, 17회. 저기도 있었어요.

이우재: 김석원.

장정옥: 김석원 씨는 동기예요. 우리 반이에요. 16회야.

이우재: 아, 그러면 16회지. 17회에는 누가 있었나?

장정옥: 이상찬. 상찬이가 있었나?

이우재: 아, 맞다. 맞아요. 상찬 형.

장정옥: 그, 국사 편찬하는 친구. 이상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회가 쭉 있었어요. 정세일이나, 김세수.

이우재: 정세일, 세수 형. 맞다. 김세수.

장정옥: 정창용.

이우재: 정창용이.

장정옥: 그리고 용표, 도 있었어요. 이용표. 그 반이 그렇게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대는 진용이가 했어, 이진용이. 그렇게 하여튼 젊은 막, 그 빠릿빠릿한 학생들이 엠네스티 모임을 최분도 신부님을 만나고 한상희 씨를 만나고, 그러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그땐 운동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나? 뭔가 공부라도 같이 하자, 여기서 장소라도 좀 공간을 활용하자, 이러면서, 그래서 송현동 성당에서 매주 만납니다. 그게 이제 수문통 시장에서 최분도 신부님을 이제 배경으로.

이우재: 그때 호인수 신부님이 거기 보좌, 보좌 신부님.

장정옥: 아니, 아직 아니죠. 그거는 한참 후에. 79년.

이우재: 79년인가? 음.

이형진: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장정옥: 그렇죠. 제가 직장은 계속 다녔어요. 제가 하여튼 최소한 내 밥벌이는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요. 도서관에.

이우재: 송현동 성당, 송현동 성당 야학은 몇 년도예요?

장정옥: 성당 야학이 79년에 시작합니다. 준비를 78년에 하고요.

이형진: 그래서 이제 일단 최분도 신부님을 통해서…

장정옥: 최분도 신부님을 통해서 엠네스티 모임을 만드는데 만드는 것까지는 최분도 신부님이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직접 같이 활동을 하신 분은 황상근 신부님. 황상근 베드로 신부님. 나중에 지도 신부 하시면서.

이형진: 황상근 신부님은 외국인이 아니시잖아요.

장정옥: 아, 우리 교구에, 우리 교구에 초대 1세대가 김병상, 황상근인데, 연세는 김병상 신부님이 많지만 두 분이 거의 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같은 시기에. 둘이 서로 의지하고 김병상 신부님이 앞에 나서긴 했지만, 이 모사는 다 황상근 신부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황신부님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아주 설득력 있게 주변 신자들까지 아우르면서, 그 서울과 인천, 또 다른 개신교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엮어서 엠네스티뿐만 아니라, 그때 이미 노동 쪽 일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황상근 신부님이.

이형진: 엠네스티면 국제 사면 위원회인데, 그러면은 혹시 국제 사면 위원회 한국 지부에 인천 뭐, 지부 같은 그런 형태였나요?

장정옥: 예, 인천 지부 같은 그런 성격을 띄었으나 공식 출범을 한 거는 그것도 79년일 거예요. 준비 모임을 그때 이제 그렇게 세미나처럼.

이우재: 그거는 저기 책에 나오지, 우리 운동사 책에.

이형진: 예, 그 모임의 주로 내용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장정옥: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던 것 같구요. 그 만나는 게 뭐, 그 내용은 사실 차치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너무 끈끈했어요.

이형진: 좋았어요?

장정옥: 이 후배들 분위기가. 매일 뭐 술 먹고 그랬지만. 서로 너무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나는 좀 열외고, 내가 이제 여자이기도 하지만 또 내, 학교 분위기도 내가 모르고, 나는 또 직장도 있고, 집안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소외감을 느꼈지만 어쨌든 같이 그,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77년,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77학번 들어오고, 그 77이 그, 이선희까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우재: 77이 그러지. 지금 남인순이, 이선희, 그 다음. 최인숙이.

장정옥: 최인숙이. 그 친구들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 뭔가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남의 나라에 지원할 때가 아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야학을, 노동야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노동 야학을 하는 친구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야학 교사 모임도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신림동 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주변에, 봉천동.

이우재: 신림동에 그러면 겨레터 야학을 누님이.

장정옥: 신림 야학, 이 있었어요.

이우재: 77년도 그 무렵이면 우리 동기들이 어, 하던 건데.

장정옥: 김융희라고 혹시 알아요?

이우재: 김융희 알죠. 그게 겨레터 때문에 아는 거야, 그게.

장정옥: 그 융희가 매일 나를 만나러 왔었어요, 인천까지.

이우재: 아, 융희가 누님을 만나러. 고새끼 같은 인천 사람인데 나는 만나러 안 오고 누님은 만났네?

장정옥: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야학 운동을 했어요.

이우재: 그게 지금 겨레터 야학이야, 겨레터 야학. 신림동에 겨레터 야학.

장정옥: 근데 지금은 안 만나죠. 어. 신림동에. 그 친구가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이형진: 그래서 본격적으로 야학 운동, 야학 활동을?

장정옥: 야학을 이제 생각은 하였으나, 이 후배들하고 또 얘기하기가 겁이 나고, 또 장소나 뭐 이런 운영이나 이런 게 다 자신이 없었는데, 그 이제 그러면서 동암중학원을 계속 다니기는 했어요. 이제 문집 준비하면서 졸업 준비하면서, 그럴 때 김지하 문학의 밤을 합니다. 인천에서.

이우재: 그 엠네스티 주최로 한 거죠? 준비위원회인가?

장정옥: 엠네스티, 엠네스티 하고 지오쎄 하고 이제 교구 정평. (이형진: 78년.) 정의구현사재단. 이 세 주최가 모여서, 김지하 문학의 밤이 언제 생기냐 하면, 78년 2월. 78년 2월인 것 같아요. 79년인가?

이우재: 인천 민주화 운동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하면 될 거예요.

장정옥: 그런, 그분이 이제 헷갈리는데, 거기에 이제 지오쎄 하는 친구들도 오고,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준비는 이제 엠네스티 팀에서 많이 맡았어요. 진행이나 동원이나 뭐 홍보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이우재: 79년이다, 79년.

장정옥: 79년 2월. 그 친구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들끼리 뭐, 그런 집회 준비도 하고 싱어롱 준비도 하고, 뭐 수련회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엠네스티를 뭔가 좀 활성화하려고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런 학교는 학교대로 뭔가 분위기가 돌아갈 때라서, 그럼 우리는 야학 쪽으로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살짝 엠네스티 하고 거리를 둘 때였어요, 제가.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김지하 문학의 밤을 2월에 하면서 호인수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이형진: 김지하 문학의 밤에는 김지하 선생이 오셨나요?

장정옥: 아니, 징역 들어가 있을 때.

이우재: 그때는 다 서대문에 있었을 때인데.

장정옥: 김지하 석방 운동에, 김지하 석방을 위한 문학의 밤을 한 거죠.

이우재: 나는 그때 김지하 선생하고 통방하고 그랬어.

이형진: 죄송합니다.

장정옥: 이우재는 그때 징역 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형진: 벌써?

장정옥: 그래서 어, 그걸 핑계로 우리가 이제 그 문학의 밤을 한다고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시낭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카톨릭 회관에서 봤는데 그 분위기가, 제가 황선진을 만날 때 분위기와 비슷했어요. 이제 호인수가. 신부라는데 고구마 장수처럼 시꺼먼 군복, 그 염색한 잠바 입고 나와 가지구 얼굴도 시꺼멓고. 그런데 기가 맑고 뭔가 이렇게 좀 끌림이 있었어요. 그 신부님이. 그래서 시낭송 준비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자, 이제 그 행사 끝나고, 그제야 송림동를 찾아가면, 그때 송림동 성당에 온 거야, 그 신부님이. 79년인가 봐, 맞다. 79년.

이우재: 그래, 맞아. 79년.

장정옥: 그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이우재: 송현동 성당 아니야?

장정옥: 송림동.

이우재: 송림동인가? 난 송림동 성당이랑 헷갈려 가지고.

장정옥: 송현동은 최분도. 송림동은 이제 호인수.

이우재: 그때 보좌신부였겠죠. 예.

장정옥: 보좌. 응. 이제 강근희 신부님이 계셨고 그 다음해에 조성교 신부님이 오셨죠. 그래서 호인수 신부님이 저, 아마 피차 비슷하게 통했겠죠? 그러니까 신부님도 저를 좀 인상을 갖고 다시 보자 이래서, 볼 때 제가 동암중학원에서 만든 문집을 갖다 드렸어요. 그 신부님이 그걸 보더니 굉장히 놀란 거야. 어떻게 이런 거를 혼자 할 수 있냐. 이제 말하자면 조그만 문집인데, 이게 한 사람이 이걸 다 했으니까, 쓰고 편집하고 뭐 하여튼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쓴 글, 이런 게.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를 이제 그만둬야 되고 내가 이제 야학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공간이 없다. 근데 이제 어디서 할 거냐. 이 동네가 적당하다, 동네도 저 허술하고, 공단 주변 주안 공단을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공단도 좀 가까운 편이고 요쪽 만석동도 있고 이제 중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야학을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 호인수가. 내가 여기 와서 뭘 할까, 보좌로 와 가지고.

이형진: 의기투합이 되셨네요.

장정옥: 응,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됐어요. 어, 그러면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뻥쳤죠. 이제 후배들 데리고 가 가지고 우리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매일 이제 장소를 거기로 옮긴 거죠. 그 다음날부터 송림동으로. 송현동에서 송림동으로.

이우재: 그때 거기 들락날락거린 게 김명종이, 유재옥이 걔들이지?

장정옥: 그렇죠.

이형진: 명종이 형 그때부터예요?

장정옥: 김명종은 이제 교사로 결합을 하고요. 이제 유재옥은 학생으로. 이제 저희 동생 친구. 제 동생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자동차 정비.

이형진: 장 선생님은 그때 26살입니다.

장정옥: 그거밖에 안 됐어요? 나이 되게 많아. 하하하.

이형진: 네, 아직 팔팔할 때였거든요. 되게 젊었네요.

장정옥: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일을 동인 모임도 그냥 하고 예술촌도 그냥 들락날락하고. 예술촌 얘기 아직 안 했나?

이형진: 아직 안 했습니다.

장정옥: 예술촌이 그 진다방에 드나들던 그, 음악 감상하고 이러던 그, 학생들. 인하대 학생도 있고 서울대 학생도 있고 주로 제물포 고등학교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껄렁껄렁하지만 사회 반감도 약간 있으면서 직접 운동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음악 감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 그러면서 거기서 야학 교사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진다방 갖고는 안 되잖아, 매일 찻값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신포동 거기 2층 허름한 방을 하나 얻어서 공간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 , 그냥 주인 없는 카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커피 마시고 와서 놀다 가고 수다 떨고 막 이런, 그런 모임의 이름, 집 이름이 예술촌이었어. 거기는 아무나 올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이우재: 난 그 얘기는 처음 듣네.

장정옥: 도망 다니고 막 이럴 때 연락처로도 쓰고. 그런데 주로 상주하는 건 인하대 건축과 다니던 윤… 윤씬데. 아, 그 친구 이름이. 우리 같은 반 동긴데. 그 친구가 전점석, 양홍영 이런 친구들 하고 같이 이제 거기 옵니다. 예술촌이 그나마 조그만 아지트가 또 돼요. 진다방에서 예술촌으로. 거기도 계속 드나들고 저도,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동인 모임은 또 따로 해요. 그쪽은 옛날부터 있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우재: 아니, 그러니까 몸 하나 갖고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했어?

장정옥: 그러니까 제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9년에.

이우재: 조금만 쉬었다 하자. 한 50분 했겠다.

장정옥: 아. 그래요? 네,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형진: 이제 그 79년. 그 예술촌까지. 야학 시작 직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형진: 예. 78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정옥: 음, 78년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기억 중에 그...

이형진: 호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학을 시작하기로 한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엠네스티 동료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신 경험.

장정옥: 수련회를 그 우리 성공회대학, 지금 현재도 있죠. 그곳에서 전국 수련회였지만 이제 주로 전북 쪽이 강했어요. 전주.

이형진: 그러면 엠네스티 회원들이었던 건가요?

장정옥: 그렇죠. 회원들 대상으로 했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던 소모임들이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 제가 그, 한상열 목사님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이형진: 몇 분 정도 모이셨나요?

장정옥: 꽤 많이 왔어요. 그 수련회를.

이형진: 수백 명?

장정옥: 어, 예. 한 이삼백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숙식을 같이 했는데, 막 이렇게 칼잠을 바닥에 누워서 자면서도 남녀 막 구분 없이 막 이렇게 강당 바닥에서 자고, 이러면서 수련회를 했는데 강사들이 굉장히, 뭐 백낙청 선생님, 임헌영 선생님, 이런 분들 오셨던 것 같고. 이영희 교수님도 오셨던 것 같고. 첫 수련회였으나 그게 마지막이었고, 거기서 이제 참여했던 우리 그 동료들이, 동지들이 아, 뭔가 정말 이제는 할 수 있다, 해야겠다, 이런 결의들을 해냈어요. 백영서도 그때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그 김지하 문학의 밤, 그걸 우리가 준비해서 같이 하자, 이래서 같이 하면서 이제 야학을 우리가 준비할 때 내가 이제 호인수 신부님한테 우리가 여기 준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팀이 여기 말고 부평 쪽에, 그 본관을 얻으러 다니는데 마땅한 곳이 없다. 소개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갈산동 성당에 노경삼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이형진: 노경삼?

장정옥: 예, 노경삼 베드로. 한국인 신부님인데, 거기도 아마 수도회였을 거예요, 그 성당이. 그곳에서 야학을 또 시작을 합니다. 거의 동시에. 그게 이제 남인순, 서주원 팀이 거기서 시작을 하고. 우리는 이쪽 송림동 성당에서 서해 야학이라고.

이형진: 서해 야학.

장정옥: 서해 야학. 5월 달에.

이우재: 갈산동 있는데도 한길 야학인가?

장정옥: 그게, 아니 그건 전혀 다른 거야. 한길 야학은 검정고시 야학이고. 갈산동은 우리처럼 노동 야학인데, 남인순, 최인숙, 걔네들이 준비를 하다가 최인숙이가 중간에 다운이 돼. 그런데 얘가 그 뒤로 행방불명이야. 아직도. 최인숙이가.

이우재: 왜, 인사연 때 여성부장 했었지.

장정옥: 그 뒤로 없어졌어.

이우재: 그 뒤로는 나도 연락이 안 돼요.

장정옥: 어, 그래서 최인숙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 친구. 최인숙. 남인순은 사실은 저희 후배이지만 그때까지도 그렇게 뭐 여성 운동 쪽, 이런 쪽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서주원 뭐, 같이 만나면서 결혼하고, 어쨌든 갈산동 쪽에 부평 공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야학을 시작하고 저희는 송림동에서 주안 쪽, 그리고 이제 저희 후배들, 정비, 자동차 정비하는 친구들, 같이 야학을 하면서 주로 노동 쪽 하고, 이제 사회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글 쓰는 모임도 갖고, 그렇게 이제 병행을 하죠. 호인수 신부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형진: 성당을, 공간을 빌려서.

장정옥: 하고, 이제 운영하는 데 소소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성당에서. 하다 못해 프린트하고 인쇄하고 간식, 간식이라고 따로 먹을 시간은 없지만 끝나고 뒤풀이할 때 신부님 오셔서 같이 뭐, 술값 내 주고 아니면 돈만 주고 가시고, 뭐 이런 게 이제 주로였지. 그렇게 이제 야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졌죠.

이형진: 야학은 어떤 내용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장정옥: 주로 이제 시간을, 하루에 두 시간씩 과목을 배치해서 일주일에 4일, 5일을 했는데.

이형진: 그러면 매일 저녁에 학생들이 왔다는 거네요?

장정옥: 매일 오죠. 학생들이. 퇴근하고 와야 되니까 일곱시부터 혹은 이제 여덟시부터 두 시간. 그게 이제 국어, 역사, 경제, 정치, 노동, 한문. 이렇게 6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교사가 최소한 6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명종이가 노동 쪽을 해 주고. 그 교사로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국어.

이형진: 장 선생님은 국어 하셨고요?

장정옥: 제가 국어 했고. 그러면 이제 영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다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구요. 영어는 ... , 영어는 안 쓴다, 안 할 테다,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뭐 검정고시가 아니니까, 오히려 정치나 경제 이쪽을 관심을 갖고, 그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김윤이라는 친구가 역사를 하고.

이우재: 김윤이가 역사 했어요?

이형진: 김윤.

장정옥: 선희, 선희가 그때 아마 정치나 사회 쪽 과목을 했던 것 같애. 그렇게 하여튼 각자 열심히 와서 도와주고. 나중엔 나준식이도 들어오고.

이우재: 니가 알고 있는 그 김윤 아니야.

이형진: 예, 그렇죠.

장정옥: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 그러니까 교사 학생을 제가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 줬냐면, 이제 엠네스티 같이 하면서 또 다른 통학생 팀이라는,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 주로 서울대 학생들이 많았지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에서 언더 세미나를 진행을 했어요.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거죠. 인문학 같은 거. 홍덕률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때. 20회. 1년 후배.

이형진: 지금 대구대학교 총장?

장정옥: 대구, 그렇죠. 총장. 홍덕률, 고남석. 그렇게 둘이 같은 동긴데,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을 지도를 했어. 후배들을. 그래서 거기서 후배들이 야학이 결합하도록 도와주고 따로 또 지하,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인천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인하대나 뭐 이런 데 들어가고 그러면서, 직접 야학을 하지는 않았어요. 고남석과 홍덕률은 교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후배들을 소개해주고. 엠네스티 모임은 제가 열심히 못했어요. 그 뒤로, 야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급한데 자꾸 엠네스티는 자꾸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울로 가야 하고. 그래서 황신부님이 이제 인천의 담당 신부님이셨는데, 황신부님한테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이형진: 동인지 모임은 그때도 하셨나요?

장정옥: 동인지는 오랫동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창비에 이제 뭐 이렇게 시를 써서 등단 비슷하게 글을 한 번 냈어요. 그래서 세 번인가 내야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시인이면 시인, 이렇게 타이틀을 주는 건데 그거를 한 번 하고 나서 굉장히 갈등을 갖고, 격렬하게 붙어요. 이제 이쪽 다른 선배들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배신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창비에 참여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쪽은 안 하고. 그거는 김미순 선생님 통해서 글을 내고 이랬었는데. 글을 이쪽에 쓰진 않고 여기는 모임은 계속하죠. 하다가 어떤 계기로 여기 있던 다른 선배 하나가 저를 좀 귀찮게 했어요. 막 저를 좋아하고 이래서 저기를 끊게. 그건 나중에. 그런데 이쪽을

끊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79년에 그 야학 시작하면서 79년에 이제 79학번 대학에 들어간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 막냇동생 친구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해 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공장으로 가겠다고 이러던 친구거든요. 그 막 맨날 소주 한 병을 들고 집 앞에 와서 기다리면서 소주를 마시고 이러던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을 안 가겠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저한테 뭐, 같이 뭐 일하자 그러고 자기도 야학하면 안 되냐 그러고. 대학을 가야 된다고 무조건. 원서를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인하대 마감하는 날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 남은 원서 그거 갖다가 제일 낮은 지원자가 적은 데, 인하대 사학과인가 거기다 이제 원서를 넣고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그게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학에 같이 와요. 이 친구가 우리 남편이에요 지금. 저보다 7년이 이제 차이가 나요. 이 친구가 많이 도와주긴 해요. 79년 야학 할 때. 잔심부름은 다 시켰으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 사이에서 자기는 이제 인하대고 공부도 정말 안 하고 대학을 그냥 얼렁뚱땅 갔으니까, 세미나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선배들을 어쨌든 서울대 나온, 그 선배들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결이 다르다. 야학 교사이지만 교사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같이 굴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서 학생 이제 인하대 학생, 그쪽에 좀 같이 후배들하고 팀을 꾸려서 징역을 가죠.

이형진: 그 시점에 한 번 그 전체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8년, 79년이 되면서 이제 전국은 사실 유신 말기였고 박정희, 김재규 이후에 폭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인천만 하더라도 77년 이후에는 동일방직 투쟁이, 그러니까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수시로, 신문에 실리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장 선생님은 야학 같은 걸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그 교류가 있었을 법한데 어땠습니까?

장정옥: 제가 여성 쪽은 사실 관심은 못 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미영 씨나 남인순 님, 이렇게 따로 여성 단체 쪽으로. 그때도 저는 여성운동을 따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같은 인권운동으로 같이 인간이 평등화되는 거지 여성이 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우재: 아니, 동일 방직 노동자들.

이형진: 예, 그, 노동자들.

장정옥: 동일 쪽은 제가 나중에 제가 아는 후배가 동일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는 하였으나 이총각 선배나 뭐 이렇게 동일 방직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조화순 목사님 먼데서 보고. 김병상 신부님 이렇게 답동에서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하는 정도지 결합해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이형진: 그러면 또 그 김병상 신부님께서 중반 이후에 인천에서 박정희에 대한 반대 투쟁을 거세게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고 천주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텐데.

장정옥: 있었죠. 정의 구현 사제단이 등장을 하고 그 활동을 김병상 신부님, 황상근 신부님 일세대가 열심히 하시는데, 그 활동이라는 게 뭐 신자들에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이제 사람들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셔요. 동일방직을 돕는다든지.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한다든지, 뭐 구속자를 뭐, 면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수배자를 숨겨준다든지, 그런 거. 그때만 해도 이제 신부님을 찾아온 사람을 직접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만나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호인수 신부님하고 결합하면서 제가 사람을 보죠. 보고 이렇게 직접 이 신부님, 저 신부님 이렇게 이제

제가 연결을 해 주게 돼요. 그게 이제 79년에 제가 이제 엠네스티를 하면서 직장을 엠네스티에 가기 편한 출판사 쪽으로 옮깁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79년 초인데.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돼요. 동암.

이형진: 아, 직장생활은 이제 그만두고? 도서관은 그만두고?

장정옥: 도서관을 그만두고. 부평도서관을 그만두고 서울로 옮기면서 엠네스티 일도 하였으나, 그 일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호인수 신부님을 만나서 내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야학도 해야 돼요. 내가 퇴근하고 와서 야학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럴 때 신부님이 79년 말, 10월 말에 인천 주보를 만들어야겠다. 그 일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또 결정적으로 이제 신부님들 관계를 넓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인천 주보가 그때 이제 나오죠.

이형진: 주보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가요?

장정옥: 주보라는 형식에 이 쪽지가 신자들에게 나눠진 거는 이렇게 한 장 짜리 요만한, 이제 뭐 16절지, 32절지 이런 게 있기는 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주보라고 하기보다 그냥 알림장, 비슷하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나눠 주는 정도였으나 그거를 어쨌든 그래도 읽을만한 내용을 가지고 소식지처럼이라도.

이형진: 전문 형태의 타블로이드 같은 거였죠?

장정옥: 어,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게 79년 그때죠. 그거를 호 신부님이 제안을 하셨고 김병상 신부님이 총대리셨어요. 교구의 말하자면 사무를 전체를 관장하는 거죠. 주교님은 따로 나주교님 계셨지만. 김병상 신부님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이 오케이 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호인수 신부님이 제안을 하였는데, 그 담당 신부님이 김요한 신부님이라고 답동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인데 호인수 동기, 같은 반.

이우재: 홍보국장 하지 않으셨어요?

장정옥: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호인수가 저를 추천해서 김요한한테 보내서, 김요한은 호인수가 보냈으니까 저를 쓰는 거고, 김병상은 호인수가 보냈으니까 오케이 한 거고. 그런데 그게 제가 신자가 아니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대답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이우재: 그래서 나는 누이 신자인 줄 알았었는데.

장정옥: 그러니까 완전히 파격이죠. 이걸 알았더라면 누구도 오케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자 아닌 사람이 와서 편집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간 거예요. 신부님이 너 이거 가서 해라. 서울로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야학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김병상 신부님도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고 김요한 신부님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주보만 나오면 되는데, 글 잘 쓰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편집을 이제 그 문집 내고 이렇게 하면서 편집을 여러 번 해 왔고

그거를 신부님이 보셨으니까 그냥 믿을만하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형진: 그러면 서울에 이제 출퇴근을 그만두고.

장정옥: 그렇죠.

이형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장정옥: 주보, 주보를, 그렇죠. 교구 직원이 된 건데 교구청이 정식 체계가 잡히기 직전이라 정식으로 제가 월급을 7만원인가 받았어요. 그때.

이형진: 인천 교구에 홍보담당자 같은 거네요?

장정옥: 그렇죠. 그 다음 80년인가 81년에서야 교구청에 체계가 잡혀요. 사무국, 홍보국 이렇게. 처음엔 사무국만 있었어. 사무국 산하에 주보 편집실이 있었던 거고 제가 편집담당잔데. 월급도 받고 사무실도 따로 있고 저 혼자 쓰는 공간이니까 제 맘대로 쓰고, 책살 수 있고, 뭐 이런 자유가 있었죠. 자유롭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누구나 오는 거죠. 그 방에. 그러니까 학생도 오고, 구속자도 오고. 뭐 이렇게 구가협 생기기 이전에 구속자 가족들 만나고, 뭐 이렇게 노동 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나서 김병상 신부님한테 가라, 호인수한테 가라, 뭐 이렇게 소개, 신부님 얘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그렇게 알음알음 만나서.

이형진: 천주교계 내에서 인권위 활동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정옥: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단체가 생기기 전에 그걸 또 대놓고는 해라 못하는 그런 일들을 신부님들이 이제 한 거죠. 신부님 얘를 어떻게 알았냐? 그건 이제 비밀이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후에 강희철이가 이제 대학생회장이 된 그런 과정이죠.

이형진: 80년이 이제 됐거든요. 어, 광주 5월 항쟁.

장정옥: 10. 26이있고.

이형진: 예, 10. 26, 그리고 이제 5월 항쟁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인천에서 본인은 무엇을.

장정옥: 80년 5월에 굉장히 엄혹한 광주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제 상황은 진행된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학에 가서 이 프린트를 해 가지고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이게 어디서 났냐, 김병상 신부님 사무실에 가면 유리판이 이렇게 있어요. 사무실 밑에. 유리판 파란 그, 스펀지 같은 거 깔아 놓잖아요. 고 밑에 이제 유인물이 이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마다 가서 청소를 해 주는 척하면서 그걸 떼죠. 그걸 이제 갖다가 후배들한테 주면 얘네들이 또 학교에 가서 이걸, 드디어 나 중에 서울 농대 다니는 후배가 이제, 이걸 하고 뿌리다가 이제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7월달에, 80년 7월에 아주 무지한 더운날 야학 끝나고 나오는데 송림동 성당 조그만 철문, 그

정문 앞에 까만 세단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그 자리에서 이제 낚아간 거죠.

이우재: 서울 농대 다니던 후배는 누구예요?

장정옥: 그게 그, 아, 이수, 하여튼 그, 수현인가 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게 신동택이 친구야.

이우재: 아, 신동택이?

장정옥: 숭전대 다니던 친구의 또 친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신동택이가 숭전대였는데, 이 친구가 그 자기 친구한테 유인물을 또 전해 준 거야. 그러니까 신동택은 이게 어디서 났냐, 그게 야학에서 내가 노트에 있던 거를 자기가 베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고, 이 유인물을 가져가서 또 돌리고 돌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우재: 이수하?

장정옥: 응? 수하? 이수하는 인하대 아닌가? 걔 말고. 또 있어, 농대 다니는 친구가. 걔는 실형을 살았어.

이우재: 인천에서 광주로 실형 산 애가 난 우리 팀하고, 저기 이수하네 팀 두 팀으로 아는데 또 하나가 있었어?

장정옥: 그러니까 인천 애가 아니지. 수원이니까.

이우재: 아, 수원?

장정옥: 수원, 농대가 수원에 있었어요, 옛날에.

이형진: 광주 소식을 그렇게 알렸는데, 7월달에…

장정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유인물 하고 현장에서 뿌리고 잡혔으니까 각오하고 갔고, 이제 얘를 취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났냐 하니까 자기 친구 신동택한테 받았다, 신동택은 어디서 났냐, 이게 선배 장정옥한테 받았다가 이제 나온 거야.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거는 갔어,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수원경찰서를 갔어요, … 열두시에.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간 거지. 그 뭐, 막 쓰고 맨날 아침마다 불려가 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하잖아, 똑같이. 뭐 그렇게 심하게 뭐 압박을 하진 않았으나, 그러니까 뭐 맞고 그러진 않았으나 유치장에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집을 뒤진 거야, 자취방을. 그런데 또 우리 아까 얘기한 이우청이라는 우리 남편, 걔는 이제 야학에 같이 있었고, 현장에 내가 끌려가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가자마자 우리 방을 뒤져 가지고 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이 짐을 뒤져서 이거를 제일 만만한 친구네 집에다 맡겼어요. 그 만만한 친구, 얘는 절대 운동하고 상관없는 친군데, 내가 막 이렇게 쓰다가 제일 만만한 애를 쓴 거야, 여기다가. 그랬더니 얘를 찾아간 거야.

이우재: 우연, 우연의 일치로?

장정옥: 그래 갖고 얘네 집에 있던 게 다 나왔는데. 다른 건 괜찮아, 책이고 뭐고 괜찮은데, 광주 테이프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녹음테이프, 광주에서. 분도출판사에서 찍어 가지고 신부님들이 돌린 거. 이거는 이제 걸리면 완전히 이제 다 가는 거잖아. 신부님들도 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압수해 갖고 왔는데 목록에 적어놓고 하잖아. 그런데 이제 형사가 테이블에 이렇게 쌓아 놓고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마침 우리 고대 다니는 후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면회를 왔어요.

이형진: 유치장에 있을 때?

장정옥: 응, 유치장에. 내가 걔한테 내일 면회를 다시 와 주는데, 팬티에다가 테이프를 하나 사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이미자 테이프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았어요. 그때 좀 느슨했어, 유치장이, 아니 그니까 경찰서.

이우재: 유치장이 아니라 보호실이지. 보호실. 유치장 같으면 그렇게 안 되고, 보호실이지.

이형진: 그러면 이제 조사실에 갔을 때…

장정옥: 유치장에서는 잠만 자고 조서는 정보과 그 책상에서 조서 쓰고 이랬거든. 혼자 이렇게 거기 앉혀놓고. 그러면 자기 막 타자 치고 막 쌓여 있고 이런데 그중에 이게 이렇게 있더라고.

이형진: 그 테이프?

장정옥: 그걸 바꿔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유치장 화장실, 이렇게 똥통이에요, 정말. 이렇게 칸만 쫙 있고 밑에는 그냥 한강물처럼 똥이 막 있는데, 그 칠월은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땀이 얼마나 가만히 있어도나는데 쭈구리고 앉아 가지고 똥 누는 자세로, 그 테이프를 막 풀어. 앉아서.

이형진: 그냥 안 버리고?

장정옥: 그냥 안 버리고. 응, 그냥 버리면 걸릴 것 같아, 왠지. 다 풀어가지고 이빨로 끊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긴지, 그 시간이. 그걸 똥물에 버렸어요. 이렇게 팬티까지 벗어 가지고. 그게 이제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거야. 하느님이 나를 도우셨다. 신부님을 구했다. 이렇게. 김병상 신부님.

이우재: 김병상 신부님 그거 갖고 안 들어가.

장정옥: 그, 아니,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그 테이프를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유인물 써 주고 베끼고 이거는, 그냥 나는 기소유예인가 이걸로 그냥 이 주만 에 나오고. 그 친구들은 다 실형을 살았어요. 이제 전해 주고, 전해 주고. 미안한데, 그게 광주에 대한 나의 기억이고. 그 뒤로 광주 이후에 야학이 이제 좀 힘들어졌죠. 이제 내가 이제 강의도 잘 못하고, 그때 이제 그 야학 그 후배 중에 이현옥이라는 인하대 남편이랑 같은 동기. 인하대 팀들이 좀 같이 결합을 해요. 제가 빠지고 이우청이랑 이현옥이랑.

이우재: 이현옥이가 그때 송림동 야학에 있었어요?

장정옥: 어, 이우청이랑 같은 써클이었어. 황홍규, 이런 친구들. 김성진이도 거기 있었고. 김성진, 뭐, 그 또래들이야. 그 동기들이 야학을 이어가다가 그 이제 80년 상황은 계속 엄중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분위기는 막 끓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80년은 저한테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형진: 주보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 교계 내에서 자리를 잡으시네요?

장정옥: 그렇죠. 그래서 주보 일을 이제 하게 되죠. 더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이제 일은 커지고, 이쪽 일은 제가 소홀해지고 하니까. 그 주보는 상황은 이제 그,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신부님들 하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선배들이 내려와요. 김병상 신부님 통해서 뭔가 서울에서 뭔가 이뤄지는 일들을 문국주, 아시죠. 문국주라든지, 뭐 이명준 씨가 내려오고 김근태 선배도 인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연결이 되고. 그 이제 서울의 소식과 인천에서 신부님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주보에라도 뭔가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금하고 빛, 빛과 소금이라는 칼럼을, 칸을 이제 익명으로 쓰는데 소금은 이제 사회 문제를 주로 썼고, 빛은 이제 교회 문제를 썼어요. 둘 다 이제 아프죠, 어떻게 써도. 그러니까 이제 소금 쪽은 이제 이쪽 김근태부터 이명준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써요. 그리고 빛은 신부들도 쓰고 저도 쓰고, 교회 이야기를 많이 이제 썼는데. 계속 소금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백지도 되고. 계엄이 선포가 됐잖아요. 10. 26 이후에. 그러니까 광주 10. 26 이후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광주 때도 계엄이고, 그러면서 아, 인쇄를 서울 가서 합니다. 주보를. 그 당시에.

이형진: 예, 그런데 주보도 통제를 하나요?

장정옥: 그렇죠.

이형진: 주보를 검열했다는 건가요?

장정옥: 매주 검열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이 경기도 소속이었어요.

이형진: 그러면 경기도경에서?

장정옥: 경기도청에서 해요. 그러니까 수원에 가서 검열을 하고 그걸 받아서 인쇄를 해야 돼요. 수원 갔다가 서울 갔다가 그걸 인쇄를 해서 돌려야 되니까 엄청 일이 많아지는 거야. 매주. 그 원고는 원고대로 받아야 되고.

이형진: 검열은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고 수원경찰서에서 미리 검열을 했다는 거죠?

장정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는 와서 미리 봅니다. 아니면은 출판사에,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타협이 된 거죠. 그냥 출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인쇄소에서 검열하고 그 자리에서 삭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쇄소를 이렇게 서울로, 을지로로 다니다가 나중에 인쇄소를 하나 차려요. 박영태 그분은 내가 기억을 해 주고 싶어. 박영태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노동자였다가 민정문화사라고 이 주보만을 위해서 자기 출판사를 인천에 차려가지고 주보를 찍는다는 죄로.

이형진: 그 재물포에 있던 민정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복사집?

장정옥: 아주 쪼끄만 모찌꾸미같이 시작을 했으나 이제 운동권의 모든 유인물을 다 하게 되죠. 그분은 전라도 군산인데 고생도 많이 하고 별로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그 어려울 때 그 인쇄를 다 해 줬어요.

이형진: 아니, 그런데 일반 신문이 아니고 교회 주보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전 검열을...

이우재: 아니, 모든 인쇄물은 다 검열했었어. 계엄 때.

장정옥: 그런데 특히 인천 주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 가지고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보를 구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주보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심하게 검열하고. 이제 우리는 또 갖은, 걔네가 검열하면 할수록 더, 이제 그거뿐만 아니라.

이형진: 그 선을 넘기 위해서 계속했겠죠.

장정옥: 그렇지. 박종철 때 이렇게 백지 주보를 낸다든지. 우리도 이제 싸울만큼 싸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필진을 돌아가면서 이제, 막 빵꾸가 많이 났어요. 이제 수배자들이니까. 그랬고, 또 시간을 못 맞춰요. 원래 운동권 사람들이 이제 게으르잖아. 원고 마감을 제때 안 해주니까 이건 주보니까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제가 항상 대비는 하죠. 이거 안 나오면 빵꾸 나면 떼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못 쓰지만, 써야 되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싸우기도 싸우고 그랬어요. 이명준 선배랑 나중에 많이 싸웠는데 되게 미안해, 그 선배한테. 그 선배가 제일 약속을 안 지켰어. 맨날 늦고.

이우재: 게을러, 게을러.

장정옥: 아우, 마감 다 했는데 나중에 가져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이형진: 다음번에 실어야죠, 뭐. 하하.

장정옥: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거 때문에 주보가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인천 주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서 한 편으로는 이제 의미가 있었다. 생각이 되고.

이형진: 주보편집일은 팔십 몇년까지 하셨습니까?

장정옥: 제가 80, 아, 제가 그만둔 건 91년입니다. 그때까지.

이형진: 아, 10년을 넘게 편집일을 하셨네요?

장정옥: 79년 11월부터 91년 2월인가 그때까지 했어요.

이형진: 아, 12년 정도 하셨네요.

장정옥: 응, 10년 넘게.

이형진: 그 주보 편집일을 하시면서 거기 사무실이 생겼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인천 교구도 점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량들을 더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사제들은 정의 구현 사제단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같은 것들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장정옥: 그게 이제 그 주보실에 드나들던 후배들 중에 청년회, 대학생회 이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미 있어요, 조직은. 청년회는 없었지만 간혹 이게 이제 지오쎄에 노동청년회는 따로 있었고 이건 따로 자기조직을 꾸리고 잘해나갈 때 일반 카톨릭 청년회, 왜냐하면 전에는 대학생 교리 교사회 이런 이름이 있었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노래하고 뭐 이러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는 정말 청년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청년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한 편에서는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보급하려면 대학생회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대학생회가 그 당시까지는 아무 의식이 없는 그냥 일반 대학생들 써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보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팀이 그 신동택, 홍덕률, 신동태, 그렇게 이어진 후배 중에 강희철이 등장을 해요. 고대 다니던 학생이었잖아, 그때까지는. 희철이가 와서 저를 보고 세례를 받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 들어오겠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친구 인상이 저는 좀 무서웠어요. 후배지만, 걔가 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이게 진짜는 아니야. 진짜 신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나,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아야 나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랬어요. 아, 그 말이 진짜가 됐잖아? 그래서 그때는 호신부님 저쪽 떠났을 때고 조성교 신부님이 송림동 성당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조성교 신부님한테 보내요, 그냥. 무조건 영세를 주시라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뭘 믿고 주냐. 그러면 내가 하나 받겠다. 레포트 같은 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써 달라 그러라고. 그래 가지고 뭐 하여튼 주절주절 써 왔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뭐 좋게 썼겠지.

이우재: 그게 몇 년도예요?

이형진: 80년대 중반인데.

장정옥: 걔가 이제 80, 걔가 81학번인데 대학생회 선거를 하려면 2년 자격이 있어야 해. 그래서 아마 81년 말쯤일 거야. 그래서 83년.

이우재: 81년 말이야? 내가 희철이를 처음 본 게 84년에 인사련 만들고 그때 희철이를 알았거든?

장정옥: 그때는 대학생이 아니었지.

이우재: 아니, 그때 고대 다닐 때지.

장정옥: 그러니까 휴학했는데. 어쨌든 걔는 군대를 갔다왔어, 중간에.

이우재: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때 걔가 카톨릭 대학생회 얘기는 그 뒤로 기억나는데?

장정옥: 굉장히 어릴 때… 음, 학번은 81학번이야.

이형진: 그러니까 83년 정도에 아마.

장정옥: 응, 한 2년쯤 후에 아마 대학 자격을 가져야지 후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것도 정식으로 성당에서 한 게 아니고 신부님이 그냥 세례를 주셨어. 조신부님이. 조신부님도 알아. 우리 다 사기친 거지. 사기꾼이라 그래. 그런데 하여튼 세례를 주시고 얘가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 투표도 하고 하니까 뭐 저 송현동 성당 화수동 성당 이렇게 미리 애들을 보내서 조직을 미리 만들어요. 밑작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학생회 회장에 출마를 하고 대학생회를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회 쪽에서는 송림동 성당 청년들, 이제 박영대나 이런 친구들이.

이우재: 영대 국영이, 그 다음에 곽한왕이.

장정옥: 그렇죠. 국영이나 기선이. 곽한왕이 나중에 결합을 하죠. 한왕이가 이제 광야 서점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고 때만 해도 사람이 좀 풍부해져요. 교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쪽 공간이 서울에서 열려서 해직 교사들이, 교수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민중대학이나 금요, 청년 금요 강좌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이형진: 성당에서?

장정옥: 아니, 카톨릭회관에서.

이형진: 아, 교구에서.

장정옥: 이 교구에 이제 없었던 교육국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한 거죠.

이형진: 답동 성당에서 한 거네요?

이우재: 그 교육국에 명진 형이 와 있었던 거지?

장정옥: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병상 신부님이 이제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홍보 교육을 합쳐, 나중에. 홍보국과 교육국을 합치고 명진 형이 주로 교육 파트에서 청년강좌, 뭐 이렇게 대학생들은 대학생 이름으로 하지만 대학생 강좌 이걸 다 막, 하여튼 공간만 열리면 무조건 이제 카톨릭 회관을 빌려서 이렇게. 합법적인 공간이니까 지역에 뭐 이와이씨니 이런 청년들이 다 모이고, 대학생들도 모이고, 이제 인하대도.

이우재: 거기서 강연회 끝나면 무조건 답동 성당 앞에서 한바탕 붙고.

이형진: 그리고 신포동 와서 이제 술 먹는 거예요?

장정옥: 그렇지. 그때 굉장히 히트를 쳐서 금요 강좌 거기에 나온 강사들도 다 교수님들, 해직 교수들, 석류영 교수님, 뭐 이런 이영희 선생님도 오시고.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열심히 정말 다들 움직였어.

이형진: 인천에서 그니까, 노동과는 좀 무관하지만 사회운동의 바닥이 다져지는 과정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인재들이 이제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장정옥: 청년들 이름으로 노동은 아니어도 우리 역할을 찾자, 이렇게 된 거죠. 청년 이름으로.

이형진: 장 선생님, 이제 그 시점에 장 선생님은 30대 초반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쯤에 혹시 그, 세례를 받으시나요?

장정옥: 아, 세례는 그 중간에 제가 결혼을 81년에 합니다. 이우청이랑.

이형진: 아, 그러세요?

이우재: 81년이었던가?

장정옥: 예, 81년에 호인수 신부님이 고잔에 계실 때.

이형진: 스물일곱이네요.

이우재: 맞다, 맞다, 맞다. 그래갖고 내가 그때 우청이, 내가 발바닥 내가 때린 기억이 있어.

장정옥: 이우청, 이우청이랑 같이 고잔으로 예비자 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러 가요. 그 핑계로 신부님 만나서 술 마시는 건데.

이우재: 아니, 우청이 징역 살고 나와서.

장정옥: 징역 살기 전에.

이우재: 징역 살기 전에 였나?

장정옥: 징역은 82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야학은 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 회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나 때문에 결혼,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야학도 했고,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운동도 했고. 지금은 그렇게 자기합리화를 해요.

이우재: 81년이었구나.

이형진: 그러면 장 선생님은 28이고, 이우청 청년은 22.

장정옥: 저는 스물아홉에 결혼을 해요. 스물둘이고. 대학생이었잖아요.

이형진: 괜찮네요.

장정옥: 우리 결혼할 때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닭장차를 동인천역에 두 대를 갖다 놔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형진: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시는.

장정옥: 고잔 성당에 호인수 신부님 계실 때 하객을 거기다 실어서 날랐어요.

이형진: 닭장차에 실어날랐다고요?

장정옥: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분이 닭장차가 와서 이 시위를 할까 봐. 이제 왜냐하면 와이사건이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위장 결혼 사건.

이형진: 예, 예. 위장결혼식이 이제 또 유행이니까.

장정옥: 있었는데, 인천에서 호인수가 고잔에 있는데 장정옥이가 야학을 하고 있는데 이우청이 인하대에서 어쨌든 학생 써클을 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 결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스물두살 아이가 스물아홉살 노처녀랑 결혼을 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우재: 나 장가갈 때도 닭장차한테 불심검문하고 그랬어요.

장정옥: 그러니까 닭장차가 내려오긴 했는데 답동 성당 앞에. 그런데 지들이 따라와야 하는데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고잔 성당에 가는 학생들 다 여기 타라 이래가지고, 그걸 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접수하는 친구들이 시비 걸 게 없으니까 거기 온 형사들한테 부조금 내라 그래가지고 부조금도 받고. 우리는 거기서 그날 술 먹고 이제 사제관에서 자고 신혼여행이고 뭐고 이런 게 없었어. 그냥 신부님하고 같이 술 먹고 뻗어서 자고 이우청 매 맞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 81년이 넘어가죠.

이우재: 그러니까 81년, 내가 9월에는 없으니까 한 10월이나 11월쯤 됐겠네.

장정옥: 10월에 결혼을 해요.

이우재: 그렇겠네. 내가 9월에 나왔으니까.

이형진: 아, 나오자마자 이제 또.

장정옥: 그래서 그 결혼식이 좀 유명했어요.

이형진: 예, 그랬겠는데요.

장정옥: 사람들이 정말 결혼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우청은 학교 쪽으로 다시 후배들하고 써클을 하다가 82년에 11월달에 어쨌든 학내 시위로 들어가요. 그게 최진우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인하대 79학번. 최진우. 둘이. 작년에 죽었어요, 그 친구도. 그래서 남편이 징역을 가니까 제가 이제, 구속자들 모임이 또 생겨요. 남편들이 다 없으니까. 황선진도 들어가 있었고, 안건미, 안건미. 그 다음에 인재근.

이형진: 김근태 선생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장정옥: 나하고 또 누가, 김석원이 마누란가. 나혜원인가? 아냐, 나혜원이 누구지? 그 죽은 친구 있는데.

이우재: 김석원 선배가 죽었지.

장정옥: 김석원도 죽었지.

이우재: 그런데 그 양반 부인이, 형수 이름을 내가 기억이.

장정옥: 아, 그러면 저기다. 노미애. 하여튼 이렇게 제 후배이면서 동기이면서 이런 친구들이 남편들이 다 없어서 구속자 가족 모임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구가협 이런 걸로 이름이 바뀌죠. 그거 또한 이제 김병상 신부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우재: 그거는 이제 53 나오고 구속자가 대폭 나오면서.

장정옥: 그때 응, 용주 엄마 나올 때. 그때는 뭐 이제 정식으로 활동을 할 때고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면회하는 거. 면회가 힘들었으니까. 면회 싸움 할 때.

이우재: 인재근이 형수 나온 거 보면 85년이겠네. 근태 형이 구속된 게 85년이거든?

이형진: 그러면 학익동과 서울구치소…

장정옥: 학익동에 있었죠. 그 다음에 수원 교도소. 학익동에서 수원으로 갑니다. 남편은.

이우재: 고때 인사련.

장정옥: 인사련 준비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야학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쪽 교회 일하고, 그 인사련 활동 준비하는 팀들도 만나고, 그 무렵에 만석동 이쪽에 여성평우회나 이런데가 들어와요. 그래서 빈민쪽 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쪽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홍미영씨가. 그렇다고 여성단체가 생긴 건 아직 아니고 개인적으로 빈민 활동을 한 거지, 여성운동이나 빈민운동 이런 이름이 아직 없을 때였고. 그 무렵에 인사련도 인사련 이름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나 서울에서 민통련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몇 명이.

이우재: 민청년, 민청년.

이형진: 민청년이 생겼죠.

장정옥: 아, 민청년 때문이었나? 그렇죠. 그 준비를 하죠. 이우재 씨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와 가지고.

이형진: 자, 인천은 80년대 초를 지나면서 83년, 4년이 되면 이제 노동 운동도 준비가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85년에 대우자동차 투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86년 되면서 5. 3 인천 항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천주교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후배들이나 이렇게 해서 움직여졌던 폭이 상당히 다양했을 것 같은데요. 5. 3을 전후로 했던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정옥: 5. 3 때 물론 이미 다 알려진 일이지만, 그 시민회관. 그 싸움에서 김병상 신부님도 지원을 많이 하셨고, 박분도 신부님 계실 때야, 사실은. 그죠.

이우재: 거기 또 주안1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 그러죠.

장정옥: 이제 나중에 총대 일도 하고 그러셨던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은 내키지 않았으나 또이제 호인수 이런 압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신부님들이 그, 6. 10 이때는 많이 결합을 하셨어요.

이형진: 그렇죠.

장정옥: 그래가지고 5. 3 그 분위기가 막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였으나 나중에 그걸 겪고 나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분위기였고 단식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 3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주 반감을 가진 신부님도 계시죠. 그 상처가 많이 큰 때였죠. 그런데 그래도 그게 인천의 역사에서 중요하니까 인천이 그걸 떠안으면서 인천 신부님들도, 그거 그래 우리 일이야, 라고 받아들,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87을 맞게 되니까. 87년 이후에 뭐 같이 결합해서 단식하고, 뭐 이렇게.

이형진: 87년 6월 항쟁 때 카톨릭 쪽의 역할도 꽤 컸죠.

장정옥: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오쎄는 나름 계속하는 활동을 자기들끼리 해 오면서 그, 이쪽, 지오쎄, 청년회, 대학생회, 또 신부님들 뭐 이런, 뭐 그 다음에 카톨릭 의사회 이런 거까지 홍성훈 원장님 중심으로 따로 지역 의사들 또 모임도 만드시고 뭐 이러면서.

이우재: 그때 정의 평화위원회가 결성됐을 텐데.

장정옥: 정의 평화위원회는 있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공식적으로 교회인증을 받은 단체는 정의 평화위원회고 이거는 평신도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

이형진: 사제들의 모임은.

이우재: 그때 홍성훈 선생님이 의장 하고 있잖아.

장정옥: 그렇죠. 홍성훈 선생님이 하셨고. 사제들만 하는 거는 정의 구현사제단. 이거는 비공인.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하는 빨갱이라는 단체가 사제단이고. 정의 평화위원회는 로마에부터 전세계 다 있는 기구예요. 전 세계 카톨릭 공통기구예요.

이형진: 사제와 평신도들의 결합체라는 거죠?

장정옥: 그래서 정의와 평화의 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같이 결합을 해야 한다, 이런 게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형진: 그러면 그때 그 홍성훈 원장님께서 정의 평화위원회 인천 대표를 하신 건가요?

장정옥: 이제 대표이실 때도 있고 평의원이실 때도 있고, 위원장은 보통은 신부들이 해요, 그래도. 교회는.

이우재: 그런데 한 적 있었어요.

장정옥: 그런데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호의를 많이 받을 때. 김병상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계실 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카톨릭이 발을 빼는 게 90년대 넘어가면서 심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80년대 상황은 같이 다 겪어요. 노동 쪽이 제일 심했고.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할 때. 야학에 그나마 이제 발 딛고 있던 후배들, 뭐 졸업생들이 각자 자기 현장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이제 고생 많이 했던 친구들, 아직도 고생하는 유재흥이나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자기가 이제, 뭐 노조 직책을 맡거나 이러면서 자기 길을 가죠. 그래서 야학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노동단체로 다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운동을 정리하거나. 또 운동의 개념 없이 야학만 나왔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야학 교사 중에는 더러는 이제 나중에 인사련 결합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정치 쪽으로 가서 지금도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우재: 그게 남인순이지.

장정옥: 어, 그렇지. 뭐 서주원이도 환경 운동 이쪽으로 가고. 환경 운동은 나중에 시작하였으나 그래도 이제 많이 넓어지죠. 폭이 넓어지죠. 여러 단위로 뭐, 분야로 이렇게. 그 의료 쪽도 생기고, 그게 이제 호인수 신부님이 고잔을 떠나서 이제 시내로 오시면서 주안이나 부평 이런 데로 크게 자리 잡으면서, 그때는 이제 당신이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지원하시기도 하면서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황상근, 김병상 1세대가 뒤로 빠지고 호인수, 그 주변의 후배들, 뭐, 지금은 그 신부님들도 물러나 있지만.

이우재: 오용호.

장정옥: 오용호 신부나 장태식 신부나 뭐 홍창만 신부는 그래도 아깝지. 그 신부님은 돌아가셨고.

이우재: 장태식이는 지금 어딨어요?

장정옥: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아 가지고.

이우재: 장태식이가 우리 고등학교 동긴데.

장정옥: 그 다음에 김..

이형진: 김일회 신부님은 그 다음 세대인가요?

장정옥: 김일회 신부님은 훨씬 밑엔데 그래도 지금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죠. 교구에 들어가가지고 사무처장 하고 있으니까. 김영권 신분가? 아, 그 신부님, 열심히 일하는 신부님 있는데 또, 김일회 전에.

이우재: 아, 오용호 신부.

장정옥: 어, 그 세대에도 있었어요. 몇 분의 젊은이들이.

이형진: 91년에 어, 주보 일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천주교에서 일을 마무리하셨다고 보여지는 데요.

장정옥: 공식적으로 교구에서는 정리를 했고요.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신부님이 또 우리 신앙연구소가 어렵다.

이우재: 아, 우신연에 가셨구나?

장정옥: 어, 우리 신앙 연구소가 그게 평신도 자발적인 그 조직인데, 신학연구소죠, 그야말로. 평신도가 신학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전에 생각하면. 신학은 신부들이 독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평신도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호 신부님이 만들 때부터 어,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다가 지금은 또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형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꺼내다가 다른 이야기로 흘렀는데, 세례를 받게 되는 계기가…

장정옥: 그러니까 세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보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켕기잖아요. 어쨌든 명색이, 카톨릭엔 이름을 쓰면 항상 옆에 세례명을 써요.

이형진: 그렇죠, 써야 되죠.

장정옥: 그런데 이게 없잖아. 가짜로 쓸 수도 없고. 그런데 호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더 있으면 안 할 것 같더라구요. 이게 결혼했을 때, 이게 초기에 신혼빨로. 이걸 빨리 어떻게 꼬셔야 되겠다 그래

갖고 같이 교리를 받으러 고잔으로 가서 이제 교리 받는 시간에 이제 신부님 만난 그 핑계가 더 컸죠. 고잔까지 일부러 가는 게. 신부님이 오토바이 타고 석바위까지 나와서 기다렸다가 데려가고 그랬어요. 버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안까지, 답동에서 퇴근하고 주안 가서 주안 버스, 거기서 고잔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 두 번밖에 없으니까 신부님 오토바이 타고 나오면 우리가 둘이 타고 거기 또 들어가서 교리 받고, 밤에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82년에 세례를 받아요. 같이.

이형진: 세례명은 어떻게.

장정옥: 세례명이 안드레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아는 이제 나주교님이 계실 때인데 여성 명사가 원래 안드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명사는 안드레아스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자가 안드레아라고 불렀거든요. 여태까지 쭉,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너도 안드레아라고 써도 된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안드레아가 됐고.

이형진: 그러면 장정옥 안드레아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했군요.

장정옥: 안드레아죠. 응. 그런데 사람들은 안드레아는 남자야. 신자들이 지금도. 저한테 편지가 오거나 물건을 보낼 때 안드레아 신부님, 아니면 어쩌다 수녀님이 돼요. 수녀들은 가끔 남자 본명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안드레아면 무조건 이거는 수녀, 아니면 여자가 아니다. 장정옥이라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이우재: 우청이는 세례명이 뭐예요?

장정옥: 이우청도 안드레아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우천은 한국의 안드레아니까 안드레아, 자기 이름을 쓴 거고. 자기 생일이 안드레아 축일이라. 나는 이제 같이 안드레아를 쓰겠다, 여성 명사로 쓰겠다, 그런데 여성 명사가 안드레아다, 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 여자 스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요한, 요한나, 이렇게 뭐, 바오로, 바울라 이렇게.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같이 있잖아요. 요한나, 요한 이렇게. 그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계기가 되죠. 고잔에서.

이형진: 그, 91년 이후에 우리 신앙 연구,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 생활을 계속하신 것 같습니다.

장정옥: 신앙 생활을 오히려 신학연구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남들이 생각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착하게 살자, 그거는 강화에 가서 더. 그 이전에는 거의 냉담. 냉담이라 함은 주일미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냉담.

이우재: 그거 호 신부님이 가만 내버려 둬요?

장정옥: 호 신부님은 주일미사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우재: 나는 이제 부활절 하고 고해성사할 때 신도들 있는 데서 맨날 단골로 오는 사람 오늘 왔어? 이러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장정옥: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성사만 보면 냉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학에서 신부님이 주장하던 게 열심히 살자, 그거죠. 남하고 같이 살자. 그거 내가 희철이하고 이제 이쪽 사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신부님 여기가 교회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얘네들 사는 거 와서 봐라. 신부님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자꾸 신부님한 테 뭔가 막 이렇게 쫓아가서 항의하고 뭐 하냐, 지금, 막 이럴 때, 아프게 찌를 때 교회가,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부님은 맞다, 니 말이 맞다 그러실 때니까. 뭐 미사 나와라 마라 그런 거 할 게제가 아니었지. 그러나 저도 굉장히 오만하고. 시건방졌죠. 제가 지금 그래서, 정말 나이 먹으니까 주일미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

이형진: 다시 80년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장 선생님, 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인천에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야학과 이렇게 직접 이제 선생님으로서 역할은 좀 줄었겠지만 야학계에서 같은 동료들과 같이 했고, 그리고 학생들도 계속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때 만났던 분들과 그들의 삶을 바꾸는데, 또는 이제 그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서 그 야학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장정옥: 굉장히 힘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대답을 못 찾았어요.

이형진: 그 야학은 당시로써는 그니까 70년대에, 80년대에 보면 음, 정상적인 방식으로 학교진학이 어려웠던 청년들, 내지는 이제 10대 후반에 남녀 학생들이,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기를 쓰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87년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열망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동일 방직 여성 동지들도 마찬가지였고. 못 배운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학을 했을 때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에게.

장정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힘들다 하는 것은,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부당한 생각이었고, 또 학생들도 이미 그걸 알았어요. 니네가 뭘 알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그것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형진: 그런데 풀어나갔다고 생각하나요?

장정옥: 아니죠, 각자 극복을 해낸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한 부분이니까 소중하지만, 그렇게 의미가 컸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저는 받았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저에게 무엇을 받았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들이 가진 허위의식, 허영, 지적 허영 이런 것들을 표출한 게 아닌가. 저도 배우지도 않은,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물론 지금 학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어쨌든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모순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과도기였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노동 운동 쪽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아주 정당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의식이 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길을 만들어가고, 그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찾기 이전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해 보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낭만적인 호의, 호의,

동정심은 아니고, 그나마 우리는 우리를 희생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투신한다, 그러니까 뭐 노동 현장은 아니더라도, 요런 아주 얄팍한 감성으로 야학을 대한 게 아닌가. 제가 굉장히 반성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그래서 야학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게 이제 지나온 내 길이니까 소중하긴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 결혼식 때 만나고 이럴 때 보면, 다들 열심히 살고, 잘 살아가지만, 뭐, 밖에서 본 출세 이런 건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냥 노동자, 일반 서민, 빈민, 또 굉장히 힘들게 떨어져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연락하고 만나긴 하지만 끈끈하지만, 사회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걸 느낄만한 그런 계기는 구체적으로 남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이우재: 그러면 누님이 저거 했던 겨레터 야학 신림동에 내가 거기 몇 번 갔는데 그때 걔들 토론하는 게 기억이 남는데.

이형진: 겨레터 야학.

이우재: 응, 씨름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강학이라고 부르자.

이형진: 네, 서로 그렇게 했지.

이우재: 또 그래야지 평등하다고 강학이라고 부르자고 그런 거 갖고 토론했던 그게 기억이 나.

장정옥: 그런데 그 용어가 강학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야.

이형진: 그, 되게 생소해.

이우재: 그것도 그 얘기야.

장정옥: 그래 갖고 그냥 형, 누나 이렇게 했는데 누구 형, 누구 형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같이 동등해 보이지만 그게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차별을 그들은 이제 안 거지. 니들이 아무리 노동을 이야기해도 니들이 노동을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있고. 그 나이 차이는 없잖아요.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어리기도 하고. 그게 완전한 일체감 이런 거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차별성, 그 차이. 이것을 우리가 더 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교사들이. 그런데 제가 제일 크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살아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죄스러워요.

이형진: 음, 한 가지만 더. 그, 요건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가기 위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종 선배와 만남이 7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명종 선배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에도 공장을 들어가고 또 해고 당하고 노동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70년대에 야학에서 선생님을 했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자세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만나게 된 계기부터?

장정옥: 김명종은, 사실은.

이형진: 예,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장정옥: 제가 잘 몰랐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쪽 갈산동 쪽에서 저희한테 그, 지원을 해 줬어요. 김명종은 이해란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이해란은 그 갈산 야학 학생으로 만난 사이예요. 반도상사 출신이고.

이형진: 예, 예. 맞아요.

이우재: 저기, 박우섭하고 이렇게.

장정옥: 박우섭의 처제죠. 처제. 처젠가? 처형.

이형진: 맞아요, 처제. 처형이네.

장정옥: 명종이란 친구는 우리가 노동쪽 담당할 사람이 없었던 걸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뭘 알아, 노동 현장에 대해서. 현장이나 노동법, 근로기준법, 하다못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서주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왔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집이 이쪽이었고. 그리고 부평은 너무 멀고.

이우재: 부인이 지오쎄 활동 했으니까.

장정옥: 그렇죠. 지오쎄.

이우재: 지오쎄 활동 했거든? 그러니까 지오쎄 하면…

장정옥: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찾아낸 후배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온 후배도 아니고 부평 야학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어쨌든 우리 교사 모임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로 노동 시간을 담당을 했죠.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자기도 학벌에 대한, 자기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공부를 더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 노무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현장에 가겠다. 야학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죠. 그런데 그쪽에 계속 일을 하는 건 알았지만, 저하고 같이 또 결합한 적은 없어요. 그 뒤로는.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연고가 있어서 친구나 후배나 뭐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이제 뭐 시위가 있거나 집회가 있거나 이럴 때 같이 결합하는 수준이지, 조직 활동 하러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들은.

이우재: 79년에 8월에 내가 나왔고, 내가 10월부터인가 명종이하고 재웅이, 뭐 걔들 사회과학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

장정옥: 그게 이제 야학에서 별도의 세미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했죠.

이형진: 아, 그런 필요들이 제기됐구나.

이우재: 그때 …

이형진: 그 감리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산업선교를 통해서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지원이나 지오쎄 활동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인 지원구조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 있었나요?

장정옥: 많이 했어요. 천주교에서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노동사목. 천주교 노동사목은 오랫동안 준비가 됐고 지속적으로 했어요. 주안노동, 부평노동, 부천노동 세 군데 있습니다.

이형진: 세 군데였다고요?

장정옥: 부천도 우리 교구니까. 그러니까 인천은 주안하고 부평 두 군데인 거죠.

이형진: 주안은 골목집에 있던 거죠?

장정옥: 그렇죠. 골목집에 있었고, 부평은 거기 산곡동에 있었고, 상곡동이 먼저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거기도 메리놀 신부님이 나말딩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이형진: 그건 70년대죠.

장정옥: 네, 그 신부님하고 윤수산나.

이형진: 아, 윤수산나.

장정옥: 윤수산나 하고 그 초기에 ... 노동사목을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조금 조직화된 게 80년대 들어서면서 지오쎄는 지오쎄 대로 가고, 노동사목은 이제 주로 상담이나 지원, 간접지원을 하다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을 하면서 탁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한상옥이나 이런 친구들이 결합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노동사목은 일이 많아지고, 또 신뢰도 많이 받고,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공식, 특수사목이니까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형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목활동의 일환이었던 거죠?

장정옥: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담당 신부, 수녀, 뭐 공간, 집도 주고.

이우재: 지금도 있잖아요.

이형진: 있어요.

장정옥: 그죠. 지금은 오히려 노동 센터가 생겨서 노동사목 센터가. 노동사목 센터의 세 개가 다 결합해서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지만, 또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고, 그러면서 전국기구로 같이 또 연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잘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오쎄는 그 이후에 이제 장년회로 또 발전을 하죠. 지오쎄는 청년회니까.

이형진: 아, 청년회에서 장년회로.

장정옥: 청년회가 나이 먹어서 이제 장년회로.

이형진: 박남수 선배님은 뭐 자기도 아직 지오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예.

장정옥: 예, 한 번 지오쎄면 계속 지오쎄인데 이름이 청년회니까 이거를 이제 장년회 이름으로 만나죠.

이우재: 지금은 또 노년회라고 해야 돼. 하하.

장정옥: 그럴 수도 있어요.

이형진: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에 20대 초반,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번도 그걸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내지는, 이제 사회 운동을, 그러니까 지향했던 선배들 또는 후배들과 관계들을 만들어내면서 70년대에 그러니까 인권운동, 이런 일들을 하셨고 80년대에는 이제 교계에서 자리를 잡으시면서, 그러니까 천주교 내에서 사회운동의 목소리들을 만들어냈고,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회랄까, 아니면 기억나는 장면 한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옥: 그냥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게 크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맙죠. 그런데 하여튼 신부님들이 특수하게 소명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호 신부님, 물론 제가 사랑하는 중요한 신부님이지만, 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각인된 신부님은 오다니엘 신부님이라고,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인데 노동사목 신부님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젊었죠. 우리가 천사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중간에. 90년대 초인가 그때.

이우재: 아니죠, 80년대 중반.

이형진: 천주교사회운동연합.

장정옥: 천주교사회운동연합. 80년댄가. 곽한왕이 나서서 청년회, 이 지오쎄 다 합쳐 가지고 하나의 협의회가 된 게 천사협인데.

이형진: 천주교사회운동연합. 협의회.

장정옥: 천주교 사회운동 협의회.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고, 그 중에 이제 그 지오쎄 지도신부님으로 오다니엘 신부님이 오셨을 때 천사협 수련회를 갑니다. 같이. 영종도로. 비가 막 쏟아지고 아주 허름한 민박집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뭐 라면 끓여서 먹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강의도 받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하고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 라면 불어터진 그 냄비에 빗물이 쏟아져서 그걸 먹는데 같이 앉아서 드시는 거야. 그 아일랜드 신부가. 그런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신부님이. 젊은 신부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물론 마음으로 같이 하고 뭐 돈 대주고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글 쓰고 다 하는데, 이렇게 이박 삼일인가

를 같이 뒹구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신부님.

이우재: 지금도 인천 교구에 계세요?

장정옥: 아니지, 지금은 서울로 가셨죠. 이제 사목이고 수도회 신부님이니까. 골럼바노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골럼바노회. 그러니까 이제 수도회가, 잘 모르실까봐, 뭐 메리놀회, 골럼바노회, 뭐 글라라회, 뭐 이렇게 독특한 자기 수도회 공동체가 있어요.

이형진: 노동사목을 하시는 분이었군요.

장정옥: 골럼반이 노동사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골럼반 소속 신부님들이 노동사목에 많이 와 계셔요. 그렇게 그 신부님이 기억에 남고, 이제 정일우 신부님도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이우재: 저기, 그 작은 자리.

이형진: 작은 자리, 신천리?

장정옥: 다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외국인 수도회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어떤 모범, 모범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죠.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저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저만 해도 가식이 많아요. 그리고 막 보여 주고 싶고. 잘난체하고, 뭐. 그 꼭 우위에 있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저렇구나. 그렇게 살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늙어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굉장히 좋은 신부님들을 만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은 이제, 그게 꼭 하느님이라는 말로 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런 주어진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게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형진: 혹시 이우재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물어보고 싶은?

이우재: 아냐, 나하고 인사련 할 때 누이하고 많이 싸웠지.

이형진: 고거 딱 정리해 놓겠습니다. 하하.

장정옥: 왜 싸웠냐면 말을 막 해요. 막 거침없이.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이 탁탁 박히는 거야. 자꾸. 같이 맞대응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받아주질 못한 거야. 농담으로 받으면 되는데 농담이 안 돼서. 그게 표정이나 이런 걸로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힘들었겠지.

이우재: 그때그때 성질 다 지랄 같았지. 칼 같았지.

이형진: 그랬죠.

장정옥: 아무튼 그래도 즐겁고 아름다운 청춘이었다. 하하하.

이형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 인천기독교산업선교회 실무자
- 도서출판 석탑 대표
- 내일신문 발행인 대표이사
- 18대 국회의원

일　　시 2021. 11. 23
장　　소 내일신문사 회의실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최영희

이형진: 오늘 2021년 11월 23일입니다. 여기는 내일 신문사고요. 오늘은 우리 최영희 선생님과 70년대 초 이후에 인천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해서 우리 센터를 직접 오시기는 어렵고 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실 얘기는 참 많으실 텐데 천천히, 그리고 가능하면 초기 과정에서 이렇게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최영희: 네.

이형진: 아, 1950년 전주 출신이셨어요.

최영희: 6.25 동이에요. 저 방공호에서 태어났어요.

이형진: 예,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69년에 이화여대 사회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까지 과정을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최영희: 아,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이형진: 아니, 뭐 생각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 이후에 이제 노동 운동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그 당시의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대학교 얘기만 할까요?

이형진: 그러시죠.

최영희: 아니면 대학 간 거, 뭐 이런 것까지. 5학년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시골로 내려가셔 버리고 오빠들하고 자취하면서 어쨌든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고3인 셋째 오빠하고 같이 입학시험 보러 서울로 올라왔고, 큰 오빠하고 둘째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이형진: 그래서 중학교는.

최영희: 중학교는 서울 이화여중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왔고, 고등학교도 이화여고 나왔고. 그래서 물론 이화여대까지 갔으니까 이제 학교는,

이형진: 계속 이화였네요.

최영희: 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이기는 하지만 찬송가를 많이 불러도 신자는 아니에요.

이형진: 아, 크리스찬은 아니시고?

최영희: 크리스찬 아니에요, 저는.

이형진: 이후 산업 선교회 과정에서도?

최영희: 네, 아니었어요. 그런데 산업 선교회가 대단한 게 크리스찬이 아닌 저를 받아준다는 거죠. 산업 선교회가 그만큼 튀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형진: 선생님, 대학 들어가셔가지고 사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최영희: 학생운동을 했죠. 대학 들어가서.

이형진: 그 이화여대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영희: 제가 우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신문 기자를 했어요. 고등학교 신문 기자를. 근데 우리 신문이 '거울'이라는 신문이었는데 주간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입돼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상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가 신문반 반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너는 기자를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에 기자하려면 무슨 과를 가면 좋아요? 그랬더니 사회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과를 가게 됐고.

이형진: 60년대 말이었으면 서울에서, 유신 전이긴 했지만 독재 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최영희: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6.3 사태가 났었고. 데모 그런 거는 봤지만 직접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 학교 게시판마다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 무슨 사회 문제를 가지고 붙였어요. 그걸 제가 붙였을 거라고 학교에서는 생각할 정도로 일단 주시를 받았지만 제가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기자 후배들을 데리고 게시판마다 돌아다니면서 붙였을 거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었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도 그냥 인정받고. 공부는 뭐 열심히 안 했어요. 기자 노릇하는데, 맨날 수업 빠지는데 뭔 공부를 해. 그래서 이제 이대 사회학과를 갔는데, 당시에는 사회학과가 있는 대학이 네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화 대학을 갔고. 가서.

이형진: 이효재 교수님을 만나셨나요?

최영희: 그렇죠. 제가 이효재 교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1학년 입학 직후 선생님이 과장선생님이셨는데 한 사람씩 다 면담을 하는데 제 고등학교 활동 내용에 거울 기자라는 게 써 있으니까 거울 기자가 뭐니? 그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주간 신문을 내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A4 용지로 최하 16면을 냅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24면도 내고 84면도 냈습니다. 이제 그 개교기념일 84주년일때 84면도 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너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그래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학과 신문 비슷한 거, 격월간으로 해서 만들면 우리 과 학생들이 다 나눠보고 좋지 않겠는가.

이형진: 과 학보를 만드는...

최영희: 응, 과 학보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은 그 얘기,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고. 그럼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유, 그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랬더니 그러면 친구 하나를 부르고 그다음에 2학년 선배들 중에서 선생님이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2학년 언니, 3학년 언니. 그래서 둘 둘 둘해서 6명을 모아서 이거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거기 실무를 했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장하진이어요. 장하진 장관. 네, 그 장하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진이랑 같이 많은 그 활동들을 했죠. 그때 제가 서울대 사회학과의 모니터 역할을 했어요. 하진이는 고대 사회학과. 그래서 그 소식을 여기다 같이 실어주는 거죠. 같은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세미나를 했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나. 이런 것들을 학보에 써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고, 소식을 전해주는 그 남학생들은 사회학과 학회장이었어요. 문리대 대의원회 의장을 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 운동을 열심히는 안 한 사람이지만 그런 걸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하진이도 집안도 그렇고 광주 전남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일고 출신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들 만나고 이러면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둘이 그런, 이제 관심 속에 빠져들고. 그랬다가 저희들이 이제 2학년 때 전태일 사건이 터진 거였죠. 네, 그게 70년도에 그 전태일 사건 나고 나서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집 사업 망했을 때 우리 오빠들이 나를 만약에 중학교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았으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뭘 하고 살았을까, 그러면 내가 바로 그 평화시장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걸 극복을 했고, 또 오빠들의 도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복을 해서 이렇게 대학생이 됐지만. 그리고 전태일은 내게 만약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다면~. 그런데 그 대학생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 미팅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막 너무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선배 언니, 3학년 선배 언니하고 원래 옷도 없지만 허름하게 옷 입고 평화시장을 갔어요.

이형진: 아, 이소선 어머니를 만나 뵙습니까?

최영희: 아니요, 그때는 이소선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실 정도가 아니었고. 바로 사건이 났을 때였으니까. 그곳에 있는 노동자처럼 하고 가보니까 진짜 그 신문에서 얘기하는 아이들, 어린애들이 공장 작은 데서 일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다락방이에요. 아, 저게 다락방이었구나, 라는 거고. 어린 시다가 바로 얘네 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곳곳에 원단이 잔뜩 쌓여 따가운 눈을 비비며 사이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녔죠. 현장을 그냥 그대로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슴에 남아 있어요.

이형진: 평화 시장은 사실 그렇게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겠습니다.

최영희: 처음이죠. 그리고 제가 뭐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시장 같은 데도 별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작업장은 1-2층은 상가이고 그 윗층들이 공장이예요. 그거는 그 열악한 작업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였죠. 또 이효재 교수님이 가끔 어디서 학생 추천해 달라 하면 세미나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가끔 저희 불러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리고 또 엠티 같은 거 있으면.

이형진: 공부를 시켰네요.

최영희: 예, 갔다 오라고 그래서 돈 안 들고 가는 거니까 공짜로 가는 거니까 갔다 오고. 그러면 그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학생운동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2학년 여름 방학때 학교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면서 민주주의, 학생운동관련 신문기사를 열람했어요. 4.19 이전부터 10년간의 신문을 ~ 그때는 도서관에 옛날 신문들이 그대로 괘도에 묶여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숙독했지요. 그리고 3학년 때 사회학 논문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주제를 각자 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학생운동에 대해서 논문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학생 운동에 관계되는 논문집들을 읽어보고, 사상계, 한양 잡지까지 다 보면서 전태일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아, 이게 노동문제라는 것이 전태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년 말이었나? 우연히, 버스에서 우연히 이미경을 만났어요. 이미경은 이화여고를 나왔어요. 근데 걔는 부산에서.

이형진: 동기였어요?

최영희: 네, 동기예요. 중학교를 부산 경남 여중인가, 부산 여중인가를 나와가지고 이화여고로 온 애예요. 근데 고3때는 바로 옆 반이었는데도 미경이하고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얌전하고, 그리고 눈에 안 띄고. 저는 맨날 난리를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걔는 녹번동에 살고 저는 갈현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녹번동에서 미경이가 타는 거야. 그래 가지고 홍은동에서 1번 버스를 갈아타야 이대를 오는 거예요. 그 홍은동에서 갈아탈 때 미경이랑 같이 버스에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미경이도 관심 있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두 번째 버스에서 만났을 땐가? 그때 우리 언니가 학보사 기자인데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 언니 한 번 만나볼래?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이 된 이옥경이죠. 만나자고 그랬어요. 언니는 4학년이고 우리는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만나보니까 언니는 정말 이미 그 전태일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칼럼도 쓴, 그 이대 학보사 기자였고. 그래서 그 유능한 언니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형진: 서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최영희: 서클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모이자. 왜냐하면 저희 하진이하고 나하고 있고 박미호 언니라고 우리 하나 위에 사회학과 언니가 있었거든요. 우리 셋이는 굉장히 의기투합이 잘 됐고, 사회문제에 관심 가졌는데 거기에 미경이하고 옥경 언니가 들어오고 나니까 옥경 언니가 혜수 언니, 신혜수 언니를 데리고 오게 되고. 1년 후배 김명희는 이화여고 거울기자 1년 후배인데 사회학과를 왔으니 당연히 사회학보 팀으로 뽑았지요. 그리고 김명희 친구이자 사회학보 팀인 김자혜도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지는 거였어요.

이형진: 그게 사회대 쪽에 한 서클이었죠?

최영희: 그때는 사회대가 없어요. 처음에는 주로 문리대생이 중심이었지만 사대도 있고 가정대도 있고 전체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 했어요. 사실상 그 운동권 서클의 최초예요. 이런 정치 사회 문제 전체를 보기 위해서 만든 자발적인 조직.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직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자, 학교가 등록을 요구해 그다음에 지도 교수를 찾아간 게 누구를 할까 하다가 현영학 교수하고

이효재 교수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효재 교수님, 현영학 교수님은 저는 이효재 쌤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현영학 선생님이 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기독교 학과 애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영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더니 두 분이 지도 교수를 해주신 거예요.

이형진: 서클 이름도 정하셨나요?

최영희: 그때는 '새날'이라고 했어요. 새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클의 회지 제목도 글씨를 김민기가 써줬어요. 김민기가 아주 글씨를 근사하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유인물을 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유인물, 첫 번째 낸 새날 1호가 학생회를 비판하고 학교를 비판하는 그런 유인물이었어요. 학생이 8천명인데 3천부를 뿌렸으니 학교가 펄펄 뛰는 거죠. 안 된다, 이건 낼 수 없다. 불법 유인물이다. 근데 옥경 언니하고 혜수 언니가 그 학보사에 있으니까 학보사에서 전면기사를 통해 학교가 문제 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타협을 한 것이 이름이라도 바꿔라, 그리고 조건을 갖춰 정식으로 등록해라. 그러면 합법화 해준다. 그래서 새날이 '새얼'로 바뀐 거예요. 김민기가 다시 써줬어 제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서클 활동을 재밌게 한 거죠. 이제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3학년 봄에 그거 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형진: 72년인가요?

최영희: 71년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선거 참관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또 얼마나 극성맞아요. 안 된다. 나는 제일 고약한 데로 간다. 그래가지고 경남 거창으로 갔어요. 그래서 경남 거창에 가서 이제 그 토박이, 그 보수, 공화당 사람들과 다투고 항의하며 그 꼴을 봤고 그 부정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됐죠. 선거 며칠 후 참관인 보고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들어보러 간 제게 갑자기 사례 발표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목격한대로 말하고 요원한 민주주의에 한탄했더니 그때 보고 김지하씨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부르더라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심을 갖고, 발표를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일반 남학생들도 저한테 와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제 여자 운동권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형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선거 참관을 했고, 그래서.

최영희: 대학생뿐이 아니라 일반사회 분들도 많이 있었죠.

이형진: 이대만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모아서 발표를 한 거네요.

최영희: 근데 그때가 뭐가 있냐면 이제 핵심 운동권들이 주도한 데도 있고, 여기는 기독교 쪽에서 하는 거였어요.

이형진: 5가에서 했습니까?

최영희: 종로5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KSCF(한국기독학생회), 왜냐하면 우리가 참관인 명단을 어디다 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심재권이나 이런 그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줄까 아니면 기독교 운동 하는 데 줄까, 했다가 기독교 운동이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또 탄압도 덜 받을 것 같아서 그쪽에 명단을 넘겼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 참관인 보고대회를 한 거예요. 그뒤로 무슨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저보고 자꾸 와달라고 하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학순 주교, 원주에서 부정부패추방 농성하셨던, 그때도 가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나갔어요.

이형진: 대학생일 때 이미 유명세를 타셨네요.

최영희: 유명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도 발언을 하고, 그때 이제 김지하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갔었어요. 갔더니 이제 발언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웃겨가면서 발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였었죠. 근데 어쨌든 71년 3월 한영섬유 노조원 김진수 살해사건이 났을 때 바로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이었거든요.

이형진: 그 사건은 회사 측의 사주에 의해서...

최영희: 사주에 의해서, 청부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산업선교가 정신을 차린 거야.

이형진: 아, 그걸 계기로.

최영희: 그러니까 그전에 전태일 사건 때도 산선들이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김진수사건을 보면서 산선이 교회나 노총의 진면목을 본 거죠. 그전까지는 기독실업인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장 선교한 거였거든요. 사실상.

이형진: 그렇게 전도...

최영희: 공장 전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공장에 들어가는 거를 기독실업인 장로회 회사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표는 전도야. 하느님 신자로 만들고 순화시키는 거죠. 자기 노동자로 순화시키고.

이형진: 무지한 노동자들한테 이거라도 해서 좀 안정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최영희: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60년대에는 그렇게 갔는데, 이거에 불을 지핀 게 오글이죠. 오글 목사님이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못 뵈었어요.

이형진: 이제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9년에 입학하셔서 4년 동안에 이제 좀, 여학생이긴 했지만 상당히 활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서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식이 충분히, 성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73년에 졸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 운동, 또는 노동 현장에 가까이 가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최영희: 그거는 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김진수 사건, 사망후 두달 후인 5월에야 산업선교회연합회에서 장례식을 해줬어요. 그때는 산업 선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김진수 사건,

한영섬유 김진수 사건이 났었는데 자원봉사로 영안실 앞에서 제가 만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정보과 형사들이 학교에다 처녀가 총각 죽었는데 만장을 만들고 있다고, 학교에서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는 산업 선교회가 뭔지 잘 몰랐었어. 그런데 하루는 이효재 쌤이 저희들을 부르더니 조화순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형진: 4학년 때였습니까?

최영희: 3학년 때. 예, 이제 김진수 사건하고 거의 뭐 비슷한 시기 6월 쯤이예요. 조화순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노동조합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목사님 얘기를 듣기로 하고 강연회를 열었는데 사람이 거의 안 왔어. 거의 뭐 우리 식구들하고.

이형진: 한 10여명 왔다고 들었습니다.

최영희: 네, 한 11명인가 12명인가 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그게 일당백이었죠.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저희들한테 해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여성 노동자들도 저렇게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 그 인천 산업 선교회에서 학생들 훈련이 있다.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한 달 동안 훈련하는데 공장에 들어가거나 빈민촌에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셋이 갔어요. 장하진 이미경 최영희 셋이서 갔어요. 가서.

이형진: 초가집이었죠.

최영희: 초가집 아니었어요. 그때는 초가집 아니고, 저기 동인천역 바로 앞에 있는 인현 빌딩인가 송현 빌딩인가 거기 빌딩 5층이었어요.

이형진: 아, 초가집으로 가기 전이었군요.

최영희: 어,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갔더니 초가집은 61년도엔가 사놓기만 하고 그냥 뭐 그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69년인가에 선교 위원회를, 위원회만 그냥 이름만 거기다 붙여놨었지 거기서는 직접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71년도였거든요?

이형진: 동인천역 앞에 사무실에서?

최영희: 예, 사무실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서울 공대 산업사회연구회 팀들 윤조덕, 신철영 뭐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형진: 한 10여 명 됐나요.

최영희: 합해서 한 10여 명. 걔네들이 한 여섯 명인가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저, 조승혁 목사님이 미국에서 훈련 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훈련을 가기 일주일 전에 오글 목사가 안식년을 위해 한국을 떠났어요.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글 목사가 누군지 모르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하는 말이 계속 오글 얘기가 나와요. 오글이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조승혁 목사님 입에 붙은 거는 알렌스키, 알렌스키한테 훈련을 받고 왔었는데.

이형진: 알렌스키한테 직접 훈련을 받았나요?

최영희: 알렌스키 산하 기관. 그리고 알렌스키도 보기도 봤나 봐요. 한 번쯤은, 한두 번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바로 그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야 된다. 특히 빈민운동에서는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그때 제 숙소가 이총각 언니 집이었죠.

이형진: 총각 선배님은 그 장명국 선생님하고 최영희 선생님께서 집에 가끔 오셔가지고 수제비도 해 먹고, 그랬다고.

최영희: 나중에 산선 다닐 때. 그 엄마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결혼하고 장명국씨도 갔었죠. 제가 이제 거기서 잠을 잤는데.

이형진: 그게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만났다는 건가요?

최영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3학년 때 훈련 받으러 가서 제가 숙소를 총각이 언니 집으로 정한 거예요.

이형진: 그러면 총각은 당시에는 아직 총무부장도 아니었을 텐데요.

최영희: 아니죠, 아니었는데 지오쎄 활동을 하던.

이형진: 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최영희: 그런데 그 언니네 집이 만석동에 있는데 판자촌이에요. 그래서 그 판자촌 다락방에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 잠을 자는데 쥐벼룩이 너무너무 집요하게 나를 무는 거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만 물어요.

이형진: 새로운 인종이 왔으니까.

최영희: 저는 원래 모기도 잘 무는데 그래가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이형진: 괴로웠겠지.

최영희: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동일방직 다니는 자취한 사람 집으로 다시 옮겼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나 쥐벼룩 때문에 도망가야 돼. 그래서 그 집하고 친했지, 언니네 집하고. 그리고 언니하고는 친해요. 어쨌든 언니하고 친해. 그래서 그때 그 훈련을 받고 돌아오죠.

이형진: 공장 실습도 하셨어요?

최영희: 저는 하진이하고 미경이가 공장 실습하고, 저는 빈민촌. 근데 사실상.

이형진: 그 만석동이 빈민촌인데?

최영희: 그러니까.

이형진: 거기서 살면서?

최영희: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알렌스키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불가능해.

이형진: 그게 집을 방문해가지고 개기는 건데.

최영희: 예,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이론적인 훈련을 주로 받는 거였고. 그리고 빈민이 이렇다는 것을 매일.

이형진: 그건 이해했군요.

최영희: 매일 도는 거죠. 뭐 만석동은 그래도 나아요. 북성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어요.

이형진: 요새 가봐도...

최영희: 제가 1학년 때 사회조사를 하면서, 청계천 사회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많이 봤고 사당동도 다 해봤고, 목동에 뚝방도 했고. 송정동도 했고 다 했어요. 빈민촌이랑 빈민촌은 다 했는데 북성동 같은 데는 처음 봤어요.

이형진: 그 정도였어요?

최영희: 그 정도로 정말.

이형진: 비교가 안 돼요?

최영희: 비교가 안 돼. 그냥 그 진흙 벌밭, 이런 데. 화장실도 거의 없고 하여튼 진짜. 그런데 그거를 알렌스키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아무 데나 똥을 싸.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을 소리지. 얼굴은 허여멀건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네가 먼저 엉덩이 까고 싸라 그러겠지. 장기전으로 살면서 해야할 일이지요.

이형진: 그리고 욕하고.

최영희: 예,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10원짜리 동전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서 은행을 마비시키는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때 제가 배운 그 방식은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나중에 운동할 때 다 활용이 됐어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얘기들이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다 검증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거였죠. 조 목사님도 당시에는 검증 못 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형진: 그, 한 가지 짚고 갈까요. 조세희 선생님이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보면 빈민촌 성남 얘기가 한 세 편 정도 나오고 나머지 뒷부분이 사실은 만석부두 일대에 동일방직과 관련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경을 쓴 꾀죄죄한 목사가 이야기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밤을 새고 토론했다. 주말에. 그리고 날이 새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노래했다. 나 힘들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헤어졌다. 조세희 선생님도 당시에 거기 몇 달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조승혁 목사님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60년대에 조지오글목사는 직접 그렇게 노동자들을 매주 모아가지고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교육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이 남아 있던가요?

최영희: 아니, 우리가 받은 훈련도 오목사님과 함께 준비한 것이죠. 또 그거는 한 65년도 이쯤 돼서부터 하셨고. 그리고 일단 이제 공장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만나는 거는 공장 예배를 통해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와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아나 카플링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아는 그냥 일반 그 평신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해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전문가 교육, 노동 운동, 전문가로 교육을 시킨 것이 카플링이잖아요.

이형진: 황영환 선생님은 그 카플링 회원이었고? 사업장도 10여개 정도에 이르렀던 것 같더라고요.

최영희: 네, 그 카플링 회원이에요. 내가 산선 다닐 때 나를 어린 학생처럼 기특하게 생각하는 아저씨들이 가끔 와요. 중요한 상황에서 도와주고. 카플링 회원들이죠. 그러니까 인천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부평은 새로운 공장 지대가 된 거고, 인천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는 일제시대 때부터도 있었거든요. 늙은 여우가된 타성에 굳은 노조들이죠.

이형진: 대한 노총이 그때 나와 있었던 거죠.

최영희: 그러니까 그런 노조들이 다시 대한 노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노동조합이 있는 거대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석동 쪽에는.

이형진: 이천 전기, 대우중공업, 인천 제철.

최영희: 네, 그렇죠. 다 있어요. 한국기계 판유리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미 이제 굳어져 있는 노동조합이고 그리고 동일방직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나이하고 거의 같은 수십 년 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 동인천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여기는. 그러니까 신세계로 해서 60년대 한 중반부터인가 그 쪽을, 부평 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평에서 느헤미아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신진자동차, 뭐 하여튼 여러 개의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 삼원 섬유도, 예 맞아요. 유동우도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진자동차도 김창수 씨가 아마 일찍이 했었거든요. 그건 70년대 초반에 아, 70년도인가 시작을 했었으니까. 황영환 쌤도 역시 그랬었고.

이형진: 선생님 그러면요. 다시, 학창시절에 이제 처음 산업선교회와 결합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셨지 않습니까?

최영희: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사회 문제 전반적으로 하는데 노동 문제나 또 이제 경제 문제나 또 민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들한테 와서 강의해 주신 분들이 함석헌 선생님 박현채 선생님 유인호 선생님, 뭐 하여튼 그 지금 돌아가셔서 기억들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 열두어 명을 놓고서 강의하시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찾아주셨어요. 우리들을 훈련시켜주시기 위해서.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그렇게 이 여자아이들의 씨앗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방용석 지부장도 원풍모방 노동조합 바로 민주노조로 하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사례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알게 됐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어쨌든 해야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민주주의는 뭔가. 내가 참관인 가서 보니까 너무 멀고 아니더라. 그런데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의식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누구냐. 제가 농촌 가서 농촌 봉사활동도 해봤지만 농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농촌이나 노동자, 이 두 쪽이 의식화되고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면 여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무엇일까 고민을 한 거죠. 진로에 대해서. 그때는 노동자 농민이 반반이었는데 농촌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혀 염두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만약에 노동 운동을 하려면 그나마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노조와 하나님 빽 밖에 없는 거야. 반공 때문에. 그러니까 어용노조, 노총으로 갈 거냐(사실 노총에 자리도 없다) 아니면 산업 선교회를 할 거냐 이건데. 그때는 산업 선교회가 내가 가야 할 대상이라고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학년 1학기 때 우리 과에서 이효재 선생님이 사회 활동 실습이라는 3학점짜리 과목을 신설하셨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엔지오 단체들, 그 단체들에 가서 실습하고 거기서 평가 받아가지고 와라 해서 나는 그때 인천 산업선교회를 선택했어요. 가서 노동자들 서클 지도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하면서 학점을 받죠.

이형진: 그 활동을 산업선교회에서 조 목사님하고 같이...

최영희: 받아준 거예요, 저를.

이형진: 그래서 모임을 꾸려줬나요?

최영희: 아니요, 그거는 이미 그룹이 많이 있어요.

이형진: 거기 들어가서.

최영희: 동일 방직 그룹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이미. 그래서 그 그룹을 도와주면서

이형진: 73년 정도 되나요?

최영희: 72년도, 72년도 봄에.

이형진: 여성 지부장이 만든, 되던 때군요.

최영희: 그때는 바로 선거준비 시작하는 때. 72년 5월에 여성지부장 탄생이니까, 그때 바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거,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그룹에서 선거 얘기가 나와서 선거 운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우선 조원들 명단을 써라. 정말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인간 엑스 쳐라. 그다음에 우리가 설득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람 세모 쳐라. 시간이 없다. 이 동그라미와 엑스표는 빼라. 여기 세모에만 집중을 해라. 누구는 누가 만나고 누구는 누가 만나고 누구는 누가 만나고, 그런데 언니는 성공했어? 근데 내가 만난 사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이 성공한 언니가 다시 얘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제가 들어가는 서클에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형진: 언니뻘이었어요, 동생뻘이었어요?

최영희: 거의 같아요.

이형진: 그랬을 것 같네요.

최영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적은 사람도 있었어.

이형진: 총각은 언니였죠.

최영희: 그 언니는 한참 언니고.

이형진: 최연봉 기준으로.

최영희: 연봉이는 한참 아래고. 걔는 나중에 들어왔어. 75년에 입사했으니까. 그래서 한문도 가르치고 영어도 아주 상식적인 거, 그런 거, 한두 가지, 나는 영어 같은 거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니까 신문에 나오는 한문 단어를 가지고 의식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길 가다 간판 보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 갑자기 이효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인천에서 조화순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는 총무가 되신대요. 조승혁 목사님이 떠나시고 총무가 되시니까 그 여성 근로자들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 셋 중에 누가 와도 좋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봐라, 그런 거야. 난 그냥 듣고 흘렸어요. 내가 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나는.

이형진: 다른 두 분이 더 뛰어났어요?

최영희: 나는, 뛰어난 게 아니라, 그건 뛰어나서 가는 게 아니거든. 친화적이어야 되는 거야. 노동자 친화적이어야 되는데 우선 난 기독교가 아니야. 난 예배 보고 뭐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내가 기독교 기관에 와서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내용만 전달하고 지나쳤어요..

이형진: 이미경 선생님이 굉장히 친화적이었을 것 같아요.

최영희: 근데 선생님이 다시 불러.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급해요? 그랬더니 빨리 알려줘야 된대. 그래서 미경이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미 미경이는 딴 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미경이가 자기는 영문과, 영문과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사회선교 협의회로, 거기서 조승혁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갈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러냐 너는 영어 잘하니까 그거 하면 되겠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진이 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진이는 자기는 지금은 노동 운동을 하기는 어렵다. 우선 부모님들이 너무 저기, 기대치가 큰데 그래서 우선은 대학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아니, 어떡하지. 그럼 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안 가겠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집에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고. 보따리가 아니라 아예 호적을 파가지고 나가라고.

이형진: 연을 끊자 그러셨죠.

최영희: 왜냐하면 어렵게 오빠들이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를 가르쳤고, 그다음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취직해서 동생들 학비도 좀 대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도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데 근데 못 가게 하니까 갑자기 가야 될 것 같아. 아버지 앞에서 호적 파달라고 했어요.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큰오빠가 나이가 저런데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겠느냐고 그냥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학교를 다니니까 우선 파트타임으로 월 수 금 3일만 나와라.

이형진: 4학년 2학기.

최영희: 3일만 나와라 해서 내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직 서클도 활동도 해야 하고 다른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진이가 하루 나가주고 옥경 언니가 하루 나가주고 그다음에 내가 하루 나가고, 이렇게 3일 동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이렇게 일하고 그다음해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나갔죠.

이형진: 산업선교회의 실무자가 되셨네요. 73년에, 졸업하자마자.

최영희: 예, 그러니까 72년도부터 사실은 산업선교회 실무자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면 이효재 선생님이 그 조화순 목사님을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면서 당신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룹활동을 떠나야 해서 여성 실무자가 필요한데 월급 줄 돈이 없다. 교회들이 그때는 이미 후원을 끊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이제 옛날에 교회들이 돈을 좀 보태주고

이형진: 미국에서 계속 돈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최영희: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 아니, 그건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온 거고. 미국에서 돈이 들어왔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라고 교회들이 계속 헌금이나 이런 걸로 일부 줬었는데 이제 교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전혀 안 줘요. 70년도부터 벌써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기독실업인회 눈치보기 시작하면서 산업 선교회에 등 돌렸죠. 기독실업인회는 중요하지, 새끼 노동

자 신도들 많이 늘어나봤자 기독 실업인회 하나 나가버리면 교회 헌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 실무자의 인건비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한 일 년만 도와주시면 미국 감리교에서 3년짜리 프로젝트가 온다. 그러니까 이효재 쌤이, 참 정말 유명한 사람이 다 등장을 한다. 오덕주씨라고 전남방직회장 부인이고 옛날에 미스코리아 오현주 언니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죠. 이분이 국제부인회라는 그 모임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국제부인회를 이대 교수니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아는 사람이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매달 3만 원씩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효자동에 있는 그 근사한 집에 매달 돈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못 준다. 알고 보니까 산업 선교회가 이상한 데더라. 우리가 잘 몰랐었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똑 떨어졌어요.

이형진: 그러면 그 시점에 73년에 그러면 이사를 하셨어요? 그 집을 나와서?

최영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형진: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최영희: 예, 서울에서. 집을 나올 수가 없어. 나는 방을 얻을 돈도 없고 인천에서도 집을 얻어줄 수도 없고. 저는 갈현동에서, 그때는 산선이 화수동이에요. 72년 봄에 산선에 갔을 때 화수동으로 이미 이사를 갔어.

이형진: 그때 초가집이었나요?

최영희: 초가집이었어. 그 3학년 방학훈련 받을 때는 빌딩이었는데 4학년 1학기에 가니까 초가집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73년 1월부터 상근을 해요. 삼만 원은 줬어. 삼만 원을 주는데 출퇴근이 가는 데 두 시간 반 오는데 두 시간 반이에요. 기차가 바로 떠나면 세시간이지. 전철이 없을때니까. 아침밥 당연히 못먹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홉 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두 시간 반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게 3교대로 돌아가는 동일방직 노동자, 서클을 지도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는 클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밤에 들어가고 밥도 못 먹고 밤에 집에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몇 달 있다가 5월 말인가 갑자기 신문에 대문짝만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고려대학교 간첩단 사건.

이형진: 인혁당 사건 전이었어요?

최영희: 아니, 그 전이에요. 고려대 간첩단 사건이라 해서 소위 김낙중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제가 4학년 여름방학 때 도계 탄광을 갔었어요. 우리 후배가 고대 노동문제 연구소에 뭔 자료를 갖다 주러 갔더니 거기서 도계탄광에 한 일주일 훈련 받을 사람 있으면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4학년 때 대학원 다니는 언니들하고 같이 후배 하나 데리고 4명이 갔어요. 하지만 사흘인가 나흘 있다가 사실은 쫓겨났어. 왜냐면은 활동도 못했어요. 밤에 보니까 교련복 바지 입은 애들을 봤어요. 학생들이 온 거예요. 걔네들은 탄광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아줌마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탄광촌의 삶을 조용히 느껴보라는 것이었죠. 조사도 좀 해보고 그러라는 거.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석탄가루 뒤집어쓰는 선탄작업도 해보고 주부들이 모이는 수돗가에

서 얘기만 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산촌 중심가에 휴게소가 있는데 생필품 매점과 식당을 겸한 거예요. 그 휴게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고 오면 술도 한 잔 먹고, 그리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이런 걸 하는 덴데 하루 딱 두 시간만 운영했어요. 그곳에서 그때만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더군요. 그들의 일상대화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배려였지요. 운동성이 덜한 일상의 일이니까 흔쾌히 했죠. 근데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어나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대생이, 술, 이대생이 거기에서 술 따라 준다 이래가지고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보따리 싸라더니 미안하다고 경포대로 데려다 놓았어요. 다음날 바로 상경했지요. 아~ 사흘은 아니고 나흘인가 보다. 근데 그 사건에.

이형진: 그게 나중에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최영희: 그래서 그게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게 갈 수가 있나. 가면 나는 너무 뭐가 걸린 게 많고 그들이 미워하는 산선에 있지, 맨날 정보부에 끌려가고 뭐 경찰 조사 받은 게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건 끌어넣기 너무나 좋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선에다 말도 못하고 튀어버렸어요. 세상에 한 번 그 간첩단에 걸려버리면 그다음에는 형을 살았던 안 살았던 두고두고 써먹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개월을 도망 다녔어요.

이형진: 73년에 아휴 그런 일이 또...

최영희: 아마 6월 지나고 한 7월 이쯤, 7, 8월에.

이형진: 잠잠해지고 나서.

최영희: 네,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형진: 굉장히 파란만장하신데요.

최영희: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산선에 나와 보니까 아니, 서클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바쁘시지,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방식이 실무자가 꼭 들어가서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목사님이 해오셨고 나도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면 안 돼. 눈치 줘. 왜 쟤 저러고 있나.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이거 이거 이거를 읽어보고 토론을 해라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야단맞아.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걸 계속하니까 결국은 그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 기회에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전담을 하니까 한문도 가르치고 신문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의식화를 할 수 있는 영화 그런 얘기도 해줬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꼭 들어가야 되지만 어떤 거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예나 요리실습도 많이 하더라구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도나스를 만드는데 밀가루 반죽은 다 만들었는데 기름이 180도에 끓을 때 이걸 넣으라고 하는데 지금 기름 온도가 180도인지 200인지 알게 뭐야, 손가락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조금 떼서 넣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걸 해봤냐고. 근데 왜 내가 걔네들의 선생이냐고. 걔네들이 오히려 내 선생을 할 수 있지. 근데 내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난 기름이 끓으면 물처럼

끓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도 안 끓으니 넣자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떠올라.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불을 껐나? 이러면서 젓가락을 넣었더니 자동차 타이어가 나와, 새까맣게 타버린 거죠. 못 먹었어. 그 도너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요리책 이런 것만 보면 금방 나온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여성 잡지 있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 잡지 보면 요리하는 게 다 나온다.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맡아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선생이 돼라. 요걸 훈련을 시켰어.

이형진: 그 수동적인 사람들을 이제 바쁘게 만든 거예요?

최영희: 예, 그런데 물론 그전에 목사님이 노조 지부장도 뽑을 수 있고 이런 훈련이 돼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담당선생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은 자기네들 그거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들어가서 내가 오늘은 20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수를 한다 그러면 수예점 알죠? 이번에는 우리 둘이서 이걸 준비해서 책임지고 하겠다 하면 그 둘이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쳐라.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한 달 계획을 짜놓으면 모든 클럽들이 그대로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이제 살만 하더라고. 목사님하고는 처음에 좀 다퉜지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공장의 새 사람들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일방직만 뒤치닥꺼리 하고 있겠느냐. 그러면 너무 타성도 생기고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당시에 여성근로자들은 그렇게 해서 길러놓죠? 그러면 시집간다고 나가. 결혼하면 다 나가게 돼있던거야.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회사로 간다고 가고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채워. 이게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선배가 이 신병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의식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형진: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몸소, 이제 최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그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 산업선교회는 최 선생님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영희: 물론이죠. 다른 사람도, 유흥식 선생님은 이미 그 전에 60년대에 이미 조승혁목사 계시고 오글 목사 있을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흥식 선생님은 노사분과 담당, 그리고 70년도쯤에 산업안전분과를 담당했어요. 참 대단한 것이죠, 산업안전 분과를 만든것은.

이형진: 예, 산업안전 문제를 처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영희: 예, 그거 대단한 거예요. 산재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조승혁 목사가 거목이에요. 보면 그분의 행동이나 또 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대단한 운동가예요.

이형진: 오글 목사님 이후에 사실은 산업 선교회를 이끌어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좀 있으실까요? 조화순 목사님 그리고 계시거든요.

최영희: 아니, 윤문자 전도사는 잘 몰라요. 김정근 목사 모르고 조은걸 몰라, 김호연 몰라, 이름은 들었어 다. 근데 이용식 곽희숙도 몰라. 제가 들어가니까 전용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1년쯤 된듯했어요. 그분은 도시선교, 즉 빈민문제 담당이었죠.

이형진: 지명식 기억나세요?

최영희: 지명식 씨. 아니, 이 사람은 실무자는 아니었어요. 실무자는 아니고 자주 오시는 분이었어요.

이형진: 그럼 유흥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동 경제 문제 담당하시면서 주로.

최영희: 유흥식 선생님이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형진: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나요?

최영희: 아니요, 하여튼. 유동식 교수의 동생이에요. 그 인연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안 하셨어요. 경제학 공부는 많이 안 하셨지만 어쨌든 변함없이 한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는 대단하신 거죠.

이형진: 그러면 73년, 이제 동일방직 아가씨들과의 모임을 유지하면서 좀 변화를 시켰고.

최영희: 그걸 체계화시키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형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제 여유가 생겼고.

최영희: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사이에 느낀 거는 실무자들이나 또 제가 훈련받는 옛날에 훈련받는 과정에서 오글 목사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무자들이 너무나 오 목사를 존경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오 목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 목사 같으면 이랬을 거, 오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해서 저는 오 목사는 이미 본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고 어디선가 실무자가 나를 감시하는 것은 오 목사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몸에 딱 이렇게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73년도 가을, 아마 10월? 10월이나 이쯤 됐을 때 에큐메니컬선교협의회 주최로.

이형진: 프라이스 신부님?

최영희: 아니에요. 에큐메니칼은 조승혁 목사지. 조승혁 목사가 하는 에큐메니칼선교협의회에서 산업선교 10주년에 대한 평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그러니까 인천 산선이 아니라 산업 선교가 시작된 지 10년이죠. 10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 했는데 저보고 갑자기 주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일 년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파트타임까지 합하면 일 년은 넘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제일 어리다. 이게 전국에 있는 전체 실무자들 중 네가 제일 어리다. 그리고 제일 오래된 분이 조승혁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조승혁 목사는 긍정적인 것을 발표를 하고 나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는 거야. 이 꼬마가 이 어른들을 놔두고 발표를 하라니, 생각해 봐. 스물두 살 스물세 살?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조승혁 목사가 막 해야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서로 사례 발표들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서로 또 아카데미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전체 실무자 회의도 하고 이런 교육도 받고. 문동환, 지명관 씨,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원룡 목사님

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엄 하는 날, 내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어떤 서양 사람이 와서 미스 최? 이래요. 그래서 난 미스 최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랬더니 아, 최 선생. 맞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나 오명걸 목사예요.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형진: 귀국하셨군요.

최영희: 그때 서울대 초청으로 오년간 계약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데 걱정이에요. 어른들 비판하면 나중에 나 야단맞을 것 같은데, 하니까 아니라고. 오늘 이 모임에 최 선생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정확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아기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의 잘못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용기를 내야 된다.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다 말해라. 그래야 우리는 많은 것을 쥐어가고 아니면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얘기를 했죠.

이형진: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버리셨어요?

최영희: 했어요.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빈민 운동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빈민위에 군림하는 목사 아니었냐. 하하하.

이형진: 아, 세게 나갔네요.

최영희: 그런 목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무마 시켜주셨어요. 그때 오 목사하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나서 73년 가을 이때부터 제가 좀 시간이 나면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형진: 그래서 부평...

최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주변에 인천 근처에서 노동하는 사람 없냐. 그다음에 동일방직 친구들한테 혹시 인천 부평이나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 있냐, 아는 사람 있으면 친구들 소개해 달라. 실제로 소개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 아는 언니가 있는데 우연히 네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같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때 안성기가 처음으로 데뷔한 영화예요. 그게 가난한 청년들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면서 사회 상황이나 노동 현장의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형진: 73년 말 내지 74년 초였습니까?

최영희: 아니죠. 73년 가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일방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시간이 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러 낮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글 목사한테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이제 용기를 내고 야, 일을 직접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동일방직 다니는 애 중에 하나가 맨날 오면 막 온갖 욕을 하면서 푸념을 해요. 세상이 불만 투성이야. 나이는 나보다 한 살인가 어린데 을례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을례가 내가 말을 들어주니까 자주 와서 얘기하는데 어느날 자기가 회사를 지금 그만둬야 된대, 자기 동생이 또 사고쳤대. 얼마 전에도 빚내서 돈을 줬는데 또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서 빼내야 된대. 자기가 지금 퇴사를 해서 그 퇴직금으로 동생을 빼내야 된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거야. 엄마는,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보내고 그런 새끼는 고등학교도 보내줬는데 맨날 엄마는 나한테만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막 그러면서 울어. 그래서 을례가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빼줬어 이제 다시 취직을 하는데 이 근처에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동일방직 말고는 여자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평공단으로 얘가 뛴 거예요. 그래서 부평공단에 가서 최초의 팬티스타킹을 만드는 미도파 섬유라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 비싼 캉캉 팬티스타킹. 그런데 미도파에 가니까 부평으로 출근하니 저를 볼 시간이 없죠. 한 번은 을례가 퇴근해서 왔더라고. 자기 숨 막혀서 못 산대. 왜 거기는 근로 조건은 좋지 않냐 그러니까 방직공장보다는 훨씬 더 폐결핵은 안 걸리고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거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통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형진: 그나마 동일 방식에서 이제 맛을 좀 봤는데.

최영희: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못 살아요. 가슴을 치면서 막 그래요. 올 때마다 그래. 야, 너도 그럼 거기를 동일방직처럼 만들어. 아,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저 알잖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못 해요, 못 해. 을례야, 그러면 너 할 일이 있다. 가서 내일부터 애들 잘 관찰을 해봐라. 근데 모든 애들이 아, 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밥 먹을 때도 그 옆에만 앉고 싶어 하고 갈 때도 지가 걔 팔짱을 끼고 누군가가 걔하고 친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애가 있을 거다. 걔가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있대. 이런 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주일 더 지켜봐라. 그리고 네가 접근을 해라.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물을 두 컵을 들고 가서 걔한테 나눠주고 옆에 앉아봐라. 그리고 걔가 다른 애들하고 하여튼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좀 들어보고. 그랬더니 애가 그렇게 얌전하고 그리고 허튼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걔를 좋아한대. 그러면 그냥 만나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한 번 니 자랑을 했더니 어떻게 그런 애가 있느냐고 한번 보고 싶어 한다.

이형진: 자, 이제 미도파 장사를 이제 한 거죠.

최영희: 네,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더니 아,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바로 한순임 친구예요. 정말 기회는 어디선가 올지 모르는거예요. 그게 진짜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조약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성경에 있나 모르겠어. 그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형진: 74년 초에요?

최영희: 73년 말이에요. 말 아직 안 됐어.

이형진: 가을이었어요? 예.

최영희: 가을이야, 가을. 그래서 그러면은 친구를 만나자,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난 거야. 그랬더니 걔하고 얘하고 을례하고 만나니까 걔네들이 또 소개를 하는 거야. 다른 애들 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형진: 한순임 만난 순간 느낌이 딱 왔어요?

최영희: 아, 그럼요. 그래서 걔가 또 다른 애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 회사에서 두 명씩, 더 많으면 안 된다. 두 명씩만 와서 교육을 하자, 하니까 좋대.

이형진: 처녀들로 이제 카플링을 만드셨네. 하하.

최영희: 그래 가지고 12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4시간씩 했어요.

이형진: 조 목사님한테 보고하셨어요? 하하하. 이건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최영희: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하시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걸 한다면 비신자들은 싫어해., 그리고 목사님은 흥분하면 선을 넘어.

이형진: 예, 물불을 못 가리시죠.

최영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해야지. 너무 하나님을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만 했지. 근데 그 교육을 어디서 했느냐면 유동우씨가 주로 쓰던 청천동 자취방에서 했어요.

이형진: 당시에 유동우 선생의 집은 삼원섬유 노조가 활성화되고 그 한 해 동안에 자취방에서...

최영희: 아니, 그건 아니야. 삼원섬유가 어려워지고 해고된 후 부평지역 활동을 위해 산업 선교회에서 얻어준 방이에요. 허름한 집의 뒷방인데, 방구석이라고 궁뎅이 하나만 따뜻하고 어찌나 차가운지.

이형진: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최영희: 나중에 그랬나봐요., 사실 교육할 곳은 못 돼요. 그런데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나는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5시 반이면 대개 퇴근을 하니까 6시부터 교육을 해서 10시에 끝나요.

이형진: 청천동 어디였던 것 같죠?

최영희: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청천동인지 산곡동인지도 헷갈리고. 그렇게 4시간을 교육을 하고 보냈죠. 이거를 3개월 코스로 계획표를 정하고 그거대로 하는 거야. 근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실천할 수 있는 숙제, 우리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할 수 없다. 누군가 뜻 맞는 사람들하고 같

이 해야 되고 그 동료가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찾아야 된다, 지금부터 찾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쨌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합법적인 조직은 노동조합밖에 없으니까 노동조합을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런 얘기하고. 근로조건 얘기할 때도 딱 법을 가지고 설명해요. 전에 을례한테 얘기했듯이 물 먼저 갖다 주는 것부터 그다음에 사람 보는 거, 선택하는 방법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조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찾아봐라. 이번 주에는 머릿속으로만 찾아봐라. 그 다음 주에는 접근을 해라, 이렇게. 그것도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사귀느냐 이거를 토론을 시켜요. 그럼 거기서 몇 가지 좋은 방법들이 나와. 그러면 이중에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하고. 시간이 좀 걸려도 3개월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이형진: 한순임은 자기 친구들 데려왔죠.

최영희: 그랬는데 2개월이 딱, 아니 2개월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2개월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12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1월 말쯤 됐나. 1월 말쯤 됐을 거야. 갑자기 교육하러 갔는데 한 20명 정도가, 여자들이 몰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들통 났나. 너무 놀랬거든요. 그때 한순임이 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애들이 선생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얼마나 많이 진전이 됐기에? 그랬더니 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4개가 동시에 터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하나만 터트리면 나머지는 다 들통이 나요. 들통 나고 그다음에 공단 전체가 경계태세를 갖춰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다 큰 회사들이고 좋은, 튼튼한 회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준이 높고, 숫자도 많고, 부자 회사들이야. 삼원 섬유처럼 문 닫겠다 으름장 놓을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뭉쳐 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트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터져버리겠더라구. 또 개별적으로 조용하게 터지면 소리 없이 뭉개버려요. 아,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진 수준까지 와버렸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 지금 내 생각과 벗어나서 진행이 되지만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함께 교육받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빨리 진행을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네도 빨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반도상사 사람들은 어디 큰 중국집으로 데려가라 그랬더니 어디 어디 중국집으로 오시면 되겠다고. 근데 토요일날 저녁이니까 사람들이 없었어, 중국집에. 아주 큰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죠.

이형진: 20명 정도.

최영희: 네, 20명 정도. 거의 21명인가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굵직굵직하더라고 사람들이. 뭐 아주 애기들이 아니야.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리 있고 질문도 예리하게 하고 그래. 원래 한순임이가 자기는 검사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검사반이 물건을 다 만들어 놓으면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검수해가지고. 그래서 검사원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 만든 것이 나가는 거야. 근데 이 검사반의 반장이야, 한순임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가 고속 승진을 한 애야, 보니까. 그만큼 인정을 회사에서도 받고 능력이 있는 애였던 거죠. 우선 말을 엄청 잘해. 그래서 얘가 괜찮은 애다 그랬는데. 검수관이니까 모든 부서를 돌아다녀. 구조가 지금. 모든 부서를 돌아다닐 수 있고 검사원 두 명을 각 조마다 다 파견해 있어요. 검사원들은 조마다 파견된 두 명의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 일

반 직원들은 파란 옷이야. 이 한순임이가 노란쟁이들 대장인 거야. 그러니까 전 부서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검수 애들한테 물어보면 조별로 훌륭한 인성이 나오잖아. 얘네들이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척척 뽑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얘기를 이들한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었어. 한순임이 자신있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하다고, 첫날은 합법적인 얘기만 했어요. 주어진 권리도 못 찾고 그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활이 가장 편하고 행복해서 이대로 10년, 20년 산다고 하자. 여러분들이 10년 후의 삶을 생각해 보고 2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하더라고. 사실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 살지, 내가 삼십 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의 하꼬방에서 살 것인가, 이런 거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 조직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 순임이를 따로 불렀어요. 빨리,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세 명을 뽑아라. 그래서 네 명이 우리의 핵심이다.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특히 너 같은 리더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잘하면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데들이 너무 어렵게 고생하고 있다. 내가 삼원섬유가 노조 하면서 너무 고생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기선을 제압할까, 노동자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할까를 최우선에 두었어요.

이형진: 거기는 모여서 우는 게 일이었어요.

최영희: 끊임없이 문제가,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야 된다 이제는. 처음에 한 방에 쳐가지고 여성근로자라고 우습게 보지 않게, 성공하는 걸 보여야지 계속 지는 것만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냥 처음부터 확 치고 들어간다. 노조? 그건 나중에 만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순임이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긴급 조치 1호에서 4호까지 쳐진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얘기할 것이 있고, 나하고 네 명이 얘기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20, 이제 26명이래, 그럼 26명 이상 더 늘리지 말아라, 26명이 얘기할 게 있다.

이형진: 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죠?

최영희: 알고 있었죠. 나는 이화 대학 나왔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서민들도 제대로 대접받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여러분은 서민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산업 선교회는 이런 데라고 설명은 이미 다 했죠. 산업 선교회도 처음에 노동자들한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했는데 공장에 일요일 날 예수 믿는다고 안나가면 굶어 죽는데 언제 교회 나갈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맨날 노동자들이 그랬대.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천당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천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깨달은 게 산업선교회 사람들이다. 그렇게 다 설명을 했죠. 왜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태일 얘기도 하고, 다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 네 명은 정말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했더니 장현자, 옥판정, 김복순. 이 3명을 뽑았어요.

이형진: 추송례씨도 있었나요?

최영희: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이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핵심이 된 거죠.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리더의 능력을 키워 확실히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리더를 신뢰하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활동에서 리더가 신뢰받지 못하면 반드시 조직이 흔들려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뒷통수 치고 뺏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회사가 부추겨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더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힘이 나고 안 나고, 이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저 리더를 보면 오늘 내가 나가서 싸워도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나보다 훨씬 나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순임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죠. 제가 물어봐요, 의견을. 옛날에 어떤 노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방법도 써서 이렇게 된 노조들도 있었어. 이건 괜찮을까? 어떤 방법이 더 괜찮을 것 같으냐. 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이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을 한순임이 하게 해요. 저는 여러 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먼저 아니까 4명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버벅거리면 결국 한순임이 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의견 어떠냐, 얘기를 서로 보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4명이 모여서 디데이도 정하는 거야. 어떤 날을 정해야 회사가 빨리 요구를 들어줄까? 이것만 질문을 던지고 그 날짜도 여러분들이 정해라. 선적이 임박한 날! 수출 물품이니까 선적 시간이 임박했을 때 해야 된다로 결론짓고 확정. 그다음에 유인물도 만들기로 해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농성투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순임한테 말해줘요. 필요할까 어쩔까, 한순임은 자기의견을 넣어 잘 정리해서 4명과 함께 모일 때 논의해서 결정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해요. 26명은 자주 안 만났어요. 스물여섯 명을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형진: 그게 2월 26일인가요?

최영희: 그게 이제 첫 번째 디데이가 26일이죠. 그래서 제가 3일 전인가에 마지막으로 26명을 만나요. 아마 24일이지요? 그때는 계속 동지애만 얘기했어요. 동지애라는 말까지도 그렇게 그런 거창한 말 안 쓰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려우면 반드시 같이, 함께 노력하고 구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접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험난한 길이다. 그렇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탄한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단하면 이기는 거고 느슨하면 깨지는 거다. 전투가 시작되면 일사분란하게 해야한다. 지도부를 믿고 두려움을 보이지 마라. 회사는 여러분의 떨리는 눈망울도 무기로 쓴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함께 박수치고 난 먼저 나왔어요. 제가 먼저 나오면서 중국집 번호를 알아가지고 나왔지요. 길가 공중전화에서 한순임 바꿔달라고 전화했더니 이제 한순임이 전화 받아. 오늘 몇 시에 어디로 갈 거지? 그러니까 성남으로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서울에 몇 시에 오지? 그랬더니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종로2가 삼화 고속 정류장에서 보자. 저는 기다렸죠. 그날 걔가 유인물을 하러 친구 인쇄소로 간다고 했거든요. 가리방 긁어서 하는 작은 인쇄소였어요.

이형진: 아, 유인물을 만들어 오기로 한 거예요?

최영희: 예, 순임이가 만들어오기로 했어. 그런데 글을 썼다고 했는데, 글을 못 봤어 내가. 4명 모임에서 6개 요구 조건 통일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하나 넣고, 누구나 알고 함께 부르기 쉬운 곡

을 찾아 가사는 본인들이 붙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스물여섯 명은 내가 이런 얘기한지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삼화고속에서 만나서 바로 옆 다방에 올라가 딱 20분 만났어. 글을 보니까 너무 잘 썼어. 모이는 장소까지 다 그림으로 그려놨더라니까. 2층에 수제실.

이형진: 너무 과격해요?

최영희: 그 내용이 좀 노래가사가 과격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센 거는 좀 줄이고. 조금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좀 빼고. 그래서 금방 고쳤지. 그 대신 이걸 어떻게 회사로 들고 들어갈 것인가, 잘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맘이 짠하더라구요.

이형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최영희: 얘기를 못하고 계속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산업 선교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이었어요. 삼원 섬유 문제 때문에 아주 찍혀 있고 이제 탄압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면 바로 깨진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못하게 할 거 같애. 근데 이미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내 힘으론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쫓겨나는 거지. 26명 마지막 모임 그 전날인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걱정 반 칭찬 반, 우선은 아주 기가 막힌 거야.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막 이러시더니, 근데 장하다 장해. 어린 것이 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을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이미 부평 어느 여관에서 만나 마지막 정리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목사님한테 미행 붙었을까봐 막 시장 길을 빙빙 돌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시고 여관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중국집에서 26명에게 다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형진: 처음에는 대형사고 쳤네.

최영희: 대형 사고구나. 아, 감당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나를 그렇게 기를 죽여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장하다 장해. 그래서 걔네들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관방에 와있는 네명과 만났더니 나는 목사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빽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 빽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자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옛날에 또 계속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최영희라는 이름을 잊어라. 만약에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을 찾아서 데려가면 조화순 이름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철석같이 대답했지만 얘네들은 웃기지 그게. 그리고 나도 속으로는, 목사님은 안 두드려 맞아서 저걸 몰라. 한번 맞아보시면 아무 소용없슴을 아시지.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형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 빽이라는 거예요?

최영희: 응, 하나님 빽, 그게 아니라 나를 이, 최영희를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 목사님 그래도 진짜 목사님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바로 가셨어요. 잘하라고. 그날 밤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게 구호 같은 거 써 붙이는 거. 그거 써 붙이는 거 매직이랑 이

런 거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가기, 길게 써 붙일 거 옆으로 써 붙일 거 이런 것들 다 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는 어떻게 치는 거고, 부서들 점검해서 가장 강한 부서들을 바깥에다 배치하기. 그러니까 조별로 있어야지 이게 단합이 되지, 모르는 사람하고 팔짱 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별로해서 가장자리 그리고 단결력이 약한 조들을 안쪽에 넣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그 한순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팀들을 배치하기. 그리고 한순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코너에서 진두지휘한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마이크 주지 말아라. 마이크는 꼭 한순임이나 4명만 주는 거지, 회사에도 주지 말고 뭐 어떤 놈들이 와도 혹시 본조, 노조연맹이 도와준다고 해도 다 주지 마라. 그리고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협상을 하면 속거든. 협상 필요없이 이 유인물에다, 여기다 도장 찍으라고 그래라. 여기다 도장을 찍는 거야. 그게 도장. (통화) 이제 그런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발언할 수 있게, 그게 좋았던 거 같애요.

이형진: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그랬고,

이형진: 그게 그래서 그 투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영희: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순임이가 성남에서 유인물을 가지고 부평으로 와서 미리 소집해놓은 멤버들을 중국집에서 만나요. 아마 20여명이 준비물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죠. 그러면서 구호 쓰는 거, 매직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나눠서 미리 갖다 놓자. 아침에 들고 들어가는 거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기숙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들고 안으로 들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원래 계산은 아침에 그걸 뿌리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저녁에 퇴근하기 직전에 이거를, 현장에서도 이렇게 슬쩍슬쩍 구겨가지고 이렇게 옷 속에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또 탈의장에, 이런 데다가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게 25일이예요. 원래 계획은 100여장씩 나눠 가진 사람들이 출근한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확 나눠주기로 했는데 미리 뿌린 거죠. 동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중국집 회의에서 바꾼거예요.

이형진: 전날 저녁에 이미 다 해버렸어요?

최영희: 네, 다 진행을 했던 거야. 나중에 들었지.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저녁에 퇴근하는 그 통근버스 관리자들이랑 다 같이 타고 가요. 조금도 비밀이 안 샜다는 거예요. 그 천 몇백장의 유인물이.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난 한순임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형진: 실제로 그랬죠.

최영희: 이거는 정말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한순임의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싸움이 잘 됐죠. 그중에 이제 몇 명은 서울로 가서 언론에 찾아가라. 그때는 사건이 일어나면 회사도 정부에 찍히거든. 근데 언론 가서 한 거는 별로 효과는 없었어. 왜냐면은 언론이 엉터리로 내주니까. 부평공단에서 동종업계에서 제일 임금이 높은데 저렇게 농성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회사 말만 듣고 그렇게 쓰는 거야. 그걸 듣고 농성장은 분노가 더 충천했지만.

이형진: 출근하자마자 그러면 이제 그 전날 뿌려졌고, 출근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최영희: 예, 애들이 다 유인물을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저 기숙사 사감들이 또 야, 빨리 출근해 빨리 출근해. 10분 전에 막 나가라고 난리 치거든요. 기숙사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먼저 가서 수제실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제실 작업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리케이트 쌓는 걸로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카메라 감추고 이렇게 다 VCR인가 뭔가 그런 게 다 있어요. 작업장이 몽땅 다. cctv 그런 거 있죠. 다 가리고 그런 작업들을 역할 담당자들이 부서원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밤 열 시까지 농성을 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형진: 천 명 정도였나요?

최영희: 1400명이에요. 직원이 1400명. 거의 다 참가를 한 거죠. 1340명인가 그게 무슨 자료에 나왔더라고. 1340명이 참여했다.

이형진: 그러니까 이제 하루 농성을 끝냈네요?

최영희: 네, 하루 농성을 끝냈어요. 그리고 사실상 협상을 했어. 그걸 뭐 이제 나중에 그 반도상사 책을 보면 나오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아무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고, 그 임금 인상 근로 조건 개선 다 하겠다고. 시설들 나쁜 거 .

이형진: 개선하겠다?

최영희: 이제 봄 되면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큼은 했는데, 사실상 별로 준 게 없어. 이제는 다 협상으로, 진짜 협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결성해 준다, 거기서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조가 쫓아왔어. 섬유 노조가 쫓아와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주겠다고 꼬신거야.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꼬시고, 그래가지고 그 김상문, 본조 쟁의부장 한테 마이크를 준 거야. 왜냐하면 밤 10시가 되도록 협상이 안 되니까 지도부들도 초조하고, 전체가 점심도 못 먹었지, 저녁도 못 먹었어요. 회사에서 끼니마다 빵을 던져주는데 빵 안 먹겠다고 다 도로 막 던져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데 이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판단을 그렇게 한 거지.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첫 싸움은 성공적으로 끝냈어. 그러고는 와서 설명을 하는데 잘했다. 어떡하겠냐. 그리고 요구대로 안 된 거는 그렇지만 노조를 만들어 준다니까 괜찮다. 일단 노조를 만드는데, 본조가 절대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 안 만든다. 지금부터 잘 관찰을 해라. 그놈이 어떻게 왔다 가는지 잘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회사만 왔다 가는 거야. 순임이는 안 만나고. 노조 만들어주겠다고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3월 15일인가?

이형진: 3월 5일에 결성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최영희: 3월 5일날 하는 걸로 날짜를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순임이 중간보고를 하러 왔는데 심상치 않다는 거야. 지금 회사와 짜고 남자 경비를 지부장 시키려고 하는 거 같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 3월3일 밤에 다시 네 명을 부른 거죠. 그런데 이미 감시가 심해졌기 때문에 서울 영등포쪽에 여관을 잡았어요. 꼬불꼬불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거기서 밤새 다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신경을 너무 써서. 무슨 위염 같은,

신경성 위염이...

이형진: 경련 같은 게 왔나요.

최영희: 신경성 위염이 와서 식은땀 뻘뻘 흘리고, 그 여관에서도 자면서도 막 헛소리 하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그 준비를 한 거야. 다시 싸워야 한다. 노조 결성식에서 이러이러한 조짐이 보이면 기습적으로 한순임이 뛰어나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시에 소리를 질러 회의 진행을 막는다. 상식적인 노조결성식의 순서를 설명해주고 이 선을 넘기면 끝장이다. 얼렁뚱땅 회의 진행하고 방망이 두드리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어용노조를 뒤집기는 정말 힘들다. 차라리 결성식을 미루는게 낫다. 내일 다시 스물여섯 명을 모은다. 그리고 그들한테도 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26명은 또 일반 직원들한테도 지금 회사와 섬유노조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 우리를 빼고 경비를 노조지부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들이 싸운 보람도 없이 어용 노조 만들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조용히 돌린다. 한순임은 나가서 갑자기 말하려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성명서를 미리 써서 준비해 간다. 특히 회사와 본조가 짜고 하는 짓을 사실대로 폭로해야한다. 지난번 아쉽게 합의한 것 무효화하고 다시 그 요구조건을 관철 하자. 이정도만 얘기하고 나는 통증 때문에 진통제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들은 새벽에 여관을 떠나 출근했죠. 밤새 머리를 맞대고 그들은 대책을 세웠지요. 나는 그냥 계속 자고 있고. 그리고 다음날 5일 결성식날 난리가 난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때 뭐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지.

이형진: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건가요.

최영희: 그 단식은, 농성투쟁을 하니까 단식이 된 거고 또 안 먹으려고 하니까 단식이 된 거죠. 5시 반에 전 직원 다 모아 놓고 구내식당에서 노조 결성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내빈도 왔어. 부평지역 인사들과 섬유노조 관계자들, 동일방직 주길자 지부장도 오고. 거기서 섬유노조 쟁의부장 김상문의 사회로 미리 회사와 짠 각본대로 전형 위원을 뽑아. 전형위원들이 결정한 간부 명단을 칠판에 적는데 완전히 회사각본대로라서 한순임은 바로 튀어 나가 마이크를 잡고 총회무효를 주장했어. 그때 여자 전형위원이 폭로를 한 거죠. 지금 김상문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대로 했다. 강제로, 자기는 반대했는데~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김상문을 잡으라고 소리치며 몰려가고 내빈들은 혼비백산 흩어져 갔어. 분노한 노동자들은 울음바다가 되고 혼절한 3명은 구급차에 실려 갔대요. 한순임의 호소력 있는 준비된 연설에 다시 대오를 갖춰 농성을 했지요. 형사들 3-40명이 이미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 누가 주동자인지를 농성하는 과정에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잡아가려고. 그리고 새벽 5시에 방망이를 든 전경 300명인가 400명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동자들을 잡는 거죠. 지도부를 보호하려고 스크럼을 짠 8백여명을 방망이로 끊어내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두드려 맞고 못에 찔리고 기절하고 진짜 전쟁터가 된거죠..

이형진: 거기가 4공단, 갈산동, 4공단 삼화고속 있는 그쪽이었죠?

최영희: 예, 4공단. 굉장히 공장도 크죠. 그랬는데 어쨌든 많이 다쳤어. 순임이는 폭력으로 대오가 흐트러진 후 해산 당하는 당시에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빨리 밖으로 나가 나한테 이 상황을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대. 이제 다른 방법은 없었으니까. 그때 그 난리통에 어떤 애가 옷을 벗어 바꿔 입혀준 거야. 작업복을 바꿔줬어요. 소수인 검사반 노란 작업복을 일반 작

업복 파란 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니 순임이를 못 찾아낸 거야, 이 놈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보일러실 스레트 지붕으로 뛰었는데, 스레트가 꺼져버려서 잡혔대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그 거리가 도저히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래요. 결국 경찰서로 21명인가가 잡혀갔어요. 이 지도자들 스물 몇 명이 잡혀갔는데 정말 현장에서 저절로 파업과 태업이 진행 돼요. 잡혀간 동료들을 데려와야 일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일 못한다. 급해진 회사가 경찰서에 가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다음날 경찰서에서는 한순임은 못 보내고 나머지는 풀어줬어요. 근데 이들이 운동장에 남아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간다. 한순임이 같이 풀어주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박삼일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일 만에 한순임도 석방 시켰죠. 저녁 6시에 회사 운동장에 들어서니 모든 노동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농성 하고 있더래요. 풀려난 사람들의 감동의 눈물과 돌아온 동료들을 만난 기쁨의 환영식은 단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인가 중앙정보부에서 이 네 명을 데려가요. 면회왔다고 속여서 까만 지프차 두 대에 나눠 태워서. 반도상사 사건이 너무 용의주도하다는 거였어요. 배후가 있을 거라고...

이형진: 그때부터 작업을 해버렸나요? 그 직후부터 이 네 사람과 한순임을 중앙정보부가 작업을...

최영희: 바로, 데려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수사를 하려고 데려 갔어요. 각자 분리해서 구타하고 엄포를 놓으니 당연히 내 이름이 나오죠. 뒤를 캐보니 이 말썽꾸러기 여자애야. 근데 이걸 법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 삼자개입법이 그때는 없으니까.

이형진: 그렇죠. 그리고 만난 것밖에 없는데.

최영희: 그리고 얘네들이 내가 배후 조정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육만 시켰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투쟁하는 거 다 자신들이 했다는 건데, 우리 생각으로 했다는 건데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이형진: 그렇죠. 실제로 한순임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겠죠.

최영희: 실제 투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잘 몰라. 다 순임이 입에서 나온 거고, 막히면 순임이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성과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몬 거였죠. 빨갱이라는 시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강압 폭력수사를 했고 다시는 만나지 말고 회사말 잘 들어라 하며 밤 10시에 풀어주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한순임과 옥판점을 부평경찰서대공과에서 다시 데려가요. 그때도 일제히 태업을 했대요. 옥판점은 이틀만에 나오고 한순임은 사흘만에 나왔죠. 여기서도 한순임은 구타를 당했대요. 순임이가 나온 다음에 태업을 풀었다더군요. 그때 내가 단벌 신사여서 싸구려 곤색 오바에다 하얀 줄이 있는 목있는 티셔츠를 주로 입고 다녔는데, 긴 머리에 그 옷 입은 몽타주를 가지고 공단 근처에서 이런 여자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간부들이나 활동하는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방법이죠. 물어봐도 모른다더라. 간첩이다. 너희들은 간첩한테 속았다.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한순임을 세뇌시키는 것은 부평경찰서 대공과 형사였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따라 붙여 매일 극장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계속 세뇌공작을 하거든요..

이형진: 최 선생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최영희: 저는 그때 걔네들이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이형진: 튀었어요?

최영희: 튀지는 않고 목사님이 조심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난 사무실에 나왔어요. 그리고 괜찮았어요. 근데 몽타주 들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아,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나는 당장 한순임을 찾아야 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탄압하고 분열시키고, 그런데 순임이는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순임이를 처음 소개해준 미도파 섬유의 순임이 친구 임영란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갔더니 걔가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 순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무래도 자기는 믿고 싶지 않지만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인 것 같다. 근데 최선생이 간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상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조국이 울고, 안 만나면 은인을 배신한 거가 되고. 나도 진짜 너무 고민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 같은 사람 그렇게 도와주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도와주지 마세요. 선생님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장현자가 가톨릭 신자라는 게 생각났어요.

이형진: 지오쎄죠.

최영희: 아니, 걔는 지오쎄 아니에요. 그중에 제일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장현자는,

이형진: 괜찮아요.

최영희: 근데 순수해. 가톨릭 신자여서. 그래서 일요일마다 부평의 성당을 가서 서 있는 거야. 어느 성당인지를 모르니까. 오늘은 이 성당, 다음 주는 저 성당. 내가 이 일이 끝나야지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그렇게 나가죠. 근데 없어, 못 만났어. 근데 하루는, 어느 큰 성당을, 나는 걔가 그렇게 큰 성당에 다닐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런 노동자들은 그냥 작은 성당, 동네에 있는 성당을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큰 성당을 갔더니 미사 끝나고 기다려도, 다 사람들이 다 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어떤 여자한테 성당 안에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기둥마다 성화가 걸려 있는데 그 성화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 기둥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뒤에 이렇게 면사포를 썼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딴 사람들은 봐도 아니야. 그럼 저 사람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장현자야.

이형진: 아이고 참.

최영희: 기가 차더라고.

이형진: 부평에 있는 큰 성당이었던 건가요?

최영희: 예, 부평에 있는 성당이에요. 내가 뒤에 가서 조용하게 장현자 이랬거든요. 뒤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앞으로 그대로 나가세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이래.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놨으면 사람이 완전 사색이야. 얘는 또 마음도 약한 애라서 그러긴 했겠지만.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쭉 가니까 따라오더라고. 한참 골목을 돌아 동네 빵집에 들어갔지. 불안해서 말도 잘 못해. 여기 정도에서는 괜찮아. 어떻게 되어 가느냐 했더니 지금 말이 아니라고. 우린 너무 무섭다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매일 경찰서에서 와서 저렇게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저렇게 해왔어. 만약 내가 간첩이라면 잡아가지 왜 안 잡아가? 당장 산선 폐쇄하고. 산선 전화해봐. 다 일하고 있어. 나와 여러분을 못 만나게 하려는 거야. 그 작전에 여러분은 끌려 다니고 그 사이에 조직은 엉망되고, 그렇게 그들은 그 방법을 써먹었어. 이번에도 또 그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먹혀들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또 다른 노동자들을 속이는 거지. 이 나라에서 제일 반공의 보루가 뭔 줄 알아? 가톨릭이나 기독교야. 왜 목사들이 간첩이 되겠어. 생각을 해봐. 거기는 신앙의, 선교의 방법을 달리할 뿐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처럼 활동한 사람들이야. 왜 그런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해. 그런 식으로 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거 간첩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옛날에도 그 때도 자기 정적을 그렇게 몰아서 죽인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가서 순임이한테 내게 연락하라고 말해줘. 지금 저러고 있으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 다 무너지고 반도 상사만 아니라 부평공단 아무 데서도 다시 시도를 못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신진자동차 김창수씨가 생각났어요, 70년부터 노조결성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해고당하고 어쩌고 했었는데 그 부평공단에서는 유명 인사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노조 결성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빼고 여기저기 얘기를 듣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창수씨가 나를 굉장히 이뻐했어. 그래서 김창수씨를 찾아갔어. 지금 반도상사 내용 다 아시죠. 안다고, 나쁜 애들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현자 만난 얘길 해주었어요. 진짜 걔가 나를 보는 눈에 너무 겁에 질려 있다. 김 선생님은 세상 풍파 다 겪어봤지만 그 스물 몇 살 먹은 애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고. 가서 한순임을 만나보고 설득을 좀 해주시라고. 내가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선생님한테 달려 있다고 그랬더니. 아, 그건 내가 알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인데. 이렇게 장난도 잘 쳐요. 김창수씨가 바로 얘네들한테 찾아가 자기 경험도 얘기하며 설득을 했어요. 야단도 치고. 그 여자가 이대 나와서 뭐 부족한 게 있어 그러겠느냐. 시집가면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어. 키도 크고, 바르게 생겼고. .왜 그 짓을 하겠냐. 생각을 해 봐. 그러면서 또 어르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풀렸어. 당장 최선생 찾아가. 지금 어디 있다. 그때는 제가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원에 한 달짜리 숙박교육에 막 들어갔거든요. 이 놈들이 몽타주 들고돌아다니니까, 목사님이 불안해서 너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서강대학에 한 달 동안 밖에 안 나오고 거기 있었어요.

이형진: 거기서 아예 기숙을 하면서.

최영희: 기숙을 거기서 하면서, 그래서 낮에는 교육받고 밤에는 거기서 자고. 그런데 거기에 오글 목사님이 오셨던 거야. 내가 4월 1일인가 2일부터 교육을 받는데 오 목사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여기서도 강의를 했어요. 사무실을 아예 드렸어요. 프라이스 신부님이. 목사님 거기서 목사님하고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반도상사 얘기도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입소한 뒤 바로 4명이 찾아왔어요.

이형진: 한순임은 4월 15일 날 집으로 이렇게 노조 결성...

최영희: 아니, 그전에.

이형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최영희: 예. 선생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몰랐었다고. 김창수 선생님 만났다고 그러면서 다시 노조 결성하고 싶다고. 너네 정말 하고 싶냐 그랬어. 하고 싶대.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흥식 선생님하고도 상의하고 또 지엠 코리아 이런 데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노조 결성 방법에 대한 대비를 한 거죠. 이거 틀림없이 또 이제 엉터리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록, 회의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노조 결성 방식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정회한 것을 속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임원 선거 하다가 못했으니까 이제 속개만 하면 되는 거야. 노조를 결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성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섬유 노조에서 안 해주고 있어. 계속 진을 빼면서 얘네들 기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지. 회사편 남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때까지 회사가 어용 친목회도 만들어주고, 부산팀 부평팀으로 분열시키고, 봉재와 가발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시간을 끄는 거야. 그래서 반도는 봉제하고 가발인데 섬유 노조 아니래도 연합 노조로 가도 돼. 섬유 노조에 가서 며칠날까지 안 해주면 섬유노조의 만행을 세상에 다 폭로하고 연합노련으로 가겠다고 통보해라. 근데 조합원이 1400명이잖아. 뺏기기 아깝잖아. 해줄 거다. 군소리가 많으면 임원 선거는 나중에 해도 좋다. 까지 양보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럼 임원 선거 하지 않고 노조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15일로 날짜 잡아왔더라고. 그날 임원 선거 하지 않고 노조만 만드는 날이었지만 긴급동의를 해서 치고 나가는 걸로 준비를 한 거죠. 이제 처음에 저하고 얘기할 때는, 긴급동의는 다 받아주게 돼 있다. 그러니 한사람이 긴급동의를 해서 이제 노조가 결성됐으니 폐회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로,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폐회하러 나간 사람이 지금부터 임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회자가, 그 이상한 놈이 아니고 표응삼이라는 괜찮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형진: 아, 섬유 노련 조직 부장인가 그랬어요. 표응삼.

최영희: 교선부장이었어요. 섬유노련 교선부장. 왜냐하면 쟁의부장 그 놈이 오면 때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교선부장이 오게 된 거예요. 약속한대로 미리 다 준비해서 지부장 누구, 부지부장 누구, 뭐 감사는 누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순서랑 다 정해서 일괄해서 들고 들어갔거든요. 하는 방법도 다 훈련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지엠 코리아, 그러니까 신진자동차, 지엠 코리아 노동조합이 바로 그걸 지도 하기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형진: 폐회를 할 수 있도록?

최영희; 아니야. 사회자 표응삼씨가 3월5일 정회에 이어 속회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한사람이 지금부터 임원 선거 안건을 채택 합시다. 이렇게 긴급동의를 하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표응삼씨가 임원 선거에 들어갈 수밖에. 그래가지고 임원 선거를 하는데 임원 선거에서 위원장만 먼저 뽑고, 그리고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자기 포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사회 보면서 나머지 임원들은 다 미리 조각해 놓은대로 한 거지요. 잘한 거야.

이형진: 잘했죠. 한순임...

최영희: 네, 지엠 코리아에서도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이형진: 지엠 코리아에서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한 거예요?

최영희: 아니죠. 그 전에 다 가르쳐준 거죠. 유흥식 선생님한테도 찾아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엠 코리아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순임이한테 이제 노동조합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탄탄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소통하는 도구가 노동조합 신문이다. 부족해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현장 드나들도록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여튼 회사는 분하고 본조도 분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순임을 괴롭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이형진: 한순임도 계속 시달렸고.

최영희: 시달렸고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노조 결성하고 나서 두어 번밖에 못봤어요. 순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서강대학교에 있는데 4월 말인가? 우리 집과 사무실을 쳐들어왔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목사님이 빨리 도망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글 목사님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짐 들고 튀어나와야 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3월초 반도상사 2차 투쟁이 끝나고 소문이 나니까 서울에서 학생들이 조사차 부평공단을 헤집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요. 상황이 안 좋으니 그러지 말라고 외곽에서 만나 주의를 주었죠. 상황설명도 해줬고. 그런데 이들이 보고서를 착실하게 만들어놨는데 민청학련에 걸리면서 압수당한 거예요. 긴급조치 4호 때릴 때 이들이 민중봉기를 꾀했다고 했는데 사실 민중봉기가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4월3일에 민청학련 관련 긴급조치 4호는 숨겨준 사람도 처벌한다고 했거든요.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한 그런 거였죠. 며칠 어떻게 동가식서가숙을 하는데 인천 내리교회 전도사님이 보낸 쪽지가 제게 전달이 됐어요. 누구를 찾아가라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라. 그게 캐나다 선교사 집이었어요.

이형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최영희: 그분이 기독교장로회를 도와주시는 캐나다 여성, 캐나다 연합장로회 소속.

이형진: 린다 존스?

최영희: 아니고. 윌라 커넌. 린다 존스는 미국 사람이야. 캐나다 선교사가 충정로에 있는 집에 사시는데 캐나다 연합장로회 소속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삐 삐 삐~, 이게 신호야. 내가 간다는 신호. 밤 10시에 들어갔거든요. 다섯평정도의 원룸이에요. 또 옆에 원룸 하나 더 있어. 이 분은 커런트. 커런트는 세브란스병원 물리치료사예요. 둘 다 캐나다 선교사지. 처녀 선생님들이야. 커넌 선생님 방에서 제가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 오면 신고하라고 경찰 정보과에서 왔다갔어요. 민청학련 때는 숨겨준 사람도 처벌 하니까. 그러니 이런 데로 숨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카나다 선교사들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사는 울타리 밖으로 출입문이 있는 연립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당 안에는 빨간 벽돌 2층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별채로 원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여기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어디 몸하나 둘 데가 없으니까 거의 4

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임이고 완전 단절이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목사님은 또 반도상사 노조 야유회 가서 좀 센 얘기를 했나 봐. 정부 욕하고 그랬나 봐요.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회사 사주를 받는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목사님이 잡혀갔어. 아마 3개월인가 있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산선도 엉망이 됐죠. 저도 없죠. 그러니까 참 반도상사는 난감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천아카데미가 노동조합교육을 시작했어요. 한순임이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가서 노조 간부들 교육하는 데서 사례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를 무협지처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겠어요. 산선과 관계 끊으라는 압박에 고민인데, 아카데미에서는 건물도 좋지 4박5일 숙박교육을 하면서 전국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고 경찰의 탄압도 안 받지 그들의 영웅으로 등장했지, 강원용목사님도 한동지 한동지 하지~

이형진: 성공 사례가 됐네.

최영희: 나는 다 잊어버려서 지금 재미없게 말 하는데, 너무나, 완전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 지부장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부장이 현장 순찰을 하면 막 박수 치고 조합원들이 인사하고. 그리고 관리자들이 불손하게 하면 조합원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관리자들도 꼼짝 못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달 있다가 다시 산선에 나갔잖아요.

이형진: 74년 하반기였어요?

최영희: 네, 74년 하반기인데...

이형진: 이 집에 있다가 이제 나온 게.

최영희: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는데.

이형진: 74년 12월에 오글 목사도 이제...

최영희: 아니,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거 아니야. 제가 이제 민청학년 수배된 동안에 굉장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은 이게 다른 데들하고 똑같아. 남녀 분열시키고, 개인적 탄압도 하고,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고 ,갑자기 청소도 시키고, 무슨 반장한테 청소도 시켜. 뭐 이런 식이죠. 끊임없이 크고 작은 탄압으로 노조를 괴롭히고 산선과 만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정보과 형사는 노조 감시에 열일을 하고 그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도 75년도 2월 달에 한마음이라는 노조 신문이 나와요. 또 다지기 작업을 상당히 잘 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부들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보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했죠. 4박5일 교육기간을 회사가 휴가처리도 해주었으니 회사가 산선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과는 달랐지요. 그리고 순임이가 외부활동 같은 거 하러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산선에 돌아온 후 75년 초에는 한마음 노조신문도 가지고 오고 현안문제 얘기도 한두 번 만나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75년도 여름에 한순임을 제외한 초기 투쟁리더 셋이 산선에 찾아왔어요. 이때는 다른 활동들을 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그 한순임이가 거의 찾아오지 않았었어요. 물론 반도상사 간부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지요. 멀어졌어요. 항상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웠겠죠.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쪽으로만 왔다갔다 했었죠. 그랬는데 75년 7월에 이제 단체협약을 하고, 임금 인상을 했는데 임금 인상을 회사 입맛대로 편파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월급 봉투를

다 반납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정시퇴근, 중식 거부 등 준법 투쟁도 하고, 약간의 잔업 거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간의 투쟁 끝에 합의가 이뤄진 후, 어느 날 한순임은 외부교육이 있다고 출근을 안했는데 사무장 김복순이 지부장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야. 회사에 써준 각서예요. 7월 12일자로 각서를 써줬는데 그 2개의 각서 내용이 앞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수하겠으며 노동조건개선요구는 노조를 통한 합법적 교섭을 통해서만 하고 이를 어기면 노조의 제명이나 회사의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였어. 또 지부장은 준법 투쟁의 주동자들인 간부 5명에게 이 각서를 받아 사장에게 제출하고, 7월 말까지 이중 간부 3명은 노조간부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각서였다니까. 지부장이 간부를 징계하겠다고 회사에다 각서를 써줬어. 이 각서가 발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갑자기 반도상사 애들이 나한테 온거죠.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형진: 거의 이제 1년 만에...

최영희: 그렇죠, 거의 제가 못 봤었죠. 그때 거의 5, 6 개월? 6개월 정도 도망다녔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제가 산선에 다시 나오고 나서, 그 뒤로도 한순임은 좀 보기는 봤었는데 3월말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형진: 산선에 사실 이제 복귀를 하신 거죠?

최영희: 복귀했을 때 그때 찾아오고, 또 얘기도 듣고 했는데 활동은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데 갑자기 애들이 찾아 온 거지요. 각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배신감에 간부들이 한순임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중간에 한순임을 바꾼다는 것은 노조가 더 위태로워진다. 그리고 한순임을 이렇게 독선적으로 만든 거는 우리 모두다. 우리 이거 처음 만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만든 노조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봐.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가서 한순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라. 지부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게하고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우리 모두 다 빠지겠다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순임이가 해결하도록 해라. 안하겠다면 그때는 우리는 지부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라. 진짜로. 우린 널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다면 진짜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임이가 오기 전에 의견 일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노조를 운영할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솔직한 약속을 받아라. 흥분한 간부들을 달래서 보냈죠. 가서 잘 해결을 했어. 순임이하고 진짜 밤을 새면서, 우리 옛날에 어땠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순임이가 잘못했다. 내가 해결하겠다, 없었던 걸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각서는 찢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징계는 안 하고 그렇게 끝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을 순임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회사가 지부장에게 간부들이 산선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압박하고 산선에 가면 협상은커녕 노사협의회도 안하겠다고 했대요. 그후 상집회의에서 한순임이 공식적으로 산업선교회에 가지 말자고 했대. 간부들도 지부장이 압박을 많이 받으니 힘든 상황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구요. 그리고 나서 76년 6월, 매년 하는 건강진단에서 여느 해처럼 13명의 폐결핵 환자가 나왔어요. 노조가 없을 때는 다 해고야. 그것도 노조 결성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노조 결성 이후로는 휴직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휴직을 시킨다고 노조 사무실로 관리자가 와서 장현자도 있고, 다 있는데 지부장한테 서명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지부장이 아무 생각없이 도장을 꽝 찍어줬어. 그러니까 장현자가 옆에 있다가 아니, 결핵 환자 그걸 왜 그냥 도장을 찍어주느냐고. 논의를 해야

지~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해고시켰는데 지금 휴직인데 별 문제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현자가 안 된다. 그냥 무조건 휴직을 시키는 것은 그건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다. 생활비도 없고 약도 못 사먹고 병원에도 못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후생부장을 징계하려하고, 간부들은 노조사무실로 휴직자들을 출근하게하고 회사는 지부장이 도장 찍었다며 경비들을 시켜 끌어내고 매일 출근길이 험악했지요.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지면서 한순임은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몇가지 지원책을 받아내며 연말에서야 일단락 되었지만. 이제 그런 독선적인 사건들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한순임이가 자꾸 노조 사무실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그리고 밖으로만 돌아. 그러니까 현장을 떠날수록 현장을 지키는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해에는 3월 달에 임기총회예요. 그 임기 총회에서 장현자가 출마를 하게 돼요. 근데 장현자는 같은 상근자인데 출마하기가 어렵다고,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간부들이 의견을 모아서 장현자를 밀어버린 거라고 했어. 근데 한순임은 상집회의에서 미리 자기가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섬유노련 간부들이 장현자에게 한 번만 더 하게 해라. 당선되면 바로 섬유 본조 여성 부장으로 가기로 되어있다. 당신은 권한 대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협상이 두어 번 들어왔는데 일단 민심이 다 돌아버렸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치열해진 거죠. 선거가 엄청 치열해져.

이형진: 할 말 못할 말을 하기 시작했군요.

이형진: 그러니까 76년 3월에 임시총회를 해요. 장현자하고 경합해요.

최영희: 77년일 거야. 그거는 77년이에요.

이형진: 76년 3월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임시총회.

최영희: 아니야, 77년이야.

이형진: 3년이거든요. 3년이면 73년에서...

최영희: 74년에, 74년에 민청학년 때 수배 된 거잖아요. 74년에 결성했다니까. 74년이 민청학년, 77년이에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난 이 선거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75년 각서사건 이후로 반도팀은 거의 오지도 않아 만나지 못했고 76년은 동일방직 노조 탄압이 시작되어 그쪽은 관심도 없었어요. 특히 7월말의 동일방직 노조파괴 반대농성과 나체시위 이후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나중엔 몸도 나빠져 10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서 고속버스로 퇴근을 했는데 시청 앞에서 그 고속버스에서 내렸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병가로 집에 있다가 결국 12월 말에 산선을 그만 두게 돼요. 그리고 1년 후배 김은혜를 후임으로 추천했죠.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조합원들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고 순임이와 현자가 박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난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그런데 3월 달에 총회인데 2월 말인가, 3월일 거예요. 3월달 총회 하는 며칠 전엔가. 아카데미에서 김세균씨가 전화를 했어. 그때 이제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김복순하고 옥판점을 불러서 마음을 돌려달라는 거야. 장현자를 찍도록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끼지 마, 이 싸움에 끼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다 됐다는 거야. 최선생이 그것만, 걔네 둘만 이렇게 돌려주면 된대. 그래서 난 그건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리고 내가 한순임하고 등지질 않았어.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한순임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벼랑끝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민심에 의해서 결정 나게 해야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 얘네 둘을 불러서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싸웠으니까 이 둘이 같이했던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데 너네들이 중립을 취해라. 이 말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이 김세균씨가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복순이한테 전화를 했어. 우선 왜 이 꼴이 났는지 얘기라도 들어보고 싶고, 또 노조는 회사편과 노조편으로 갈라져도 그렇지만 같은 쪽인 사람들이 한번 무섭게 선거전이 지나가면 봉합이 어려워 결국 사용주만 웃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같은 편이 죽기 살기로 싸우다니~ 사실 난 폐결핵 사건 같은 건 몰랐거든. 그래서 옥판점하고 같이 우리 집에 좀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 집이 삼청동이었는데 거기까지 왔더라고. 와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가슴이 아픈가 보더라고. 그런데 얘는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중간으로 설려고 그랬었대요. 얘네들이 그 전에 그 각서 썼을 때 와서 순임이의 문제점을 내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때처럼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산업 선교회에서 그렇게 장현자 편을 들고 있다는 거야. 산업 선교회, 누가 할 사람이 누구 있어? 목사님도 별로 신경 못 쓸 텐데. 그랬더니 부평에서 황영환 선생님이 한다더라 그래.그래서 자기네들은 순임이가 너무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 의리 때문에라도 순임이를 밀기로 했대.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그냥 중립을 지키면 어떠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장현자 편이냐 그러더라고.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를 편드는 거 아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어려울 때 동지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맘 아프고 누가 당선되든 한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함께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했어. 아니면 영원히 원수 된다. 난 순임이가 초심을 잃은 것은 실수지만 그런 험담처럼 살진 않았다고 믿는다며 설득했죠. 사실 한순임이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현자 쪽에서, 황영환 선생님이 부평에 계시니까 황영환 선생님을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황영환 선생님하고 같이 선거 작업을 했던 거 같애. 그때는 이제 선거전이 난리를 치니까 지금처럼 네거티브 운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순임이 뭐 먹었다, 집을 샀다, 뭐 돈을 빼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황선생이 그럴리는 없고 하여튼 얘네들은 그것을 산업 선교회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차가 너무 멀리 가버렸구나 생각했어. 안타까웠지요. 그러고 갔는데,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한순임이 나한테 너무나 속상했던 거야. 근데 나는 돈 먹었다 어쨌다 이런 건, 진짜 지금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든 이게 이제 한순임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계기가 돼 버린 거예요.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나까지도 그걸 놓쳐 버린 거야.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요. 너무, 이 바보들은. 아우 나는 세상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사실은 밑에서 죽어라 하고 이렇게 조직해 놓으면, 그런 분노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어쨌든.

이형진: 한순임씨는 그 이후에...

최영희: 그 이후에 부평공단의 각 회사 노무담당관들 교육에 불러 도시산업선교 비판강의를 하게 한거죠. 그때 이미 홍지영이라는 사람이 산업선교회를 비판하고 다니는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홍지영.

이형진: 예, 들었어요.

최영희: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도산한다는 그거를 기업가들이나 또 새마을 운동 이런 데에다가 산선의 도움 받아 운동했는데 그들에 의해 버림 받았다라는 자기 입장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거였죠. 효과 만점이잖아요. 실제 당사자로 한순임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순임이 곳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산업 선교회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분노가 찼기 때문에 가서 나는 산업 선교회가 키운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용당했다. 이런 거. 그거를 계속 강연을 하고 다니고, 가서 강의하는 거 다 시간 빼주고 회사에서.

이형진: 노총의 간부가 됐나요? 나중에.

최영희: 나중에 78년부터 섬유노조 여성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동일방직 똥물 사건 나고 나서 그때 또 역할을 했죠. 그 사건 말고 와이에이치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또 도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엠비씨인가 케이비에스에서. 엠비씨였던 거 같애. 한순임하고 박복례. 동일 방직 박복례. 둘을 시켜서 산업 선교회를 비판하는, 그걸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임이가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내가 나가서 최영희 쌤을 욕할 순 없다. 그래서 걔는 안 나가고 박복례만 나와서 입에 거품 물고 내 욕을 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들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매도해야 하니까. 난 크리스천도 아니거든. .

이형진: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도 일부러 그렇게 나온, 그렇죠.

최영희: 네, 일부러 그렇게 나왔어. 나는 저기 둘째를 낳아가지고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요. 빨리 티비 보라고. 지금 티비에서 니 욕하고 있다고. 뭔 소리인가 했더니 박복례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 어쨌든. 근데 나중에 한순임이는 그 때문에 자기는 안 나왔다고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의리 있는 애구나. 그런 생각했죠.

이형진: 한순임 씨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가까웠던 내부의 간부들 중에는 아직도 한순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최영희: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7년 가을에 우리 시어머님은 시아버님하고 같이 시누네 집에 이사한다고 도와주러 가시고 나하고 애기하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시경 외사과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잠깐만 좀 봤으면 좋겠대. 외사과가 나는 그때 뭐 하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혹시 뭐 외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나는 외국 갈 일 없는데. 그랬더니 아, 아래 다방에서 잠깐만 보자고. 외국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려갔어.

이형진: 다방까지.

최영희: 근데 이놈들이 가자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아기 안 보이느냐고. 5개월된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어딜 가자고 하냐고 그랬더니 저기 따라 나서야 된대. 어쨌든 그러면서 애기를 줘보래. 그래서 이 아기가 낯가려서 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하여튼 줘보래. 그래서 애기를 줬어, 그랬더니 애가 벙실벙실 웃네. 하하. 그럼 데리고 가재요. 기저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옷이라도 입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거 좀

준비해가지고 가겠다고. 집으로 올라왔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이 아기를 데리고 거기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 계절은 건물 속이 추운데 어떡하나 걱정이 돼. 하지만 생각하니까 번쩍, 친정에다 맡기고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짐을 다 싸놓고는 전화기 앞에다 이만한 쪽지를 넣었어요. 아버님, 제가 9시가 넘어도 오지 않으면 전에 저 데리러 오신 곳으로 와 주세요. 애기가 어린데 내일 다시 보내겠다고 해보세요 라고. 그 전에 내가 일본 세까이 잡지에 난 반도상사 투쟁기 때문에 잡혀간 일이 있는데 날 데리러 아버님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쪽지를 아버님이 못 보시면 이제 끝이지. 아버님이 보시겠지 하고 이만큼 이렇게 매달아 전화기 밑에다가 놓고 애기 짐을 싸가지고 나가서 그놈들 차를 탔지.

이형진: 애는 두고.

최영희: 애를 데리고 가는 거지. 친정에 맡기고 가자고 했어요. 사당동 친정에 가서 맡기는데 우리 엄마가 마흔일곱 살에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혼자서 못 봐. 근데 거기다가 아기를 맡겨 놓고 그놈들한테 잡혀가니 우리 엄마 심정이 오죽하겠어.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거기를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가, 물론 그전에 학교 다닐 때 가서 뒈지게 두드려 맞고, 너무 많이 가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무조건 도망이에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날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당동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저기 한남대교에서 이렇게 남산 터널 올라가는 거기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확 잡더니 무릎에 닿게 박아버리는 거야. 잡혀갈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뭐 큰 건물이야. 옛날에 갔던 6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야. 큰 건물이야. 벌건 타일로 된 건물이야. 그래서 이게 어디지? 덜덜덜 떨리는 거야. 내가 왜 잡혀갔는지 몰랐잖아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거기서 왜 왔는지 아녜요. 모른다고했지. 여긴 그전에 들락거린 곳하곤 달라. 허튼소리하면 끝장난다고 엄포를 놓더라고.

이형진: 남산에 끌려가신 거죠.

최영희: 예. 대공관련 수사국이었어요. 남산의 빨간 건물.터널 옆. 거긴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길 왜 갔는지 몰랐어. 그랬더니 나중에 한순임이 알지, 그래서 예 알아요. 사실 나는 반도상사는 얼마 전에 세까이 잡지에 실린 글에 대해 다 조사 받았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 안심했는데. 한순임이가 돈 빼먹고 집 샀어? 집 샀다며. 그리고 노조 돈 다 써버렸다며? 그러는거야. 누가 그래요, 어떤 미친 놈들이 그러냐고.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그냥 서로 싸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순임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순임이가 집 사고 돈 빼먹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무 답답한지 아니 이런 바보가 있나. 그러면서 종이 몇장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 이 한순임이가 너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읽어보고 나서 말해봐. 읽고나서 그래도 순임이는 돈 먹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조금 대우가 달라지더라고. 그래도 계속 파는 거예요. 한순임이가 하고 다닌 강의가 나한테 배우고 나서 자기가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넣었다는 거죠.

이형진: 사회주의 교육을 시켰다?

최영희: 네,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네가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고. 교육내용은 두려움 없이

말해줬지요. 노동자들의 현실과 부당한 대우, 인격모독 등,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 대응도. 얘기를 계속 하면, 이런 거는 사회주의 아니야?하는 반론을 해대고. 이거보다 네가 좀 이거는 돌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거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을 씨름을 하다 애기 젖을 못주니 막 젖이 그냥 줄줄 흘러 나와요. 그리고 앞자락이 다 젖어 있고 뭐 휴지, 화장실 휴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돌덩어리 같았어. 점심은 먹었지만 저녁은 애기 걱정도 되고 젖이 더 흐를까봐 굶은 채 밤 9시까지 했어요. 근데 잠깐 쉬자 그러더라고.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높은 사람인 것 같아. 들어와 앉더니 아직도 안 끝나느냐고 뭐라고 그래. 나는 할 말 다 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젖먹이 애기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뭐하자는거냐고 항의하다 아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조사하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내용이 변할 건 아니니까 보내줍시다. 아기가 어립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주고 내일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서 9시 반쯤 나왔어요. 옷 다 젖은 것도 보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일 다시 들어오래요.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구요. 근데 결국 그냥 별거 아니니까 다시 안 불러도, 아니 다음날 왔어. 우리동네 다방에서 마무리 조사 하고 그리고 갔어요.

이형진: 그걸로 사실 한순임과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된 거네요?

최영희: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꼭 한번 보고 싶은데.

이형진: 최 선생님, 그 한순임 이후에 조금분.

최영희: 금분이. 네, 금분이랑 잘 알아요. 아니 그 뒤로는, 그 뒤로는 저기.

이형진: 어느 정도 다시 노조를 정상화시켰죠?

최영희: 네, 정상화됐죠. 장현자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단해지니까 회사도 이제 너무 그렇게 못하고. 그런데 섬유 노조가 끝까지 갈구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두환때 민주노조 전체를 깨는 그 분위기에서 반도도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들을 계속하니까 찍힐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당시에 뭐 안 깨질 노조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형진: 그렇죠.

최영희: 조금분이도 하고, 금분이 마지막에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로 말라빠진 애가.

이형진: 저는 조금분, 저기 골목집 할 때. 77년 이후에 이제...

최영희: 금분이 지금 뭐 하고 살아?

이형진: 죽었습니다.

최영희: 헉, 왜?

이형진: 몇 년 됐어요. 3년 정도.

최영희: 그래요? 병으로?

이형진: 예.

최영희: 몸이 약하긴 한 것 같아서. 아니,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72년도, 73년도에 아마 거기도 느헤미아나 카프링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경성공작소라는 데가 있어요. 부평에, 부평에 경성공작소라는 데가.

이형진: 한국베아링 말고요?

최영희: 경성공작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흥식 선생님 만나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경성공작소는 소문에는 71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김대중 후보한테 사장이 아마 후원금을 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박정희가 말려 버리는 거야, 회사를. 여기가 뭐 만드는 데냐면 수도관을 만드는 데예요. 수도관이 이런 수도관이 아니라 큰 수도관이죠. 수도관 지름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서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닿는 그런 수도관들을 만든 회사였어요. 그러니 관급 공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됐었어. 그런데 또 관급 공사니까 금방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 후 조짐이 이상하더니 하루 아침에 주문이 끊어져버려요. 보복이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채불 임금이 계속되니까 어떤 때는 주변 노조에서 돈을 모아 그 사람들 돕기 운동도 했지만 직원이 5백명인 공장인데 그걸로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회사를 족쳐서 될 일도 아니야. 너무나 강한, 이건 진짜 정부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죽인다는 근거도 없어. 농성도 하고 가두 호소도 하고 노조는 최선을 다하며 버텼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중앙정보부의 감시 하에 놓여 있어. 그 당시는 이런 거 언론도 보도도 안해. 그런데 그 경성공작소에서 하던 주문은 부산 파이프로 넘어가는 거야.

이형진: 그게 부산 파이프?

최영희: 예, 졸지에 영등포의 부산 파이프 공장은 엄청 커지는 거야. 남편들은 싸우고 부인들은 막노동과 잡상인으로 끼니를 때우는 거야. 애들은 학교 월사금이 밀려 독촉 받으니 학교를 못가겠다고 울고~ 이 경성공작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우울했어. 무력감이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회의를 하는데, 유흥식 선생님이 누렇게 뜬 얼굴로 들어오면서 하, 오늘은 진짜,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눕고 싶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경성공작소, 어제 그 지부장이 다 늦은 저녁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급히 나갔더니 만나자마자 택시를 타자 그러더래. 택시를 탔더니 택시한테, 택시 운전사한테 그냥 무조건 달리라고, 아무 데나 달려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왜? 난 이제 모두 포기해야 되겠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누라들이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별일을 다 한다는 거야. 남편들이 그걸 보고 있어 지금. 이게 생계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71년도에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 뒤로부터 야금야금 말려가지고 73년 까지 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마지막 7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한 푼도, 정말 1원도 못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걸 참고 견디고 싸워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그 포기 선언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남자 잠바가, 이 잠바가 앞자락이 다 젖도록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하는데 정말 볼 수가 없었대. 내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런 꼴을 다 보다니. 그러면서 막 유흥식 선생님은 거의 울려고 그래요. 경성공작소 노조는 그렇게 포기하죠. 근데 그 경성공작소

가 73년 6월인가에 동양철관이 등장해요. 그리고 성업공사를 통해 경성공작소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죠.

이형진: 그게 동양철관이 됐어요?

최영희: 그걸 누구한테 준 줄 알아요? 박정희 조카한테 줬어요.

이형진: 그 지엠 코리아 바로 앞에. 그건가 싶었는데.

최영희: 박정희 큰형의 아들 박재홍이 사장이 되죠. 아무 경력없는 그 사람은 28세에 포항제철 행정실장으로 취직해요. 그리고 4년후 32살에 동양철관 사장에 앉히죠. 박재홍의 벼락출세에 어느 자료에도 경성공작소의 눈물은 없어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잖아. 4선 의원.

이형진: 그 동양철관이 90년대까지는 그게 부평에 있었어요.

최영희: 그 싸움도 사실은 어떤 기록이 있어야 돼.

이형진: 그런데 결국 이제 지방으로 가버렸죠.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최영희: 예,이것 저것벌려놓고 경영난에 시달리니 95년도인가 대우한테 땅팔고 이제 어디 천안인가 어디로 갔어요.동양철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100% 끌어주는 기업인데 처음엔 승승장구했죠. 3년만에 주식상장하고 철강관련 회사도 합병하고 기간산업체로 선정되고. 그리고 박재홍은 회장으로 앉고 81년에 출마하죠. 나중에 법정관리 받고 이제 그 땅 비싼 거 다 팔아먹고. 결국 운영을 잘못했어요.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신호그룹인가 어디 넘어갔어요. 주식 다 신호그룹이 사버렸지, 그때까지 회장으로 있었어. 박재홍은 기업을 정계진출의 발판을 삼았다는 비판도 받지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눈 가리고 등골 빼 먹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정권에 밉보여 사라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기가 막힌 거지. 그때 이런 거는 이 노동자들의 삶은 뭐냐고. 적도 없어, 눈에 보이는 적이 없어. 그리고 적은 있기는 있지만 손에 잡히질 않고. 이 몇몇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산업선교회도 도와줄 길이 없는 거야. 아무 방법이 없어. 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망하진 않을텐데. 그다음에 나체 시위 사건, 나체 시위 사건은 회사측의 반조직행위 사주가 계속되면서 그 주동자 고두영과 3명을 7월22일 섬유 본조 중앙 위원회에서 제명을 시켜요. 그리고 저녁7시반에 본조 간부가 동일방직에 와서 조합원들에게 보고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회사는 이를 무조건 막고 대의원이나 노조간부의 현장출입도 막아버렸죠. 노조는 10시 퇴근자에게 식당으로 모이라했지만 화사는 식당을 잠그고 불도 꺼버려요. 물론 기숙사생들에게 저녁도 안주니 밤10시 퇴근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간부들은 회사에서 밤을 새요. 조합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23일 아침에 경찰이 전에 돌린 호소문을 빌미로 지부장 이영숙을 경찰서로 잡아가요. 그리고 미리 9시에 새벽 출근조라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자 부지부장과 대의원 3명을, 10시에 파업하자는 쪽지를 돌렸다고 뒤집어 씌워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불러내고 현장문을 잠궈버려요. 또 이틈에 회사는 반조직으로 제명당한 고두영을 시켜 오전10시에 반조직 대의원들을 모아줘요. 대의원 대회를 하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기숙사생들이 나올까봐 기숙사문에 못질을 하거든요. 이를 알고 기숙사생들이 밖으로 밀고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이층에서 뛰어내리고 막고 있는 수십명의 경비를 밀치고 문을 부수고 나

왔어요. 지부장이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당에서 기숙사생들에 의해 지부장 내놓으라 외치며 항의 농성이 시작됐지요. 2시 출근조들이 모이면서 지부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니 2시15분에 지부장을 풀어줬어요. 이제 두시 출근자는 출근하고 두시 퇴근자들이 농성에 합세해 회사와 경찰의 노조 탄압에 항의했어요. 사태가 커지자 지부장은 경위보고를 하고 조합원을 진정시켜 해산했지요. 그러나 조합원이 해산하자 지부장과 이총각 총무를 바로 연행해가요. 그러니 밤10시 퇴근자와 출근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땅바닥 농성이 다시 시작된거죠. 이때 일하며 싸우기로 했어요. 10시출근자는 들어가고 퇴근자는 밤을 새며 농성하고. 그사이 고두영은 회사의 도움으로 지부장 부지부장을 뽑아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다니죠. 회사는 퇴근조들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농성장과 격리하고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땡볕과 밤이슬을 맞고 농성이 계속되자 집에 못 오는 딸들을 보러온 부모들과 경비원 경찰들의 싸움으로 밖에서도 소란스러웠죠. 25일 예정된 노조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회사의 계책에 분노한 김광자 부지부장의 진두지휘로 투쟁열기가 대단했어요. 주로 퇴근조가 농성을 하니 밥을 거의 굶으며 사실 단식투쟁이 된 거죠. 여기에 회사는 전기도 끊고 화장실까지 잠궈 수도를 차단하니 갈증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땡볕에 널부러졌어요. 조합이 빵을 구입하면 반입을 막고, 부모들이 사서 보낸 우유나 음료수도 깨뜨리고. 급하니까 어름을 사서 보낸 것을 깨뜨리고 항의하는 늙은 부모를 질질 끌고 갔어요. 행패가 심해지자, 부모들과 회사가 막아 못들어간 조합원들 수백 명이 함께 농성에 돌입해 일대 교통이 마비돼요. 토요일 밤10시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오히려 그 날밤에는 엄청 밝은 백열등을 농성장에 몽땅 달아놓고 불을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굶고 갈증이 극에 달한 조합원들을 정신 못 차리게 했대요. 결국 10시부터는 파업으로 가게 됐고 지쳐 널부러진 조합원들을 경찰과 경비 사원과 관리자들이 둘러쌌지요. 오후 6시가 넘자 경찰차가 들어오고 경찰과 합세한 회사 경비들이 때리고 잡아 끌며 경찰버스에 실었지요. 버티고 차를 못 떠나게 바퀴 밑에 들어가고 전쟁터가 됐어요. 그때 우리 모두 옷을 벗자 그럼 못 잡아 갈 거다 라고 누군가가 외치자 모두 작업복을 벗어들고 눈물로 노총가를 부르며 흩어지지 않으려 스크럼을 짰어요. 하지만 경찰봉을 든 수백명의 경찰과 경비들에게 800명이 넘는 여성 근로자들은 구둣발로 채여 기절하고 맨몸으로 바퀴 앞에 누운 그녀들을 질질 끌어 피가 흐르도록 상처를 입혔지. 이 와중에 50여명이 기절하고 이중 깨어나지 못한 16명이 병원에 실려갔어. 경찰차에 실린 72명은 유리창을 깨며 반항했지만 밖에서 농성중인 부모들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어.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농성장에서 정신 차린 조합원들이 동료들을 끌어가는 그 경찰차를 뒤쫓아 간거야, 200여명이 옷 벗은 채로 동부경찰서까지. 정말 감동이지~ 어떤 운동사에도 이런 기막힌 투쟁은 없을 거야. 맨몸으로 시내를 달려 경찰서에서 계속 농성을 했다니까. 회사가 농성장 마당에서 작업복을 모아서 경찰서로 갖다 줬어요. 그때 맨몸으로 뛴 애들이 와서 말하는데 옷 벗었다는 생각이 안 났대. 그저 동료들 끌려가는 것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대. 또 한 애는 잡혀 갈 바에는 많이 잡혀가는 것이 났겠다고 생각해 차에 타려했는데 차가 떠나서 경찰서 가서 잡혀간 사람들하고 같이 농성하려고 뛰어갔대. 그게 25일이었어. 역사적인 날이지~ 이영숙 이총각 잡아간 이유를 보면 다른 거 없어. 뒤집어 씌운 비리라고 하는 게 상집회의 할 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거하게 안 먹고 구멍가게에서 빵 사고, 우유 사서 간이 영수증 모아놓은 거 트집잡아 횡령죄로 붙들어 둔거야. 일단 잡아 가둬놓고 그 사이에 지들끼리 이 노조를 뒤집으려고 했던 거였어. 어쨌든 처참하게 끌려 갔으니 빼내야할텐데 우리 실무자회의에서는 본조를 점거해야한다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26일 아침이 되니 회원들이 쫓아왔더라고. 억울한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차비들을 주면서 합정동 섬유노련으로 빨리 몰려가라 했어요. 돈을 안가지고 다니거든. 우린 잔돈 바꿔 나눠주며 무조건 많이 연락해서 빨리가서 연행된 사람 모두 나오면 해산하기로 했지요. 300여명이 섬유노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거예요. 결국 밤11시경에 모두 석방되었지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조합원들이 계속 파업을 하니까 지부장의 지시로 27일 오후에야 작업을 시작해요. 이렇게 훌륭한 노동자들이 어디 있을까? 근데 지부장과 총무가 잡혀가고 어쨌든 싸움이 시작되니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간부들도 없고. 그러니까 김광자 부지부장이 책임자가된거야. 먼저 기숙사에서 뛰쳐나온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로 몰려왔으니 자연스레 노조 사무실과 그 앞마당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노조 사무실이 정문 근처에 있어서 마당이 넓었거든. 처음엔 출근하며 농성했으니까 퇴근조중에서 산선회원들이 와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고 조언도 듣고 가서 지도부에 전해주었지요. 저도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김광자부지부장하고는 노조 사무실에서 계속 저하고 통화를 했죠, 그런데 회사가 단전단수하면서 전화선을 끊었어요. 주로 우리 클럽멤버들은 계속 농성을 하고 있고 주시받아 오도가도 못하니 연락 두절이 됐어요. 그런데 나체 시위를 하게된거는 내가 동일방직 클럽활동에서 원풍모방 사례를 얘기해줬어요. 대학 다닐 때 원풍모방이 민주노조가 되는 과정, 거기도 지난했어요. 성공한 민주노조 방용석지부장을 모셔서 학교도서관 빈 공간에서 우리 서클 멤버들이 사례 발표를 들었어요. 원풍모방에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 여성근로자 두명의 어깨를 잡았는데 옷이 벗겨진 여성이 작업복 단추를 풀며 이 옷이 필요하냐고 소리쳤나봐요. 옷이 벗겨지니까 경찰이 놀라 놔주더래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못 만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원풍 사례는 산선 클럽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절박하니까 그생각이 났나봐요.

이형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중간에서 야, 옷 벗어!

최영희: 어, 중간에서 야, 옷 벗자! 옷 벗으면 저놈들이 못 잡아갈 거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옷을 벗었고, 노조 사무실 안에서는 저거까지 다 벗은 거야. 바지까지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놈들은 다 잡아갔어. 어쨌든. 그 나체 시위는 그렇게 끝났지만, 후유증이 있었어요. 회사 놈들이 사진을 찍어 계획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며 이죽거리고 가슴이 크네 작네 희롱을 해대며 못견디게 하는 거죠. 특히 어리고 맘 약한 애들에게. 그리고 해산 시킬 때 다친 사람들이 기독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바로 나왔는데 돈희하고 순옥이하고 둘은 못 나왔대요. 그리고 돈희는 입원실에 있는데 순옥이는 아래 응급실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죠. 총각 언니랑 같이 갔는데 이미 입원한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순옥이가 막 소릴 질러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지부장 내놔라고 한 대. 눈도 헛것을 보고 있고 가끔 진짜로 지부장 내놔라하며 주먹을 불끈 쥐더니 벌떡 일어나요. 몇 명이 달라붙어 눕히려 해도 힘들 정도예요. 근데 얘가 밥을 먹었냐 하니까 한 번도 안 먹었대. 링겔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진: 극한 상태가 된 거죠.

최영희: 예. 그래서 아니, 이런 상탠데 왜 의사들은 말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는 거래. 그래서 야,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 내가 잡아보니까 엄청 기운이 센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거다. 이 사람들이 동일방직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총각 언니한테 언니, 수녀님 아는 사람 없어? 빨리 서울로 가자. 그러면 정양숙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정양숙 선생님이 산선에서 일하셨고 수녀복 안 입는 수녀거든요. 그래서 명동성당, 성모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애.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수속을 했나 봐요. 명동에 가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의사가 딱 보더니 돈희는 장, 그러니까 안 먹어서 단식이 너무 심해서 혐착이 됐고, 그러니까 입원수속 하라고 지

시하더라고. 그리고 순옥이는 여의도 병원으로 옮기라고.

이형진: 여의도 성모병원에?

최영희: 왜요? 그랬더니 분열증이라고. 난 그때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언니는 그 서류, 돈희 입원서류 진행하러 가고 내가 순옥이를 데리고 여의도 병원으로 갔어요. 연락이 되었는지 당장 침대에다 싣고 몇 가지 조사하더니 바로 병실에 가서 네 발을 다 묶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묶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묶인 채로 몸을 빳빳하게 힘주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달래보려는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다가 다시 손발을 움직이려 몸부림을 쳤다. 눈빛은 또 무섭게 힘이 들어갔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보니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았다. 젊은 의사가 들어와 그 전에도 이런 적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다. 가족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 이번에는 노사문제로 농성하다 해산과정에서 충격 받은 것 같다고 말해줬다. 보호자는 언제 오느냐고 묻는데 아 정말 얘네 엄마는 어떡하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어디다 연락을 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의사는 나가고 제가 지키고 있었죠. 근데 복도에서 누군가가 서럽게 목놓아 우는데, 자식 새끼 못 먹이고 못 가르쳐 키웠더니 이렇게 돼버렸다고, 내가 죽일 년이라고 막 고무신으로 바닥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몸부림을 치시는데 아, 기가 막히더라고. 같이 온 오빠가 엄마를 달래고.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병명을 알았으니까 치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오빠를 위로했어요. 순옥이는 잘 치료받고 6개월 후에 퇴원했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형진: 실제로 상태가 안 좋아진 분도 있던데요.

최영희: 아니에요. 걔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돈희, 이돈희는 의식이 좀 있는 애예요. 싸울 의지가 있는 애야. 그래서 지금 노조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기록에 남으면 안 되지.

이형진: 아니에요, 될 거예요.

최영희: 아, 언니가 답답해서~ 지부장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찰에 불려다니고 하니까 사실상 퇴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시댁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 진짜 언니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해. 현장 상황이 각개격파 당하고 있는데 전열을 갖추어 대차게 실행을 못해. 나중에 돈희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해야 하는데 현장 소식을 듣고 노조 사무실로 나와 누워있었어요. 계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노조분열작전을 하면 다시 단식하겠다고

이형진: 그 사람 얘기구나, 좀 들었어요.

최영희: 예, 사실 회사와 언니한테 촉구를 하는 건데. 진전이 없어.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잖아요, 돈희를 또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담판을 지으러 만났어. 이러고 있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무너진다. 그 우수한 조합원들을 가졌는데 언니가 깃발을 들면 좀 지쳤지만 바로 힘을 낸다. 큰 싸움도 아니다. 계속, 대답 안 하고 망설이는 거야. 사실 언니도 놀랬지, 경찰에 가보니 겁도 나고. 얘기의 결말이 안나. 포기하고 다방에서 나왔어. 너무 짜증

나서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다슬기를 가지고 왔다고 이만한 바구니에다 넣고서 둘레둘레 앉아서 그걸 까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마구 먹었더니 속이 안 좋아. 저녁에 집에 가는데, 체했는지 어쨌는지 고속버스에서 토할것같고 어지럽고 하더니 시청앞 중간 정류장에 내려서 쓰러졌어.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상태가, 건강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어요.

이형진: 애 둘 놓고 나서...

최영희: 아니요. 애 안 낳았을 때. 그때 애 안 낳고, 그때 첫 애를 가졌는데 몰랐던 거지. 근데 계속 그런 투쟁이 있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야, 이국선 목사님이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걸어가는데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더란다. 너 왜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는데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아니라고. 혹시 애 가졌나 해서 소변검사도 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데리고 제일 병원으로 갔어요. 유명한 제일병원에 가가지고 진료했더니 소변 검사에서 안 나오는데, 임신이 아닌 거 같은데. 혹시 아기가 죽어 있을 수 있다고 초음파를 해보자고 하더니 임신이래. 애 심장 뛰는 소리 검사도 했어. 임신인데 쇄약해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노스웨스트 비행기가 항로를 잘못 잡아 청와대에서 대공 기관단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삼청동 꼭대기 총리 공간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형진: 그 일이 그러면 78년도쯤인가요?

최영희: 76년도죠. 그러니까 이거 나체 시위 끝나고, 아파서 집에 있는 동안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전날 우리 시동생하고 남편이 한가하게 뭔 얘기하다가 청와대에 배치된 것이 캐리바 50이라고 하면서 저건 철로를 뚫는 거래. 그러면서 30발에 한개의 불꽃이 나온다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난 불꽃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초저녁에. 아, 불꽃놀이를 하는구나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청와대야. 불꽃놀이가 아니라. 청와대 담벼락에서 쏘는 거야. 우리 머리 위로.

이형진: 보여요?

최영희: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아니, 30발에 하나의 불꽃인데, 이거 불꽃놀이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총알이 날아가는 거야. 그게 만약에 각도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 집 한옥 벽을 뚫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한옥 벽. 어우, 큰일 났더라고요. 너무 너무나 놀래가지고 창문을 닫고 사랑방으로 뛰어가면서 아버님, 총이에요, 총. 아버님 숨으세요. 막 소리를 쳤죠. 어머님은 시누이 집에 가시고 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전쟁을 겪으셔서 이불을 이미 뒤집어쓰고 계셔요. 이불, 이불이라고 하시며. 나는 다시 뛰어 나와 마당 수돗가에서 노래 부르며 열무 씻고 있는 도우미 처녀를 끌고 반지하 광으로 가는데 얘가 총이라는 말을 안 믿고 낄낄거리며 버티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들어갔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날 피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유산. 근데 다행히 임신이라고 진찰했던 그 의사가 오빠 친구였어요. 오지 말고 남편만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서 주사, 위생병도 잠깐 했거든요. 주사 받아오고.

이형진: 아, 집에서.

최영희: 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두 번이나 유산기가 있어서 애가 태동이 있을 때까지 이불을 등에 받치고 화장실도 못가고 요강을.., 5개월을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데 어떡해. 그만둬야지.

이형진: 아, 그렇게 또.

최영희: 그래서 산선을 그만 둔 거예요. 아휴. 이제 대충 됐네요.

이형진: 그 최영희 선생님도 그때, 그러니까 젊을 때였지만, 그게 30대 전이었어요.

최영희: 30이 뭐예요.

이형진: 그러니까 스물여섯, 일곱일 때예요.

최영희: 그때 당시에 제가 스물셋부터 이걸 했으니까. 반도 상사를 만 23살에 한 거예요.

이형진: 그러니까 그 또래 친구들을 데리고, 그 정도 강단으로 결의를, 그 결심을 하게 만든 건데. 사실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영희: 그러니까 노동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형진: 6개월 정도는 정말로 그 한마음으로 움직였던 거잖아요.

최영희: 그렇죠.

이형진: 없는데도, 알아서.

최영희: 아! 내가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산업문제 연구원에서 한 달 가까이 오글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다가 바로 수배당해서 도망가 버리고 나서 커넌 선교사 집에 있을 때, 산업 선교회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하기야 당시는 직원이었으니까

이형진: 네, 상관없습니다.

최영희: 저는 트렌지스터에만 의존해 있었거든요. 근데 오줌 누고도 이 변기를 못 눌러요. 왜냐하면 큰 마당에 여러 집이 있어서 이게 모두의 정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다니고.

이형진: 아, 숫자가 파악된다고.

최영희: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출근한 시간인데. 변기물 소리가 나지? 의심받을까봐 나를 오줌을 누게 하기 위해서 건이 엄마, 여기 사는 도우미 아줌마가 가끔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오시면 제가 화장실에 갈 수 있어. 건이 엄마한테 당신이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커넌 선생님이 나를 받아들일 때 물어봤어요. 아, 걱정 없다고. 오케이, 오라고. 그리고 커

넌 선생님은 자기는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숨겨줬어요. 근데 뭐 좀 여기 있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도망을 가는가. 감옥 가기 싫어서? 그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냐?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그 트랜지스터를 귀에 대고 뉴스를 들어요. 어느 날 뉴스에 민청학련 결심공판에서 줄줄이 사형이야. 사형 구형.

이형진: 인혁당 사건?

최영희: 아니 민청학련 팀도 사형 구형을 했어.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설마 사형까지 시킬까?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나는 도망 와서 이리 편하게 지내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야. 혼자 숨죽여 울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날이 7월9일 화요일이었어요. 수요예배가 생각났죠.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갔어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호소력 있는 글이어야 하거든. 사형 받은 사람들의 가족이 쓰는 것처럼.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 당한 입장에서 글을 썼어요. 이거를 유인물로 만들어 뿌려야 된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커넌 선생님이 퇴근하시자마자 뉴스 들었지요? 선생님, 지금 저 나가겠다고 했더니 왜?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형을 구형하는데 이대로 두면 정말 죽습니다.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내가 다 아는 애들이예요. 어떻게 그냥 죽게 둘 수가 있어요. 나가서 움직여 봐야지요. 그랬더니 나가서 어쩌려고?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보여드렸어요. 나가서 이거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하, 선생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여기서 하래,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허름한 타자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형진: 아, 그 작업을.

최영희: 네, 근데 나는 타자를 안 배웠어요. 내 친구 미경이가 나도 타자배울까 했더니 그거 배우면 그런 잡일을 하게 된다고 배우지 말래. 안 배웠지. 항상 산업선교회에서도 미스 유가 다 해주었거든. 내가 교안 만들어놓으면 다 쳐줘. 그러니까 금방 금방 되는데 내가 왜 배우겠어. 그러니 완전히 손가락 두개로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데 세 시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때는 스텐실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있냐 그랬더니 있대. 저 사무실에 있대. 이 빨간 벽돌 건물 지하가 캐나다연합장로회 사무실이었거든요..

이형진: 가리방으로 했어요?

최영희: 가리방 아니고 타자기로 했다니까. 스탠실에 타자를 치는 거야. 스텐실은 기름막이 덮인 푸른색 종이예요. 타자기에 끼워 글씨를 치면 글자모양의 상처가 생기잖아요. 통돌이 인쇄기에 잘 붙여 안쪽에 잉크를 발라 돌리면 인쇄물이 나오지요. 산선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제 스텐실에 타자를 치니 오타도 엄청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다 지워가면서 했어. 그런데 타자를 치면서도 이걸 내가 혼자 만들긴 하는데 뿌리는건 자신이 없어 누굴 데리고 할까 고민하며 치는데. 글쎄 내 남친이, 원래 이 남자가 2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외부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니, 타자를 치고 있는데 삐 삐 삐~ 소리가 나요. 장명국씨의 초인종 신호거든요. 어, 이게 웬 구원군이냐. 생각도 안 했던 구원군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같이 했죠. 근데 이걸 인쇄기로 돌리려면 비챰 목사가 도와주어야 돼요. 사무실이 있는 붉은 벽돌집엔 비챰 목사 가족이 살고 있어요.

이형진: 비참 목사요?

최영희: 비챰. 한국 이름은 배창민이야. 커넌 선생님이 비챰 목사를 찾아가 약속했어. 모두 잠든 새벽 1시에 목사님이 내려오기로. 커넌 선생님하고 나하고 시간 맞춰 살금살금 가서 목사님과 내가 인쇄를 했어요. 거기 봉투도 있더라고 누런 봉투가, 옛날에 노란 봉투 있었잖아요. 다행히 사무실 이름이 인쇄가 안 된 봉투야. 그래서 그거를 들고 왔어요. 한 200장을.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자료에서 이 비챰 목사를 발견했어요. 1963년9월에 캐나다연합장로회에서 산업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신학대학에 산업문제 연구소를 설립해요. 그리고 산업전도담당선교사로 비챰(Beecham)목사를 파견해요. 이 양반이 산업선교를 일찍부터 해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위험한 일을 도와주신거죠. 위험한데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알았어. 그 뒤에도 전국에 계시는 캐나다 선교사들의 2박3일 합동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각 숙소에 배정되어 잠을 자기 때문에 내가 비챰 목사님댁 먼지가 수북한 다락에서 밤에 불도 못킨채 비닐 돗자리를 깔고, 이틀 동안 무섭고 싫은 고양이와 함께 살아야 했어. 그 때도 큰 딸이 밥을 날라다 주고 사모님이 정성껏 배려해 주셨거든요. 훌륭한 가족이었어. 에구 다시 돌아 가서, 남친하고 나하고 둘이서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한 장도 아니야. 두 장이나 돼. 그래서 그거를 스태플로 다 찍고, 접어서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에 구미혜 선생님은, 내 긴 머리가 몇 달 동안 거기 있으니까 더 길었을 거 아니야. 그 긴 머리를 실핀 있죠. 그거를 한 통을 꺼내놓고 몇 가닥씩 잡아가지고 물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실핀으로 고정해요. 여기다가 꽉꽉꽉. 전체를 핀컬을, 파마를 해주셨어요.

이형진: 고대를 하셨네.

최영희: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변장을 시켜준거죠. 왜냐면 경찰들은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세상에 머리숱은 얼마나 많아. 선생님이 팔이 빠지게 그 핀컬을 다해 주셨어요. 문제는 옷이 없어. 그 이른 봄에 입고 온 옷이, 선생님은 키가 한 150? 그 정도 되시고. 나는 이렇게 키는 크고 말라가지고. 50킬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옷이 없어요. 선생님 옷 다 뒤져가지고, 할 수 없다. 미니 스카트를 입고 나가자. 선생님이 조금 옷 길게 입지만, 내겐 미니 스커트, 민소매 통 원피스에 벨트 하나 묶고 그리고 파마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남친하고 나 둘이서 새벽에 나가서.

이형진: 4월 10일경. 74년 4월 10일경.

최영희: 아니에요.

이형진: 사후예요. 인혁당, 4월 9일.

최영희: 인혁이 아니라니까.

이형진: 사형 선고, 지금 사형 선고 얘기하셨어요.

최영희: 아니야. 그거는 75년이지. 74년이라니까. 민청학련 1심 구형날이예요. 하루 전에 인혁당 1심 구형하고 다음주에 선고를 해요. . 전에 내가 카나다 선교사 사무실에, 집에 숨어 있는 거는 인혁당 사형집행 사건이 아니라 민청학련 사건 바로 그때라니까. 그때 수배돼서 여기에 숨어 있는, 그때라니까. 74년.

이형진: 사형 선고를 들었다고...

최영희: 글쎄, 구형이야 구형. 그러니까 인혁당은 75년 4월에 대법 판결나고 다음날 새벽에 사형 집행 한거지. 지금 내가 만든 유인물은 이쪽 민청학련 애들 1심 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74년도예요. 그게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름이었어요. 사실 나도 마음이 찜찜 했어요. 차마 무서워 인혁당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사실 그때는 민청학련문제도 모두들 숨죽이고 있었어요. 무조건 구속이니까.

이형진: 그래서 미니 스카트를 입고.

최영희: 미니 스카트를 입고 통금이 풀리자 서울역에 가서 앉아 있었죠. 날이 밝을 때까지. 공원에서 놀다가 4시경 교회들이 수요 예배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시쯤부터 명동성당, 경동교회, 세문안교회, 초동교회 뭐 하여튼 이런 데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경 찬송가 넣는 의자 등받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넣는 거예요. 서로 망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밤 10시 정각에 약속대로 돌아와서 삐 삐 삐~ 선생님이 그냥 나를 끌어안고 뱅뱅뱅뱅뱅 도시는데, 잡혔을까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출근은 하셨지만 물도 제대로 안 넘어가더래요. 그런데 며칠 되니까 구미혜 선생님이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들어오신 거야.

이형진: 구미혜.

최영희: 미스 커넌이에요, 커넌 선생님. 한국말로는 구미혜. 가족이 잡혀갔다는 거야. 왜요? 우리가 한 유인물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 갔냐니까 김지하 엄마, 안재웅선생 마누라, 등등

이형진: 아, 가족 입장에서 썼으니까.

최영희: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할 만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족을 고문하진 않을 거예요. 좀 고생하겠지만 곧 나올 거라고 안심시켜드렸죠. 내일 출근 하시면 이미경이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이미경이 그때 기독교회관에 근무를 했거든요. 에큐메니칼 선교협의회. 그랬더니 왔어. 깜짝 놀랐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진짜로 어떻게 잘 있나 걱정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왔더라고. 은근히 이렇게 물어봤어. 요새 분위기 어때? 그랬더니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형진: 민청학년 가족들이 잡혀갔다.

최영희: 응, 잡혀갔다. 유인물이 돌았는데 가족이 한 거 같진 않은데, 야, 근데 누군지 진짜 용감해. 교회나, 기독교 회관에서도 지금 반성하고 있다. 너무 움츠렸다는 반성이지. 우리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 하는 거지.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난 암말도 안 했어. 그러냐. 야, 근데 만약 그 사람들 구속되거나 조짐이 있으면 구미혜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 좀 해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조심해라, 그러고 이제 갔어. 근데 몇 명이 더 잡혀갔지만 사실 안했으니까 모두 풀려났어요. 가족을 고문할 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옛날에 어머니라는 막심 고리키 소설을 보니까 아들이 유인물을 뿌렸다는 혐의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한 활동가가 어머니한테 유인물을 주면서, 이렇게 치마폭에다 넣어가지고 뿌리시라고. 그래야 아들

이 나옵니다.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한 번 더 하는거죠. 한 번 더 하면 가족이 아닌 것이 밝혀지니까. 그런 방법으로 서울법대생이 잡혀갔을 때 구해낸적 있어요. 구선생님댁에서 나와서 아직 숨어 다닐 때 본격적으로 유인물 작업을 했어요, 동숭동 서울법대 큰 강의실에 아침 일곱시쯤 가서 의자마다 유인물을 놨어요. 한 100장쯤 돼요. 근데 그걸 보고 바로 데모가 일어났어요. 대학로 거리로 나왔다가 진압되고 주동자가 잡혀 경찰서로 갔다고 동아일보에 났어요. 근데 법대에 뿌리고 나서 건물을 나설 때 수위가 그 건물로 들어가더라고. 에구 들키겠구나하고 후배랑 둘이서 문리대쪽으로 죽기살기로 뛰어 도망갔어요. 문리대는 못 뿌렸죠. 그래서 다음날 고려대를 가서 뿌렸어요. 거기도 데모가 있었어요. 같은 유인물이니 법대생은 석방됐어요. 어쨌든 가족들이 풀려나니 구선생님은 제게 휴가 문제를 상의하셨어요. 해마다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에 있는 선교사 휴양지에서 한 달 쉬신대요. 그런데 유인물 문제로 뒤숭숭하니까 차마 말을 못 꺼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가고 싶은데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시겠대.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 괜찮다고.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갔거든. 그런데 대천에 며칠 있으니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놀 수가 없어. 근데 웬 아기들이 노는데 아니, 크리스틴이 있는 거야. 오글 목사 막내딸이. 그래서 내가 크리스틴, 크리스틴! 이랬더니 어? 이렇게 쳐다보길래 아니, 아빠랑 다 같이 왔느냐 그러니까 그렇대, 집에 가자 어디냐, 그래서 크리스틴을 따라 갔어요. 숲속의 통나무집인데 정말 사모님도 좋아하시고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도망간 거 아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고 너무 걱정하시면서. 난 당장 그 집이 내 놀이터가 되는 거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통나무집을 통째로 빌려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휴가를, 가족이 전체가 왔었어요. 그래서 큰 딸부터 다 와서 아주 재미있게. 김성수 주교님도 놀러 오시고, 그러면서 시국 토론도 하고 그렇게 거기 있었어요.

이형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오글 목사님은 추방 되셨나요?

최영희: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지. 7월이니까 오글 목사님은 12월에 추방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때 남친 장명국씨가 소식 전할게 있다는 핑계로 내려 왔어. 목사님 부부가 남친과 함께 우리 셋을 식사 초대하셨죠. 그날 저녁에 남친은 오글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을 여러 가지를 토론을 했어요. 구미혜 선생님도 너무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먼저 가서 자겠다고 내려가시고. 그래서 우리 셋만 계속 토론하다가 이제 내가 걸려있는 민청학련. 이게 왜 도대체 생긴거냐, 이 진실이 뭐냐. 목사님이 궁금하시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인혁당이 진짜 뭐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새벽 두 시까지 이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형진: 오글 목사가 그걸 통해서 이해하셨구나.

최영희: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갱이라는 거,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느 때, 어떻게 써먹었는지, 그 역사가 얼마나 긴지. 1차 인혁당 사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조봉암 얘기도 하고, 지금 이정권이 인혁당을 왜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금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너무 살벌하게 몰아가니까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사실 이럴 때 공산주의나 빨갱이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카톨릭이나 기독교 종교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서줘야 하는데, 너무나 무자비 하니까 지금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 목사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국 선교사잖아요. 농담 비슷하게 그랬더니 허허,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형진: 그게 계기가 된 건가요.

최영희: 그러다가 장명국씨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수병씨 부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가족을 한번 만나보시면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우리 얘기를 듣고 팔짱을 끼고 침묵하며 한참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누구라고 그랬죠? 이수병? 메모지를 집어 적으시려고 하시기에, 아니요 목사님 적지 마세요. 기독교 회관에 가실 때 그 가족들 좀 만나게 해달라면 아마 연결해줄 겁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이 얘기는 절대로 우리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그 가족한테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하시며 막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나는 숙소로 내려오고 장명국씨는 목사님댁 소파에서 눈 붙였다가 새벽차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서울에 잠깐 갔다 오셨는데 그 분들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바쁘니까, 그걸 자기가 갑자기 어떤 계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개념이 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뤄놓고 있었던 것 같애. 저도 전혀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죠. 자유롭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어디선지 오글 목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찾아온 거죠.

이형진: 누가 오셨을까요? 이수병...

최영희: 아니, 우홍선씨 부인 강순희씨. 오글 목사님 책에도 다 있고. 그리고 오 목사님도 그 가족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하고 만난 것처럼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들이 얘기한 것 때문에 금방 목사님이 행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방당해 떠나실 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5년 계약으로 오셔서 1년만에 인혁당 문제 제기하시고 박해받다 12월에 그렇게 되시잖아요. 정말, 여기서 활동을 계속하시려고 애들 학교도 한국으로 다 옮기고 적응할만할 때 저렇게 쫓겨나니까. 미안하기도 하죠, 미국 가셔서 계속 인혁당 문제와 독재정권의 문제를 제기하셨지요. 넉 달도 안 돼 가장 야만적인 사형집행을 해버렸으니 인혁당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형진: 미국 가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최영희: 네, 미국 가셔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게 오 목사님과의 인연이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도 오시면 꼭 저희들 찾아주시고, 저희들도 식사 대접하고, 행사장에서 뵙고 그랬어요. 목사님 떠나시고 이듬해 3월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셨나봐요. 나중에 독일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향수를 사서 그 회의에 참석한 한국 사람을 통해 보내셨더라구요. 그리고 장명국씨가 코넬대학의 노동경제학 코스를 신청할 때도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코넬대에서 허락받았는데 결국 김대중 납치사건 유인물 뿌렸던 것을 이유로 정부가 막아버려서 못 갔지만.

(* 이 인터뷰 후에 오글 목사님 1주기 기념행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고난함께'라는 단체에서 인혁당 우홍선씨 부인 강순희여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분은 오글목사가 책에서 자기를 처음으로 찾아와 호소한 가족이라고 썼으며, 추방당하실 때 자동차에 오르기 직전에 자신이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목사님 손에 끼워주신 분이다. 난 오글 목사님이 논리적이고 선동이나 감성적 접근이 잘 안 통하는 분이라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 인터뷰는 그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여사는 사건이 난 후 운영하

던 의상실을 닫고 재판정으로 구치소로 뛰어다닐 때였다. 어느 날 구치소에 생필품을 넣어주려고 갔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라는 사람이 오글 목사가 강여사를 만나자고 한다고 했다. 강여사가 오목사를 찾아 가니 연설을 할 수 있으면 목요기도회에서 5분 스피치를 하라 했다. 강여사의 5분 스피치는 청중을 감동시켜 모두가 환호하고 도와 주겠다는 호응을 얻어냈다. 오목사는 다시 강여사에게 엠네스티 기념식에서 발언하도록 주선하고, 강여사가 군사재판이 아닌 공개재판을 요구하자 발언을 중단시키려는 것을 청중들이 모두 책상을 두드리며 더 듣자고 요구해 끝까지 말을 마쳤다. 그날 오목사는 강여사가 인혁당 석방 탄원서를 함께 쓰기로 한 친구집까지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다. 탄원서는 재판장, 박정희 육영수 등에게 보냈다. 이 사실을 안 오목사는 외신 기자들에게 알려 워싱턴 포스트, 일본 신문기자 등이 강여사를 찾아왔다. 오글목사는 한국민주화운동을 돕는 뜻있는 북미지역 선교사들과 월요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대천에서 처음 만난 커넌 선생님도 그때부터 그 모임에 나가셨다. 이 모임 멤버에 린다 죤스라는 여자분이 언론계를 잘 알아 내가 커넌 선생님 집에 있을 때 직접와서 반도상사 사건을 써달라고 하더니 이글을 일본 세까이 잡지에 실었다. 오목사는 외신뿐 아니라 강여사가 명동성당에서 발표하도록 주선했다. 처음에 오목사는 가족이니까 저렇게 억울해하지 생각도 했지만 정보부에 끌려갔다 나온 후 이들이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확신이 섰다. 그래서 본인이 강여사를 직접 데리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 설득해서 석방촉구청원서에 서명하게 했다. 추기경을 비롯해 15명도 넘는 인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서명을 받아 준 것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시간을 곤욕을 치른다. 이것이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도되면서 당국이 추방령을 내린다. 난 사실 오목사님이 가족과 선교사들에게 미칠 파장 때문에 우리의 호소를 받지 못하시는거라 생각했다. 대천에서 말씀 드린 지 두 달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월10일 목사님은 드디어 입을 여셨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혹독한 형을 받은 여덟 명이 있다. 증거가 없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라고 사실 목사님은 계획을 다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기뿐 아니라 지혜를 겸비한 목사님이었다.

이형진: 조금 뒤로 가서 하나만 짚죠. 동일방직 여성 선배들이 30주기가 될 때, 2008년이었죠. 그때 최 선생님 국회의원 시절이었어요.

최영희: 아, 그래요?

이형진: 그때 30주년 기념한다고 그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고, 5가에서. 그때 최 선생님 모tu다가 사회를 보게 하시지 않았어요?

최영희: 기억이 안 나네.

이형진: 88, 98, 2008 맞아요. 그래서 그때 최연봉 선배나 이런 분들이 다 한복 저고리 입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30주년 기념을 하는데, 이총각 선생님은 안 오셨고, 외국 가셨고. 그리고 그때 그 최영희 선생한테 연락을 하니까 내가 가서 해줘야지, 그러고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 뭐 다른 이제, 선배들 이렇게 많이 모이셨을 때 사회하면서 이렇게, 그 동일방직 식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30주기로 뭐 소책자를 내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최 선생님이 동일방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하고 관계가 어느 쪽과 무관하게 두루두루, 그니까 그, 갖고 계셨구나 싶더라고요

최영희: 근데 그만두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80년도에,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형진: 그러고 한 2, 3년 정도 쉬셨나요?

최영희: 네. 인천 산선은 쉬었지만 서울에서 노동자 야학에서 노동법도 가르치고 야학 선생들에게 노동자와 함께하는 자세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해고자들이나 어려운 노조들 상담해주고, 활동은 계속했죠. 월급이 없을 뿐이지. 서울 부평 구로지역도 해고자나 노조 지원, 결성활동 계속했어요. 시댁에 얹혀사는데 노동자들이 집으로 엄청 찾아와. 우리 아들이 서너 살 때 친구들한테 나는 이모가 백개다 백개, 이러고 자랑하고 다녔어. 이제 약간 유화국면이 시작되다가 사북탄광에서 거의 봉기수준의 투쟁이 일어났잖아요. 서울의 봄이 시작되니 목사님이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와이에이치 사건 나고 나서 80년도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망가진 거를 다시 회복시켜보자, 네가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이 78년에 자양동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인천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개봉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어머님한테서 떠나가지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개봉동 전철역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개봉동에서 인천을 다녔어요.

이형진: 아, 80년 초였어요?

최영희: 네, 80년도.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형진: 그 무렵에 인재근 선생님을 그쪽에 연결을 하셨어요?

최영희: 아니에요. 제가 76년 말에 그만두고, 바로 김은혜를 보냈어요. 김은혜가 들어갔는데 얘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한 10개월쯤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래도 몸도 안 좋은 애가 똥물 사건 때도 나와서 열심히 지원했어요. 난 아침 일찍 치떨리는 똥물사건 소식을 들었는데 저녁에 은혜가 내게 전화했어. 누가 언니 집으로 곧 갈테니까 급히 호소문을 써 달라고. 애기 젖 주다 말고 시아버님께 맡겨 놓고 바로 부엌방에 엎드려 분노를 쏟아 쓴 것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똥을 먹고 살지는 않았다'예요. 그때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김병곤이 바로 글을 가지러 삼청동에 왔더라구요. 마무리가 덜되어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당에 서서 기다렸다 가져갔어요. 김병곤은 그 유인물을 뿌리고 잡혀가서 또 감옥 갔어요. 글도 자기가 썼다고 다 뒤집어쓰고. 그 뒤로도 서너 번 감옥을 더 갔는데 결국 옥중에서 암이 발견돼 아깝게도 37살에 세상을 떴어요. 김은혜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후배예요. 어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형진: 그게 78년, 79년인가요?

최영희: 그럴 거예요.

이형진: 말이 너무 빠르던데. u

최영희: 78년 아니다, 77년인가 보다. 제가 그만두자마자 하여튼 은혜를 추천 했어요. 은혜도 우리 서클 후배니까 은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은혜가 그만두고 78년초에 재근이가 들어갔죠. 재근

이는 내가 돈을 모아줬어요. 활동비를 모아줬어. 동일방직 똥물사건 때 산선에 있었어요. 그 즈음에 78년 봄이죠. 똥물 사건 나고 나서 재근이를 근태형한테 소개해줬는데 근태형이 수배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몰래 살림을 차렸나 봐요. 배가 불러지니까 79년 중반에 산선 그만두고 간사가 없었지요. 박정희 사후 79년12월8일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구속자는 석방, 수배자는 수배가 해제 됐죠. 하지만 섣불리 양지로 나올 수는 없었어요. 12.12구데타를 알고 있었고 5.17이 났으니까요. 남편이 근태형 소개로 80년 가을쯤에 금성냉동학원을 인수했는데 근태형이 81년도에 좀 자유로워지자 학원에 가끔 들렀어요. 주로 재야 운동, 학생운동가들과 정치동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근태 형에게 형이 수배중에 공장에도 있었고 미동냉동학원에서 예비 노동자들에게 강의도 했으니 이제 노동 운동 쪽으로 들어서시라. 학생운동도 노동현장으로 옮겨 가는데 형이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며 인천산선에 가기를 권유했어요. 사실 산선들이 취약한 것이 체계적인 사회과학 지식이었어요. 목사님도 이걸 인정하시고 남편을 불러 인천 쪽에서 강의도 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얘기한 적도 많았지요. 그래서 남편은 장기적으로 근태형이 노동운동에서 함께 역할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형진: 수배가 너무 오래되셨죠, 사실.

최영희: 이제 그때는 공식적으로는 풀렸지만 굉장히 조심했어요. 이미 운동가들은 12.12 쿠데타 세력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고 근태형같은 사람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가미를 씌울 수 있으니까. 수배당할 때 저걸 했었거든요. 그 학원, 냉동학원 강사도 하고 열관리 기술이,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태형이 소개해서 우리가 금속냉동학원을 인수한 거예요. 사실 금성냉동학원 인수하기 전에 인천 산선에 제안했어요.오글 목사한테 연락해서 미국 감리교나 이런 데서 선교 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서 위장 취업하는 학생들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소를 하나 만들자고 했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황영환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로. 이게 선반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황선생이 베테랑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반 기술 같은 걸 배워가지고 들어가지 들어가서 그냥 상처만 당하고, 손가락 잘려, 계속 프레스, 프레스공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기술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면 시킬게 프레스공이거든요. 그다음에 용접이야. 제대로 용접도 할 줄도 모르면서 용접 배우다가 데이고 땡볕에서 고생하고 이러니까 금방 들어갔다 나가버려. 못 견뎌. 그러니까 자꾸 치고 빠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황영환 선생님도 찬성 하셨고.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됐어. 우리 남편도 그게 안 되니까 냉동학원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노동자로서 노동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갖고 들어가라. 근데 아무데서나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냉동학원 해가지고 많이 취직 시켰지. 그리고 너무 험한 일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고압가스, 보일라, 냉동, 이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월급도 많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되도록 큰 회사 로 들어가게 했고. 저희들은 어쨌든 80년도에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산선에 목사님한테 가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안 되겠어. 이제는 하나님 빽이 소용이 없겠구나.

이형진: 아, 그 생각이 들으셨구나.

최영희: 네, 하나님 빽으로 안 돼. 왜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빽이 사실은 산업 선교회를 도와준 거거든요. 빨갱이 아니라는 거. 노자는 빨자라고 몰아부치니까. 방법은 그쪽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산선이 빨갱이 대명사가 됐어요. 아무도 안와요. 동일방직 해고자들도 다시 복직 투쟁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다시 5.17이 나니까 주저 앉고. 사실 이들은 대단한 전사들이 되어 있었

어요. 감옥과 경찰서를 수도 없이 드나들며 신념도 강해지고 투쟁 전략 전술도 훌륭해요. 12.12이후 정세분석 따위에 얽매인 활동가들은 위축됐지만 대학가나 생존현장의 일반 노동자들의 꿈틀거림은 활발했어요. 그러다 4월 초 청계피복 노조의 투쟁이 불울 지폈고, 사북사태가 나면서 곳곳에서 폭발을 했죠. 동일방직 해고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잘해요. 생존을 위해 버스 차장으로 가구공장 쉐타공장에서 일하고 해고당하면서 복직을 위한 노총점거 투쟁에 다시 모여들고.

이형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이제 산선이라는 센터중심의 운동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합법적이고 개방된 사업은 당시에는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장을 만들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을 찾아오는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을 기장산선 서대문 사무실에 모아 정기적 교육을 해왔는데 5.17이 나서 교육이 어려웠어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5월17일이 토요일인데 저녁에 노동자 25명정도와 학생 두세명, 그리고 남편과 나, 노동운동하는 후배들 서너명이 모여 하던 교육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서 빙 둘러서 구령을 붙여 체조를 하는데, 가까운데서 우리보다 훨씬 큰소리로 구령과 기합소리 착착 맞는 군화발소리가 들려. 나는 뺨에 소름이 확 끼쳐 남편과 후배들을 보니 같은 표정이야. 후배가 가보겠다고 나가더니 경기대학교에 군대가 와있다는 거야. 뉴스를 못 봐서 몰랐어. 아빨리 집부터 치우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노동자들은 우리와 전혀 달라. 계엄령이 대수냐며 자기들 군대시절 무용담을 시작하려 해요. 우리가 초조해 하니까 오히려 노총가도 크게 부르는 시늉을 하고 느긋해요. 해산하기 싫어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해 일단 지켜보고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광주항쟁 이후 몇 달간은 노동계가 처참한 짓이김을 당하는 시절이었잖아요. 이제 서대문에서는 교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슬슬 일반 노동자들이, 저희들을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개봉동 우리 집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이십 명씩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형진: 아, 집에서도 하셨어요?

최영희: 네, 집에서 했지요. 한번도 안 덮은 신혼 이불, 이거 다 깔고서는 다 그러고 잤어. 내가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양말부터 벗으라고. 발 씻고 들어가라고. 화장실로 보내는 거야. 그런 모임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상하게 봐요. 걱정이 돼서 조금 위치를 바꿔 연립주택 1층을 얻어 이사했어요. 같은 평수라도 연립이 마루도 넓어 교육하기 좋아요. 커텐 다 치고. 근데 이런 방법은 불안하잖아. 뭔가 합법적으로 해야지 확산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장을 만들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 한글을, 아니, 노동법을 한글로 만드는 거. 그때는 다 한문이었으니까. 노동법을 한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이형진: 그걸 그때 생각하신 거예요?

최영희: 그때 생각한 거예요. 한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근로기준법을 한글로 만드는 작업을 해봤어요. 근기법을 한글로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 여러 사람, 우리 남편도 군대에서 그거를 한글로 써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놓고 보니까 이 법조문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법을 해석해주고,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하니까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 법을 함부로 손 대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이 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너무나 달라질 것 같다.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일단은,

이형진: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최영희: 그리고 이때는 우리 남편은 이제 70년대 말쯤부터는, 80년대 딱 되면서부터 가장 노동자, 남성, 중화학공업 노동자, 이게 핵심이다.

이형진: 그게 핵심이다.

최영희: 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걸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 친구 중에 현대중공업 과장이 있었어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취직해서 이제 울산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게 형편없고 그러니까 슬슬슬슬 사람들을 데리고 좀 모임을 하나 했어. 작은 모임에서 책을 소개했는데 미국노동운동사였던가 하는 책이예요. 그걸 가지고 회사가 감옥에 보내버렸어. 결국 무죄로 나오고 복직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형진: 혹시 그게 권용목 그쪽인가요?

최영희: 아니, 권용목은 나중에 남편이 하는 거고. 권용목은 87년이고, 이거는 80년도야. 80년도 서울의 봄 때야. 서울의 봄 때 노조를 결성을 했어요. 석방되어 복직하자마자 5월 17일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어. 하필 5.17이냐구.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데리고, 진짜로. 다 서명도 다 받고, 과장이 총대를 메고. 근데 노조 필증이 안 나오고 해고를 당해요.

이형진: 징역 살 정도는 아니에요.

최영희: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실업자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영어를 잘하니까 번역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학원만 하지 말고 출판사도 좀 하지. 나 영어 좀 번역해가지고 먹고 살게. 거기에다가 저의 소망이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노동법을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 여기 한글로 고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형진: 최 선생님 발상이었어요? 하하하.

최영희: 아니에요. 다 같이. 노동운동하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해요. 여성노동자들까지 쉽게 보는 노동법. 산선에 있을 때도 절실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쓴다? 이건 상상도 못했어.

이형진: 사실 그렇죠.

최영희: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남편이 불도저거든요. 한달 내내 그 노동법책 내자. 이렇게 조르고,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자기는 망해가는 학원을 인수했으니 학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형진: 판례가 들어갔던 게 그게 사실 주요했던 거죠.

최영희: 이제 처음에는 버텼어요. 그런데 계속 몇 사람이 나보고 하라니까 얼마나 법이 어려운 줄 아느냐. 안 된다. 그랬더니 할 수 있대. 최영희, 옛날에 그 애들한테 그것만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제 기회가 왔는데 왜 못한다는 거야. 이건 법학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못써. 노동자의 수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어. 그래야 책 내는 목적에도 부합하고. 내가 3천만 원까지는 투자를 한다. 출판사가 망해도 3천만 원까지는 투자를 할 테니까 노동법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2년에 걸쳐 만든 거예요. 나하고 노동자 한 사람하고. 민성 전자 부지부장하다 해고된 조명자. 똑똑하죠. 고등학교 졸업한 노동자예요. 지금도 평생을 함께 가는데, 나하고 같이 연구를 한 거야. 이제부터 공부에 들어간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모든 책을 사지는 못해. 너무 많은 책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묶어서 나오는 자료집도 있고, 그게 양이 말도 못해요. 질의회시 아니면 무슨 노동부 예규 뭐 이런 거 있잖아. 판례집도 얼마나 두꺼운지. 교보하고 종로에서 살았어요. 둘이서. 그냥 보고 요점을 베껴오는 거야. 핸드폰만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오지, 그땐 그런 것도 없어. 그게 노트장이 이렇게 돼. 내용을 압축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노동운동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쓰죠. 기본적인 노동교육내용이나 노조결성방법, 노조운영방법, 부당해고나 임금관련 소송 및 구제신청 등 각종 법률서식, 기존법의 문제점 등.

이형진: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죠.

최영희: 다 쓰죠. 그다음에 새로 찍을 때마다 양이 늘어나요. 내용이 점점 두꺼워져. 이게 필요하다 하면 또 넣어. 그다음 한 번 더 찍을 때 또 넣고. 처음에는 요만했어.

이형진: 그거 다 들고 다녔어요. 87년에.

최영희: 그게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이형진: 전태일 열사가 죽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80년에 이제 법을 사람들이 손에 들게 된 거죠.

최영희: 82년도죠. 82년도 말에 그렇게.

이형진: 음, 최 선생님, 오늘은 너무 오래 하시면 힘들 것 같은데 차를 좀 드시고.

최영희: 아니 여기 차가 너무 써. 저는 커피를 한 샷만 넣는데 두 샷. 이제 뭐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이형진: 제가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영희: 뭘 정리해.

이형진: 그리고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거예요. 저하고 한 번 더 만나죠.

최영희: 아이 그만해.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보충할 것들은 있어요.

이형진: 털어놓고 싶은 걸 쭉 이렇게 털어놓으시면 이게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제가 선배님들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좀 홀가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최영희: 어쨌든 관계되는 것만, 사람

이형진: 사실은 인천의 노동운동이나 70년대 후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이제 보완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오늘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형진: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최 선생님, 사실 그 20대 초반, 후반, 애틋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김민기도 들었겠지만, 비틀즈도 아실 거 아니에요?

최영희: 나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이형진: 그렇진 않으셨어요?

최영희: 오직 운동.

이형진: 독재 타도였습니까.

최영희: 오직 운동이었어.

이형진: 그렇게 된 힘이 뭐였던 거 같습니까? 학창시절, 학창시절이 아주 충격적인 것 같진 않거든요.

최영희: 꼭 그렇지는 않아. 아니 그런데.

이형진: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좀 치열하게 사는 과정인데, 점점점점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듣는 정도로는 거의 죽기를 각오했던 것 같은데요. 결혼은 70 몇 년에 하셨나요?

최영희: 75년도에. 제가 87년에 명동 성당에 들어갔지.

이형진: 명동 성당 농성 때.

최영희: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고. 해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형진: 저지하기 위해서?

최영희: 저지하기 위해서 들어갔지. 사실 그때 들어갈 때는 잘못될 수도 있겠다 각오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해산 안하면 광주꼴 날거라고 소문이 돌았거든. 군대가 의정부와 수색에 대기중이라는 것은 정설이었고. 공포 분위기에서 농성장 빠져 나온 사람들도 많고. 일요미사에 갔는데 성당 내부 소식을 들어보니 심각해. 성당측이 해산에 동의했고 농성대도 흔들린다고. 농성대는 비표 없으면 쫓겨 난다고 하고. 남편이 들어가겠대. 난 이틀 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안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대중선동은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들어 가는 게 맞지. 사실 언제 이런

전 국민적 열기가 다시 솟구치겠어. 이 기회 놓치면 어찌 되겠냐, 해보자. 10살 8살 애들을 두고 들어가려니 착잡하더라고. 들어가니 날 알아본 한 청년이 내가 남겠다했더니 자기 머리띠를 벗어주더라고. 그게 비표야. 밤새 조별 토의를 통해 해산을 저지했는데 그 소식 듣고 함 신부가 나오신거야. 해산해야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내가 함 신부님한테 나중에 얘기했어. 내가 목사님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기 신부님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는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하시더라구. 그때 진짜 너무 분노했어. 나는 하루만 더 버티자고 얘기한 거였고, 월요일만 지나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 하루만 더 버텨주자. 우리가, 옛날에 광주가 고립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그랬냐. 그니까 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계속 시위를 할 거다.

이형진: 6월 항쟁 마지막 단계에서 최영희 선생님 거기 들어가신 얘기도 나중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최영희: 안 됐어요. 저는 몰라요. 신부님께 항의하니까 카톨릭 청년 한 놈이 큰 소리로 최영희씨, 그만 좀 하시죠, 하더라구. 돌아보니 내가 모르는 놈이야. 거기서는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아. 신부님 말씀대로 프락지들이 많아서. 그걸 아는 놈이~ 나중에 누구냐고 물어봤지, 후배한테. 카톨릭 청년회 누구라고 말해주더군. 전하라고 했어. 너는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고. .

이형진: 김근태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최영희: 아까도 말했지만 근태 형은 내가 중매쟁이에요.

이형진: 예, 그건 인재근 선생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김근태 선생님은 80년대 돼서 노동 운동을 시작하신 거네요.

최영희: 그렇죠. 아니, 사실 관심이 있었으니까 70년대 중반에 아카데미 교육도 받고 수배중에 공장에도 들어가고 했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학생 운동은 학생 당사자들이 해야 된다. 어른이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에서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런 거 하니까, 이걸로 잡았으니까 형님도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한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얼마 안 있고.

이형진: 민청련 하기 시작했죠.

최영희: 83년 봄이었어요. 근태형이 와서 민청련 해야겠다고 산선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길게 얘기했어요. 설득이 안됐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형은 큰 나무 그늘에서 활동하겠다는 거다. 나는 묘목에 물주겠다. 근태형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때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었지만 민청련 활동은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이형진: 그 문제가 당시에 83년 정도였는데 경신공업하고 동보전기 전기, 거기 소모임을 김근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친구예요. 그거 경신하고 동보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87년 이후에 회사 다니면서 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김근태 선생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솔직히 어땠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웠대요. 이해가 안됐고, 왜 그러냐고 노동자를 배신하느냐 이런 얘기.

최영희: 산선 그만둘 때?

이형진: 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영희: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형진: 사실 산업 선교회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역할이 다 된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영희: 근데 이제 다행히 동일방직 애들이 이제 동일방직을 나중에 이제 똥물 사건 이후로 그,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진짜 전사들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전사들이예요.

이형진: 그렇죠. 81년까지는...

최영희: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커가잖아. 다 투사가 돼가잖아요. 물론 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돼가는 거.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 역할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형진: 네, 존경하고 따랐어요.

최영희: 목사님은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두려움 없이 치고 나가고 그런 것은 굉장히 훌륭한데, 뭐라 그럴까 스며드는? 그런 것은 좀 아니었어요. 근태형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끈기있게. 그건 참 훌륭해요. 저는 항상 근태형하고 우리 남편을 비교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거의 직업병이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석탑 노동 연구원에 사람, 무시무시하게 많이 왔거든. 정신이 없어. 그리고 이제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 알아. 직장 이름만 대면 어떤 상황이고,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게 금방, 그 사람 얘기하면 조금 듣고 아,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나 걱정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공해와. 너무 그게 또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 근태형은 다 들어줘. 둘이 한번 섞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태 형이랑. 근태형은 나하고 놓인 위치가 다르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노동운동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한 거죠. 거대담론을 못 벗어나니까. 그리고 그걸 별로 그렇게 찾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인천 산선 주변에서 형이 생각하는 노동운동이 엮어질 수 없잖아. 씨앗을 하나씩 싹틔운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상황이 장기전을 생각해야 할 때였거든. 남성 가장 중화학공업에 딴딴하고 훌륭한 일꾼을 키우는 역할. 나처럼 절박하면, 내가 오죽하면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네 친구 옛날에 학교 다니던 친구 어디 공장에 들어간 애 없니? 그러면 누구는 있어요. 주소 알려줘. 내가 무슨 좋은 시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고, 당신 친구 누구를 아는데 당신이 좋은 친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 보낸다고. 그렇게 편지 쓰기도 했었어요. 운동할 사람을 만들어보려고.

이형진: 장현자 씨 찾아서 성당에 가서 개겼다는 건 진짜 압권이에요. 그건.

최영희: 머리로 생각하면 길이 생기니까. 그리고 김창수를 생각한 것도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어린 것이.

이형진: 최영희 선생님, 오늘 몸도 불편하신데 정말로 시간을 내 주셔서.

최영희: 아니, 진통제 효과가 훌륭해요.

이형진: 아,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이제 끝내요. 그걸로 끝내요. 아니면 나머지는 더 이제.

이형진: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한 번 정도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실 때 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희

- 서울대 학생회기획부장
- 엠네스티 인천지부 고문
- 등용문학원 이사장

일　　시 2021. 10. 21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이우재
대 담 자 한상희

이형진: 예, 오늘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70년대 인권운동, 엠네스티 활동을 하셨던 우리 한상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상희: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한상희 선생님은 1953년 인천 출신이십니다. 그, 인천에서 태어나신 거죠?

한상희: 예, 인천의 창영동에서.

이형진: 예, 그래서 뭐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과정을, 가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상희: 네, 제가 이제 창녕 초등학교 나와서 창녕 초등학교 뒤에, 뒷담에 살았는데.

이형진: 바로 그 인접한 데서 살았습니까?

한상희: 예, 금곡동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금창동이 돼 있지만. 그때 그 오남매의 외아들이에요.

이형진: 아, 위로 누님들이 계셨습니까?

한상희: 위에 누님 하나, 밑에 누이 동생 셋. 이렇게 해서 외아들인데. 외할머니하고 이제 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덟 식구가 살았는데, 부모님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데릴사위나 마찬가지라서 외할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채소 중개인도 하고 또 야채 가게도 운영하고, 소매, 도매를 겸해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형진: 그러면 시장에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상희: 예, 예. 도와 시장, 옛날에 선학, 지금은 선학 시장인가 뭘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저쪽 도립병원 앞에. 그쪽에 이제 도원 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서, 도원 시장, 도원 시장. 거기서 이제 소매점을 열어놓고.

이형진: 청과물 야채장인가요?

한상희: 예, 청과물 야채죠.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어렵잖아요, 그때는 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게에 가서 일당을 타다가. 그러다가 쌀을 사다 먹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아버님이 이제 고1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

이형진: 68년 정도 되셨습니다.

한상희: 그렇죠. 69년도, 69년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어려워져 가지고 그때 가게 하던 사람들이 망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받을 사람들만 오고, 우리가 받을 돈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상당히 어렵게 이제 고 1, 2, 3을 보냈죠. 고1 여름방학 때 돌아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생들, 중2, 중3 뭐 이런 애들 가르치면서 그러다 학비 대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거든. 그래서 가게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있는지. 뭐 하여튼 그 여자가 다 가져간 셈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방 한 칸에서, 월세 살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긴 했는데.

이형진: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고학생인 셈인데, 중학생들을 가르쳐서 이제 학비를 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상희: 어, 하여튼 뭐 첫 월급이 3천 원인가 받았는데. 고1 때. 그래도 그거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7천 원인데, 3개월에, 3천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돈 가지고 밀가루 두 포대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밀가루만 거의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그 친구가 성적이 좀 올랐다고 한 명이 또 더 붙어서 8천 원씩 받았어요. 두 명 가르치면서. 그래가지고 좀 심이 핀 거지. 하하하.

이형진: 저기 그, 제물포고등학교는 나름 민족의식이 좀 있는 학교라고 그때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선발(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한상희: 그렇죠.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가는 선발 집단이었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우등상만 받았으니까 거기 갔겠죠.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책이 좀...

이형진: 중학교는 어디, 어느 중학교.

한상희: 인천중학교 들어갔을 때, 물론 인천중학교에서 선발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동계 진학이거든요.

이형진: 인천 제고(제물포고)니까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신 거죠.

한상희: 중간에 한 두 반 정도는 탈락을 시켰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주 못하는 애들, 탈락이 되는데 거기는 안 하고 하여튼 동계 진학 한 셈인데. 중학교 들어가서 기억 남는 거는 도서관이 좋으니까 거의 매일 독서를 했어요. 그래 갖고 공자님 말씀에 '남아 일생 오거서'라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거서가 죽편으로 만든 거니까 내용이 별로 없겠지만. 나는 그 아마 화물차로 다섯 대 분은 읽었을 걸요. 책을. 그래서 책 박사예요. 사실은. 단편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때 철학 책까지 읽었으니까. 도서관에 있는 게, 우리 그 제물포 인중 제고 도서관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개괄식 도서관이라 거의 매일 저녁이면 거기 가서, 이제 방과 후에 가서. 책이 그만큼 고파서. 어릴 때 책을 많이 못 봐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독서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형진: 이과를 선택하게 되신 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상희: 아니, 이과를 선택하는 건 그때 대부분은 남학생은 이과고, 여학생은 문과고, 이런 성향이어서 그냥 이과를 갔고. 나는 또 뭐 사실은 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사대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하기.

이우재: 누구셔?

한상희: 김정식 선생님인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는 사대생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집도 어려우니까 사대를 가라.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보가 없는 거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똑같아. 문리대나 사대나, 기성회비 차이만 있어요. 기성회비 한 7천 원 차이만. 기성회비는 안 받고, 단지 이제 등록금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때 우리 친구들은 치대를 한 열 다섯 명쯤 합격을 했는데, 서울 치대가 110명 모집하는데. 나도 그 중간 정도는 가는데. 그래서 가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사대를 가게 됐죠.

이형진: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으셨나요?

한상희: 그럼 우리 자랄 때야 다 페스탈로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길을 가면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에서 사대에 들어가니까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성격이 좀 외향적이어서 친구들하고 놀러 당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서울 사대 들어가니까 제고에서 들어온 애들이 한 25명쯤 됐어요. 우리 동기가.

이형진: 71년에?

한상희: 72년도에 입학이죠. 그러니까 서울사대 총원이 하면 한 200 몇 명인데. 그중에 10%가 저기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동기들이니까. 우리가 거의 뭐라 그럴까, 분위기를 장악했다고 그럴까. 그런데 아무튼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를 했어요. 마지막이거든요 그게. 그때 이제 나는.

이형진: 75년이었어요?

한상희: 74년도. 74년도에 마지막 학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서울고랑 연합을 해서 서울고 출신 선배, 복학생을 학생회장 시키고 사대 단과대학 학생회장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 참모로다 하면서 우리 부회장을 또 제고 출신으로 앉히고 나는 기획부장 하면서 이제 학생회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유신 이후이기 때문에.

이형진: 직후였습니다.

한상희: 72년도가 10월 유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아침마다 최루탄 대포차가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고, 우리는 학교 들어갔다가 오후 되면 벌써 데모야.

이형진: 한 선생님. 그때 동숭동 캠퍼스로?

한상희: 저는 제기동에 있었어요. 사대는 따로. 사대는 제기동에 따로 있었고 공대는 태릉에 있었고.

이형진: 그랬을 때죠.

한상희: 그래서 이제 74년도. 그때가 이제 한창 73년도, 4년도 계속 데모하면서.

이형진: 반유신 데모가 한참 심했다는 거죠.

한상희: 예, 유신 반대 데모죠.

이형진: 그 데모 정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상희: 그때는 사실 학생회 간부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있으면 거의 내가 행동 대장이니까 그냥 거의 유인물 읽고 강당에서, 이렇게 분위기 띄워서 거리로 나가자고 그러는데 맨날 그 교문에서 대치하는 거죠 거의. 거의 진출은 한 번인가 하고. 그것도 철문 들어가지고 문 제껴 가지고 나간 적 한 번 있고.

이형진: 사대생 전체가 2, 3천 정도 되나요?

한상희: 한 천 명 되죠.

이형진: 아, 천 명 정도요. 학년 당 그러면 250명 내지 3백 명 정도.

한상희: 250명, 300명 정도겠죠. 한 400명 됐겠구나. 하여튼 지금도 정확하진 않은데 문과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없을 때 그 지나가는 대통령 차에 돌맹이가 떨어졌대나. 데모 하다가. 그래 가지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안기부랑, 아, 중앙정보부랑 들어 와가지고 조교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가지고 막 맞고 와서 그냥 채찍 자국이 등허리에 있는 선배가 올라와서 막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더 열 받아 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는 뭐 데모로 점철된 대학 생활이죠.

이형진: 그 72년에 유신 이후에 73년, 4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학생 시위가 굉장히 활발했던 건가요?

한상희: 그럼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휴교령, 다시 개교, 다시 휴교 뭐 이런 식으로.

이우재: 그게 그러지 않을 걸요, 형. 70년대 유신이라고 데모가 처음 터진 게 73년 10월일 거예요. 서울대 문리대. 유신이 얼어갖고, 73년 초반기에는 없었어. 73년 10월에 문리대에서 들이 터져갖고 막 번지니까 휴교령 내렸다가 그래갖고 74년도에 조금 저기 뭐 민청학년 엮어갔고 1학기 때 조용했다가 2학기 때 다시 터졌지.

한상희: 74년도가 민청학년인가?

이우재: 74년도 봄에 민청학년 사건 터져서 조용했다가 워낙 사회 분위기가 막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다가 74년도 2학기 때부터 동료 학생들 석방해라, 이러고서 다시 나왔지.

이형진: 이우재 선배님께서 입학하신 게 75년이잖아요.

이우재: 75년이지만 나는 운동사 정리해봤으니까.

한상희: 그렇지, 그렇지. 내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 같았는데. 하여튼 봄에는 잘 안한 것 같아.

이우재: 가을에. 거의 74년 가을에 무작위로 많이 했어.

한상희: 그때 이제 백영서가 또 민청학년으로 구속되고 나니까, 백영서가 구속되고 나니까 나도 동기 입장에서 물론 문리대지만.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사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 그 학생회장이 사실은 프락치였거든. 나중에 보니까. 보안사 출신이야. 그 서울고등학교 이현수라는 애인데. 교육과.

이형진: 그 밀었던 사람이잖아요.

한상희: 그 내가 밀어서 이제 학생회장이 됐지만, 걔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서브 조직들이 나한테 학생회 이름으로다가 유인물은 지네가 다 해놓고 날더러 와서 이제 학생회 이름으로 끌고 나가자고, 그래 가지고 이제 행동 대장 노릇을 한 거지.

이형진: 그런데 시위 때 이렇게 보통 이제 80년대에는 한번 하고, 곧바로 이제 연행돼서 구속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그 시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한상희: 그렇게 구속을 함부로 시키지 않았어요. 구속을 함부로 시키지는 않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한 구류, 한 며칠 하다가 내보내고 이런 상황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계속 데모를 하니까 전부 다 구속시킬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이제 일단 터트리면 도망가니까, 잘 도망 다녔으니까 그렇고. 74년도에 그랬고, 75년도에 우리가 관악산으로 옮겼거든요.

이형진: 75년에 이제 4학년이셨습니까?

한상희: 4학년 때 관악산으로 옮겼죠. 그런데 그 74년 말이 동아투위 사건이나 조선투위 사건이나 이래 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도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업 되있는 상황이었는데. 4학년이지만 내가 이제 관악산에 가니까 데모 하는 게 영 시원치 않은 거야, 이게.

이형진: 그때 처음 다 모인 거죠. 문리대와 사대, 그리고 공대까지.

한상희: 공대는 아니고. 문리대, 사대.

이우재: 공대는 아니고, 공대는 1학년만 왔어.

이형진: 그리고 인문대. 사회대도 왔고.

한상희: 법대도 왔고, 웬만한 대학은 다 모았죠. 그리고 관악산에 몰아놓으면 이제 시내까지 진출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서 몰아 때린 건데. 아니, 근데 그 문도 못 뚫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 받아 가지고 또 앞장서서 막 선동을 했는데. 그게 4.3 4.7이에요. 김상진 열사 추모 행사 비슷하게 시작한 거지. 4.3이.

이우재: 아니죠, 아니죠. 형님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형진: 75년에 오둘둘(5.22)이면 그전인데.

이우재: 어떻게 했냐면 74년 하반기부터 특정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하는 게 민청학년을 그렇게 잡고 나니까 이게 황당하잖아. 학생들 데모하려고 그랬다고 사형 무기 이렇게 막 때리고.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문제가 돼갖고 미국도 떠들고 이래 갖고 박정희가 손을 못 댔어요. 아이, 지금 올라 떡 사형 무기 때린 애들이 그거 안 구속시키겠어. 그래 갖고 74년 말에 박정희 정권이 주춤하는 사이에 막 불타올랐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투위 동아투위 터지고 거기에 밀려서 박정희가 75년도 2월 달에 다 풀어줬잖아. 민청학년 사건들이 2월에 풀렸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풀려도 복학을 안 시키니까 복귀시켜라. 이래갖고 터지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때 먼저 터진 게 연세대가 터졌어요. 내가 그 기록을 쭉, 연세대에서 총장은 복귀를, 복학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문교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총장도 복학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문교부에서 안 된다고 해갖고 붙었는데. 서울대는 관악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학교가 운영이 3월 20 며칠인가가 늦게 운영이 시작됐어. 근데 그 와중에 서울대학교에서 데모가 붙었죠. 그래 가지고 나도, 난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저기...

한상희: 김상진 열사 죽은 거...

이우재: 김상진 열사 죽은 거는, 그거보다 뒤에 4월.

이형진: 예, 4월이에요, 4월.

이우재: 4월 말이야. 서울대 4.3 4.7 그거 다 끝난 뒤에요.

한상희: 그래?

이형진: 그러면 한 선배님 이제 4.3 4.7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75년 상황을 중심으로.

한상희: 4.3 4.7이 사실은 준비한 사람이 원혜영이야. 원혜영이하고 그 누구냐. 문화재단 했던 원혜영이 후배 저기 뭐야. 안양문화회관 그, 하단에 있는데.

이우재: 연성수?

한상희: 아니, 연성수 아니야. 박우섭이나 연성수 말고 있어. 하여튼 이름이 잘 생각 안 난다. 그 세 명이 공범이야.

이형진: 4월 3일 시위를 준비하신 건가요?

한상희: 4월 3일, 4월 7일. 그 두 개에서 이제 나는 그냥 현장에서 잡힌 거고. 현장에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수배 당해가지고 4월 17일인가. 뭐 이렇게 잡혀갔어요. 도망 다니다.

이형진: 4월 3일 시위 양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상희: 4월 3일, 4월 7일 전부 다 교내에서, 교문 앞에서 이제 전경들하고 대치하는 상황이죠.

이우재: 저 노랑진까지 간 게 4월 3일이에요, 7일이에요?

한상희: 노량진?

이우재: 노량진까지 나간 적 있어, 한 번. 노량진 아니라 신림 사거리까지.

이형진: 신림 사거리 정도는 가능했겠네.

이우재: 정문에 막혀서. 누가 알려줘서. 낙성대 쪽으로 돌아갖고.

한상희: 난 정문에 있어서 몰라. 하여튼 4.3 4.7이 좀 쎄 가지고. 그다음에 지명수배 당해 가지고 이제 인천 시내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었고.

이형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한상희: 아니, 친구네 집을 전전한 거죠. 그 와중에도 이제 과외는 다 하고 돌아 댕겼다. 과외 집은 모르니까.

이형진: 하하. 생업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한상희: 그랬는데 4월 17일 날 결정적으로 이제 친구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서울 농대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방위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만나러 갔다가 형사들이 나를 덮치는 걸 도망쳤거든. 그랬더니 걔 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무슨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놈 간첩인데 얘를 만나고 댕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공법으로 약간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공법에 걸리면 이 문제가 되고, 또 그리고 아버지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친구 좀 설득해서 자수시키라고 그래서. 나도 또 이제 그거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자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잡혀갔죠. 4월 17일 날.

이형진: 구류 살았습니까?

한상희: 아니,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죠.

이형진: 그럼 몇 개월?

한상희: 징역, 징역 1년인가. 아니, 집행유예 2년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산 75일인가 살았어

요. 영등포 구치소에 있었죠.

이형진: 집에 모친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겠습니다.

한상희: 굉장히 우리 어머니 실망이 많으셨죠.

이형진: 그때 비로소 아시게 된 건가요?

한상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는 거지.

이우재: 영등포 가셨어요, 서대문 가셨어요?

한상희: 영등포. 왜냐하면 옛날에 관악 애들은 거의 다 영등포. 영등포로 갔는데 영등포에서 김배철이가 나중에 들어왔잖아.

이우재: 그렇죠. 오둘둘(5.22)로.

한상희: 오둘둘 애들이 왕창 들어오니까 난 처음에 독방에 있다가 걔네들 때문에 독방을 내줬지. 그리고 합방을 했지. 이제 경제사범 방으로. 다행히. 경제사범 방이 둘인데 한 동에는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는 원행이가 있고 하나는 내가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동권 애들을 좀 여러 명 만났지. 뭐 김우애 뭐 등등 해가지고 다른 대학 애들도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만났었죠.

이형진: 네, 그해 그러면 이제 75년 하반기가 돼서 석방되신 거네요.

한상희: 그렇죠. 하반기까지는 아니고. 한 6월, 7월? 집행유예니까.

이우재: 1심에서 나왔으면 6, 7월이지.

이형진: 학교는 그러면 퇴학당했습니까?

한상희: 당연히 이제 제명당했죠. 나오니까 제명당해서 이제 어, 우리 과 애들이 나랑 같이 졸업 여행을 가자고 그러는데 지도 교수가 자기 잘린다고. 졸업 여행에 퇴학 맞은 놈을 데려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 가지고 못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어려웠죠.

이우재: 내 기억에 나는 1학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쫓아갔다가 신림사거리까지 갔던 기억은 한 번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 가지고 2주인가 3주를 쉬었어. 그러니까 3월 20 며칠날 관악산 캠퍼스 문 열어갖고 한 2주인가 학교 다니다가 휴교해 갖고 또 한 2주인가 쉬었는데 그때 이제 저거야. 긴급 조치 후가 딱 떨어진 거야. 월남 패망하고 이런 거.

한상희: 그러니까 나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월남이 패망하는 바람에 완전히 분위기가 확 죽은 거지.

이형진: 민청학련 사건은 그러면.

한상희: 민청학련은 그전이죠.

이우재: 74년 4월이고.

이형진: 그 이후에, 그럼 인혁당 이런 부분들을.

한상희: 민청학련은 74년이 아니지.

이우재: 민청학련 사건이 74년 4월이고요. 어? 형이 우리가 4.7이고, 4월 9일 날 인혁당 사람들 사형시키고, 4월 11일 날 김상진 열사가 농대 데모에서 할복자살하고, 그렇게 된 거야.

한상희: 그랬어?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했을 것 같은데.

이우재: 그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는 휴교했고. 그다음에 농대도 휴교했고. 사람이 죽었으면 휴교해야지. 그다음에 긴급 조치 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개교를 했어. 조용하고 있다가 오둘둘이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한상희: 긴급 조치에 대항해서 데모한다는 건 목숨 거는 거니까. 사실은 긴급조치 대항은 오둘둘이 큰 거죠.

이형진: 한 선생님, 그러면 75년 이제 7월 이후에 석방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한상희: 그 이후에 이제 76년도에 제가 이제 70년도 5월 달인가 이렇게 저기 군대 갔죠. 그것도 이제 학변자(특수학적 변동자) 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쫓아와서 우리 집에서, 단칸방이잖아. 그러니까 단칸방에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에서 병무청 직원이 자면서, 나는 그놈들 출장비 받았으면 모텔 가서 자든지 그러지 말이야. 우리 집에서 자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데리고 용인인가 어디 가서 어?

이형진: 아니, 그러니까 그 병무청에서 와가지고 그 한 선생님이 집에 올 때까지 그냥 버틴 거예요?

한상희: 아니, 그러니까 나를 잡고, 저기 신검 받고, 신검장 까지. 그래 가지고 신검장에서 바로 저기 입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병역법상 나는 방위거든. 6개월짜리. 그래서 내가 그거 통지 받고 바로 수원 병무청으로 쫓아갔지. 쫓아가서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이거 입영 연기를 한 2주간 시켜놓겠다. 그 안에 우리가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2주 후에 보니까 다시 영장이 나왔는데 이제 방위로 들어가라.

이형진: 그러니까 독자라서 이제.

한상희: 독자를 그때, 2대 독자로 치거든요. 아버지가 고1 때 돌아가셨으니까 외아들인데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2대 독자라서. 2대 독자 이상은 6개월짜리예요. 그래서 6개월을 저기 백마장에 예비군 교육대, 거기에 이제 중대본부 행정병으로 있었죠. 그래 갖고 뭐 거의 6개월이 있는데 또 뭐지. 교련을 3년 받았잖아. 4학년 때, 교련.

이우재: 그렇지. 좀 깎아주는 게 있겠네. 날수가.

한상희: 어. 교련 3년이면 3주 깎아. 그런데 그게 그걸 떼려고 그랬더니 그 위에 빨간 줄이 쫙 쓰여 있는 거야. 내가 행정병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서 그걸 덮어버렸지. 하하하. 표지 붙이면서. 그래 가지고 제출해가지고 특명을 받은 거야. 그리고 또 내가 거기 있으면서 예비군 교육을 또 동원 훈련 가는 거를 따라갔잖아. 그 방위는 원래 8시간 근무인데 일주일 동안 근무했잖아, 밤새 거기. 그래서 그것도 또 3주 깠어. 그래 갖고 한 4개월 만에 제대했어.

이우재: 형 재주 좋네. 하하하.

이형진: 이제 75년까지, 그래서 군 생활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됐네요.

한상희: 군 생활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오둘둘 때 들어갔던 김배철, 우리 김배철이가 17회지? 김배철 정성현 그다음에 조용명.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 빌빌대고 있으니까.

이형진: 다들 4학년이었습니까? 동기들이었습니까?

한상희: 아니, 걔네들이 1학년 때 잘렸어. 재수해서.

이우재: 김배철은 내 2년 선배인데 삼수해갖고 나하고 동기고. 성현이형은 그저 그대로지.

한상희: 성현이는 3학년쯤 됐지.

이우재: 3학년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2년 선배고. 용명이 형도 그대로 아니야.

한상희: 그렇지. 용명이는 4학년. 근데 용명이는 졸업을 했을 거야. 졸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형진: 조용명 선배님은 사대였습니까?

한상희: 아니, 문리대였어요. 문리대 국문과.

이우재: 용명이 형이 졸업을 했으니까. 아니다, 모르겠다.

한상희: 80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도 걔도 무슨 긴조 비슷한 걸로 잘렸을 걸?

이우재: 구속 됐으면 무조건 잘렸어. 구속이 되면 무조건 제명이야. 감옥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제명이야.

한상희: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랑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자취방을 하나 얻고.

이형진: 인천에서요?

한상희: 네, 제물포에다가 학원을 차렸어요. 내가.

이형진: 아,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제물포에서 이제 학원을.

한상희: 학원을 차린 거죠.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몇 달을 굶었지. 근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때 운동권 후배들이 취직할 데도 없고 뭐 이러니까 우리 여기서 과외 방이나 차려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사설 학원도 아니고 불법 학원을 차린 거죠. 그냥.

이형진: 그러니까 학원업에 뛰어들었네요, 일단.

한상희: 과외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몇 명 모으면 될 거다. 그리고 그때 그게 커다란 위법이 아니었으니까. 왜냐하면 각 집에서 과외들이 많이 할 때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친구 누나들 도와주고 뭐 그래 가지고 그걸로 좀 성공했어요.

이형진: 학원이 이제 좀 돌아가기 시작했군요.

한상희: 그래서 이제 용동 마루터기에 또 우리 친구가 운영하던 사설 학원을 내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돈 좀 벌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거기 용동 마루터기에 있는 또 정일학원이라는 데서 강의도 하고. 그래 갖고 아마 선생님들 월급보다 한 10배는 받았을 거야. 월급을. 그 바람에 내가 인천 엠네스티를 만드는 데 동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후배들은 밥 사줘야 오지. 뭐 그냥 오나. 걔네들더러 회비 걷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재정은 내가 담당하는 거야.

이형진: 그 학원에서 벌어서 이제 엠네스티를 굴리기 시작한 건가요?

한상희: 예. 그러니까 한 20명 모이는데 그날 저녁 술값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 순대국에 술값. 뭐 이렇게 송현 성당에서 모였으니까. 수문통.

이우재: 수문통.

이형진: 아, 송현동. 거기 김병상 신부님 계신 데는 저기 답동성당 이었잖아요.

한상희: 답동 성당은 워낙 복잡하니까.

이우재: 황상근 신부 계셨던 데 아니에요? 송현성당?

한상희: 송현 성당에는 없었고. 나중에. 아니야, 송현성당은 최분도 신부가 있었어. 최분도 신부님이 엠네스티를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이형진: 엠네스티 활동부터 좀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황상근 신부님도

아마 장정옥 선생 증언에 의하면 송현동 성당 하고, 그쪽에 계셨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한상희: 하여튼 나는 카톨릭이, 안 다녀서. 어느 성당에 신부님이 계셨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황상근 신부님이 내 주례였었어. 나중에. 84년도 결혼식 할 때, 내가 주례로 모셨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됐든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사설 학원 하면서 친구들을 이제 후배들도 다 서울대 출신들이니까 강의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국어 가르쳐라, 조현민이. 그다음에 또 뭐 배철이는, 근데 그놈은 아무것도 못 가르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하하하. 내가 수학 가르치고 또 영어 가르치는 사람 하나 해 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애는 또 연대 의대 나온 애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백영서가 어느 날 만났는데 그냥 인천에서 운동권을 조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긴급 조치 상황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멀쩡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법적인 조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잡혀가니까, 불법 조직은. 그래서 연구한 게 엠네스티라는 기관이 있다. 엠네스티 인천 지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형진: 엠네스티는 국제사면위원회니까 그게 나름의 합법성을 볼 수 있다.

한상희: 그러니까 국제단체이기도 하고 또 신부님들이 주로 이제 관여돼 있잖아요. 그 나길모... 나길모 주교가 이사장 직인가. 뭐 하기도 하고. 그때는 부이사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이사장은 윤현 목사였어요. 엠네스티에서 보면 윤현 목사님이 저기 한국 지부 이사장이었죠. 그런데 하여튼 이재호가 사무국장이고

이우재: 이재오가, 이재오가 그랬어요.

이형진: 그 이재오요?

이우재: 지금 이명박이 쫓아다녔던 이재오.

한상희: 이명박 쫓아다니던. 나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어. 근데 하여튼, 이재오가 중앙대에 나왔던가 그랬어.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은 그게 합법 조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개 모임을 전부 다 이제 성당에서 하는 거예요. 성당 또는 무슨 수도원 이런 데서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 조직을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이제 송현 성당에다가 우리가 사무실을 차리기로 했죠. 그 황 신부님하고 상의해서. 주로 우리를 담당했던 신부가 황상근 신부예요. 최분도 신부님은 외국인 신부기도 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엠네스티가 추구하는 바가 자국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거든. 자국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요.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양심수들을 외국 애들이 도와주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있는 양심수를 도우면 도왔지, 자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야.

이형진: 아, 그게 기본 원리였습니까?

한상희: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탄압을 못하죠. 그 대신에 우리는 합법적인 엠네스티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송현 성당에서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고. 거기서 또 이제 교육 분과도 만들어서 또 뭐 학생들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형진: 그러면 그 대표 신부님은 이제 황상근 신부님이셨는데.

한상희: 아니, 대표는 김병상 신부님이 지부장으로 돼 있었어.

이형진: 아. 그러면 이제 실무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한상희: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때 우리끼리 회의해서 한 20명 정도가 젊은 애들이 꼭 모였는데. 그때 담당했던 김세수. 김세수를 회장으로 뽑았을 거야. 아마. 김세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우재: 정세일도 있었잖아.

한상희: 정세일도 있었지. 정세일은 근데 이씨씨(ECC) 다니니까.

이우재: 아, 이와이씨(EYC)지?

한상희: 이와이씬가. 어, 정세일은 기독교 쪽이라서 그냥 대표하기는 어렵고. 정창용이도 있었지. 정창용이. 이게 다 서울대 후배들로만 이제 거의 구성하다시피 하니까, 내가 인맥이 인하대랑은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대 후배들도 하니까 홍덕률이 뭐 사대 후배들 또 거기다 임영표, 농대 다니던 임영표도 오고. 나중에 다 이제 가서 석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에서 젊은 애들은 다 끌어 모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우재: 준식이도 거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한상희: 나준식이도 왔지. 나준식이가 나중에, 나준식이가 나중에 실무 책임자지. 심부름하고. 그다음에 장정옥 씨가 이제 주력 세력이고. 장정옥 씨하고 백영서하고 나하고 셋이서 모여서 일단 정세일하고 넷인가? 이 정도 모여서 엠네스티를 만들기로 합의했죠.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인천에서 무슨 기독교 계통이 있는 애들이라든가 정세일이라든가 또 이런 애들이 아는 후배들을 자꾸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80년도, 하여튼 5.18 전까지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형진: 활동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한상희: 주로 이제 뭐 우리가 보면 김동길 교수님 초청해서 강연회를 한다든가, 저 답동성당 무슨 이렇게 강당에서. 또는 김지하 시인의 문학의 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학생들을 동원해서 세미나나 강연회, 이런 거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의식화 작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형진: 양심수 사면을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니네요.

한상희: 엠네스티 본연의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엠네스티 자체는 그냥 바람막이일 뿐이에요. 아, 근데 엠네스티 조직에서 이제 동원령이 내리면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장산 수련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가고. 또 뭐 저기 영등포, 무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뭐라고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그런 피정하는 데가 있잖아. 왜, 무슨 마리아의 집 이런 데. 그런 데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가고. 총회를 할 때도 가서, 우리가 총회에서 인천지부가 이제 윤현 목사를 밀어내고. 한승헌 신부. 아니, 한승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를...

이우재: 대한민국 지부장.

한상희: 예, 이사장 만드는 데 이제 공헌을 좀 했죠. 왜냐하면 한승헌 씨는 좀 확실하고. 윤현 목사는 좀 약간 냄새가 나거든. 약간 저기 뭐야. 정보 쪽하고 결탁하는 듯 한 냄새가 나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표 대결에서 밀어가지고 한승헌 씨가 우리 때 80년도, 79년 말쯤 돼서는 윤현 목사가 투표에서 지고 한승헌 변호사가 대표를 했죠.

이형진: 그 한 선배님, 전국 단위로 이렇게 엠네스티 총회 같은 걸 하면 몇 백 명 정도 됐습니까? 한 4, 500명 정도가 모였나요?

한상희: 그렇게는 안 모였어요.

이형진: 2, 300명 정도?

한상희: 아니, 그것도 안 됐어요. 내장산 수련회에 갔을 때도 사실은 엠네스티 후원이잖아요 후원. 엠네스티 조직 자체는 다 예를 들면 사회 중산층들이 지원하는 거거든. 지금 어려운 사람 돕듯이. 그러다 보니까 성당 신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청년 계층은 사실은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전주 지부, 아니 전라도 지부. 전라도 지부에서 청년 애들 몇 명 오고, 인천 쪽이 쪽수가 제일 많았지.

이형진: 인천은 그러면 한 100여 명 정도 됐습니까?

한상희: 아니요. 인천도 한 30명? 그런데 이제.

이우재: 그 당시에 어떻게 100여 명이, 운동권 인천이 100여 명이 있어?. 이 사람이.

한상희: 인천도 삼십 명이라 그래도 들락날락하는 애들 따지면 핵심 멤버는 한 이십 명. 근데도 수련회 가면은 사실 분위기 주도하고 그러는 건 다 인천 애들인 것이, 왜냐하면 우린 다 젊으니까. 학생이니까.

이형진: 주로 이제 모임은 성당에서 하는데, 그럼 세미나 같은 걸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미나는 책 읽고 토론회 하는 방식으로 하셨나요? 기억나시는 책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상희: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이영희 교수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형진: '전환시대의 논리'?

한상희: '팔억인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다음에 불온서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읽고 이제 토론회 한다든가. 또는 뭐냐? 그 쿠바.

이형진: 카스트로.

한상희: 카스트로 말고.

이형진: 들어라 양키?

한상희: 아니, 그런 거라든가. 또는 누구지? 그 체 게바라. 그런 책들 읽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유행이어서 그런 것들 읽고. 불온서적들이지. 옛날에 걸리면 다 걸리는 거.

이형진: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판금서적이었을 텐데 나름 이렇게 돌려보고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엠네스티 성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거네요?

한상희: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때 김석원이가 이제 교육을 담당해서, 김석원이라고 있었지. 배경에. 그 친구가 교육을 담당해서 이제 거기서 덕성여대들 몇 명 데리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뭐 그건 걔네들이 교육하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고.

이우재: 그때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래 갖고 예를 들어 아까 형님이 얘기한 홍덕률 이런 애들이 인천에 그렇게 세미나 그룹을 만드는거, 지티(지역팀, GT)들 만들기 시작하는 게 그거야. 홍덕률이가 만든 게 통학생 팀이고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한상희: 홍덕률이가 사대 후배잖아.

이우재: 홍덕률이 사대 아니지. 사회계열이야.

한상희: 사회계열이야? 거기서 만났나. 홍덕률이하고 또 누구하고 내가 착각하는구나, 홍지준이하고. 하여튼 홍덕률이도 그래서 이제 만나.

이우재: 엠네스티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덕률이가 그때, 걔는 이제 서울대학교 서클 멤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천의 고대 이래서 만든 게 통학생 팀이고 뭐 이렇게 오는 거야.

한상희: 그 문리대 애들이 주로 이제 문리대, 사회대. 말하자면 홍덕률이나 김석원이 그런 애들이, 걔네들은 기장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이우재: 나도 백영서 선배한테 인천에서도 몇 사람 모여 갖고 세미나를 지도받고 그랬거든.

이형진: 그러면 세미나는 주로 이제 성당에서, 모임방 같은 데서 했던 거죠? 신부님들이 공간을 확보해 주신 건가요?

한상희: 성당에서 했죠. 아예 우리 저기 방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뭐. 회의실 정도? 소회의실 정도를 하나 줘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최분도 신부님이 아주 전

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하여튼 모이는 공간만 준 거지.

이형진: 뒷풀이는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까? 주로.

한상희: 뒷풀이는 이제 거기 나오면, 송현성당 나오면 주로 이제 순대국집이 있어요. 머릿고기 집.

이형진: 아, 양키시장 있는데 그쪽?

이우재: 배달 순댓국 집도 있고. 골목 순댓국집?

한상희: 아니, 거기 바로 그 수문통 순대국집. 거기 쭉 있어. 그런데 거기 뭐 50m도 안 가면 다 있거든. 거기서 이제 주로 뒷풀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또 내가 이제 월급 타고 그러면 동인천 가서 이제 돼지 불고기집에 가서 먹고, 뭐. 그러니까 그때 돼지갈비 사주고 그러면 대단히, 굉장히 럭셔리한 회식이지.

이우재: 그죠. 돼지 갈비면 엄청. 나 환영회도 해 줬잖아.

한상희: 그러니까.

이우재: 잘 벌었을 때 나 환영회도 해 줬잖아.

이형진: 엠네스티 활동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거기서. 칠십 년대 말까지 쭉 그 일 하셨습니까?

한상희: 80년대 초까지 한 거죠.

이형진: 그러면 이제 한 선생님은 학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한상희: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재정 지원만 하고, 후반기에 가서는 거의, 저기 뭐야, 모임을 많이 하진 못했죠. 그러다가 80년도에 복학을 했어요. 나도. 그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이형진: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10월, 그러니까 79년 1월 무렵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자꾸 이제 삼엄해지고 했을 텐데, 그러면 모임 같은 걸 하고 또 학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경찰 지목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상희: 경찰 지목을 많이 받았죠.

이형진: 예, 그 뭐 학원에 찾아온다든가. 방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상희: 아니, 학원을 내가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강사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79년도에는. 그래 갖고 79년도에 단과 강사에서 수학 강사로, 정일학원에서.

이형진: 인천 정일학원에서요.

한상희: 그래 가지고 이제 마감을 치는 강사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지. 한 석 달 일해가지고 13평 아파트도 사고 그랬으니까.

이우재: 뭐, 석 달 일해 갖고?

한상희: 650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형진: 그러면 집안 형편도 이제 조금 피셨습니까?

한상희: 조금 폈죠. 그러고 이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돈도 몇 백 만원 모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도에 복학해서 80년도 5월 17일 날 또 잡혀갔잖아요. 그죠.

이형진: 그러니까 80년. 그러니까 이제 10.26 이후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격변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상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상당히 이제 운동권 출신들도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복학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단 어, 박정희 대통령 죽은 것이 우리한테는 독재 종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두환이가 다시 잡을 거는 예상 못할 때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80년도 초에 우리를 다 복학시켜 줬고, 3월달에. 그 바람에 나도 이제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고졸이니까.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아니다, 그건 84년도에. 84년에 다시 복학시켜준다니까 결혼했구나. 그건 결혼 얘기가 아니고.

이형진: 80년 5월 상황입니다.

한상희: 80년도는 복학을 했는데, 나는 학원 강의는 하잖아요. 저녁 때, 단과니까. 그러니까 낮에 학교에 좀 갔다가 그때는 이제 4학년이지만 아마 그냥 몇 개 출석만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때 160학점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80년도부터 바뀐 게 140학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140학점 받으면 졸업할 수 있는데, 이미 140 몇 학점을 받아 놨어. 3학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국민윤리가 2학점이 돼서 그거는 필수라나. 그래가지고 국민윤리를, 나는 1학점 받았는데 2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웃기는 게 국민윤리 강사가 내가 72학번 아니야. 걔네들도 대개 조교들 아니야. 그러니깐 내가 강의 들으러 한번 들어갔더니 뒤에 앉았지. 딱 위에 앉아 있다가 그때 회사, 아니 저기 강사니까 뭐 양복 입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강사님 붙잡고 사정 얘기하고 이제 좀 학점이나 어떻게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강의를 뭘 잘 못했나 이러는 거야. 쫄아 가지고. 기관원이 막 드나들 때니까. 응? 정보 수집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복학생이니까 좀. 뭐 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준다고.

이우재: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알아서 줄 테니까.

한상희: 알아서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나. 근데 하여튼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그때 복학생 모임도 생기고,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활기를 띄는데 대신에 이제 애들이 전두환이가 잡았다는 걸아니까. 12.12 사태 이후니까. 3월 달에서부터 거의 철야 농성을 매일 했어요.

이형진: 도서관에서 아예 이제 살았죠.

한상희: 예. 철야 농성을 하면서 우리 과 애들도, 사대 생물과 애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애들이, 후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네 들이 철야 농성하고 그러면 야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형진: 재정 지원을 또.

한상희: 어, 재정 지원을 좀 해야. 하루저녁에 한 만 원만 줘도 몇 십 명이 우유랑 빵을 먹을 수가 있어. 우유, 빵 해봐야 200원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1만 원만 줘도 한 50명이 먹을 수 있잖아, 저녁 간식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이제 학교 가는 날이면 좀 하고. 이제 그 대신에 나는 참여를 못하니까, 강의하러 인천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있다가 5.17 때에 그 뭐야 후리가리?

이우재: 아, 5.17 때 집에 계셨어요?

한상희: 어. 집에 있었지.

이우재: 아유, 무조건 피해야지.

한상희: 아니, 난 피했는데 성원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 5월 18일까지 얘네들이 나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5월 18일 날이 일요일인가 그래. 일요일 날 아침에 그룹지도 하고 있는데 와서 잡아갔어. 근데 얘네들이 5월 17일 날부터 날 잡으러 출발을 했는데 우리 집이 단칸방에서 자꾸 옮겼잖아. 그러니까 옛날 대학교 때 주소부터 찾아가지고.

이형진: 그런데 5월 그 무렵에,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러니까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한상희: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없죠.

이형진: 복학생 그룹에서 혹시 뭐 직책을 받았나요?

한상희: 직책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걔네들 혐의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애들한테 저녁 사 주고 뭐 이랬다는 거야.

이우재: 그걸 알고 있었구나, 걔들이.

한상희: 그래가지고 뭐 애들 시위를 도와주고 재정 지원을 했다.

이우재: 공모했다 이거지. 교사하고.

한상희: 응. 그래가지고 또 뭐 김대중 씨한테 돈 받아다 푼 거 아니냐.

이형진: 아, 배후 세력?

한상희: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날더러 김대중 씨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그때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로 묶었잖아. 그러니까.

이형진: 5월 17일에 구속, 연행됐을 때?

한상희: 연행됐을 때 이제 그 연행을 관악서로 일단 한 다음에 치안 본부 그 궁정동 분실이 있어요. 궁정동 분실로 다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눈에 가리고 뒤로 수갑 채워가지고. 나도 잘 몰랐는데 연행하고 있는 연행 차량의 운전사도 몰라. 분실을.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엄군한테. 광화문까지는 다 왔어. 지네들끼리 얘기하면서. 근데 요 근처 어디라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러고 의경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거 눈 가리고 있는데도 이제 알게 된 거지만. 하여튼 거기가 궁정동 분실이에요. 그래서 치안 본부 궁정동 분실에 끌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존나게 깨졌지.

이형진: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습니까?

한상희: 김대중이랑 연관성을 자꾸 만드는 거지 뭐. 그때 김대중.

이우재: 좀 전에 애들 빵 사주고 그랬으니 엮기 딱 좋지.

한상희: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형사들한테도 계속 강조한 게, 아니 형사님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나 한 200만 원 받는다. 예? 근데 내가 뭐 애들 빵 사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내가 그냥 용돈 좀 주는 정도다. 그러니까 난 지원받은 거 없고 내 월급에서 좀 후배들 저기 열심히 하니까 해줬다. 계속 우기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대서특필 된 호에 김대중 내란 업무에는 나는 안 들어갔지. 그리고 실제로 관계도 없으니까.

이형진: 고문도 좀 당하셨습니까?

한상희: 그럼요. 거기 가서 그냥 첫날부터 조지니까.

이형진: 많이 두들겨 맞으셨어요?

한상희: 그렇죠.

이우재: 더군다나 형은 이렇게 몸도 단단해 보여갖고 더 맞았을 거야.

한상희: 나 아야 소리 잘 안 하니까.

이형진: 때릴 데가 좀 많은 거지. 하하하.

이우재: 나 같으면 불안하거든.

한상희: 근데 내가 그때 갈 때도, 옛날에 무슨 내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 그래서 2차 대전 때 보면 나치한테 연행될 때 여기다가 안전 면도날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거든. 위기 상황에 쓸라고. 나도 바지단을 째고 거기다가 안전 면도날, 그때는 안전면도기잖아. 그 반쪽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에 얇은 거 한 장을 가지고 당겼는데 얘네들이 가면 센타, 이제 허리띠 푸르고 넥타이 푸르고. 일부러 이제 갈 때 맞을까 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연행됐거든. 그러면 조금 늦어요, 때리는 것도. 사실 잘 입고 있는 놈 때리기가 좀 어렵잖아. 하하하.

이우재: 하하하. 참나, 그런 얘기도 다 듣네. 그거 말 돼.

한상희: 아, 진짜야. 신사를 팰 수가 있냐?

이형진: 와, 살아남는 여러 가지 방법이다, 진짜.

한상희: 가면 이제 넥타이, 허리띠 뺏고 넥타이 풀고 하잖아. 근데 이 바지단 센타해도 잘 안 나오잖아. 난 그거를 옛날에 무슨 뭐 라디오 같은 데 들었다가 또 들은 건데, 유대인들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치를 찾아서 연행된 놈을 같이 게슈타포가 데리고 가는데 한 놈이 이제 저기 누구야, 또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얘를 안내하라고 데리고 옆에 태우고 가는데 얘가 이제 그 바짓단에서 그 면도날을 꺼내서, 수갑 찼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 이렇게 돌아가는데 목을 확 그어서 탈출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형진: 그래서 그럼 바짓단 한 번.

한상희: 그것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이우재: 그랬다간 형 이제 그 자리에서 맞아죽는다.

한상희: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내가 못 견디면, 자살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생각에서 이제 면도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형진: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한상희: 그건 아무도 모르지, 나만 알지. 지금까지도.

이형진: 그런데 일주일 이제 조사 받고, 바로...

한상희: 근데 일주일인데. 사실은 3일 정도 지나니까 광주사태가 터졌어요. 광주사태가 실제로 서울까지 올라온 거야.

이우재: 심각해지고 그랬지.

한상희: 심각한 상황이 이 취조관들까지도 아는 거예요.

이형진: 혹시 그러면 서울의 봄.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하던 그 시점에 연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까지는 이제 보시고.

한상희: 광화문 현장까지 내가 갔어요. 서울역까지.

이우재: 그거 5월 15일.

한상희: 5월 15일 날 광화문. 그때는 이제 열기에 올랐으니까 아마 14일, 15일 연속이었을 거야. 그런데 15일 날 아마 서울역까지 갔지. 그때 이제 양복 집어던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후배들이 양복을, 다음 날 가니까 찾아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이제 갔던 기억이 있어.

이형진: 그리고 곧바로 이제 연행이 돼서,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광주 상황을 듣게 되는 건가요?

한상희: 그것도 저기 취조하는 수사관들한테. 광주에서 벌어졌는데 상황이 심각해. 그러더니 그 놈들도 쫄았어. 쫄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고문이 멈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지네들이 거꾸로 되면 지네들이 취조 받아야 될 판이야. 시민군이 장악해 봐. 그 새끼들은 거꾸로 되는 거지.

이우재: 이제 거꾸로 이제 맞아 죽는 거지. 그 자리에서.

한상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쫄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그 팀을 말이야. 한 명은 전라도, 한 명은 경상도를 짜더라고. 수사관도.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욕을 해. 올 때마다. 이 새끼는 뭐 취조 하랬더니 뭐 해 놓은 거야, 뭐 이러고.

이우재: 서로?

한상희: 응. 그러던 놈들이 조용해졌어. 야, 잠 좀 자라. 잠도 안 재우고 그러더니 이제 그냥 나 있을 때 그냥 자. 앉혀놓고 자는 거지, 물론. 그러니까 침대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계속 앉혀놓고 24시간 교대로 심문을 했었으니까.

이형진: 보통 취조실은 그 옆에 침대 하나 있는데.

한상희: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대공분실 취조실이요, 박종철이 취조 당했던 데랑 똑같아. 똑같아요, 구조가. 옆에 욕조 있고. 변기 있고. 변기도 있는데 이만큼만 벽돌이 쌓여 있어. 상체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돼 있고, 거기는 또 특별히 온 방이 다 빨개. 밑에 바닥도 타일이 빨갛지, 벽지도 그 스폰지 벽지 같은 거 비닐 있잖아요.

이형진: 예, 궁정동이 빨갰다는 거죠?

한상희: 그러니까 다 빨개.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벽장처럼 만들었는데 그것도 빨간 벽지로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장인 것 같아요. 무슨 고문 도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창문이야, 그게. 창문을 그렇게 막은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취조 받다 뒤져도 피 한 방울 자국이 없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욕조는 있어. 그러니까 이 고문용이지. 그러니까 화장실 보려고 그래도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 다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데서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만 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밀려서 이제 다른, 저기 뭐야, 사무실 같은 데로 옮겨진 거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갔다가 2, 3일 지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데 거기서 밤새 저기 하면 비명 소리가 좀, 어? 여기저기서 여자들 비명 소리 나고 막 그러면 진짜 신경 쓰여. 내가 맞는 건 둘째 치고.

이우재: 내가 맞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근데 남이 맞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맨 정신 상태에서 그걸 듣잖아요.

이형진: 일주일 정도 취조 후에 그냥 내보내 줬습니까?

한상희: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열흘쯤 있다가, 취조는 한 3일 집중적으로 받고 이제 광주 사태 터지니까 이제 대강 그때까지 쓴 걸로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악서로 다시 옮겨준 거죠. 관악경찰서로. 관악경찰서에 오니까 서울대들, 통신대 애들 해서 한 50명이 와 있더만. 그거 원래 전경들 숙소로 쓰는데다가 다 가둬 놓은 거예요.

이형진: 학교 건너편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상희: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거? 그거는 관악 파출소고. 저기저기. 저 시흥대로에 있는 관악경찰서. 거기에서 이제 있었고, 그 하여튼 그러다가 저기 6월 15일인가, 25일. 6월 25일쯤 돼서 나왔어. 한 40일 만에. 6월 25일 날 되니까 이제 각서 쓰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반성문 같은 거 쓰고. 그래서 나는 반성문을 그렇게 썼지. 이건 역사적인, 뭐라 그러냐. 필연적인 과정이지, 내가 반성할 일이 아니다. 군부 독재가 끝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걸 반성문을 쓰라고 얘기 하냐, 막 썼더니 너 안 나가고 싶냐? 그러더라고. 하하하. 내가 생각할 때는 내보낼 때 되니까 내보낼 거거든. 내가 주동자도 아니고.

이우재: 그래서 그거를 쓰고 나왔어? 그거 고집 세네. 안 내보내 주면 어떡하실려고.

한상희: 안 내보내주긴. 내가 걔네들 통박이 내보내려고 이미 작정한 건데 뭘 썼든지 그거 누가 보겠냐.

이형진: 구속 사유는 이제 아니었던 거고.

이우재: 그런데, 그런데도 학교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한상희: 일단 연행된 사람은 다 제명이야.

이우재: 그래? 나는 연행 안 되고 수배돼서 도망 다녔는데.

이형진: 그럼 나와서 이제 또, 또...

한상희: 나와서 이제 나는 제명은 아닌가 보다. 졸업식만 기다렸죠. 졸업장만 나오기를. 근데 7월 며칟날 통지서가 왔어. 제명이래. 그래서 이제 80년도에 제명당했잖아? 근데 80년도 5월 달까지 내가 잘 나가던 강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장이라고 이제 있는데, 나랑 띠 동갑인데. 정일학원 원장이 종합 영어 가르치고 내가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 양반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갔다 나오니까 인천 시내에 학원 전단 있잖아. 그거 막 뿌리잖아, 학교 앞에서. 근데 혁명 투사 돌아오시다, 뭐 이런 걸 뿌린 거야.

이우재: 그 사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한상희: 아니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그래갖고 7월 방학하면서 이제 개강을 할 거 아니야. 내가 6월 25일에 했으니까 6월 달 강의 못 하고, 7월 달도 이제 방학이니까 강의 못 하고, 7월 25일 쯤에 방학하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마감이야.

이형진: 벌써 또 마감됐어요? 혁명투사 돌아와서? 하하하.

한상희: 막 진짜 마감 정도가 아니고, 막 돗자리 깔고 왜. 근데 문제는 8월, 7월 말일 날 국보위에서 또 과외 금지를 내렸어.

이형진: 하하하.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형진: 일단 한 선생님, 이제 팔십 년대 초반까지 왔는데요. 잠깐 한번 이렇게 다시 좀 돌이켜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칠십 년대 후반에 이제 엠네스티 활동을 인천에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름 이 지역에 의식이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한 2, 3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지원 활동을.

한상희: 그때 이제 인하대 운동권 출신들도 이제 합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강우경 뭐 이런 애들이 또 많이 왔었지. 강우경을 따라서 이제 인하대 애들이 들어와서 영호라든가, 조용호. 그 친구들. 그런 애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장정옥 씨네 집에도 갔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형진: 그 사회운동과의 관계, 이를 테면 이제 천주교, 인천의 노동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교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상희: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노동계 쪽하고는 연계가 별로 없었고 유동우 선배나 이런 사람, 유동우 선배는 한 번 만났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링크가 되지는 않았어요. 서로 지원 세력이나 이런 게 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세미나 하면 그분들이 참석하는 정도, 있고. 우리는 학생 운동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목표가 인천의 의식화 교육, 또는 이렇게 조직, 말하자면 반체제 운동가들의 조직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80년도에 박정희가, 79년도에 죽으면서 전두환이가 다시 잡으면서,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일종의 학생들의, 뭐라 그럴까. 복학생으로서 의무, 또 지원 세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다가, 그게 이제 80년도 5.17. 이러다가 이제 다 좌절된 거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후

배들 인천에서 만나면 내가 부담스러운 게 돈을 못 버니까. 밥 사주고 술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갖고 서울로 올라갔죠.

이형진: 80년 5월 이후에 그해 석방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신 건가요?

한상희: 6월 25일 날 석방돼서 인천에서 이제 그동안 모았던 돈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12월 달쯤 정리하고 이제 서울에 어딘가 취직하러 갔어요. 그래서 취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형진: 취업은 그러면 학원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한상희: 학원은 거의 전국적으로 문 닫았으니까. 대학생 재수 학원 빼고는. 대성 종로 뭐 이런 데 빼고는 다 문 닫았으니까. 다 문 닫았고, 개인 과외도 걸리면 삼청교육대 끌고 가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엄혹한 시절이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오파상에 취직을 했죠. 그때 이제 오파상에. 그것도 고영하 선배가 취직을 시켜줬어.

이형진: 고영하 선배님?

한상희: 고영하. 연대 의대 다니다가 긴급조치 위반했던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광주 일고 나오고. 그 친구가 소개해줘서 이제 또 율산이라고 있었어요. 율산 조달본부장 하다 나온 분이 이제 오파상 조그맣게 하는데 경리 한 명 사장 한 명 그리고 나. 이게 3명인데 거기서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일하다가 1년 만에 실적을 왕창내가지고 한 몇 천만 원 벌어줬을 거야.

이형진: 아, 오파 일을 이제 배우셨나요?

한상희: 네, 배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실적을 왕창 내서 몇 천 만 원을 벌었는데 갑자기 돈을, 거기 영업사원이 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돈을 벌었는데 이제 전무를 또 한 명 데려오더라고. 광주일고 출신. 근데 그 전무랑 사실 내 거래처로 독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갖고. 나도 실망을 해가지고 딴 데로 옮겼죠. 그랬더니 차 한 대 주고 부장 주고. 그래서 바로 1년 만에 부장 돼가지고. 또 수출업체인데, 거기는. 거기서 수출을, 또 500만 불을 수출하는 건데 철도 레일하고 통신 장비하고. 그걸 또 담당해서 한 2, 3 년 하다가 이란이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호메이니 혁명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은 더 이상 구매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란을 몇 번 갔어요. 그래서. 근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걸로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생산 라인도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장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걸 다른 데로 다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러는데 잘못하면 도산할 것 같더라고. 거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독립해서 다시 이제 오파상을 하나 차렸죠. 오파상을 차려서 88년도까지, 88년도까지 잘 운영하다가 그때 이제 박영훈이 한테 그걸 물려주고. 박영훈이는 또 무역을 해보는 게 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물려줬지. 그래서 박영훈이 한테 물려주고 나는 학원 강사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학원이 풀렸거든.

이형진: 아, 88년 이후에? 그러면 그.

이우재: 형, 그 중간에 인사연, 발기인으로도 같이 참여했잖아.

한상희: 아, 그렇지. 그때는 내 직장생활 하면서.

이형진: 그러니까 80년대 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업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천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상희: 계속 했죠. 인천에서 이제 80년도부터 85년 사이에 인천에서 사실은 운동이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두환 정권 초기라 상당히 엄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권이라고 그래도 사적인 모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모이다가 인사위원을 만들겠다고, 이우재랑 또 저기 뭐야 양홍영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게 엠네스티 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80년도에 또 자생적으로 운동하다가 잘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는 잘 모르겠고.

이우재: 그건 내가 만든 대목이고.

한상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인천에서 인천 사회운동연합을 만든다. 거기까지 이제 발기 총회. 발기 총회가 아마 제정구 선배의 그 작은 자리에 가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모임에서 이제 그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5.3 운동 때도 내가 이제 사실은 왔다가 참석을 못 했어요. 하도 먼저 벌어지는 바람에. 그냥 최루탄이 뭐 난무하고 돌맹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에만 있다 갔는데. 그때가 내가 신혼 초거든요.

이형진: 결혼을 언제 하셨습니까?

한상희: 84년도 4월 달에 했어요.

이형진: 84년에 서울대 다시 복학 조치가 되셨죠.

한상희: 네, 이루어졌죠. 그래서 84년도 4월 달에, 2월 달에 후배가 소개해 준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집이 좀 잘 살거든. 아버지는 관세사고 엄마는 약사고. 뭐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잘 사는 집인데. 그런데 뭐 나는 서른 둘이고 그 친구는 서른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서울대 중퇴한 놈을 누가 뭐. 근데 마침 3월 달에 복학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내 이름까지 해서 이런 명단이 쫙 나왔잖아.

이형진: 아, 복학생 명단이 나왔어요?

한상희: 복학시켜줄 대상자들 명단이 동아일보 이런 데 쫙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나 이제 복학해서 졸업을 할 수 있으니 결혼할 거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러면 서울대 제적생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물론 직장은 다니고 있었지만 오파상에 다니고.

이우재: 그때 내가 복학 대책위원장이었는데.

한상희: 어쨌든 뭐 위원장이야 아무나 하는 거지. 근데 저...

이우재: 나는 실세 위원장이었어.

한상희: 그렇다고 니가 복귀 안 시켜줄 수 있냐? 근데 어찌 됐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형진: 결혼을. 그러면 84년...

한상희: 84년도 4월에. 4월 달에 결혼하고 7월에, 8월 달에 졸업을 했죠. 형식적인 졸업. 그래도 학사모 쓰고 한 번 사진 찍고 왔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형진: 조금 기다리시죠. 예, 삼십 분 정도.

한상희: 85년부터는 얘기할 게 없는 게 생업에 전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에 전념을 하니까 오파상도 하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다시 학원가로 들어왔는데 학원가에, 그때 학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일타 강사 어디 갔냐. 뭐 이렇게 누가, 나랑 같이 했던 영어 선생님이 나를 불러들이기 시작해서 그때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나도 나이가 꽤 됐잖아요.

이형진: 30대 중반이네요.

한상희: 거의 40이 다 됐을 때니까. 학원 부원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이형진: 인천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한상희: 인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부천의 한샘학원을 만드는 데 가서 부원장하고. 그런데 부원장을 해 봐야 수입이 별로 안 돼요. 한 5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박영훈이한테 그걸 물려주고 나는 이제 학원으로 오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그마한 회사라도 월급 때 되면 아주 머리에 쥐나거든. 직원이 한 7, 8명 있는데. 자동차도 한 다섯 대 굴리고. 오파상인데 이제 기계 팔러 댕기는 거니까. 그래서 박영훈이가 마침 그거 해보고 싶다고. 걔 폐지 장사하고 있을 때야. 폐지 장사보다는 무역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걔네 그 집안이 괜찮아서 돈들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 나는 그거 영훈이한테 주고서 학원 강사로 들어섰는데 학원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뭐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나는 먼 거리에 있잖아. 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그 후배가 강남에서 영어 선생 하는데 거기는 물반 고기 반이래. 그래 가지고 거길 가려고 그랬더니 원장이, 내 나이 많다고 안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무료로 가르쳐주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숙명여고 애들 네 명을 가르쳤어요. 서울대 한 명 가고, 연대 두 명 가고, 고대 한 명 가고, 그래가지고 히트를 친 거야. 6개월 동안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교재도 내가 만들어다가. 난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이 또 의리는 있더라고.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더라고. 부교재비랑 얘기해서 푸짐하게 주더라고. 왜냐하면 학부형들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더니 수학 학원을 만듭시다, 그러더라고. 거기 원래 영어 학원이거든. 지금도.

이형진: 대치동?

한상희: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 주니까 수학학원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학원 부원장이지. 원래 통합 원장은 영어학원 원장이고. 거기서 이제 한 5년 동안 했어

요. 그래서 한 천 몇 백 명까지 만들었지. 한 백 몇 십 명 갖고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5년 지났는데, 그때는 한 달에 뭐 한 2천씩 벌었으니까.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왜냐하면 그게 학원들이 점점점 커질수록 조직원이 많아지잖아. 근데 원장이 나보다 5년 후배니까. 한양대 나온 애야. 근데 아무튼 걔는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내가, 반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근데 조직원들은 반말하는 거 더럽게 싫거든.

이형진: 부원장이에요? 원장한테.

한상희: 부원장이. 부원장도 나이 많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젊은 애들이니까. 나가서 독립한다고 그러니까 또 부원장들이 다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부원장 중에 그 원장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밤새 걔가 쫓아가서 설득해서 이제 못 오고. 다른 부원장, 영어 부원장이 나 따라 나와 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한솔 학원을 차린 거지. 그런데 이미 학생들 한 몇 백 명 데리고 나왔으니까 고등부. 중학교는 내가 손 안 대겠다. 고등부만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고 고등부 나와 가지고 한 2년 있으니까 거기 일타가 된 거야. 그래서 과고, 외고 가는 애들은 다 나한테 배운 거지. 그 놈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봐야 머리도 되게 좋거든. 너네 들은 서울대 안 가고, 난 졸업한 사람이야. 일단 억눌러야 되거든. 잘난 척하는 놈들. 그래가지고 한 3년 배우면 다 서울대 가잖아. 그래서 잘 나갈 때는 1년에 한 70명씩 서울대를 보냈으니까, 보습학원에서. 그러니까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타였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90년도에 대치동에 갔는데. 2000년까지 강사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사고 분당에 집도 짓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랄까, 학생들을 케어해주는 학원들이 많아진 거야. 시험 때 되면 막 12시, 1시까지도 뭘 풀지 않으면 안 보내고 막 이러는 스타일인데. 우리는 딱 강의 시간만 강의하고, 오히려 시험 때 되면 너네들은 일주일 동안 쉬어, 오지 마. 시험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엄마 스타일로, 케어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나도, 나는 또 그런 스타일 싫어하니까. 강사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등부 학원에서도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합반으로 가서 그냥 내 강의나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간 게 이제 광주에 있는 기숙학원 등용문을 간 거예요. 거기 가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보습학원 그냥 하면서. 한솔학원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강의해도 내가 인기가 제일 많지. 수학 선생님이 1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강을 또 따로 하거든, 밤에. 근데 그때도 미어터지는 거야. 그래 갖고 이제 또, 근데 그 돈을 받아서. 나는 학원 원장인데 바깥에. 그러니까 다 학원 강사들한테 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인기가 또 최고야.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나를 부원장 시키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원장 되고. 대표이사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주식회사인데 나중에 그 노인네들이 나보다 한, 이사들이 전부 다 한, 대여섯 살 위예요. 그분들이 환갑이 지나니까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날더러 인수. 아니 원래 다른 데다 인수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은행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200억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죠. 200억을 대출받아서 120억 갚고 지금 80억 남았어. 10년 동안 일 해가지고.

이형진: 자, 80년대 상황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5월 이후에 이제 한 4, 5 년 정도. 사실 80, 5.3 운동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천의 후배들과 뭐, 인사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도 하고, 이제 또.

한상희: 그러니까 5.3 사태 전까지 사실은 엠네스티 조직은, 이제 그때, 엠네스티가 본격적으로 해체된 거는 그 이후일 텐데.

이형진: 실제로 인천에서 이제 엠네스티가.

이우재: 아니야, 80년 5.17 때 해산 시켰어. 위에서. 전두환이 5.17로 해산시켰어.

이형진: 아, 그런 건가요? 사회단체 해산? 이렇게 된 거네요.

한상희: 해산을 시켰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냥 후배들하고 계속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세일, 뭐 이런 애들 계속 만나고. 우리가 집들이나, 그때는 그게 유행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 조직은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 석원이, 정세일이, 정창룡이, 김세수. 그때 핵심 멤버들. 특히 서울대 후배들. 걔네들하고 이제 서클이 있어가지고 부부 간에도 만나고 같이 다니고. 조용명이 황선진이 뭐 이렇게 해서. 어울려서 이제 살았죠. 그때는 한창 그 신혼 때라.

이형진: 한 선생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었습니까? 주변에서 또 권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상희: 결혼하고서 85년도인가 6년도인가 김영삼이 해금됐을 때. 김영삼이 단식 투쟁하다가 해금됐을 때가 언젠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이형진: 84년 정도일 걸요?

한상희: 다시 출마한다고 그럴 때.

이우재: 아니야, 아니야.

한상희: 85년쯤 되는 것 같아.

이우재: 85년이 2.12 총선이고.

한상희: 그러니까 총선 대비. 그때 그 누구냐, 최형우 있잖아. 최형우. 최형우 참모로 들어가라고 이호웅 형이 날더러 그랬어.

이우재: 호웅 형. 저기 저 성북구에 공천 일이 나오고 그럴 때 말이지?

한상희: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최형우 조카인가가 서울대 문리대 나온 친구가 있었어. 그게 참모야. 근데 거기 이제 또 그 새끼 참모로 날더러 가라고 그래서 한 번 최형우를 만나서 밤새서 술 먹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도 없지. 그니까 나는 지금 뭐 신혼 초지. 그러니까 아기도 하나 생겼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밤새 고민하다가 마누라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 원래 내가 마누라하고 결혼할 때는 전제조건이 우리 집에 손님이 100명 이상 올 수 있고 (비상한) 각오로 나랑 결혼하자 그랬거든. 그런데 막상 새끼 생기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나는 또 그리고 돈 버는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정치권에 간 친구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용명이가 해직 교사 됐을 때도 내가 매달 조금씩 대주고, 또 뭐 호웅 형이나 해찬(이해찬 전 총리)이나 뭐

이런 애들. 내가 아는 친구들은, 하여튼 고영하나. 고영하도 국회의원 다 떨어졌지만 하여튼 한 20년을 지원을 했을 거다. 원혜영이도 마찬가지고. 다달이 10만 원씩 주는 놈만 해도 어? 한 10명 가까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모르지. 돈은, 돈에 대해서 난 우리 집사람이 권한이 없으니까. 뭐든지 내가 갖고 썼으니까.

이형진: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칠십 년대 후반에 엠네스티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청년 운동들을 지원하고 조직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계,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제 기독교,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이렇게 외피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사회운동의 밑거름이 됐던 것 같거든요.

한상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인사련의 주축 세력이 된 거고.

이우재: 아, 그러니까 내가 인천민주화운동사를 그렇게 했었어. 이게 인사련의 모태가 되었다고.

한상희: 그러니까. 엠네스티 쪽에서 이제 계속 좌절하던 젊은 층들을. 하여튼 모여 있는 자리가 있고 떠드는 자리가 있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앞날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그러던 세력, 아니 친구들이 나중에 인사련이라는 조직이 생기니까 또 거기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형진: 신포동 이제 그쪽,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문통. 이 일대에서 이제 젊은 청춘들이 나름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술도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쪽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한상희: 나죠. 옛날 생각나죠. 그런데 이제 수문통 그런 데도 많이 변했고.

이우재: 수문통은 엄청 변했지.

이형진: 너무 바뀌어서 이제 잘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한상희: 이제는 뭐 옛날 집은 없고. 그 음식점들이라는 게 또 몇 년 있으면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하여튼, 인적 자원은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이우재: 신포동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한상희: 아직도 이제 저기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답동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답동성당에 황상근 신부 주례로 결혼식을 했어요. 주례로. 그때 그 황상근 신부가 인용했던 말도 생각나. 왜, 그거 뭐지 머리 잘라서 시계, 시계 끈을 사줬더니. 그 저기. 남편은 왜 머리띠를 사가지고 온. 그런 무슨 단편 소설을 예를 들면서 주례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로 엇갈렸지만 그 사랑이다 이거지.

이형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지원을 하는 일로 이렇게 만족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70년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 나름 역할들을 하신 것 같

습니다. 한마디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한상희: 나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 못 있고 떠난 거. 사는 재주는 있는데 정치를 하든가 현장에 있었으면 더 좋지.

이형진: 네. 친구들 생각도 가끔 나시겠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이우재: 성원이요.

한상희: 성원이도 뭐. 성원이가 먼저 갔지만 계속 내가 또 그 집을 조금 지원을 해서 그 석원이 아들 결혼식에 내가 주례를 했지.

이우재: 아, 그랬어요?

한상희: 하여튼 지원 역할을 했어요.

이형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우재: 아, 형 갑자기 왜 목소리가 울컥해.

한상희: 죽은 놈 생각하니까 또 그러지.

황선진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시민위원장
- 인천민중연합 의장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강화마리학교 교장

일　　시 2021. 3. 25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이우재
대 담 자 황선진

이형진: 어, 오늘 2021년 3월 25일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우리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과 민족 문화운동에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황선진 선생님을 모시고 70년대 민족문화운동과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황선진: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건강하시죠?

황선진: 예, 건강합니다.

이형진: 강화에서 오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황선진: 예, 많이 추웠습니다. 하하하.

이형진: 예, 황선진 선생님은 1952년, 본적이 강화인 것 같습니다.

황선진: 출생, 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형진: 예, 그리고 1972년에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십니다. 선생님, 강화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강화에서의 생활이나 그 학창시절에 대해서 좀 추억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황선진: 저는 강화에서도 이북으로 건너가는 북한으로 건너가는 나루터, 산입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보안부대 장교로 왔던 아버지와 그 현지에 있었던 우리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4살 때까지 강화에 살았고 4살 이후에는 여주를 잠깐 거쳐서 인천에서 줄곧 생활해왔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그러면 주로 초등학교부터는 인천에서 넷이서 살았다는 말씀이시죠?

황선진: 예, 인천 송현 국민학교, 인천 중학교, 제물포 고등학교, 이렇게 거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학창시절에는 범생이였어, 범생이. 모범생.

이형진: 그런데 1952년생이시면 그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거든요. (황선진: 아직 안 끝났죠,) 휴전한, (황선진: 휴전도 전입니다.) 그니까 강화나 인천에서 아주 어린 시절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전쟁의 상흔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어린 시절의 그런 생각들이 나시는 게 있으면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황선진: 저는 어린 시절 강화에 있을 때 장면은 두 컷밖에 이제 없구요. 큰 기와집 앞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이런 장면 하고 자전거, 그때 아마 누가 천자문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온 어떤 아저씨가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강화 얘기를 하라니까...

이형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시기 시작하는

황선진: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는데, 감옥 생활을 할 때, 어머님이 내가 옥바라지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이형진: 아, 일가 중에 계셨던 거예요?

황선진: 오라버니, 우리 어머님의 오라버니 옥바라지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라 그러더라고.

이형진: 그러면 그것은 일제 시대 때 이야기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황선진: 그때 아마 좌익이었던 것 같아. 어머님 오라버니가.

이형진: 예. 황 선생님, 송현동에서 학교를 다니신 겁니까?

황선진: 전 화평동, 화평동에서 살았고 학교는 송현초등학교.

이형진: 전후 복구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 인천에서 어린 시절의 보던, 정황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선진: 근데 뭐 다 못 살았을 때니까 대부분 저 판자집들이 주로 더 많았었고 학교도 장마가 지면 물이 가슴에까지 차는 그런 지경이었고 뭐, 아이스께끼 장사들도 있었고 엿장사, 뭐 이런 사람들. 다들 어려운 시절에 달동네에서 저런 그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형진: 예. 대학에 입학하시기까지는 범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듣고 고등학교는 제물포고등학교로.

황선진: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뭐 아무튼,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형진: 당시에 제물포 고등학교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황선진: 예, 경기도. 그땐 경기도였죠. 경기도에 수재들만 다닌다고 그런 학교. 그 이우재 선생 거기서 맨날 탑 했던.

이우재: 거기에 내 얘기가 왜 들어가요.

이형진: 저기, 국어국문학과를 애초에 생각하시고 진학을 하신 겁니까?

황선진: 제가 이, 이게 좀 있었어요. 글재가.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장원도 하고, 그래. 첫 해는 독어독문학과 지망했었어요. 제가 재수했습니다. 근데 그 재수,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해서 국어국문학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형진: 그래서 72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입학을 하셨고, 곧바로 학생운동이나 당시 반, 박정희 유신이 72년이었거든요. 10월 유신이 10월 달이었습니다. 1학년 때였겠네요.

황선진: 그건 1학년 때고. 1학년 때는 그냥 조용히 학교만 다녔고, 제가 첫 데모에 참석한 게 73년 10월 2일. 문리대 그때 첫 시위 때 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에 저는 이제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대 민족 가면극 연구회 소속으로 그쪽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당시 그 민속 가면극 연구회는 속칭 탈춤반이라고 그랬는데, 김지하 선생, 그때만 해도 오적을 쓰고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우상으로 알려져 있는 김지하 선생님의 영향력 하에서 있던 그런 서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애주라든가, 그런 채희환, 이런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었던 어, 그런 서클이었습니다.

이형진: 선생님은 그럼 탈춤을,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되는 계기는 2학년 때 정도라고. 황해도 쪽 탈춤, 은율 탈춤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황선진: 뭐, 73년도에 들어가서, 그때 봉산 탈춤, 또 양주 별산대 놀이를 그 서클에선 주로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방학 때, 방학 때 이쪽에 와서 인천에 수문통 시장이 있었어요. 그, 전주 소박 강녕 탈춤, 은율 탈춤, 이런 것들을 제가 전수받고, 대학가로 이제 연결시켰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강녕 탈춤이나 은율 탈춤은 제가 대학가에서는 첫 시조인 셈이죠.

이형진: 그것도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황선진: 그렇죠. 그것도 2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이형진: 그게 73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시위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또 하나의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황선진: 그때는, 웬만한 대학생이면 민주화 운동에 또 학생 운동에 참여하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 돼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일부 학생들을 빼고는 ROTC를 한다든가, 또는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빼고는 다 그런 학생 운동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호적인 그런 세력이 다 학생 운동의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이형진: 73년 10월에 있었던 학내 시위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다수 참여를 했던 건가요?

황선진: 그때 문리대생. 문리대생 거의 대부분이 참가했죠.

이형진: 그 시위 양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선진: 그때, 주동자들이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럼 짜기 시작했고, 그리고 강의실 다니면서 다들 나와라 그러면서 다수의 몇 백 명 된 거 같아요. 몇 백 명이 스크럼 대열에 합류하고, 이렇게 돌다가, 그때 경찰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또 몇 십 명이 연행돼 가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내가 저녁에 우리 국문과 같은 학번인 우리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조용명이라는 학우가 있었거든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조용명 외 29명인가 구속, 이렇게.

이형진: 나중에 선생님이 되신 조용명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진: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첫 조용명 선생도 그때 처음으로 학생 운동에 발을 디뎠는데, 우리 조용명 선생은 그때까지는, 데모 하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바로 거기서 구속돼 버렸어요.

이형진: 선생님께서는 구속은 안 되셨죠?

황선진: 예, 저는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이형진: 구속 사건은 75년, 소위 오둘둘(75년 5월 22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창 시절과 학생 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진: 어, 저는 서클 활동을 문리대 문학반에 잠깐 있었고 주로는 이제 그 가면극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학내 공연도 있었고, 또 전수를 받으러 전국에, 안 다닌 데가 없이 그때 이제 막 민족 문화 운동, 민족 문화 운동 바람이 막 불었을 때거든요. 김지하 선생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래서 묻혀 있던 그, 그런 문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춤꾼이나 소리꾼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전국에 다 다니고 있을 때예요.

이형진: 그러니까 재야의 예인들을 찾아다니신 거군요.

황선진: 그렇죠. 그때 이제 그분들이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이분들을 찾아서 대학생들이 막 다녔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형진: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황선진: 여기 저 인천에 양소은 선생이라고, 무형문화재였는데 그분한테 이제 은율 탈춤, 강녕 탈춤. 그분한테 배웠고. 아, 그 양주 별산대 무형문화재, 지금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배웠고. 또 농악, 그때는 이제 농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농악이라는 이름을 풍물로 바꾼 사람인데, 이제 농악 배우러 이제 민속촌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시기는 학생 운동이라기보다는 주로 그런 문화 운동에 쭉 종사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이형진: 문화를 이해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선진: 그리고 그때 이제 농촌으로, 또는 공장으로 이렇게 뭐 또 가르치러 학생들이 다니던 시기고 그렇습니다.

이형진: 예, 선생님도 직접 농촌에 혹시 내려가서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까?

황선진: 저는 뭐 그건 이제 70년대가 아니고 80년대 들어와서 농촌으로 다녔구요. 70년대에는 구로공단에 제가 맡아서 갔던 데는 컨트롤 데이터라는 노조가 있었어요.

이형진: 아, 예, 노조가 투쟁을 할 때 지원을 가셨나요?

황선진: 그렇죠. 노조 활동들 할 때 가서 이제 탈춤 가르치고 풍물 가르치고,

이형진: 아, 학생들 중에서 이, 기량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탈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하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황선진: 가르치고, 이제 그것도 그룹으로 짜서 하고 그랬었죠... 노조에서 그런 문화운동을 문화를 배웠던 분들 대부분 이후에 민주 노조 운동의 지도자로, 아, 예.

이형진: 컨트롤 데이터에서... 75년에 있었던 오둘둘 사건, 소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선진: 그, 김상진 학형, 우리 그때 학형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할복했을 때 제가 수원에 있었어요. 수원에서 마침 제가 이제 민속촌으로 농악, 풍물 배우러 전날 거기서 자고, 버스를 타고 민속촌을 향해서 가는데 12시 뉴스에 농대 학생이 할복을 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그 즉시 내려가지고 다시 농대로 갔어요. 농대로 가서, 마침 이제 그 할복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농대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즉석에서 진오귀 굿을 했습니다. 농대 학생하고 같이. 즉석 굿을 한 셈이죠. 이제 사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형진: 선생님 그때 복장이 있었습니까?

황선진: 복장은 없고, 그냥 장구하고 뭐 이런 거, 그땐 이제 농악대 두레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끌고 있던 조병만, 지금은 저기 교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옥이라고 연극반 학생하고 셋이서 어떤 그 굿을 했습니다. 네,

이형진: 그러면 그 무당 내지는 굿하는 그 옷이 아니고, 어, 그냥 평상복을 입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선진: 평상복,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평상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상복 입고, 제가 장구를 잡고, 그 연극반 출신 그분이 이제 무당 만신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됐는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긴급 조치가 선포되고, 며칠간 선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장례식은 치러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게 공론이 돼 가지고 장례식 준비팀에 제가 합류를 해서 한 거의 한 달 준비했어요. 그 장례식을. 그래서 그때 장례식에 함께한 그룹이 그 문리대 문학반, 그 때문에 사대 야학, 그렇게 세 그룹이, 세 서클이 주도가 돼서 어, 장례식을 치러게 됐고, 이제 그렇게 세 그룹이 하게 된 거는 이념 서클 학생들은 그 이전에 이미 다 잡혀가고 학내에 없었어요. 활동을 못하고 있었을 때 그런 그, 문화운동 그룹만 남아 있어서 그분들이 주도를 하게 된 셈이죠.

이형진: 장례식이 5월 22일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김상진 열사 할복 사건은...

황선진: 4월 13일인가, 4월 13일이고, 바로 아마 긴급 조치가 내려졌을 거고, 어,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화해를, 만약 그때 유인물을 한 장 (이우재: 긴급 조치는 5월 달이에요.) 5월달인가? 아, 5월, 예. 하여튼 그때는 유인물 한 장 뿌려도 구속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대 학생이 박연호라고 기억나는데, 박연호 학생이 그렇게 논란을 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분이 있

는데 이 구속되는 게 무슨 대수냐, 그 한 마디에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장례식에 있는 만큼, 이제 그 장례식을 기존에 서양에서 내려온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하자, 전통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무당도 세우고 또, 대사도 쓰고, 이런 만장이라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주는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형진: 장례식에서도 선생님께서 혹시 굿을 하셨습니까?

황선진: 하기로 했죠. 하기로 하고 이제 사설은 제가 다 쓰고, 또 이 플래카드도 몇 장 내가 받아서 쓰고, 그랬는데 굿을 하진 못했어요. 바로 뭐 추도문 낭독하고 조시 낭독하고 스크럼 짜고 나가는 바람에 굿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진: 한 달 전에 했던 그 굿은 참 처연했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황선진: 그렇죠, 긴장된 분위기고 집중돼 있는 분위기니까 시작하자마자 그, 학내에 있었던 형사들 하고 학내 그 학생과 직원들 하고 쳐들어 와가지고 하진 못했어요. 쪼금만 했어요, 조금.

이형진: 그러면 선생님께서 5월 22일 장례식, 거기서 연행되신 건가요?

황선진: 그거는 제가 바로, 잡히진 않았고요. 그때 우리 공론이 되기를 주모자들은 잡혀가지 말자, 이런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모가 있고 또 주동이 있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관악산 넘어서 난 피신했어요.

이형진: 아, 근데 이후에 그러면,

황선진: 저는 한 6개월 수배 중에 거의 마지막에 잡힌 사람이에요.

이형진: 75년 12월경에,

황선진: 네, 12월 5일날 구속됐습니다.

이형진: 갑자기 연행된 건가요?

황선진: 제가 이제 김포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이를테면 머슴 살고 있었던 셈인데,

이형진: 아, 은신 중이었나요?

황선진: 근데 이제 김지하 양심선언으로 인해서 먼저 잡혀간 분에 의해서 나의 소재지가 밝혀지고,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아이 잡혀 주자하고 잡혔습니다. 그때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게 좀 무의미했고, 지치기도 했고, 또 걱정이 됐던 거는 이제 어디 도망 다니면 누구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 피해는 입히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잡혀 줬습니다.

이형진: 돼지 농장은 혹시 지인이었습니까?

황선진: 우리 선배, 강철구라고 하는 탈춤반 선배의 외삼촌.

이형진: 선생님 그때 연행돼서 구속되시는 건가요?

황선진: 그때 이제 서빙고에 가서 조사받고, 고문도 좀 당하고. 그다음에 서빙고 하니까 보안 되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부 거쳐서 남부서로 갔습니다.

이형진: 75년이면 사실 선생님께서 그때 23살 정도였을, 아주 청년입니다.

황선진: 예, 그리고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이형진: 무섭지 않았습니까?

황선진: 아, 무서운 건 없었죠,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알았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심정은, 이제 목숨을 내놔도 좋다, 이런 심정이 들었으니까... 무서움이란 건 있을 수 없었죠, 그때.

이형진: 구속되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돼서...

황선진: 이제 반을 했는데, 초기에 잡힌 김도연, 박선규, 김정환, 이런 분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그분들이 다 해서 실체를 밝혀지고 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전 이제 수월하게 됐구요. 음, 마침 우리를 재판한 판사가 그, 이를테면 지금으로 따지면 양심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분들은 이년 반 삼년씩 처음에 잡힌 우리 학우들은, 그렇게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또 이심 가고 그러는 중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그것이 연류가 돼서 그 사람은 옷을 벗었어요.

이우재: 옷 벗었겠네, 당연히.

이형진: 그럼 선생님도 석방되셨나요?

황선진: 나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지.

이형진: 아, 집행유예로.

황선진: 그 판사가 그런 판사를 만나가지고, 예. 그때 같이 재판받은 사람이 영화감독 했던 장선우, 장만철, 유영표, 예, 그리고 돌아가신 유상덕. 이렇게 넷이 재판 받았거든요. 넷 다 이를테면 싸게 받았죠, 싸게. 하하하.

이형진: 석방된 후에 군대를 가신 후 어머님께서 면회 오셨겠죠? 부모님들 철창을 사이에 두고 어땠습니까?

황선진: 어, 면회는 자유롭게 했구요. 군대에서는.

이형진: 그, 구속됐을 때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황선진: 구속돼서 이제 철창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님으로 봐서 두 번째 옥바라지니까. 나와 제가 수배 당하고 있는 그 과정에 모든 인연들을 따라서 다 어머님이 찾으려고 걸어 다니셨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찰 형사들도 권총 들고 빨갱이 잡으러 왔다 그러고, 이제 내 모든 인연이 있는 곳을 다 찾고, 이렇게 해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셨죠.

이형진: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황선진: 군대 생활은 저는, 그, 제가 국악대를 가려고 장구를 좀 쳤거든요. 육군 본부에 국악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악대를 가려고 이제 지방을 해서 주특기를, 그때 011이라고 그래요. 그, 국악대 주특기가 011이었는데 그걸 받았거든요. 지방에 오고. 그래서 육군 본부에 있습니다. 국악대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이형진: 서울에 있는 육군 본부겠네요.

황선진: 근데 이제 누군가가 빽을 써서 자기가 육군 본부로 가고, 나는 저 육군 사관학교로 빼돌려 줘서 그니까, 군악대로 간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그래서 제가 희망했던 국악대를 가진 못했고, 군악대를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죠. 국악대 갔으면 좀 했을 텐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쪽에서 고참들이 제일 쉬운 거, 이거, 치는 거 이거 뭐지? 심벌즌가. 그거 맞춰서 그거 잠시 치다가 도저히 이거 못하겠더라고. 그거 뭐야, 저기 이전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형진: 그럼 서울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까?

황선진: 예, 육군사관학교 기간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진: 76년에, 초에 입대하셨겠습니다.

황선진: 76년도 가을에 했습니다. 1심 2심까지 보고 갔어.

이형진: 그러면은 제대가 79년 4월. 유신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땝니다. 예, 그러고 그동안에 또 세상이 훨씬 더 힘들어 있었을 땐데. 나오셔서 얼마 안돼서 80년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쭉 좀, 기억나시는 대로.

황선진: 저는 뭐 나와서도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전해지던 그, 풍물, 농악 이것을 전수를 받느라고 음, 제가 민속촌에 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속촌에 가서 농악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진: 민속촌, 용인에 있는 민속촌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진: 예, 민속촌인데 거기에 정인삼이라고 그분이 그, 이제 농악대에 전설 같은 분인데 수십년 동안 해온 분이고, 그분이 마침 거기 있었어요.

이형진: 그니까 예인들이 거기 좀 모여 계셨습니까?

황선진: 그렇죠, 농고 졸업생들이 농악대원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거기, 내 1, 2회 정도 공연을 했던. 저도 이제 같이 합류해서 깃발도 들다가, 북도 치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79년 10월 26일 날 아, 아 그 전에 제가 좀 헷갈리는데, 10월 22일 날은 대구에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었던 땐데, 거기 갔다 돌아오는 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서거라고 하는 찌라시가 막 뿌려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로 나왔죠.

이형진: 감회가 새로웠겠습니다.

황선진: 예, 예. 그리고 나서 민속촌 떠났던 것 같아요. 민속촌, 그때가 있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80년인지 79년인지.

이형진: 예, 황 선생님. 민속촌에 계셨다는 말씀은 이를테면 민속촌에서 풍물이나 농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를 받으신 거잖습니까?

황선진: 전수하면서 이제 그, 자료가 많았거든요. 그 정인삼이라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가 정리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형진: 궁금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수 받는다는 말씀은 이를테면 몸과 마음이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마치 예인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건가요? 거기까지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황선진: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깊이까진 못 들어갔고, 주로 뭐 학술 그 자료들 정리하는 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형진: 10.26 이후에 세상이 격변, 이거든요.

황선진: 10.26 이후에는 이제 다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화운동에 또, 뛰어들어서, 그때 그 문화운동을 이렇게 다시 한 군데로 집결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구소도 만들고, 신협도 만들고, 또 극단도 만들고. 그래서 그 3가지를 다 아우르는 활동을 좀. 극단은 이미 있었고요. 한두레 극단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노래패 한두레라고. 채희환 선생님이 만들었던 극단인데, 거기에다가 경제적 기반도 하려고 한두레 신협, 그리고 연구소 이런 거 같이 또 새로 만들고 그랬던 셈이죠.

이형진: 여기서 선생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황선진: 그때, 그땐 막 만들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직책이 정해진 건 아니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협 만들고 연구소 만드는 일에 다시...

이형진: 근데 그게 독재 정권이, 종말을 기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민족 문화를 더 이제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 분위기는 이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군부가 성장하고 있던 시점이었

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선생님을 둘러싼 문화운동 역량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셨는지. 그리고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요.

황선진: 근데 뭐 여전히, 좀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활동에 조사를 좀 하고 있었고, 어, 저도 80년이죠? 80년, 그때 제가 교생실습 나갔던 것 같은데. 교생실습, 그런 활동 하면서 이제 4학년이니까, 복학을 했으니까,

이형진: 아, 80년에 참, 복학을 하셨군요.

황선진: 예, 복학을 했어요, 복학해서. 복학하다가 이제 저 광주 터지고 나서는 또 약간의 위협을 느껴서, 그,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냥, 집에도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형진: 광주 터지면서 도피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황선진: 그땐 뭐 다들 그랬던 형편이니까, 그니까 뭘 안 했어도 잡아가는 때였으니까. 저도 상당 기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들어, 10월 달에 졸업을,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형진: 아, 80년 10월에 졸업장을 받으시고.

황선진: 잠시 안 들어갔던 것 같애, 그때.

이우재: 어떻게 10월에 졸업장을 받아?

황선진: 그때 그랬어요.

이형진: 코스모스로 10월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학사 일정이 좀 미뤄졌던가. 80년.

이우재: 개강이 10월인가 했을 거예요, 개강이.

황선진: 그러면 81년에 졸업인가?

이우재: 81년 졸업이겠죠. 81년 3월 이후이겠지.

황선진: 아, 그런가. 하하하.

이형진: 옆에서 이우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예, 애오개 소극장이라는 데.

황선진: 애오개 소극장은 82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형진: 애오개라는 명칭은 그 지역, 서울에 있는 지역이고, 소극장이라는 개념이나, 소극장 활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진: 그때는 이제 전국에서, 뭐, 문화패들이 많이 배출됐거든요. 70년대 후반기에, 그래서 연합 탈춤패라고 해서 전국에 대학에 탈춤반이 없는 데가 없이 다 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역량들이 배출돼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그런 그, 극단도 만들고, 그런 움이 트던 시점에 초기에 불을 붙인 것이 애오개 소극장입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후반기에 이게 커 왔던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좀 만나는, 이런 때였고. 그래서 공연도 하고. 또 전수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장으로 가기도 하고 농촌으로 가기도 한, 하여튼 그 전국적 문화운동의 어떤 센터였던. 거기서 했고. 그 기세가 좀 모아지기도 해서 민족문화운동 협의회가 이제 창립되게 됐죠. 그게 84년도인 것 같아요. 애오개가 82년, 그 2, 3년 동안에 아주 활발한 문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형진: 폭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니까 70년대에 이제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꽃피기 시작하면서 82년에 소극장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시죠?

황선진: 열매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발, 열매라기보다는 시발, 그런 역량이 축적이 돼서 애오개 소극장을 만들게 됐고, 저하고, 김봉준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홍석화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이형진: 소극장 활동이라는 것은 대극장과 반대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황선진: 공간 자체가 작고, 그때 애오개 20만원 비용과 같고, 오백만원 모아가지고 월세 20만원 짜리 지하, 한 50평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다 꾸미고.

이형진: 그리고 안에서 마당극도 할 수 있고, 관람도 가능하고, 또 연습도 할 수 있는.

황선진: 예, 연습도 하고 강습도 하고. 이렇게.

이형진: 극장장으로 2년 정도 거기서,

황선진: 아니요, 극장장 잠깐 했고요. 극장장 잠깐 하다가, 후배들이 다시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형진: 예, 선생님. 문화 운동을 지속하시면서 민족운동청년연합. 소위 민청련이 대동하는 8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독재 투쟁, 그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또 방향을 좀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황선진: 아니요, 같이 한 거죠. 그걸 하면서 한 편으로는 이제 민청련, 그때 태동이 될 때, 김근태 선배님이 그, 시작을 해서 민청련 만들 때, 저는 이제 그 대의원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각 대표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문화운동 그룹을 대표해서 대의원 활동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학번별로 대표를 내기도 하고, 또 뭐 종교 단체를 내기도 하고, 문화운동에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학생 운동 그룹들이 사회 운동으로 이제 나가는, 그니까 그, 연결 틀 역할을 민청련에서 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집결했습니다.

이형진: 84년 유화국면과 함께 민청련 활동이 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우재: 83년 9월.

이형진: 아, 83년 9월에 시작했으면,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민청련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사실은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총집결해서 전두환 정권과 맞서 싸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곧바로 민청련은 탄압을 받게 되고, 김근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문당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선진: 잡혀가셔서 고문당하고 한편, 밖에 있는 분들은 또 열심히 활동을 했죠. 뭐, 기관지. 두꺼비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이형진: 상징,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민청련 기관지들을 발간했죠.

황선진: 그러다가 이제 지역 운동으로 더 확산하자. 이런 또 움직임이 생기면서 이렇게, 여, 인천에서는 이제 이호웅 선배님, 이명준 선배, 우리 이우재 학형,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시운동 단체로 이제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제정구 선배님이 1기 회장을 했죠.

이형진: 인사련이 출범한 겁니다.

황선진: 인사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같이, 했죠.

이형진: 그러면 황선진 선배님께서 인사련을 계기로 더 본격적으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전까지는 주로 활동이 서울과 문화운동 쪽에.

황선진: 인천에서는 문화회 하고 모임은 계속 있었죠. 거기 이제 서울은 서울 활동대로 하면서, 민청련 하다가 이제 인사련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형진: 인사련 집행국장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인사련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황선진: 인사련, 마찬가지죠. 그때 제가 지역에서 또 기관지 발행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대의를 널리 알리고, 또 다른 운동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변을 확대하는 의식화 교육도 하고, 이런 참이었습니다. 그게 84년이죠. 84년, 그때부터 87년까지 계속 활동을...

이형진: 선생님께서 민족문화운동 협의회 사무국장도 역임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대부분은.

황선진: 그거 이제 하다가, 서울에서 또 계속 찾아서, 그래서 그럼 잠시 갔다 오겠다 하고 갔습니다.

이형진: 아, 서울에서 민족문화운동 협의회 창립하고, 사무국장이면 사실 내부에 살림을 도맡는 중책이셨죠.

황선진: 그러다가 87년도 같네요, 사무국장 할 때가. 맡으면서 바로 87년 그거 벌어지면서, 또 그때 또 수배 당했던 것 같아요.

이형진: 87년 6월 항쟁 전에 어, 민족문화운동 협의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박종철 사건, 6월 항쟁, 이렇게 이어지는 격동이었거든요. 그러면 서울과 인천을 주로 오가시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건가요?

황선진: 아니요, 그니까 인사련 했을 땐 인사련만 했고, 또 이제 민족문화운동 협의회 사무국장 할 땐 사무국장 했고, 그래서 87년도에 6.29 선언 나오고, 아, 86년도 5월 3일이죠. 86년 5월 3일. 그때가 제가 민문협 사무국장 하고 있었을 때 그쪽 문화패들 하고 같이.

이우재: 그니까 85년도에 형님이 집행국장을 그만두고 내가 집행국장을 이어받거든. 85년도에.

황선진: 아, 그랬구나. 그래서 86년도에 내가 사무국장 맡으면서 그랬다...

이형진: 예, 86년 5월 3일 인천 5.3 민중항쟁.

황선진: 그것 때문에 제가 민문협 사무국장으로 문화패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형진: 전국에 문화패들 동원해서 주안역에 집결시켰다고 들었습니다.

황선진: 주안역이 아니라 여기, 여기 시민회관 앞에. 다 모였죠.

이형진: 풍물패들의 그날 활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황선진: 풍물패들이, 근데 워낙 인파가 많이 모여들어서 민통연이 그 저 뭐야, 집회를 아예 시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근데 풍물패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민통련이 겨우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노동 운동 하던 세력들이 여기 이제 인천을 해방구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가 현판식 때였죠. 김영삼 신민당 현판식 때, 근데 현판식은 하지 못하고 그 노동 운동 세력들이 워낙 드세게 들고 일어나서. 민통연 노동 운동 세력, 하여튼 여길 해방구역으로 만들려고 그냥, 온 운동 세력이 여기에 집결했을 때예요.

이형진: 커피 한 잔 드시죠. 87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86년 5월과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 사이, 그때쯤에 선생님은 어디 사셨습니까? 주거는.

황선진: 구월동 살았던 것 같은데.

이형진: 아, 예. 아파트 생활을. 구월 주공 아파트에서.

이우재: 9월 주공 사셨어?

황선진: 응, 구월 주공. 그, 13평 짜리. 이게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살림살이 하다가 인천으로 왔고. 암튼 거기 살면서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형진: 당시 혹시 자녀가 있었습니까?

황선진: 있었죠.

이형진: 그럼 첫 애가 언제였습니까?

황선진: 첫 애가 8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 시절에는 뭐, 시대의 격랑 속에, 때로는, 저로 이야기하면, 많은 청년들이 그랬을 테지만, 뭐 우왕좌왕 하기도 하고, 격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이렇게, 시위나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고, 등 어쨌든 맞이하게 되는 역량이, 개인의 역량이 어떻든 간에 그걸 헤쳐 나가야 하던 때였기 때문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저는 주로 좀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하하.

이형진: 선생님은 그때 서른넷, 내지 다섯 정도. 그렇게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선도하시고, 앞장서서 이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왕좌왕 했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선생님께서 어,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셨는지, 사실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황선진: 민청련에서는 아주 어려웠어요. 인천 내려오기 전에는 그래도 제가 그때, 우리 처갓집이, 뭐 하든 어쨌든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그걸 경영하기도 했거든요. 한 백 명 종업원이 있는, 그런데 이게 인사련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놓고 내려와서 여기 인천에 와서는 생활이 아주 곤궁했죠.

이형진: 그러면 생활 수단이 사실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있었거든요. 부인께서 해결하셨습니까?

황선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형진: 하하하.

이우재: 형수가 그때 교사 아니었어? 형수가 그때 교사였어. 영어 교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황선진: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때? 암튼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형진: 근데 사실 그걸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87년이 됐습니다. 87년 초부터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음, 6월 항쟁이 곧 일어나거든요. 서울과 인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황선진: 그때 87년 대규모 시위할 때는 주로 서울에서 했습니다. 예, 독자적인 유인물도 문화 운동 하던 그룹하고 같이 해서 유인물도 만들어서 뿌리고 그럴 때였고. 아, 그날 87년도에 저기가 있었죠. 김대중, 김영삼.

이우재: 그건 이제 6월 항쟁 지나고 나서.

이형진: 예, 선생님. 그때 부평에서 대규모 가두 시위 같은 것들도 자주 있었거든요. 혹시 내려와서 같이 참여하신 기억은 별로 없습니까?

황선진: 잘 기억 없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형진: 아, 예. 6월 항쟁기에 서울에서 집중해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민족문화운동 협의회 사무국장 활동이 주였겠습니다.

황선진: 예, 그래서 문화패 일당을 이끌고 있어서,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주로 문화패들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형진: 그러면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기에는 혹시 문화패들과 이렇게 현장 지원 활동 같은 것들을 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황선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뭘 했나, 87년.

이형진: 그리고 사실 이제 12월이 되면 어, 그니까 소위 6.29 선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비판적 지지론, 그리고 후보 단일화론, 그리고 이제 민중후보론, 세 가지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 시점에...

황선진: 초기에 같이 문화 운동을 하던 분들은 대부분 독자 후보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신동수 선배가 찾아오셨나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제가 단일후보 하자고 뭐, 근데 어쨌든,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한 입장은 민주대연합 단일후보.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선전, 선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죠. 처음에 이제 독자 후보 진영에 있다가 선배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서,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게 민주대연합 단일후보. 백기완 선생님을 지렛대로 해서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이런 노선을, 그런 노선을 채택한 그룹도 있었으니까 독자 후보 진영도 아니고, 또 단일 후보 진영도 아니고, 비지(비판적 지지)도 아니고, 이게 하여튼 명칭은 민주대연합 단일후보. YS 진영으로 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형진: 백기완 선생 선거 대책 본부도 나중에는 사퇴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움직였던 건가요?

황선진: 그때 뭐, 독자 후보 진영에 있었던 일부 노동 운동 정파가 비판적 지지론으로 돌면서 아마 그 영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백기완 선생님이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뭐, 백기완 선생님 끝까지 가는 게 좋았겠다, 최선이었겠다, 뒤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해서, 김대중은 안 잡았고, 김영삼은 잡았거든요. 백기완 선생의 손을. 그러면 그 양반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차마 지지를 못하고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게 좀 아쉽습니다. 차선책 가지고 그냥 그 진영 전체가 손을 내미는 쪽으로는 가서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형진: 87년 대통령 선거를 실패하고 나서 운동 진영이 패배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8년 되면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또 민중 후보 전술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선배님은 인천에 계시면서 활동을 하신 거죠?

황선진: 예, 또 오순부 선생, 그러니까 88년 노동자 후보 필요하다, 민중후보, 그래서 옛날 독자 후보

노선에 있었던 그 연장 선상에서 오순부 선생, 선거, 캠프를 꾸리고 거기 그 사무장...

이형진: 부평 쪽에서는 송경평 후보가 나섰고, 그리고 동인천 동구 쪽에서 오순부 선생님께서 출마를 하신 거죠? 서구, 서구로 참. 예. 그때 사무장 역할을 하신 거죠. 아.

황선진: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88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선거 운동 벌어진 게.

이형진: 예, 예. 그 선거 과정에서 그니까 대우 중공업 출신 해고자였던 오순부 선배님을 이제 노동자 후보로 세웠는데, 뭐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어쨌건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반성이랄까, 아니면 평가 같은 것들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천 표 정도를 득표했거든요.

황선진: 그때, 그게 조직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야, 다들. 선거 운동 자체가. 악전고투로 했죠. 그래서 오순부 선거 운동에 조직적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형진: 아, 예. 88년 이후에 인천에서 선생님께서 민족문화, 인문련 창립쪽으로 관여하시고, 그리고 또 90년 총선 때까지 활동을 하시거든요.

황선진: 인천민주시민 공동회라고 기억됩니다. 87년 말서부터 88년 초. 88년 들어가서. 인천 민주시민 공동회.

이형진: 아, 예, 기억납니다.

황선진: 이제 그 몇몇 그룹하고 같이, 지금 김창수 선생, 있는 그룹하고 이제 우리 저 인사련에서 나왔던 그룹이 그쪽하고 통합을 하면서 인천 민주시민공동회라고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인천 민중 연합으로 바꿔 달고, 89년 봄에 백기완 선생 강연회를 민주시민공동회 이름으로 개최했던, 시민회관.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지금 기억 나는 건 그렇습니다.

이형진: 민주시민공동회에서 의장을 하셨습니까? (황선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민중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황선진: 이제 이를테면 그 그룹이 독자 후보 지지를 했던 이런 그룹들이 중심을 이뤘던 것이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 뒤에 피디, 엔엘이 있다면 피디 그룹에 또 있는 어떤 그 공개기관 센터 역할을 한 셈이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주요 목표, 민중 해방, 민족 통일. 이렇게 내걸고서 했습니다.

이형진: 민주시민공동회와 민중연합 활동 과정은 이제 88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조금은 전두환 군사정권과는 조금 다른 그런 쪽에서 시민운동이 조금씩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그니까 거기서 이제 인천민주시민공동회, 그러니까 시민을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시민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황선진: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민주시민공동회를 만들고, 그때 좀 더 발전적으로 민주시민 연맹으로 가 보자 했어요. 연맹으로 했는데,

그때 그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운동을 하던 피디 진영들의 많은 활동가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아예 민중 연합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지층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민중연합이 하게 됐죠.

이형진: 아, 선생님께서는 그때는 그러면 노동 운동 하던 후배들과 본격적으로 지역 내 사업을 하신 거겠네요.

황선진: 그렇게 됐죠. 그, 우리랑 결합했던 데가 무슨 제파 피디라 그래요.

이형진: 우수홍 씨,

황선진: 예? 우수홍... 은 계급 해방이었고.

이우재: 제파 피디는 되게 윤인중이, 윤인중 목사가 제파 피디 아니야.

황선진: 그때 그 저, 신현훈, 강태수 이 그룹이 이제 해서 들어와서 합류해서 이제 이런 노동 운동 진영 그쪽을 많이 맡았고, 우리 이제 그 활동 한 번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인천 민중학교. 예, 인천 민중학교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형진: 아, 강좌를 쭉 지속적으로 여셨죠.

황선진: 그 다음에 인천 민중문예 교실. 그건 이제 문화와 문화운동 쪽에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진: 당시에도 선생님은 계속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놓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황선진: 그렇죠. 그때 우리문화 사랑회라고 있었어요. 우문사라고 그랬는데, 그 활동에 합류를 해서 같이, 합류라기보단 같이 만들었던가, 후배들이 만들었던가 하여튼 같이 쭉 하다가 그 우문사가 발전하고 해서 이제 인천 민중문화운동 연합이 됐죠.

이형진: 예, 인천민중문화 운동연합은 88년에 태동합니다.

황선진: 88년인가요?

이형진: 예, 인문련.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문사나 (황선진: 우문사는 그 전인가보다 그럼. 87년 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예운동, 그리고 이제 풍물 내지는 민족문화운동, 그리고 미술운동,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돼서 그니까 창립되게 된 거죠. 거기 초대 의장이셨나요?

황선진: 아니요, 아니요. 그때 인하대 교수를 모셨을 거예요.

이형진: 최원식 교수님.

황선진: 아니, 아니. 최원식 교수 말고, 좀 들어가 이가림 선생. 아, 모르는구나. 뭐, 하여튼 인하대 교

수 분을 그때 초대...

이형진: 자료에는 최원식 교수님이 대표하신 걸로 나오는데.

황선진: 최원식 교수님이 인문련을 대표한 적은 없어요. 그때 사무국장이 송동수 씨고. 인하대 교수 분들을 의장으로 모셨는데, 두 분 모신 것 같아요.

이형진: 요건 구체적으로 이후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재: 아니, 인천민주화운동사에 문화운동 부분을 송동수가이 썼거든? 그게 송성섭이야. 근데 걔는 원식이 형이 초대의장 한 걸로 기록했는데?

이형진: 네, 그렇게 적혀 있어요.

황선진: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

이형진: 네, 92년에는 독자 후보론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시게 됩니다. 88년, 87년 투쟁에 이후에 민중운동들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지역의 노동조합들도 많이 성장하죠. 그리고 민중운동도 영향들이 배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서 88년으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흐르고 본인이 스스로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 결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황 선배님께서는 마흔, 마흔한 살 정도였거든요.

황선진: 그때 그래서 인천 지역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걸 그때 총선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의장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찬가지로 민중의 독자 세력화, 독자적 정치 세력화의 노선에 입각해서 그런 인천지역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도 만들고, 거기 의장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다섯 군데 후보 내고.

이형진: 예, 기억나시는 후보들 좀 살펴 보시겠습니까.

황선진: 송경평, 전희식, 이원주, 박귀현, 황선진, 이렇게 다섯 명. 그때 7개 선거구에서 다섯 개 들어갔으니까 많이 나간 거죠.

이형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황선진: 결과, 저야 한 6프로 정도 얻었고, 전희식이 한 7프로 정도 얻었고, 다 그 무렵에서 왔다갔다. 그때 열기가 꽤 좋고, 그 정도면 많이 얻었죠.

이형진: 예, 당선을 목표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성과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92년 이후에 조직으로 계속 정치 운동을 추동해 나가는 힘이 되었던 건가요?

황선진: 그렇지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대통령 후보, 가을인가요? 언제예요?

이형진: 87년부터 5년이니까 92년. 겨울이죠.

황선진: 그러면서 백기완 선생님 대선 득표율이 시원치 않았어요. 뭐. 2프로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동력이 많이 그때 약화됐지요. 그러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많이 흩어진 것 같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 어느 그룹은 이제 생활 들어갔기도 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그룹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길 찾아서 가는 그룹들도 있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한 번 밀어올렸던 때 같습니다. 그때 진정추라고 아마 진보정당추진위원회라고 남아있었던 것 같은 데.

이형진: 네. 그 이후로 그렇게 했죠.

황선진: 총선 이후에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인천시 본부장 맡아서 했죠.

이형진: 아, 마지막까지 진보정치의 희망을 놓지 않고 끌고 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황선진: 그렇죠. 그 민주노동당이... 언제 만들어졌나.

이형진: 민주노동당은 한참 후에 일이고요.

황선진: 그 연장선. 진정추 활동이 이제 계속 이어졌죠. 이어져서 그 활동을 하다가.

이우재: 하다가. 저기 저 무슨 연합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글로 가기 시작한 거죠, 뭘. 울산연합이니, 뭐니, 있잖아. 경기도 뭐 연합.

황선진: 어, 그런가?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하다,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우재: 그다음에 흐지부지하다가 그 내리 남아 있는 것들 그걸 심상정이랑 이렇게 가져갔잖아. 저기 단병호 선생이나 이렇게 가져가는데 거기에 힘을 보탠다고 전국연합 애들이 들어오면서 민주노동당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맥이 그런 부분에서 흐지부지된 거지.

황선진: 민주노동당까지 갔다가 초대 중앙위원 했으니까, 그게 이게 인천에서 중앙위원으로 한 명 올라왔나 두 명 올라왔나.

이형진: 황 선생님. 95년에는 선생님께서 강화에서 마리학교라는 걸 처음 개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선진: 2003년 설립이에요. 2004년도에 신입생 모집했으니까 이제 10년 동안은 제가 95년도에 제가 이제 1975년에 내가 맑스 레닌주의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공부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95년도까지 갔습니다. 맑스 레닌으로서의 신조가. 그런데 이제 95년도에 불가에 귀의하고 2년이 돼서 한 20일 동안 화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화두라는 게 뭐고. 전통적인 화두거든.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철학의 근본 문제가 물질이냐 정신이냐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정신이다 그러는 건 관념론으로 치부하고 어떤 물질이냐 그런 게 유물론으로 돼서 그런 게. 그런데 불가 공부하고 나니까 철학의 근본 문제가 틀렸구나, 정신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것이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갖게 됐고, 그 이후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 나름대로는 가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서 품었던 생각이 '세상을

바꾸자' 에서 '세상을 살리자'로. 대표적인 구호가. 그때 이제 그래서 99년도에 인천에서 제1회 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상을 살리자'라는 구호로, 교육청에서도 지지해서 백일장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형진: 생명축제를 인천대공원서.

황선진: 99년도입니다. 95년도에 제가 전환이 돼 가지고, 그러면서 운동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운동의 방향이 뚜드려 엎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래서 전환이 됐고, 2000년도에 드디어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저기 저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선맥과 연결이 돼서 선가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깊은 그 공부의 세계가 있고, 수련하고 겸하는, 단순히 수련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까지 아우르는 그런 세계를 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셈이죠. 불가, 선가, 도가 이렇게 쭉 오는 셈이죠.

이형진: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서 마리학교를 열게 되신 것은 그 정식 학교가 아닌 형태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이게 청소년,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황선진: 제가 인천 생활을 유지를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이형진: 예. 강화로 귀향을 하신 건가요?

황선진: 강화로 이제 밀려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강화로 가서 빈집 찾아다녀서 한참 다니다가 이제 겨우 백에 10만원 짜린가 집을 구해서 강화살이가 시작됐고.

이형진: 이천년 초였습니까? 99년.

황선진: 99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강화로 간 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마리 서당이라는 서당 훈장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이제 거기서 모인 인연들이 그래도 꽤 돼요. 그래서 그분들 학부모들하고 같이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에 뜻을 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그 생각을, 과거의 소박한 민족주의에서 맑스 레닌주의에서 불가, 선가 거치면서 뭐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마침 그 지역 사람들이 훈장 노릇을 시켜줬고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또 재미를 느꼈고 그러면서 대안학교까지 설립하게 된 셈이죠.

이형진: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학업을 지도하신 건가요?

황선진: 그렇죠.

이형진: 중고등학생 연령에.

황선진: 일단 중학생부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컸던 사람들이 다 자녀들을 두기 시작했을 때거든. 그게 대안학교 저변을 이룬 어디든지 전국에 그중의 하나로 강

화에서 마리학교를 개설하게 된 거죠.

이형진: 어쩌면 사회를 바꾸는 일에서 이제, 조금 돌아와서 그니까, 아이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황선진: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거기 가서도 생명 축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한 10회 정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형진: 아, 생명 축제를요?

황선진: 예, 그때 한 일이 뭐 마찬가지로 세시풍속 정월대보름 놀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 생명축제 하면서 천제, 제천 했고.

이형진: 제천의식을 진행하셨던 건가요?

황선진: 제천의식을 제가. 강화에서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명산 찾아다니면서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형진: 제천의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황선진: 제천의식은 이제 제가 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제천이라는 게 당대 핵심적인 의제, 당대 핵심적인 의제를 가지고 화백회의를 해요. 그래서 화백회의의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천의식의 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핵심적인 의제를 화백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하늘에 고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물건들을, 선물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서로 나누는 일, 그리고 이제 대동놀이 하고. 이게 세 가지거든요. 신시, 화백, 풍류라 그랬어요. 그거를 김지하 선생이 정식화시킨 거는, 신시는 지금은 좀 잘못된 것이지만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그 화백은 아까 얘기한 당대 핵심적인 의제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 풍류는 대동 얘기하고. 그때 제천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통일 문제, 민간 통일 특구를 건설하자 라는 결론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라크 파병을, 그때 뭐 이라크 파병 문제가 그때 있었었죠. 그걸 해서 결론을 내려서 또 마찬가지로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제천의식입니다.

이형진: 관통하는 사상은 민족과 평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황선진: 어, 평화, 민족, 그니까 모든 만물의 하나됨, 하나됨과 어울림, 우리 민족 정신을 한 마디로, 두 단어로 하면 하나됨과 어울림이거든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모든 생명이 우주와 하나됨, 그리고 어울림, 하나됨과 어울림이 이제 핵심적인 정신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 정신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걸 하느라고 평화가, 평화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됨과 어울림을 하느라고 평화가 있는 거고.

이형진: 황 선생님. 75년에 오둘둘 사건 이후에 90년까지로 잡는다면 약 15년간은 선생님의 삶은 민주화 운동과 반독재 저항이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민족 문화에 심취하셨고 그걸 어찌 보면 힘으로 삼아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 오셨던 거거든요. 그니까 선생님께서 민족 문화 또

는 탈춤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젊었을 때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선생님께 어떤 영감들을 불러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그런 운동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진: 일단은 그 일을 배우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해방감이라 그럴까요. 민중들과 하나되는 것, 그런 문화들, 탈춤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그런 게 민중문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서 오는 민중들과 하나되는 길을, 그걸 함으로써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 전체에 어떤 그 운동에 기여한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우리 전통 맥 하고도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끝까지 한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회 활동을, 며칠 전에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 전국민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됐어요. 그래서 올해 8월 15일 날 창립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의 3천 5백 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에 이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추구하는 일이, 이를테면 하늘과 하나됨, 이거를, 그런 공부 과정도 있어요. 그건 이제 마음공부 과정이기도 한데 그건 지금도 꾸준히 해서 안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선과 하나되어 라고 하는 단체로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요 정도 새로 시작을 했고요. 꾸준히, 그러니까 이 마리 학교 다음에 백일 학교란 걸 했거든요. 백일. 백일 동안의 학교입니다. 백일 동안의 학교는 우리 그 대안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걸 익히고 그 지혜와 기술, 이걸 이제 익히는 백일 동안의, 그래서 왜, 저 단군사화, 우리는 이제 사화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곰이 백일 동안 수련해서 인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모티브를 따 와 가지고 백일 학교를 10회까지 운영했어요. 제가 한 그중에 반은 백일 동안 이를테면 종군했습니다. 종군.

이형진: 학생들하고 직접?

황선진: 예. 버스, 대형 버스 사 갖고 대형 버스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스승들 찾아다니면서, 지금 백인 스승 정도가 돼요. 그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명단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백일 학교. 마리학교를 거쳐서 백일 학교. 제가 밝은 마을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체를 강화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대안적인 공동체, 미래사회를 향해서 가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맺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형진: 잠깐, 우리 이우재 선배님께서도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 없으십니까?

황선진: 이제 지금은 우리 수운 최재우 선생, 선생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운 최재우가 그, 혹시 검결이라고 들어봤어요? 검결이라고, 때가 왔다 시호 시호 이내 시호 부질내지 시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거든요. 남원에 용산에서 음, 수운 선생님은 당대의 혁명적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니까 임진란 거치고 병자호란 거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또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정권이 힘이 없어지고 하면서 각 도처에서 민란이 돌아오고 그럴 즈음에 당대 두 혁명적 그룹이 있었어요. 도를 닦는. 하나는 도맥이고 하나는 선맥인데 두 그룹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 세 번째 지도자가 최재우 선생이에요. 그리고 최재우 선생 때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하늘님하고 통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분이 내다본 거야. 이제 내다본 시기가 1860년부터 2040년까지. 이거 두 분은 혹시 이해할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원

래 제가 만신만 돼도 앞을 내다볼 수 있잖아요. 만신의 신격에 따라서는 더 멀리 보는 분도 있고 좀 작게 보는 분도 있지만 앞날을 예견하고 그러는데 하늘과 통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내다보기도 하는데 수운 선생이 예언한 바는 2040년까지를 한 시기로 봐서 드디어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때가 왔다. 오랜 옛날부터 품어온 그런 정신, 풍류도 정신, 또는 고조선의 단군정신, 더 나아가서 모든 사조를 아우르는, 그걸 아우른다고 봤어요 이미. 그래서 기독교, 그 때는 유불선인데, 유불선 포함 삼교의 최치원을 이어받고 기독교 맑스 레닌 모든 사조가 우리 땅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다 아우르는 다 회통하는 그런 새로운 사상이 이 땅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 그것이 이뤄진 시기를 이제 그분은 하원갑, 중원갑, 상원갑으로 구분을 했어요. 하원갑은 1860년부터 1920년까지. 중원갑은 1920년부터 1980년까지. 상원갑은 1980년부터 2040년까지. 그 해에 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919년부터 20년까지 3.1 대혁명이 일어났고, 1980년에 서울 민주화의 봄, 광주 항쟁이 일어났고, 근데 2040년까지는 다 이뤄진다, 그렇게 내다보면서 한 것이,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그동안 꿔왔던 모든 우리들의 꿈이 2040년까지는 이뤄진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그 실천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어, 오랜만에 뵙는 황선진 선배님께서 또 최근 2000년대 이후에 본인의,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강화에 계시지 않습니까?

황선진: 예, 작년에 지리산에 10년 생활을 일단락을 완전히 진 건 아닌데, 지금도 뭐 하긴 하는데, 어쩌다 다시 오게 됐어요. 온전히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 얼마 더 있을진 모르겠는데 상당 정도 강화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형진: 강화에서 가끔 계시면서 찾아 뵙고 인천에 한 번씩 오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진: 아하, 예.

이형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니까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당시로 보자면 당시의 민중들을 살리는 일이었다고 보여지시는지요.

황선진: 그런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아까 이제 수원 최재우 선생 말씀드렸는데, 동학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민중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악전고투하면서 그 농사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니까 30만 개의 씨가 동학 때 뿌려졌고 또 수백만 명이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우리가 그, 지금 살아 있는 이분들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80년대는 80년대의 몫을 한 것이다. 결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다. 허나 남아서 이제 우리가 따먹을 결실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형진: 감사합니다, 황선진 선생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